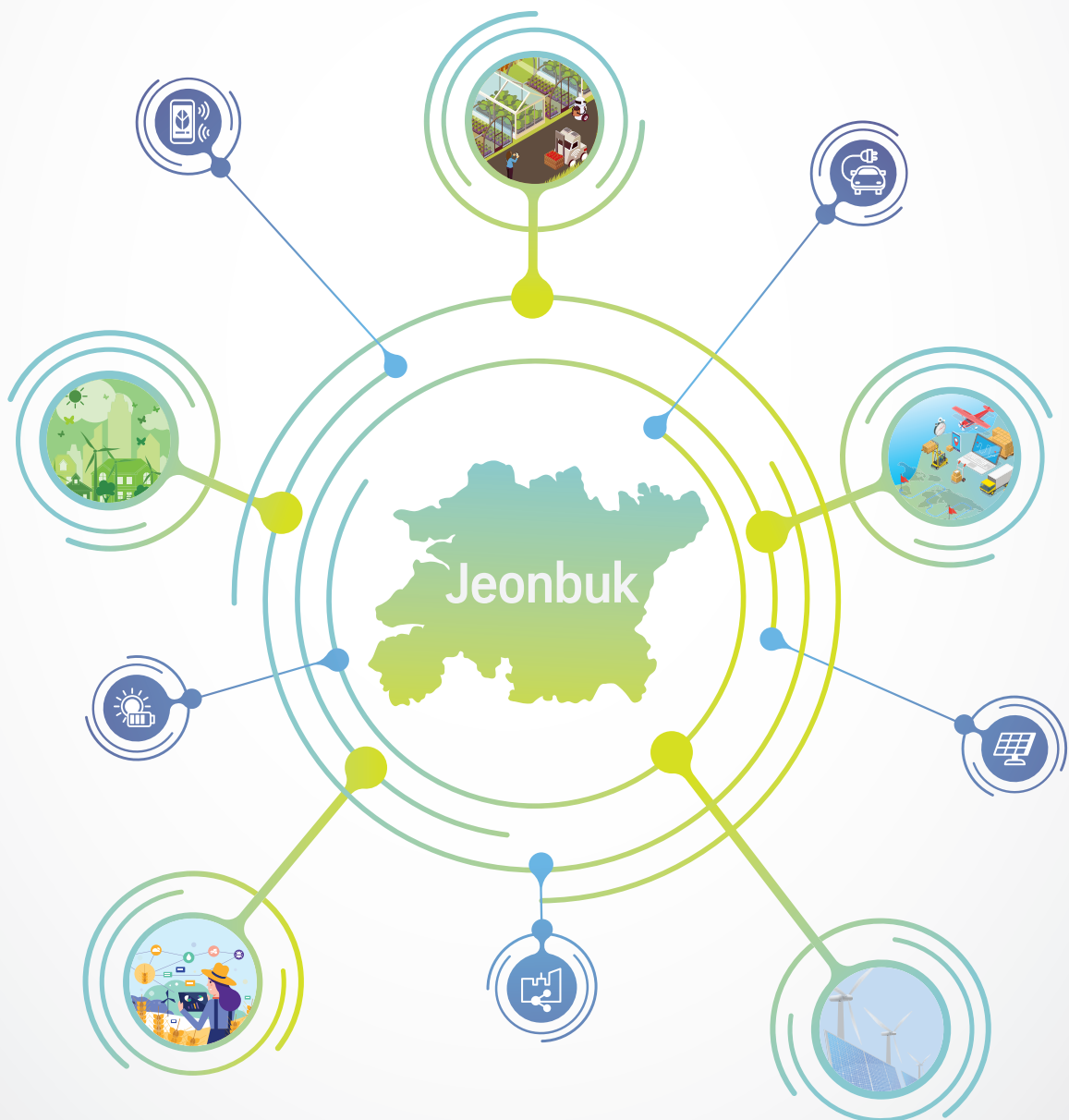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







#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 혁신성장축

- 전북연구개발특구
- 국제금융센터
- 수소국가산단 및 탄소국가산단
- 홀로그램산업 클러스터
-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 해양레저축

- 국립새만금수목원
-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 스마트 바다목장
- 아쿠아 디지털 트윈

## 동아시아 (서해안권)

## 남부생태 연계축

-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 섬진강 르네상스

## 생태문명축

- 그린수소클러스터 및 RE100 산단
-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 북부생태 연계축

- 백제역사유적지구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
- 만경강 생태관광지

## 대경권 (동서내륙벨트)

## 백두대간 힐링축

-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 태권시티
- 지리산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
- 자원순환 목재산업 클러스터

### 범례

- 철도(가정)
- 철도(계획)
- 고속도로(가정)
- 고속도로(계획)
- 공항
- 항만
- 철도역



광주전남권, 제주권



# 차례

I 계획 수립의 배경	1. 계획의 배경과 특징	1.1 계획의 수립 배경	003
		1.2 계획의 범위와 수립절차	006
	2. 도의 여건 및 전망	2.1 전라북도 현황	008
		2.2 관련 계획 검토	034
		2.3 이전 계획 평가	047
		2.4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053
		2.5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059
	II 계획의 기본방향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1.1 비전과 목표	075
		1.2 계획 지표	078
	2. 공간 형성방향		
		2.1 권역 및 발전축 설정	081
		2.2 공간구조 설정	082
		2.3 발전축 구상	085

### III 전략별 추진계획

1. 도약하는 지역발전과 미래가치 창출	1.1 상생도약과 균형발전	091
	1.2 전북형 스마트도시 조성	097
	1.3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102
	1.4 생태문명사회 전환기반 구축	111
2.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행복 전북 구현	2.1 기후변화시대 유연한 대응태세 확립	121
	2.2 지속가능한 전북 환경기반 조성	130
	2.3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전북	137
	2.4 지역 간 균형적인 복지제공기반 구축	144
	2.5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안전망 확보	159
3. 상생형 도농융합과 농산어촌 활성화	3.1 도농융합 상생, 의미와 전략	168
	3.2 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진화와 혁신	173
	3.3 농산어촌 지역순환경제 구축	175
	3.4 지역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육성	177
	3.5 농산어촌 지역생활 돌봄체계 강화	179
4. 미래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4.1 지속가능한 삼락농정 역량 강화	182
	4.2 글로벌 농식품 융복합 산업기반 강화	194
	4.3 미래 농산업 스마트 혁신거점 구축	203

5. 산업생태계 개편을 통한 新성장 동력산업 육성	5.1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그린뉴딜 추진	211
	5.2 글로벌 자산운용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222
	5.3 디지털 뉴딜 육성기반 구축	230
6. 스마트 산업기반 구축과 주력산업 고도화	6.1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	234
	6.2 매력적 산업생태 공간 구축	246
	6.3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256
7. 공생과 혁신을 통한 고품격 여행체험 1번지 육성	7.1 공생과 혁신의 지역문화	264
	7.2 모두가 함께하는 고품격 여행체험 1번지 육성	276
8.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SOC 대동맥 완성	8.1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국2 ·전북1시간 도로인프라 구축	289
	8.2 지역개발 여건 혁신을 위한 교통연계체계 구축	295
	8.3 시스템 혁신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북	301
	8.4 항만·물류산업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활용	306

<b>IV 계획의 실행방안</b>	<b>1. 행·재정계획</b>	1.1 행정계획	317
		1.2 재정계획	334
	<b>2. 재정투자계획</b>	2.1 재정투자방향	353
		2.2 투자계획	366
<b>V 시군별 발전방향</b>	<b>1. 시 지역</b>	1.1 전주시	371
		1.2 군산시	375
		1.3 익산시	378
		1.4 정읍시	382
		1.5 남원시	386
		1.6 김제시	390
	<b>2. 군 지역</b>	2.1 완주군	395
		2.2 진안군	399
		2.3 무주군	403
		2.4 장수군	407
		2.5 임실군	411
		2.6 순창군	415
		2.7 고창군	419
		2.8 부안군	423
<b>부록 : 투자사업 목록</b>			429

# 표 목 차

표 1-1	경·위도 상 위치	9
표 1-2	기상 개황	10
표 1-3	해안선 및 도서 현황	10
표 1-4	하천 현황	11
표 1-5	행정구역별 면적 및 행정 단위	12
표 1-6	시도별 재정자립도 비교	12
표 1-7	인구 변화 추이	13
표 1-8	시군별 인구 변화 추이	14
표 1-9	도시인구 변화 추이	14
표 1-10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추이	15
표 1-11	가구원수 규모	16
표 1-12	최근 20년간 인구이동 추이	18
표 1-13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19
표 1-14	도시계획 지정현황	20
표 1-15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추이(전국, 전북)	21
표 1-16	산업별 총생산액 변화 추이	21
표 1-17	경제활동지표	22
표 1-18	도로보급률 현황(전국, 전북)	23
표 1-19	도로 현황	24
표 1-20	주요 교통시설 현황	24
표 1-21	주택보급률 추이(전국, 전북)	25
표 1-22	상하수도 보급률 추이(전국, 전북)	26
표 1-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6
표 1-24	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27
표 1-25	시군별 의료인력 현황	27
표 1-26	시도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28
표 1-27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28
표 1-28	교육시설 현황	29
표 1-29	자연공원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30

표 1-30	시군별 문화재 보유 현황	31
표 1-31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32
표 1-32	시군별 지역축제 계획 현황(2020년)	33
표 1-33	해안권 및 내륙권 중 전라북도 대상권역	44
표 1-34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주요 내용	48
표 1-35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추진성과(계획지표)	51
표 1-36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추진성과(투자사업)	52
표 1-37	조사 설계	59
표 1-38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60
표 1-39	도민의식수요조사 응답자 기본 정보	60
표 2-1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계획인구	79
표 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지표	80
표 3-1	시군별 인구감소 위기 현황	92
표 3-2	전라북도 도시재생 추진 현황	97
표 3-3	시군별 빈집(30년 이상) 현황	98
표 3-4	시군별 빈집 현황	98
표 3-5	새만금 용지별 매립 현황(2019.12 기준)	104
표 3-6	전라북도 환경산업체 현황	123
표 3-7	전라북도 영급별 산림면적	123
표 3-8	전라북도 산림기능별 산림면적	124
표 3-9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125
표 3-10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25
표 3-1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131
표 3-12	산림서비스시설 현황	131
표 3-13	전국 광역환경교육센터 현황	133
표 3-14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항	133
표 3-15	STEEP 분야별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	134
표 3-16	광역시도 단위 지역안전지수 현황	138
표 3-17	전북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현황	138
표 3-18	전라북도 복지수급자 인구순위별 분포	144
표 3-19	전라북도 고령인구 비율 추이	147
표 3-20	전라북도 연령별 노인인구 추계	148
표 3-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주요내용	150
표 3-22	전라북도 부양비 추계	152



표 3-23	전라북도 시군별 보건기관 현황	160
표 3-24	전라북도 분야별 의료기관 접근성	160
표 3-25	전국 대비 전북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장애인 현황	161
표 3-26	전라북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변화	182
표 3-27	전라북도 농가소득 및 부채 추이	183
표 3-28	전라북도 경지규모별 농가분포	183
표 3-29	전라북도 부류별 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2018년)	184
표 3-30	전라북도 주요 가축 사육현황(2019년)	184
표 3-31	전라북도 경지면적 현황	184
표 3-32	전라북도 농가당 경지면적	185
표 3-33	전라북도 시설채소 온실현황	185
표 3-34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185
표 3-35	전라북도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185
표 3-36	전라북도 판매처별 농가현황	186
표 3-37	전라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실적	186
표 3-38	전라북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	187
표 3-39	전라북도 어업별 수산물 생산현황	187
표 3-40	식료품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94
표 3-41	종사자 규모별 식료품 제조업체 현황	194
표 3-42	전라북도 농학 연구개발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95
표 3-43	도내 식품분야 연구기관 현황	195
표 3-44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 주요 정책과제	198
표 3-45	종자업체 등록현황	203
표 3-46	전라북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2017~2021)	211
표 3-47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생산량	213
표 3-48	전북권 금융 관련 대학 현황	223
표 3-49	전라북도 산업비중(2017년 기준)	234
표 3-50	전북 수출 상위 10대 품목(2019년 기준)	234
표 3-51	전북 제조업 업종별 구성(2018년 기준)	235
표 3-52	지난 10년간 전국대비 전북 제조업 현황	236
표 3-53	전북 부가가치 상위 5대 업종 비교	236
표 3-54	전북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부가가치 현황	237
표 3-55	전라북도 제조업 시군별 업체당 종사자 및 부가가치 현황	238
표 3-56	한국 10대 수출 품목	239
표 3-57	전라북도 산업단지 현황	246
표 3-58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역 내 비중(2018년 기준)	247

표 3-59	전라북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247
표 3-60	전라북도 일반산업단지 현황	248
표 3-61	전라북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248
표 3-62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249
표 3-63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현황(2018년 기준)	250
표 3-64	전북 제조업 노동생산성	251
표 3-65	전북 연구개발비 현황	256
표 3-66	전북 연구개발비의 산학연 비중 현황(2018년 기준)	257
표 3-67	시도별 창업기업 생존율	258
표 3-68	전북 벤처기업 현황	259
표 3-69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259
표 3-70	지역문화실태조사(2019) 결과	264
표 3-71	‘문화비전 2030’의 주요 내용	270
표 3-72	도내 시군별 문화시설 조성 현황	271
표 3-73	전북권 관광객 추이 분석	276
표 3-74	시군별 관광객 추이 분석	277
표 3-75	전북권 관광객 만족도 추이 분석	278
표 3-76	전북권 지정 관광(단)지 현황	279
표 3-77	전북권 지정 관광특구 현황	280
표 3-78	전북권 관광 사업체 현황(2018년 기준)	281
표 3-79	전북투어패스 판매량 및 이용횟수	282
표 3-80	전국 교통수단별 교통량	290
표 3-81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291
표 3-82	전라북도 철도 현황	295
표 3-83	전라북도 철도 이용객현황	296
표 3-84	전라북도 BIS 설치·운영 현황	301
표 3-85	ITS설치 현황	302
표 3-86	대중교통 취약·사각지역	302
표 3-87	군산항 품목별 물동량	306
표 3-88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처리 현황	307
표 3-89	수출·입 실적	307
표 3-90	군산항 부두 현황	308
표 3-91	군산항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및 항로 현황	309
표 4-1	전라북도 행정조직 현황	317
표 4-2	전국 시도별 공무원 현원	318

표 4-3	전북 시군 공무원 총괄 현황	318
표 4-4	전국 시도별 지방의회의원 정수	319
표 4-5	전국 시도별 조례·규칙 보유현황	319
표 4-6	전라북도 연도별 조례·규칙 보유 현황	320
표 4-7	전국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320
표 4-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321
표 4-9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치	327
표 4-10	자치경찰 법안 주요내용	332
표 4-11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2020.1.1. 기준)	334
표 4-12	전라북도 시군별 예산규모(세출기준, 2020.1.1.기준)	335
표 4-13	전라북도 분야별 세출 현황	335
표 4-14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세출예산액, 세외수입액 현황(2020년)	337
표 4-15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	338
표 4-16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추이	339
표 4-17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자주도 추이	340
표 4-1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2020 기준)	341
표 4-19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연도별 분포 현황	342
표 4-20	연도별 국고보조금 비목별 추이	343
표 4-21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 분담 비율	344
표 4-22	2020년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사용액 세부내역(순계예산 기준)	345
표 4-23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관련 주요사항	347
표 4-24	단계별 재정분권 추진방안	347
표 4-25	지방교부세 규모 현황	351
표 4-26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시나리오	352
표 4-27	연도별 조세부담률	354
표 4-28	전국 시도별 경제성장률	357
표 4-29	중장기 세입 전망	358
표 4-30	OECD회원국(37개) 성장률 전망	358
표 4-31	재정수지 전망(2019~2020)	359
표 4-32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2019~2028)	360
표 4-33	기획재정부의 분야별 재정전망(2019~2023)	361
표 4-34	지방재정 회계별 세입전망	362
표 4-35	지방재정 시도별 세입전망(시군구 포함)	362
표 4-36	시도별·분야별 자원배분 비중	363
표 4-37	전라북도청 지방재정 회계별 세입전망	363
표 4-38	전라북도 및 시군별 지방재정전망(2020~2024)	364

■ 표 4-39 ■ 전라북도 자원별 재정전망(시군 포함, 2020~2024)	364
■ 표 4-40 ■ 전라북도 자원별 재정전망(시군 포함, 2025~2040)	365
■ 표 4-41 ■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투자계획	366
■ 표 4-42 ■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부문별 및 자원별 투자계획	366

# 그 림 목 차

■ 그림 1-1 ■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체계	5
■ 그림 1-2 ■ 도종합계획 대상지역	7
■ 그림 1-3 ■ 도종합계획 수립절차	7
■ 그림 1-4 ■ 국토 공간 상 위치	8
■ 그림 1-5 ■ 자연환경(지형, 하천)	11
■ 그림 1-6 ■ 인구 변화 추이 및 시·군 인구	13
■ 그림 1-7 ■ 성별 및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추이	15
■ 그림 1-8 ■ 시군별 고령화율 비교	16
■ 그림 1-9 ■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변화 추이	17
■ 그림 1-10 ■ 시군별 1인 가구 중 고령자 가구 비율 비교	17
■ 그림 1-11 ■ 시군별 인구이동 추이(2010~2019년)	18
■ 그림 1-12 ■ 시도별 1인당 GRDP 비교	21
■ 그림 1-13 ■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비율 비교(전국, 전북)	22
■ 그림 1-14 ■ 산업별 취업구조(전국, 전북)	23
■ 그림 1-15 ■ 주요 교통 및 철도망	24
■ 그림 1-16 ■ 주택유형 변화 추이	25
■ 그림 1-17 ■ 전라북도 지역안전등급 비교	28
■ 그림 1-18 ■ 전라북도 균형발전지표(만족도)	29
■ 그림 1-19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비전 및 추진전략	34
■ 그림 1-20 ■ 국토 공간전략 구상	35
■ 그림 1-21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전라북도 지역계획	38
■ 그림 1-22 ■ 국토생태축 기본구상	41
■ 그림 1-23 ■ 영산강 호남권 공간환경전략	43
■ 그림 1-24 ■ 서해안권의 비전 및 목표	45
■ 그림 1-25 ■ 백두대간권의 비전 및 목표	46
■ 그림 1-26 ■ 내륙첨단산업권의 비전 및 목표	46
■ 그림 1-27 ■ 전라북도 장래인구구조 변화	53
■ 그림 1-28 ■ 전라북도 소멸위험지수 전망	54
■ 그림 1-29 ■ 전라북도 폭염위험도 평가	57
■ 그림 1-30 ■ 한국판 뉴딜 개요	58

■ 그림 1-31 ■ 전북 발전 수준 응답결과	61
■ 그림 1-32 ■ 전북 우선 필요사업 응답결과	62
■ 그림 1-33 ■ 전북의 추구가치 응답결과	63
■ 그림 1-34 ■ 전북 적극 활용자원 응답결과	63
■ 그림 1-35 ■ 도민 삶의 질 분야 응답결과	65
■ 그림 1-36 ■ 지역발전 분야 응답결과	66
■ 그림 1-37 ■ 산업·경제 분야 응답결과	68
■ 그림 1-38 ■ 문화·관광 분야 응답결과	69
■ 그림 1-39 ■ 기반시설 분야 응답결과	70
■ 그림 1-40 ■ 환경 보전 및 이용 분야 응답결과	71
■ 그림 2-1 ■ 비전 및 목표	75
■ 그림 2-2 ■ 8대 추진전략 28개 과제	77
■ 그림 2-3 ■ 「제4차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상의 공간구상	81
■ 그림 2-4 ■ 5권 특화발전 방향	83
■ 그림 2-5 ■ 3X3 격자형 발전축 구상도	85
■ 그림 3-1 ■ 전라북도 읍면 지방소멸위험 현황	91
■ 그림 3-2 ■ 시군별 낙후도 지수	92
■ 그림 3-3 ■ 대도시권 미래시나리오 개념도	93
■ 그림 3-4 ■ 광역 단위 협력정책 사례	94
■ 그림 3-5 ■ 새만금의 지리적 여건	103
■ 그림 3-6 ■ 새만금 비전 및 목표	103
■ 그림 3-7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과 스마트수변도시	106
■ 그림 3-8 ■ 전라북도 미세먼지 연평균 분포도	121
■ 그림 3-9 ■ 전라북도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추이	122
■ 그림 3-10 ■ 2030년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17~2030년)	123
■ 그림 3-11 ■ 전라북도 영급분포도	124
■ 그림 3-12 ■ 전라북도 생태축 설정(안) 및 주요 생태관광자원 현황	130
■ 그림 3-13 ■ 전국 물 부족 지역 분포도	132
■ 그림 3-14 ■ 전국 물이용 지속가능성 지수	132
■ 그림 3-15 ■ 주요 자연재난 사망자 추이(2013~2017)	137
■ 그림 3-16 ■ 전라북도 복지수급인구 현황	145
■ 그림 3-17 ■ 전라북도 연령별 빈곤 추이	146
■ 그림 3-18 ■ 전라북도 소득분위별 가구규모(추정)	146
■ 그림 3-19 ■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추계	148

■ 그림 3-20 ■ 전라북도 노인인구 특성별 추정인구	149
■ 그림 3-21 ■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변화	151
■ 그림 3-22 ■ 노인통합돌봄 모델(안)	153
■ 그림 3-23 ■ 전국 노인일자리 관련 지표 추이	153
■ 그림 3-24 ■ 전북형 포용적 복지모형(안)	155
■ 그림 3-25 ■ 전라북도 자활정책 방향 및 자활사업 멘토링제 운영(안)	155
■ 그림 3-26 ■ 전라북도 생활권역별 복지인프라 구축(안)	156
■ 그림 3-27 ■ 전라북도 농촌지역 방문형 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체계	157
■ 그림 3-28 ■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사업분야	158
■ 그림 3-29 ■ 도내 시군별 의료기관 현황	159
■ 그림 3-30 ■ 전북 의료기관 위치	159
■ 그림 3-31 ■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2015년 기준)	161
■ 그림 3-32 ■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2015년 기준)	162
■ 그림 3-33 ■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168
■ 그림 3-34 ■ 소득만족도와 삶의 질 만족도 비교	169
■ 그림 3-35 ■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이슈	170
■ 그림 3-36 ■ 도농융합상생 기본방향	172
■ 그림 3-37 ■ 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진화와 혁신	173
■ 그림 3-38 ■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 구상(안)	174
■ 그림 3-39 ■ 읍면 생활경제권 구축 전략	176
■ 그림 3-40 ■ 농산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 전략	176
■ 그림 3-41 ■ 통합적 농업농촌 인력확보 전략	178
■ 그림 3-42 ■ 농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방안	180
■ 그림 3-43 ■ 농촌마을 노인통합돌봄 지원체계 전략	180
■ 그림 3-44 ■ 농촌 과소화지역 돌봄안전망 구축 방안	181
■ 그림 3-45 ■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188
■ 그림 3-46 ■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전망	189
■ 그림 3-47 ■ 국가식품클러스터, 미생물클러스터 육성 및 연계 개념도	196
■ 그림 3-48 ■ 전라북도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	196
■ 그림 3-49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연계 개념도	199
■ 그림 3-50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공간구상(식품·미생물 부문)	200
■ 그림 3-51 ■ 민간육종연구단지, 새만금 농생명지구 육성 및 연계 개념도	203
■ 그림 3-52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공간구상	207
■ 그림 3-53 ■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산업정책 역사	212
■ 그림 3-54 ■ 전라북도 주요 에너지 생산시설	214
■ 그림 3-55 ■ 태양광 에너지산업의 가치사슬	215

■ 그림 3-56 ■	풍력 에너지산업의 가치사슬	216
■ 그림 3-57 ■	재생에너지산업 융합 가능 전북 주력산업 공간도	218
■ 그림 3-58 ■	재생에너지산업 기술간 다차원적 융합화 분야	218
■ 그림 3-59 ■	새만금 권역 발전단지 조성 계획	219
■ 그림 3-60 ■	재생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조성 현황	220
■ 그림 3-61 ■	재생에너지 실증 거점 구축 계획	221
■ 그림 3-62 ■	전국 대비 전북 GRDP 및 금융보험업 생산 규모 비중	223
■ 그림 3-63 ■	전북국제금융센터 조감도	224
■ 그림 3-64 ■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 기업 현황	225
■ 그림 3-65 ■	대체투자시장의 이력과 향후 전망	226
■ 그림 3-66 ■	국내 연금시장 규모	227
■ 그림 3-67 ■	전북혁신도시 거점 금융산업 육성 방향	228
■ 그림 3-68 ■	스마트시티 플랫폼 실증 사업 사례	231
■ 그림 3-69 ■	데이터센터를 통한 신산업 개척	231
■ 그림 3-70 ■	전라북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전략	238
■ 그림 3-71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	240
■ 그림 3-72 ■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	241
■ 그림 3-73 ■	전라북도 산업단지 공간 분포	246
■ 그림 3-74 ■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분포	250
■ 그림 3-75 ■	21세기 미래형 산업단지 방향	252
■ 그림 3-76 ■	산업단지 관련 정부정책 흐름	253
■ 그림 3-77 ■	전라북도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257
■ 그림 3-78 ■	전북 과학기술 혁신역량	257
■ 그림 3-79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61
■ 그림 3-80 ■	전북 문화시설 및 활동 추이	265
■ 그림 3-81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도농격차 변화	266
■ 그림 3-82 ■	소득·연령별 문화예술 향유율 비교	266
■ 그림 3-83 ■	광역지차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종합지수 값의 표준편차 비교	267
■ 그림 3-84 ■	전북 시군 문화예술 비율 평균	268
■ 그림 3-85 ■	완주군 문화 예산 비중과 지역문화현황 종합지수 전국순위 변화	268
■ 그림 3-86 ■	전북투어패스 관련 상품	282
■ 그림 3-87 ■	현대 관광트렌드 및 국내관광 여건 전망	283
■ 그림 3-88 ■	국민해외여행 동향 분석 및 2020년 해외여행 트렌드 전망	283
■ 그림 3-89 ■	국가 관광정책의 방향과 핵심가치	284
■ 그림 3-90 ■	고속도로 접근시간 및 시·군간 우회율	289
■ 그림 3-91 ■	도로구간별 교통량 현황	290



■ 그림 3-92 ■ 도로소득 분석	291
■ 그림 3-93 ■ 전라북도 철도 현황	295
■ 그림 3-94 ■ 철도 수단분담률	296
■ 그림 3-95 ■ 공항이용객 추세 및 국제공항 분포	297
■ 그림 3-96 ■ 고속도로 접근시간 및 시·군간 우회율	297
■ 그림 3-97 ■ 시·군별 교통제어 시설(과속 및 다기능)	301
■ 그림 3-98 ■ 새만금신항만 단계별 향후 비전	311
■ 그림 4-1 ■ 전라북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17
■ 그림 4-2 ■ 시도별 지방소멸위험 현황	323
■ 그림 4-3 ■ 전국 생활사막지역 전망	324
■ 그림 4-4 ■ 정부혁신체계도	325
■ 그림 4-5 ■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	325
■ 그림 4-6 ■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326
■ 그림 4-7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실현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29
■ 그림 4-8 ■ 전라북도 정책소통플랫폼(전북 소통대로)	330
■ 그림 4-9 ■ RPA 적용기회 및 효과	331
■ 그림 4-10 ■ 전라북도 지역특성 및 치안수요 대응방향	333
■ 그림 4-11 ■ 생활사막 예방을 위한 마을 단위 공공·행정서비스 전달체계	333
■ 그림 4-12 ■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추이	339
■ 그림 4-13 ■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자주도 추이	340
■ 그림 4-14 ■ 전국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 수 추이	342
■ 그림 4-15 ■ 국고보조금 추이 및 분야별 비중	343
■ 그림 4-16 ■ 국고보조금의 지방분담률 추이	344
■ 그림 4-17 ■ 중앙과 지방 재정구조(2019년 본예산 기준)	345
■ 그림 4-18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346
■ 그림 4-19 ■ 지방소비세 추가확보에 따른 지방세 구조 변화	348
■ 그림 4-20 ■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재정파급도	349
■ 그림 4-21 ■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재정구조	350
■ 그림 4-22 ■ 2020년 국가재정(총수입과 총지출)	354
■ 그림 4-23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354
■ 그림 4-24 ■ 재정수지 추이	355
■ 그림 4-25 ■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계획	356
■ 그림 4-26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357



# I

---

## 계획 수립의 배경

### 1. 계획의 배경과 특징

#### 1.1 계획의 수립 배경

#### 1.2 계획의 범위와 수립절차

### 2. 도의 여건 및 전망

#### 2.1 전라북도 현황

#### 2.2 관련 계획 검토

#### 2.3 이전 계획 평가

#### 2.4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 2.5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 제1장 계획의 배경과 특징

### 1 계획의 수립 배경

#### 01 배경과 필요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확정·고시(2019.12.11.)됨에 따라 법정 하위계획인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국토종합계획의 정책적 기본방향 및 지역발전 방향을 수렴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전라북도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각 부문 및 시·군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광역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국토발전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필요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전라북도의 능동적 대응방안이 요구됨
  -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환경적 여건 변화 등 국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반영
- 도민의 가치변화에 부응
  - 문화 및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환경 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 필요

## 02 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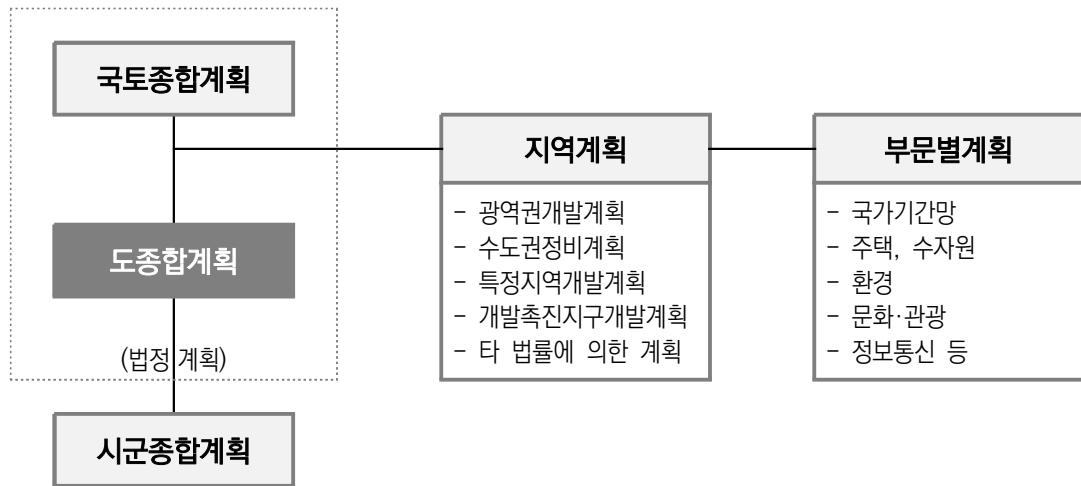
### 가. 목적

- 전라북도의 독자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계획 수립
  - 지역 특성 및 대내외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전라북도의 특화된 발전 유도
-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 확보, 도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정책의 연속성,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필요
- 시군종합계획에 대한 방향성 제시, 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수립
  - 시군 간 광역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된 대안 제시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실현가능성
  -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된 도내 지자체에서 수립된 하위 및 관련계획 등의 집행성 고려

### 나. 성격

-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도 단위 법정계획
- 상위계획의 구체화한 도 차원의 종합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등 상위계획의 전략과 정책방향을 이어받아 전라북도 단위에서 구체화
-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
  - 전라북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미래상 제시
- 하위 계획의 지침
  - 전라북도 내 시·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 제시

그림 1-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체계



## 다. 역할

### □ 지역발전에 대한 미래상 제시

- 전라북도의 발전방향 및 비전에 대한 구체적 미래상과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고취

### □ 도 및 시·군의 부문별 정책 방향 제시

- 도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여 도 및 시·군의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침 제공

### □ 국가 정책과의 연계 강화

- 국가 정책의 전라북도 실현방안의 구체화 및 지역적 정책 수요 및 미래발전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상호 연계 강화

### □ 민간부문 및 기업에 지역개발 정보 및 투자방향 제시

- 민간부문이 합리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유도

## 2 계획의 범위와 수립절차

### 01 계획의 범위

####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1년~2040년
- 기준연도 : 2019년
- 목표연도 : 2040년

#### □ 공간적 범위

- 계획구역 : 전라북도 전역(14개 시·군, 총 면적 8,069.07km<sup>2</sup>)
  - 시 지역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 군 지역 :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 내용적 범위

- 지역 현황·특성 분석,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목표와 전략,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기반시설구축,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 시·군별 발전방향 등 (국토기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도종합계획 수립지침 준용)

〈국토기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국토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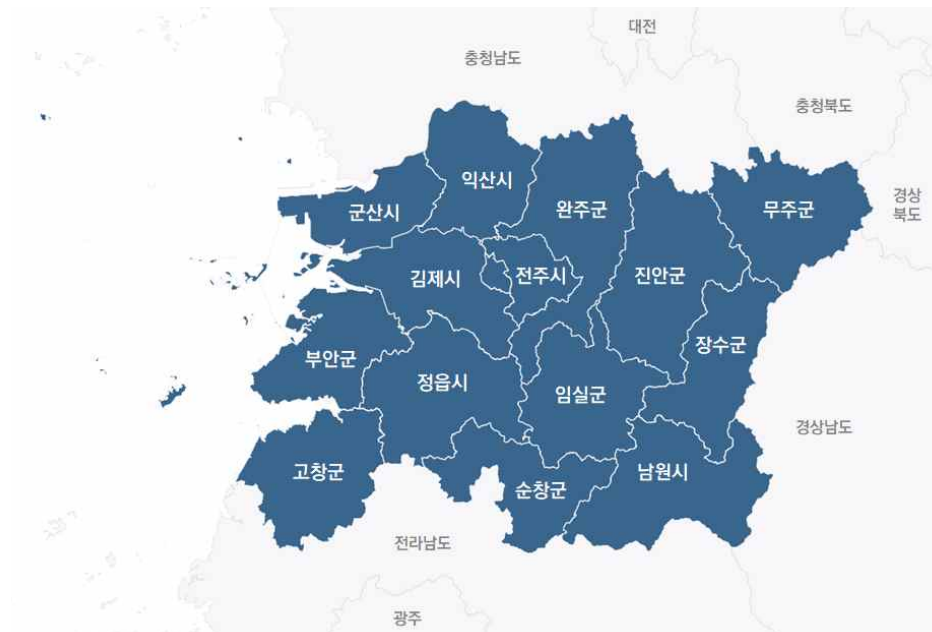
1.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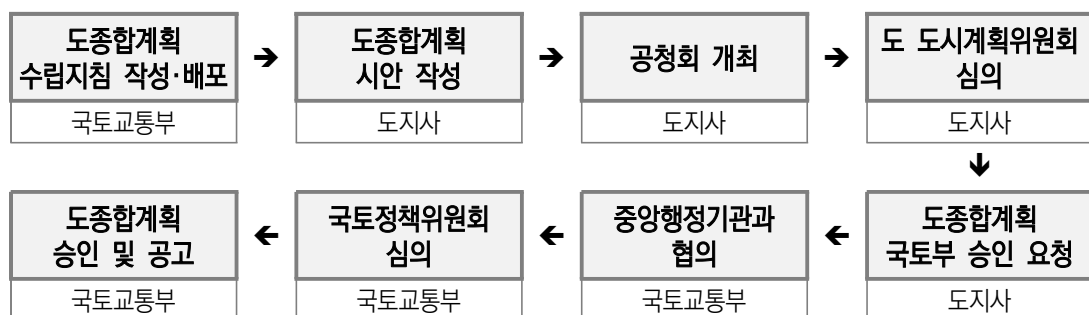
그림 1-2 도종합계획 대상지역



## 02 계획의 수립절차

- 도종합계획은 ①도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배포(국토부장관) → ②도종합계획 수립(도지사) → ③공청회 개최(도지사) → ④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지사) → ⑤국토부장관 승인요청(도지사) → ⑥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국토부장관) → ⑦국토정책위원회 심의(국토부장관) → ⑧도 종합계획 승인 및 공고(국토부장관)의 절차를 거쳐 확정
- ② 도종합계획 수립(도지사)의 과정에서 ‘국토-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18.3.28, 국토부, 환경부)’에 따라 지자체 계획수립협의회(의장: 부지사) 구성·운영을 통해 도환경보전계획과의 통합관리 추진

그림 1-3 도종합계획 수립절차



## 제2장 도의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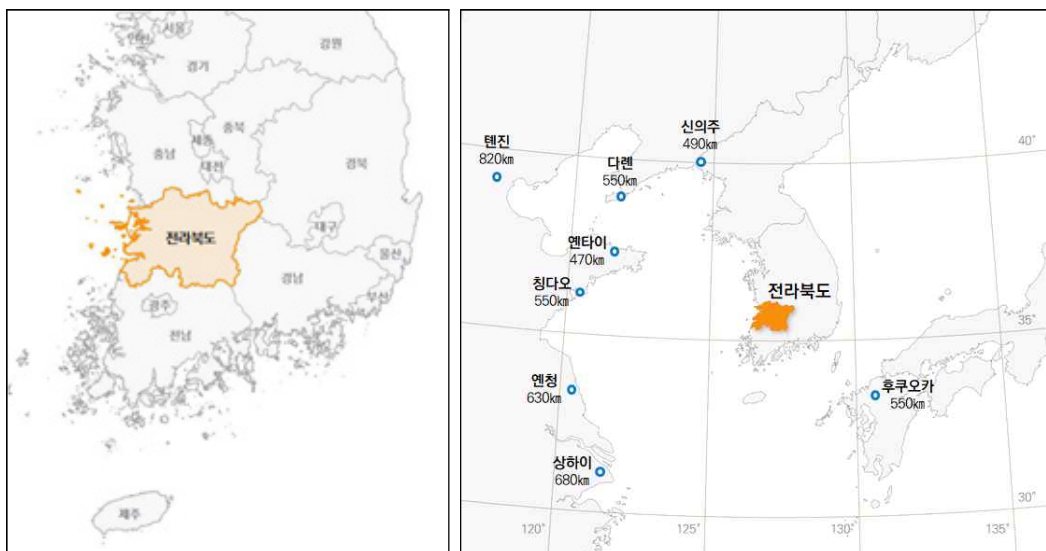
### 1 전라북도 현황

#### 01 입지여건

##### □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는 국토 서남부에 위치하여 북측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접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소백산맥 능선을 경계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남측으로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라남도와 접함
  - 동남으로 경남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과 경북 김천시와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전남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과 접해 있고, 북으로는 충남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과 충북 영동군과 접하고 있음
- 서해에 접하여 환황해경제권의 교류 거점으로서 지리적으로 유리함
  - 중국의 대련, 연태, 청도, 상해 등 주요 도시와의 거리는 400해리 정도
  - 인근 주요 항구 : 상해, 청도, 톈진

■ 그림 1-4 ■ 국토 공간 상 위치



〈전라북도 위치〉

〈중국 서해연안 주요항만과의 관계〉

표 1-1 경·위도 상 위치

단	지 명	극 점	연장거리
동 단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동경 127°54'40.1" 북위 35°56'56.7"	동 ↔ 서 약 175.2km
서 단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동경 125°57'59.8" 북위 36°07'34.3"	
남 단	순창군 풍산면 삼촌리	동경 127°06'19" 북위 35°17'57.4"	남↔북거리 약 95.1km
북 단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동경 126°57'23.9" 북위 36°09'23.6"	

자료. 2019 전북통계연보, 전라북도

## 02 자연환경

### □ 지형지세

- 전라북도는 동측의 산악지형에서 서측의 서해해안까지 서서히 낮아지는 계단식 지형, 전체 면적 중 51%가 표고 100m 이하의 평지이며, 100~500m가 33%, 500~1,000m가 13%, 1,000m 이상의 고지대가 2.5%로 구성됨
- 서측에는 군산반도, 진봉반도, 변산반도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측에는 소백산맥, 노령산맥, 진안분지 등이 위치하여 산악지형을 이루며, 중앙에는 김제평야, 만경평야 등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음

### □ 기후

- 전북은 온난성 기후대로 여름에는 고온다습, 겨울에는 한랭건조하며, 지형의 영향으로 남북보다 동서 간 기후차가 상대적으로 큼
  - 도내 서부지역은 서해의 영향으로 동부 산악지역에 비해 기온차가 작고, 강수량이 비교적 적으며, 동부지역은 서해안에 비해 기온차가 크고, 강수량이 많음
- 2018년 기준 평균기온은 13.9℃, 평균풍속은 1.7%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32.5mm로 대부분 6~9월에 집중됨
  - 바람은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는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계절에 따라 1~6월은 서풍, 7~8월은 남풍, 9~12월은 북서풍이 주 풍향임<sup>1)</sup>

1) 전라북도 대기보전 중기종합대책. (2007). 전북발전연구원

표 1-2 기상 개황

(단위 : °C, mm, %, %)

구분	기온			강수량	평균상대습도	평균풍속바람
	평균	최고	최저			
2001	13.9	19.5	9.2	1,019.4	66.0	1.7
2002	13.6	19.2	8.9	1,130.1	66.0	2.0
2003	13.4	18.5	9.0	1,860.3	69.0	1.8
2004	14.2	20.0	9.1	1,457.9	63.4	2.0
2005	13.3	18.7	8.6	1,390.0	64.0	2.1
2006	14.1	19.7	9.3	1,187.5	68.8	2.0
2007	14.0	19.3	9.5	1,471.7	69.9	1.9
2008	13.9	19.4	9.0	1,000.0	65.1	1.8
2009	13.7	19.5	8.7	1,163.9	63.8	1.9
2010	13.5	18.9	8.9	1,462.3	66.0	2.0
2011	13.1	18.7	8.4	1,621.8	66.0	1.9
2012	13.2	18.7	8.5	1,359.7	65.0	1.9
2013	13.8	19.6	9.0	1,264.7	67.0	1.8
2014	13.9	19.8	9.0	1,206.3	68.0	1.4
2015	14.2	19.6	9.7	813.5	69.7	1.6
2016	14.3	19.4	10.2	1,117.7	72.4	1.8
2017	13.6	19.0	9.2	947.8	70.0	1.7
2018	13.9	19.3	9.5	1,332.5	74.0	1.7

자료. 기상개황, 전라북도 통계연보, 각 연도

## □ 해안 및 하천

- 전라북도의 해안선의 총 연장은 약 549.5km에 이르며, 도서는 102개(유인도 25개, 무인도 77개)로 대부분 군산시와 부안군에 속함
  - 도내 가장 큰 섬은 부안군 위도(14.17km<sup>2</sup>)이며, 63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군산군도가 대표적임

표 1-3 해안선 및 도서 현황

(단위 : km, 개, km<sup>2</sup>, 명)

구분	해안선(도서부)	도서현황				
		계	유인도	무인도	면적	인구
전라북도	549.5 (299.9)	102	25	77	34.6	4,970
군산시	277.0 (197.0)	63	16	47	20.0	3,699
김제시	11.0	-	-	-	-	-
고창군	88.2 (6.4)	4	2	2	0.2	57
부안군	173.3 (96.5)	35	7	28	14.4	1,271

자료. 전라북도기본통계(2018), 전라북도

- 전북의 동부 산지에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가 있으며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며, 동서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흐름
  - 전북 내 하천은 총 471개소, 연장 3,269.5km로 국가하천 351.7km(11개소), 지방하천 2,917.8km(402개소)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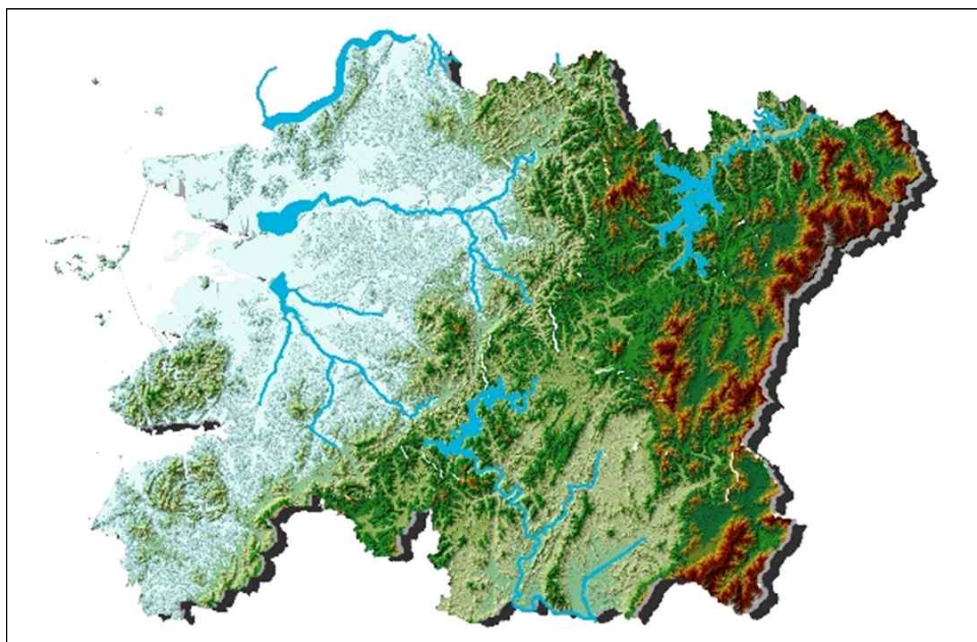
【표 1-4】 하천 현황

(단위 : 개, km, %)

구분		연장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개소수	연장	개소수	연장	수립률
합 계		471	3,269.45	413	2,791.49	85.38
국가하천	소 계	11	351.69	11	351.69	100.0
	금강	1	97.31	1	97.31	100.0
	강경천	1	2.66	1	2.66	100.0
	만경강	1	54.15	1	54.15	100.0
	소양천	1	6.83	1	6.83	100.0
	전주천	1	6.88	1	6.88	100.0
	동진강	1	19.20	1	19.20	100.0
	정읍천	1	18.02	1	18.02	100.0
	고부천	1	16.20	1	16.20	100.0
	원평천	1	16.20	1	16.20	100.0
	섬진강	1	96.41	1	96.41	100.0
	요천	1	17.83	1	17.83	100.0
지방하천	소 계	460	2,917.76	402	2,439.80	83.62

자료. 한국하천일람(2018), 국토교통부

【그림 1-5】 자연환경(지형, 하천)



### 03 인문환경

#### □ 행정구역

- 전라북도의 총 면적은 8,069.07㎢로 국토의 약 8.03%를 차지하며, 행정구역 상 6개 시와 8개 군으로 구성
  - 전주시를 제외한 5개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해당하며, 관할구역 면적은 완주군이 821.04㎢(10.18%)로 가장 넓고 전주시가 206.08㎢(2.55%)로 가장 좁음

표 1-5 행정구역별 면적 및 행정 단위

(단위 : ㎢, %, 개소)

구분	면적		구·읍·면·동				통·리·반		
	면적	구성비	구	읍	면	동	통	리	반
전라북도	8,069.13	100.00	2	15	144	84	2,902	5,234	24,374
전주시	206.04	2.55	2	-	-	35	1,283	-	6,837
군산시	396.68	4.91	-	1	10	16	481	342	2,708
익산시	506.54	6.28	-	1	14	14	542	584	3,273
정읍시	693.04	8.59	-	1	14	8	230	555	2,160
남원시	752.19	9.32	-	1	15	7	158	342	1,436
김제시	545.86	6.76	-	1	14	4	208	549	1,530
완주군	821.06	10.18	-	3	10	-	-	537	1,049
진안군	789.09	9.78	-	1	10	-	-	316	541
무주군	631.76	7.83	-	1	5	-	-	150	463
장수군	533.20	6.61	-	1	6	-	-	212	463
임실군	597.22	7.40	-	1	11	-	-	260	744
순창군	495.79	6.15	-	1	10	-	-	310	649
고창군	607.48	7.53	-	1	13	-	-	564	1,388
부안군	493.18	6.11	-	1	12	-	-	513	1,133

자료.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9), 행정안전부

#### □ 지방재정

- 전북 재정자립도는 2020년 기준 약 24.9%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해당

표 1-6 시도별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정자립도	45.2	76.1	49.2	45.4	54.0	41.1	41.4	51.6	59.3	58.6	25.8	30.1	34.4	24.9	23.3	27.1	34.3	32.9

주. 재정자립도=(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자료. 재정자립도, 행정안전부, 2020

## □ 인구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주민등록인구는 181.9만명으로, 1995년 대비 전국 대비 18.7만명 감소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인구비중은 3.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일시적 상승 및 정체기를 보였으나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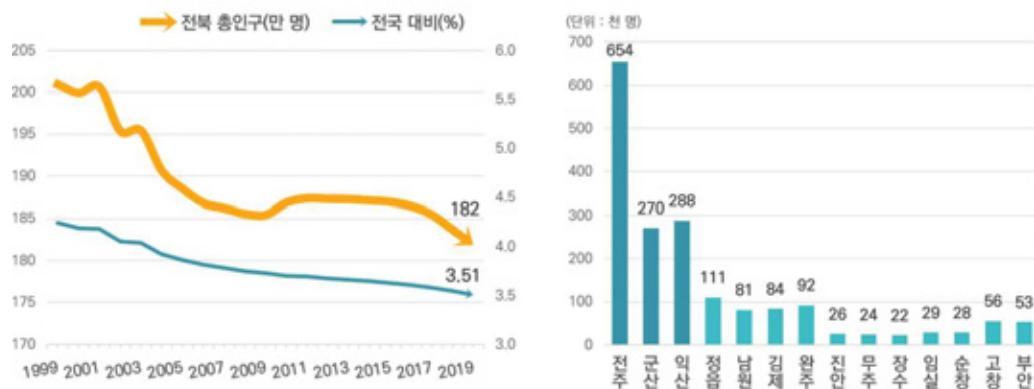
표 1-7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전 국	45,858,029	47,732,558	48,782,274	50,515,666	51,529,338	51,849,861
전 북	2,006,602	1,999,255	1,885,335	1,868,963	1,869,711	1,818,917
비율	4.38	4.19	3.86	3.70	3.63	3.51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그림 1-6 인구 변화 추이 및 시·군 인구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많은 도시는 전주시(65만), 익산시(29만), 군산시(27만) 순이며, 군 지역중 완주군의 인구가 9.2만으로 가장 많음
- 1995년 이후 시군별 인구변화는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주시의 전라북도 내 인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표 1-8 시군별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명, %)

지역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비율	연평균 증감율
전라북도	2,006,602	1,999,255	1,885,335	1,868,963	1,869,711	1,818,917	100.00	-0.41
전주시	569,804	620,521	621,749	641,525	652,282	654,394	35.98	0.58
군산시	275,819	277,491	263,120	272,601	278,398	270,131	14.85	-0.09
익산시	328,152	334,324	318,506	307,289	302,061	287,771	15.82	-0.55
정읍시	151,039	152,022	129,050	122,000	115,977	110,541	6.08	-1.29
남원시	109,185	103,571	93,670	87,775	84,856	81,441	4.48	-1.21
김제시	128,415	115,865	102,720	94,346	88,721	83,895	4.61	-1.76
완주군	86,461	84,009	83,651	85,119	95,303	92,220	5.07	0.27
진안군	40,086	31,273	29,021	27,543	26,203	25,697	1.41	-1.84
무주군	32,293	29,207	25,876	25,578	25,220	24,303	1.34	-1.18
장수군	31,485	30,051	24,755	23,386	23,277	22,441	1.23	-1.40
임실군	44,612	37,514	32,511	30,593	30,271	28,902	1.59	-1.79
순창군	39,728	34,587	32,012	30,209	30,248	28,382	1.56	-1.39
고창군	85,173	74,104	63,676	60,861	60,046	55,504	3.05	-1.77
부안군	84,350	74,716	65,018	60,138	56,848	53,295	2.93	-1.89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 도시인구

- 도시인구는 2019년 기준 143만 명이며 도시화율은 78.82%로 전국 평균 도시화율인 90.96%에 비해 낮은 수준

표 1-9 도시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연평균 증감율
전라북도		2,009,507	1,906,742	1,854,508	1,871,560	1,818,917	-0.50
도시인구	소계	1,428,237	1,409,228	1,412,370	1,449,085	1,433,720	0.02
	동	1,263,664	1,260,455	1,261,649	1,294,218	1,275,637	0.05
	읍	164,573	148,773	150,721	154,867	158,083	-0.20
농촌인구(면)		581,270	497,514	442,138	422,475	385,197	-2.04
도시화율	전북	71.07	73.91	76.16	77.43	78.82	
	전국	86.71	88.86	89.72	90.36	90.96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 인구구조

- 전라북도의 인구구조는 65세 이상이 20.38%로 1999년 대비 10.56% 증가하여 전국 수준인 8.76%대비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15~64세의 경제활동가능인구는 67.54%로 전국 72.05%대비 낮은 수준이며 20년간 전국이 0.17%감소한 반면, 전라북도는 2.59%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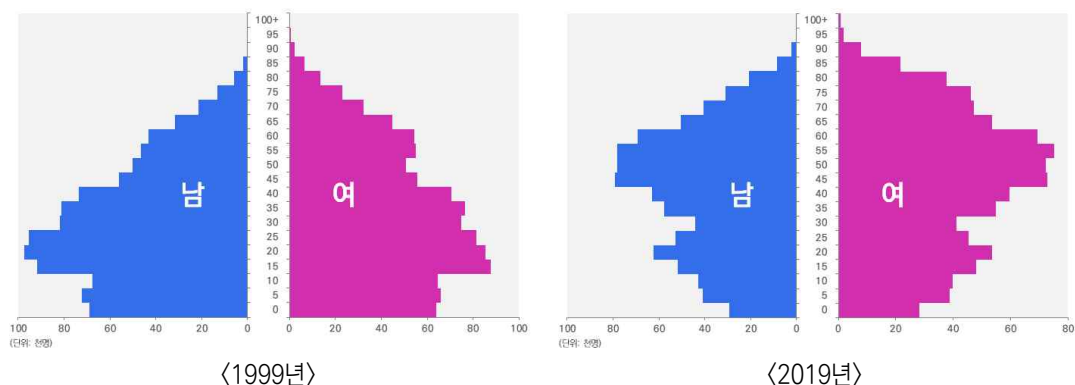
【표 1-10】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분	1999		2009		2019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14세 이상	9,971,167	402,980	8,248,987	307,415	6,466,872	219,684
비율	21.06	20.05	16.57	16.58	12.47	12.08
15~64세	34,184,009	1,409,226	36,256,450	1,269,411	37,356,074	1,228,557
비율	72.22	70.13	72.84	68.45	72.05	67.54
65세 이상	3,180,502	197,301	5,267,708	277,682	8,026,915	370,676
비율	6.72	9.82	10.58	14.97	15.48	20.38
노령화지수	31.90	48.96	63.86	90.33	124.12	168.73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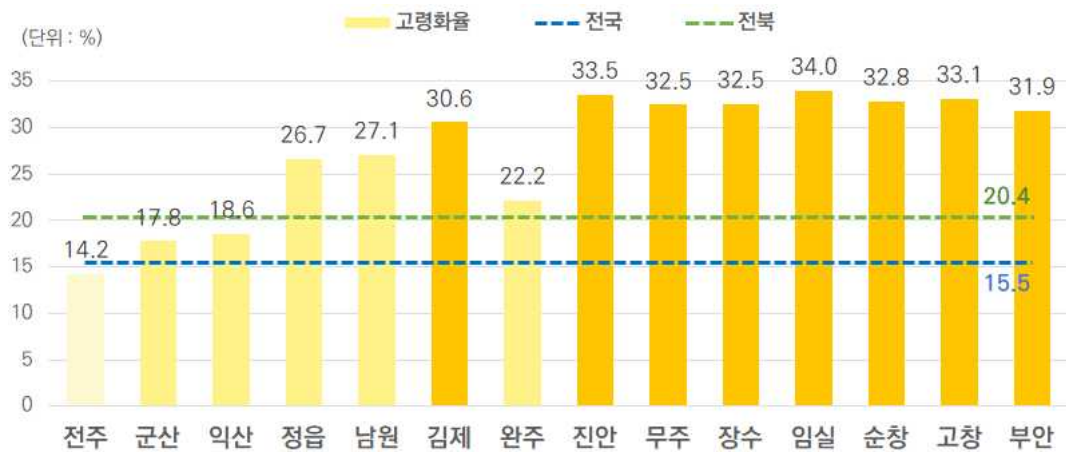
【그림 1-7】 성별 및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추이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전라북도는 고령인구가 20.4%로 전국 15.5%대비 고령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 전라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고령화율이 낮은 시군은 전주시(14.2%), 군산시(17.8%), 익산시(18.6%) 순이며, 완주군을 제외한 군지역은 30%를 상회함

그림 1-8 시군별 고령화율 비교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2019), 행정안전부

## □ 가구구조

- 전라북도의 가구구조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 31.7%, 2인 가구 30.0%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4인 가구 비율은 2000년 25.3%에서 2018년 13.9%로 감소하였으며, 5인 이상 가구도 15.1%에서 5.7%로 낮아지는 등 대규모 가구구성이 줄어들

표 1-11 가구원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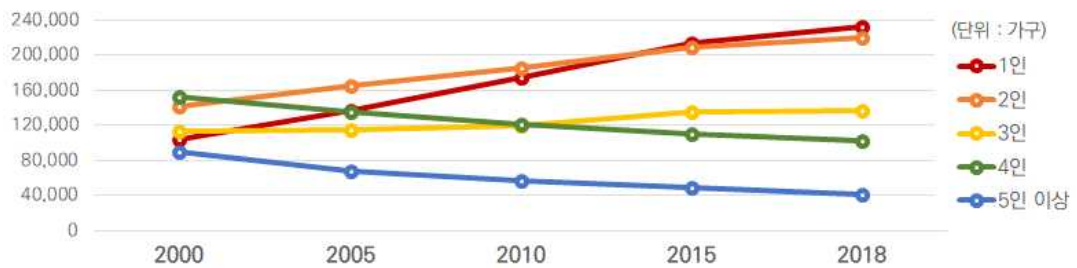
(단위 : 천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국	합계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9,111	100.0	19,979	100.0
	1인	2,224	15.5	3,171	20.0	4,142	23.9	5,203	27.2	5,849	29.3
	2인	2,731	19.1	3,521	22.2	4,205	24.3	4,994	26.1	5,446	27.3
	3인	2,987	20.9	3,325	20.9	3,696	21.3	4,101	21.5	4,204	21.0
	4인	4,447	31.1	4,289	27.0	3,898	22.5	3,589	18.8	3,396	17.0
	5인 이상	1,922	13.4	1,582	10.0	1,398	8.1	1,224	6.4	1,085	5.4
전북	합계	602	100.0	620	100.0	660	100.0	717	100.0	733	100.0
	1인	105	17.4	137	22.1	175	26.5	214	29.8	233	31.7
	2인	141	23.5	165	26.6	186	28.2	209	29.1	220	30.0
	3인	113	18.7	115	18.5	120	18.2	136	18.9	136	18.6
	4인	152	25.3	136	21.9	121	18.4	110	15.4	102	13.9
	5인 이상	91	15.1	68	11.0	57	8.7	49	6.8	42	5.7

주.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자료. 인구총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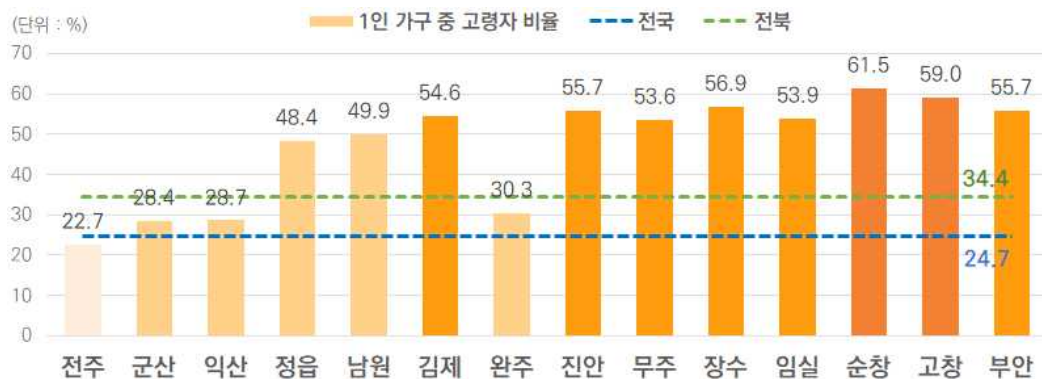
그림 1-9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변화 추이



자료. 인구총조사, 통계청

- 특히 1인 가구 중 고령자가구 비율이 높음. 도내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군 단위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1-10 시군별 1인 가구 중 고령자 가구 비율 비교



자료. 인구총조사(2018), 통계청

## □ 인구이동

- 전북의 인구이동은 최근 10년(2010~2019년)간 도내 이동 약 195만 명, 도외 전입 약 69만 명, 도외 전출 약 74만 명으로 순 이동인구가 약 50만 명 발생함
  - 2000~2009년 사이 인구이동은 도내 이동 약 255만 명, 지역 간 순 이동 약 20만 명 (전입 85만 명, 전출 105만 명)으로 이동인구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북에서의 전출이 전북으로의 전입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는 저출산과 더불어 지역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에 해당함
- 지역간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2000~2009년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2010~2015년에는 이동인구수가 감소하고 충청권으로의 인구이동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1-12 최근 20년간 인구이동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전입	전출	순유입	전입	전출	순유입	전입	전출	순유입	전입	전출	순유입
합계		1,787,335	1,921,579	-134,244	1,608,363	1,678,232	-69,869	1,418,170	1,426,948	-8,778	1,214,166	1,255,142	-40,976
도내		1,340,093	1,340,093	0	1,210,089	1,210,089	0	1,050,361	1,050,361	0	895,774	895,774	0
도 외	소계	447,242	581,486	-134,244	398,274	468,143	-69,869	367,809	376,587	-8,778	318,392	359,368	-40,976
	수도권	251,170	363,009	-111,839	223,410	279,244	-55,834	201,354	203,063	-1,709	162,353	183,191	-20,838
	강원권	8,147	9,200	-1,053	7,374	8,109	-735	7,442	7,420	22	6,898	7,454	-556
	충청권	66,628	83,758	-17,130	65,709	75,304	-9,595	59,710	67,703	-7,993	56,442	71,888	-15,446
	호남권	76,034	78,242	-2,208	62,084	65,416	-3,332	58,104	58,412	-308	54,999	56,757	-1,758
	대경권	13,346	14,322	-976	12,365	12,374	-9	12,066	12,548	-482	11,467	11,211	256
	동남권	28,435	29,091	-656	23,972	24,390	-418	26,224	24,091	2,133	22,115	23,406	-1,291
	제주권	3,482	3,864	-382	3,360	3,306	54	2,909	3,350	-441	4,118	5,461	-1,343

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도),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중 전북 제외),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제주도)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도내 시군별 최근 10년간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완주군과 장수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의 인구가 유출되었으며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시군은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순
- 전주시, 군산시는 시군간 이동으로 인구 유입되었으나 시도간 이동 인구가 많아 인구가 유출되는 경향을 보이며, 진안, 무주, 임실, 순창은 시도간 이동 인구는 유입되었으나 시군간 이동 인구가 많아 유출되는 경향을 보임

그림 1-11 시군별 인구이동 추이(2010~2019년)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04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 □ 토지이용

- 전북의 토지이용은 임야가 전체의 55.3%를 차지하며 답 18.6%, 전 7.9%, 도로 4.0%, 하천 3.4%, 대 2.8%에 해당
  - 전국 대비 임야, 대 등의 비율은 낮으며 답, 도로, 하천 등의 비율은 높게 나타남
  - 시군별 지목 현황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대' 면적이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으며 학교, 체육, 공원, 공장 등 시설용지 면적 또한 비교적 높음
  - 완주군과 동부 지역(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임야'가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며, 서부 지역(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은 '답'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13】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km<sup>2</sup>, %)

구분	계	전	답	임야	대	도로	하천	기타
전국	100,401.3	7,582.4	11,162.1	63,635.5	3,195.8	3,346.3	2,860.7	8,618.5
비율	100.0	7.6	11.1	63.4	3.2	3.3	2.8	8.6
전북	8,069.1	635.3	1,497.9	4,459.1	225.1	326.0	275.5	650.3
비율	100.0(8.0)	7.9	18.6	55.3	2.8	4.0	3.4	8.1
전주시	206.0	15.2	36.9	66.2	32.8	18.5	9.5	26.8
군산시	396.7	20.3	131.2	79.0	24.9	24.5	36.1	80.7
익산시	506.5	52.9	197.6	111.6	27.7	31.9	22.3	62.5
정읍시	693.0	73.9	173.2	318.5	20.0	28.9	15.1	63.4
남원시	752.2	41.0	124.9	471.2	14.9	30.7	20.0	49.5
김제시	545.9	53.4	217.0	115.1	19.7	28.9	53.2	58.5
완주군	821.1	45.2	79.8	587.7	17.9	24.8	22.2	43.5
진안군	789.1	40.3	46.3	606.9	7.6	17.9	17.7	52.3
무주군	631.8	36.6	30.7	512.4	6.6	14.4	17.7	13.4
장수군	533.2	31.1	47.0	398.7	6.0	16.5	11.3	22.7
임실군	597.2	41.2	59.5	407.4	8.4	18.9	12.2	49.6
순창군	495.8	37.3	71.9	325.2	7.9	16.8	12.5	24.1
고창군	607.5	93.9	140.7	261.1	16.8	29.3	8.1	57.6
부안군	493.2	53.0	141.3	198.0	13.8	23.8	17.6	45.7

자료. 지적통계(2019), 국토교통부

## □ 도시계획

- 전북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총 8,130.93㎢로 전국의 7.66%에 해당하며, 도시지역 비율은 10.90%로 전국(16.72%) 대비 낮은 편
- 전체 면적 중 농림지역이 3,993.73㎢(49.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어 관리지역이 2,568.42㎢(31.59%) 차지

【표 1-14】 도시계획 지정현황

(단위 : ㎢, %)

구분		전국		전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106,210.40	100.00	8,130.93	(7.66)
도시 지역	소계	17,763.34	16.72	886.38	10.90
	주거지역	2,700.67	15.20	125.81	14.19
	상업지역	338.00	1.90	16.97	1.91
	공업지역	1,218.87	6.86	65.68	7.41
	녹지지역	12,631.89	71.11	604.07	68.15
	미지정지역	873.91	4.92	73.87	8.33
비도시 지역	소계	88,447.06	83.28	7,244.55	89.10
	관리지역	27,260.55	25.67	2,568.42	31.59
	농림지역	49,301.29	46.42	3,993.73	49.1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23	11.19	682.40	8.39

자료. 도시계획현황통계(2019),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 05 산업 및 경제활동

### □ 지역총생산

- 2018년 전라북도의 GRDP는 당해년가격 기준 50조원으로 전국 GRDP 1,902조원의 2.7%로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에 해당함
  - 전라북도의 도민 1인당 GRDP는 2,780만원으로 전국 1인당 GRDP인 3,687만원 대비 907만원이 적음
  - 전국 총생산 중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3.17%, 2010년 2.84%, 2018년 2.66%로 낮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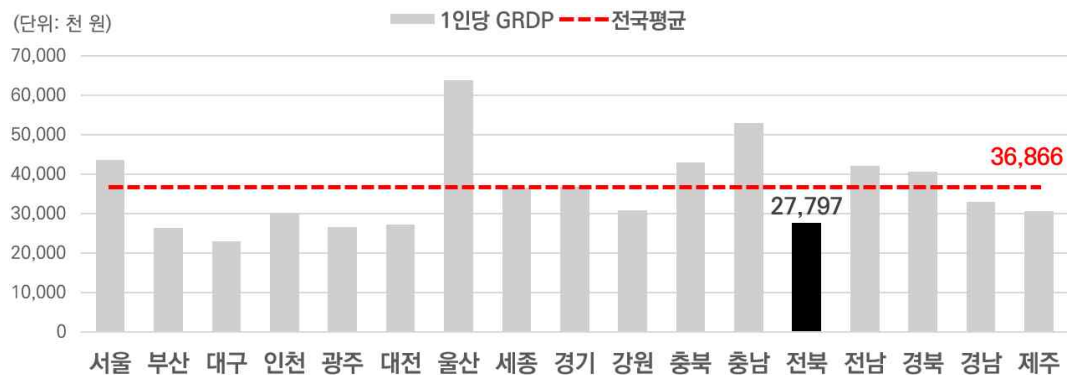
【표 1-15】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추이(전국, 전북)

구분	전국		전북		
	GRDP(백만 원)	1인당(천 원)	GRDP(백만 원)	전국대비(%)	1인당(천 원)
2000	655,879,090	13,952	20,816,142	3.17	10,802
2005	958,976,213	19,902	27,104,543	2.83	14,920
2010	1,327,443,926	26,788	37,740,823	2.84	21,016
2015	1,660,844,316	32,556	47,018,028	2.83	25,621
2018	1,902,527,946	36,866	50,595,318	2.66	27,797

주. 당해년가격 기준

자료. 지역소득, 통계청

【그림 1-12】 시도별 1인당 GRDP 비교



자료. 지역소득(2018), 통계청

## □ 산업구조

- 전라북도의 산업은 '서비스 및 기타'산업이 18년 기준 19조원으로 가장 높으며, 2013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 및 '광공업'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짐

【표 1-16】 산업별 총생산액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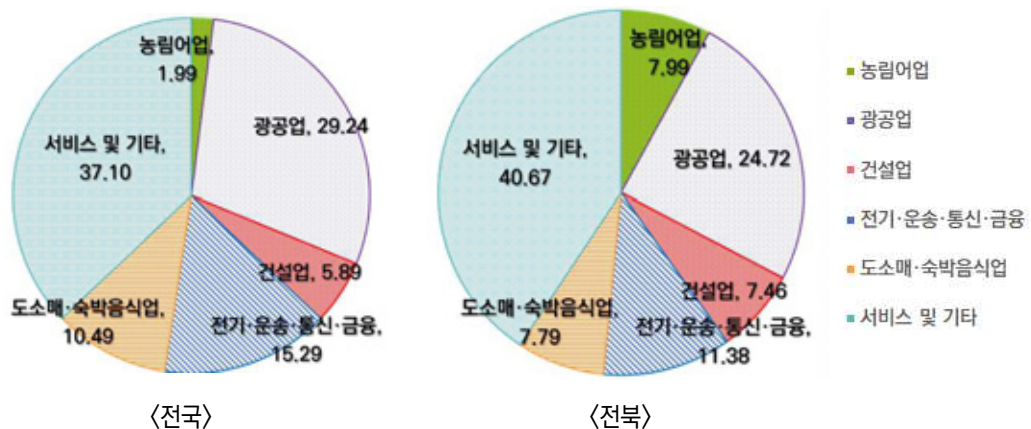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운송·통신·금융	도소매·숙박음식업	서비스 및 기타
2013	3,589,661	10,952,809	2,965,756	4,727,141	3,245,632	15,096,022
비율	8.85	26.99	7.31	11.65	8.00	37.2
2018	3,588,055	11,497,805	3,518,970	5,268,321	3,715,212	19,251,538
비율	7.66	24.55	7.51	11.25	7.93	41.1

주. 당해년가격 기준

자료. 지역소득, 통계청

- 전북의 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이 차지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 1.91% 대비 7.66%로 전국 평균 대비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8% 높음
  - 반면, '광공업'과 전기·운송·통신·금융'업의 지역내총생산액 비율은 전국 평균 4%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13 ■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비율 비교(전국, 전북)



자료: 지역소득(2018), 통계청

## □ 취업구조

- 전라북도의 15세 이상 인구는 156만명이며 그중 61%인 95.3만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전국평균인 63.3%대비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
  - 전라북도의 실업률은 2019년 기준 2.7%로 2015년대비 1%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표 1-17 ■ 경제활동지표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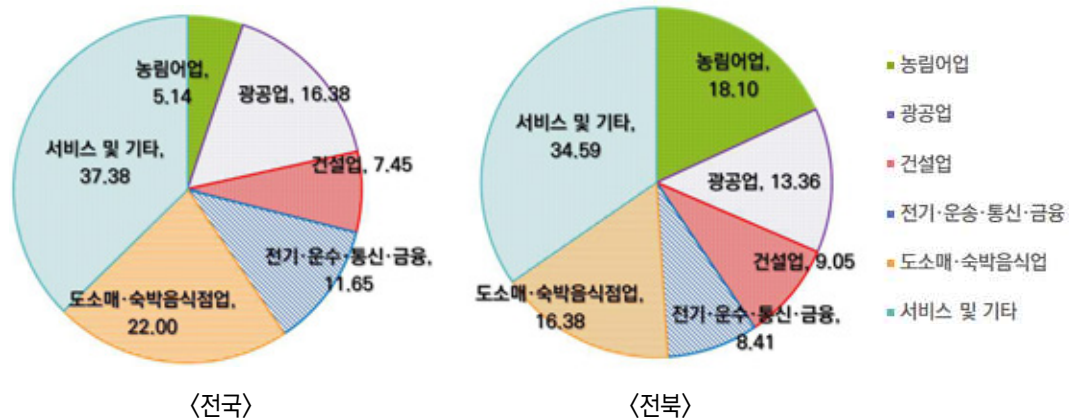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5세이상인구	1,559	1,569	1,571	1,569	1,563	44,504
경제활동인구	938	960	944	940	953	28,186
경제활동참가율	60.2	61.2	60.1	59.9	61.0	63.3
고용률	59.2	59.9	58.6	58.3	59.3	60.9
실업률	1.7	2.1	2.5	2.7	2.7	3.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산업별 경제활동인구는 '농림어업'이 18.1%로 전국 평균인 5.1%대비 13%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전국 대비 5.6%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14 ■ 산업별 취업구조(전국, 전북)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통계청

## 06 정주환경 및 기반시설

### □ 교통

- 도내 국도와 지방도를 포함한 도로포장률은 88%로 전국 수준인 93.5%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도와 군도의 포장률이 낮음

■ 표 1-18 ■ 도로 현황

(단위 : m, %)

구분	연장	포장도	포장률	미포장도	미개통도
전국	111,313,953.0	96,455,801.0	93.5	6,736,436.0	8,121,716.0
전북	8,530,900.0	6,832,721.0	87.6	965,202.0	732,977.0
고속국도	418,420.0	418,420.0	100.0	-	-
일반국도	1,454,538.0	1,440,174.0	100.0	-	14,364.0
지방도	1,894,178.0	1,581,373.0	88.7	202,100.0	110,705.0
시도	2,384,895.0	1,903,357.0	99.5	10,145.0	471,393.0
군도	2,378,869.0	1,489,397.0	66.4	752,957.0	136,515.0

자료: 도로현황(2018), 국토교통부

- 전라북도를 연결하고 있는 도로의 연장은 8,531km이며,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이

4.7km로 전국 평균인 2.1km/천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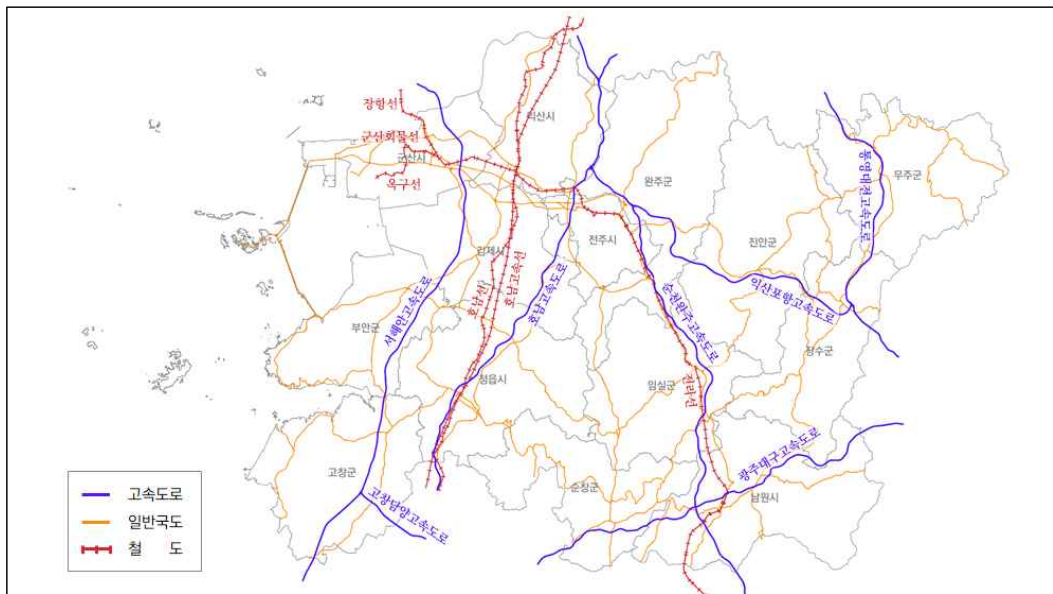
표 1-19 도로보급률 현황(전국, 전북)

구분	도로연장(km)	면적당 도로연장(km/km <sup>2</sup> )	인구당 도로연장(km/천명)	자동차당 도로연장(km/천대)
전국	111,314.0	1.1	2.1	4.7
전북	8,531.0	1.1	4.7	9.2

자료: 도로현황(2019), 국토교통부

- 주요 교통망으로는 남북축의 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있으며 동서축을 연결하는 익산포항, 광주대구, 고창담양 등 7개 노선이 있음

그림 1-15 주요 교통 및 철도망



- 도내 주요 교통시설인 항만과 공항은 군산항과 군산공항 1개가 조성되어있으며, 새만금신항만이 2025년 완공,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완공 예정임

표 1-20 주요 교통시설 현황

(단위 : 개, m<sup>2</sup>)

구분		항만	어항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전국	개수	281	509	22	14,196	646
	면적	114,138,058	61,318,953	82,507,580	434,322	12,641,323
전북	개수	2	8	1	595	39
	면적	72,467	1,847,468	1,447,81	17,483	250,256

자료: 도시계획현황통계(2019),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 □ 주택

-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 110.5%로 2010년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인 104.8% 대비 높음

표 1-21 주택보급률 추이(전국,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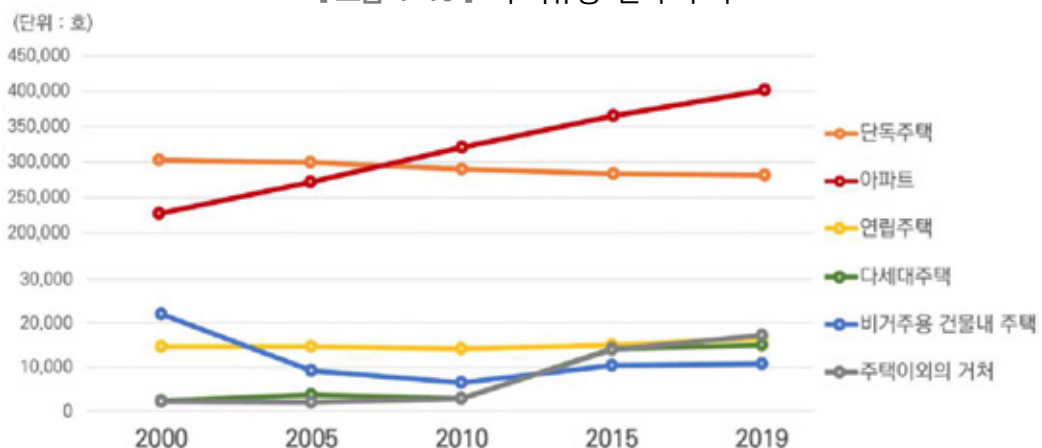
(단위 : 천 호, 천 가구, %)

구분	전국			전북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2010	17,655.7	17,738.8	100.5	667.2	711.8	106.7
2011	17,928.1	18,082.1	100.9	676.9	725.4	107.2
2012	18,209.2	18,414.4	101.1	686.8	735.3	107.1
2013	18,499.6	18,742.1	101.3	696.8	744.5	106.9
2014	18,800.0	19,161.2	101.9	707.0	760.1	107.5
2015	19,111.0	19,559.1	102.3	717.3	770.9	107.5
2016	19,367.7	19,877.1	102.6	724.7	777.8	107.3
2017	19,673.9	20,313.4	103.3	728.9	785.1	107.7
2018	19,979.2	20,818.0	104.2	733.0	802.0	109.4
2019	20,343.2	21,310.1	104.8	738.3	816.1	110.5

자료. 주택보급률, 국토교통부

- 2019년 전라북도의 주택은 2000년 단독주택 53%, 아파트 39.8%에서 2019년 단독주택 38.8%, 아파트 55.3%로 변화하여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짐
  - 2019년 기준 전국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21.6%, 아파트가 62.3%로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 대비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1-16 주택유형 변화 추이



자료. 인구총조사, 통계청

## □ 상하수도

- 전북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2018년 기준 각 97.1%, 88.0%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수준임

【표 1-22】 상하수도 보급률 추이(전국, 전북)

(단위 : %)

구분		2011	2005	2010	2015	2018	연평균 증가율	
							00~10	10~18
상수도 보급률	전국	87.1	90.7	94.1	96.5	97.0	0.8	0.4
	전북	74.4	81.9	91.0	95.6	97.1	2.0	0.8
하수도 보급률	전국	70.5	83.5	90.1	92.9	93.9	2.5	0.5
	전북	42.8	70.8	80.8	85.9	88.0	6.6	1.1

주. 상수도 보급률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인구/총인구\*100

자료. 상수도 보급률(상수도통계, 환경부, 해당년도), 하수도 보급률(하수도통계, 환경부, 해당년도)

## □ 보건·복지

- 전라북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0만 명으로 전국의 5.8%이며, 수급률은 5.5%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높음(전국 평균 수급률 3.4%)
  - 수급 유형별로는 일반수급자가 94.6%, 시설수급자가 5.4%이며 연령별로는 10대가 17.2%로 가장 많고 50대 14.7%, 60대 13.7%, 70대 12.9% 순

【표 1-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

구분		전국		전북	
			비율		비율
수급가구수*		1,165,175	100.0	64,597	(5.5)
수급자수		1,743,690	100.0	101,228	(5.8)
일반 수급자	소계	1,653,781	94.8	95,745	94.6
	0 ~ 9세	86,692	5.0	5,807	5.7
	10 ~ 19세	281,224	16.1	17,447	17.2
	20 ~ 29세	99,371	5.7	6,385	6.3
	30 ~ 39세	66,081	3.8	4,136	4.1
	40 ~ 49세	174,650	10.0	10,401	10.3
	50 ~ 59세	268,190	15.4	14,830	14.7
	60 ~ 69세	256,986	14.7	13,839	13.7
	70 ~ 79세	251,572	14.4	13,094	12.9
	80세 이상	169,015	9.7	9,806	9.7
시설수급자		89,909	5.2	5,483	5.4

주. 수급가구수 :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가구 수

자료.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9.7.), 보건복지부

- 전라북도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총 8,623개소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가장 많음

【표 1-24】 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총계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가족	영유아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지역주민	기타
이용	8,623	6,863	284	103	40	1,288	11	-	17	17
생활	409	238	59	70	15	-	22	5	-	-
정원	13,818	9,039	1,170	1,958	292	-	1,104	255	-	-

자료: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2019.12.31.기준

- 전북의 의료인력은 2019년 기준 9,169명이며,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3.0명으로 전국 평균(3.0명/천 명)과 동일하고 전국 시도 중 6위에 해당

【표 1-25】 시군별 의료인력 현황

(단위 : 명, 명/천명)

구분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천 명당 의사수
전라북도	9,169	3,689	917	934	1,427	1,730	287	185	3.0
전주시	4,081	1,741	431	378	587	723	142	79	3.9
군산시	1,145	405	115	118	193	239	57	18	2.4
익산시	1,580	654	179	141	233	283	63	27	3.4
정읍시	435	157	41	58	86	81	4	8	2.3
남원시	377	140	28	40	65	88	5	11	2.6
김제시	360	135	21	35	63	78	11	17	2.3
완주군	310	115	24	44	53	61	0	13	2.0
진안군	91	38	7	16	13	16	0	1	2.4
무주군	76	28	8	12	13	15	0	0	2.0
장수군	56	23	7	11	11	4	0	0	1.8
임실군	107	42	9	12	19	24	0	1	2.2
순창군	117	47	8	18	18	24	0	2	2.6
고창군	215	83	19	25	36	44	2	6	2.3
부안군	219	81	20	26	37	50	3	2	2.4

주.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주민등록인구) × 100

자료: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4/4분기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도내 시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전체 예산규모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7.9%로 전국 평균(29.7%)보다 비교적 낮으나, 전북본청의 사회복지 예산은 42.8%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음

표 1-26 시도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9.7	36.0	35.3	35.5	32.7	35.0	36.7	28.0	24.9	29.3	24.8	27.3	24.9	27.9	23.5	24.7	26.4	21.9
본청		35.8	40.1	35.4	34.0	38.2	37.6	29.2	23.9	41.5	38.0	39.8	37.9	42.8	35.2	38.2	41.0	21.7

주.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 전체 예산액(일반+특별)} × 100

평균은 예산순계, 본청은 예산총계 기준임

자료. 2020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행정안전부

-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보면 시 지역은 평균 32.3%, 군 지역은 평균 19.7%로 군 지역일수록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27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단위 : %)

구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비율	33.5	40.3	32.6	36.3	25.6	22.9	23.9	25.4	16.4	17.8	17.0	17.5	18.9	21.2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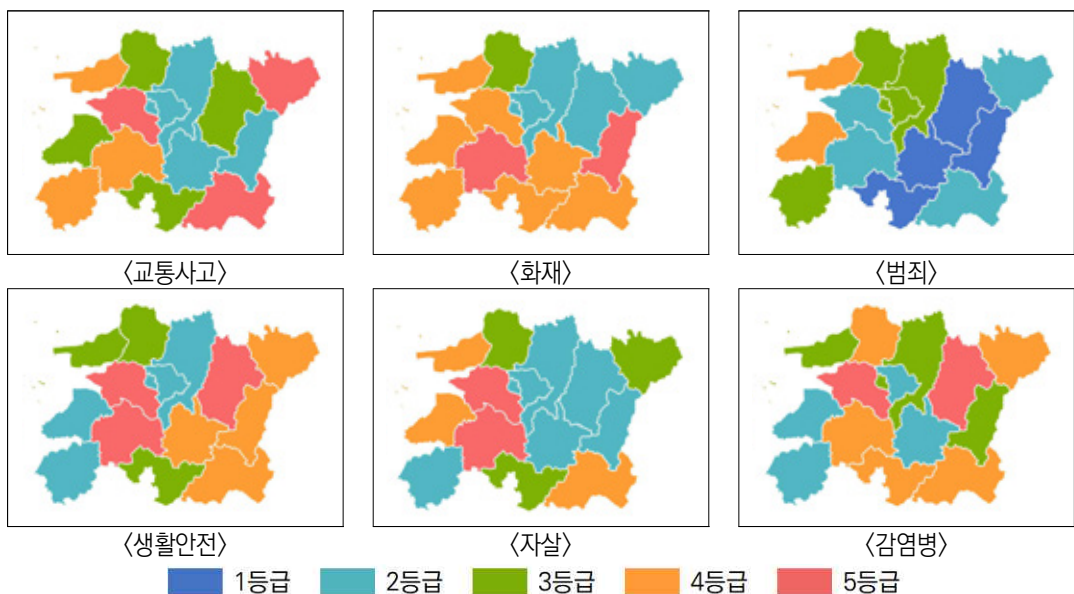
주.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 전체 예산총계(일반+특별)} × 100

자료. 2020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행정안전부

## □ 지역안전등급

-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019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전북은 범죄·생활안전 분야는 양호하나 화재 분야의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등급 : 범죄·생활안전 2등급, 교통사고·자살·감염병 3등급, 화재 4등급

그림 1-17 전라북도 지역안전등급 비교



자료. 2019년 지역안전지수, 행정안전부

## □ 교육

- 도내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419개, 중학교 209개, 고등학교 133개 등이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16명으로 전국 평균(15.51명)보다 낮음

표 1-28 교육시설 현황

(단위 : 개, 백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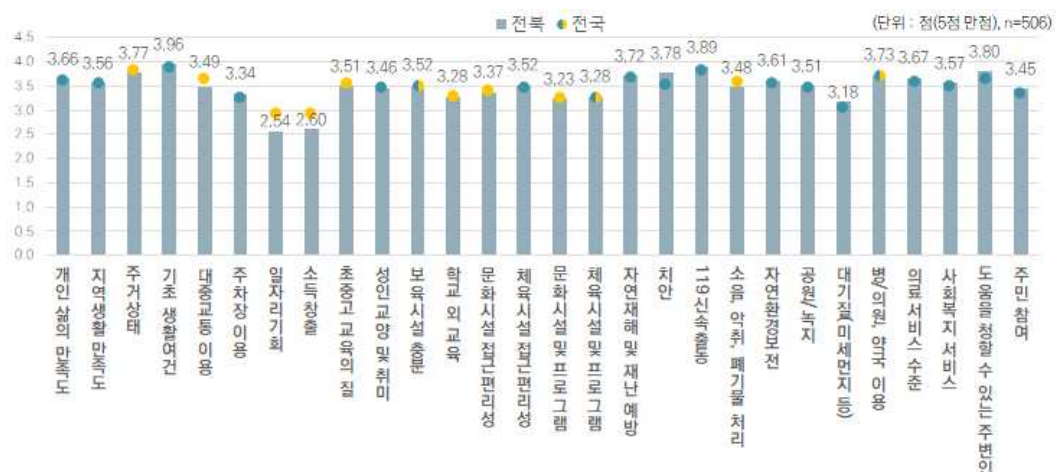
구분		합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국·공	사립		계	국·공	사립	계	국·공	사립	계	국·공	사립
전국	개소	20,671	8,837	4859	3,978	6,087	3,214	2579	635	2356	1410	946	177	86	91
	학생수	6,113	634	177	457	2,747	1,295	1,078	217	1,411	816	595	26	15	11
전북	개소	1,290	519	362	157	419	209	160	49	133	65	68	10	6	4
	비율	6.2	5.9	7.5	3.9	6.9	6.5	6.2	7.7	5.6	4.6	7.2	5.6	7.0	4.4
	학생수	226	22	8	14	98	49	35	14	57	24	33	1.1	0.7	0.4
	비율	3.7	3.5	4.3	3.2	3.6	3.8	3.2	6.5	4.0	3.0	5.5	4.4	4.6	4.0

자료. 교육기본통계(2019), 한국교육개발원

## □ 균형발전지표(만족도)

- ‘2019년 균형발전지표 지역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산업·일자리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치안, 시민참여·공동체 관련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 10개 분야 28개 항목 : 삶의 만족도(2), 주거(2), 교통(2), 산업·일자리(2), 교육(4), 문화·여가(4), 안전(3), 환경(4), 보건·복지(3), 시민참여·공동체(2)

그림 1-18 전라북도 균형발전지표(만족도)



자료. 2019년 균형발전지표 지역실태조사(만족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07 역사·문화·관광자원

### □ 생태자원

- 전북은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립공원 4개, 군립공원 2개 지정
-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 지정 3개와 해양수산부 지정 2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고창 운곡습지(1.797㎢)와 고창·부안갯벌(45.500㎢)는 란사르습지로 등록됨

표 1-29 자연공원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구분		공원명	위치	면적(k㎡)	지정일
자연 공원	국립공원	지리산	(전북)남원, (전남)구례, (경남)산청, 하동, 함양	483.022 (전북 111.482)	1967.12.29.
		내장산	(전북)정읍, 순창, (전남)장성	80.708 (전북 46.889)	1971.11.17.
		덕유산	(전북)무주, 장수, (경남)거창, 함양	229.430 (전북 187.673)	1975.02.01.
		변산반도	(전북)부안	153.934 (해상 17.227)	1988.06.11.
	도립공원	모악산	(전북)전주, 김제, 완주	43.309	1971.12.02.
		대둔산	(전북)완주, (충남)논산, 금산	59.933	1977.03.23.
		마이산	(전북)진안	17.220	1979.10.16.
		선운산	(전북)고창	43.683	1979.12.27.
	군립공원	강천산	(전북)순창	15.800	1981.01.07.
		장안산	(전북)장수	6.274	1986.08.18.
습지 보호 지역	환경부 지정	고창 운곡습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930 (개선지역 0.333)	2011.03.14. (‘11.04.06.*)
		정읍 영월습지	전북 정읍시 쌍암동 일원	0.375	2014.07.24.
		고창 인천강하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0.722	2018.10.23.
	해양수산부 지정	부안줄포만 갯벌	전북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일원	4.900	2006.12.15. (‘10.02.01.*)
		고창갯벌	전북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일원	64.660	2007.12.31. (‘10.12.13.*)

주. 란사르습지 등록일

자료. 자연공원(자연공원현황,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2018.10),  
습지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란사르습지 등록 현황, 환경부, 2020.2),



## □ 문화재

- 전북은 2019년 기준 국가지정문화재 210개, 시도지정문화재 467개, 문화재자료 157개, 국가등록문화재 86개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시군 분포 현황을 보면 남원시가 119개로 가장 많으며 전주시 105개, 익산시 100개 등 시 지역에 군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함

【표 1-30】 시군별 문화재 보유 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북	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계		920	6	105	51	100	89	119	74	50	38	34	39	37	37	84	57
국가 지정 문화재	소계	210	1	21	7	23	16	37	20	10	9	7	4	4	4	26	21
	국보	8	-	3	-	2	-	1	1	1	-	-	-	-	-	-	-
	보물	99	-	11	3	10	8	22	14	8	3	1	1	1	1	9	7
	사적·명승	48	-	4	2	7	5	7	3	1	2	3	1	-	-	7	6
	천연기념물	32	-	1	2	1	2	2	2	-	4	3	2	2	-	7	4
	국가무형 문화재	9	1	1	-	2	-	2	-	-	-	-	-	1	-	1	1
	국가민속 문화재	14	-	1	-	1	1	3	-	-	-	-	-	-	3	2	3
시도 지정 문화재	소계	467	5	63	17	42	47	53	39	34	17	22	14	19	22	40	33
	유형문화재	238	-	14	12	18	25	36	21	24	9	12	5	12	12	27	11
	무형문화재	79	5	37	2	8	2	4	5	2	2	2	1	1	1	2	5
	기념물	116	-	10	2	15	18	8	9	7	5	8	5	3	7	8	11
	민속문화재	34	-	2	1	1	2	5	4	1	1	-	3	3	2	3	6
문화재자료		157	-	14	5	14	18	29	7	3	9	4	14	11	11	16	2
국가등록문화재		86	-	7	22	21	8	-	8	3	3	1	7	3	-	2	1

자료. 국가문화유산포털(2019), 문화재청

## □ 문화공간

- 도내 문화기반시설은 2019년 기준 공공도서관 58개소, 박물관 41개소, 미술관 16개소 등이 운영 중임
  - 시군 중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전주시 34개소이며, 익산시 21개소, 완주군 15개소, 정읍시 14개소 순

표 1-31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158	34	12	21	14	8	10	15	5	7	4	5	8	7	8
공공 도서관	소계	58	13	6	7	5	3	5	5	1	2	2	2	2	3	2
	지자체	39	12	4	5	3	1	3	4	-	1	1	1	1	2	1
	교육청	18	1	2	2	1	2	2	1	1	1	1	1	1	1	1
	사립	1	-	-	-	1	-	-	-	-	-	-	-	-	-	-
박물관	소계	41	8	2	9	4	1	2	4	2	2	-	1	2	2	2
	국공립	28	4	1	6	4	1	1	1	2	2	-	1	2	2	1
	사립	9	2	-	2	-	-	1	3	-	-	-	-	-	-	1
	대학	4	2	1	1	-	-	-	-	-	-	-	-	-	-	-
미술관	소계	16	3	2	2	1	2	1	1	-	1	-	-	1	-	2
	국공립	7	-	-	1	1	1	1	1	-	1	-	-	1	-	-
	사립	9	3	2	1	-	1	-	-	-	-	-	-	-	-	2
	대학	-	-	-	-	-	-	-	-	-	-	-	-	-	-	-
문예회관		17	4	1	2	2	1	1	2	-	-	1	-	1	1	1
지방문화원		1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문화의 집		12	5	-	-	1	-	-	2	1	1	-	1	1	-	-

자료.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9.1.1.), 문화체육관광부

## □ 관광

- 2018년 기준 도내 지정 관광(단)지는 22개소(약 14.07㎢)가 소재하고 있으며, 관광특구는 2개소(약 11.06㎢)가 지정되어 있음
- 전북 시군별 지역축제는 2020년 총 63개가 계획되었으며, 각 시군별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운영 중
  -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는 3개(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순창장류축제), 예비 문화관광축제 2개(부안마실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지정됨

표 1-32 시군별 지역축제 계획 현황(2020년)

시군	시군대표축제	지역축제
전라북도	-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시	전주비빔밥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전주단오제, 전주한지문화축제(전주한지산업대전)
군산시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콩당보리축제
익산시	익산서동축제	익산 보석대축제, 두동편백마을 힐링숲축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정읍시	정읍구절초꽃축제	정읍벚꽃축제, 정읍향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정읍사문화제, 정읍 전국민속 소싸움 대회
남원시	흥부제	지리산바래봉 눈꽃축제, 춘향제, 지리산바래봉철쭉제
김제시	김제지평선축제	김제모악산축제, 지평선광활 햇감자축제,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
완주군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삼례딸기축제, 오성한옥마을오픈가든축제, 완주프리포즈축제, 완주고산촌뜰팡축제, 완주곶감축제
진안군	진안홍삼축제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축제, 진안고원 꽃잔디 축제, 진안고원 수박 축제,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
무주군	무주반딧불축제	무주산골영화제, 두문마을 낙화놀이
장수군	장수 한우량사과랑축제	변암 물축제
임실군	임실N치즈축제	임실 옥정호 꽃걸음빛바람축제, 임실 의견문화제, 임실 섬진강 다슬기축제, 임실 필봉마을굿축제, 임실 사선문화제, 임실 산타축제
순창군	순창장류축제	옥천골 벚꽃축제, 슬로슬로발효마을축제
고창군	고창모양성제	고창청보리밭축제, 바지락오감만족 페스티벌,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 고창갯벌축제, 고창해풍고추축제
부안군	부안마실축제	상서 개암동 벚꽃축제, 유유참봉축제, 남의봉축제, 곰소갯갈발효축제, 설송어축제

자료. 2020년 전라북도 시군 지역축제 개최계획(2020.3.2.),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 2 관련 계획 검토

### 0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sup>2)</sup>

#### 가. 계획의 개요

- 「헌법」 제120조제2항과 「국토기본법」 제6조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
-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며 부문 및 하위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 역할과 새로운 국가계획 수립 모델 선도

#### 나. 비전과 목표

- 현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공간에서 구현,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환경 조성
-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국토발전을 위한 3대 목표 제시

【그림 1-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비전 및 추진전략



2) 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20). 대한민국정부

## 다. 6대 추진전략

핵심전략	정책과제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li> <li>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li> <li>농·산·어촌 경쟁력 제고와 낙후지역 지원 강화</li> </ul>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li> <li>지역산업생태계 회복력 제고</li> <li>매력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li> </ul>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li> <li>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li> <li>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li> <li>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li> </ul>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li> <li>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li> <li>매력 있는 국토·도시 경관 창출</li> </ul>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크형 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li> <li>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li> <li>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li> <li>지능형 국토·도시 공간 조성</li> </ul>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과 경제협력</li> <li>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과 글로벌 위상 제고</li> </ul>

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20). 대한민국정부

## 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전략

■ 그림 1-20 ■ 국토 공간전략 구상



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20). 대한민국정부

추진전략	정책과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 및 도시 적정 개발과 체계적 관리</li> <li>• 집약적 도시공간구조로 개편</li> <li>• 재생과 복원을 통한 쇠퇴지역 활력 제고</li> <li>• 오염·방치 공간의 친환경적인 활용 강화</li> </ul>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국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생태축과 도시·자연공간의 연계 강화</li> <li>•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강화</li> <li>• 국토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성 제고</li> </ul>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저탄소 국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확충</li> <li>•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강화</li> <li>•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험 관리체계 구축</li> </ul>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그린인프라 확충</li> <li>• 친환경 신산업 공간 조성</li> <li>•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확산 기반 구축</li> <li>• 친환경 지능형 교통 인프라 확충</li> </ul>
남북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단계적 이행</li> <li>• 환경분야 동북아 협력 확대</li> <li>• 환경분야 국제협력의 선도국가 위상 확립</li> </ul>

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20). 대한민국정부

## 바. 전라북도 발전방향

### 1) 비전과 목표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상 전라북도 지역계획 비전은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중심”으로 제시
- 이에 따라 “스마트 농생명 산업 수도”, “에너지·신기술 융복합 新산업 거점”, “문화와 관광 여행체험 1번지”, “글로벌 SOC·안심 삶터”를 목표로 설정

### 2) 발전방향

#### □ 새만금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신성장 중심지로 도약

- 새만금을 첨단산업·문화관광·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거점으로 발전
- 전라북도의 5개 권역·5대 축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신성장 지대로 도약

#### □ 전북에 집적화된 농생명 혁신자원의 발전 동력화

- 농생명 인프라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식품·종자·농기계·R&D로 연계된 농생명 밸리 구축
-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이 융합된 농생명 가치사슬 완성

#### □ 에너지·신기술 융·복합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강화

-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대한민국 신산업지대로 조성
- 신성장 혁신기반 구축과 금융중심지 조성
- 친환경·지능형 자동차산업 육성과 연계한 전기·수소 자율주행 전진기지 조성
-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 □ 문화·관광기반 확충과 체험·힐링 명품화로 新가치 창출

- 문화향유기반 확충과 체험·휴양 기반 고품격 관광거점 조성
- 문화자원의 융·복합으로 신가치 창출과 MICE산업 등 관광자원의 명품화

#### □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도약을 위한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

- 지역 개발여건 혁신을 위한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 전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연계체계 구축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국2시간·전북1시간 교통인프라 구축

#### □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촘촘하게 내재된 지능형 삶터로 전환

- 에너지·물·안전 중심의 지역특화형 스마트시티와 통합물관리 인프라 구축
- 보건의료 개선과 초고령·저출산에 대응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 주거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정책

■ 그림 1-21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전라북도 지역계획



## 0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 가. 계획의 개요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교통시설 관련 최상위 계획
- 육상, 해상, 항공 교통 등 국가종합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향 제시 및 향후 구축될 국가기간교통시설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투자기본정책 설정

### 나. 계획의 목표

-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 일류 수준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 상호 연계되고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 등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구현



## 다.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2001~2020)

5대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부문간 효율적 스톱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종합조정기능 강화</li> <li>• 교통수단간 수송분담구조 확립</li> </ul>
	KTX 중심 철도고속화 및 도로기능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철도망 고속화 및 전철화</li> <li>• 간선도로망 투자효율성 제고</li> <li>•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하는 교통체계구축</li> </ul>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7 수준의 항공교통 실현</li> <li>• 항만 및 해운 네트워크 구축 강화</li> <li>• 비용절감형 내륙 물류체계 확립</li> </ul>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환승센터 본격 추진</li> <li>• 다양한 환승체계 보급</li> <li>• KTX 역세권 교통연계거점 구축</li> </ul>
	인터모달리즘 실현을 위한 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거점 중심의 연계교통망 구축</li> <li>• 철도 중심의 물류네트워크 구축</li> </ul>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육·해·공 통합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륙연결 및 신항로 개척</li> <li>• 남북 교통망 구축</li> <li>• 글로벌 항공·해운 네트워크 구축</li> </ul>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li> <li>•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강화</li> <li>• 동북아 교통시장통합의 단계적 확대</li> </ul>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녹색성장 교통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및 보행교통 활성화</li> <li>•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li> <li>• 적극적 교통수요 감축</li> <li>• 녹색물류 추진</li> </ul>
	미래형 교통기 개발 및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형 첨단 녹색교통수단 개발 및 활성화</li> <li>•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li> <li>• 교통 연구개발(R&amp;D)사업 확대</li> </ul>
선진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검색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수단별 교통안전체계 구축</li> <li>• 기간교통망 재난발생 대비 대응·복구체계 구축</li> <li>• 보안검색 기능 강화</li> </ul>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수립</li> <li>• 고령화 사회 및 교통약자에 대비한 교통대책 마련</li> </ul>

자료.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국토해양부

### 03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sup>3)</sup>

#### 가. 계획의 개요

- 「헌법」 제3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중앙부처 및 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 제시
  - 지속가능발전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의 통합관리를 위한 사항 작성·반영

#### 나. 비전과 목표

##### □ 비전

- 국토 생태용량 확대, 국민이 행복한 환경 추구,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녹색화를 견인하는 생태국가를 지향하며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를 비전으로 설정
  - 국민과 함께 여는 : 중앙정부 중심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민, 기업 등과 함께 미래 20년을 소통하며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
  -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 에너지, 국토개발, 산업 등 사회·경제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환경을 키우고 세계와 협력하는 생태국가 구현

#####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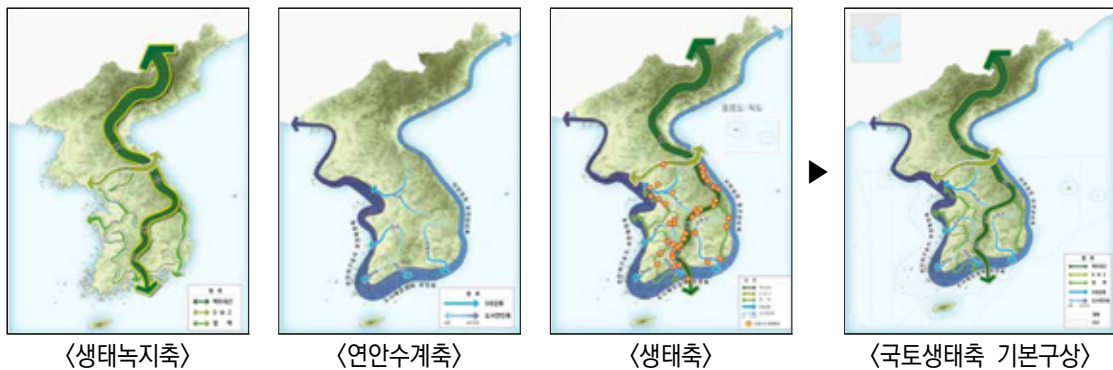
-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 사회·경제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 다. 공간구상

- 백두대간과 주요 정맥, DMZ, 도서·연안 등 해안, 5대 강을 잇는 한반도 생태 골격 구축
- 6개 권역 설정 : 한강 수도권, 태백 강원권, 금강 충청권, 영산강 호남권, 낙동강 영남권, 한라 제주권

3) 자료.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2020). 관계부처합동

그림 1-22 | 국토생태축 기본구상



자료.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2020). 관계부처합동

## 라. 7대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핵심전략	정책과제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환경 연결성 확보와 자연회복으로 국토 생태용량 증가</li> <li>• 모두가 누리는 자연혜택으로 생태복지 실현</li> <li>•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지역으로 도약</li> <li>• 연안 및 해양 환경의 생태건강성 강화</li> </ul>
사람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통합 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순환 건전성과 수요·공급의 조화를 고려한 물서비스 강화</li> <li>• 수질오염관리 선진화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li> <li>•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 실현</li> <li>• 유역기반·참여기반의 통합 물관리로의 전환</li> </ul>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 추진</li> <li>• 위해성에 기반한 공기질 관리</li> <li>• 생활주변유해인자·화학물질·제품 관리 강화</li> </ul>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안심사회 기반구축</li> <li>•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추진</li> <li>• 기후위험 대응과 신(新)기회 창출 현실화</li> <li>• 미래 환경안보 관리강화</li> </ul>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li> <li>•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li> <li>•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li> </ul>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R&amp;D의 미래지향적 혁신</li> <li>• 물질순환과 친환경경영에 기초한 산업 녹색화</li> <li>• 환경일자리 창출과 환경가치 제고</li> </ul>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구적인 남북환경협력 이행</li> <li>•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li> <li>• 국제협약의 성실한 이행·선도와 개발도상국 협력 확대</li> </ul>

자료.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2020). 관계부처합동

## 마. 영산강 호남권 공간환경전략

### □ 목표

- 도시와 농촌 간 환경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 기본 방향

- 우수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그린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자연·생활환경 개선
-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도모
-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환경 사각지역 거주민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서비스 제공

### □ 향후 전망

- 지역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지역쇠퇴 및 환경인프라의 노후화
- 상대적으로 권역 내 배출시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유입에 의한 지속적인 환경문제 야기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환경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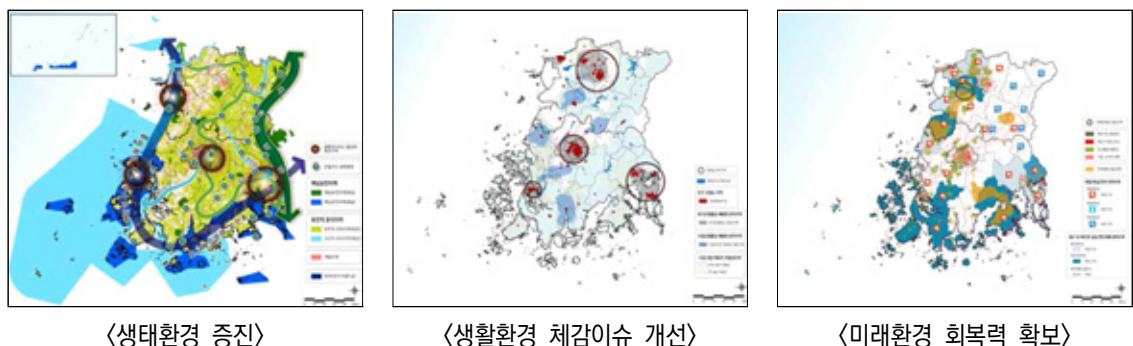
### □ 주요 과제와 추진방향

부문	주요과제	추진방안
생태환경 증진 전략	자연공원 및 우수 생태계의 보전 및 생태복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산반도, 고창생물권보전 지역 등 생태 가치가 높은 핵심 보전지역의 적극적 보전</li> <li>• 우수한 산림 및 자연생태, 연안·도서지역의 보전적 관리를 통해 생태계 서비스 확충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li> <li>• 기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생태축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연결(생태복원)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노력</li> </ul>
	그린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내 공원 및 녹지를 포함하는 그린인프라 확충</li> <li>• 국토생태축과의 연계 및 지역 생태계서비스 확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li> <li>•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규모 녹색공간 확보</li> </ul>
생태환경 증진 전략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연안·도서 생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유·무인도서 및 연안지역 생태계서비스(생태관광 및 자연생태 보전 등) 활용을 통한 지역 생태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도모</li> <li>• 다도해의 아름다운 바다와 넓은 서해안 갯벌, 새만금 및 연안습지 등을 중심으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도모</li> </ul>

부문	주요과제	추진방안
생태환경 체감이슈 개선 전략	환경감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통합관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적인 대기·미세먼지·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원인 파악 및 배출원 집중관리로 환경질 개선방안 마련</li> <li>권역 내 주요 하천(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등) 및 새만금 지역에 대한 수질·수생태 등 다각적 관리를 통해 자연성 회복</li> <li>산업시설 및 인구가 밀집된 환경질 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관리 및 지원 대책 마련</li> </ul>
	환경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도시권의 광역 환경기초시설 도입을 통해 효율적 시설 운영 도모</li> <li>농촌지역의 부족한 기초인프라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 관리체계 마련</li> <li>농촌폐기물의 체계적 처리방안을 마련해 농촌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 도모</li> </ul>
	국지적 환경이슈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국지적 환경문제 해결</li> <li>사전적 환경문제 발생 예방 및 자율적 환경관리 통한 환경갈등 최소화</li> <li>자율적 환경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질 관리구역 지정</li> </ul>
미래환경 회복력 확보 전략	재난재해 발생 우려지역의 집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유형별 발생 우려지역의 사전적 관리 강화</li> <li>한계지역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설정을 통해 재난재해 측면에서의 취약계층 사전관리 강화</li> <li>취약계층 주기적 점검을 위한 데일리케어 프로그램 운영</li> </ul>
	도시내 그린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난재해 영향 저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시가지 및 토지이용변화 예상지역에서의 재난재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li> <li>재난재해 유형별 맞춤형 시설 조성을 통한 영향 저감</li> <li>재난재해 발생 우려지역 내 그린인프라 조성을 통해 방재능력 확보</li> </ul>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지역 정주환경 및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li> <li>농촌지역에서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마련</li> <li>주민참여를 통한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li> </ul>

자료.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2020). 관계부처합동

■ 그림 1-23 ■ 영산강 호남권 공간환경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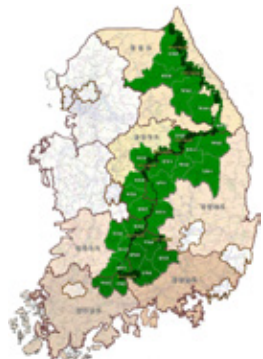

자료.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2020). 관계부처합동

## 04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 가. 계획의 개요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 해안권 및 내륙권의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 증대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각 권역을 기준으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을 공동 입안하고 연계·협력사업을 공동 추진
- 해안권 및 내륙권은 총 6개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는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지역에 해당
  - 해안권 :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 내륙권 :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권

표 1-33 해안권 및 내륙권 중 전라북도 대상권역

구분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광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25개 기초단체)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7개 기초단체)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25개 기초단체)
전북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4개)	남원시, 진안시, 무주군, 장수군(4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4개)
위치도			

자료.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2014.6)

## 나. 권역별 계획

###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서해안권을 환황해권의 새로운 산업·물류·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2010.12. 결정·고시)
  - 공간적 범위 : 인천, 경기, 충남, 전북도에 속하며 서해안에 연접하여 위치한 25개 기초단체(9,345km<sup>2</sup>)
  - 시간적 범위 : 2020년 목표(계획 만료에 따른 후속 계획 수립 중)
- 국제비즈니스 거점화와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을 통한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2대 목표, 4대 추진전략 수립
  - 전북이 포함된 새만금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이 발달된 글로벌 녹색성장 거점으로 발전 구상

■ 그림 1-24 ■ 서해안권의 비전 및 목표

비전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목표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첨단산업의 거점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	
추진 전략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인프라 구축

###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 국토 최대 낙후지역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내륙권의 발전을 통한 국토의 평균적 개발 수준 제고를 위해 권역 일대를 중요 경제권 및 국제적 생태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2014.6. 결정·고시)
  - 공간적 범위 : 백두대간에 위치하는 내륙의 기초단체 중심으로 6개 도, 27개 시·군 (24,949km<sup>2</sup>)
  - 시간적 범위 : 2020년 목표 (계획 만료에 따른 후속 계획 수립 중)
- 한반도의 척추이자 국토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생태, 문화, 관광, 생명산업 등 녹색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지대’로 육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 4개 추진전략 수립

- 전북은 남부 동서화합지대에 포함되어 지리산, 덕유산의 산악자원과 섬진강의 수변자원을 연계한 산림복합 관광지대로 조성하고 지역의 특화품목 융복합을 통한 농식품산업 육성

■ 그림 1-25 ■ 백두대간권의 비전 및 목표

비전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지대			
목표	국토 중심의 생태축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	백두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리적 한계 극복	녹색자원을 이용한 신산업지대 구축 및 녹색거점 육성	
추진 전략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유산과 문화를 결합한 관광지대 구축	청정 웰빙 고부가가치 식품·약초 클러스터 조성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간 연계 강화

## □ 내륙첨단산업권

- 수도권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 발전축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2014.6. 결정·고시)
  - 공간적 범위 : 백두대간 안쪽의 영월~정읍간 회랑지대로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 관할 25개 시·군·구(13,464km<sup>2</sup>)
  - 시간적 범위 : 2020년 목표 (계획 만료에 따른 후속 계획 수립 중)
- 내륙첨단산업권 내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을 산업별·기능별로 집적화하고 연계협력을 통한 ‘녹색 첨단산업의 신성장 발전축’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와 4대 추진전략 수립

■ 그림 1-26 ■ 내륙첨단산업권의 비전 및 목표

비전	녹색 첨단산업의 신성장 발전축 건설			
목표	BT+IT+GT 융합클러스터 조성	서해+중부내륙+동해 국토축 연결	5개 광역+1개 자치+25개 기초 상생경제권 구축	
추진 전략	내륙첨단산업 특화거점 육성	연구개발 중추 클러스터 육성	첨단산업과 전통이 어우러진 의료·관광특화 지구 구현	역사와 문화중심 내륙·관광회랑 조성



### 3 이전 계획 평가

#### 01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sup>4)</sup>

##### 가. 계획 변천

###### □ 비전 및 목표

-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00~2020)」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거점지역’으로 육성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목표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집적경제 기반 구축, 개성있는 세계적인 지역문화 창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함
- 지방분권,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지방의 자생력 강화가 추진되는 분위기 속에 2008년 1차 수정계획에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신산업 생산 및 물류중심지’를 지향함
- 이후 2012년 2차 수정계획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친환경 공간 개발 및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 실현 등을 통한 ‘삶의 질이 높은 동북아 신성장 거점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설정함.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과 지역 상생발전, 신성장산업과 한류문화 중심지 육성,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 공간구상

-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는 지역 고유의 잠재력과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중심성 및 통합성을 강화하고자 중첩형 공간개발모형으로 5개 권역을 설정함
  - 5개 권역 : 중심대도시권(전주, 완주), 국제생산·교역권(군산, 익산, 김제), 생태영농·복합휴양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 전통문화·관광권(남원, 임실, 순창), 산악청정·휴양권(전주, 진안, 무주, 장수)
-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와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4개 간선 개발축과 4개 보조 및 연계개발축을 설정하여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형성함

4) 자료.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00~2020), 전라북도

- 4개 간선개발축 : 첨단산업벨트(전주~익산~군산), 생명산업 및 경관관광벨트(전주~김제~정읍·고창), 국제생산·교역 및 해양관광벨트(군산~새만금·부안~정읍·고창), 전통문화관광벨트(전주~남원)
- 4개 보조 및 연계개발축 : 첨단산업 및 도시근교 휴양벨트(전주·완주~무주·진안), 생태영농벨트(새만금~김제~임실~장수), 해양·산악연계 관광벨트(고창~순창~남원), 생태영농·산악체험관광벨트(무주~진안~장수~남원)

표 1-34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주요 내용

구분	본계획	수정계획(1차)	2차 수정계획(2차)
계획기간	2000~2020	2008~2020	2012~2020
비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거점지역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	삶의 질이 높은 동북아 신성장거점 전라북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집적경제 기반 구축</li> <li>• 개성있는 세계적인 지역문화 창출</li> <li>•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집적경제 기반 구축</li> <li>• 개성있는 세계적인 지역문화 창출</li> <li>• 살기좋은 전북</li> <li>• 전북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과 지역상생발전</li> <li>• 신성장산업과 한류문화 중심지 육성</li> <li>•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 실현</li> <li>•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li> </ul>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공간개발</li> <li>• 친환경적이고 개성있는 지역정주기반 형성</li> <li>•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지식기반 산업 육성</li> <li>•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교통·정보인프라 구축</li> <li>•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li> <li>• 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지역문화·관광개발</li> <li>•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li> <li>• 산업 및 기술의 경쟁력 강화</li> <li>• 문화·관광자원의 개발</li> <li>•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li> <li>• 주민생활 확충 및 복지환경의 조성</li> <li>• 지역자원의 개발과 관리</li> <li>• 환경의 보전과 관리</li> <li>• 경관 및 방재계획</li> <li>• 인재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조기개발</li> <li>• 중추도시권 육성과 지역간 상생발전</li> <li>•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li> <li>•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관광 창조지역 육성</li> <li>• FTA에 대응한 강한 농업, 활력 농촌 실현</li> <li>• 국제교통물류망 확충과 토지연안이용 효율화</li> <li>• 생활복지와 농촌복지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현</li> <li>•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녹색 안전도시 조성</li> </ul>
공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중첩형 생활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지역생활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대도시권, 국제생산·교역권, 생태영농·복합휴양권, 전통문화·관광권, 산악청정·휴양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중심대도시권, 국제생산·교역권, 생태영농·복합휴양권, 식품산업·전통문화관광권, 산악청정·관광레저휴양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추도시권, 국제생산·교역권, 생태영농복합휴양권, 산악청정·관광레저휴양권, 식품산업·전통문화관광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간선개발축, 4개 보조 및 연계개발축</li> <li>- 간선개발축 : 첨단산업벨트, 생명산업 및 경관관광벨트, 국제생산·교역 및 해양관광벨트, 전통문화관광벨트</li> <li>- 보조 및 연계개발축 : 근교 휴양벨트, 생태영농벨트, 해양·산악연계 관광벨트, 생태영농·산악체험관광벨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발전축</li> <li>- 새만금신성장축, 지식·첨단산업축, 동부권특화발전축, 역사문화관광축, 동서연계협력축</li> </ul>

## 나. 계획지표 변화<sup>5)</sup>

### □ 인구

- 전북 인구는 2010년 1,869천 명에서 2019년 1,819천 명으로 약 50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계획에서 2020년 목표치로 제시한 1,976천 명보다 낮음
- 노령화율은 2010년 15.2%에서 2019년 20.4%로 5.2%p 높아졌지만 기존 계획에서 예측한 21.5%보다 낮은 수준임

### □ 지역경제

-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2010년 37조 7,408억 원에서 2018년 50조 5,953억 원으로 약 34.1% 증가하였으나 기존 계획의 예측치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지역의 산업구조는 2018년 1차 산업 7.7%, 2차 산업 32.1%, 3차 산업 60.3%로 2010년에 비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1차·3차 산업이 비중이 낮아짐
- 1인당 GRDP는 2010년 1,829만 원에서 2018년 2,780만 원으로 증가함

### □ 사회간접자본

-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93만 대로 2010년 대비 22만 대가 증가함
- 도로포장률은 2019년 기준 일반국도 100.0%, 지방도 88.7%, 시군도 81.6%로 기존 계획의 목표치보다 높게 나타남
- 여객수송량은 철도 1,134만 인(2018년), 공항 31만 인(2019년)으로 기존 계획의 예측치보다 높으며, 화물물동량은 공항 1,674톤, 항만 1,856만 톤으로 예측치보다 낮게 나타남

### □ 정주환경

- 전북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109.4%로 2010년 106.7%보다 2.7%p 상승함

5) 무상접종류 및 노인취업률, 자활사업 탈수급률, CO<sub>2</sub> 배출량등 국가통계 조사 및 수집 체계 변화로 인한 집계불가 항목은 제외함

- 통계청에서 2015년부터 주택보급률 산정 시 가구수·주택수를 등록센서스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계획 수립 당시 산정 수치와 차이가 있음
- 전라북도 상수도 보급률은 2010년 96.9%에서 2018년 98.8%로, 하수도 보급률은 2010년 79.3%에서 2018년 88.8%로 증가함

#### □ 복지

- 전북도민의 문화예술향유율은 2018년 기준 65.6%이며, 생활체육 참여율은 31.4%로 기존 계획의 예측치보다 낮은 수준임
  - 문화예술향유율 :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중 연간 1회 이상 문화예술을 관람한 비율
  - 생활체육참여율 : 「2019 전라북도 사회조사」 중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운동하는 비율
- 전라북도 의료인력수는 2019년 인구 천 명당 3.0명이며 농촌의료기관 병상수는 인구 천 명당 17.2개임
- 전라북도는 2018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국공립 보육시설은 82개소, 보육시설 인증률은 91.5%임
- 전라북도 합계출산율은 2018년 1.04%로 기존 계획의 예측치보다 매우 낮으며, 여성고용률은 2019년 50.4%에 해당함
-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은 2019년 17개소이며, 복지예산비율은 전북본청 기준 2010년 34.0%에서 2019년 41.7%로 7.7%p 증가함

#### □ 환경보전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 0.878kg/인·일에서 2018년 1.13kg/인·일로 증가하였으며 기존 계획의 목표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표 1-35】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추진성과(계획지표)

구 분			단 위	계획지표			2020		
				2010	2015	2020	실적치		
인구	총 인 구		천 명	1,869	1,889	1,976	1,819 ('19)		
	노령화율		%	15.2	19.0	21.5	20.4 ('19)		
지역 경제	지역총생산액(경상)		십억 원	34,547	45,615	66,446	50,595 ('18)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	8.2	5.7	4.1	7.7		
			%	29.1	30.0	30.6	32.1		
			%	62.6	64.3	65.3	60.3		
	1인당 GRDP(경상)		천 원	18,287	24,151	33,633	27,797 ('18)		
사회 간접 자본	자동차 대수		천 대	711	845	1,004	929 ('19)		
	도로	고속국도		km	413	479	533	418 ('19)	
		일반국도	연장	km	1,421	1,465	1,465	1,455 ('19)	
			포장률	%	97.4	99.0	99.0	100.0 ('19)	
		지방도	포장연장	km	1,517	1,540	1,563	1,581 ('19)	
			포장률	%	79.7	81.8	83.5	88.7 ('19)	
		시군도	포장연장	km	2,481	3,018	3,672	3,393 ('19)	
			포장률	%	58.6	64.6	70.6	81.6 ('19)	
	철도	여객		천 인	8,074	8,498	8,945	11,338 ('18)	
	공항	여객		천 인	175	227	297	307 ('19)	
		화물		톤	1,610	1,650	1,691	1,674 ('19)	
	항만	물동량		천 톤	19,261	22,573	26,054	18,561 ('19)	
정주 환경	주택 보급률		%	107.4	108.7	110.0	109.4* ('18)		
	상수도 보급률		%	96.9	97.9	98.5	98.8 ('18)		
	1인당 단위급수량		ℓ	435	425	410	410 ('18)		
	하수도 보급률		%	79.3	84.8	88.8	88.8 ('18)		
복지	삶의 질	문화예술향유율	%	66.1	78.0	85.0	65.6 ('18)		
		생활체육참여율	%	30.0	44.0	60.0	31.4 ('19)		
	의료	의료인력(의사)수	명/천명	2.4	2.8	3.0	3.0 ('19)		
		농촌의료기관수	병상수/천명	9.1	15.1	20.0	17.2 ('18)		
	교육	무상급식률	%	89.6	95.0	100.0	100.0 ('19)		
		국공립보육시설	개소	49	70	100	82 ('19)		
		보육시설 인증률	%	77.5	85.0	90.0	91.5 ('19)		
	취업	여성고용률	%	41.2	48.0	55.0	50.4 ('19)		
	합계출산율		명	1.37	1.51	1.74	1.04 ('18)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8	10	14	17 ('19)		
	복지예산비율		총예산대비	34.0	36.0	38.0	41.7 ('19)		
	환경 보전	생활폐기물 발생량		kg/인·일	0.878 (2009년)	0.911	0.871	1.13 ('18)	

## 다. 투자사업

-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총 7개 부문, 651개이며, 사업 이행률은 78.3%로 나타남
  - 추진사업 : 추진완료 157개, 추진중 335개, 추진예정 12개, 기타 6개
  - 기타는 사업내용 중복, 유사 사업으로 대체, 사업 통합, 사업 변경
- 세부적으로 추진사업은 추진완료 157개, 추진 중 335개, 추진예정 12개, 기타 6개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임
  - 기타사업은 타 사업과 내용 중복 등으로 사업 통합 또는 대체, 사업 변경 등임
- 사업 미추진 사유
  - 실효성 미비, 사업수요 부재 등 사업의 타당성 부족
  - 국비 미확보, 상위계획 미반영, 관련계획 미수립 등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생
  - 관계 기관 간 협의 문제, 지역 반대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표 1-36】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추진성과(투자사업)

(단위 : 개, %)

구분	사업수	추진여부						추진율
		추진	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기타	미추진	
합계	651	510	157	335	12	6	141	78.3
지역개발	16	13	1	11	1	0	3	81.3
산업경제	46	37	26	10	0	1	9	80.4
문화관광	74	54	17	37	0	0	20	73.0
지역자원	196	156	54	98	1	3	40	79.6
교통물류	67	51	10	30	10	1	16	76.1
생활복지	117	96	14	82	0	0	21	82.1
환경보전	135	103	35	67	0	1	32	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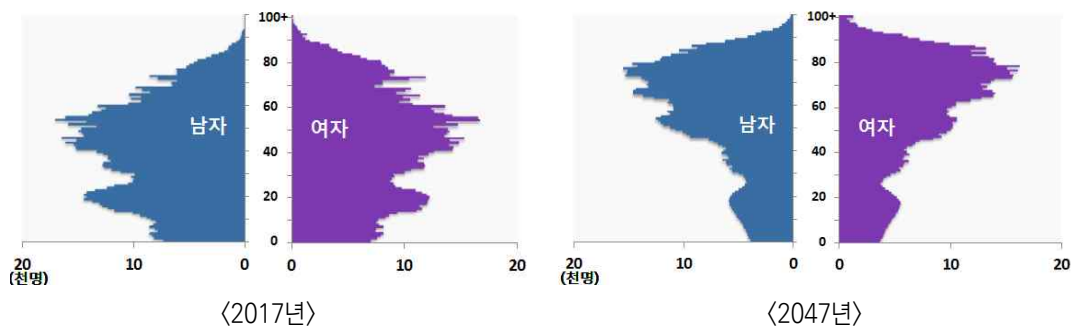
## 4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 01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47년 13.4% 감소 전망됨
  - 전국 총인구 : (‘17년) 5,136만 명 → (‘30년) 5,193만 명 → (‘47년) 4,891만 명
  - 전북 총인구 : (‘17년) 183만 명/3.6% → (‘30년) 172만 명/3.3% → (‘47년) 158만 명/3.2%
- 전북의 고령인구는 2017년 34만 명(18.5%)에서 2047년 70만 명(43.9%)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위연령은 2017년 44.5세에서 2047년 60.9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전북 고령인구 : (‘17년) 34만 명/18.5% → (‘35년) 59만 명/34.7% → (‘47년) 70만 명/43.9%
  - 전북 중위연령 : (‘17년) 44.5세 → (‘05년) 53.3세 → (‘47년) 60.9세

■ 그림 1-27 ■ 전라북도 장래인구구조 변화



자료: 통계청,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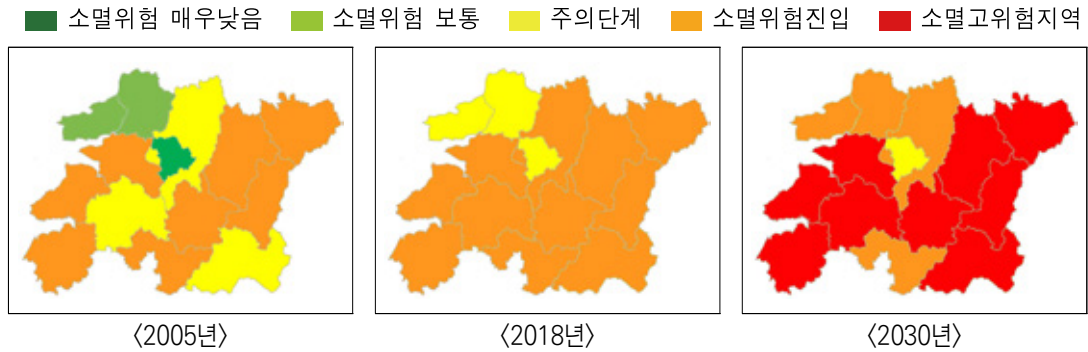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9년 15.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북은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 지방의 소멸 위기

-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이보경, 2019)에서는 전북 지역 중 인구과소지역이 2020년 25.51%에서 2040년 30.2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2018년 기준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은 없으나, 2030년에는 9개 지역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

■ 그림 1-28 ■ 전라북도 소멸위험지수 전망



#### □ 노후인프라 증가 및 생활사막 고착화

-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는 생활인프라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생활인프라 공급 및 관리 저조로 인한 노후화·쇠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국토연구원(2018)은 2040년 약 25만 명이 생활사막화(Life Deserts) 거주 전망
  - 생활인프라시설 : 약국,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편의점, 시장, 초등학교, 중학교

## 02 고용 없는 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도래

#### □ 전세계적인 성장률 둔화시대 돌입

- 자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 장기화
  - 기술 발전에 따라 선진국의 기술집약적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국가 간 부의 불균형과 일자리 양극화 심화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국내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민간소비와 수출 감소로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0%로 제시



### □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감소 및 성장의 둔화

- 전북의 GRDP 규모는 2005년까지 전국 대비 3%대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06년부터 2%대로 감소되고 성장 둔화 전망
  - 전북 GRDP 전국 비중 : ('01년)3.3% → ('06년)2.9% → ('11년)2.9% → ('16년)2.7%
- 서비스업종에서 취업자수 증가가 기대되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여 전국 대비 격차가 확대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 : ('16년→'26년) 전국 62.9%→64.1%, 전북 61.2%→62.0%
  - 전북 취업자 비율 전망 : ('16년) 3.6% → ('26년) 3.4%

###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혁신과 지능화

- ICT,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신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과거 글로벌 성장을 주도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
  - 선진기술 모방을 통한 추격전략의 한계와 승자독식 경제가 지배함으로써 후발주자 몫은 급감하고 선도자 이익만 극대화
- 재택근무, 원격강의, 온라인소비 등 디지털 기반의 언택트(Untac)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재·부품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는 현상 발생
  - 비대면 문화로 데이터 사용량 증가, 5G인프라·로봇산업 등 인프라 및 산업 조성 필요
-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일상화, 초국가적 테러 증가, 인공지능 업무 대체로 일자리 변화, 실시간 건강관리 서비스 확산, 기술 발달의 부정적 우려 증대

## 03 삶의 질 가치 증대와 혁신적 포용국가

### □ 개인, 여가 중심의 삶의 가치관 변화

- 기존의 가족과 집단 중심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구조로 변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양식과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
- 시대적 중심가치관이 '일'에서 '여가'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행복과 웰빙(웰니스, Wellness)에 대한 관심 증대

- 주52시간 노동 도입 등 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YOLO,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생활 등 국민생활 및 삶의 가치관이 변화

#### □ 사회적 불평등 및 갈등 발생

- 세계 불평등보고서(Rapport Sur Les Inegalites Mondiales, 2018)에 따르면 현 추세 유지시 전 세계 부에서 최상위 1%의 몫이 20%에서 24%로 늘어가며, 하위 50% 소득자의 몫이 10%에서 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국가 내 불평등 추세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글로벌 하위 50%는 6%까지 줄어들고, 글로벌 상위 1%는 2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외국인 주민이 175만 명(연평균 14.4% 증가)을 넘어 다양성 사회가 되었으나, 혐오사회로 불릴 정도로 사회적 배제·갈등이 대폭 증가
  - 사회갈등지수 : 우리나라 1.88(OECD 평균 1.13), 전체 35개국 중 3위
  - 성 격차 지수 : 세계경제포럼(2016) 전체 144개국 중 116위

#### □ 혁신적 포용국가와 지방분권

-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설정하였으며, 3대 비전과 9대 전략 발표
  - 포용국가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를 말함(자료: 정책DB,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협력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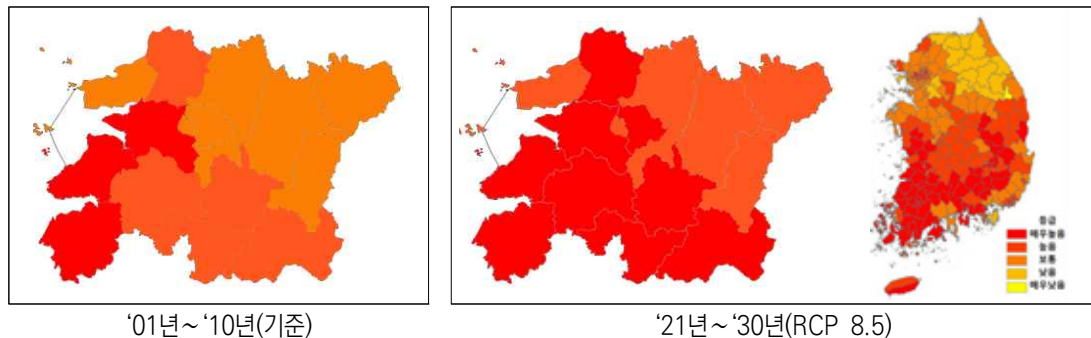
## 04 재해, 감염병 등 일상생활의 위기 증가

#### □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자원의 고갈에 대한 압박 상승
  -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4% 상승하였으며, '34년까지 2℃ 더 상승할 전망

- 환경부의 폭염위험도 평가 결과 2001~2010년 매우 높음이 3개 시군에서 2021년~2030년 9개 시군으로 증가
  - 폭염위험도 평가 : 기상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등을 평가하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5단계로 평가

■ 그림 1-29 ■ 전라북도 폭염위험도 평가



자료. 환경부, 2019 (RCP 8.5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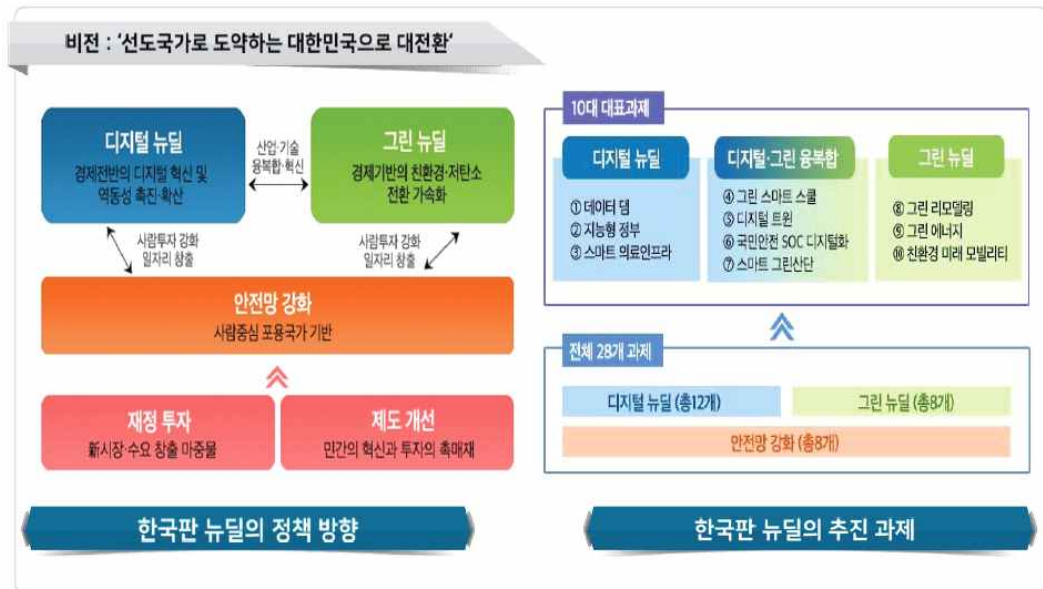
-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에 이어 최근 코로나19까지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공포감 극대화
  - 글로벌 경제 위기, 국경 폐쇄와 이동제한 등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한 항구적 손실 발생 불가피
  - 기후변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파괴 등 위기 원인에 대한 성찰,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여 지구환경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역설 등으로 생태공존정책에 대한 방안 모색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언택트 경제구조 전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정보 격차 심화, 자발적 고립과 사회적 연대, 생활방역 공공의료 구축 등 정책환경 변화

## □ 한국판 뉴딜 정책 시행

-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고용 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1 체계를 통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제시

■ 그림 1-30 ■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회의자료(2020), 전북연구원

-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반영하여 전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특화된 '전북형 뉴딜' 정책 수립

## 5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 01 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2040년의 전라북도 미래모습과 발전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전북을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함
  -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도의 현재 발전 수준과 삶의 질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나. 조사 설계

- 주민의식수요조사는 시군 공무원 및 도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정책수요조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전북연구원 지역사회모니터링단) 150명에게 온라인 조사로 진행함
  - 전북연구원 지역사회모니터링단은 연구원과 현장의 소통을 촉진하고, 도내 여론과 의견을 적기에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됨
- 또한 전라북도의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인 ‘전북 소통대로’를 통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2040년 전라북도가 추구할 핵심가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함

표 1-37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20년 4월 20일 ~ 2020년 5월 8일(15일간)
주민 의식· 수요 조사	조사대상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및 시·군민
	표본수	총 2,000명 정도 / 유효표본수 1,713명 전주시(300명), 군산시·익산시(각 200명),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각 150명),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각 100명)
	조사방법	오프라인 조사
전문가 정책 수요 조사	조사대상	전북연구원 지역사회모니터링단 소속 각 분야 전문가
	표본수	총 150명 / 유효표본수 102명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주. 개방형 온라인 조사 :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0.5.8. ~ 2020.5.22. 기간 동안 실시

## 다. 조사 내용

- 설문문항은 ① 일반사항, ② 현황 및 미래상, ③ 지역발전 및 삶의 질, ④ 주요 이슈 및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표 1-38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일반사항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
현황 및 미래상	현황과 과제	전라북도 발전 수준, 전북발전 위한 우선적 추진 사항, 부문별 만족도
	미래가치	전북 미래에 추구할 가치, 전라북도의 잠재력
지역발전 및 삶의 질	지역의 발전	도농 상생발전 조건, 균형발전 위한 추진 사항, 새만금 성과 도출 위한 사항
	도민 삶의 질	도민의 주거, 복지, 안전의 질적 향상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	부문	산업 및 경제, 문화 및 관광, 기반시설, 환경 보전 및 이용
	이슈 및 정책	부문별 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 사항, 경쟁력이 있거나 해결해야 하는 사항

## 라. 주민의식수요조사 응답자

- 주민의식수요조사 총 응답자는 1,713명임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38명(48.9%), 여성이 875명(51.1%)임
-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가 275명(16.0%), 30대가 587명(34.3%), 40대가 493명(28.8%), 50대가 335명(19.6%), 60대 이상이 23명(1.3%)임
- 거주지역은 시 지역이 1,403명(81.9%), 군 지역이 310명(18.1%)이 분포함

표 1-39 도민의식수요조사 응답자 기본 정보

구분		빈도 수	비율(%)	구분		빈도 수	비율(%)	구분		빈도 수	비율(%)
성별	남성	838	48.9	거주지	전주	620	36.2	거주지	진안	24	1.4
	여성	875	51.1		군산	254	14.8		무주	23	1.3
연령	20대 이하	275	16		익산	270	15.7		장수	21	1.2
	30대	587	34.3		정읍	104	6.1		임실	26	1.5
	40대	493	28.8		남원	77	4.5		순창	27	1.6
	50대	335	19.6		김제	79	4.6		고창	52	3
	60대 이상	23	1.3		완주	87	5.1		부안	5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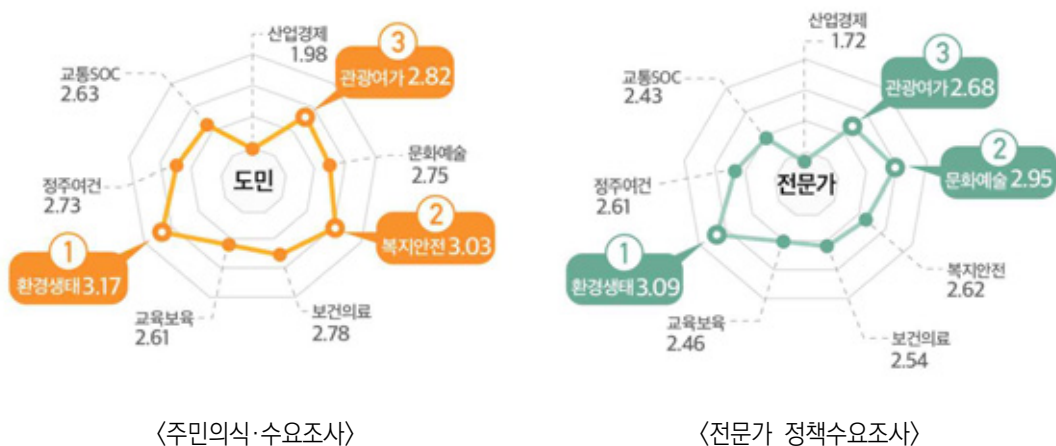
## 02 분석 결과

### 가. 전북의 현황과 과제

#### □ 전북의 발전 수준

-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재 전북의 각 분야별 발전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환경생태 분야의 발전수준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보통(3점 이상)’으로 평가함
  - [도민 의견] 환경생태 분야(3.17점), 복지안전(3.03점), 관광여가(2.82점), 보건의료(2.78점), 문화예술(2.75점), 정주여건(2.73점), 교통SOC(2.63점), 교육보육(2.61점), 산업경제(1.98점) 순
  - [전문가 의견] 환경생태 분야(3.09점), 문화예술(2.95점), 관광여가(2.68점), 복지안전(2.62점), 정주여건(2.61점), 보건의료(2.54점), 교육보육(2.46점), 교통SOC(2.43점), 산업경제(1.72점) 순

Ⅱ 그림 1-31 Ⅱ 전북 발전 수준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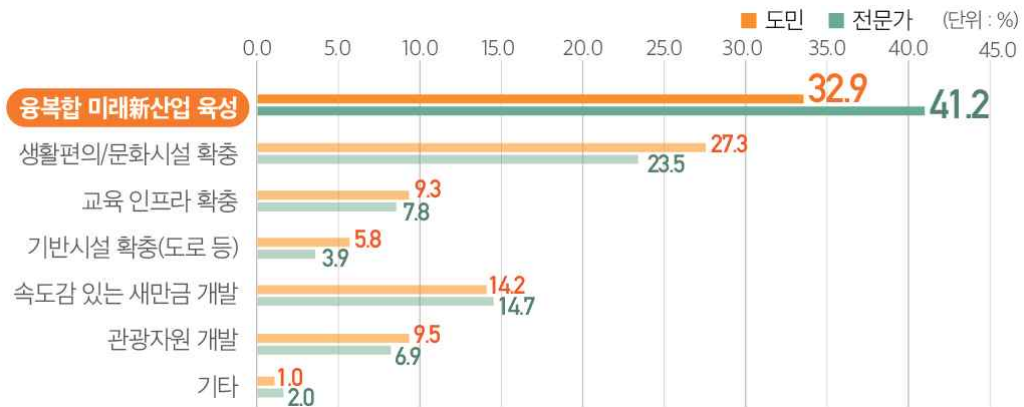
#### □ 우선 필요사업 분야

-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융복합 미래新산업 육성」을 1순위로 응답함
  - [도민 의견] 「융복합 미래新산업 육성(32.9%)」, 「생활편의/문화시설 확충(27.3%)」,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14.2%)」, 「관광자원 개발(9.5%)」, 「교육 인프라 확충(9.3%)」, 「기반시설

확충(5.8%)», 「기타(1.0%)」 순

- [전문가 의견] 「융복합 미래新산업 육성(41.2%)», 「생활편의/문화시설 확충(23.5%)»,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14.7%)», 「교육 인프라 확충(7.8%)», 「관광자원 개발(6.6%)», 「기반시설 확충(3.9%)», 「기타(2.0%)」 순

그림 1-32 전북 우선 필요사업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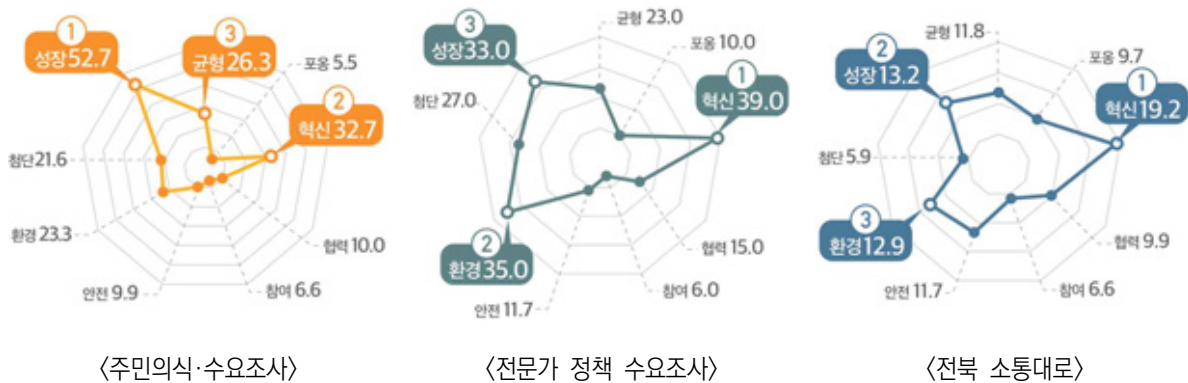
## 나. 전북의 미래상

### □ 우선 추구가치

-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조사한 결과, 도민은 「성장」이, 전문가·소통대로에서는 「혁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성장(52.7%), 혁신(32.7%), 균형(26.3%), 환경(23.3%), 첨단(21.6%), 협력(10.0%), 안전(9.9%), 참여(6.6%), 포용(5.5%) 순
  - [전문가 의견] 혁신(39.0%), 환경(35.0%), 성장(33.0%), 첨단(27.0%), 균형(23.0%), 협력(15.0%), 안전(11.0%), 포용(10.0%), 참여(6.0%) 순
  - [전북소통대로] 혁신(19.2%), 성장(13.2%), 환경(12.9%), 균형(11.8%), 안전(11.7%), 협력(9.9%), 포용(9.7%), 첨단(5.9%), 참여(5.8%) 순



그림 1-33 전북의 추구가치 응답결과



## □ 적극 활용자원

-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을 조사한 결과, 도민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가능성」을, 전문가는 「농생명·식품 관련 연구기관의 집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이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새만금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가능성(38.1%)」, 「농생명·식품 관련 연구기관의 집적(16.9%)」,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교류에 유리한 입지(15.9%)」, 「산,들,바다 등 다양한 자연환경과 자연자원(15.9%)」, 「전통문화자원 보유와 전통적 이미지(11.4%)」 순
  - [전문가 의견] 「농생명·식품 관련 연구기관의 집적(31.4%)」, 「새만금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가능성(27.5%)」, 「산,들,바다 등 다양한 자연환경과 자연자원(14.7%)」, 「전통문화자원 보유와 전통적 이미지(14.7%)」,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교류에 유리한 입지(9.8%)」 순

그림 1-34 전북 적극 활용자원 응답결과



## 다. 삶의 질

### □ 복지향상 우선 필요정책

- 전북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탈빈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9.1%(1,35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도민 의견]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탈빈곤 지원(79.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62.2%)」,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18.8%)」, 「복지재정 규모의 확충(15.5%)」, 「복지 소외 계층 발굴 및 지원(11.2%)」 순
  - [전문가 의견]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탈빈곤 지원(75.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48.5%)」,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28.7%)」,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14.9%)」, 「복지재정 규모의 확충(14.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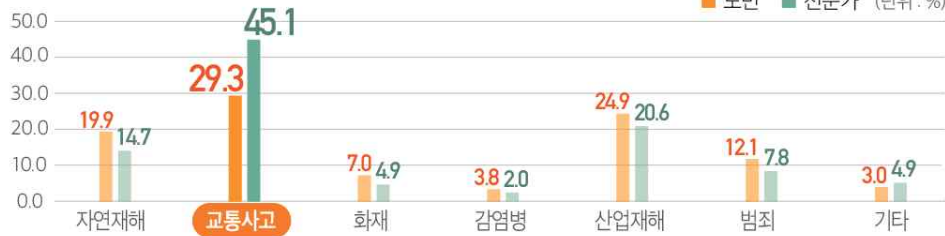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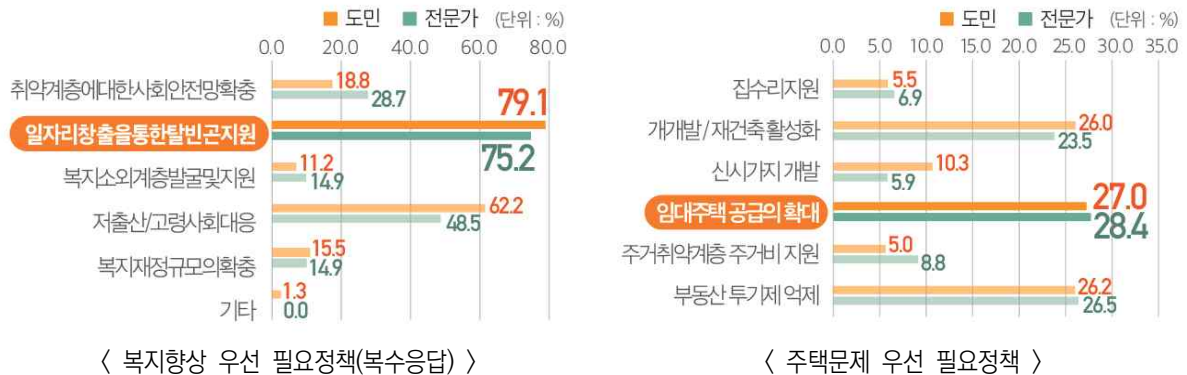
### □ 주택문제 우선 필요정책

- 도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도민 의견]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27.0%)」, 「부동산 투기 억제(26.2%)」, 「재개발/재건축 활성화(26.0%)」, 「신시가지 개발(10.3%)」, 「집수리 지원(5.5%)」,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5.0%)」 순
  - [전문가 의견]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28.4%)」, 「부동산 투기 억제(26.5%)」, 「재개발/재건축 활성화(23.5%)」,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8.8%)」, 「집수리 지원(6.9%)」, 「신시가지 개발(5.9%)」 순

### □ 안전 취약 부문

- 전북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안전 부문을 조사한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교통사고」가 가장 취약한 안전 부문이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교통사고(29.3%)」, 「산업재해(24.9%)」, 「자연재해(19.9%)」, 「범죄(12.1%)」, 「화재(7.0%)」, 「감염병(3.8%)」 순
  - [전문가 의견] 「교통사고(45.1%)」, 「산업재해(20.6%)」, 「자연재해(14.7%)」, 「범죄(7.8%)」, 「화재(4.9%)」, 「감염병(2.0%)」 순

그림 1-35 | 도민 삶의 질 분야 응답결과



\*도민 중 '없음' 응답자 58명(3.4%)

## 라. 지역발전 분야

### □ 도시-농산어촌 상생발전 방향

- 전북의 도시와 농산어촌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조사한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32.8%)」, 「교통체계 연결(24.2%)」, 「문화서비스 연계(19.5%)」, 「인적 교류(17.4%)」, 「의료서비스 연계(6.1%)」 순
  - [전문가 의견]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37.3%)」, 「인적 교류(21.6%)」, 「교통체계 연결(19.6%)」, 「문화서비스 연계(12.7%)」, 「의료서비스 연계(8.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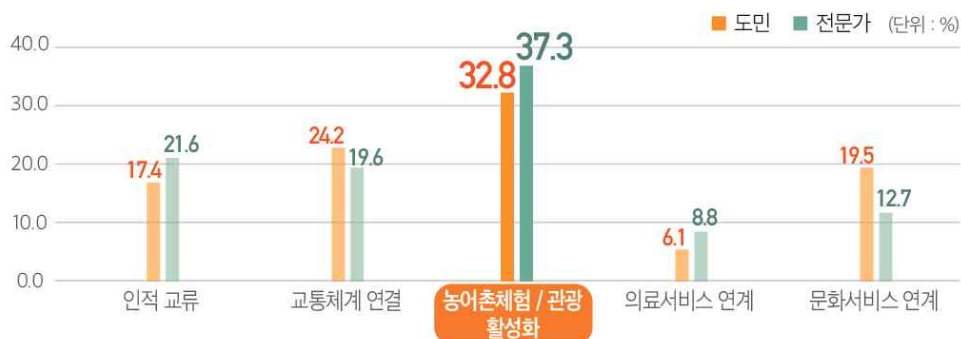
## □ 시군 균형발전 방향

- 동부권지역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유형을 조사한 결과, 도민은 「전북 동서 교통축 구축」이, 전문가는 「여가/치유 거점시설 유치」가 필요한 유형의 사업이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전북 동서 교통축 구축(27.8%)」, 「여가/치유 거점시설 유치(27.2%)」, 「산림 자원 활용 관광지 개발(26.2%)」,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9.8%)」, 「동부권 농공단지 조성(7.9%)」 순
  - [전문가 의견] 「여가/치유 거점시설 유치(34.3%)」, 「전북 동서 교통축 구축(29.4%)」, 「산림자원 활용 관광지 개발(17.6%)」,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9.8%)」, 「동부권 농공단지 조성(5.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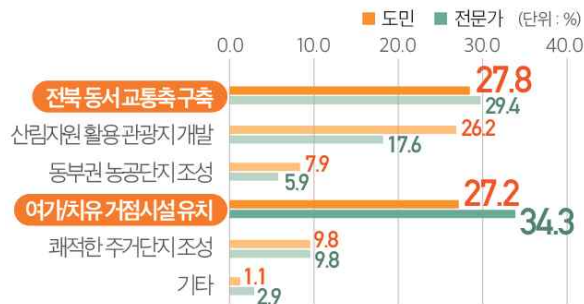
## □ 새만금사업 활성화 방향

-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조사한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민간투자 유치 방안 마련」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도민 의견] 「민간투자 유치 방안 마련(53.8%)」, 「항만/공항 조기 건설(49.8%)」, 「새만금과 도내 교통 연결(42.2%)」, 「농생명산업 투자(20.1%)」, 「새만금 수질 개선(16.0%)」, 「새만금 수면 매립(8.5%)」 순
  - [전문가 의견] 「민간투자 유치 방안 마련(44.1%)」, 「농생명산업 투자(38.2%)」, 「새만금과 도내 교통 연결(36.3%)」, 「항만/공항 조기 건설(26.5%)」, 「새만금 수질 개선(23.5%)」, 「새만금 수면 매립(3.9%)」 순

Ⅱ 그림 1-36 Ⅱ 지역발전 분야 응답결과



〈 도시-농산어촌 상생발전 필요사업 〉



〈 시군 균형발전 필요사업 〉



〈 새만금사업 활성화 중점추진사업(복수응답) 〉

## 마. 산업·경제 분야

### □ 전략산업 중점 육성

- 전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략산업 중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를 조사한 결과, 도민은「첨단소재산업」이, 전문가는 「농생명/식품산업」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첨단소재산업(39.8%)」, 「농생명/식품산업(39.6%)」, 「수소연료/재생에너지산업(30.4%)」, 「관광산업(26.7%)」, 「문화콘텐츠/SW융합산업(21.6%)」, 「자동차부품/기계산업(17.6%)」, 「바이오산업(11.7%)」, 「금융산업(8.3%)」 순
  - [전문가 의견] 「농생명/식품산업(61.8%)」, 「문화콘텐츠/SW융합산업(32.4%)」, 「첨단소재산업(26.5%)」, 「관광산업(21.6%)」, 「수소연료/재생에너지산업(17.6%)」, 「바이오산업(17.6%)」, 「자동차부품/기계산업(11.8%)」, 「금융산업(8.8%)」 순

### □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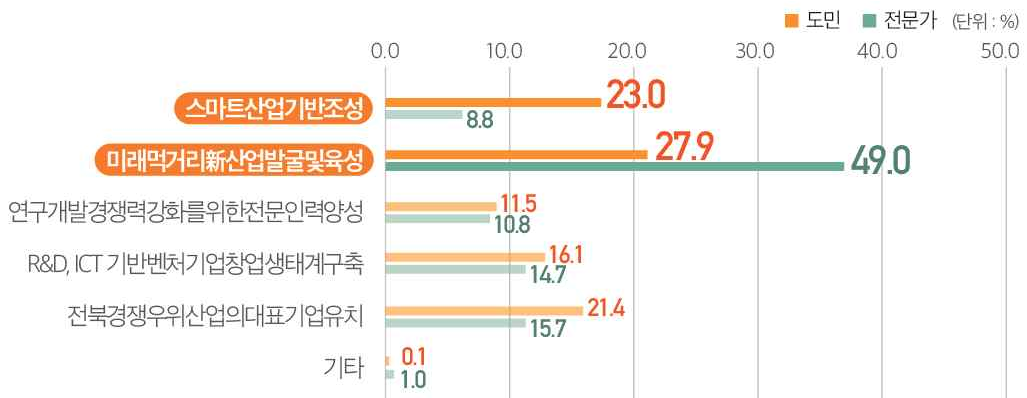
- 전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전북의 미래먹거리 新산업 발굴 및 육성」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전북의 미래먹거리 新산업 발굴 및 육성(27.9%)」, 「스마트산업 기반조성(23.0%)」, 「전라북도 경쟁 우위산업의 대표기업 유치(21.4%)」, 「과학기술, ICT 기반 벤처기업 창업 생태계 구축(16.1%)」,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11.5%)」 순

- [전문가 의견] 「전북의 미래먹거리 新산업 발굴 및 육성(49.0%)」, 「전라북도 경쟁 우위 산업의 대표기업 유치(15.7%)」, 「과학기술, ICT 기반 벤처기업 창업 생태계 구축(14.7%)」,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10.8%)」, 「스마트산업 기반조성(8.8%)」 순

■ 그림 1-37 ■ 산업·경제 분야 응답결과



〈 전략산업 중점 육성분야(복수응답) 〉



〈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정책 〉

## 바. 문화·관광 분야

### □ 지역문화 발전 필요사업

- 전북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조사한 결과, 도민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지원」이, 전문가는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지원(53.6%)」, 「문화콘텐츠산업 육성(33.4%)」,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27.8%)」,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24.9%)」,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17.3%)」, 「예술인 창작 및 복지 지원(13.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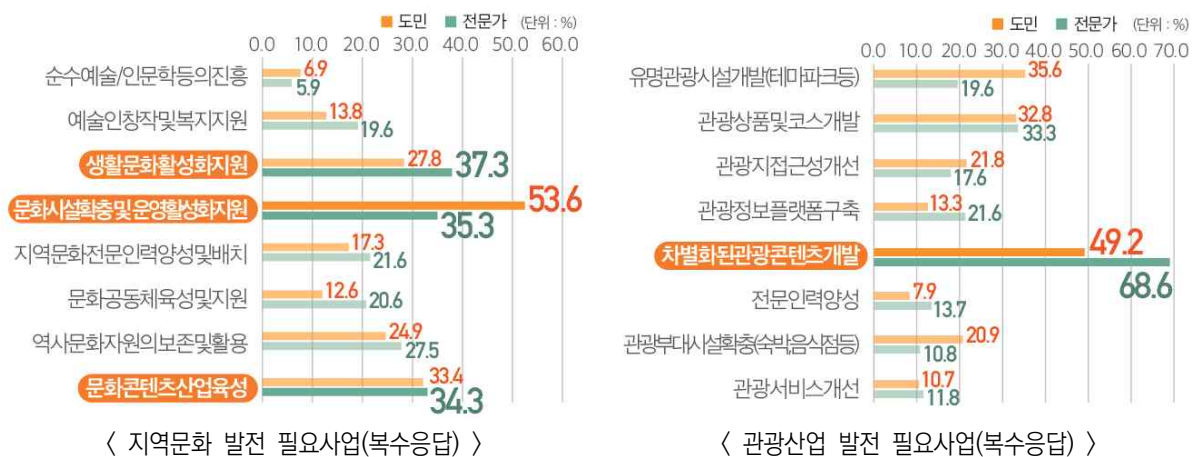


- [전문가 의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37.3%)」,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지원(35.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34.3%)」,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27.5%)」,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21.6%)」, 「문화공동체 육성 및 지원(20.6%)」 순

## □ 관광산업 발전 필요사업

- 전북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조사한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49.2%)」, 「유명 관광시설 개발(35.6%)」, 「관광 상품 및 코스 개발(32.8%)」, 「관광지 접근성 개선(21.8%)」, 「관광부대시설 확충(20.9%)」, 「관광정보 플랫폼 구축(13.3%)」, 「관광 서비스 개선(10.7%)」, 「전문인력 양성(7.9%)」 순
- [전문가 의견]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68.6%)」, 「관광상품 및 코스 개발(33.3%)」, 「관광정보 플랫폼 구축(21.6%)」, 「유명 관광시설 개발(19.6%)」, 「관광지 접근성 개선(17.6%)」, 「전문인력 양성(13.7%)」, 「관광 서비스 개선(11.8%)」, 「관광부대시설 확충(10.8%)」 순

■ 그림 1-38 ■ 문화·관광 분야 응답결과



## 사. 기반시설 분야

### □ 교통물류분야 우선 추진사업

- 전북 발전을 위해 교통·물류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조사한 결과, 도민은 「새만금 항만/국제공항 조기 완성」이, 전문가는 「타 지역과 동서 간 광역 연계 교통망」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새만금 항만/국제공항 조기 완성(37.1%)」, 「타 지역과 동서 간 광역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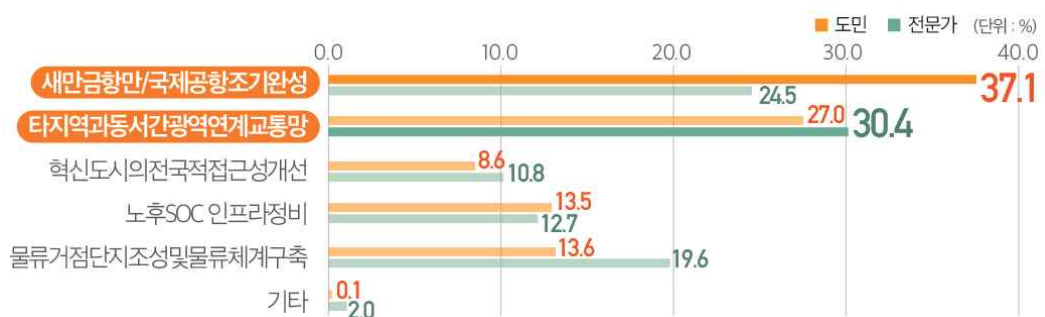
교통망(27.0%), 「물류거점단지 조성 및 물류체계 구축(13.6%)」, 「노후 SOC 인프라 정비(13.5%)」, 「혁신도시의 전국적 접근성 개선(8.6%)」 순

- [전문가 의견] 「타 지역과 동서 간 광역 연계 교통망(30.4%)」, 「새만금 항만/국제공항 조기 완성(24.5%)」, 「물류거점단지 조성 및 물류체계 구축(19.6%)」, 「노후 SOC 인프라 정비(12.7%)」, 「혁신도시의 전국적 접근성 개선(10.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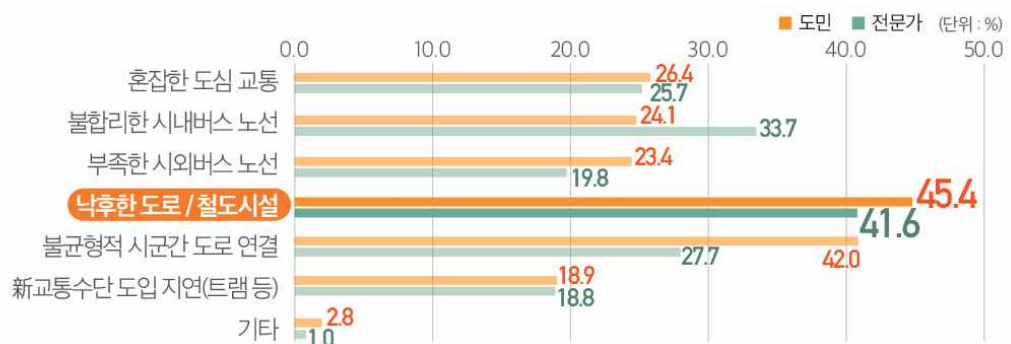
## □ 교통문제 우선 해결사항

- 전북의 교통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낙후한 도로/철도 시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낙후한 도로/철도 시설(45.4%)」, 「불균형적 시군간 도로 연결(42.0%)」, 「혼잡한 도심 교통(26.4%)」,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24.1%)」, 「부족한 시외버스 노선(23.4%)」, 「新교통수단 도입 지연(18.9%)」 순
  - [전문가 의견] 「낙후한 도로/철도 시설(41.2%)」,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33.3%)」, 「불균형적 시군간 도로 연결(27.5%)」, 「혼잡한 도심 교통(25.5%)」, 「부족한 시외버스 노선(19.6%)」, 「新교통수단 도입 지연(18.6%)」 순

【그림 1-39】 기반시설 분야 응답결과



〈 교통물류분야 우선 추진사업 〉



〈 교통문제 우선 해결사항(복수응답) 〉



## 아. 환경 보전 및 이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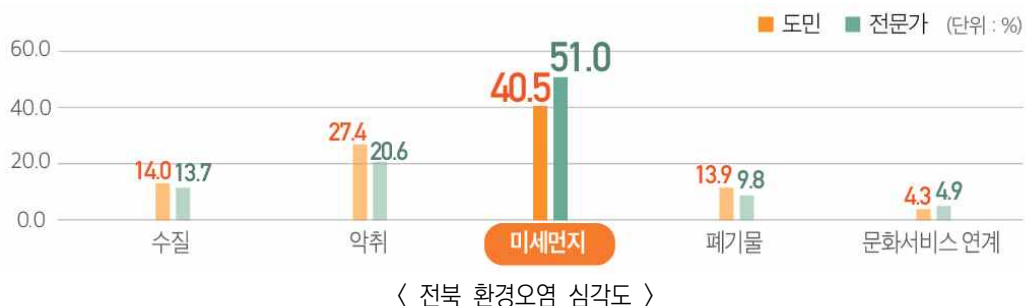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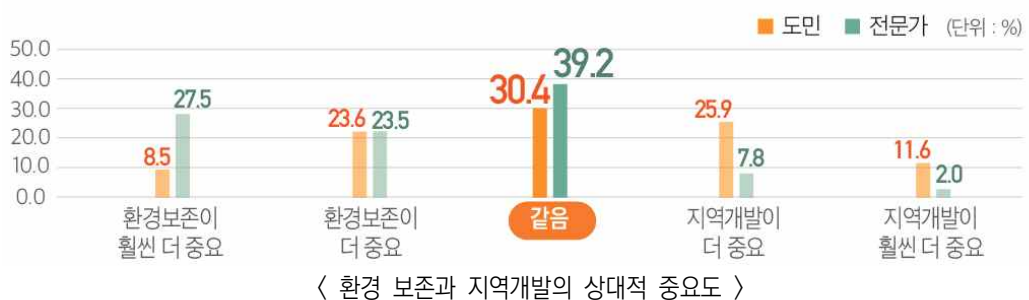
### □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의 상대적 중요도

- 전북의 발전을 위해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은 「지역개발」이, 전문가는 「환경보존」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도민 의견] 도민의 32.2%(551명)가 환경보존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37.4%(641명)는 지역개발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전문가 의견] 전문가의 51.0%(52명)가 환경보존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9.8%(10명)는 지역개발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 환경오염 심각도

- 전북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오염을 조사한 결과, 도민과 전문가 모두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종류의 환경오염이라고 응답함
  - [도민 의견] 「미세먼지(40.5%)」, 「악취(27.4%)」, 「수질(14.0%)」, 「폐기물(13.9%)」, 「소음 진동(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의견] 「미세먼지(51.0%)」, 「악취(20.6%)」, 「수질(13.7%)」, 「폐기물(9.8%)」, 「소음 진동(4.9%)」 순으로 높게 나타남

Ⅱ 그림 1-40 Ⅱ 환경 보전 및 이용 분야 응답결과





# II

## 계획의 기본방향

###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 1.1 비전과 목표

#### 1.2 계획 지표

### 2. 공간 형성방향

#### 2.1 권역 및 발전축 설정

#### 2.2 공간구조 설정

#### 2.3 발전축 구상





#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 1 비전과 목표

### 01 계획의 비전

-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기존 성장 중심의 개발 전략으로 발생한 지역 불균형·사회 갈등을 해소하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함께 달성하여 사람다운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한 새로운 미래 비전 설정
-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수요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비교우위 자원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 자원 간·부문 간 융합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지향형 융복합 발전 추구
- 전북이 보유한 江山海 등의 자연 및 생태자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관광자원 등에 혁신가치를 부여하고, 창의적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 선도를 위한 이른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문명 사회로의 전환 추진
- ‘미래신산업 중심의 생태문명 수도,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4+1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추진전략을 통해 세부 추진방향 제시

Ⅱ 그림 2-1 Ⅱ 비전 및 목표



## 02 계획의 목표

### 가. 도농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

- 국가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생 및 도농상생 정책, 생활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활인프라시설 확충 등 추진
- 혁신도시 중심의 광역 연계협력 강화로 전북의 외연적 성장판을 확장하고 새만금의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

### 나. 스마트 농생명·신산업 거점 조성

- 농생명 혁신자원의 기능·역할을 확대하고 D.N.A. 기반 지능형 농생명 산업화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디지털 뉴딜에 대응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AI 기반 ‘스마트화’, 생활·소비의 ‘친환경화’, 자원·부문간 ‘융복합화’ 등으로 전북산업의 체질 개선
-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초고속 서비스 시대에 대응하여 사람 간 및 산업 간의 초연결사회 속에서 D.N.A. 기반의 전북 대도약의 출발점 확보
- 금융특화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하여 자산운용에 특화된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 다. 천년 역사문화·체험관광 1번지

-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및 계층·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 공생과 혁신의 지역 문화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고품격 체험관광 육성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국2·전북1시간 도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스템 혁신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북 실현
- 지역개발 여건 혁신을 위하여 공항·항만 등 글로벌 공공인프라 및 첨단교통 연계체계 구축

## 라. 글로벌 SOC·새만금 완성

- 광역 교통연계 인프라를 확보하여 전북과 타 시도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며 노후 SOC 관리를 통해 교통 안전성 향상
- 새만금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로 개발하여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

## 마. ‘균형·안전·복지’ 도민의 행복한 삶터

- 보편적 목표로 지역내 균형발전,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촘촘한 복지를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터 구축
- 전체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기조로서의 도민의 행복한 삶터를 지향함으로써 전북의 자존감 회복 및 커뮤니티 연대 강화 도모

Ⅱ 그림 2-2 Ⅱ 8대 추진전략 28개 과제



## 2 계획 지표

### 01 인구지표 전망

#### 가. 인구지표 설정의 전제

- 지역의 인구변화는 자연적 인구변화와 사회적 인구변화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인구의 추정은 과거 인구 자료에 기초한 추정치에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
- 전라북도 인구는 그 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 전국적으로도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어 인구감소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전라북도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함께 산업단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고용 증가로 인한 계획기간인 2021~2040년 동안 사회적 인구의 증가 예상 가능
- 따라서 전라북도의 인구지표는 과거의 인구 자료에 기초한 인구 추정치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유발되는 외부 유입인구 추정치를 고려하여 설정

#### 나. 인구추정 결과

- 전라북도의 2040년 계획인구는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래인구추계 상의 중위값 추정치(자연적 인구증가)에 새만금,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장래인구 변화분(사회적 인구증가)을 반영하여 추정
- 따라서 2040년 자연적 증가인구는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17년 기준) 상 중위추계값인 1,654,350인으로 추정
- 또한 사회적 증가인구로 새만금,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유발인구 추정값은 289,500인으로 추정
  - 새만금기본계획(2021)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50년)에 따른 추정 유발인구는 주변지역인 군산, 김제, 부안, 전주 등까지 포함하여 706,609인(새만금 내부는 269,500인)의 인구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단계별 개발계획 목표치는 2040년까지 86.6%로 이를 새만금 유발인구(706,609인)에 적용한 2040년 새만금 유발인구 611,923인 중 외부유입인구를 30%



(통상적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183,577인의 인구증가 추정

-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에 따른 사회적 인구 증가분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0년 기준 미개발 산업단지 용지가 목표연도인 2040년까지 지속적인 개발 및 분양(2020년 1월 기준 전라북도 개발 산업단지 분양율인 90.7% 수준 적용)을 통해 공급됨을 전제
- 따라서 새만금산단을 제외하고 추가 공급되는 산업단지 8.52km<sup>2</sup>에 산업단지 면적당 종사자 원단위(0.0044명/m<sup>2</sup>)를 적용한 종사자수 34,002인의 30%(기본적 시나리오)를 외부 유입 종사자로 가정하고 종사자당 가족원수(가구당 2.3명)를 적용하여 23,461인의 사회적 인구증가 추정
- 종합하여 목표연도인 2040년 전라북도 계획인구는 자연적 증가 165만인과 사회적 증가 21만인 등을 고려하여 약 186만인으로 설정

【표 2-1】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계획인구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자연적 인구	1,804,104	1,747,329	1,718,458	1,690,804	1,654,350
사회적 인구	-	12,939	77,638	142,338	207,038
계획인구	1,804,104	1,760,268	1,796,096	1,833,142	1,861,388

## 02 그 외 계획지표 전망

-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주요 지표는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2012~2020)의 지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구, 지역경제, 사회간접자본, 정주환경, 문화관광, 복지, 환경보전 등 총 6개 분야에 16개 지표로 구성
- 지역경제에 있어 지역내총생산은 산업부문별 과거 자료(1985~2018년)를 활용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목표연도인 2040년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은 121조 1,350억원 수준으로 전망됨. 단, 산업부문 중에서 재생에너지, 소재산업 등 전라북도의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낙관적 시나리오 적용
- 그 외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과 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등의 지속적 증가될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주환경과 문화관광(여가), 복지, 환경보전 등에 있어서도 달성 목표로서의 역할을 위한 지표 제시

표 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지표

구 분			단 위	계획지표					
				2020	2025	2030	2035	2040	
인구	총 인 구		천 명	1,804	1,760	1,796	1,833	1,861	
지역 경제	지역총생산액(경상)		십억 원	57,271	70,894	86,065	103,260	127,316	
	·1차산업		%	7.1	6.4	5.9	5.4	5.1	
	·2차산업		%	31.7	32.0	32.0	31.7	31.9	
	·3차산업		%	54.0	54.6	55.3	56.2	56.4	
사회 간접 자본	자동차 대수		천 대	929	1,046	1,176	1,315	1,456	
	도로	고속국도		km	418	473	487	511	756
		일반국도	연장	km	1,455	1,488	1,516	1,545	1,575
				km	1,581	1,610	1,634	1,658	1,683
		지방도	포장연장	%	88.7	90.2	91.4	92.7	94.0
				km	3,393	4,196	5,008	5,977	7,135
		시·군도	포장률	%	81.6	84.6	87.6	90.6	93.6
	천 인			11,338	14,032	16,340	19,028	22,158	
	공항	여객		천 인	292	939	1,094	1,270	1,444
		화물		천 톤	1,673	6,824	8,001	9,333	10,634
	항만	물동량		천 톤	18,491	23,133	28,569	30,485	32,655
정주 환경	상수도 보급률		%	98.8	100	100	100	100	
	1인당 단위급수량		ℓ	410	414	422	429	437	
	하수도 보급률		%	88.8	93.5	97.5	100	100	
문화 관광	관광객		만 명	4,000	5,000	6,000	7,000	8,000	
	문화예술향유율		%	68.0	73.8	78.2	81.4	83.1	
복지	여성고용률		%	50.0	50.2	51.2	52.2	53.2	
	합계출산율		명	1.04	1.04	1.05	1.06	1.07	
환경 보전	생활폐기물 발생량		kg/인·일	1.131	1.301	1.390	1.476	1.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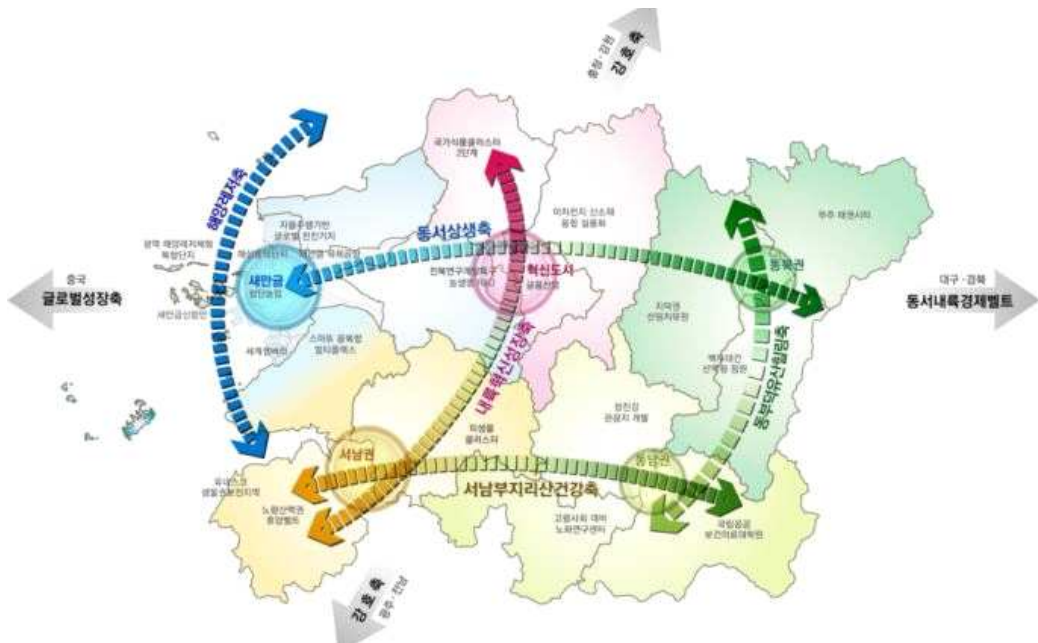
## 제2장 공간 형성방향

### 1 권역 및 발전축 설정

#### 01 기존 계획 검토

- 「제4차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에서는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천년전북'의 비전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전략으로 '5권 5축' 설정<sup>6)</sup>
  - 5권 : 혁신도시권(전주·익산·완주),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동북권(진안·무주·장수), 동남권(남원·임실·순창), 서남권(정읍·고창·부안)
  - 5축 : 동서상생축, 내륙혁신성장축, 동부덕유산힐링축, 서남부지리산건강축, 해양데저축

그림 2-3 「제4차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 상의 공간구상



6) 자료. 제4차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 (2018). 전라북도.

## 02 5+6(5권·6축) 구상

- 기존 5개 권역에 대한 공간 구조를 수용하는 한편, 연계협력 기반의 상생 발전과 전라북도의 미래지향적 의지를 담아 6개(3×3) 발전축 설정
- 5개 권역 : 중추도시권(전주·익산·완주·김제), 서남권(정읍·고창·부안), 동남권(남원·임실·순창), 동북권(진안·무주·장수),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새만금)
- 3×3 격자형 발전축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차하는 2개의 핵심(성장)축과 이를 둘러싼 4개의 연계축 등 남-북 3개·동-서 3개의 격자형으로 구성<sup>7)</sup>
  - 혁신성장축(남-북) : 전라북도의 핵심 성장축으로 세종·대전·충청권 등 국토 중심지역으로의 성장을 지향하면서 광주·전남권과의 연계 추진
  - 생태문명축(동-서) :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대구·경북으로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생태자원(만경·동진강)을 중심으로 한 상생·균형발전, 외부적으로는 새만금-중국으로 연계되는 글로벌 성장과 국토 횡단 연계축으로 확대
  - 해양레저축 : 서해안 지역의 해양 관광 및 산업 기능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권(초광역권)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발전
  - 백두대간 힐링축 : 전북 동부권 지역을 종단하면서 지리산·덕유산 등 백두대간 산림자원 기반 휴양·레저 활성화
  - 북부생태 연계축 : 만경강·금강 유역의 생태자원 및 백제 세계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생태관광 육성과 함께 금강을 중심으로 충남과의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 남부생태 연계축 : 동진강·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권역 내 건강과 관련된 자연환경과 주요 시설 및 정책 등을 활용하여 건강·의료 산업, 문화 등의 기능 특화

## 2 공간구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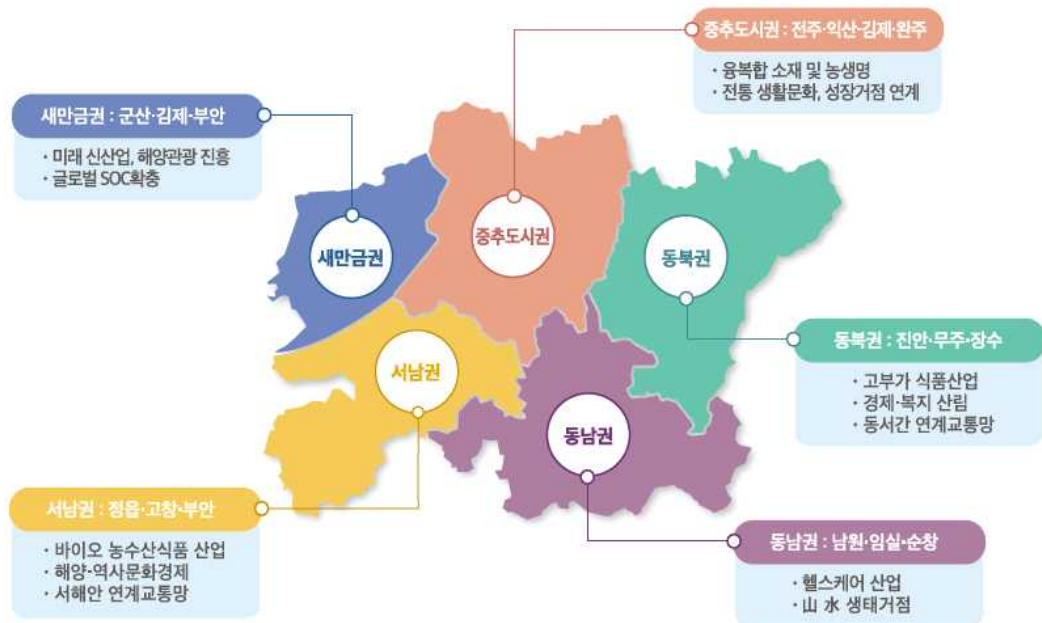
### 01 5권 특화발전 방향

#### 가. 개요

7) 제4차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 (2018). 전라북도, 이성재.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5축 특화전략 구상. (2020). 전북연구원. 재편집 및 수정작성

- 전라북도 각 지자체의 특성 및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원과 각 권역에서 추진중인 중점사업 등 각 지자체의 발전 가능성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반영하여 권역을 조정·설정
-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특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통의 특화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인접 권역 간 보완할 수 있는 상호 연계 가능 방안 구상

■ 그림 2-4 ■ 5권 특화발전 방향



## 나. 목표 및 전략 설정<sup>8)</sup>

### □ 중추도시권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 목표 : 혁신·상생 발전
  - 집적된 양호한 산업 여건의 혁신을 통한 성장과 자원 연계를 통한 주변 권역과의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중추기능 수행
  - 전통문화 중심의 콘텐츠화 등 문화산업 육성 및 생활문화 확산을 통해 문화 거점 기능 강화
- 전략 : 융복합·소재 및 농생명산업 고도화, 전통·생활문화 확산, 성장거점 연계발전

8) 제4차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 (2018). 전라북도, 이성재.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5축 특화전략 구상. (2020). 전북연구원. 재편집 및 수정작성

#### □ 서남권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목표 : 서해안 새로운 문명 거점
  - 역사문명, 생태문명, 정신문명 등의 발굴 및 보존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문명의 거점 기능 수행
  -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중추혁신도시권의 관련 산업과 연계·발전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농생명 산업 육성
  - 세계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과 해양·해안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발전 추진
  - 산·들·바다를 보유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자원의 연계 및 네트워크화 도모
- 전략 : 바이오·농수산물식품산업 육성, 해양·역사문화 경제 선도, 서해안 연계 교통망 구축

#### □ 동북권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목표 : 강소지역 도약
  - 인구감소 및 지역 쇠퇴에 대응하여 집약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활력 창출을 통해 소생하는 강소지역 지향
  - 동부권 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식품과 관광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 문화 복지 거점화 추진
  - 권역 내 지역 간과 타 권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
- 전략 : 고부가 식품산업 강화, 경제·복지 산림 육성,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대

#### □ 동남권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 목표 : 건강·생태 유토피아
  - 경쟁력 있는 건강 자원과 연계된 산업을 육성하고, 산림 및 수변 자원을 기반으로 생태힐링 거점 기능 수행
  - 동부권 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식품과 관광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 동북권과 함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발효, 건강·의료 등의 신산업 특화
- 전략 : 헬스케어산업 특화, 山水 생태 거점

## □ 새만금권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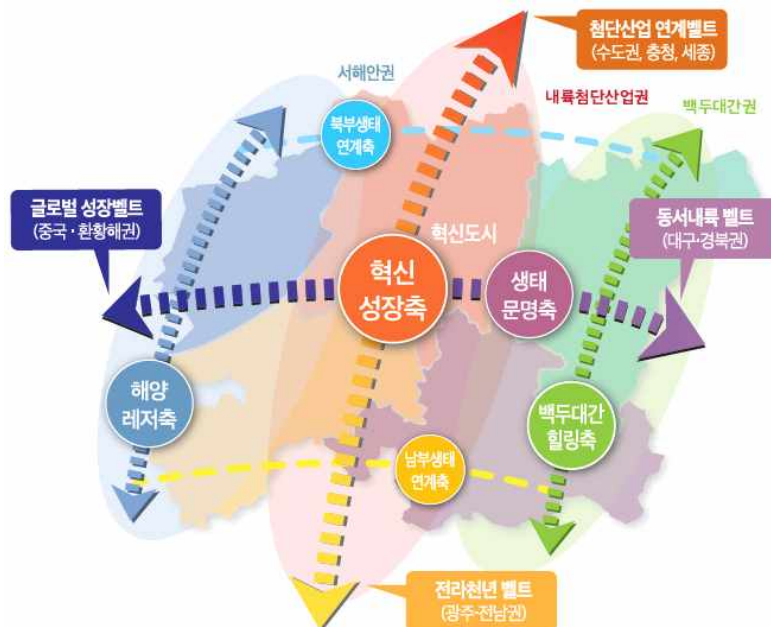
- 목표 : 동북아 경제 허브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미래 신산업의 전진기지화 및 공항, 항만 등 글로벌 도약을 위한 SOC 확충
  - 해양 역사 및 문화, 레저 등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권역을 연계하는 생태 축으로서의 기능 강화
- 전략 : 미래 신산업 요람, 해양관광 진흥, 글로벌 SOC 확충

## 3 발전축 구상

### 01 기본방향

- 3×3 격자축의 발전방향은 5개 권역의 목표와 전략을 고려하되 권역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
- 권역 간 주요기능 중 상호 연계를 통해 기능을 강화시키고 시너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개념을 우선적으로 고려

Ⅱ 그림 2-5 3X3 격자형 발전축 구상도



## 02 발전방향<sup>9)</sup>

### □ (대외지향형) 혁신성장축

- 권역 : 중추도시권, 서남권
- 방향 : 농생명 융합 및 R&D 벨트
  - 농생명 관련 전후방 산업들의 융복합화와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R&D 기능 강화
- 주요과제 : 종자 및 미생물 R&D 강화, 전북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 민간육종, 방사선육종 등 종자산업의 Seed Valley 거점 기능 강화
  - 전주, 완주, 정읍 중심의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기능 및 지원체계 강화

### □ (대외지향형) 생태문명축

- 권역 : 중추도시권, 새만금권, 동북권
- 방향 : 성장거점 확산 및 연계 벨트, 국토 동서내륙 상생발전 벨트
  - 혁신도시의 성장효과를 새만금권과 동북권으로 확산시키고, 새만금 개발효과를 중추혁신도시권과 연계시켜 시너지 극대화
  - 장기적으로는 새만금권~중추혁신도시권~동북권~대경권으로 연계되는 국토 내륙의 상생발전 벨트로 확대 추진
- 주요과제 : 미래 성장동력산업 연계, 농생명산업 고도화
  - 중추혁신도시권과 새만금권 간 탄소, 수소산업, 지능형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연계 강화
  - 종자, 농기계, 가공, 수출 등과 관련된 농생명 산업의 고도화

### □ (연계협력형) 해양레저축

- 권역 : 새만금권, 서남권
- 방향 : 해양 생태·레저 벨트

9) 제4차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 (2018). 전라북도, 이성재.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5축 특화전략 구상. (2020). 전북연구원. 재편집 및 수정작성



- 해양 및 해안 자원을 보유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생태 관련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화, 해양레저 등의 관광 활성화

• **주요과제 :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 해양 레저 기반 확충**

- 갯벌, 섬, 해수욕장 등 해양·해안 생태환경의 관광 상품화 등 자원의 현명한 이용 촉진
- 해양 및 해안자원을 활용해 자연친화형 친수 어메니티 기능을 강화시키고, 관련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

□ **(연계협력형) 백두대간 힐링축**

• 권역 : 동북권, 동남권

• 방향 : 산림 휴양·레저 벨트

- 국민적 산림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산림자원 기반 휴양·레저 활성화

• **주요과제 : 산림 휴양·힐링 특화, 산림 문화·레저 확대**

- 지덕권산림치유원을 거점으로 인접 지역의 산림 휴양시설을 기능적으로 연계시키고, 힐링 거점으로 특화
- 산림과 연계된 목재문화, 숲 문화 등 산림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산림에서 즐기는 다양한 레저 활동 확충

□ **(연계협력형) 북부생태 연계축**

• 권역 : 중추도시권, 새만금권, 동북권,

• 방향 : 생태·역사 관광벨트

- 만경강·금강 유역의 생태자원 및 백제 세계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생태관광 육성과 함께 금강을 중심으로 충남과의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 **주요과제 : 만경강 생태 관광 육성, 금강 레저·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 만경강 유역 지자체 연계를 통해 생태환경의 복원·보전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 금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데미샘, 옥정호 등 생태자원의 관광 기능 확충과 함께 수상레저 기반 확충

□ (연계협력형) 남부생태 연계축

- 권역 : 동남권, 서남권
- 방향 : 건강·의료 특화 벨트
  - 동진강·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권역 내 건강과 관련된 자연환경과 주요시설 및 정책 등을 활용하여 건강·의료 산업, 문화 등의 기능 특화
- 주요과제 : 헬스케어산업 육성, 생태힐링 거점화
  - 건강 자원 및 시설에 기반하여 인력 양성, R&D 기능 강화, 연관 산업 등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지리산, 옥정호, 섬진강, 내장산, 문수산, 갯벌 등 지역 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생태 힐링 거점 조성 및 네트워크화

# III

## 전략별 추진계획

1. 도약하는 지역발전과 미래가치 창출
2.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행복 전북 구현
3. 상생형 도농융합과 농산어촌 활성화
4. 미래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5. 산업생태계 개편을 통한 新성장 동력산업 육성
6. 스마트 산업기반 구축과 주력산업 고도화
7. 공생과 혁신을 통한 고품격 여행체험 1번지 육성
8.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SOC 대동맥 완성



## 1. 도약하는 지역발전과 미래가치 창출

- 1.1 상생도약과 균형발전
- 1.2 전북형 스마트도시 조성
- 1.3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 1.4 생태문명사회 전환기반 구축

## 2.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행복 전북 구현

- 2.1 기후변화시대 유연한 대응태세 확립
- 2.2 지속가능한 전북 환경기반 조성
- 2.3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전북
- 2.4 지역 간 균형적인 복지제공기반 구축
- 2.5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안전망 확보

## 3. 상생형 도농융합과 농산어촌 활성화

- 3.1 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진화와 혁신
- 3.2 농산어촌 지역순환경제 구축
- 3.3 지역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육성
- 3.4 농산어촌 지역생활 돌봄체계 강화

## 4. 미래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 4.1 지속가능한 삼락농정 역량 강화
- 4.2 글로벌 농식품 융복합 산업기반 강화
- 4.3 미래 농산업 스마트 혁신거점 구축

## 5. 산업생태계 개편을 통한 新성장 동력산업 육성

- 6.1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그린뉴딜 추진
- 6.2 글로벌 자산운용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6.3 디지털 뉴딜 육성기반 구축

## 6. 스마트 산업기반 구축과 주력산업 고도화

- 5.1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
- 5.2 매력적 산업생태 공간 구축
- 5.3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 7. 공생과 혁신을 통한 고품격 여행체험 1번지 육성

- 7.1 공생과 혁신의 지역문화
- 7.2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체험 1번지 육성

## 8.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SOC 대동맥 완성

- 8.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국2·전북1시간 도로인프라 구축
- 8.2 지역개발 여건 혁신을 위한 교통연계체계 구축
- 8.3 시스템 혁신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북
- 8.4 항만·물류산업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활용

## 제1장 도약하는 지역발전과 미래가치 창출

### 1 상생도약과 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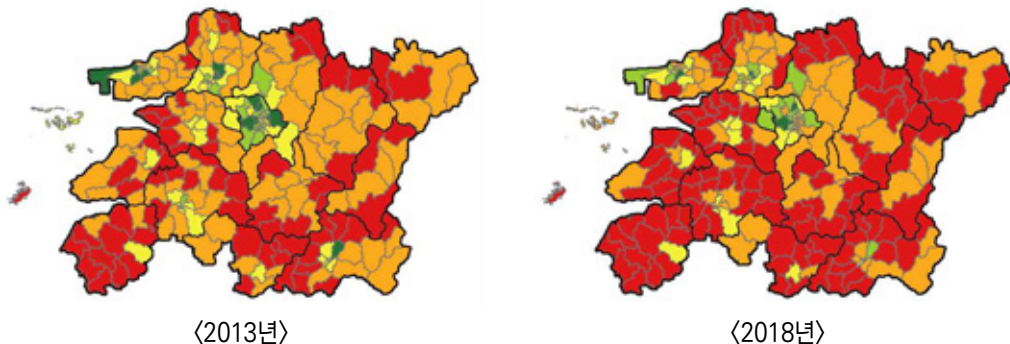
#### 01 현황 및 문제점

#####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 가속화

- 최근 20여 년간(2000년~2019년) 전북의 인구는 약 9% 감소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기타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 동부권 일부와 서남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감소율이 25%이상에 이르는 지역은 7개 시군
- 가임여성은 축소되는 반면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북의 동부권과 서남권,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험
  - 241개 읍면동 중 소멸고위험지역은 2013년 67개 지역(27.8%)에서 2018년 99개 지역(41.0%)으로 47.7% 증가
-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 읍면 농촌 지역의 과소화 마을(20호 미만 가구)은 2000년 총 2,655마을에서 2018년 2,847마을로 192개 마을이 증가했으며, 비중은 2000년 38.4%에서 2018년 41.2%로 증가

【그림 3-1】 전라북도 읍면 지방소멸위험 현황

■ 소멸위험 매우낮음 ■ 소멸위험 보통 ■ 주의단계 ■ 소멸위험진입 ■ 소멸고위험지역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8, 재정리

표 3-1 시군별 인구감소 위기 현황

(단위 : 명, %, 개)

구분	인구증감			지역소멸지수		과소화마을	
	2000	2019	증감률	2000	2019	2000	2018
전라북도	1,999,255	1,818,917	-9.0	1.51	0.53		
전주시	620,521	654,394	5.5	2.88	0.91		
군산시	277,491	270,131	-2.7	2.02	0.61	105	127
익산시	334,324	287,771	-13.9	1.96	0.59	84	99
정읍시	152,022	110,541	-27.3	1.10	0.32	210	268
남원시	103,571	81,441	-21.4	1.05	0.31	129	139
김제시	115,865	83,895	-27.6	0.86	0.26	276	345
완주군	84,009	92,220	9.8	1.08	0.44	270	208
진안군	31,273	25,697	-17.8	0.62	0.21	197	183
무주군	29,207	24,303	-16.8	0.67	0.21	125	115
장수군	30,051	22,441	-25.3	0.72	0.22	126	111
임실군	37,514	28,902	-23.0	0.59	0.22	238	271
순창군	34,587	28,382	-17.9	0.56	0.23	172	184
고창군	74,104	55,504	-25.1	0.66	0.21	561	605
부안군	74,716	53,295	-28.7	0.77	0.24	162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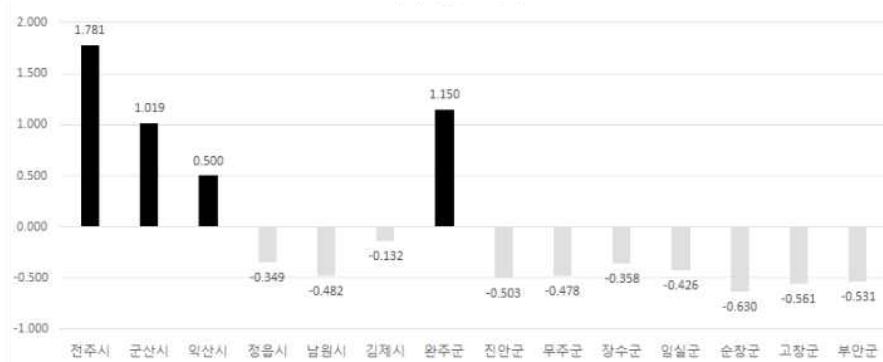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전라북도 농촌과소화정책지도제작 연구용역, 전북연구원, 2018

## 발전 수준의 양극화 및 낙후지역 증가

- 지역낙후도지수 분석 결과 서남권과 동부권을 중심으로 낙후도 심화
  - 공간적으로 전북의 중심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시와 대규모 산단 등을 보유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과 서남권 및 동부권과의 발전격차 심화

그림 3-2 시군별 낙후도 지수



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KDI 기준으로 자체 분석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7년 기준

## □ 성장거점의 기능 강화 및 활용 필요

- 혁신도시, 새만금, 국립지적권산림치유원 등 주요 성장거점의 2단계 추진 및 활성화 등을 통해 거점 기능을 강화시키고, 인접 지역과의 연계로 상생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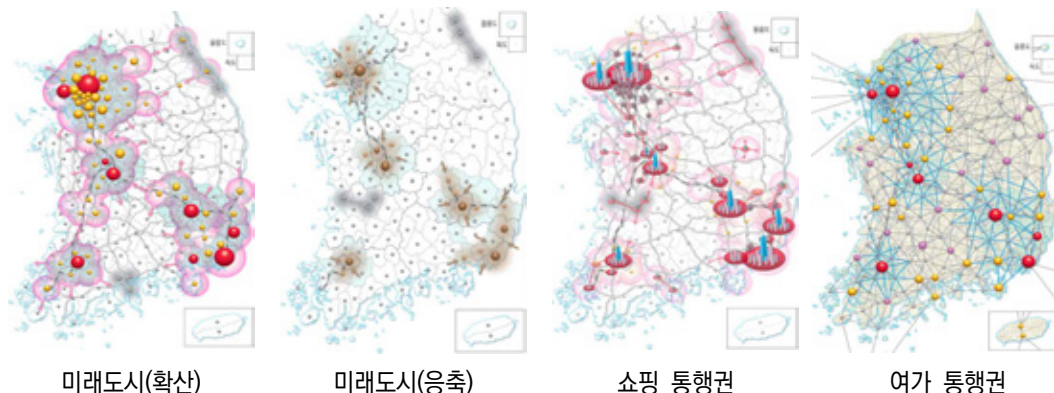
\* 주요 성장거점 : 혁신도시, 수소시범도시, 상용차산업 및 자율주행거점,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연구단지,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국립지적권산림치유원 등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수도권 집중 및 대도시권 광역화

- 인구를 비롯한 기업, 일자리 소비 등 경제활동의 주요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 수도권 비중 : 인구 50% 돌파('19년), GRDP 50.2%( '17년), 1,000대 기업 73.6%( '16년), 사업체수 47.2%( '17년), 종사자수 49.1%( '17년), 신용카드 사용액 81%( '15년)
- 전국적 인구감소 현상 속에서도 대도시권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광역화는 지속되고, 이동수단 발달로 지역간 접근성 제고와 국내여행 활성화로 생활권 확대
  - 광역시 인구 비중 : ( '75년) 39.5% → ( '20년) 44.2%
  - 지방의 축소도시 : 20개소(경북 7, 전북 4, 강원 3, 충남 3, 전남 2, 경남 1)

Ⅱ 그림 3-3 Ⅱ 대도시권 미래시나리오 개념도



자료. 미래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16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 2020

## □ 광역 단위의 협력 수요 증대

- 지방분권 및 분산의 정책 기조 안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간 보유한 자원과 산업, SOC 등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한 권역화 및 네트워크 등 광역 단위의 협력 수요 증가
  - 행정통합 메가시티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경제통합 메가시티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 강호축 연계 : 충북,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발전 연계
  -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협력하여 남해안의 5대 공통 테마를 중심으로 관광클러스터 및 한반도 선벨트 연계

그림 3-4 | 광역 단위 협력정책 사례



## □ 균형발전의 중요성 강화 및 세분화

- 문재인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광역지자체 내부의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
  -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과제에 균형발전(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주민자치 확대, 지역의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
  -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정책을 통해 지역 내 낙후지역인 경기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부, 경남 서부권 등의 발전 수요 증대
-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과 동네 마을 등 공간규모에 따른 다차원적인 정책목표 세분화 전망
  - 시·도 및 광역경제권은 경제·산업·일자리의 균형, 시군구 및 지역생활권에서는 교육·보건·



복지·삶의 질 균형, 읍면동 및 마을에서는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육성 등 공간규모별 다차원적 정책을 통한 지역내 균형발전 도모<sup>10)</sup>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지역의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 농업에 ICT 기술이 접목되고 문화자원의 디지털 콘텐츠화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수요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됨에 따라 혁신 지향형 융복합 발전 촉진
- 자치단체 및 주변 대도시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내 비교우위 자원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발전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자원의 창의적 활용으로 특화발전 도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2006)'의 위상제고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 추진

#### □ 성장 잠재력이 제고되는 상생도약

- 미래의 국토공간 구조는 대도시권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등 대도시권의 광역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북의 외연적 성장판 확장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형 국책사업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확대

#### □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특화된 균형발전

- 낙후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를 위해 인구, 자본, 산업 등 낙후지역의 취약한 경제규모 확대
- 낙후지역 시군 간 연대 및 권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및 인접한 발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발전축의 연계 강화

10)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018). 지역발전위원회

## 04 세부 추진과제

### □ [혁신성장] 혁신 지향형 융복합 발전 촉진

- 농업·농촌, 산업·과학기술, 문화·관광 등 자원 간 융합, 부문 간 융합 등을 통해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융복합 신산업 육성
  - 삼락농정 기반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탄소소재를 활용한 융복합 탄소산업 육성, 생태자원에 역사문화가 깃든 여행·체험산업 등을 적극 추진

### □ [혁신성장] 자원의 창의적 활용으로 특화발전 도모

- 전북이 보유한 江·山·海 등 자연자원, 생태자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 및 관광자원 등에 혁신가치를 부여하고 창의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화발전 도모
  - 중추혁신도시권은 혁신성장과 상생도약을 위한 중추기능, 서남권은 서해안 문명거점, 동북권은 강소지역 창조, 동남권은 건강·생태 유토피아, 새만금권은 동북아 경제 허브 등의 특화발전 고려

### □ [상생도약] 전북의 외연적 성장판 확장

- 전라북도의 내부의 발전은 집중과 압축중심의 발전을 통한 내부광역화, 외부 발전은 인접 지역 및 클러스터와 협력을 통해 연계성 및 성장·발전축 확장 추진
  - 내부적으로는 전주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새만금 등을 활용한 다극체제로 공간구조를 전환시키고, 전주를 중심으로(전주완주+α) 내부광역화 등을 추진
  - 외부적으로는 북측의 세종시 행정수도·충청권과 남측의 광주·전남의 전라천년축의 남북축 연계를 강화하고 동측의 경북과 동서내륙벨트 조성 및 새만금을 거점으로하는 중국과의 연계로 글로벌 동서축을 조성

### □ [상생도약]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확대

- 전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확대를 통한 성장거점 기능 강화와 성과확산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확대
  - 혁신도시 내 2단계 공공기간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글로벌화, 민간육종 연구단지 확대, 새만금 내부 조기개발 등을 통해 성장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인접 지역과 상생발전 방안 구체화

□ [균형발전] 공간경쟁력 제고 및 발전축의 연계 강화

- 도내 동부권과 서부권 일부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으로 공간이 지니는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자원과 기능 중심의 발전 축 연계 강화 필요
  - 중추혁신도시권에 집적된 R&D와 연계한 종자 R&D벨트, 미생물융복합벨트, 펫푸드산업벨트 등 혁신 성장 발전축을 강화시키고, 동부권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산림 휴양힐링 및 문화레저 기능 등을 확충

## 2 전북형 스마트도시 조성

### 01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재생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 정부의 도시재생R&D 테스트베드는 2011년 전주시(노송동)에 도입되었으며, 2014년 선도지역으로 군산시, 2016년 일반지역으로 전주시, 남원시 선정
  - 2017년부터 추진된 뉴딜시범사업은 2017년 6개 지역(5개 시군), 2018년은 7개 지역(6개 시군), 2019년은 6개 지역(5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신규 도입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3개 지역(3개 시군)이 선정됨
- 국토부는 지역 재생을 위해 지역민이 발굴한 단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규모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재생 관련 사업의 확대
  - 소규모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단계로 전국 대상 2020년 75곳을 선정하였으며, 전북은 전주시(3), 익산시, 임실군, 순창군 등 총 6개소가 선정됨

표 3-2 전라북도 도시재생 추진 현황

구분	개소	시군(유형)
2011	1	전주시(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
2014	1	군산시(일반근린)
2016	2	중심시가지(전주시) 일반근린(남원시)
2017	6	중심시가지(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일반근린(전주시) 주거지지원(완주군) 우리동네살리기(군산시)
2018	7	중심시가지(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일반근린(남원시, 부안군) 주거지지원(고창군) 우리동네살리기(전주시)
2019	9	중심시가지(군산시) 일반근린(익산시2, 김제시) 주거지지원(정읍시) 우리동네살리기(완주군) 도시재생인정사업(전주시, 군산시, 부안군)

자료. 오병록 외. 사회경제적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성과 확대방안. (2020). 전북연구원, 재정리

## □ 여건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도시재생 필요

- 스마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산업을 넘어 도시공간, 생활환경에까지 확장됨에 따라 국가정책 및 주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도시재생 필요
  - IoT, ICT, 클라우드 등 스마트 기술과 데이터 분석기술 등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서비스 및 생활공간관리에 대한 지능화 시스템 수요 증대

## □ 노후주택 및 빈집 증가

- 2018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전북의 노후 건축물 규모는 41.1%(198,476동)이며,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은 약 25.1%(120,276동)로 추정
  - 전북에서는 노후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시장의 침체화로 노후주택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표 3-3】 시군별 빈집(30년 이상) 현황

(단위 : 동, %)

구분	합계	시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2018	198,476 (41.4)	129,477 (42.7)	29,920 (41.3)	19,068 (41.2)	31,030 (47.6)	15,127 (36.5)	18,079 (46.3)	16,253 (41.6)
구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2018	10,956 (31.1)	8,398 (42.4)	6,170 (42.6)	10,773 (47.2)	4,971 (32.6)	8,951 (49.5)	1,725 (8.3)	17,055 (52.5)

자료. 전라북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2019), 전라북도

- 도내 빈집은 2017년 기준 77,631호로 2015년 73,869호에 비해 약 5.1%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빈집의 75.0%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 지역에 분포
  - 농촌빈집 정비,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빈집 리모델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과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정비 관련 조례를 제정(4개 시군)하였으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3-4】 시군별 빈집 현황

(단위 : 호수)

구분	합계	시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2015	73,869	55,295	15,139	13,971	12,578	5,195	3,620	4,792
2017	77,631	58,196	15,688	15,223	11,448	6,279	3,987	5,571
구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2015	4,061	1,218	1,627	1,083	2,359	2,014	2,921	3,291
2017	4,734	1,183	1,691	1,050	2,047	2,063	3,243	3,424

자료. 전라북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2019), 전라북도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첨단 IC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

- 전 세계적으로 복잡·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첨단 ICT 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
  - 영국은 교통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며, 네덜란드는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덴마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미국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국가 차원의 스마트 시티 정책 강화

- 정부는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가상현실, 드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혁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어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 및 중요성 증대
  - 정부는 국가시범도시로서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조직함
  - ICT 기술을 적용해 도시관리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 중임

### □ 주택 수요 다양화 및 주거복지 중요성 증대

- 1인가구 확대 및 고령자 증가 등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는 주택 유형에 대한 수요를 다양화시키고, 온라인 기술 발달과 전염병 확산 위기 등은 비대면 수요를 창출시켜 주택용도의 다변화 촉진 전망
  - 전국 고령인구 : (‘17)707만 명/13.8% → (‘35)1,524만 명/20.3% → (‘47)1,879만 명/38.4%
  - 전북 고령인구 : (‘17) 34만 명/18.5% → (‘35) 59만 명/34.7% → (‘47) 70만 명/43.9%
- 초저출산 시대 진입과 급속한 고령화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여 주거복지 관련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커뮤니티 확대 등은 주거복지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지역수요 대응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

- 도시재생 또는 지역재생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도시의 지속적인 재생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 필요

\*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등의 서비스를 말함(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도시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문제해결의 지능화를 위한 지역수요 대응 스마트도시 추진 및 플랫폼 구축

#### □ 뉴노멀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 저출산 및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비대면 수요 증가 등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환경 조성
  - 주거시설은 고밀도에서 중저밀도를 지향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주거공간은 거주 외에도 업무,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한편 주거서비스는 집적화 및 통합화를 통한 효율화가 중요함

### 04 세부 추진과제

####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현

- 도시의 복잡한 사회문제 및 다양한 주민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도시서비스의 통합적·유기적인 접근으로 스마트한 대응체제 구축
- 도시의 어메니티를 제고시키고 지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

#### □ 지역자원 연계 스마트도시 콘텐츠 구축

-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 중 혁신가치를 부가하여 고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시킨 소프트웨어 창출

- 지역 자산의 재생 자원화 및 DB 구축, 스마트 콘텐츠를 통해 지역 내 자원, 혁신형 콘텐츠, 스마트도시 콘텐츠 강화 등으로 선순환되는 시스템 구축

#### □ 도내 유희자원 활용의 다각화

- 인구감소가 심한 구도심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등 유희 주거시설이 확대되고 있어 귀농귀촌, 은퇴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공간과 지역사회의 복지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리뉴얼 확대
  -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빈집철거, 빈집 등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햇살가득 농촌재생 및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사업 등은 확대 추진하고, 은퇴자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 추진
  -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인구유출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을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예산을 지원
- 리뉴얼이 어려운 유희시설을 철거하여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공용공간 확보

#### □ 스마트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제고

- 도시의 방범, 방재, 화재 등의 사회안전서비스, 재난정보 등 행정서비스, 실시간 시설물관리 등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주거환경 조성
- 도민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보 취합·분석 및 매뉴얼을 개발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주거복지 업무의 모니터링 및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전라북도 및 시군 주거복지 관련 부서, LH 및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포용적·통합적 주거복지 제공

### 3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sup>11)</sup>

#### 01 현황 및 문제점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가사업

-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사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2011)’, ‘새만금 기본계획(2014)’ 그리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2021)’ 등에서는 새만금사업의 개발비전 및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새만금 개발 방향 제시
- 새만금사업은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 구축
  -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 □ 새만금사업은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개발이 주목적

- 새만금의 비전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을 통한 미래상의 구현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으로 설정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청정에너지 허브, 융복합형 그린 신산업 거점,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활력 있는 생태관광 중심도시, 모두가 살고 싶은 스마트 수변도시로 설정
-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2021)」에 따르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및 신산업을 통한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의 육성 제시
  - 새만금은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물자의 생산과 유통 중심지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위한 유리한 지리적 이점 보유

11) 자료 : 김재구. (2020). 2단계 새만금사업 추진과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연구원. 인용 및 재편집



-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디지털 인프라와 신이동체(자율형 자동차, 도심항공 등) 등 융복합 신산업의 거점 구축
- 새만금은 타지역에 비해 토지개발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지공급 기준 적용이 완화된 투자자나 입주기업의 융복합 기반 창의적 개발과 규제완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가능

■ 그림 3-5 ■ 새만금의 지리적 여건



■ 그림 3-6 ■ 새만금 비전 및 목표



자료 :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안). (2021), 새만금개발청

## □ 저조한 용지조성 실적 및 민간투자 유치에 불리한 사업여건

-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개발목표는 전체 개발계획면적(291㎢)의 72.7%로 제시되었으나, 매립완료 및 진행 중인 38.1%에 불과
  - 새만금사업은 1단계에서 총 개발면적의 72.7%를 개발하고 2단계에서 나머지 27.3%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새만금의 역할 재정립, 실행계획으로의 위상 제고, 공공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새만금사업에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새만금에 조성되는 교통인프라 역시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의 적기 공급이 중요
  -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시기와의 편차 발생
  - 새만금에 대한 제조업, R&D, 관광 등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중요하나, 신항만을 비롯한 국제공항 건설이 2025년 이후부터 단계적 완공이 예상되어 초기 새만금 투자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낮을 것으로 전망

【표 3-5】 새만금 용지별 매립 현황(2019.12 기준)

용 지 명	매립 필요면적(km <sup>2</sup> )		용지 매립 현황(km <sup>2</sup> )		
	면적	비율	계	완료	진행중
계	291.0	100.0%	110.8 (38.1%)	35.1 (12.1%)	75.7 (26.0%)
농생명용지	94.3	32.4%	81.4	15.1	66.3
산업연구용지	41.7	14.3%	8.09	4.39	3.7
관광레저용지	36.8	12.7%	6.3	6.3	-
환경생태용지	42.0	14.4%	0.81	-	0.81
배후도시용지	10.0	3.4%	-	-	-
국제협력용지	52.0	17.9%	-	-	-
기타	14.2	4.9%	14.2	9.3	4.9

자료. 전북도청 내부자료, 2019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세계경제 저성장과 국내경제 침체로 인해 새만금에 대한 투자위축 가중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대에는 1%대로 저하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OECD, Long-term baseline projections, No.103, 2020)
  - 2000년대 초반 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2%대의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역시 계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반등하기에는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

- 새만금은 국내 유일한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지속적인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경제의 성장도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새만금에 대한 중국기업의 직접투자를 기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 가능
- 한중 FTA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방향과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 미중 간 무역갈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최근 정치적·사회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 무역갈등의 지속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전 세계적인 산업경제 저성장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 국가 간·지역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새만금 특화발전 어려움 예상

-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거점기능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새만금만의 특화발전 추진
  - 현재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ICT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
  - 매립을 통해 조성되는 새만금의 대규모 부지를 세계적인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매립과 조성을 통해 부지 확보가 선제되어야 하는 새만금은 적기 부지공급 및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새만금을 국가 및 지역 성장거점인 혁신클러스터로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마련 필요
  - 새만금을 중심으로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및 수소 상용차, 거대과학시설 등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경쟁력 확보 필요
  -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생산시설, 교육 및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정주여건 등 기능의 극대화와 연계 강화를 위한 공간체계 제공이 중요할 전망

####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환경요인에 따른 영향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자연재해, 인공환경 재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

- 수소연료전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 추진에 있어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구심점 필요
-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 증가
  - 생태산업단지 및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향후 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
  - 전기자동차 및 수소상용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요의 지속적 증가 기대

Ⅱ 그림 3-7 Ⅱ 새만금 토지이용계획과 스마트수변도시



자료.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안). (2021). 새만금개발청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추진

-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지속으로 인한 함께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사업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개발이 중요
  -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새만금사업 역시 민간투자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양책의 하나로 새만금사업 활용 필요
  -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전략적 산업육성을 위한 공간의 활용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중요

- 방조제 완공 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만금개발 및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상승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
  -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수변도시 사업은 새만금개발을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
  -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 수소상용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

#### □ 新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구축

- 새만금을 국가 및 지역 성장거점인 혁신클러스터로 활성화하고 신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마련 필요
  - 새만금을 중심으로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및 수소 상용차, 거대과학시설 등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경쟁력 확보 필요
  -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생산시설, 교육 및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정주여건 등 기능의 극대화와 연계 강화를 위한 공간체계 제공이 중요할 전망
-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거점기능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새만금만의 특화발전 추진
  - 현재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ICT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
  - 매립을 통해 조성되는 새만금의 대규모 부지를 세계적인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매립과 조성을 통해 부지 확보가 선제되어야 하는 새만금은 적기 부지공급 및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 새만금 투자유치 및 국내외 방문객 유치 전략 마련

-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새만금 투자 유치와 방문객 유치에 대한 보다 미래지향적 접근 요구
  - 새만금 산업단지 및 일부 관광레저용지를 중심으로 파편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 성과를 얻기에는 미흡한 실정
  - 투자 및 방문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내부간선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그리고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이 안정적인 추진과 적기 공급이 중요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새만금에 대한 대내외적 인지도 개선 및 이미지 구축
  -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적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일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메가이벤트의 지속적인 발굴과 활용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이 계획을 바탕으로 안정적 추진을 구현하여 불확실성 제거 필요

#### □ 새만금과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

-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지속되고 있는 국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필요
  - 새만금은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 경제벨트 구축의 연결고리 역할이 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지휘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발전 도모
  - 그동안 정부축 중심의 국가발전축을 다양화시키는 측면에서 새만금은 서해안발전축의 완성과 새만금-포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서경제벨트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 기대
- 새만금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인 군산, 김제, 부안 등에 공간기능의 적극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광역도시권 설정을 위한 기반 마련
  - 산업, 농생명, 관광 등 새만금 주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새만금내 주요 용지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도모
  - 도시 및 공간 기능에 대한 보완 및 공유를 통해 광역도시권으로의 새만금의 위상 증대와 함께 주변지역과의 도시서비스 향유와 일자리창출 등에 있어 공동 대응

## 04 세부 추진과제

#### □ 공공주도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발로드맵 제시

- 선제적 투자를 통해 수요 창출이 필요한 스마트 수변도시, 그린산단 등의 성공적 조성으로 새만금사업의 가시적 성과 확보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 새만금 스마트 수변都市는 기존 도시들과는 차별화된 수변공간과 스마트 공공서비스,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한 도시 내에서 향유가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 추진
- 새만금 내부기반시설 구축에 있어 재정지원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등 용지개발 가속화를 위한 공공-민간 역할 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도시화 기여

- 새만금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개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해소 및 사업지구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부간선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성장거점으로서의 새만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생명, 국제교류, 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등과 연관된 공공기관의 새만금 이전 추진 필요

#### □ 디지털·그린 중심의 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적극적 대응으로 친환경적 개발의 국가표준 선도
  -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수변도시와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새만금은 생태친화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유무형적 상징성 확보 필요
  -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함께 RE100, 재생에너지 관련 특성화 산단 및 R&D시설과의 연계 공급을 통해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 새만금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 내부와 주변지역의 친환경성 제고
  -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자연생태계 형성 유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재림, 미세먼지 차단 숲, 국가정원 추진
  - 생태산업단지 및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하여 산업투자 활성화 도모
  - 전기자동차 및 수소상용차 전진기지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발생 저감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선도

#### □ 새만금 투자 여건 개선 및 글로벌 인프라 조기 구축

- 새만금내 사업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특화 및 국내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여건 개선
  - 전략 분야별 국내 및 외투기업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부지 제공 등의 지원 다양화와 시장과 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의 적극 활용
  -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또는 공유수면 정산 특례 적용 등 용지 매립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사업성 제고 도모
- 새만금에 조성 예정인 내부간선도로와 광역교통망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투자 여건 강화 및 방문객 접근성 확대

-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Tri-port)는 새만금의 투자여건을 향상시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 인프라로 조기 공급을 위한 노력 필요
- 2023 세계잼버리를 통해 새만금의 대내외적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관광 거점인 고군산군도와 새만금박물관, 국립새만금수목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의 활용 극대화

#### □ 새만금 기본계획 위상 제고 및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반 마련

- 새만금 기본계획의 현실화와 위상을 강화하여 실현가능성 제고 필요
  -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은 개발목표 및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여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미흡
  - 따라서 새만금 기본계획의 국가계획에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일괄 예타 또는 예타면제 추진
  - 새만금 특별회계는 새만금특별법에 임의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향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및 공유수면 점사용 등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경제활동 등과 연계하여 새만금사업에 재투자를 위한 자원 마련 및 적기 사업비 투자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필요
  -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세부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 및 예타면제 추진 필요

#### □ 새만금과 주변 지역 연계발전 방안 모색

- 새만금 내부개발과 동시에 주변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새만금과 주변지역인 군산, 김제, 부안 그리고 새만금과의 연계가 필요한 전라북도 지역과의 공간기능, 산업, SOC 등 연계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
- 새만금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체계 보완 및 강화
  - 서해안철도, 새만금-고창 간 국도, 새만금-지리산 간 국도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필요



## 4 생태문명사회 전환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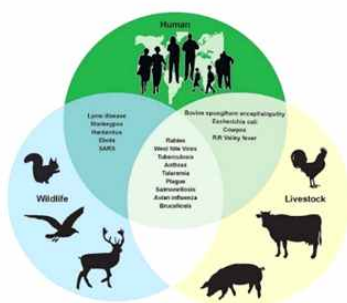
### 01 현황 및 필요성

#### □ 코로나19에 따른 생태적 전환의 중요성 강조

- 코로나19 근본원인,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자연침범이 기후변화 강제한 결과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의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중단된 이유는 '효율성·이익중시 세계화'가 원인으로 지목
  - 인류문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경제의 새로운 조직화, 다른 방식의 사회생활과 사회체계의 재정립이 강조
-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생태백신'으로 대표되는 생태계 보전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강조
  - ①화학백신(의학분야 약품), ②행동백신(사회적 거리두기), ③생태백신(생태계 보전과 생태 문명의 전환) 등을 강조

#### □ 근대·산업문명의 빛과 그림자, 의미와 반성

- '산업문명'은 인간에게 '편리하고 물질적 풍요로운 삶을 제공'했지만,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등에 의한 '생태적 위기'를 야기
- '개발과 이익'에 중점을 둔 산업문명이 야기한 결과
  - '①생태적 파괴 심화, ②빈부차이의 구조적 확대, ③자본기술 의존으로 공공정책 정당성 상실' 등 문제 야기
  - '경제주의·개인주의·분과주의·실증주의'에 기반 →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문명은 세계화의 원동력 → '자원고갈, 환경파괴,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야기



## 02 개념과 지향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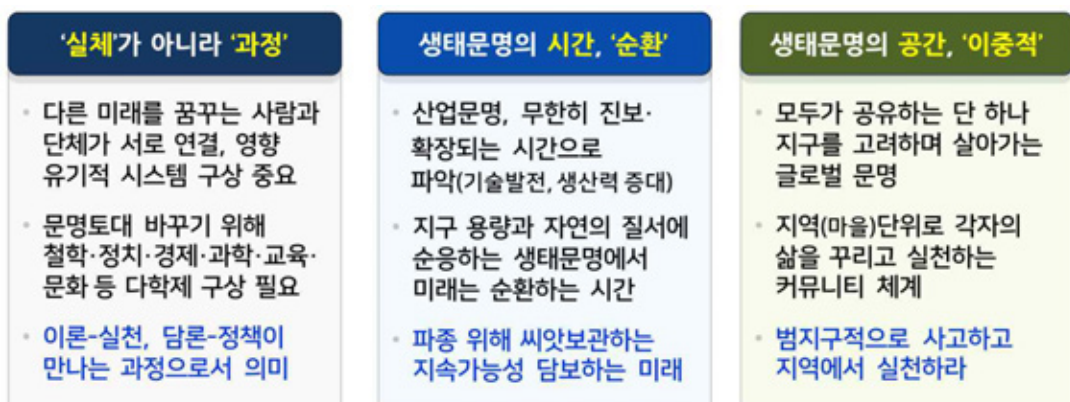
### □ 산업문명 이후 맞이할 선택의 기로, 생태문명사회로 전환

- 인류는 산업문명 이후 맞이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
  - [방안1]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환경파괴 등 문제를 '첨단기술 문명' 길
  - [방안2] '인간과 자연관계를 상호공존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생태문명' 길
- '생태문명'은 근대·산업문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제안되어 논의되고 실천되고 있음
- 지구의 자기조직 과정인 '지구기술'에 기반하여, '인간기술'은 자연질서에 순응하여 자연과 공존하면서 현대문제 극복하는 '다른 미래를 위해 진화하는 문명'



### □ 생태문명은 완전히 다른 미래이며 사회체계의 다음 패턴을 의미

-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지구적 한계를 반영하여 '재설계'하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향한 비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사회체계
  - 대안적 사회발전 모델로 '확장·정복·소비'의 정신을 '계약·협력·배양' 등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
  - 사회전환(transition) 전제, 원시적 순수성 회귀(낭만적 이상) 아닌 현실기반 새로운 대안적 문명



- ‘사회체계에 관한 다음 패턴’으로 유토피아적 꿈의 표현’이 아닌, 최소한 현재 문명 뒤에 올 어떤 것
  - 생각보다 깊은 수준의 변화를 의미하며,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더 쓰며, 고기를 덜 먹고, 전기차를 운전하는 수준을 넘는 근본 전환

#### □ 생태문명 사회의 기본개념

- [기본개념]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면서 회복력 높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해가는 전라북도의 미래가치 패러다임·전략
- [지향가치] 상호의존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조화, 공존, 공생 등
- [기대효과] 사람과 자연의 회복력을 높여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여 발전 가능

#### □ 생태문명 사회의 지향가치

- 문명의 생태화를 위한 ‘전환체계’ 지향
  - 지구적 한계의 ‘경제·정치·사회·문화·생산·소비·농업’ 등 사회적·경제적 시스템을 생명 중심의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을 통해 ‘체계를 전환’하고 재설계하는 다른 미래를 지향
- 생태문명 실천을 위한 ‘사회규범’ 확립
  - 생태문명으로 ‘체계전환’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등에서의 실천적 사회규범의 확립이 관건
- 문화적 다양성과 생태문명 ‘글로벌화’
  - 모두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지구를 고려하며 살아가는 글로벌 문명인 동시에 지역(마을)과 공동체 단위로 각자의 삶을 꾸리고 실천하는 커뮤니티 문명
- 생태문명 지식과 기술 ‘융합과 혁신’
  - 산업문명의 위기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백캐스팅(Back Casting)하여 대안적 생활양식을 통합적 비전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융합과 혁신이 관건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자연의 생태성(生態性) 회복 → “청정전북 자연생태 강화”

- 생태적 가치를 대표하는 자연인 ‘물, 강, 하천, 숲, 나무’ 등의 생태성을 회복하여 ‘청정전북 자연생태 강화’로 생태성을 회복
  - 생태성(生態性) :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가 지닌 성질, 상호의존성과 완결성이 생태계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요소를 강조, 인간, 동물, 식물 등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존중하고 살아가는 역량

#### □ 사회의 회복력(回復力) 강화 → “생활방식과 공간의 전환”

- 생활세계와 공간적 활동에서 생태적 삶의 양식으로 바뀌내기 위한 ‘생활방식과 공간을 전환’으로 회복력을 강화
  - 회복력(回復力) : 장기적인 충격, 변화, 불확실성에 대해 구조 및 수단을 적응 혹은 변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가 외부충격을 수용 혹은 그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역량

#### □ 경제의 환경성(環境性) 보장 → “그린산업으로 융합·혁신”

- 지역경제와 산업기반이 생태적 가치에 기반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그린산업으로의 혁신’을 위한 환경성의 보장
  - 환경성(環境性) :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용이성 제고와 적절한 폐기물 재활용 등 상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하 최소화 하는 것, 인간 중심 접근

#### □ 도농의 연결망(連結網) 구축 → “도농융합상생의 전면화”

- 농촌-도시가 직면한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관계로 공동의 선(이익)을 구현해 나가는 ‘도농융합상생’으로 연결망을 구축
  - 연결망(連結網) : 모든 존재는 그것이 사회적이든 자연적이든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호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사회연결망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구조를 의미

#### □ 주체의 실행력(實行力) 마련 → “생태시민 육성과 추진체계”

- 생태적 전환과 문명의 생태화는 개별 주체와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실천으로 가능하므로 ‘생태시민 육성과 추진체계’를 마련
  - 실행력(實行力) : 자기의 여러 가지 생각을 실행하는 능력으로 일을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힘이며,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의 문제
  - 생태시민(eco-citizen) : 생태와 공생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주체, 자연과 공생하는 인간으로서 ‘호모심비우스(homo symbious)’, 실천방안으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이 강조

## 04 세부 추진과제

### □ 청정전북 자연생태 강화

#### ① 추진목표

- 생태 거점공간 조성 및 생태 브랜드 획득
  - 습지관광 자원화(2개소), 생태공원(4개소), 생태 브랜드 획득(유네스코2, 국가4), 도심 속 미세먼지 차단 숲(41.9ha)

#### ② 대표사업

- 강 생태관광 체험기반 조성
  -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에 따른 환경적 삶의 질 저하, 환경 파괴에 대한 의식 제고 등에 따라 친환경적인 삶의 조건이 중요
  - 만경강과 동진강은 농경문화의 태동지로 자연-인간, 도시-농촌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고 발전하는 공생공진(共生共進) 공간으로 구상
  - 만경강과 동진강의 주요 생태자원인 신천습지, 갈대습지 등의 생태 관광자원화와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청정전북 생태관광 통합 브랜드 구축
  - 코로나19로 건강, 웰빙, 행복 등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웰니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어 소규모,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생태관광지, 1000길, 지질공원 등을 연계한 4대 생태축 5대 생태관광자원 구축
  - 생태관광 브랜드 “초록원정대”, “초록요청” 캐릭터 개발·활용
  -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생태관광 마을기업, 특산품 등 소득상품 발굴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가지정 생태관광(습지 등) 브랜드 인증 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노후 산업단지, 생활권 주요 도로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인근에 숲을 조성하여 도심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및 공기 정화
- 도시재생 사업지역 및 대규모 유희부지 등 도심 내 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수목 식재를 통한 숲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 □ 생활방식과 공간의 전환

### ① 추진목표

- 제로에너지 건축 구현 및 녹색건축 확산, 청정하고 안전한 소규모 단위 공정 여행상품 육성, 탄소포인트제 가입,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후변화 교육,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역 관광자원 연계·활용
- 녹색건축(건축물 140동, 주민생활공간 40동), 공정여행상품(30개), 탄소포인트제 가입(5천 세대/년), 기후변화 교육(2천 명/년), 다목적 화훼식물원, 스마트 팜 화훼단지

### ② 대표사업

- 공공 건축물과 주민생활공간 그린 리모델링

####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 취약계층 이용 노후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에너지 성능저하, 결로 발생, 곰팡이 미세먼지 오염 등 실내 환경 악화
- 사업대상 : 15년 이상 된 도내 노후 공공 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 사업내용 :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및 고효율 설비 적용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 개선 지원

#### [주민 생활공간 리모델링]

-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이용시설 중 노후 마을회관(주민생활공간)을 생태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
- \* 생태건축 :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자원과 에너지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한 건축물(자연에너지 활용, 건물의 인텔리전트화, 생태계를 고려한 녹화)
- 사업대상 : 15년 이상 된 노후 마을회관(주민생활공간) 40동
- 사업내용 : 생태건축(녹화 등),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및 고효율 설비 적용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 성능개선 지원

• 마을 공정여행 상품 발굴과 육성

- 코로나19로 관광 패러다임도 테마보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감염 없는 지역을 선호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사람+생태+문화에 기반한 소규모 단위의 마을 공정여행이 부상
-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여행객의 소비가 현지인의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가고, 인권·생명 존중이 중심이 되는 공정관광(환경보호, 문화보호, 착한소비 등)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 사업내용 : 공정여행 포럼, 공정여행 상품 발굴, 홍보마케팅, 마을공정여행 가이드 양성, 마을별 관광 상품화 추진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확산

- 민·관 협력을 통한 범도민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전개로 일상생활 속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생활 정착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탄소포인트제 시행] 가정·상가·자동차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가스,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가정 등 비산업 부문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기후변화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도민 대상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추진

•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고, 화훼 식물원 스마트팜 화훼단지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 사업내용 : 다목적 화훼식물원 및 문화공간 조성(82,000㎡) 등, 폐자원 에너지 발생 시설 보수 및 다목적 화훼 식물원, 문화공간, 화훼박물관 등 조성

## □ 그린산업으로 융합·혁신

### ① 추진목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7.5GW(전국 대비 18.3%), 수소차 5천대(전체 차량의 0.6%), 전기차 1만대(전체 차량의 1.1%)

### ② 대표사업

-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 전략 마련
  - 에너지 전환을 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 시장 확대 및 신성장 동력화 추진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4GW)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기술 실증·사업화를 촉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2.4GW 규모 주민 상생형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산업기반 구축
  -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새만금에 RE100 특화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인센티브 지원
-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 [수소경제 실현의 첫발,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 수소경제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수소산업 인프라 확대 방안 마련
    - 수소 승용차 14,000대, 수소 버스 400대, 수소 충전소 24기 등
  -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
    -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자동차의 확대 보급으로 대기 환경을 개선하여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여 증가하는 구매수요 충족, 전기차 10,000대(승용 6,567, 화물 2,410, 버스 33, 이륜 990)



## □ 도농융합 상생의 전면화

### ① 추진목표

- 도농 상생·융합하는 농촌공간 조성
  - 생생마을 플러스(200개소),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14개소)

### ② 대표사업

- 도농상생융합형 생생마을플러스 추진
  - 사회적·문화적 변화로 농촌의 문제는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대 도래
  - 과거 식량생산 공간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환 필요
  - 전라북도가 삼각농정·도농융합 상생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도시문제(재취업, 노후 준비 등), 농촌문제(과소화, 문화·예술 빈곤 등)의 새로운 실천대안을 제시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마을평생주민교육, 마을기술 사업단, 친환경 힐링식단 개발 등
  -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산촌마당캠프, 농촌공감여행, 도농상생 힐링 프로그램 운영, 농촌 소셜 다이닝,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등
  - **[기반구축 사업]**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농촌생활 직업 종합학교 설립, 스마트 빌리지 구축 등
-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공급-소비가 순환되는 먹거리 체계 구축으로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 저탄소, 신선,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 \* 푸드마일리지(먹거리 이동거리) : 먹거리가 생산된 곳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환산한 지수로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먹거리의 안전성이 높고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은 낮음
  - 전북지역 농산물 생산액 중 관내 유통은 4% 정도로 대형마트 등 관외 유통이 96%로 추정되어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관내 소비 활성화 필요
  - **[기반구축]** 지역 푸드플랜 구축, 로컬푸드·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 **[공급확대]** 로컬푸드 공공급식 추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직거래 장터 운영, 직매장의 생산·소비 교류활동,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지원
  - **[안전성관리]**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 □ 생태시민 육성과 추진체계

- 생태전환 시대를 위한 도민의 생태적 인식개선 및 도정 추진체계 구축
- 생태문명 기본조례 제정, 자문기구 설치, 종합계획 수립, 생태시민 육성 등

### [생태문명 기본조례 제정]

- 생태문명 실천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생활' 등에 관한 사회체계의 전환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기본조례 제정하여 생태문명으로서의 지역사회 체계 전환 방향과 내용을 마련

### [생태친화 관련조례 개정]

- '지속가능 생태문명 기본조례'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전반 생태문명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 생활을 지원하고 규정하는 각종 관련 조례를 '생태문명 친화적'으로 개정

### [생태문명 주민자치 프로젝트]

- 생태문명의 핵심가치인 '참여 민주주의'를 통하여 문명의 생태화를 추진할 핵심 프로젝트 추진
- 생태문명 전환 선도 시범지구 선정 및 지원 (가칭, 전환도시 시범 프로젝트)
- 생활권(읍·면·동, 농촌은 여러 개 면을 통합) 단위로 추진
-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토론과 공론화를 통한 협치 방식으로 추진

### [생태시민 육성]

- 생태문명의 사회적 실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교교육' 단위에서 '생태문명' 관련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실행
- 문명의 지속 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생태계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태소양을 높여주는 '생태시민'을 양성하는 사회교육 확대
- 생태문명 혁신거점에 생태문명의 생활적 실천 확산을 담당할 '생태교육 전문지도사' 양성

##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행복 전북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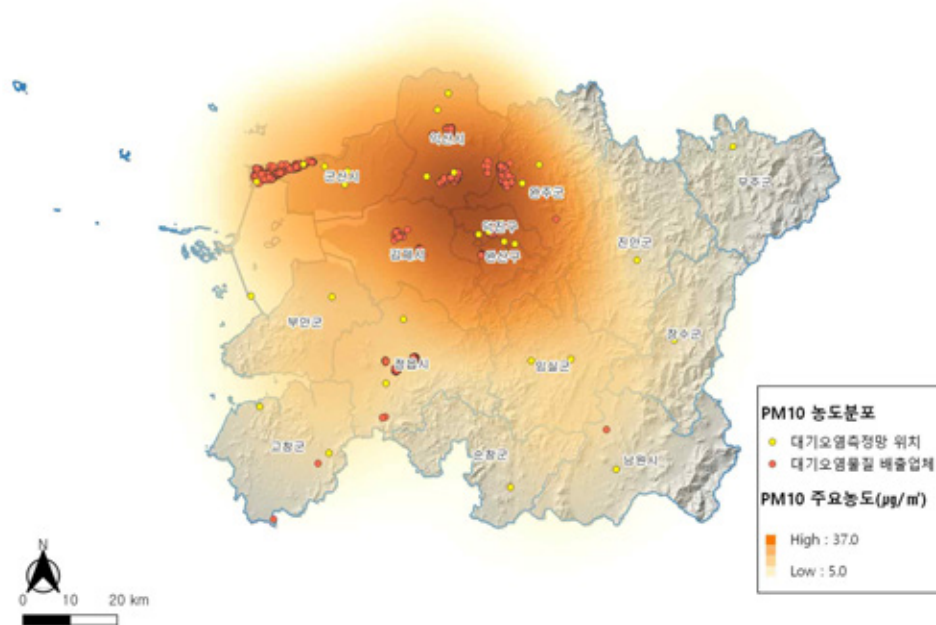
### 1 기후변화시대 유연한 대응태세 확립

#### 01 현황 및 문제점

##### □ 내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와 외부 유입에 따른 피해저감 대책 필요

- 주요도시의 (초)미세먼지의 연평균농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외부 유입 및 2차 생성에 의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임
  - PM10(2018년 기준,  $\mu\text{g}/\text{m}^3$ ) : 대전(43), 경기(43), 충북(43)>경북(42), 전북(42) 순
  - PM2.5(2018년 기준,  $\mu\text{g}/\text{m}^3$ ) : 충북(27)>경기(25), 전북(25)>광주(24), 경북(24) 순

【그림 3-8】 전라북도 미세먼지 연평균 분포도



자료.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 (2021). 전라북도

##### □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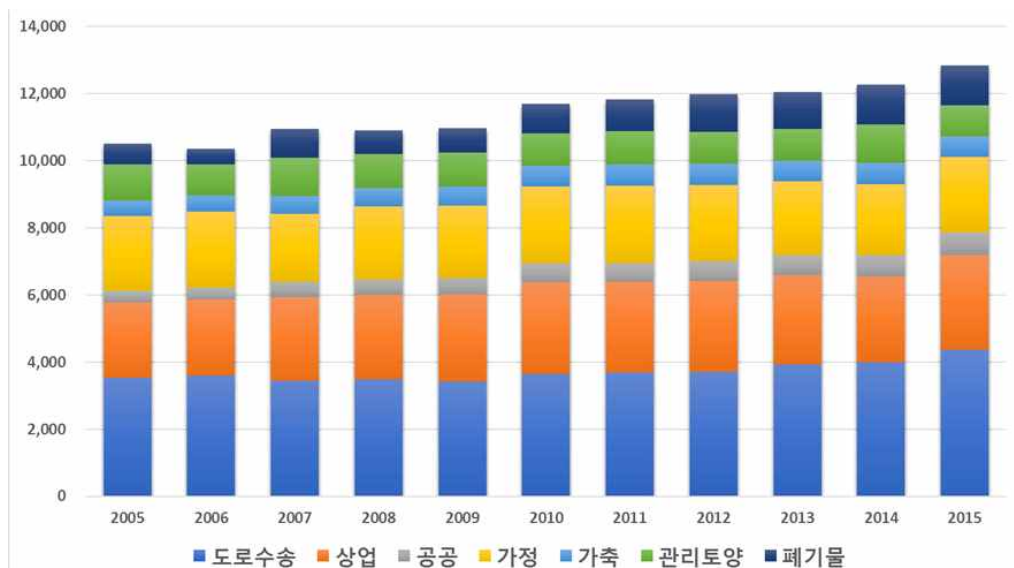
- 전라북도 연평균 기온이 21세기 후반(2071~2100)에는 현재보다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RCP6.0 시나리오 기준, 기상청, 2017)

-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 확충 필요 : 2016년 기준 전북 전력자립도(생산/소비)는 42.6%, 신재생에너지 발생량은 1,584,559MWh로 광역지자체 8위 수준
- 감축잠재량이 높은 민간 단위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필요
-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재난재해, 농축산, 산업, 생태, 해양 등)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필요

#### □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필요

- 2015년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목록) 기준 배출량은 12,825 천톤CO<sub>2</sub>eq.으로 도로수송(34%) > 상업(22%) > 가정(17%) > 폐기물(9%) > 관리토양(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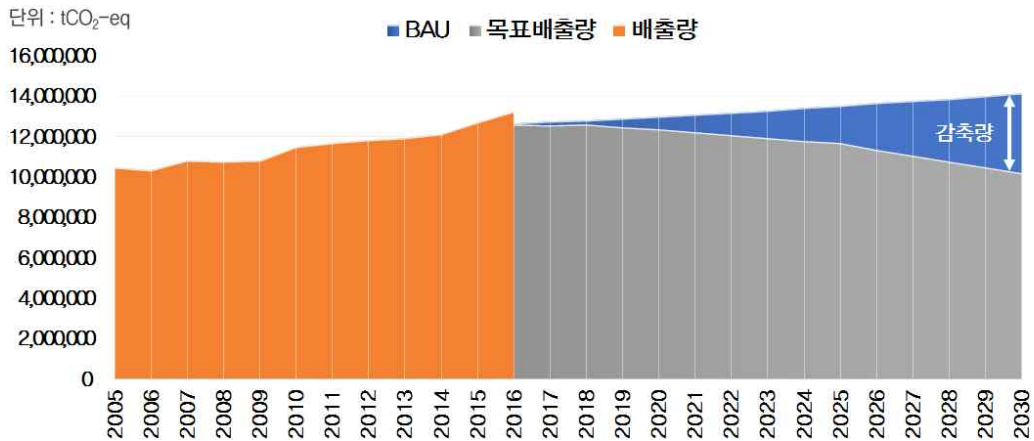
■ 그림 3-9 ■ 전라북도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추이



자료: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8.12). 전라북도

-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8.12)에 제시된 2030년까지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3,936,111톤CO<sub>2</sub>eq.으로 2030 BAU기준 27.8% 감축을 목표로 함
  - 부문별 감축률은 상업부문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31.1%) > 폐기물(28.9%) > 도로수송(28.0%) > 공공 및 기타(24.8%) > 농축산(7.9%) 순으로 설정됨
  -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감축 비중은 2020년 9.9%, 2021~2025년 29.8%, 2026~2030년 60.3% 임
- ※ 전라북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3-10 2030년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17~2030년)



자료.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8.12). 전라북도

#### □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응한 환경산업 육성 필요

- 환경산업은 전문공사 분야에 가장 많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라 전라북도 환경산업 육성정책이 필요
  - 환경전문공사, 관리대행, 측정대행 모두 수질 분야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기, 악취 분야 등 관련 분야 기업의 성장 촉진이 필요

표 3-6 전라북도 환경산업체 현황

구분	환경전문공사		관리대행			측정대행					컨설팅
	대기	수질	대기	수질	유독물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실내 공기	
업체수	13	31	6	13	0	5	6	2	1	3	7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020년 기준

#### □ 산림 노령화로 인한 CO<sub>2</sub> 흡수능 저감 예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 전라북도 산림은 4영급(50.5%), 3영급(18.6%), 5영급(15.1%)으로 전체 84.2%를 차지하고 있음

표 3-7 전라북도 영급별 산림면적

(단위 : ha)

구분	계	I영급	II영급	III영급	IV영급	V영급	VI영급 이상	죽림	무림 목지
전국	6,334,615	202,711	160,074	1,334,349	2,830,430	1,137,221	408,968	22,067	238,795
전라북도	443,140	33,945	13,560	82,320	223,772	66,979	8,633	1,778	12,153

자료. 2016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 전라북도 산림은 기능별로 목재생산림 34.9%, 자연환경보전림 28.3%, 산림휴양림 12.4%, 수원함양림 10.3%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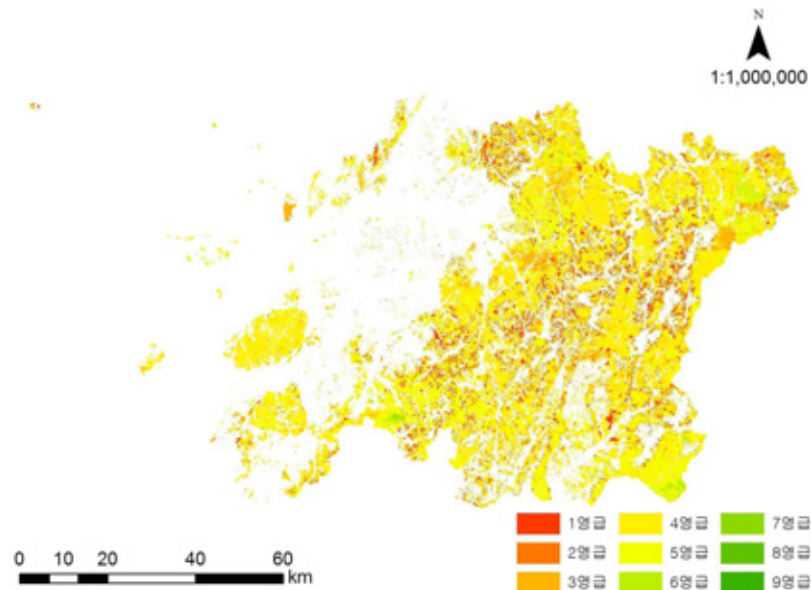
【표 3-8】 전라북도 산림기능별 산림면적

(단위 : ha)

구분	계	수원 함양림	산지재해 방지림	자연환경 보전림	목재 생산림	산림 휴양림	생활환경 보전림	기타
전국	6,334,615	901,537	512,262	1,377,760	2,324,711	584,565	333,030	300,750
전라북도	443,140	45,846	38,638	125,483	154,795	55,072	23,306	-

자료. 2016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그림 3-11】 전라북도 영급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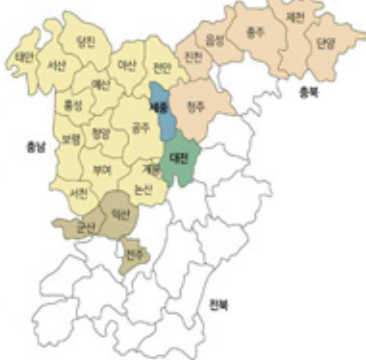
자료. 제6차 지역산림계획(2018~2037), 전라북도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19.4),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20.4.3)으로 수도권에서 중부권·남부권·동남권으로 대기관리권역 확대
  - 전북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충남과 함께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북 내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가 해당함

표 3-9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자료.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2020.4).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넷제로) 선언

-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10)’을 수립하고 3대 핵심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표 3-10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핵심전략	중점 추진과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문 대책 추진</li> <li>•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li> <li>•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li> </ul>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부문(국토·물·생태계·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li> <li>•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 강화</li> <li>•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li> </ul>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대응 新기술·新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li> <li>•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계 국제 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li> <li>•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li> <li>• 제도·조직·거버넌스 등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li> </ul>

자료.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 (2019.10). 관계부처합동,

-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선언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 (20.10.28)하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공정 전환의 3대 전략과 금융, R&D등의 제도적 기반으로 3+1전략 제시

#### □ 깨끗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유해화학물질, 소음, 악취, 빛공해 등 생활환경문제로부터 삶의 질 개선 필요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민감계층 비중 및 건강 관심 증가 : 연령대 인구 중 1998년~2017년간 70~79세 구간 84.9%, 80세 이상 199.6% 증가
- 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국내여행 증가 및 국민들의 여가 휴양 형태 변화
  - 도보나 자전거 여행, 공원 및 수변공간을 찾는 근거리 여행, 안전한 여행, 치유와 면역력 증진을 위해 자연을 찾는 여행 등
- 도시공원일몰제(2020.7.)에 따른 도시공원 감소로 도시민의 건강·휴양공간 감소, 녹지에 의한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 방지 약화
  - 국민 생활권역에 도시숲 200개 조성 추진(한국판 뉴딜\_그린뉴딜, 2020.6.)

#### □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으로 녹색환경산업 기반 구축 및 산업구조 급변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환경기초시설 등 에너지 고효율로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환경문제 ICT 솔루션,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 등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Post-플라스틱)
  -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클린팩토리 및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친환경 차량 조기 전환으로 온실가스 저감 :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 전환



### 03 계획의 기본방향

- 기후변화 시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모델 구축
  -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및 전 지구적 노력 동참에 따른 친환경 프레임 강화
  - 전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및 재난재해 안전망 강화로 지자체 선도 모델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환경안전망 구축
  - 노령화된 산림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한 탄소흡수원 기능증대 등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리체계 고도화
  -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수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유역 단위 관리체계 정립
-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지역주도 탄소중립 전략 추진
  - 탄소중립 성과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및 로드맵 수립으로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
  -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적합한 혁신 생태계 육성, 저탄소화 산업재편 과정에 따른 피해최소화, 제도적 기반 마련
- 깨끗한 대기환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고 싶은 전북 조성
  - 미세먼지 전구물질 관리를 통한 내부 미세먼지 저감 및 외부 대기오염물질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
  - 악취, 폐기물 관리, 라돈,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그린뉴딜 사업 추진을 통한 환경산업 기반 구축 및 녹색일자리 창출
  - 녹색기업 지원 및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환경산업 기반 구축 및 국가 대표 환경산업 집적지역 조성
  - 녹색환경산업 추진을 통한 전라북도 내 신산업 육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04 세부 추진과제

### □ 기후변화 시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 환황해 중심 세계 최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선도
- 친환경 모빌리티(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보급을 통한 전라북도 전역 수송 분야 에너지 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기여
- 산업분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설·기술 지원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
- 비산업 분야(건물, 공공기타, 수송, 농축산, 폐기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농산어촌 마을 단위, 공동주택 단위로 동북·동남·서남권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등을 통해 참여자 이익 공유

### □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환경안전망 구축

-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능력 증진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스마트 산림탄소 관리 등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 증진
- 산림의 유역단위 관리로 산림재해 대응강화, 산림수자원 및 산림생태계서비스 증진
- 산림병해충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으로 산림건강성, 생활경관, 재해방지 등 산림환경안전망 확보

### □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구축

- 전북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그린인프라 전환, 에너지 전환, 위기대응 거버넌스 등 추진
-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술적용, 기존 건축물의 그린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의존형 수송체계를 전기와 수소기반의 그린 모빌리티로 전환
- 약화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 및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탄소중립 로드맵 작성

□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 안전·건강·행복도 제고

- 외부 대기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기적 건강검진,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기반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관리제도 강화
- 오염물질 배출원(축사, 축분 자원화시설, 도로, 산업단지 등) 모니터링 및 저감 사업 추진을 통해 악취, 미세먼지, 오존 등 생활환경이슈 대응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전북형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 자원순환 그린산단 조성, ICT 기반 환경개선 사업, 지능형 물관리 체계 구축 등 그린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 동북·동남권을 중심으로 에너지 제로시티 기반 구축 및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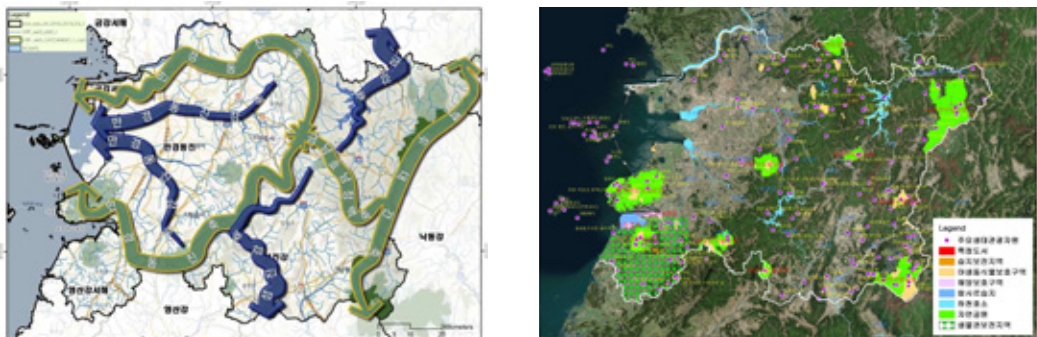
## 2 지속가능한 전북 환경기반 조성

### 01 현황 및 문제점

#### □ 생태환경자원의 관리체계 구축 및 현명한 이용 필요

- 전라북도 생태자원의 DB 구축 및 광역생태축 설정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시행에 따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유도
  - 전라북도 시군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기반 구축
- 지역 가치를 높이는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생태관광 추진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우수 생태자원에 대한 브랜드 확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가치 증대 필요

■ 그림 3-12 ■ 전라북도 생태축 설정(안) 및 주요 생태관광자원 현황



자료 1.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 (2021). 전라북도  
 2.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17~2021). (2016). 전라북도

####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기반구축 및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대응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을 통한 산림유전자원 확보 및 훼손된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 증진
  - 전라북도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총 6개소이며 전국(378개소) 대비 약 3.62%를 나타내고 있음

표 3-1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지정일자	유형	수종	위치	면적(ha)
제2009-5호 2009.12.22	산림습지	갈참나무, 덩굴꽃마리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 산28-1	4.8
제2009-5호 2009.12.22	산림습지	물푸레나무, 버드나무, 딸부리풀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 산46	2.6
제2009-5호 2009.12.22	산림습지	물오리나무, 선버들, 샛갯시초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산5	5.4
제2009-5호 2009.12.22	산림습지	그늘사초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산40	5.4
제2009-5호 2009.12.22	산림습지	일본잎갈나무, 고마리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31	5.4
제2009-5호 2009.12.22	산림습지	개키버들, 벌개미취	임실군 임실읍 이안리 산304	4.0

자료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세부지정현황(2012), 산림청  
2. 제6차 지역산림계획(2018~2036). (2017). 전라북도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대에 맞추어 산림휴양·문화, 치유, 교육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 정책 추진

표 3-12 산림서비스시설 현황

구분		개소수	명칭	비고
자연휴양림		14	덕유산(국), 회문산(국), 운장산(국), 변산(국), 신시도(국), 와룡(공), 세심(공), 고산(공), 흥부골(공), 방화동(공), 무주(공), 데미샘(공), 성수산(공), 남원(사)	국(국유), 공(공유), 사(사유)
산림욕장		18	향로산, 대아, 방화동, 추령, 정읍사공원, 산천, 강천산, 석불산, 덕발골, 백암산, 작골, 운일암반일암, 와룡, 쌍암, 월곡, 화산, 내동산, 부귀편백숲	
수목원		3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원광대 자연식물원, 대아수목원, 고원화목원	
산림박물관		1	전북산림박물관	
산림문화체험공간		6	무주생태문화체험단지, 임실목재문화체험장, 장수목재문화체험장, 남원백도대간생태교육장, 지리산둘레길, 힐링라이프숲길	
산림 교육 공간	산림교육센터	1	고산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6	덕유산(국), 완산칠봉(국), 춘향골(국), 서동유아숲(공), 고산유아숲(공), 산소리숲마을(사)	국(국유), 공(공유), 사(사유)
생태숲		5	선운산, 모악산, 백운산, 고산, 장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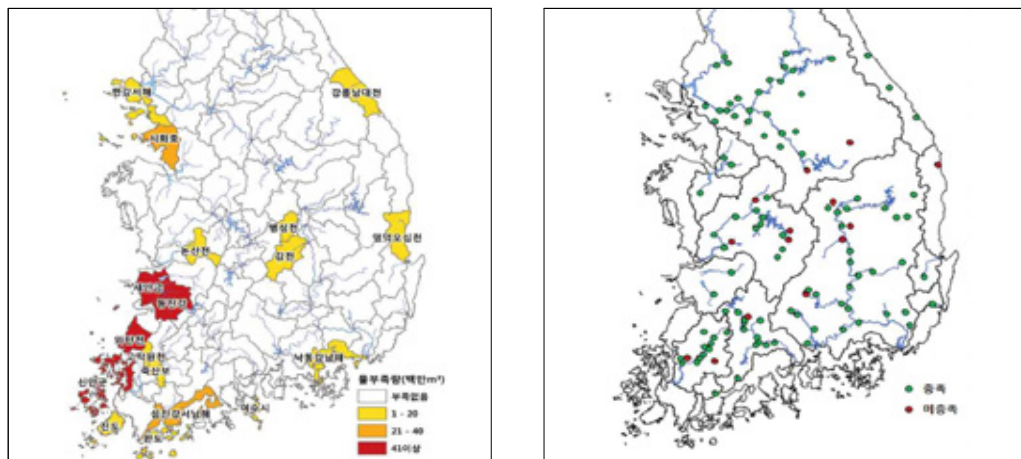
자료. 제6차 지역산림계획(2018~2036). (2017). 전라북도

#### □ 통합물관리 추진에 따른 지자체간 물관리 협치 및 대응 체계 필요

- 동진강 유역과 새만금 유역의 경우 물부족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섬진강 상류유역은 하천유지유량을 미충족하고 있음(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3차 수정계획, 2016)

- 전라북도는 타 유역에 비해 농업용수 이용량 비중이 높아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수
- 2025년 기준 전체 수요량 중 농업용수의 비중은 만경강 유역 52%, 동진강 유역 88%로 전망(전라북도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 2011)
-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ICT기반 스마트 물관리시설 확대 필요 : 2016년 기준 전라북도 상수도 보급률 95.6%, 하수도 보급률 85.9%

■그림 3-13■ 전국 물 부족 지역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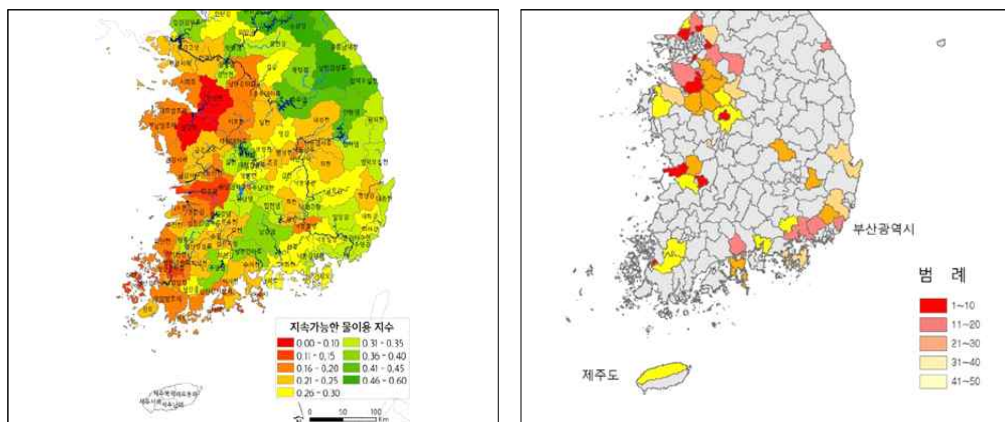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지역〉

〈하천유지유량 부족 지점 분포〉

자료.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3차 수정계획. (2016). 국토교통부

- 전라북도는 물이용 지속가능성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고려한 물관리가 필요함
- 만경강은 인간물요구량, 수생태건강성 분야에서 높은 압력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전주시(28.11%), 군산시(18.70%), 익산시(13.61%), 김제시(9.21%)가 불투수율 기준 상위 50위 농촌 소유역에 해당함

■그림 3-14■ 전국 물이용 지속가능성 지수



〈지속가능한 물이용 지수〉

〈불투수율 기준 상위 50위 농촌 소유역〉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을 위한 미래세대 환경교육 강화 필요

- 생태문명, 기후변화 등 환경정책 인식 확산 및 환경 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세대 환경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인프라 확대 구축 필요
  - 전라북도는 광역 환경교육센터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과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가 위치해 있음

표 3-13 전국 광역환경교육센터 현황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울산	인천	부산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광역	광역	기초	지역	광역	광역	기초	광역	광역	광역
개소	2	1	1	13	1	1	1	8	1	3	1	1	1	1	2

자료.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2020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관리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시행 ‘18.3.28)’에 따라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균형 및 조화

표 3-14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항

분야	주요 내용
자연·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li> <li>•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li> </ul>
기후변화·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li> <li>• 기후변화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li> </ul>
수질/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깨끗한 물 확보, 물 부족 대비·대응</li> </ul>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개선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li> </ul>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항</li> </ul>

자료.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2018.3.28.제정 및 시행, 환경부·국토교통부

- 환경문제가 건강, 산업, 안전, 여가 등 사회 전반에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공감대 확대
  - 환경인식 성숙과 국토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환경정책에 대한 전라북도 주체별 다양한 참여로 연결

-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 추진
- 사회·경제적 전환과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수립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를 비전으로 3대 목표 및 7대 핵심전략 수립
    -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 국토생태용량 확대, 물 통합관리
    -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 국민건강 보호,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환경정의 실현
    - 사회·경제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 녹색순환경제 실현,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및 추진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경제·사회·환경분야에 대해 5대전략, 17개 목표, 214개 지표를 설정함
    -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2030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K-SDGs 달성을 촉진할 계획임
-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비전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산림정책 추진
-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상속 산림복지를 정착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산림정책 체계 구축

【표 3-15】 STEEP 분야별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

부문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
사회(S)	① 환경과 삶의 질을 증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증가
	②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③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산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의 침체
	④ 삶의 불안전성 증대로 산림치유 수요 증가
과학기술(T)	· 정보통신시설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
경제(E)	·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국내 임업 경쟁력 약화
환경(E)	①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 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산림(온실가스 흡수원)의 기여 확대
	③ 기후변화로 산림재해(산불·산사태)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증대
정치(P)	· 남북협력으로 인한 북한지역 산림 황폐지 복구사업 추진

자료.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2018.1). 산림청



### 03 계획의 기본방향

- 지자체 국토·환경 계획 연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지자체 단위 개발계획에서 환경-경제-사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보전·복원·활용 모색
-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및 산림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저변에 확대하고 산림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보호지역 관리체계 개선
- 풍부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위한 통합물관리 정착 및 인프라 구축
  - 수량·수질 통합물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및 거버넌스 기반 유역단위 물자치 실현
- 주민참여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내 농촌비점오염저감, 시군별 생태관광지 안정적 추진, 도민 환경인식 제고 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환경교육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미래세대 환경교육 토대 구축을 위한 비전 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

### 04 세부 추진과제

- 지자체 국토·환경 계획 연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과 시군별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으로 우수 생태자원 관리기반 마련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응을 위한 환경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새만금 수목원 등 서해안 일원과 습지생태공원, 도립생태원 등 생태공간자원을 기반으로 생태치유클리닉과 같은 생태치유 거점공간 조성
  - 동북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권역별 탐방로, 생태휴식공간, 시군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개발

#### □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및 산림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 숲길,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녹화 확대로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
- 유용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토·환경·사회 여건을 고려한 산지구분체계 개편
- 전라북도 핵심생태축의 산줄기 연결망과 연계하고 산림분야 핵심 보호지역 관리기반 강화

#### □ 풍부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위한 통합물관리 정착 및 인프라 구축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새만금호 및 상류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으로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 전인
- 깨끗하고 풍부한 하천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스마트 통합물관리체계 도입과 이를 추진할 행정체계 구축
- 불투수율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LID 등의 도입을 통한 물순환도시 조성

#### □ 주민참여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유역권(금강, 섬진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민관협치 물관리체계 구축 및 유역단위 물자치 기반 확립
- 새만금 수질관리 우심지역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및 주민참여 농업비점오염저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수질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 중간지원조직인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공동체 협동 플랫폼 구축

#### □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환경교육체계 구축

- 전북형 지속가능발전지표(JB-SDGs)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핵심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민의 기후변화·에너지·수자원·자연생태 등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 및 교육·홍보 강화
- 권역 거점별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

### 3]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전북<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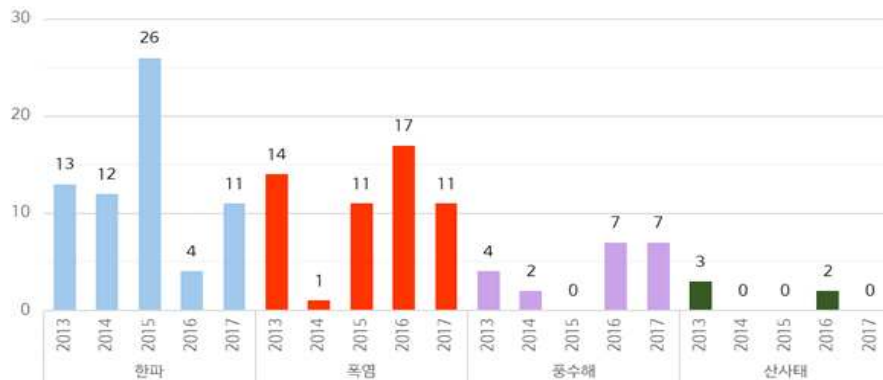
#### 01 현황 및 문제점

##### □ 우리나라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지속 감소

- 우리나라 재난·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6년 기준 10만 명당 59.9명으로 OECD 평균(52.5명)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
  - 우리나라 재난 사망자의 대부분은 사회재난과 안전사고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매년 5,000명)가 특히 많은 편이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산업재해에 따른 피해가 크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자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자연재난 형태 발생
  - 우리나라 자연재난 사망자수는 국제적으로 볼 때 심각한 편은 아니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비 필요

■ 그림 3-15 ■ 주요 자연재난 사망자 추이(2013~2017)

(단위 : 명)



자료. 2019 위험목록 보고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전북은 9개 광역도 지자체 중에서 범죄, 생활안전 분야 안전수준 우수

-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안전지수’ 발표
  -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6개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1~5등급으로 수치화

\* 6개 분야 : ①교통 ②화재 ③범죄 ④생활안전 ⑤자살 ⑥감염병

12)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인용 및 재편집

- 2019년 전북의 안전수준은 분야별로 범죄와 생활안전은 우수(2등급)하며, 화재는 취약(4등급)
  - 2019년도 전북의 지역안전지수 중에서 전년대비 등급이 상승한 분야는 교통과 자살(4등급→3등급)이며, 감소한 분야는 화재(3등급→4등급)
  - 2019년도 전북 시군별 지역안전지수에서 1등급 지역(범죄분야)은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으로 제시
  - 또한, 6개 분야중 하위등급(5등급)이 제일 많은 시군은 김제시로 교통,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안전에 취약

표 3-16 광역도 단위 지역안전지수 현황

(단위 : 등급)

구분	교 통			화 재			범 죄			생활안전			자 살			감염병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경기	1	1	1	2	1	1	3	4	4	1	1	1	1	1	1	1	1	1
강원	3	3	3	5	4	3	4	4	3	3	3	4	4	4	4	3	4	5
충북	2	2	2	3	5	3	4	3	4	3	3	3	3	3	3	3	3	3
충남	4	3	4	3	3	3	3	3	3	4	4	4	4	5	5	3	3	3
전북	3	4	3	4	3	4	1	2	2	2	2	2	3	4	3	4	3	3
전남	5	5	5	4	4	4	2	1	2	4	4	3	5	3	2	4	4	4
경북	4	4	4	2	3	2	2	2	1	3	3	3	3	3	3	5	5	4
경남	2	2	2	3	2	5	3	3	3	2	2	2	2	2	2	2	2	2
제주	3	3	3	1	2	2	5	5	5	5	5	5	2	2	4	2	2	2

자료. 전국 지역안전지수, 행정안전부

표 3-17 전북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현황

(단위 : 등급)

구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교통 사고	3 ★	2 ★	4	3 ★	4 ★	5	5	2 ★	3 ★	5	2 ★★★	2 ★★	3 ★★	4	3 ●
화재	4	2	4	3 ●	5	4 ★	4 ★	2 ●	2	2	5	4	4	4	4 ●
범죄	2	3	4	3	2	2 ★	2	3 ●	1	2 ●	1 ★	1 ●	1 ★	3 ●	4 ●
생활 안전	2 ●	2 ●	3 ●	3	5 ●	4 ★	5	2	5	4 ●	4	4 ●	3	2 ●	2 ★
자살	3 ★	2 ★	4	3 ★	5 ●	4 ★	5 ●	2 ●	2 ★	3	2	2 ★★	3	2 ★★	4
감염 병	3	2 ★	3	4	4	4	5	3	5	4 ●	3 ★	2	4 ★	2	2 ★★

주. ★ 전년대비 등급상승 수, ● 전국대비 위해지표 개선도 양호 지역

자료. 2019년 지역안전지수, 행정안전부

## □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및 대응역량 미흡에 따른 위험요소 상존

-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홍보교육 부족에 따른 도민들의 재난시 행동요령 미숙지 등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상존
  -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으로서 국민안전권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
  - 재난보험에 대한 자기책임 인식 부족으로 풍수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미흡
  - 다중이용시설, 민간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가 부족하고, 사업장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식 부족
- 비상상황에서의 대응역량 보완 및 새로운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 비상시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제반 지식, 기술,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황관리 기반체계 미구축으로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 전파 지연오류
  - 새로운 재난 발생시 사회 회복력 확보에 대한 고려 부족
  -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화 부족으로 신종복합 재난 등 새로운 재난환경 대응 역량 부족과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투자 미흡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기후변화 심화로 자연재난 대형화와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가능성 상승

- 한반도 기후변화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 중<sup>13)</sup>
  -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 기온은 현재보다 3.0~5.7℃ 상승과 함께 연평균 강수량은 7.6%, 폭염일수 30~60일 증가 예상
  - 지진 등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 발생과 함께 미세먼지의 사회적 이슈화 등 환경적 변화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상승
- 기술의 초고도화 및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복합재난 위험 증가
  - 초고속·대심도 교통시설 증가,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초대형 다중이용시설 증가로 인해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13) 한반도 기후변화 보고서. (2020). 기상청

- 복잡화된 기술 시설들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의 결합에 따른 초대형 복합재난 발생 우려와 함께 2차, 3차 연쇄효과로 사회 마비로 확대 가능
- 초연결사회에서는 IoT 기술 보급 및 활성화에 따라 해킹 등 신종 사이버 범죄 위험 증가
-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에 건설된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증가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비율 증가
  - 한국은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로 '26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2017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평균인 14.8%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안전사고로 인한 노인사망자 비율은 일반인의 4.3배 수준으로 재난 발생 시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계층의 재난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재난 위험의 사회적 양극화 심화
  -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들을 떠맡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산업재해가 취약 집단에 집중
  -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주목받는 국민 안전권 보장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안전 기본법 (가칭)」 제정 추진 중

#### □ 경제구조 변화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재난 여건 변화

- 다양한 사회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 상승
  -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동력 저하 및 빈부격차 확대에 의한 사회 혼란 발생 가능
  - 다원화된 사회집단 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에 대한 위험 고조
  - 재난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재난과 대형재난 증가 추세에 맞춰 재난안전 관련 산업 육성 필요
- 강대국들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증가하면서 국제질서의 긴장과 갈등 심화
  - 기후변화, 테러, 미세먼지 등의 문제는 다양한 관련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공동대응 중요
  - 대형복합재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회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재난안전 사고 최소화

-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모두 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 필요
  - 재난 발생 이후 중대 비상상황에 대한 지휘·조정·통제 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난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 증진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등 범정부 종합대책에 적극적 참여 및 추진으로 인명피해 저감 필요
  - 안전시설과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도 개선 필요
-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과 소비재 안전관리 강화
  - 대형교통시설 및 레저활동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과 활동에 대한 안전기준과 안전진단 및 감독 체계 강화
  -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 보호 등 민생 및 소비재 관련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도입으로 안심사회 실현

### □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노인·어린이·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과 재난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와 재난 위험이 사회적 취약 집단인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에 집중되는 현상 심화
  -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진단·분석하고 관련 인프라와 지원제도 개선
-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 주변 위험요인 발굴 개선
  - 안전신고 플랫폼 구축, 안전커뮤니티맵핑 편의성 개선 및 도민 참여 확대
  - 안전점검의 책임성 제고 및 자율 안전점검 활성화 추진

### □ 안전문화 생활화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난대응훈련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안전운동 전개로 재난대응역량 제고

- 민간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별 현장훈련 시 민간기업 참여 확대 추진
- 생활 속 작은 것부터 참여할 수 있는 ‘1일 1안전수칙 지키기’ 운동 추진과 다중이용시설물 등 이용 주체가 참여하는 생활 속 자율 안전점검활동 전개
- 생애 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진행
  -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 어린이가 직접 재난유형을 선정해서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저변에 재난안전문화의 조기 확산 도모
  - 완강기, 전기·가스, 승강기,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 5대 체험교육 강화와 안전체험관 확충 등을 통한 체험 교육기회 확대

## 04 세부 추진과제

###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민·관 협력 등을 통한 재난정책 수립, 공유 및 현안 대응으로 평시 재난예방 및 재난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위원회,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등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 공유 및 현안 대응과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재난관리 능력 향상
  -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복구체계 구축
- ICT기반 재난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체계 구축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긴급통신수단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
  -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강화로 민방위사태 및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 발령·전달체계 구축

### □ 생활 안전문화 확산과 기본안전권 보장

- 도민 안전의식 제고 및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무시관행 근절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신고 등 주민참여 확대



- 안전시설 의무 이행사항 지도·점검·훈련 및 확충을 통한 안전관리강화로 일상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
- 도민 기본안전권 보장과 민생 7대 분야 안전관리 강화
  -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 시행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풍수해 보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기본 안전권 보장 강화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민생 7대 분야에 대해 중점 단속으로 도민 생활안전 기여

#### □ 안전전복을 위한 사회재난 예방 대응

- 빈틈없는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선제적 안전 관리
  -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메르스, 미세먼지, 대형사고발생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 지원
  -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재난자원 관리와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및 훈련 강화
  -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고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선제적 안전관리 도모
- 산업재해 사고예방 협업체계와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도내 산업단지 사업장의 선제적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 협업체계 구축 및 방재물품 지원 추진
  - 한빛원전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

#### □ 주민이 편안한 자연재난 안전지대 조성

-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 복구지원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비 여름철·겨울철·유형별 재난상황대응계획 수립 등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난피해자 생활안정 기여
- 자연재해 예방사업 내실화 및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
  - 재해위험 취약지역 체계적 관리와 정비로 재해예방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 지진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위한 지진방재 계획 수립·대응 및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향상 기반 구축

## 4 지역 간 균형적인 복지제공기반 구축

### 01 현황 및 문제점

#### □ 지역별 복지수요 편중

- 전라북도의 복지수요와 공급기반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복지서비스 수혜의 불균형 발생
  -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빈곤인구) 인구규모에서는 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효자4동과 평화2동 등에 집중
  - 자활참여자는 성동(정읍), 효자4동(전주), 내장상동(정읍) 등에 집중되어 있고, 긴급복지지원은 수성동(정읍), 나운2동(군산) 등이 다수 차지
- 복지수요의 지역별 불균형과 빈곤 및 장애인의 특정지역의 편중은 복지서비스의 동등한 접근을 제약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불평등 심화
  - 복지서비스의 동등한 접근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복지수요와 공급의 정도에 따라 균형적으로 인프라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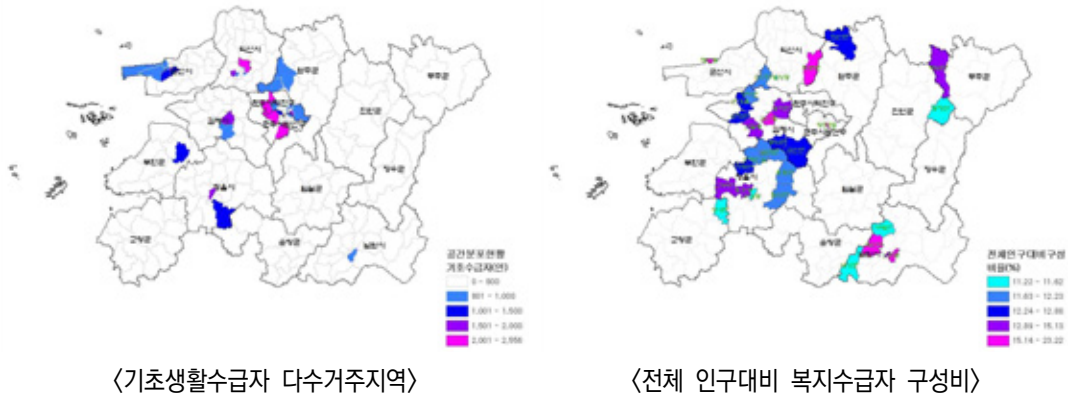
표 3-18 전라북도 복지수급자 인구순위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기초수급자			자활참여자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전체			전체인구대비 구성비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비율
1위	전주	효자4동	2,556	정읍	수성동	182	정읍	수성동	119	전주	평화2동	455	전주	효자4동	74,417	익산	왕궁면	23.22
2위	전주	평화2동	2,448	전주	효자4동	168	군산	나운2동	108	익산	삼성동	417	전주	평화2동	45,212	남원	대산면	21.41
3위	전주	평화1동	2,435	정읍	내장상동	147	김제	신평동	104	전주	효자4동	332	익산	삼성동	33,393	남원	노암동	21.21
4위	익산	삼성동	2,402	전주	평화1동	139	김제	검산동	103	익산	왕궁면	329	전주	평화1동	14,302	전주	평화1동	20.91
5위	익산	동산동	2,010	익산	삼성동	130	고창	고창읍	97	전주	평화1동	325	군산	나운2동	26,355	군산	해신동	17.00
6위	군산	나운2동	1,966	전주	평화2동	124	전주	평화1동	92	군산	나운2동	308	익산	동산동	23,494	김제	검산동	16.86
7위	익산	모현동	1,720	익산	동산동	107	전주	인후3동	89	익산	동산동	260	정읍	수성동	19,338	김제	용지면	15.13
8위	정읍	수성동	1,714	익산	모현동	107	정읍	내장상동	85	김제	검산동	251	익산	모현동	41,051	정읍	농소동	14.69
9위	전주	인후3동	1,685	군산	나운2동	106	전주	우아2동	76	부안	부안읍	248	전주	인후3동	35,207	김제	교월동	13.87
10위	김제	검산동	1,541	군산	개정동	104	부안	부안읍	75	익산	모현동	240	김제	검산동	11,795	정읍	고부면	13.59

자료: 전북 수급자 data 통합분석(2016), 사회보장정보원

■ 그림 3-16 ■ 전라북도 복지수급인구 현황



- 특히, 전라북도의 지역별 복지수요는 계층별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복지수요 및 공급특성에 따른 복지 인프라의 재구성 필요
  - 빈곤인구는 전주시의 효자4동, 평화2동, 평화1동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지역 빈곤인구의 평균 연령은 32.8세에서 50.3세이고 특히, 효자4동은 빈곤인구 중에서도 청장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또한, 익산의 왕궁면은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인구의 비율이 65.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 지역별로 복지수요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

## □ 복지사각지대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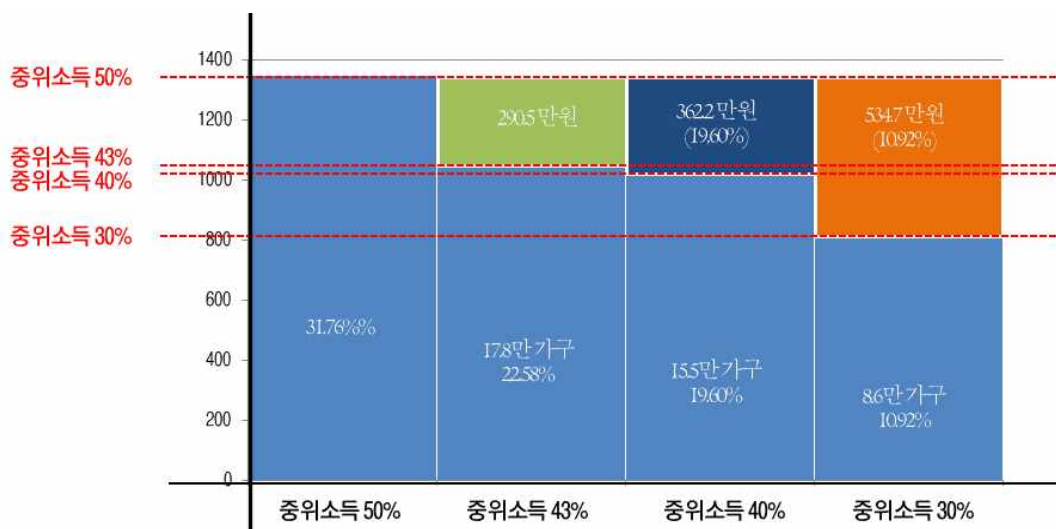
- 전라북도는 절대빈곤인구 및 상대적 빈곤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별 추이를 보면, 아동기에 빈곤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년 그리고 노년기로 분석됨
  - 따라서 아동빈곤율 해소를 위해서는 부모세대인 장년층의 빈곤율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
  - 장년층의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취·창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빈곤아동에 대해서는 학습지원 등을 통한 빈곤 되물림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
  -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소득의 단절로 인해 저소득 빈곤상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노인빈곤 사각지대에 대응한 소득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그림 3-17 전라북도 연령별 빈곤 추이



- 특히, 전라북도는 중위소득 50% 미만 복지사각지대 인구가 많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라북도의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1.7%로 추정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가구 약 5%를 제외하면 나머지 약 26% 이상은 복지사각지대로 분류
  - 전라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 파악과 함께 긴급복지 지원 등의 세부적인 대책 마련 필요

그림 3-18 전라북도 소득분위별 가구규모(추정)



- 세대별 중위소득 50% 미만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세부적인 탈빈곤정책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중위소득 50% 미만은 약 31.7%, 중위소득 43% 미만은 22.58% 그리고 중위소득 40% 미만은 19.6% 등으로 빈곤사각지대의 규모에 따른 적절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형 빈곤정책 개발 및 긴급복지지원 등의 위기대응 프로그램 확대 필요

#### □ 급속한 고령화와 노년부양비의 증가

- 전라북도의 고령인구비율은 2019년 기준 20.38%로 전남 22.61%, 경북 20.61%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임
  - 전라북도의 고령화 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 전북의 고령인구는 2001년 대비 2019년 약 9.68%p 증가하여 부산 11.74%, 전남 10.03%, 강원 9.8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시군별 고령인구 추이를 보면 2019년 기준 전주, 군산, 익산 등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이미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특히,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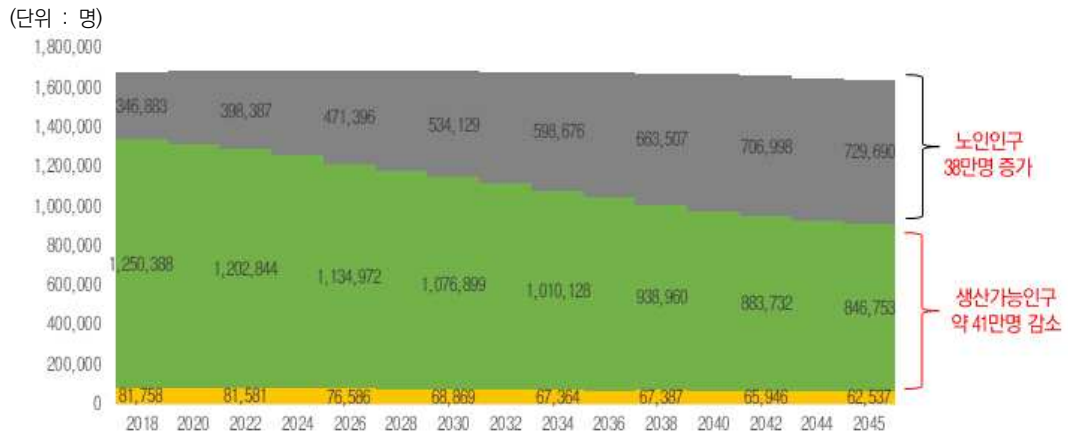
【표 3-19】 전라북도 고령인구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주	6.5	6.8	7.1	7.5	7.8	8.2	8.8	9.1	9.3	9.6	10.0	10.6	11.0	11.5	12.1	12.5	13.1	13.6	14.2
군산	8.5	8.9	9.4	9.9	10.3	10.9	11.6	11.9	12.1	12.3	12.7	13.2	13.7	14.2	14.8	15.4	16.2	16.8	17.8
익산	8.9	9.3	9.8	10.2	10.6	11.0	11.7	12.1	12.5	12.8	13.1	13.8	14.3	14.9	15.6	16.2	16.8	17.5	18.6
정읍	13.8	15.1	14.2	16.8	17.4	18.1	19.3	19.7	20.2	20.6	21.1	21.9	22.6	23.3	24.1	24.5	25.1	25.7	26.7
남원	13.9	15.0	15.4	16.6	17.4	18.3	19.6	20.1	20.4	20.6	21.1	22.0	22.7	23.4	24.1	24.6	25.4	26.0	27.1
김제	15.9	16.9	17.5	18.8	19.5	20.5	21.9	22.6	23.2	23.7	24.3	25.2	25.9	26.7	27.6	28.3	28.9	29.6	30.6
완주	13.3	14.1	14.9	15.7	15.8	16.4	17.6	17.8	18.0	18.1	18.6	18.9	19.3	19.3	19.2	19.7	20.2	20.9	22.2
진안	18.6	20.4	21.2	21.6	23.3	25.4	24.3	26.8	26.9	27.4	26.8	28.7	29.5	30.2	31.0	31.2	31.6	32.5	33.5
무주	17.5	19.6	21.1	22.2	23.2	24.5	25.0	25.6	26.1	26.7	26.9	27.8	28.3	28.5	29.5	30.2	31.0	31.4	32.5
장수	17.3	20.2	18.8	21.3	23.5	24.7	23.5	26.3	27.0	27.1	27.4	28.0	28.6	28.7	29.4	29.5	30.9	31.0	32.5
임실	19.6	21.4	22.7	24.4	25.1	26.2	27.3	28.1	28.5	28.9	29.0	30.4	31.0	31.2	31.5	31.6	32.1	32.5	34.0
순창	20.3	21.8	23.0	23.6	24.3	24.9	26.5	27.4	28.2	28.4	29.1	29.4	29.8	30.2	30.4	30.7	31.3	31.8	32.8
고창	17.2	18.8	19.5	21.4	22.5	23.7	25.2	25.9	26.4	26.5	27.1	27.6	28.0	28.9	29.4	29.5	30.0	31.7	33.1
부안	16.2	17.8	18.9	19.9	20.7	21.7	23.0	23.6	24.2	24.6	25.3	26.2	26.5	27.7	28.5	28.9	29.7	30.6	31.9

자료. e지방지표, 통계청

■ 그림 3-19 ■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추계



-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2020년 37.1만 명에서 2025년 45.0만 명 그리고 2030년 53.4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전라북도의 고령인구는 향후에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고령인구에 대한 노년부양비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보다도 2045년에 약 38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약 41만 명이 감소하여 노년부양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표 3-20 ■ 전라북도 연령별 노인인구 추계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60-64	139,560	148,933	152,069	156,008	154,229	150,870	146,995	147,762	145,798	152,220	153,692
65-69	105,476	111,576	117,046	125,884	133,630	140,480	150,031	153,461	157,591	156,038	152,931
70-74	89,284	93,890	94,078	93,892	97,452	102,822	109,210	114,964	123,799	131,660	138,745
75-79	74,690	73,038	72,870	73,793	76,714	82,769	86,998	87,581	87,807	91,392	96,931
80-84	57,347	57,841	62,563	65,078	63,547	62,600	61,298	61,776	63,104	65,789	71,136
85-89	31,439	33,957	35,986	37,538	39,418	40,381	40,973	44,766	46,751	45,778	45,240
90-94	10,828	11,799	12,833	13,940	15,187	16,818	18,186	19,344	20,278	21,429	22,121
95-99	2,176	2,291	2,647	3,062	3,481	3,872	4,202	4,603	5,047	5,524	6,152
100+	281	315	364	460	449	462	498	591	702	786	873
60세 이상	511,081	533,640	550,456	569,655	584,107	601,074	618,391	634,848	650,877	670,616	687,821
65세 이상	371,521	384,707	398,387	413,647	429,878	450,204	471,396	487,086	505,079	518,396	534,129

자료. e지방지표, 통계청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등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
  - 전라북도의 노인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총 22.7만 가구)의 34.32%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같은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전남 42.30%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전체 평균 19.38%보다 약 1.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증가로 인해 치매유병률 그리고 치매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부담도 가중
  - 전라북도의 치매환자는 40,690명으로 이중 치료가 어려운 알츠하이머는 약 3만 명, 혈관성 치매는 약 4.2천 명 등임
  - 전라북도의 치매유병률은 10.7%로 전체 치매환자수는 3.5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성별로 보면 남성 12,396명, 여성 23,452명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치매환자의 다수가 노인인구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체 치매환자 중에서 이들 세 지역이 약 1.92만 명으로 전체 치매노인의 47.4% 정도임
-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노인이 상대적으로 많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이 많아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임
  - 전라북도의 독거노인은 22.2%, 빈곤노인 6.0% 그리고 장애인 20.4%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임

Ⅰ 그림 3-20 Ⅰ 전라북도 노인인구 특성별 추정인구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농촌 취약지역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 농촌지역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속도가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인구구조의 역진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농촌지역의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복지인프라는 여전히 재정적 이유로 인해 부족한 상황
  - 복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 취약지역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추진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2월)’에 따른 포용적 복지의 농어촌 정책 반영, 2019년 지역의료강화대책(11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18~22)’ 등 부문별 계획과 연계한 농어촌 부문의 특별계획 등을 통해 농촌지역 보건복지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2020)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4)’ 수립을 통해 농촌 취약지역의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추진

표 3-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주요내용

구분	제1차('05-'09)	제2차('10-'14)	제3차('15-'19)
여건	도농 간 소득격차, 고령화, 보건복지 공급 격차	과소화·고령화, 다문화·전통가족기능 약화, 건강체감도 약화	높은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 독거가구 증가
비전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탈농재촌”이 가능한 농어촌	더불어 행복한 농어촌,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어촌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농촌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 자활, 노인, 보육, 아동가정보호, 장애인, 건강보험/국민연금 특례</li> </ul> </li> <li>• 보건의료 기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료, 응급의료, 민간병원 육성, 구강보건, 암관리, 정신보건 외, 한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생활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 자활, 건강보험/ 국민연금 특례</li> </ul> </li> <li>• 연령·세대별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보육,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민간사회복지 활성화</li> </ul> </li> <li>• 보건의료기반 개선/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료, 민간병원 지원 육성, 응급의료, 구강건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권리인식, 보육/교육여건 개선, 건강), 청년기(일자리/여가), 중장년기(일자리, 사회보험 지원), 노년기(생활환경 조성, 건강관리)</li> </ul> </li> <li>• 취약인구대상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자립, 다문화 역량강화</li> </ul> </li> <li>• 취약지역대상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취약지역(분만, 응급), 복지취약지 지원 및 마을단위 복지공동체 구축</li> </ul> </li> </ul>
	*2개 부문, 40개 과제	*3개 부문, 34개 과제	*3개 부문, 21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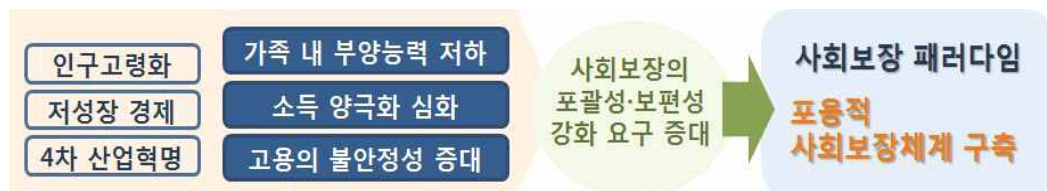
자료. 제4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발표자료(2020). 보건복지부



## □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

-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핵심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긴급복지확대 등의 제도개편 추진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
  -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시행방안 등이 마련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 추진(보건복지부, 2020)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생계비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노출된 약 18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추정(보건복지부, 2020)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수립을 통해 사회보장의 포괄성과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 추진
  -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저소득 취약계층에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회보장의 포용성 강화 추진
  - 사회보장제도의 재정효율성과 사업효과성 강화를 위해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부처간 사업조정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Ⅱ 그림 3-21 Ⅱ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사회보장기본계획 주요내용(2019), 사회보장위원회

- 시설 중심의 보호정책에서 거주지역 내 지역사회 중심 통합서비스 이용체제로 전환 예정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수요자 대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안전망 구축 추진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
  - 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돌봄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돌봄경제 (care economy) 강화 추진
  - 복지시설이나 기관 등 공급자 관점의 돌봄전달체계를 이용자 중심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제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감도 향상 견인

##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

-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라북도는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고령인구는 20%를 상회하여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라북도의 노령화지수는 전국 평균인 110.5%에 비해서 약 50%나 높은 수준으로 향후 인구구조의 역진성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노년부양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9년 현재 노년 총부양비는 28.7%이지만 2030년에는 49.6%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61.9%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3-22】 전라북도 부양비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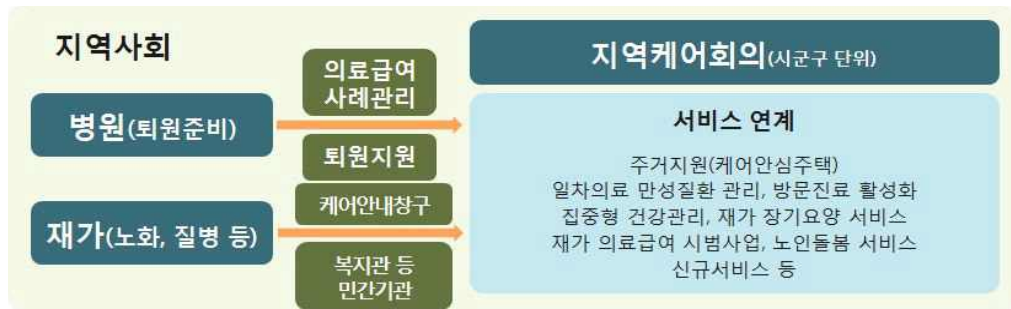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5			2030			2035		
	총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전북	47.0	28.7	157.4	48.5	30.3	166.0	57.3	39.0	213.2	68.0	49.6	268.9	81.3	61.9	319.5
전주	38.2	19.1	100.0	39.5	20.4	106.7	47.0	27.6	142.3	55.6	35.9	182.4	66.1	45.4	218.9
군산	43.3	23.8	122.5	44.9	25.4	130.3	53.0	33.6	173.2	62.2	42.9	222.2	73.8	53.5	264.1
익산	42.0	24.7	142.7	43.8	26.4	151.9	53.9	36.0	201.2	65.7	47.3	257.9	79.2	59.9	310.0
정읍	57.9	40.9	240.5	59.6	42.7	253.4	69.0	52.6	320.3	81.7	65.6	407.4	98.1	81.2	480.3
남원	60.4	42.9	245.2	61.9	44.7	260.1	72.0	55.5	337.5	85.5	69.2	425.1	103.6	86.3	499.2
김제	66.0	49.9	310.6	68.1	52.0	323.0	79.7	63.7	397.7	93.6	77.7	489.3	110.4	93.8	564.6
완주	50.8	30.5	150.8	52.6	32.2	157.7	62.1	41.5	201.7	74.3	53.6	258.3	89.6	68.1	317.0
진안	74.1	59.1	395.2	75.6	60.8	410.1	84.0	69.9	495.3	99.6	85.6	611.1	120.1	105.4	717.9
무주	71.6	55.3	338.7	73.1	57.0	354.3	83.1	67.7	440.7	97.9	82.6	541.1	117.1	101.1	630.9
장수	71.3	54.1	314.3	72.9	55.9	329.3	82.8	66.3	400.7	96.3	80.0	491.6	114.9	97.8	572.1
임실	76.5	60.8	387.7	76.7	61.3	397.8	84.6	69.7	469.0	97.7	83.0	563.7	116.5	101.2	659.4
순창	73.9	56.7	330.5	74.5	57.6	341.1	82.2	66.2	413.0	95.6	79.5	493.4	114.2	97.4	579.5
고창	68.4	53.4	355.2	69.8	54.8	366.0	80.1	65.3	439.9	93.9	79.1	536.3	111.2	95.8	621.5
부안	66.8	52.2	358.4	68.6	54.1	373.4	79.7	65.5	460.8	93.8	79.8	567.8	111.5	96.7	652.4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추진
  - 노인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 추진(공모로 선정된 8개 기초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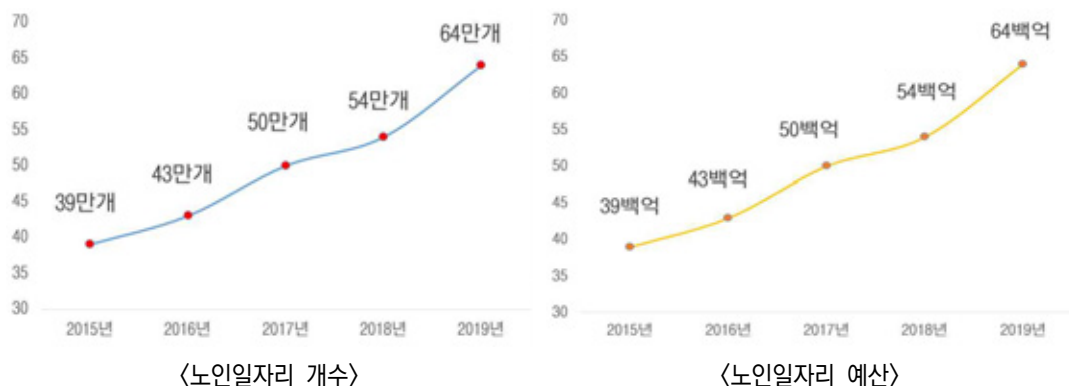
■ 그림 3-22 ■ 노인통합돌봄 모델(안)



자료: 사회보장기본계획 주요내용(2019), 사회보장위원회

-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돌봄인프라로 케어안심주택 4만 호, 주민건강센터 시군구별 1개소 등 통합돌봄시설 확충 추진(보건복지부, 2019)
-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을 위한 인프라로 재가컨트를 타원인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소 설치 예정
- 중앙정부는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를 2021년까지 약 80만 개 창출 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2020)
  -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인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21년까지 노인일자리를 약 8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
  - 노인일자리의 분야는 최근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고 있는 돌봄분야에 약 2만 개 창출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지원센터 등 대상시설의 돌봄지원인력)

■ 그림 3-23 ■ 전국 노인일자리 관련 지표 추이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농촌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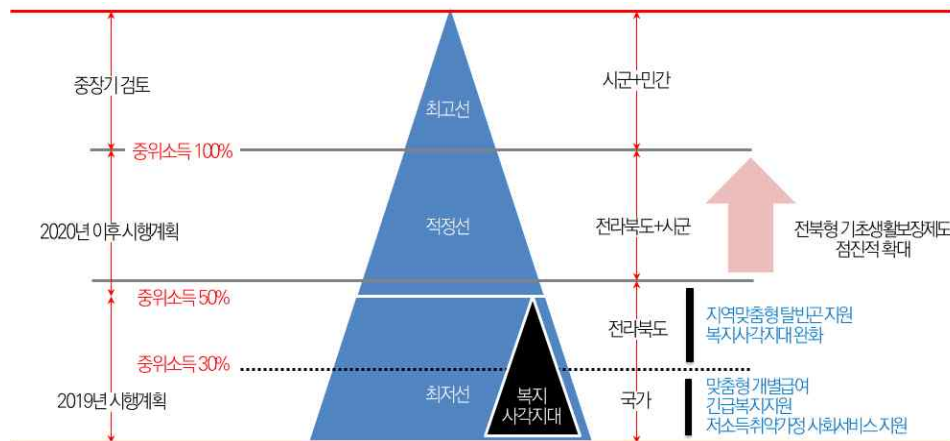
- 복지수요는 높지만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형 복지인프라 구축 추진
  - 생활인구는 적지만 행정구역은 넓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인프라를 시군 단위로 설치하지 않고 읍면동 이내의 마을단위로 세분화하여 전달체계 구축
  -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마을복지 거점센터로 활용하여 돌봄과 일자리, 여가 문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필요
- 농촌지역은 이용자 방문형이 아닌 기관 방문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빈곤계층이나 노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필요
  - 농촌지역 복지서비스는 이용자가 기관을 방문하는 형태가 아닌 기관이 이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생활권역 중심으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전달체계를 시군구 및 읍면동의 행정권역별 설치보다는 인접 시군구나 읍면동까지를 포괄하는 생활권역별 인프라 구축으로 개편
  -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복지인프라 부족한 농촌권역과 복지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지만 복지서비스의 중복성과 비효율이 나타나는 도시지역의 특성에 맞춰 복지인프라 구축
- 생활권역 중심 단계별(광역-시군-읍면동-마을) 복지전달체계 구축
  - 생활권역별로 단계별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필요
  - 광역 단위 자원(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역치매센터, 사회서비스지원단)과 시군(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단계별 복지전달체계 구축 추진

#### □ 전북형 포용적 복지서비스 모형 구축

- 중앙정부의 포용적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연계한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중앙정부의 공통된 최저기준선 이상의 욕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지역복지수요와 공급 기반을 토대로 전라북도에 맞는 포용적 복지 중장기 로드맵 추진 필요
- 국가 단위의 포용적 복지의 가치를 승계한 전라북도의 지역에 맞는 전북형 포용적 복지정책 및 사업 추진
- 중앙정부-전라북도-시군 간 복지정책·사업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중위소득의 지원구간을 중심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빈곤계층은 국가 주도의

- 복지사업으로 지원하되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시군이 연계하여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
-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의 사업보다는 전라북도와 시군의 역할분담 하에서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그림 3-24 ■ 전북형 포용적 복지모형(안)



- 자활정책은 세대별 자활역량과 자립욕구에 따라 특성화된 자활프로그램 운영
- 자활정책의 방향은 크게 취업 중심, 창업 중심, 관리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자활역량이 충분하고 자립의지가 있는 20~40세의 청년빈곤층에게는 취업 중심의 자활프로그램 운영

■ 그림 3-25 ■ 전라북도 자활정책 방향 및 자활사업 멘토링제 운영(안)



## □ 고령친화도시 전북 조성

- 전라북도의 노인정책의 방향을 복지정책과 돌봄 그리고 문화여가정책까지 포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확대 개편
-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노인정책을 단순한 급여와 일자리 중심의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돌봄과 사회보장, 일자리 그리고 여가문화와 이동 등을 통합한 거시적인 관점의 정책전환 추진

- 노인정책을 복지와 문화여가 그리고 도시교통까지 연계한 거시적인 종합지원정책으로 확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 노인정책의 방향을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정책영역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도출 및 실행계획 수립
- 전북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 분야별 세부정책과제 발굴 및 성과목표 설정에 따른 중장기 이행계획 마련

## 04 세부 추진과제

### □ 생활권 단위 지역맞춤형 복지인프라 조성

-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을 복지수요와 공급유형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관련 복지인프라의 재조정 추진
  - 중추도시권 : 방과후 돌봄시설 확충, 이용시설 특화사업 조성, 임대아파트 단지내 종합 사회복지관 기능재조정 추진 등
  - 서남부소도시권 :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 노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의 인프라 구축
  - 동부권 농촌생활권 : 노인보건시설 확충,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통합돌봄지원,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
- 생활권 단위 보건복지인프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 복지계획과 시군계획 상호 연계 추진

「그림 3-26」 전라북도 생활권역별 복지인프라 구축(안)





## □ 농촌지역 방문형 보건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 농촌지역 노인 대상 방문형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고령인구의 비율은 높지만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방문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을 통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그림 3-27】 전라북도 농촌지역 방문형 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체계



## □ 전북형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전라북도의 복지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 전북형 사회서비스원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과 민간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의 특수성,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역진성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립
  -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복지수요는 높지만 재정여건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설립을 목표로 민간복지시설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원 편입대상시설 확정, 운영체계(직영 혹은 위탁) 등 제반 사업 추진

## □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 전라북도의 지역별 고령화 특성을 반영하여 각 분야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구상 및 실천로드맵 작성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 분야별(고용, 사회참여, 건강과 안전, 활기찬 노년) 세부 정책방향 및 실천계획 수립
  - 시군 고령인구의 특성과 보건복지자원 분석에 기초한 기초인프라 구축 등 추진
  - 공공건출물 접근에 있어 노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노인친화형 도시설계모형 적용(노인친화공원, 노인친화복지관, 노인친화도로 등) 종합적인 고령친화도시 마스터플랜 구상

■ 그림 3-28 ■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사업분야



- 농촌지역 고령친화 복지마을 조성
  - 노인관련 복지서비스를 보건과 복지로 통합하여 노인의 복지욕구에 맞춰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 노인복지마을은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집적된 공간을 고령친화 마을로 지정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노인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노인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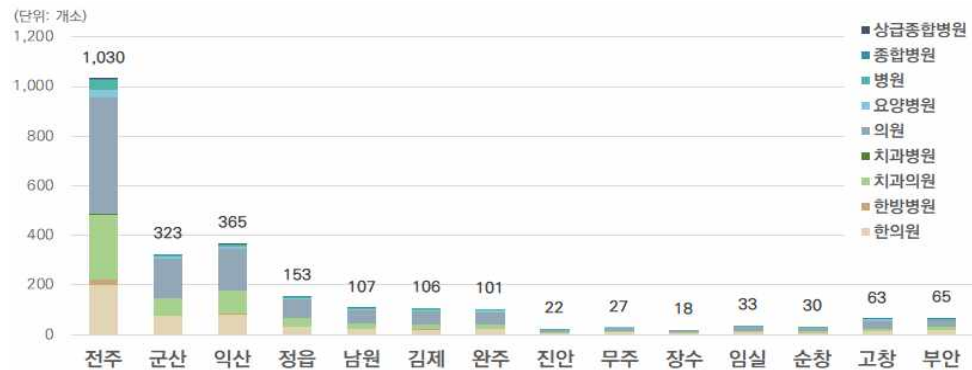
## 5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안전망 확보

### 01 현황 및 문제점

#### □ 지역별 의료자원 편중으로 의료취약지역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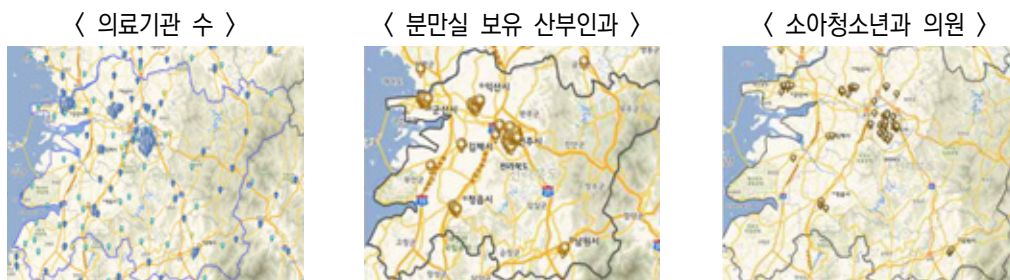
- 의료자원이 일부 시군에 집중되어 일부 농촌지역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하는 등 현저히 낮은 의료접근성 초래
  - 전북 전체 의료기관의 42.2%가 전주시에 분포하며, 장수군은 0.7%로 가장 적게 분포함
  - 출산이 가능한 의료기관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분만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책 필요

그림 3-29 도내 시군별 의료기관 현황



자료: 지역별의료이용통계(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3-30 전북 의료기관 위치



자료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2018)

- 도내 보건기관은 보건소 10개, 보건의료원 4개, 보건지소 154개, 보건진료소 242개로 총 410개이며,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보건소가 없는 상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시설과 장비 등 기능 보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필요
  - 농촌지역 공공의료분야 인력은 상당부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공중보건의사 수급과 전문성 부족 문제 상존

- 지역사회 개원의의 90%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것에 비해 공중보건의 약 57%만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여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

표 3-23 전라북도 시군별 보건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 건 지 소				보건 진료소
				소계	일반	통합	도서	
전라북도	410	4	10	154	144	3	4	242
전주시	5	-	1	1	1	-	-	3
군산시	35	-	1	15	10	1	3	19
익산시	41	-	1	16	15	-	-	24
정읍시	43	-	1	16	16	-	-	26
남원시	40	-	1	15	14	1	-	24
김제시	40	-	1	14	14	-	-	25
완주군	30	-	1	12	12	-	-	17
진안군	23	-	1	10	10	-	-	12
무주군	16	1	-	5	5	-	-	10
장수군	18	1	-	6	5	-	-	11
임실군	32	1	-	11	11	-	-	20
순창군	28	1	-	10	10	-	-	17
고창군	36	-	1	12	11	1	-	23
부안군	23	-	1	11	10	-	1	11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018

- 진료과별 의료기관 접근성은 무주군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장 취약하며, 시군별 의료기관 접근성은 분야별로 차이를 보임

표 3-24 전라북도 분야별 의료기관 접근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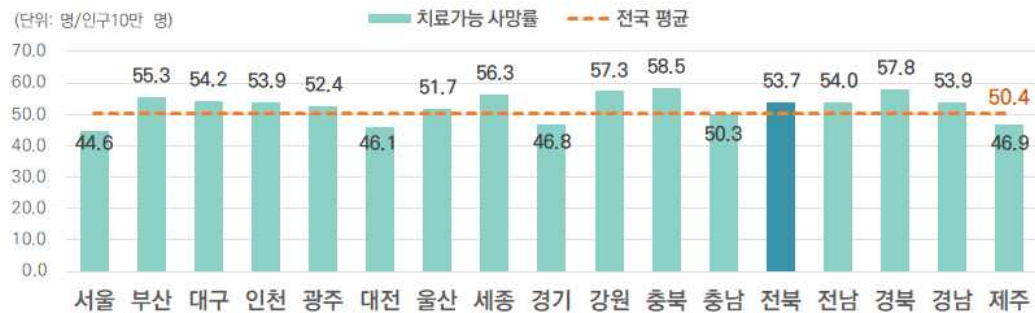
구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정신과
기준시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전라북도	1.0	2.6	7.4	2.3	1.4	9.4	8.1	4.5	8.4
전주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군산시	0.5	0.5	0.5	0.1	0.5	0.5	0.5	0.5	17.4
익산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정읍시	0.7	0.5	3.0	0.6	0.8	41.6	2.6	1.1	1.5
김제시	0.0	0.0	8.6	3.1	0.0	0.0	7.52	0.6	5.6
남원시	0.8	0.8	4.1	2.2	0.8	3.7	3.7	2.8	2.8
완주군	2.4	2.8	4.3	1.9	2.6	2.9	3.6	2.8	0.5
무주군	8.5	71.5	77.9	63.6	8.5	100.0	100.0	72.7	99.9
장수군	0.8	38.6	79.0	40.0	34.2	78.2	78.2	78.2	76.2
고창군	3.4	3.4	15.0	1.8	3.4	31.2	37.7	3.4	14.8
부안군	12.1	12.1	37.4	27.8	12.1	12.8	36.3	12.0	35.7
진안군	3.3	10.4	87.8	9.2	3.7	86.8	87.3	86.6	42.0
임실군	0.7	11.0	33.3	11.1	0.7	34.7	35.1	16.4	23.2
순창군	2.2	2.2	49.1	3.4	2.2	51.4	45.5	4.4	25.5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2018

□ 치료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sup>14)</sup> 불균형

-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
  - 최근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응급처치를 요하는 재난 및 사고와 중독이 급격히 증가
  - 신속한 처치가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이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등장
- 전북의 치료가능 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 당 53.7명으로 전국 평균(50.4명)에 비해 높으며, 도내 시군 간 불균형 심각
  - 재난 발생 시 재난거점병원에서 10분 이내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하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전북은 지리 여건 상 재난현장 도착 후 의료에 대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

■ 그림 3-31 ■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2015년 기준)



자료: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8)

□ 소외 및 취약계층 증가 현상

- 전북지역 체류 외국인과 장애인 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독거노인의 가구비율은 전국보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

■ 표 3-25 ■ 전국 대비 전북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연도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체류자		장애인 등록자		독거노인가구비율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2016	1,630,614	99,708	1,161,677	27,320	2,511,051	130,345	6.7	7.0
2017	1,581,646	94,639	1,171,762	28,588	2,545,637	131,303	10.5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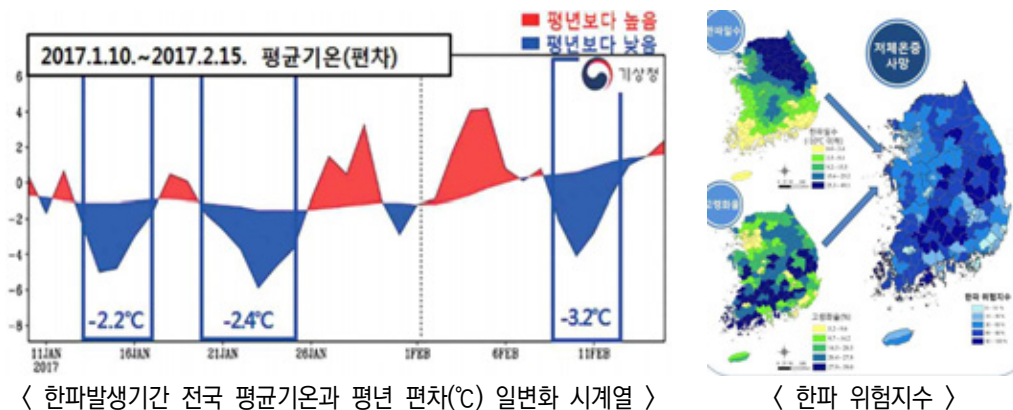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통계청

14)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

## □ 다양한 건강위협요인 발생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 국내 지속 발생 감염병과 해외여행 및 교류로 인한 해외유입 감염병의 연중 발생
  - 해외여행 및 교류 증가로 2019년 우리 지역 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고,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에볼라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
  - 복잡·다양한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감염병 발생원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 필요
- 황사,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로 환경 건강 문제 대두
  -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의 악화요인 증가, 소아감염성 질환 감소에 의한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알러지성 질환 증가로 청소년 아토피 진단율은 높은 양상이며, 청소년 천식 의사진단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필요
-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사회재난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상승
  - 지난 46년간 평균 폭염일수는 10.9일이며, 주요 도시 폭염일수를 보면 전주시 폭염일수는 41일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1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최대 4℃ 이상 상승하고, 평균 폭염일수는 5.8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2.8℃에서 2010년대 3.2℃로 0.4℃가 증가하는 등 지속 상승 추세이며, 한랭질환자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

Ⅱ 그림 3-32 Ⅱ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2015년 기준)



주. \*2017년 1월 21~25일 사이 전북에 한파특보가 발효됨  
자료. 재해연보(2017), 행정안전부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공공의료 강화 및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종합계획 수립
  - 2019년 지역의료강화대책(11월), 제4차(18~22)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분만, 응급 관련 의료취약지원 체계 강화(보건복지부, 2020)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16~20)에서는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을 비전으로 총 6개 분야, 27개 중점과제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추진
  -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 국민 대상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함
- 민선7기 보건의료의 전라북도정 방향은 `도민의 건강보장과 건강한 전북, 행복한 도민`을 비전으로 설정,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
  - 민선7기 도정과제 중 건강분야는 차매안심센터 설치·운영 확대, 청년 건강검진비 지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우리아이 정밀 검진 건강관리 지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출산·분만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대학원 설치 등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

### □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 개선 본격 추진

- 보건소 중심의 지역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 시행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지역 및 의료취약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센터) 운영
  - ‘읍면동 복지전담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기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화상통신 등) 및 순환형 운영방식을 통한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제고로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공공성 보완 추진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정기적인 양질의 무료 순회 진료를 제공하여 도서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 유지에 기여하며 건강불평등 해소
  - 공중보건의 원격으로 상담, 진료 등 시행 및 간호사 중심의 지역사회 방문팀 추진

### □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 각종 질병양상의 급격한 변화와 급성 심장질환 등 응급환자의 증가 추세로 응급진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지역사회의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료인프라는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부족한 상황으로 응급환자 발생대비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을 통한 응급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공백 방지 요구
- 실제 재난 상황 유형별 대응 훈련을 통해 응급의료인력 대처역량 증진
  -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에 적절한 골든타임 4분을 확보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 강화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

### □ 체계적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 안심환경 조성

-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감염병 퇴치와 유행 억제를 위해 감시체계 강화
  -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홍보 활동 및 유행예측 사업을 강화하고 환자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
  -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능동면역 획득을 통한 감염병 예방
  -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조기차단 및 억제
  -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의료 취약지역 맞춤형 지원 및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출산·분만 취약지 및 어린이 의료지원 정책 추진
  - 의료서비스 기능체계 강화 및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의료서비스 제공
-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하는 기관 선정 및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권역·지역별 공공 보건의료기관과 소방본부(서), 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등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센터 및 소방본부(서) 등 응급대응 종사자의 초동대응 능력 강화와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등 대응체계 마련

• 현장 긴급구조 체계 강화

-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응급환자들의 긴급 환자이송 및 완료 될 때까지의 현장 구조 체계 강화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조성을 통한 환자 이송체계 강화

□ 소외·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 보건·복지 및 읍·면·동 행정을 연계하여 의료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 소외취약계층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찾아가는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발굴

•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보건서비스 체계 확립

- 취약계층에서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인식 제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와 취약계층 건강수명 연장 지향
-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증가와 노인 만성질환에 대응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노인질환 수요 집중지역 직접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자가건강관리 능력 함양

□ 건강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통합협력 체계 구축

•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성 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통합건강증진

- 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 및 보건환경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사업추진과 차별화된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 도민 안심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강화

- 환경 변화로 인한 신·변종 감염병 급증과 재유행 감염병의 유행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생물테러 및 생화학적 위기 발생 대응책 강화, 미래사회 환경구조 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조기대응 체계 구축, 원인불명 감염병 확대 대응 체계 구축
- 결핵 및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감염병 퇴치기반 마련과 예방접종 대상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가능한 감염병의 발생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 음식물을 통한 수인성 전염병,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인수공통 및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예방과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감시·대응·관리 체계 강화

## 04 세부 추진과제

### □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 취약지역·계층 보호체계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 연계시스템 구축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건강평가 실시, 신규 대상자 발굴 시 건강평가 및 건강서비스 제공 및 건강평가 결과를 근거로 개인별 건강설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상담. 개인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 연계하여 건강위험도별(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지속적 건강관리(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른 대상자 군 분류(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로 관리계획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
- 지역사회 자원 중심의 재활체계 추진
  - 장애별 자조모임 및 가족소모임 지원, 재활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활동, 여가·문화생활 지원 등 사회참여 및 자원연계 제공하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구강보건 제공
- 출산·분만 취약지 및 어린이 의료 지원
  - 출산·분만 취약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이송 등 교통 지원 및 산부인과 조성·운영비 지원과 공공형 산후조리원·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을 통한 임산부와 산모 의료기반 조성 지원, 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운영과 야간·응급 지원을 통한 어린이 의료기반 조성
- 농어촌 보건기관 보건의료장비 지원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보건건의료장비 지원
  - 의료취약지역 및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진의 원격의료와 방문간호팀을 구성하여 처방전 및 처방약 전달 등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

### □ 재난·응급 대응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소방 및 민간과 협업을 통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자치단체 신속대응반 협조체계 강화 및 지역소재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활용 및 역할 강화



•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및 민간이송업체, 응급 의료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하고, 정기적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관계자 간담회 진행

• 응급의료 지원 역량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

- 긴급 구조훈련, 재난안전 한국 훈련, 보건소 신속대응반 훈련,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운영 및 점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 등 재난 대응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 교육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재난의료 수요파악을 위한 현장 피해지역 규모, 상황진단 등 상황 모니터링, 재난응급의료상황실 보고 및 추가 자원 관리,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사상자 파악, 추적관리 및 사상자 이송병원 선정 등 보건소 신속대응반 입무 숙지

□ 건강위협요인 대응·관리체계 구축

• 일상생활 속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 및 먹거리 위생 관리

-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환경부서, 축산부서,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업소 위생교육,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지도 점검, 숙박업,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생 점검, 수질검사 등 시행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

- 전북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을 통한 시·군 사업 계획서 검토, 평가 및 환류,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지역의 건강문제 진단을 위한 건강 통계 자료 제공하며, 시군별 지역사회 건강문제, 주민요구 등 현황분석을 통한 보건사업에 대해 유기적으로 사업 수행

•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위기 대응훈련, 감염병 조기발견·전파차단·예방 등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강화

- 감염병 위기 단계별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관리기관 지정, 위기대응훈련 및 생물테러감염병 이중감시, 유관기관 합동 생쿨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훈련 및 협력 체계 구축
-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여행 후 의심환자 365일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와 접촉자 관리 등 적극적 환자 발생 감시
- 감염병 유행 사전 차단을 위한 홍보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운영

• 환경성 질환 건강관리 및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관리

- 폭염·한파 대비 열사병·한랭질환 등 관련질환 교육, 건강관리요령 교육 및 폭염·한파에 의한 질환 의심 시 응급처치요령 및 무더위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

## 제3장 상생형 도농융합과 농산어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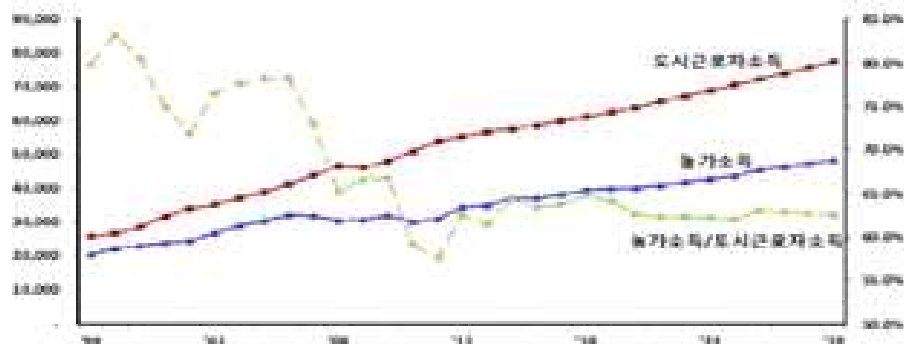
### 1 도농융합 상생, 의미와 전략

#### 01 현황 및 문제점

##### □ 농가 양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 농업경영의 어려움은 25:75(전업대농:중소농)의 '농가분화'로 이어져 지역농업의 생산력-유지력이 괴리돼 농정 의사결정 구조재편 강제
- 대부분 농가는 농업경영 수익률(50% 미만)을 감안하면 농업수익으로는 농가경제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
  - 농업조수입 년 5백만 원~1천만 원 구간에 집중
- 농업경영 어려움은 농가경제의 취약함으로 이어져 '도농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져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주 평균소득의 68.4% 수준

【그림 3-33】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017년부터 연간 월평균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2017년은 분기 단위 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 소득을 추산, 2018년부터 KREI-KASMO 추정치. 도시근로자 가구 표본과 농가표본 연령별 구성비율 상이한 점을 고려할 필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 □ 농산어촌 마을의 과소화와 인구감소

- 사람이 없는 무거주 자연마을이 늘고 20인 미만의 과소화 마을이 갈수록 증가

-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마을은 도농통합도시지역(cold spot), 인구가 증가하는 농촌마을 전주인근+동부권 지역(hot spot)

□ 농민·농촌주민 느끼는 삶의 질 수준, 도시에 비해 절대적 열악

- 지역발전지수 상위 50위 : 전주시(15위), 완주군(41위), 군 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위 ('18년 기준)
  - 생활서비스 : 전주 3, 익산 21, 군산 28, 남원 39, 정읍 46
  - 주민 활력 : 완주 47, 전주 48
  - 삶의 여유공간 : 진안 20, 무주 33, 임실 46
  - 지역경쟁력 : 완주 25, 전주 48
- 삶의 질 만족도(28.5%), 소득 만족도(11.3%) 전국평균 이하 ('17년 기준)

┃ 그림 3-34 ┃ 소득만족도와 삶의 질 만족도 비교



자료: 통계청, KOSIS(e-지방지표)

□ 지역농업·지역고용·삶의 질 시장실태가 농촌문제의 원인

- 지역농업 시장실패는 외부시장 출하지향으로, 지역고용 시장실패는 지역외부 취업지향으로, 삶의 질 시장실패는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짐
- 시장을 통해 농촌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이를 사업적 방식으로 공급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농업·농촌의 문제, 사회적 이슈로 일반화

- 농업·농촌 문제는 농업·농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회적 이슈로 확대
-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대 과제 위치

### □ 교차이동 확대와 농시(農市)생활의 사회적 정착

- 교차이동 : ‘농촌→도시’에서 ‘도시→농촌’, ‘도시↔농촌’의 교차이동(cross flow) 증가
- 농시(農市)생활 : 농촌(rural)+도시(urban)이 결합·디자인 된 공간의 삶과 생활방식 확산

### □ 문화의 사회적 공존과 교류여건의 향상

- 도시의 자연화와 농촌화, 농촌의 도시화가 복잡한 수준과 형태로 문화 공존이 진행
- 초고속 전철의 일상화, 초고속 통신망 확대, 소득향상, 주52시간 근무 등 교류 여건 개선

Ⅱ 그림 3-35 Ⅱ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이슈

삶터		근교	일반	원격
인구	인구회박(소멸)지역		→	
	귀농귀촌	←		
정주체계 및 정주 기반	중심지 기능	←	→	
	주거지 집중	←		→
	도시의존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	→	
일터		근교	일반	원격
일자 리	외국인 노동자	→	←	
	일자리 유입	←		
산업	제조업 및 첨단산업	←		
	신재생에너지 생산		→	
	로컬푸드	←		
	경작면적	→	←	
	농업활동		→	
	스마트 농업	←		
	대농 및 기업농	→		
	소농 및 가족농		→	
	친환경 농업	→	←	
쉼터		근교	일반	원격
여가,문화 및 관광	다지역 거주 및 상시교류	←		
	휴양지 및 관광지	→	←	
	문화 공간화	→	←	
경관 및 자연환경	난개발 및 경관 훼손	←	→	
	경관 보존		→	
	환경정비	←		
	자연 회귀 토지		→	
공동체의 터		근교	일반	원격
공동체	전통 공동체성		→	
	사회적 경제 및 공유 경제	→	←	
	도농 파트너십	←		
사회갈등	지역발전 수준	→	←	
	사회적 갈등	→	←	
	공공서비스 부담		→	

← 화살표 방향으로 해당 키워드의 감소 동의도가 큼

→ 화살표 방향으로 해당 키워드의 증가 동의도가 큼

자료: 심재헌 외(2017)

### 03 대응방향<sup>15)</sup>

#### □ 도시-농촌 ‘도농(都農)’, 농촌과 도시의 공생

-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밀접하게 ‘경제적’으로 농업과 공업 분업구조를 만들었고, ‘지리적’으로 농촌과 도시의 분화를 낳음
- 공생적 접근이 관건 : 농촌과 도시를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살펴 파악

#### □ 도시-농촌 ‘융합(融合)’, 수렴된 새로운 가치 창출

- 도시의 가치(문제와 필요)와 농촌의 가치(문제와 필요)가 수렴돼 새로운 가치를 갖는 혼성적인 영역(공간과 활동)을 만들어 공생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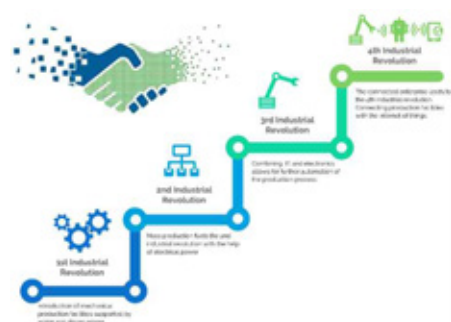
#### □ 도시-농촌 ‘상생(相生)’, 공존과 공생을 넘는 관계

- 현대화된 사회에서의 개체를 그대로 살리면서 개체의 과도한 팽창을 생명 차원에서 수렴시켜 공동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방식
- 공동선(共同善) 공공성(公共性)은 상생의 관계망 속에서 구현되는 것, 부여하는 것이 아님

거점개발 방식의 문제와 현상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융합의 과정



#### □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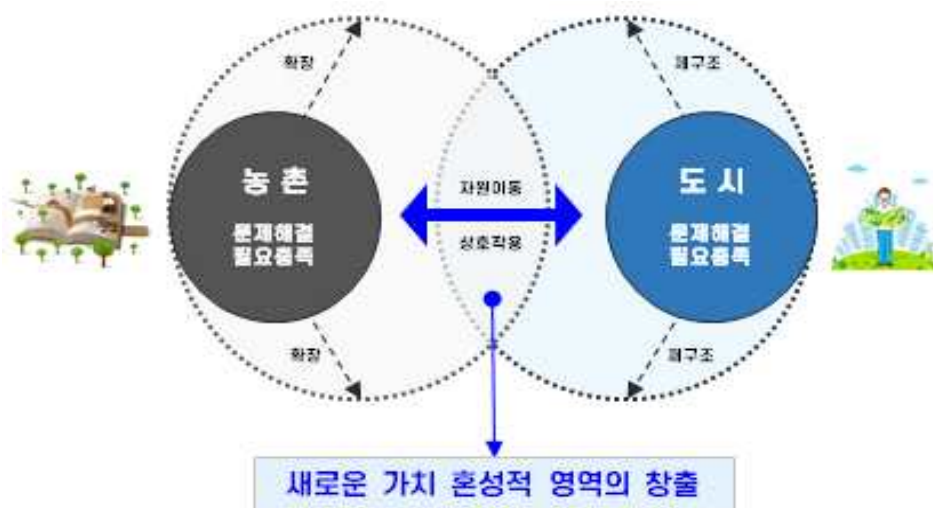
- 농촌과 도시가 서로의 필요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관계(망)를 통해 공동의 선(이익)을 구현해 나가는 영역과 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
- 단순하고 평면적이며 일회적인 ‘도농 교류’를 넘어 ‘도농 융합과 상생’으로 발전

15) 자료 : 황영모. (202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전북연구원.

### □ ‘도농융합상생’의 기본방향

- 목적 : 불완전하고 분리된 객체를 넘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상생의 가치
- 주체 :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소비되지 않는 농촌(지역)만들기’
- 수단 : 융합기술(convergence technology)의 혁신적 적용·활용, 플랫폼, O2O
- 형태 : 공간(농촌지역·마을), 매개(먹거리, 어메니티), 사람(개별+조직 연대)

■ 그림 3-36 ■ 도농융합상생 기본방향



## 04 중점과제

### □ 농산어촌 ‘주민’과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이 우선



## 2 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진화와 혁신

### 01 계획의 기본방향

-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농산어촌 마을만들기의 진화와 혁신
  - 생생마을만들기에 도농융합상생의 사회적 수요·필요 결합, 두 번째 삶터 색깔 입히기
  - 생생마을을 강화해 국민 버킷리스트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플러스 프로젝트’
- 농산어촌 주민 생활수요에 기반한 전복형 마을만들기 확장
  - 농촌주민 관점에서 도시민 수요에 주체적인 대응(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추진 (하드웨어 지양)
  - 생생마을만들기 : 전복형 마을만들기 사업, 1천 개 마을(기초단계→활성화단계→사후관리단계 관리)

Ⅱ 그림 3-37 Ⅱ 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진화와 혁신





## 02 세부 추진과제

### □ 농산어촌 마을만들기의 내실화와 혁신

- 통합적 마을만들기, 단계적 지원체계 : 중간지원조직 역할강화, 단계별 지원 체계 혁신
- 농산어촌 주민 주도 내발적 역량 강화 : 공동체 사업조직 경제성과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원칙 확립

### □ 생생마을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 실행

- 도농융합상생 색깔 입히기 : 농촌여행(체험교류), 건강치유(힐링휴식), 취미예술 (재능나눔), 농사귀농(귀농귀촌) 등
- 기존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에 도농융합상생을 위한 생생마을 차별화 전략으로 신규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결합

Ⅱ 그림 3-38 Ⅱ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 구상(안)



### □ 도농융합 상생 정보·정책 플랫폼 구축

- 생생마을에 도농융합 상생의 색깔을 입히는 농업·농촌·문화·치유·힐링의 통합 플랫폼을 통한 정보 발신의 거점 구축
- 도·시군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 정보, 귀농귀촌 정보, 농업농촌 인력육성 정보 등을 결합한 쌍방향 온라인 거점



### 3 농산어촌 지역순환경제 구축

#### 01 계획의 기본방향

##### □ 지역순환경제 작동을 위한 읍·면 단위 생활경제권 구축

- 지역사회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작지만 강한 지역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현실적 전략
- 지역주민의 생활 경제상의 필요에 의한 상품·서비스를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 지역순환경제 작동과 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각 주체가 합의하고 공감하는 수준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과 네트워크가 핵심

##### □ 농어업·농어촌 6차산업화로 지역주민의 소득기반 마련

- 농어업농어촌의 지역주민이 농식품의 공급사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주도, 지역주민 發 가치사슬 혁신을 추진
- 농어업·농어촌의 6차 산업화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영의 다각화와 복합화를 넘어 지역의 가공산업, 유통업, 서비스 산업 등과의 결합을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유지하는 핵심전략
- 지역 자원에 기반한 향토산업, 지연산업 등 지역 밀착형 경제활동 구조로 혁신하기 위한 종합전략 추진

##### □ 임산물 고부가가치화와 산림산업 육성으로 산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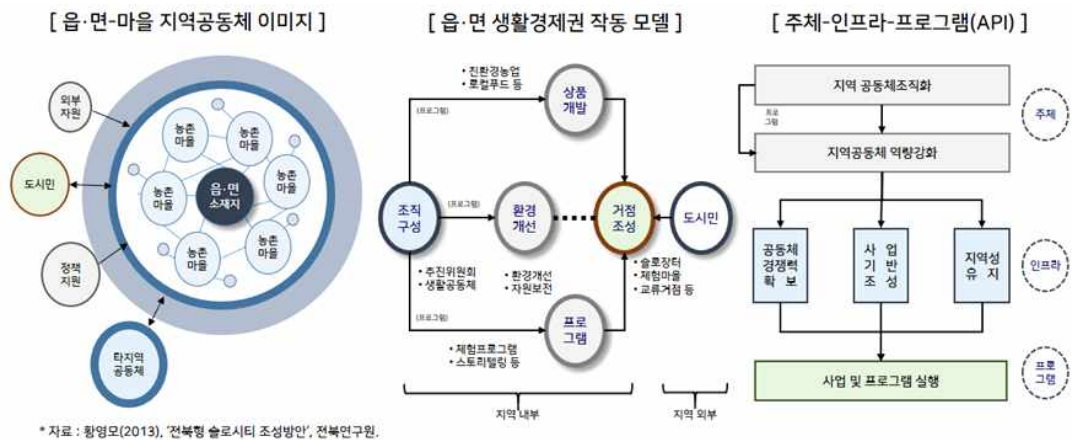
- 경관관리계획에 따른 산촌관리와 체험관광, 청정 임산물 유통지원 관리, 임산물 고부가가치·6차산업화 등을 통해 주민소득의 증대
- 목재산업의 시설·기술지원, 목조이용 활성화 제도개선,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 에너지 활성화
-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림 육성과 목재자원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목재 생산과 유통관리

## 02 세부 추진과제

☐ 읍·면 생활경제권 구축과 활성화

- 마을을 넘어 읍·면 단위로 사업·활동의 범위를 확장시켜 절대적 자원의 한계 극복
-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된 생활경제권을 새로 구축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 주민역량 강화사업, 액션러닝프로그램 지원, 추진조직 운영지원, 교류거점 조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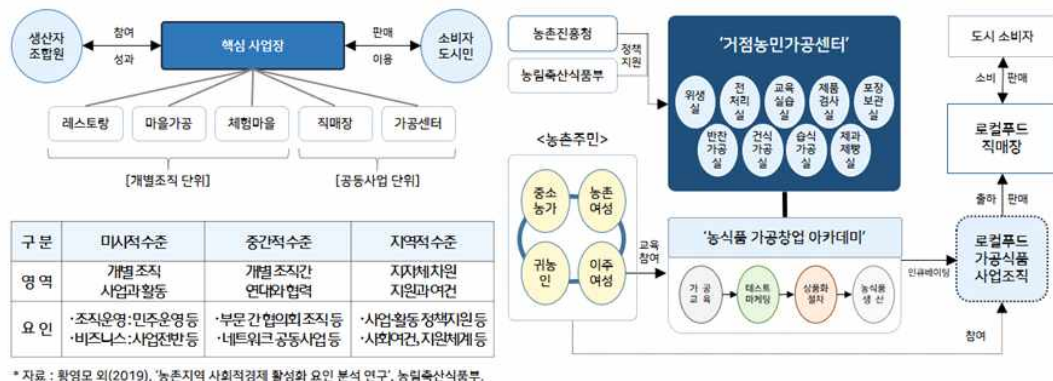
■ 그림 3-39 ■ 읍면 생활경제권 구축 전략



## ☐ 농어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6차산업화 확장

- 고령자, 농어촌여성, 귀어귀촌자(비경제 활동인구) 6차산업화 경영체 고용·노동 참여 유도 역할
- 전통적 생산·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가공·판매·체험·식당까지 결합된 지역경제 소득 모델 구축
- 기존 사업지구에 가공, 체험, 교류 등 거점시설 지원, 비즈니스 모델로의 작동 지원

■ 그림 3-40 ■ 농산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 전략



□ 산촌 활성화와 산림산업의 육성

- 경관자원을 활용한 도시민 산촌체험·귀산촌 활성화와 산촌 생활환경 개선(산촌 개발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 등),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 확대
- 임산물생산단지, 임산물유통터미널, 산림공익기능 직불제 등을 통해 청정 임산물의 생산·유통 전반의 지원관리 체계 마련
- 산림자원의 지역단위 에너지 이용 및 순환체계 구축과 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목재산업 육성 및 활성화 도모
- 경제림 육성단지 집중 조성과 산림자원 순환체계(벌채-조림-숲가꾸기-벌채)의 산림경영시스템 보완

## 4 지역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육성

### 01 계획의 기본방향

□ 농어업·농어촌 담당인력의 통합적 육성체계 마련

- 지역농업의 생산을 담당할 후계인력(농업후계자)과 농촌사회의 유지를 담당할 후계인력(농촌후계자)를 통합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는 체계 구축
- 지역단위 ‘농업후계자’는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넘어 다양한 지역사회의 실행 주체로서 통합적으로 역할·참여하는 것이 관건
- 지역사회 ‘농촌후계자’는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유입인력이 지역사회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분야의 적절할 역할 찾기로 영농정착·지역정착의 체계 구축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귀농·귀촌에 관한 개념화된 정착 경로로는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에 한계 직면
- 귀농·귀촌자가 지역사회 정착의 과정에서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역사회 정착 안전망으로서 ‘비빌언덕’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
- 농산어촌 지역사회 혁신의 관점에서 외부(도시)로부터의 다양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거점 조성·운영

## 02 세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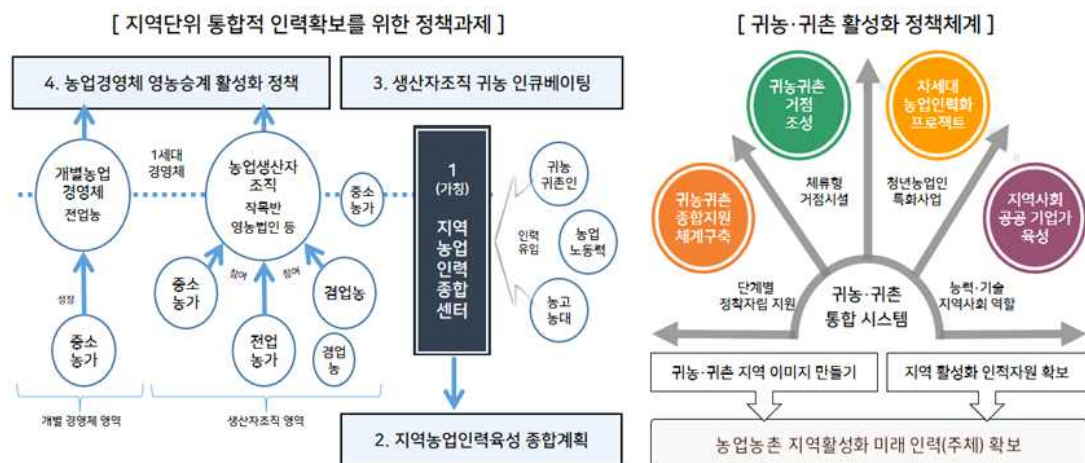
### □ 통합적 농업·농촌 인력확보 체계 구축

- 사람·조직 관점에서 ‘농업·농촌·지역사회 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구조를 고려한 계획 필요
-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인단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농업인력종합센터’ 설립·운영
- 지역사회에 밀착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지원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귀농·귀촌 시스템 구축

### □ 청년유입·정착을 위한 비빌언덕 조성

- 귀농·귀촌 어려움 : ‘일자리, 주택, 커뮤니티’ 지역 연결 완충 역할을 제공하는 ‘비빌 언덕’ 필요
- 거주를 위한 저렴한 집, 다양한 창업(일자리)을 위한 농촌형 직주공간(문화인프라)
- ‘농촌형 사회혁신타운’ 콘텐츠·작동방식 : 주거, 체험, 실험, 소셜벤처, 교류공간 등

Ⅱ 그림 3-41 Ⅱ 통합적 농업농촌 인력확보 전략



## 5 농산어촌 지역생활 돌봄체계 강화

### 01 계획의 기본방향

#### □ 농산어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연계체계 마련

- 생활SOC 기반이 취약하고 대다수 주민이 고령화된 농산어촌 지역에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 대응한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
- 고령화된 지역사회에서 귀농·귀촌자는 지역사회의 핵심 인적자원, 지역사회 활성화의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 농산어촌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노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
- ‘주민 행복은 지역사회가 담당’한다는 규범을 마련, 내부의 인적자원을 활동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역할 찾기

#### □ 농산어촌 노인돌봄 및 복지체계의 혁신과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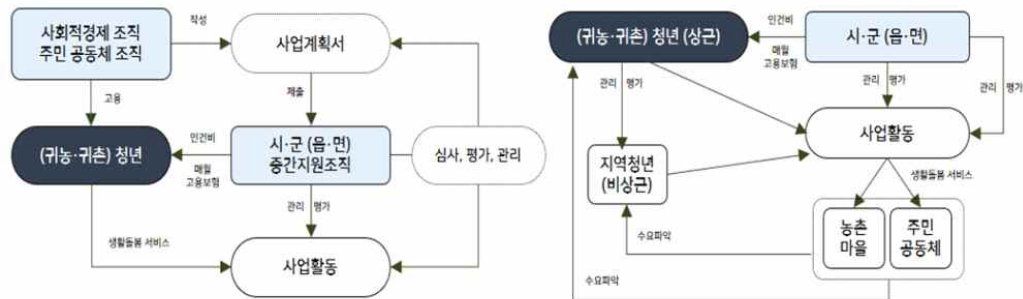
- 농산어촌 주민의 대부분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돌봄과 복지체계를 농산어촌 마을·읍면 단위로의 통합적 지원체계로 전환
- 지역주민의 돌봄 및 복지수요에 기반하여 공공기관의 지원체계와 민간분야의 조직 자원을 결합한 통합적 복지 지원망 구축
- 공적부조 대상의 사회 취약계층을 넘어 생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지역 주민 복지 및 돌봄 수요 대응전략

### 02 세부 추진과제

#### □ 농촌지역 생활돌봄 일자리 체계 마련

- 농촌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농촌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돌봄 서비스 공급
- 사회적경제·공동체조직 프로그램 담당자 고용, 읍·면 생활돌봄 수요대응인력 배치

그림 3-42 농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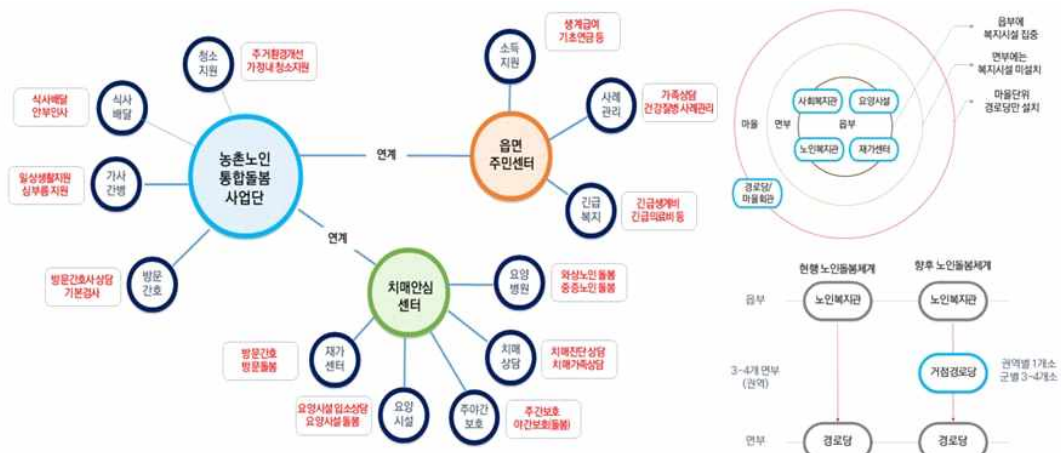


\* 자료 : 황영모(2019), '농촌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청년 일자리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농촌마을 노인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 농촌대상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기관과 연계한 농촌노인 통합돌봄지원단 운영
  -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가구의 노인돌봄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돌봄안전망 구축
  - 농촌지역의 청년회, 부녀회, 이장단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마을돌봄 지원,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그리고 청소년여가문화지원 등을 통한 촘촘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농촌 과소화 마을 청년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노인통합돌봄지원단 구성, 종합적인 노인 돌봄안전망 구축
- 민간(복지기관·민간단체) 연계 종합 돌봄서비스 제공 및 공공기관과 통합복지 지원망 구축

그림 3-43 농촌마을 노인통합돌봄 지원체계 전략



\* 자료 : 이종섭(2019), '농어촌 지역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농촌지역 마을복지 돌봄 공동체 조성

- 농촌지역의 주요 복지자원인 경로당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 종합적인 돌봄안전망 구축
  - 농촌지역은 심각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자원이 충분치 않고, 설치되어 있는 복지자원도 대부분 인구가 많은 읍부에 집중되어 있어 면 단위는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
  - 농촌지역 면 단위 지역은 경로당을 활용하여 돌봄과 일자리 그리고 여가문화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개편 추진
- 전라북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복지 관련 다양한 유관기관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마을 단위 통합돌봄사업단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농촌지역의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민관 차원의 다양한 자원으로 효율적 연계를 통해 농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 공적지원 필요대상(읍·면주민센터) 연계, 건강·보건의료서비스 필요대상(보건소·치매안심센터) 연계 의료서비스 제공 등

【그림 3-44】 농촌 과소화지역 돌봄안전망 구축 방안



### 마을돌봄지원

- 이동점방, 이동보건소 운영→ 노인(독거) 생활편의용품 구매, 방문진찰
- 보건의료서비스연계(보건소)→위기노인 건강진단 및 병원진찰 동행
- 치매노인 방문보건서비스 제공(마을주치의 제도 운영)

### 노인문화여가활동지원

- 이동복지관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연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방문형 실버복지지원→경로당 방문 실버요가,노래한글교실 등
- 지역복지관 연계 여가문화프로그램 강사 파견 등 지원

### 청소년 여가문화지원

- 취약청소년 마을캠프 운영
- 지역축제 지원 및 방과후 활동 연계 아동청소년 체험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청년일자리 창출

- 과소(위기마을) 자원인력 일자리 연계
- 독거노인 돌봄 및 여가자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마을돌봄지원 확대)

## 제4장 미래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 1 지속가능한 삼락농정 역량 강화

#### 01 현황 및 문제점

##### □ 지역경제의 핵심산업, 농림어업

- 전라북도 2018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액(잠정치) 가운데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전국 평균(2.0%)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
- 농림어업과 연계한 식료품, 종자·육종, 농기자재 산업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인프라와 관련 연구기관·업체 등이 집적된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산업 유지를 위한 인력 부족

- 전국적인 농가인구 감소추세로 2010년 이후 농가수는 연평균 1.6%씩, 농가인구는 3.4%씩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전국대비 감소폭이 높아지고 있음
  - 2019년 기준 도내 농가수는 전국의 9.4%(94,735호), 농가인구는 9.1%(204,124명) 수준
- 65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전체의 62.5%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40대 이하 감소율이 높아 농산업 유지를 위한 인력대책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됨

표 3-26 전라북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0년	비율(%)	2015년	비율(%)	2019년	비율(%)	연평균증감률 ('00/'19)
20대	197	0.2	105	0.1	51	0.1	-13.9%
30대	2,923	2.7	1,462	1.5	820	0.9	-13.2%
40대	12,131	11.1	7,796	7.8	5,236	5.5	-8.9%
50대	24,494	22.4	21,126	21.0	15,832	16.7	-4.7%
60대	34,296	31.3	30,807	30.7	28,642	30.2	-2.0%
70대 이상	35,392	32.3	39,066	38.9	44,153	46.6	2.5%
합계	109,433	100.0	100,362	100.0	94,734	100.0	-1.6%

자료. 농림어업조사(2019), 통계청



## □ 농업경영비 증가와 규모의 양극화 심화

-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근 10년 간 연평균 3.0%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농업의존도(31.8%)가 높은 것이 특징
  - 농가경영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표 3-27】 전라북도 농가소득 및 부채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2014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09/'19)	
	전국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
농가소득	30,814	30,641	34,950	33,616	41,182	41,214	2.9%	3.0%
농업소득	9,698	11,122	10,303	9,745	10,261	13,106	0.6%	1.7%
농업총수입	26,621	26,044	32,179	33,219	34,436	38,840	2.6%	4.1%
경영비	16,924	14,922	21,875	23,474	24,175	25,734	3.6%	5.6%
농외소득	12,128	9,933	14,799	13,846	17,327	12,649	3.6%	2.4%
이전소득	5,481	5,369	6,819	7,755	11,230	12,570	7.4%	8.9%
비경상소득	3,507	4,217	3,029	2,269	2,364	2,890	-3.9%	-3.7%
부채	26,268	19,358	27,878	26,821	35,718	23,534	3.1%	2.0%

주.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모집단을 개편하여 실시  
 자료. 농가경제조사(2019), 통계청

- 도내 농지가 있는 농가 중 1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가 전체의 64.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ha 이상 농가(35.1%)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1ha 미만 농가의 비율은 2000년 58.0%에 비해 6.9%p 증가한 반면에 5ha 이상 대규모 농가의 비율은 정체 수준으로 중규모(1~5ha) 농가의 이동에 의한 변화가 두드러짐

【표 3-28】 전라북도 경지규모별 농가분포

구분	농지소유	0.5ha 미만	0.5~1.0ha	1.0~5.0ha	5.0~10.0ha	10ha 이상
농가(호)	93,634	39,072	21,690	26,872	4,056	1,944
비율(%)	100.0	41.7	23.2	28.7	4.3	2.1

자료. 농림어업조사(2019), 통계청

## □ 식량작물과 축산 중심의 생산구조

- 최근 10년간 도내 농산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채소류 가운데 조미채소 생산량의 경우 연평균 6.2%씩 큰 폭으로 증가
  - 2018년 기준 전국대비 생산량은 식량작물(16.3%)과 근채류(12.0%)의 비중이 높았으며, 식량작물 가운데 맥류의 경우 전국의 34.5%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9**
 전라북도 부류별 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2018년)

구 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전국	전북	비율(%)	전국	전북	비율(%)	연평균 증감률('08/'18)
식량작물	924,470	147,931	16.0	4,397,532	717,943	16.3	-1.6%
과채류	42,078	3,517	8.4	1,880,890	183,804	9.8	-0.3%
엽채류	47,906	3,404	7.1	2,930,379	229,986	7.8	-0.6%
근채류	25,559	2,175	8.5	1,307,704	156,283	12.0	-2.3%
조미채소	109,304	9,451	8.6	2,629,133	226,545	8.6	6.2%
과실류	164,718	10,569	6.4	2,160,457	92,626	4.3	-1.1%

자료. 농작물생산조사(2018), 통계청

- 2019년 기준 주요 가축의 사육규모는 전국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력제가 시행된 최근 5년간 연평균 3.0%씩 증가하여 전국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오리(26.3%)·닭(18.1%)은 전국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며, 한·육우(12.2%)·돼지(12.5%)·젓소(8.1%)의 경우 전국 4위의 수준으로 특히 돼지와 닭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3-30**
 전라북도 주요 가축 사육현황(2019년)

(단위 : 마리, %)

구분	합계	한·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전국	196,482,293	3,237,055	408,135	11,279,894	172,920,159	8,637,050
전북	35,418,731	394,925	33,157	1,406,178	31,309,251	2,275,220
비율(전국순위)	18.0%(2위)	12.2%(4위)	8.1%(4위)	12.5%(4위)	18.1%(2위)	26.3%(2위)
연평균 증감률('14/'19)	3.0%	2.2%	-0.8%	3.6%	3.3%	-0.3%

주. 이력제 시행 2014년 4분기~2019년 4분기 대비

자료. 가축동향조사(2019), 통계청

## □ 농가 경지면적 규모화 대비 시설재배 미흡

- 2019년 기준 도내 경지면적은 전국에서 네 번째인 12.3% 정도이나 농가당 면적은 2.09ha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농가인구 감소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논이 밭보다 1.8배 많은 구조이나 소득작목 전환에 따른 밭 면적 증가폭이 높아지는 추세
  - 경지면적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논은 연평균 1.4%씩 감소하나 밭은 1.5%씩 증가

**표 3-31**
 전라북도 경지면적 현황

구분	경지면적(ha)		논(ha)		밭(ha)	
전국	1,580,957	100%	829,778	52.5%	751,179	47.5%
전북	195,191	100%	124,408	63.7%	70,784	36.3%
비율(%)	12.3%	-	15.0%	-	9.4%	-

자료. 농림어업조사(2019), 통계청

【표 3-32】 전라북도 농가당 경지면적

구분	2010년(ha)			2019년(ha)			연평균 증감률('10/'19)		
	전체	논	밭	전체	논	밭	전체	논	밭
전국	1.46	0.84	0.62	1.57	0.82	0.75	7.7%	-1.4%	20.1%
전북	1.86	1.31	0.55	2.09	1.35	0.73	11.9%	3.5%	31.8%

자료. 농림어업조사(2019), 농업면적조사(2019), 통계청

- 도내 시설채소 비닐하우스·유리온실 면적은 2018년 기준 4,709ha로 전국에서 매우 낮은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대비 2.4%로 5년 전보다 하락

【표 3-33】 전라북도 시설채소 온실현황

(단위 : ha, %)

구분	2013년				2018년			
	계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경지면적대비	계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경지면적대비
전국	53,820	53,445	375	3.1%	47,702	47,418	284	2.9%
전북	5,404	5,328	76	2.6%	4,709	4,644	65	2.4%
비율	10.0	10.0	20.3	-	9.9	9.8	22.9	-

자료.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농림축산식품부

#### □ 친환경농축산물 재배농가 감소 추세, 유기인증 강점

- 2019년 기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전국의 7.0%, 2위)은 전남(56.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기인증 출하량의 경우 전국의 9.9%로 높은 수준

【표 3-34】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구분	전 국			전 라 북 도			비율(%)		
	농가수(호)	면적(ha)	출하량(톤)	농가수(호)	면적(ha)	출하량(톤)	농가수	면적	출하량
합 계	58,055	81,718	494,307	4,191	5,707	34,174	7.2	7.0	6.9
유 기	18,199	29,711	127,440	1,324	2,283	12,604	7.3	7.7	9.9
무농약	39,856	52,006	366,866	2,867	3,424	21,570	7.2	6.6	5.9

자료.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20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전국 농가의 10.5%, 출하량의 16.5%를 차지, 유기인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전국 농가수의 22.6%, 출하량의 48.4%)

【표 3-35】 전라북도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구분	전 국		전 라 북 도		비율(%)	
	농가수(호)	출하량(톤)	농가수(호)	출하량(톤)	농가수	출하량
합 계	6,193	1,002,814	650	165,948	10.5	16.5
유 기	106	45,858	24	22,206	22.6	48.4
무항생제	6,087	956,956	626	143,742	10.3	15.0

자료.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20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농수산물·농식품 판매 및 수출 구조 다변화 필요

- 농산물 생산규모에 비해 산지유통 시설 규모 및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화 수준 미흡
  - 주요 판매처는 농협(51.5%), 소비자 직접 판매(21.4%), 산지공판장(6.2%)에 집중
  - 2019년 기준 도내 주요 산지유통시설은 APC 31개소, RPC 36개소(농협 20, 민간 16), DSC 70개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가축시장 9개소(7개 축협)에서 연간 61,064두 거래

【표 3-36】 전라북도 판매처별 농가현황

판매처	도매 시장	산지 공판장	농협	농업 법인	정부 기관	수집상	농축산물 가공업체	농축산물 소매상
농가수(호)	2,363	5,193	43,290	3,670	841	5,859	2,274	1,466
비율(%)	2.8	6.2	51.5	4.4	1.0	7.0	2.7	1.7
판매처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소비자 직접 판매	대형 유통업체	대형 수요처	기타	판매 없음	합계	
농가수(호)	514	18,015	279	207	30	10,734	94,735	
비율(%)	0.6	21.4	0.3	0.2	0.0	12.8	100.0	

자료: 농림어업조사(2019), 통계청

-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로컬푸드의 양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지역의 농식품가공 및 6차 산업화 등과 연계한 다각화 방안 필요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수 : (‘16년) 28개소 → (‘19년) 38개소 / 35.7% 증가
  - 도내 로컬푸드 매출액 : (‘16년) 724억 원 → (‘19년) 981억 원 / 35.4% 증가
- 농수산물식품 수출실적은 2016년 대비 1.9배 이상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제주 제외), 대상 국가·품목에 대한 다변화 전략 필요
  - 가공농식품 수출액은 3.9배 이상 급성장하였으며, 수산물과 함께 전체의 83.3%를 차지
  - 중국(20.5%)과 일본(15.6%), 태국(15.6%),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대안 의존도가 높음

【표 3-37】 전라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 불,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율(%)	주요 품목
합 계	199,827	219,671	310,835	380,342	100.0	
신선농산물	30,300	28,089	30,081	32,044	8.4	파프리카, 배, 장미
가공농식품	50,251	63,255	140,686	197,544	51.9	면류, 펫푸드(사료), 제과
축산물	21,603	10,035	25,485	28,033	7.4	닭고기(삼계탕), 쇠고기
임산물	9,805	7,258	4,589	3,183	0.8	섬유판, 목재료
수산물	87,868	111,034	109,994	119,538	31.4	마른김, 조미김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 어가 현황과 수산업의 위치

- 2019년 기준 어가는 전국의 6.2%(3,342호), 어업인구는 5.8%(7,148명)으로 전국대비 내수면 어가(12.6%) 및 어업인구(12.2%)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
  - 도내 어가의 비율은 천해가 88.3%(2,951호), 내수면은 11.7%(391호), 어업인구의 경우 천해 85.6%(6,123명), 내수면 14.4%(1,025명)로 구성
- 도내 어촌계는 64개로 전국의 3.1% 수준이며, 수산업협동조합은 4.4%(4개), 어항은 1.8%(42개) 수준이나 어선은 전국의 4.7%(3,164척) 차지
- 천해어장개발 면적은 전국의 3.8%(12,212.8ha), 내수면은 10.2%(61,592ha)를 차지하며, 내수면양식장은 32.3%(268.2ha)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표 3-38】 전라북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

(단위 : ha, %)

구분	합계		항 어		메 기		미꾸라지		동 자 개		뱀 장 어		기 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전국	2,704	832	129	51	336	134	290	67	121	32.4	572	204	1,256	343.6
전북	726	268	95	36.4	158	70.5	98	32.5	41	12	137	52.5	197	64.1
비율	26.9	32.3	73.7	71.4	47.1	52.7	33.8	48.5	33.9	37.1	24.0	25.8	15.7	18.7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2.1%(82,664톤), 생산액은 3.8%(3,181억 원) 수준
  - 최근 10년 간 전체 생산량은 연평균 0.5%씩 감소한 반면에 생산액은 4.9%씩 증가하였으며, 전국비중이 높은 내수면어업의 생산량은 연평균 2.9%씩, 생산액은 6.8%씩 증가

【표 3-39】 전라북도 어업별 수산물 생산현황

(단위 : 톤, 억 원, %)

구분	2009년		2014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09/'19)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전체	87,117	1,970	54,866	1,857	82,664	3,181	-0.5%	4.9%
일반해면	35,059	978	22,516	824	24,565	1,327	-3.5%	3.1%
천해양식	46,746	458	26,474	249	51,052	829	0.9%	6.1%
내수면어업	5,312	533	5,877	783	7,047	1,025	2.9%	6.8%

자료. 어업생산동향(2019), 통계청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사람중심의 균형발전과 민관협력체계 중시

- [농정가치] 농업활동을 통한 ‘생산물’ → ‘사람’ 중심의 농정구현
  -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고, 공익가치 창출자로서 농업인의 위상을 재정립
- [농정대상] ‘농업인 농촌 주민’ → ‘소비자 등 국민 전체’로 확대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농촌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제공하는 다기능 농업을 구현
- [농정방향] ‘농업생산성’ 제고 →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발전
  - 농업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환경친화적 생산과 안전 먹거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
- [농정체계] ‘중앙정부 주도’ →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
  -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중심의 개혁농정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농정체계를 구축

Ⅱ 그림 3-45 Ⅱ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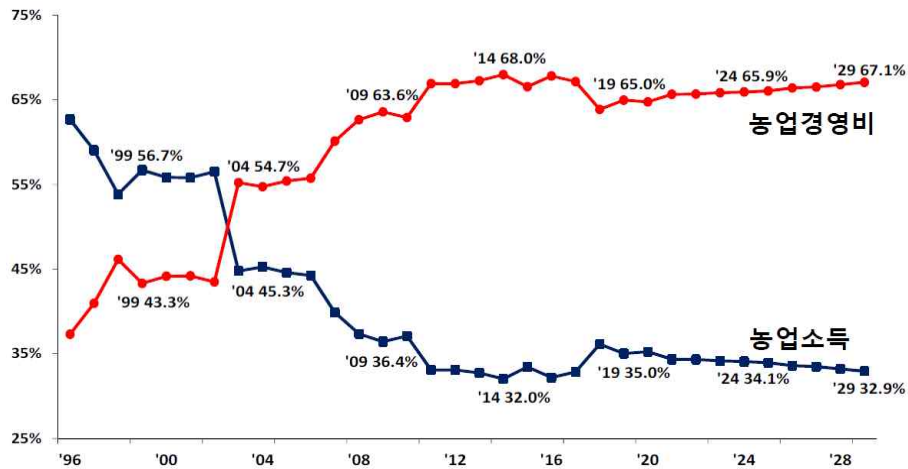
###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불확실성 가중

-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선진국 지위를 얻을 경우 정부지원제한이 예상됨
  - 개도국 특혜가 사라질 경우 쌀 수입 관세율은 현재 513%에서 393%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발작물 관세인하와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경영안정지원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전망
  - DDA 협상에 따라 직접보조금(변동직불금) 지급한도(AMS)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예상
- 개도국 특혜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되나 농산업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 농가교역조건 악화와 농업경영비 상승

- 통상환경과 국제유가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농가교역조건은 악화될 전망
  - 농가교역조건(KREI) : ('99) 118.7 → ('19) 106.3 → ('29) 103.7
- 중간투입재 비용과 위탁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재 의존형 농업생산 방식에 의한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업소득 증가폭이 감소할 전망
  - 농업총수입 대비 농업경영비 비중(KREI) : ('99) 43.3% → ('19) 65.0 → ('29) 67.1

■ 그림 3-46 ■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전망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심화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농촌사회와 농산업 유지를 위한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20) 자료에 따르면 2029년까지 농가인구는 연평균 1.7% 감소할 것이며, 농가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4.4%에서 3.6%로 감소할 전망
-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역시 향후 5년 내에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세대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 지속가능성과 안전한 먹거리 관심 증대

- 국제사회의 빈곤·불평등·기후변화·자원위기·환경오염·경제위기 등 문제해결을

위해 2015년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2030)’를 결의

- 지구적 규모의 지속불가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의 실천행동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며, 인류공동의 목표로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이행·관리하고 있음
- 건강·안전한 먹거리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공급과 조달을 넘어 양적·질적인 보장과 함께 누구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강조되고 있음
  -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ICLEI),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도시푸드정책협약(2015) 등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제의 해결과 푸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
-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폐기로 이어지는 푸드시스템의 통합적 관리와 실천전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됨
  -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을 주요한 농정방향으로 설정하여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주력하고 있음

#### □ 환경친화적 소비와 유기농산물 시장규모 성장

- 건강·환경을 고려한 농식품 소비패턴 증가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증가될 전망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1조2,868억 원(2018년) 정도로 최근 정체되고 있으나 유기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성장('10년 15.1% → '18년 29.2%)
- 세계 유기농 식품 및 음료의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970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농민중심 삼락농정 세부정책의 고도화

- 삼락농정이 추구하는 ‘농민행복·농업발전·농촌활력’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세부정책들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해나갈 미래형 발전전략을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균형있는 전략을 추진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시군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참여형 농정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 □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과 산지유통기반 강화

-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농업경영체 육성 및 경영역량 제고
- 지역 단위 특화작목 육성과 생산기반 조성, 고품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가소득 안전화 대책을 마련
-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계별 육성전략과 지역별 전략작목 중심의 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으로 과수·원에 산업 특성화 전략을 추진

#### □ 지속가능한 농산업 구조로 전환

-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농업생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가는 정책을 강화
- 지역 단위 물질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경축순환시스템을 기반으로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해나감으로써 농업·농촌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
- 친환경 농축산업의 단계별 확대와 시장대응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생산·유통 소비시스템을 구축

#### □ 미래인력 육성과 소득 안전망 확충

- 농업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목표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지지해나갈 다양한 방식의 직·간접 지원정책(공익형직불제·최저가격보장·재해보험 등)을 강화
- 특히 농업의존도와 시장 경쟁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고, 정책사업에서 소외된 중소농가를 보호하고, 지역농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인력과 노동력 확보 정책을 확대하고, 개별 경영체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시스템 및 컨설팅 등 실효적인 지원체제로 개선

#### □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먹거리 확대

- 먹거리의 양적·질적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기존의 단순한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사회·환경·복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
- 식량수급과 식품안전 불안정, 환경악화, 식생활·영양공급 불균형, 폐기물 증가 등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역 차원의 실효적 대응전략을 추진

-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로컬푸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역-지역을 연계한 푸드플랜 실행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먹거리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

## 04 세부 추진과제

### □ 생산기반 안정과 농가공 활성화

- 지역별 전략작목 중심의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과 노동력·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
- 산림자원과 임산물 소득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산림휴양·치유공간 확충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농가공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시설·장비 등 상품화 기반 조성 및 판매활성화를 지원

### □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기반 강화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과 유기농산업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등 추진
- 전북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체험 등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지원
- 기후변화와 각종 재해위험에 대응한 품목별 농업생산 기술연구 내실화 및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농업 기술에 대한 체험과 현장적용을 지원
- 축산업의 환경 친화적인 사육환경 조성 및 지역단위 경축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복지 실현 및 축종별 경영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예방중심의 방역체계,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방역체계 구축

### □ 수산자원 확보와 산업화 기반 구축

- 어촌·수산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새만금과 군산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출 가공산업 기반 구축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

- 고창과 부안 연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통합적 스마트 바다목장과 갯벌양식 시설을 조성하고, 천일염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
- 전북의 특화도가 높은 내수면어업을 중심으로 수산물 공동 가공·판매, 전시·교육·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연구시설 등을 중심으로 민물고기 클러스터를 조성
-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증·양식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군산과 고창을 중심으로 해조류·패류 등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 ICT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양식산업 트렌드에 맞추어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추진

#### □ 미래지향형 산지 유통체계 구축

- 산지유통 조직화와 규모화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공동선별·출하 확대를 통한 유통채널 다양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산지유통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농산물 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유통환경을 개선
- 전북 농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 산업의 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생산 조직화, 고부가가치 가공기반 확대, 산지유통 조직화 대책을 강화
-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쇼핑몰·홈쇼핑 등)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망을 다양화, 농축산물 광역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 추진
- 글로벌 유통망 구축을 위한 국제식품박람회, 해외 홍보·판촉, 농식품 시장개척단 등 수출마케팅 추진

#### □ 지역 먹거리기반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과 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수립, 생산자-소비자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확대 개선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먹거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정적인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로컬푸드시스템 구축과 공공급식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건강하고 올바른 식문화·식생활 교육 등 지원

## 2 글로벌 농식품 융복합 산업기반 강화

### 01 현황 및 문제점

#### □ 식품산업의 양적인 성장과 경영의 영세성

- 2018년 기준 도내 식료품 제조업 사업체수는 4,089개(전국의 6.8%), 종사자수는 26,340명(전국의 7.7%)으로 도내 제조업 평균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 최근 10년 간 사업체수는 연평균 1.7%씩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 역시 매년 4.0%씩 증가하는 등 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임

표 3-40 식료품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연평균증감률('08/'18)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53,529	254,304	54,148	287,248	60,071	342,089	1.2%	3.0%
전북	3,455	17,790	3,565	21,608	4,089	26,340	1.7%	4.0%
비율(%)	6.5	7.0	6.6	7.5	6.8	7.7	-	-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각 년도

- 도내 식료품 제조업체의 91.6%가 10명 미만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명 미만의 영세한 업체들이 식품산업의 양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있는 상황임
- 2018년 기준 종사자수가 10명 미만인 업체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약 5.8명으로 전국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1 종사자 규모별 식료품 제조업체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10명 미만	10~49명	50~99명	100~300명	300명 이상	합계	업체당종사자
전국	54,745	4,420	577	289	40	60,071	6.4
비율(%)	91.1	7.4	1.0	0.5	0.1	100.0	
전북	3,744	272	44	23	6	4,089	5.8
비율(%)	91.6	6.7	1.1	0.6	0.1	100.0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8), 통계청

#### □ 농생명 산업 R&D 관련 기관·업체 집적

- 도내 농생명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R&D 영역의 농업 연구개발업체는 2016년 기준 56개소(전국의 11.3%)로 2012년 이후 연평균 14.1%씩 증가

【표 3-42】 전라북도 농학 연구개발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감률		업체당 종사자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376	11,761	430	11,796	492	11,613	488	11,207	494	11,848	7.1%	0.2%	24.0
전북	33	751	37	777	56	2,007	48	2,117	56	3,142	14.1%	43.0%	56.1
비율(%)	8.8	6.4	8.6	6.6	11.4	17.3	9.8	18.9	11.3	26.5	-	-	-

자료. 국립종자원(2018)

- 혁신도시 중심으로 농촌진흥청(본청·소속기관), 한국농수산대학, 주요 연구기관(9개소), 관련 대학(12개소)이 위치하는 등 농생명 혁신기반 인프라를 구축

【표 3-43】 도내 식품분야 연구기관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기관명	위치	인력(연구)	역할
정부 출연 (연)	한국식품연구원(본원)	완주(혁신도시)	299(176)	식품산업 연구개발, 혁신성장 동력 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	정읍(과학단지)	112(69)	마이크로바이옴, 생물자원 배양·장기보존
	원자력연(첨단방사선)	정읍(과학단지)	113(96)	방사선 기반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
	안전성평가연(흡입안전성평가)	정읍(과학단지)	72(37)	영장류·흡입독성, 안전성(CRO) 시험
지자체 출연 (연)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전주(혁신도시)	60(53)	농생명·식품 기업지원, 사업 발굴·지원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임실(치즈파크)	18(12)	치즈 유산균주 등 개발, 관련 기업지원
	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	고창(북분자단지)	25(10)	발효·건강기능식품, 특화자원소재 개발
	진안홍삼연구소	진안(홍삼단지)	21(20)	홍삼한방R&D, 기능성시험, 기업지원
	(재)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	순창(장류특구)	34(19)	발효미생물균주, 전통장류산업 동반성장

자료. 각 기관 경영공시자료, 양원택(2020) 35p 재인용

## □ 농생명·식품 산업화 핵심거점의 지속적인 구축

- 농생명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융합형 특성화 방안 추진
  - 농생명 산업기반을 활용한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생명융합(정읍)과 융복합 소재부품(완주) 거점지구, 사업화 촉진지구(혁신도시)를 연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추진
-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혁신과 수출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익산지역에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식품기업 집적화를 추진 중
  -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간편성·건강기능성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미래형 유망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해갈 계획
  - 90개 기업 유치 및 38개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운영 중이며, 식품기업지원시설(기능성식품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터, 식품벤처센터 등) 구축을 추진
- 미생물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유전자원 및 방사선육종 연구기능을 연계한 발효식품과 기능성식품 등 고부가 가치 식품산업을 선도
  - 미생물가치평가센터,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센터,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17개 과제)

및 상품화 지원 등 미생물 관련 R&D와 산업화 인프라를 구축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미생물융합기술연구, 친환경바이오소재연구, 생물산업공정연구 등), 첨단방사선연구소(방사선융합생명공학연구 등), 순창장류 특구를 연계한 미생물과 생물소재, 발효식품에 특화된 연구 및 산업화 역량 보유

그림 3-47 국가식품클러스터, 미생물클러스터 육성 및 연계 개념도



#### □ 농식품 인프라와 연계한 융복합 산업화 과제

- 지역의 주요 농산물과 식품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농식품 육성사업을 추진
  - 전라북도 1시군 1식품 미니클러스터 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9개소), 지역특구 지정(10개소) 등 지역의 주요 농산물과 식품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육성사업을 추진
  - 향토산업육성사업 33개소(전국의 12.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17개소(20.0%),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262개소(15.5%)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도내 구축된 농생명·식품 산업의 핵심거점과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기반 관련 농식품 산업과의 연계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과제

그림 3-48 전라북도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



자료. 전라북도 농생명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2016)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농생명 관련 기관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 가시화

-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농생명·식품 연구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생명·식품산업의 핵심거점으로 기능할 전망
- 전북지역은 농생명 관련 R&D 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농생명용지 등 최적의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발전 및 시너지효과 창출 여건을 조성
-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 농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농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전북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 식품산업 시장규모 성장과 연관 산업의 발달

- 세계 식품산업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7조 달러(외식업 제외) 수준으로 추정되며,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식품산업 시장 규모 : (2012년) 6조4,912억 달러 → (2019년) 7조3,162억 달러
- 국내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18조 원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인구증가와 연관산업 발달로 지속해서 성장할 전망

###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의 진화

- 국민소득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1인 가구와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 환경오염 등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건강·안전·편이성 등 식품소비 형태가 다양화됨
- 건강지향형 식품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간편식(HMR)과 밀키트 제품이 다양해지는 등 고객 지향적 맞춤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농식품분야 미래 유망산업으로 기능성 건강식품, 외식산업 등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 전망
- 정부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고품질 농식품 개발 및 유통 계획을 수립·추진<sup>16)</sup>
  - 건강증진 식품 신소재,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식물성 대체단백질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포스트 바이오틱스(김치·전통장류 유래 유익균) 등 차세대 식품 개발 추진

16)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 (2020).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산림청

#### □ 4차 산업기술과 농식품 산업의 융복합화 확산

- 4차 산업기술과 바이오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성장산업으로 전환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농생명 혁신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주요해질 전망
- 농식품 가치사슬에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공·상 융복합화 전략이 지역의 농산업 발전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제조·생산 중심의 전통적인 식품산업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푸드테크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

#### □ 식품산업 혁신역량과 농산업 부가가치 증진 계획 추진

-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기능성식품 및 발효식품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 식품산업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농산업 분야의 부가가치 증진과 경제발전을 중장기 비전으로 선정
  - 식품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대응,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등 정책과제를 제시

【표 3-44】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 주요 정책과제

(5대) 정책과제	(21개) 세부과제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①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가정간편식 등), ②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③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④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①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②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③ 글로벌 역량 강화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⑤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체계 구축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①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②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③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모델 발굴 및 확산, ④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①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② 농업인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③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④ 한식·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①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②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③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④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

자료.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 (2018).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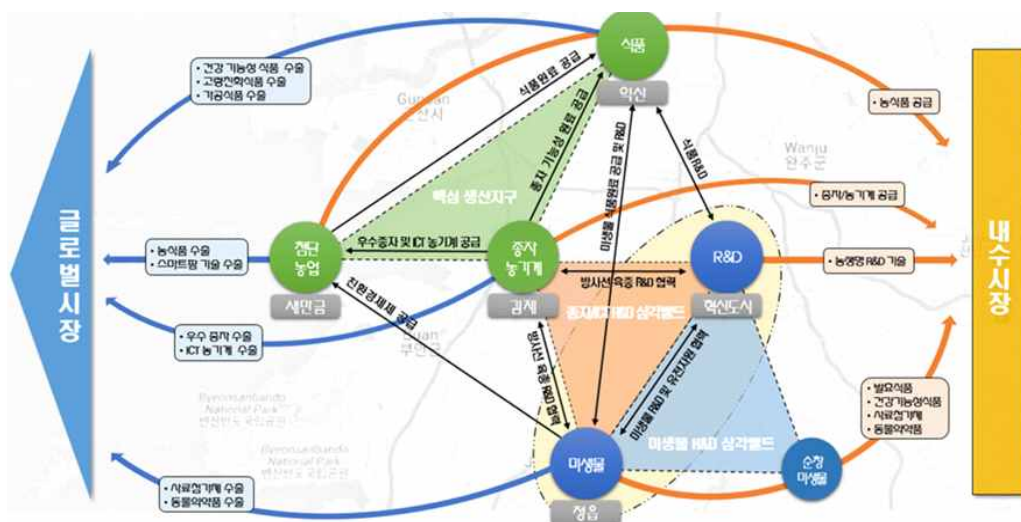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 미래 농식품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 진입과 농식품 첨단 융복합 기술 적용 및 글로벌 식품유통물류 기반을 확보
- 전라북도가 가진 농생명 혁신자원과 인프라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국가의 혁신 성장을 주도해가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화 토대를 구축
- 농생명·식품 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과 가치사슬을 연계한 산업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먹거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추진
- 농식품 기업의 집적화, 네트워크, R&D 혁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허브화 사업을 강화하여 국가농 식품산업단지의 안정화 및 고도화 도모

그림 3-49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연계 개념도



#### □ 가치사슬 관점의 자원연계 시스템 구축

- 전북의 농생명 혁신자원은 국가 차원의 산업화를 선도해갈 중점자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화 방안이 요구됨
- 선진국의 혁신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의 자원을 산업화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산업의 가치사슬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

- 농산업의 전방산업(농자재 생산·유통)과 후방산업(농식품 가공·유통), 전후방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인력 육성 등과 촘촘한 연계를 통한 가치사슬 체계 구축
- 농림어업의 단계별·주체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농생명·식품산업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구조화해가는 방향으로 추진

#### □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화 혁신체계 구축

- 시군의 지역식품산업은 경제적 성과가 지역농업에 귀속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자본 중심의 산업화 기반과 단절되어 추진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
- 농생명·식품 산업과 지역의 풍부한 생물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전략 소재 및 제품 개발과 연관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가는 전략 추진
- 농생명·식품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림어업과 동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 혁신기술 기반의 미래형 융복합 신산업 육성

-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농생명 자원과 미래형 혁신기술이 융합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 4차 산업혁명의 첨단 농생명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농생명 산업으로 육성
- 급성장하는 글로벌 미생물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동남권·서남권을 중심으로 미생물·유전자원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식물자원소재 혁신거점 조성
- 사회구조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발효·기능성식품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푸드테크 연구기반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그림 3-50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공간구상(식품·미생물 부문)



자료.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2018). 전북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

## 04 세부 추진과제

### □ 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 추진

- 국가 단위 식품산업단지로서 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고도화하여 보다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식품R&D·네트워크·수출 중심의 한국형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지원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 투자유치 및 홍보, 기업 비즈니스·기술(S/W) 등 지원기능 강화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 소스 및 기능성식품 분야 관련 제품생산과 농식품 원료 공급지원 기반을 확충
  - 농식품원료 중계공급센터, 기능성식품 제형기술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소스 산업화 센터 구축 및 가정편의식(HMR) 활성화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 푸드파크’ 건립 및 산업단지 확장 추진
  -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 푸드파크 : 국제식품상사 비즈니스센터, 식품전시관, 식품체험관, 식품박물관, 식품도서관, 식품문화관, 식품박람회, 식품아카데미 등
- 농식품 전시·판매·체험 등이 가능한 융복합 거점으로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전주)와 월드푸드사이언스관(순창)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를 추진

### □ 미생물·바이오산업 플랫폼 구축

-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을 통해 미생물 보관·의료 등 융복합 기술혁신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을 구축
  - 한국형 종균 산업화를 통한 미생물 주권 회복과 전통발효식품의 표준화·세계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
- 미생물·유전자원과 바이오 신소재 산업 기반이 되는 동식물자원소재 연구센터, 기능성 소재 개발 및 바이오 융합, 효소기반 농생명 신소재 상용화, 소재분야 연구협의회 구축 등 추진
  - 효소 등 농생명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포스트바이오티스 소재 확보 및 대량 배양기술 개발, 미생물 종자 코팅을 통한 병해충 방제 및 예방 등 산업화 추진

- 과학적인 원천기술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검정·인증체계 구축, 안전성·기능성·우수성 규명 등을 고도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
  - 복합미생물 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분석 및 시제품 제작용 장비 등 공공인프라 구축, 전통 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전통장류 기능성 표시제 인증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등 추진
-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국산화를 목표로 원료-소재-제품-순환 등 전주기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수출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육성방안을 마련

#### □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융복합산업 확장

- 농생명 자원과 ICT·BT·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제품화에 필요한 생산·가공의 스마트 팩토리 기반을 구축
- 푸드 3D프린터와 대체식품 개발 등 미래 푸드테크 가공기기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할 핵심거점으로 '푸드테크진흥원' 건립 추진
- 식품분자농업을 이용한 의료용 단백질, 백신, 화장품 소재 등 개발, 플라즈마 기술과 방사선 융합기술(RFT)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포장 및 보관·운송, 분뇨 자원화 기술 등 개발 추진

#### □ 지역 농식품산업 기반과 혁신체계 구축

- 농생명·식품산업 혁신거점과 인프라가 시군에서 추진하는 농식품 미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추진
  - 시군의 열악한 농식품 산업화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농생명·식품산업을 주도해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집중
- 지역에 특화된 향토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육성, 농식품 품질 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창출
  -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소규모 포함),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및 HACCP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생산·가공·유통·R&D·마케팅·체험관광을 연계하는 6차 산업화 지역농업 발전 모델을 육성하고, 동부권 지역의 특성화를 견인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 허브(남원), 홍삼한방(진안), 천마(무주), 장수식품(장수), 치즈(임실), 건강장수식품(순창) 등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품목다변화 전략을 추진
- 농생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체계를 위해 연구개발(R&D)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기관 공동융합연구협의체 등을 통해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

### 3 미래 농산업 스마트 혁신거점 구축

#### 01 현황 및 문제점

##### □ 종자산업 집적 및 전략산업화 인프라 구축

- 도내 등록된 종자업체수는 2018년 기준 305개소로 전국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연평균 18.7%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3-45】 종자업체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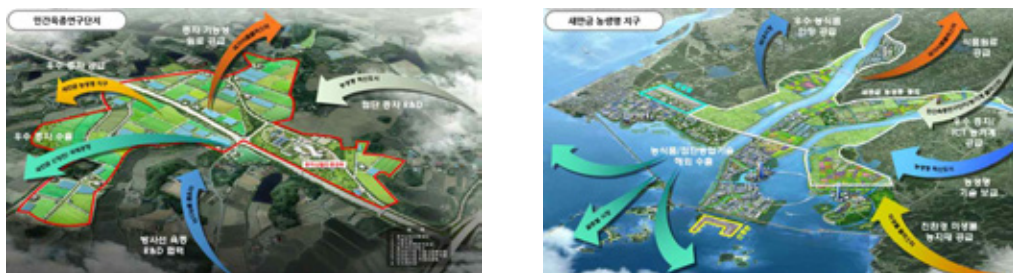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전국	932	1,073	1,149	1,368	1,699	2,019	2,217	2,466	14.9%
전북	92	84	100	147	158	201	275	305	18.7%
비율(%)	9.9	7.8	8.7	10.7	9.3	10.0	12.4	12.4	-

자료: 국립종자원(2018)

- 종자사업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종포장, 종자사업진흥센터, 종묘기업 등이 집적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김제시 일원에 조성
  - 입주기업 : 수출시장 확대형 2개소, 수출시장 개척형 6개소, 역량강화형 9개소 등 입주

【그림 3-51】 민간육종연구단지, 새만금 농생명지구 육성 및 연계 개념도



##### □ 새만금 농생명지구, 첨단농업 거점화 추진

-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생산·R&D·기업을 중심으로 농수산업의 첨단기술과 고품질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수출전진기지 조성을 목표로 조성해가고 있음
- 미래지향적 첨단농업과 저탄소 녹색농업 모델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곡물공급원 확보, 고부가가치 수출지향형 농산업, 농업생태관광 등 연계 활성화를 기대
- 첨단농기계클러스터(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를 구축함으로써 농기계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농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 □ 첨단농기계클러스터, 종합지원체계 구축

- 농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 첨단농기계종합지원센터(2012년 준공)를 중심으로 첨단농기계클러스터를 구축
- 농기계업체의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IT 융합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 성능·신뢰성 평가, 시제품 및 시험생산 장비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 지원
- 농기계 전후방 산업구조와 R&D 기반 구축에 주력해왔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AI 등과 연계한 미래형 원천기술개발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

### □ 농수산업 가치사슬과 혁신기술의 융합 과제

- 원예·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집중하여 보급하는 정책사업을 추진
- 농생명 산업과 R&D 역량을 기반으로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농수산업 가치사슬에 걸쳐 ICT,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신기술 융합이 주요 과제임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농산업 융합 발전 전망

-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농산업의 전 분야로 확산과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생명·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문제해결의 유용한 수단으로 기대
- ICT·BT 기술을 농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형 신산업 발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 기술혁신을 통한 고품질 생산·유통 고도화 촉진 기대

- 농산물에 대한 소비패턴과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과거 식량작물과 단일품목 중심에서 소득작물과 다품목 생산체제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임
- 생산방식 역시 전통적 재배기술에서 벗어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자재를 활용한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

- ICT를 활용한 정보수집 및 빅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종합관리 등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예측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생산·유통의 고도화를 촉진할 전망

#### □ 농산업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R&D 투자 확대

-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사회·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핵심과제로 제시
  - 농산업의 고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종자산업, 농생명소재, 농기자재, 반려동물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R&D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켜갈 계획
-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기관이 집적된 전북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

#### □ 스마트농업 육성과 혁신성장 연구개발 강화 계획<sup>17)</sup>

- 빅데이터·AI·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무인자동화가 가능한 3세대 스마트팜 원천기술 확보, 1·2세대 스마트팜 기술의 고도화 및 품목 확대로 상용화 기반 마련
  - 노지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개발, 자율주행 농기계 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농산물 수급 예측·관리 시스템 고도화
-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및 고품질 농식품 품종·기술 개발
  - 시장수요 맞춤형 육종소재(유전자원 등) 다양화, 디지털 육종 등 신기술 체계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기능성 식의약·화장품 신소재 및 친환경 생물농약·비료·사료 첨가제 등 개발
  - 소비패턴 및 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메디푸드·컬러푸드 작물, 증소과 등 유망 원예작물 품종의 개발·보급, 고품질 축산물 정밀 사양관리기술, 발작물 중심 식량작물 연구 등 추진
- 기후변화·재난·질병에 대응하는 안정적 농업 생산
  - 생산현황 모니터링 농업용 인공위성 개발, 기후변화 농업환경 영향 복합분석 모델 개발, 신종 동물질병 감시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질병예측연구 등 재난형 질병관리 역량 고도화
  - ASF 백신 상용화 원천기술, 차세대 동물용 의약품, 병원체 무병 재식용 식물체 개발, 고안전·고효율 경구백신, 면역증강용 첨가제, 토종가축 활용 질병 저항성 유전자 발굴 등

#### □ 종자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화 육성 계획

-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로 비견되는 핵심산업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원천이자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은 산업

17)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산림청,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



-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가식량계획의 식량자급률('19년 45.2%)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로 종자산업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
-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375억불(교역시장 107억불)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관련 업체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종자업 10,768억원('17년), 육묘업 2,575억원('18년) 규모에 이르며 매년 급성장하는 추세
- 전통적인 종자 개발·생산·공급 방식을 넘어 최근에는 식품·제약산업, ICT산업등과 융합하여 4차산업혁명에 맞춘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추세로 변화
- 이에 정부는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2009)'과 함께 '제2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종자산업의 체질 개선과 수출 산업화를 목표로 정책을 강화해가는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성장

- 2019년 기준 591만 가구(전년대비 15.6% 증가)에서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sup>18)</sup>
  - 양육가구 : ('15) 전체 가구의 21.8% / 457만 가구 → ('19) 26.4% / 591만 가구
  - 마릿수(전국 환산) : ('15) 개 513/고양이 190만 마리 → ('19) 개 598/고양이 258만 마리
  - 신규 등록 마릿수 : ('17) 104,809마리 → ('19) 797,081마리 / 전년대비 443.6% 증가
- 핵가족화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Economy), 펫테크(Pet+Tech) 등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이 확산되고, 산업분야가 파생되고 있음
- 국내 시장규모는 2020년 3.4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sup>19)</sup> 이러한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로 위생·미용·패션·훈련·IoT·보험 등 연관산업이 급속히 확장해가고 있음
- 반려동물용 사료(19.4%), 동물용 의약품(14.8%)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국내 기업의 활발한 진입으로 수입산을 빠르게 대체할 전망<sup>20)</sup>
  - 정부는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추진할 계획

18)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9) 지인배 외.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 황원경 외. 2018반려동물보고서-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2018).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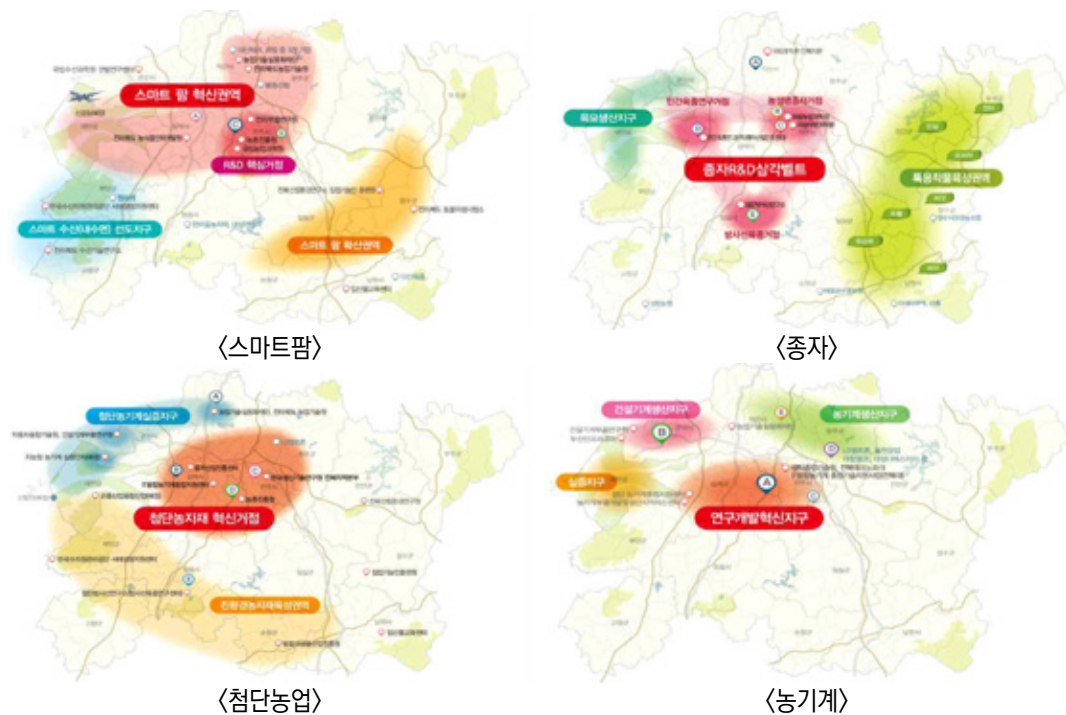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4차 산업기술 융합을 통한 농산업 혁신모델 구축

- 스마트팜과 첨단농자재 혁신거점, 민간육종연구단지(시드밸리), 농기계산업클러스터가 농산업 발전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간 연계화 전략을 추진
- 새로운 농산업의 창출과 확장을 위해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전후방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된 부가가치를 농업에 귀속시키는 전략을 추진
- 새만금을 중심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첨단기술농업의 산업영역 확장 및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생명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그림 3-52】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공간구상



자료.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2018). 전북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

### □ 첨단 육종기술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보급 집중

- 종자산업은 농식품·바이오에너지·제약 등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이지만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전략적인 육성 계획이 필요
- 첨단 육종기술을 확보하여 국산화함으로써 신제품 등을 개발·보급하고 확산해 나가는 산업화 방안이 요구됨

- 현장수요가 많은 신품종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개발된 신품종의 농업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해 지역의 농업발전에 기여
-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시) 중심으로 농촌진흥청(혁신도시)과 방사선육종연구기반(정읍시)을 연계한 종자산업의 혁신거점을 집중 육성

#### □ 농기자재 산업의 혁신기반 마련

- 농기자재 관련 산업은 글로벌 경제체제에 의한 공급사슬로 계열화된 구조로 지역 범위에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농업생산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등 혁신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가는 정책방향이 필요
- 농산물 생산의 필수적인 농자재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패키징용 소재를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친환경 고효율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 지능정보기반 미래농업 플랫폼 구축과 확산

- 김제-혁신도시-익산-새만금을 잇는 한국형 스마트팜 산업 혁신거점과 지능정보 미래농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
- 국내 최대의 농생명 관련 R&D 역량과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미래 농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미래지향적 농산업 모델 확산을 위해 현장 기반형 기술 개발과 시스템 보급에 집중

## 04 세부 추진과제

#### □ 스마트 농산업 혁신거점 조성

- 스마트팜 실증기반 및 지원센터, 청년보육 실습농장 및 인큐베이팅, 빅데이터센터, 기술혁신 및 자원효율화 시스템 등이 집적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농생명 클러스터 연계와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육성
- 스마트 농생명 산업에 D.N.A.(Data, Network, AI)를 접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이를 위한 데이터서비스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지원을 통해 사업화 촉진

- 수출농업 확산과 수입대체 농산물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열대작물 시험연구시설 등 첨단 시설농자재 혁신기반 조성
-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원예·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관리·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

#### □ 첨단 농기계 혁신기반 구축

- 농기계 산업화 기반을 활용해 자율주행 트랙터와 드론 등을 활용한 대단위 농업생산용 지능형 농기계를 중점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구축
- 기관-기업의 협력체계를 토대로 차세대 첨단 농기계의 자동화, 자율주행, 텔레메틱스, 친환경 스마트 전기구동 등 핵심적인 플랫폼 기술 확보 및 산업화 추진
- 농기계·부품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위해 최적의 설계에서 신뢰성 평가까지 전주기적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DB를 활용한 정보제공으로 체계화된 영농기술 적용 등 추진

#### □ K-Seed 클러스터 기반 구축

-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인접한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하여 종자연구·산업화시설 및 전·후방산업 등 집적화된 글로벌 수준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 ‘품종개발 → 종자생산 → 가공·처리 → 수출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
- 종자랜드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종자기업의 창업, R&D, 전후방산업을 지원하고, 시장진출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시스템 구축
- 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한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고기능성 특용종자 특정물질 강화기술 개발 및 보급, 지역별·품목별 종자기반과 토종농작물 유전자치 보존을 위한 지원 등 추진
- 세계화 추세와 소비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육종연구시설,

신육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사선육종 스마트솔루션 체계, 유관기관 협의기구를 통한 정책적 지원체계 등 구축

- 종자산업과 기업의 홍보·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국제종자 박람회 추진 및 상설전시장 구축,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실무인력 육성 및 일자리 중개 플랫폼 구축을 지원

#### □ 동물케어·펫푸드 新산업 육성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와 연구기관을 연계한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펫푸드(Pet-Food) 생산·가공·유통 등 산업화 거점 육성으로 펫코노미(Pet+Economy)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
- 동물약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공정 및 표준화 연구, 파일럿 플랜트 시설 등을 갖춘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
- 동물질병 관련 유전자뱅크 구축과 백신·치료제 등 연구개발을 위한 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센터, 미래형 동물복지 원스톱 지원센터 등 건립 추진
-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동물 사료·첨가제 및 백신·의약품 개발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4차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

## 제5장 산업생태계 개편을 통한 新성장 동력산업 육성

### 1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그린뉴딜 추진

#### 01 현황 및 문제점

##### □ 청정에너지 중심 산업 생태계 전환

- 전라북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2017~2021)은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2012~2016)의 비전인 “에너지자립형 그린에너지 선도지역 기반 마련”의 의미와 성과를 계승하여 “청정에너지로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세움
  - 에너지 전환 자립,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 공동의 책임, 공동의 참여, 에너지산업으로 내생적 발전, 에너지 이익 공유와 복지, 지역 간 에너지 연대와 상생 등 6대 핵심가치 반영

표 3-46 전라북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2017~2021)

비 전	청정에너지로 생동하는 전북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생산혁신</li> <li>- 에너지 소비혁신</li> <li>- 에너지 협치 인프라 구축</li> <li>- 에너지 공유 복지 추구</li> <li>- 에너지 특화 시군 조성</li> </ul>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신산업 창출,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방방곡곡 자연에너지</li> <li>- 상공업의 에너지효율혁신, 친환경 주택과 에너지 효율 기기 보급, 농업에너지 효율 향상, 공공에너지의 선도적 효율화, 친환경 교통 활성화</li> <li>- 에너지 협치와 지역수용성 증진, 에너지자립의 기반확충, 에너지 활력산업 추진</li> <li>- 그린스쿨/캠퍼스와 에너지시민교육, 착한 에너지로 만나는 이웃, 에너지 공유와 협력의 경제, 에너지 복지와 녹색일자리 나눔</li> <li>- 태양과 바람의 전북 랜드마크, 에너지농부 시범지역 추진, 완전 좋은 에너지(적정기술), 태양광 리업사이클링 산업</li> </ul>
10대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태양광 보급 + 농민 태양광 연금 + 에너지농부 1천인 클럽</li> <li>-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 햇살나눔 마을회관 조성</li> <li>- 서남해 해상풍력 + 시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 생태관광</li> <li>- 공공 및 민간(금융 활용) LED 보급 확대</li> <li>- 에너지신산업 창출 및 강소기업 육성</li> <li>- 에너지 다소비업체(산업 및 건물) 효율 개선 강화</li> <li>- 태양광 리업사이클링 산업 기반 구축</li> <li>- 주택 태양광 및 미니(베란다) 태양광 사업</li> <li>- 전북 에너지 거버넌스 형성</li> <li>-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확대</li> </ul>

자료. 전라북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2017). 전라북도.

- 핵심 10대 과제로는 농촌태양광 보급, 농민 태양광연금 및 서남해 해상풍력, 시민참여 이익 공유모델 등이 있음

- 주요 핵심과제는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다양한 산업을 육성 및 창출하는 내용을 담음

#### □ 전라북도 지역전략산업으로서의 재생에너지산업

- 2004년 국가균형발전계획 전북지역 4대 전략산업에 전국 최초로 대체에너지 선정하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
  - 4대 전략산업 : 자동차 부품, 전통문화영상관광, 방사선융합, 대체에너지·생물
- 이후 재생에너지산업은 2008년 POST 지역전략산업으로, 2009년 광역선도 사업으로, 2012년 광역선도사업(2단계)으로 전북지역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함
  -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하이브리드카, LED) 선정
- 2018년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을 선포하였고 2019년 전라북도 민선 7기 10대 대도약 프로젝트 중 하나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하고 있음

■ 그림 3-53 ■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산업정책 역사



□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량

-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05년부터 2017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이 16.8%에 이르며,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짐
  -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전국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에 3.7%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에는 7%에 이르는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태양열에너지의 생산은 점차 침체 상태로 접어드는 반면, 태양광에너지의 생산은 2005년 141TOE에서 2017년 257,182TOE로 1,800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함
  -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태양광에너지 생산량의 비중도 2005년 3.9%에서 2017년 17%로 성장하였고, 이는 전라남도(전국대비 비중 23.7%)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전라북도의 풍력에너지 생산량은 2005년 1,647TOE에서 2017년 4,928TOE로 연평균 9.6%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 중임
  - 특히, 전라북도에는 2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과 전북권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풍력에너지 생산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풍력 산업의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음

【표 3-47】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 TO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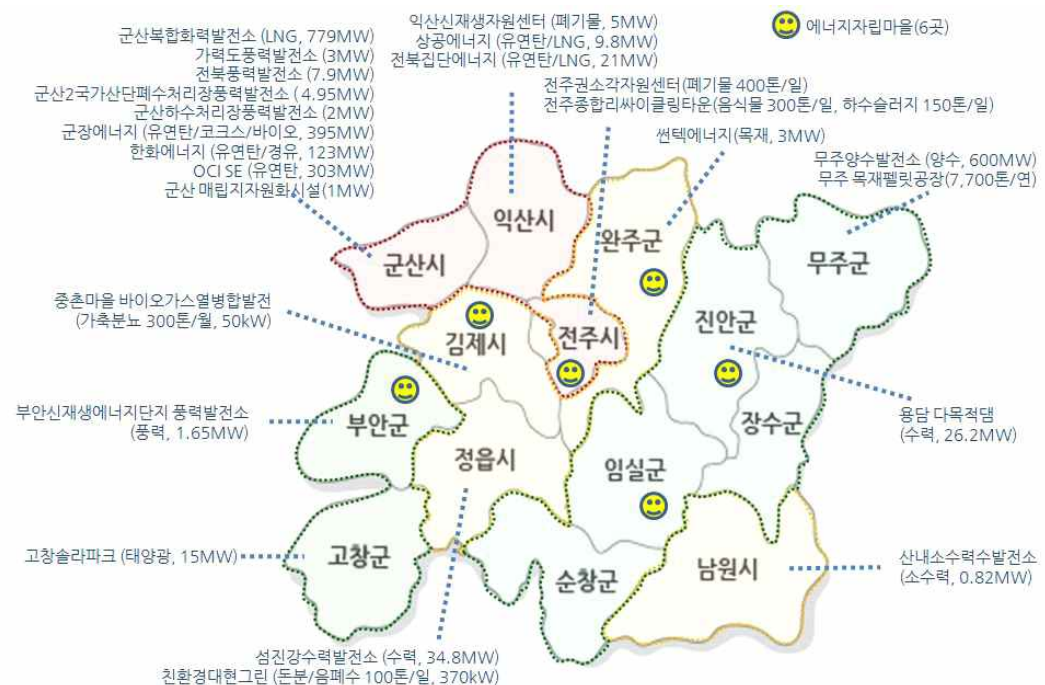
구분	2005	2010	2015	2017	연평균 증가율
합계	180,314(3.7)	374,118(5.5)	555,105(4.2)	1,158,329(7)	16.8
태양열	2,158(6.2)	1,572(5.4)	1,287(4.5)	1,309(4.7)	-4.1
태양광	141(3.9)	28,101(16.9)	153,523(18.1)	257,182(17)	87.0
풍력	1,647(5.1)	2,493(1.4)	3,460(1.2)	4,928(1.1)	9.6
수력	82,725(9)	63,111(8)	48,396(10.7)	36,695(6.1)	-6.5
지열	68(2.7)	2,761(8.3)	15,077(11.2)	19,041(10.4)	59.9
수열	-	-	83(1.7)	253(3.2)	-
바이오	15,162(8.4)	102,959(13.6)	152,083(5.5)	643,178(17.9)	36.7
폐기물	78,413(2.1)	167,560(3.4)	178,665(2.1)	195,553(2.1)	7.9
연료전지	-	5,561(13.1)	2,531(1.1)	189(0.1)	-

주. 괄호()안은 전국 대비 비중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 전라북도의 주요 에너지 생산시설을 살펴보면, 군산에 가장 많은 에너지 생산 시설이 있고 무주양수발전소를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이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 분포함
  - 에너지자립마을은 6곳이 있으며, 군산에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군산복합화력발전소가 가장 크고, 집단에너지 시설인 군장에너지와 OCI SE에서 운영하는 새만금열병합발전소 등이 있음

■ 그림 3-54 ■ 전라북도 주요 에너지 생산시설



자료. 전라북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2017). 전라북도.

## □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 전북의 2018년 에너지산업 사업체는 3,178개, 종사자는 22,527명으로, 지난 10년('08~'18년)간 연평균 4.20%, 5.01%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에너지산업을 전통에너지산업과 에너지신산업으로 구분할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북의 전통에너지산업은 연평균 1% 미만(사업체 0.3%, 종사자 0.2%)의 성장을 보임
  - 반면, 에너지산업 종사자의 연평균증감률은 5.01%로 전국(3.52%)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경우 연평균 6.40%씩 증가하여 전국(3.94%)보다 더 빠르게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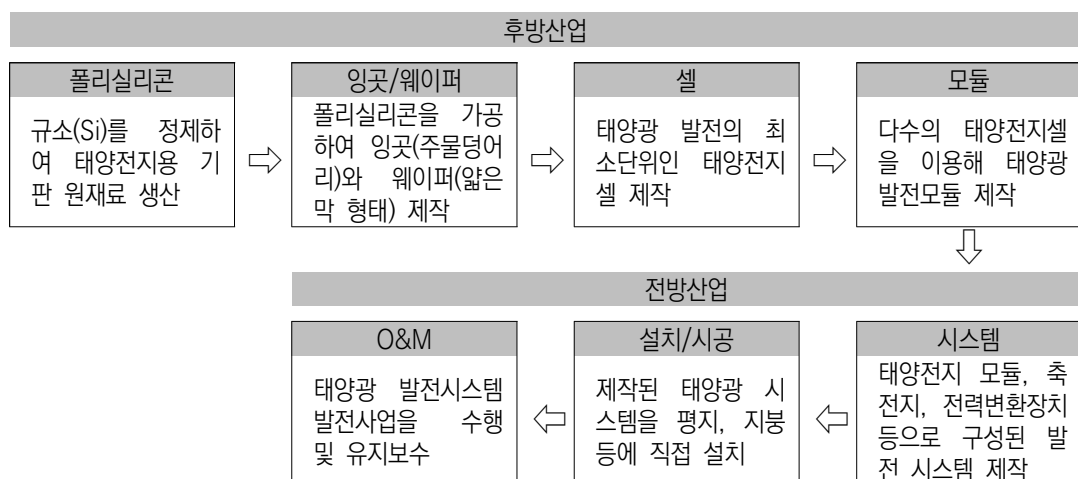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08~'18) 전북의 에너지신산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급격한 성장을 나타냄
  - 전통에너지와 달리 전북 에너지신산업의 사업체는 568개에서 1,475개로, 종사자는 8,340명에서 16,114명으로 증가하였음
  - 전북의 에너지신산업 사업체의 연평균증감률은 11.2%로 전국(6.3%)보다 높으며, 종사자 역시 연평균증감률 7.6%로 전국(5.0%) 수준보다 높음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

- 2017년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산업의 70%(종사자 기준)는 태양광(54%), 풍력(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하면 태양광 에너지 산업은 61.3%, 풍력 에너지 산업은 15.1%로 재생에너지의 75% 이상을 차지
- 태양광 에너지산업은 모듈을 제작하는 후방산업과 태양광 발전시스템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전방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후방산업은 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 이를 가공한 잉곳/웨이퍼 생산, 발전 최소단위인 태양전지 셀 제작, 다수의 셀을 이용한 모듈 생산으로 구성되며, 전방산업은 태양광 모듈, 축전지 등으로 구성된 발전시스템 제작, 설치 및 시공, O&M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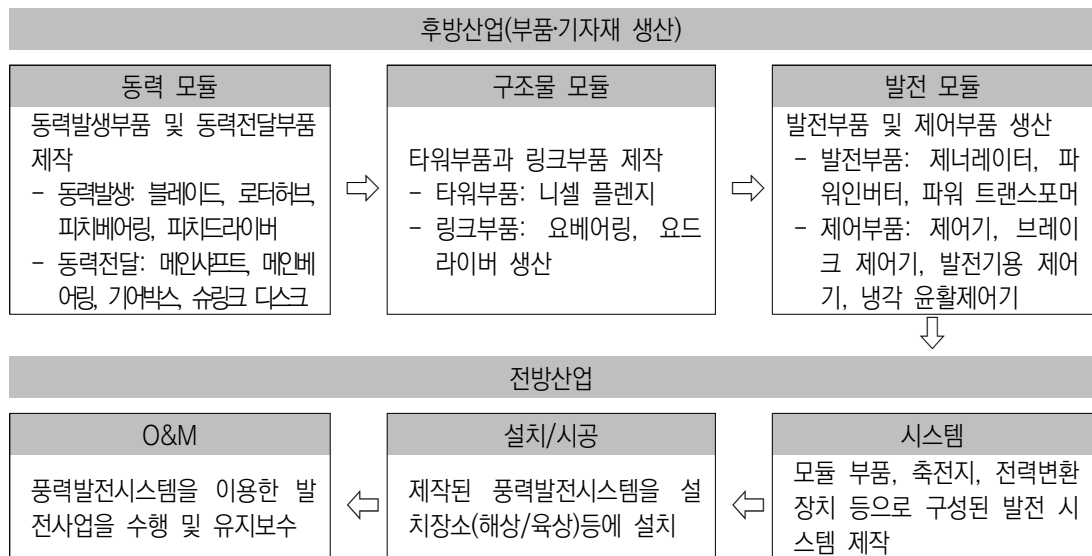
Ⅰ 그림 3-55 Ⅰ 태양광 에너지산업의 가치사슬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7)을 참조하여 작성

- 풍력 에너지산업(육상/해상 공통)은 부품·기자재를 생산하는 후방산업과 풍력 발전시스템 제작, 설치 및 시공, O&M으로 구성된 후방산업으로 구분됨
  - 해상풍력발전기는 해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에 차이가 있으나 발전기 자체는 육상풍력발전기와 동일
  - 해상풍력발전의 부품기자재는 동력 모듈(동력 발생/전달 부품), 구조물 모듈(타워/링크 부품 제작), 발전 모듈(발전/제어 부품)로 구성되며, 후방산업은 태양광산업과 유사하게 시스템 제작, 설치 및 시공, O&M으로 구성됨

Ⅱ 그림 3-56 Ⅱ 풍력 에너지산업의 가치사슬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7) 및 이강진(2013)을 참조하여 작성

#### □ 재생에너지 수급 관련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 도래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의 유인이 충분히 있어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17년부터 하락세인 REC 현물가격은 설비 투자비 하락과 RPS 의무 발전사들의 자체사업 증가 등의 공급여건 개선, SMP(계통한계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하락 추세
  - 이로 인해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RPS 시장 외에 일반 기업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RE100 도입 등 대응책 마련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임
- 전력을 소비하는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의 활용 유인이 있으려면 기업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하나 국내 현실은 그렇지 않음

-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반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거둘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아 자발적으로 RE100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미흡한 실정
-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이 전통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재생에너지만을 구매하고자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임
  - 특히,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규모 발전단지 생산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생산지-소비지 일치를 위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필요성 대두

- 그동안 정부는 중앙집중형 발전시스템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였으나 최근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 특히, 석탄화력, 원전 관련하여 특정 지역의 피해와 관련한 분배적 정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에너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문제 해결 곤란
- 분산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전단지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미흡
  - 정부는 전기사업법 체계 하에서 수요지와의 거리에 따른 송전손실 등을 반영한 지역계수 차등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지역신호’ 강화하려는 움직임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전북 주력산업과의 연계 융합화

- 농생명/식품, 탄소/융복합소재, 자동차산업 등과 연계·융복화하여 시너지 효과 유도
  - 현재 전라북도 주력산업과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군은 재생 에너지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분야임
  -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지능형 농기계 클러스터 전기차 및 미래형 상용차 집적화단지 등 ICT/SW 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와 ICT/SW 융합화 추진
  - 새만금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제조 거점과 기존 주력산업의 전북내 집적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근거리 내 산업 융복합 촉진화 도모

■ 그림 3-57 ■
 재생에너지산업 융합 가능 전북 주력산업 공간도



- ACD(Alliance, Connect & Development) 전략을 통해 기술간 다차원적 융합 촉진
  - 농생명/식품 + ICT/SW + 재생에너지 : 유리온실 스마트팜, 아쿠아 포닉, 도시농업 등
  - 탄소/방사선/융복합소재 + ICT/SW + 재생에너지 + 자동차/조선해양/기계 : 스마트 레저선박, 도심형 모빌리티, 스마트 보안 가로등
  - 농생명/식품 + 탄소/방사선/융복합소재 + 자동차/조선해양/기계 + ICT/SW : 스마트 시티

■ 그림 3-58 ■
 재생에너지산업 기술간 다차원적 융합화 분야



#### □ 재생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

-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제조 수요 확보
- 재생에너지산업 수요에 맞춘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Ⅱ 그림 3-59 Ⅱ 새만금 권역 발전단지 조성 계획



#### □ 전주기 산업화 지원 강화

- 수요 연계 기술개발 및 지역 특화 대규모 실증연구 지원
- 에너지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제조-혁신 분야 지원

## 04 세부 추진과제

#### □ [연계융합] 재생에너지 매개 융복합산업 유치 및 육성

-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 시스템 산업 및 데이터센터 산업 유치 및 육성
  - 새만금 중심 수변도시 및 산업단지 대상 신전력서비스 지원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컴퓨팅, IT 관련 기업 유치

## □ [연계융합] 기존 주력산업과의 융합

- 농생명/식품, 탄소/방사선, 자동차/건설기계와의 연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기존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기존 추진 중인 ICT/SW 기술 및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산업 영역 확대
  - 농생명 SW 융합클러스터, 지능형 농기계 클러스터, 전기차 및 미래형 상용차 집적화단지 등

## □ [친화형 인프라] 에너지 순환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순환체계 구축으로 재생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 새만금 스마트그리드 구축,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 배분 체계 구축
  - RE100 특구 시범 조성 및 산업단지 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재생에너지 자체 전력 공급 서비스화

## □ [친화형 인프라] 재생에너지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중심의 제조 기반 산업 집적지 조성을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 해상풍력 지원항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지원 기반시설 구축

■ 그림 3-60 ■ 재생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조성 현황





## □ (산업화 지원)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중심 지원

-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
  -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 센터, 새만금 재생에너지 종합 실증연구단지, 그린 수소융합 실증단지 등 조성

Ⅱ 그림 3-61 Ⅱ 재생에너지 실증 거점 구축 계획



- 수요 연계 기술개발 및 지역 특화 대규모 실증 연구 지원 체계 구축
  - 도민투자형 재생에너지펀드 조성, 기술개발 후 사업화를 위한 주민수용성 등 후속사업 연계

## □ (산업화 지원) 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

- 재생에너지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발전사업 연계 중장기 에너지정책 수립
  -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수출지향 개방적 상생모델 구축

## 2 글로벌 자산운용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01 현황 및 문제점

#### □ 국민연금공단 이전에 따른 금융서비스산업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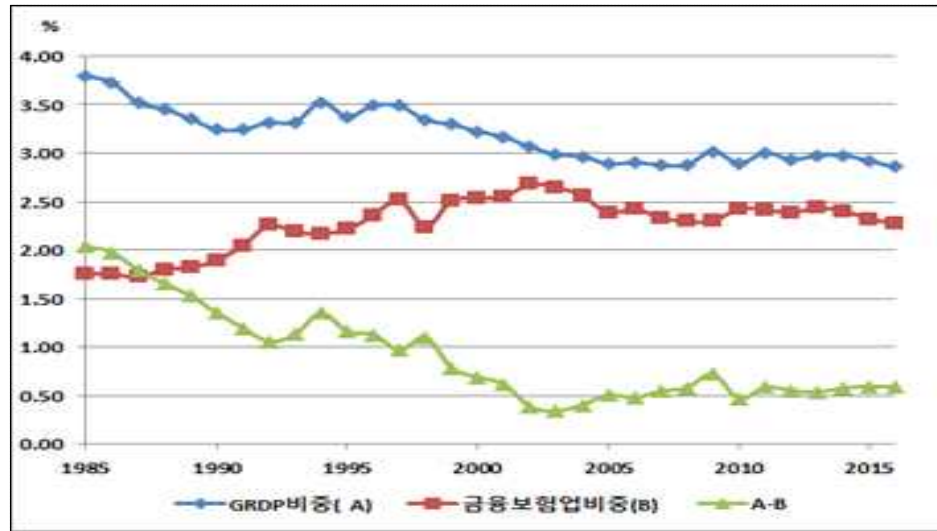
- 전라북도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북지역의 관심이 매우 높음
  - 혁신도시 2단계 단계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며, 새만금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특화 금융 영역을 육성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이 전라북도로 이전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기 위한 금융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기금운용본부와의 주요 거래 기관은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사와 기타 인프라 기관으로 거래를 위해 전라북도로 지점을 두거나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금융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할 수 있음
- 현재 금융산업의 트렌드가 대외지향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전통적인 금융 상품에서 대체투자 상품으로 영역을 확대되고 있어 기존 금융중심지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 전북지역 금융산업 자원

- 전라북도 산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의 비중은 전국 평균 비중과 유사하거나 근소하게 높은 상황
  - 전라북도 산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체 수 기준 1.15%, 종사자 수 기준 3.67%로 전국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음
- 하지만 전라북도 금융 구조는 소규모 비예금금융기관 중심의 간접금융 비중이 높은 구조로 투자, 자산운용과 같은 직접금융 기반이 취약한 상황
-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에서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GDP 대비 전북 GRDP 비중과 비교하였을 때 더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및 보험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음
  - 다만,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3-62】 전국 대비 전북 GRDP 및 금융보험업 생산 규모 비중



- 지역적으로 금융산업의 규제적 특성, 노동력 특성 등 실물 경제와 차별화되는 금융산업의 이해 부족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부족한 상황임

【표 3-48】 전북권 금융 관련 대학 현황

교 명	학과명	학생 수 (입학정원)	커리큘럼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73 (학부전체입학생)	보험경영론, 파생금융상품론 등
	경제학과	68	금융정책, 재무경제학 등
	통계학과	34	금융통계, 보험수리학 등
원광대학교	수학정보통계학부	65	보험수학
	경영학부	258	증권시장론, 재무회계, 재무관리, 보험론, 투자론, 국제재무관리 등
	경제학부	60	금융제도론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26	국제금융론, 증권투자론, 금융계량경제학 등
	경영학부	62	파생금융상품, 금융기관경영론 등
전주대학교	경제학과	26	증권경제론, 국제금융론, 금융자격증특강, 금융투자의 이해
	금융보험학과	38	금융보험학개론, 기초금융학, 손해보험론, 금융보험현장실습 등
	경영학부 (금융경영전공)	112 (학부전체입학생)	금융상품의이해, 증권투자론, 선물과 옵션 등
호원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35 (학부전체 입학생)	기업금융, 파생상품 등

## □ 전라북도 금융산업 정책

-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의 정기적인 개최로 금융도시 이미지 각인 중
  -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여 전라북도 금융의 미래를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혁신금융을 선도할 전북지역의 성장성과 이를 위한 투자 전략과 최신 금융 트렌드 핀테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경제통산진흥원을 통해 핀테크 기업 육성
  - 금융분야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역량교육, 맞춤형 멘토링 등을 추진
-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정주여건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교통,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개선 사업을 추진 중
-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
  - 연기금과 동반 이전이 예상되는 기금 위탁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유치를 위해 업무지원시설, 회의실 및 교육공간 등이 구비된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그림 3-63 ┃ 전북국제금융센터 조감도



- 금융산업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 금융산업 발전 지원
  - 3년마다 금융산업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발전 및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환경 조성 및 투자 지원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 글로벌 핀테크에 대한 투자금액 및 핀테크 기업 규모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미래 중요 금융산업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미국, 중국, 영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개수 및 기업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10억 달러 이상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총 39개이며, 이들의 가치는 1,473억 7천만 달러에 이름

그림 3-64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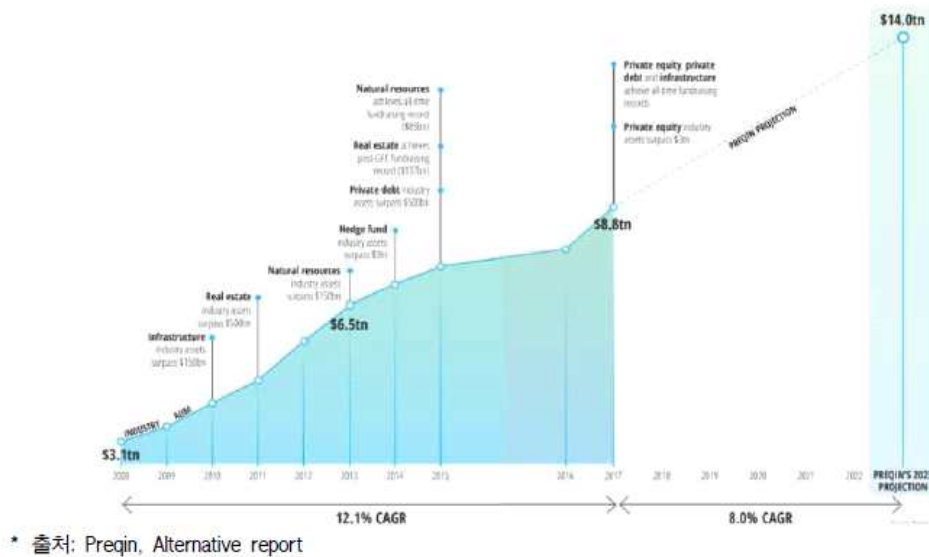


\* 출처: CBINSIGHTS, 2019 Fintech Trends To Watch (2019)

### □ 대체투자 시장의 부상

- 전통적 금융자산인 주식과 채권은 기준 금리 변동과 연동되어 낮은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망됨
- 이에 반해 대체투자 시장은 주식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금융 변동성 증가로 인해 대체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향후 투자 규모를 늘릴 대체투자 자산으로 인프라, 사모대출, 사모펀드 등이 꼽힘

그림 3-65
 대체투자시장의 이력과 향후 전망



#### □ 전통적 금융인력 수요는 줄어듦과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수요 증가

- 국내 금융회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시장 구조 변화로 은행, 보험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거래와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이에 반해 4대 유망 SW분야(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증강/가상현실) 중 핀테크와 연관성을 지닌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전문인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여 병목현상을 겪고 있음
  - 금융권은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양성 및 스카우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 자산운용시장 확대

-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양적성장을 이루어 운용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
- 국내 펀드 시장에서 증권형, MMF와 같은 전통적 펀드 유형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체투자(부동산, 특별자산)와 혼합자산의 비중이 증가

## □ 연금시장 및 벤처투자 확대

- 2017년 말 국내 연금시장 규모는 최근 4년 연평균 10.3% 증가한 1,195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개인금융자산 중 32.7%를 차지함
  - 국민연금 적립금은 최근 3개년 기준 평균 3.4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공적연금의 한계를 절감한 국민들의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017년 기준 개인연금의 적립금은 345조원에 달함
  - 퇴직연금 시장은 주식시장 불황에 따른 펀드 수익률 급락 등으로 연간 수익률을 하락하였으나,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적립 규모가 증가 추세임

■ 그림 3-66 ■ 국내 연금시장 규모



-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2018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들어 연투자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벤처투자 확대의 주요 요인은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 투입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 주도의 펀드 확대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체 벤처투자 펀드에서 정책 자금의 비중은 33%로 지속가능한 벤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펀드 자금 확대가 필요함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금융도시 기반 조성

- 국민연금공단 중심 연기금 특성화 금융단지 형성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와 금융 관련 법률 및 회계 서비스 기관을 집적화한 글로벌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추진
-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금융투자(대체투자)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금융단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주거, 문화, 교통 등)
  - 전북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중심으로 주거, 교육, 의료, 문화체육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금융인력의 수요에 맞는 도시 인프라 구축

Ⅱ 그림 3-67 Ⅱ 전북혁신도시 거점 금융산업 육성 방향



#### □ 특화금융산업 생태계 형성

- 국내외 금융기관 집적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 경영인프라(사무공간, 컨벤션시설 등), 교통인프라(항공, 대중교통 등) 구축을 통해 금융기관 집적화를 도모
  - 국내 금융집적지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도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 개선



- 금융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국내외 자산운용사 유치, 디지털 기반 금융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금융 전문인력 수요를 창출
  - 이에 맞춰 지역 내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 지역 주력산업 및 새만금 연계 금융 투자기관 유치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외에 연기금 및 농생명 금융 기관 추가 유치를 통해 금융 앵커기관을 확대
- 지역 금융 연계 발전 모델 구축
  -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금융기업 육성을 통해 미래 금융산업 선도기반 마련
  - 농생명·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증대 목적의 금융투자 여건 조성, 농가의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

## 04 세부 추진과제

### □ [기반조성] 전북 금융타운 조성

- 전북금융센터(JBFC) 건립을 통한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
  - 국민연금공단 본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물리적 기반 조성
  -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를 중심으로 금융 기능 집적화
- 금융산업 지원을 위한 백오피스 기능 강화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와 금융 관련 법률 및 회계 서비스 기관을 집적화한 글로벌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추진

### □ [기반조성] 금융 친화적 환경 조성

- 전북 2시간, 전북 1시간 생활권 형성 및 글로벌 접근성 강화
- 스마트 기술 활용 전자 금융 서비스 제공
-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유치

### □ [특화금융] 기존 주력산업과의 연계

- 농생명/식품, 사회적경제, 대체투자 등 금융 거래 기구 설치
- 새만금 개발 및 농생명 벤처 창업 펀드 조성

### 3 디지털 뉴딜 육성기반 구축

#### 01 현황 및 문제점

##### □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의 하락

- 과학기술과 관련한 인프라는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 부분의 연구조직, 연구개발 투자 등 지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내부 혁신 역량은 하락하고 있음
- 한국GM 철수, 현대중공업 조업 중단 등 지역 경제 위기감 고조에 따라 산업 구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중심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 지역 주력산업의 기술 전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산업과의 융합화 시도

- 무인이동체, 3D 프린팅 등의 분야 육성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인 농생명, 탄소, 식품, 조선산업과의 융합화 및 영역 다각화로 성장 동력 확보 시도
- 연구개발특구, 스마트팜 집적화단지, 새만금 실증연구단지, 농생명SW 융합클러스터 등 디지털산업과의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확보

##### □ 디지털 기반 미구축에 따른 신규 투자 유치 어려움

- 데이터 및 네트워크 등 5G 인프라 구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디지털 산업의 신규 투자 유치에서 약점으로 작용
- 새만금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규모 디지털 기반 구축 수요 발생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인프라 구축 확대

-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AI 연계 스마트 공간 실증 사업 확산
- 자율주행 등 무인시스템, 스마트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 오픈데이터 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D.N.A. 산업 인프라 구축



그림 3-68 스마트시티 플랫폼 실증 사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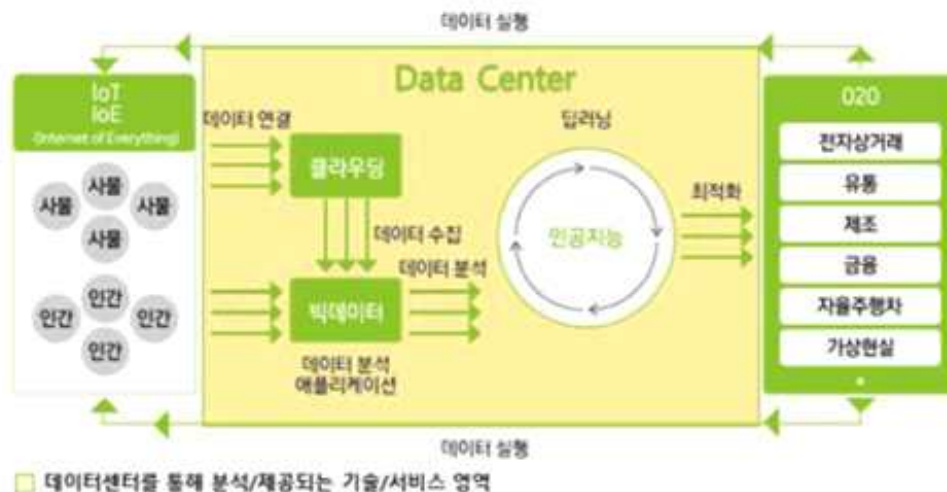
#### 기존 제조 및 서비스산업의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화

- AI를 기반으로 IoT, O2O 등 산업의 기존 생산 및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어 신산업 개척
- 특히, 데이터의 축적, 관리, 활용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 관련 기술 발전

####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가속화

- 선진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확대로 데이터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
-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성장

그림 3-69 데이터센터를 통한 신산업 개척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혁신도시-새만금 연계 혁신벨트 조성

-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농생명, 식품, 소재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 R&D 중심 형성
- 새만금을 거대 공공 연구개발 실증형 단지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 공정 혁신 지원 체계 구축
- 개방형 R&BD에서 실증거점까지 연계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벨트 조성

#### □ 개방형 R&BD 거점 구축

-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혁신성장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술 기반 민간 주도형 창업 생태계 구축
- 혁신주체 협력형 R&D 거점 구축을 통해 제조 혁신 주도

#### □ 신기술 접목 실증 거점 구축

- 재생에너지, 미래형 자동차와 D.N.A. 산업 접목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산업 확산 지원
- 데이터 및 스마트팜 서비스 플랫폼 개발 SW융합클러스터 2.0 추진

### 04 세부 추진과제

#### □ [혁신벨트 조성] 빅데이터 연계 제조혁신 추구

- 스마트팜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집적화를 통해 농식품 및 제조업의 D.N.A. 기술 접목 및 연계산업 육성

#### □ [혁신벨트 조성] ICT 융합 스마트 제조업 육성

- 새만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해 데이터 및 IT/SW 산업 기반 구축

□ [R&D거점 구축] 연구개발특구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

- 혁신기관 연계 오픈랩 구성 및 D.N.A./ICT 산업 기술 문화 확산
- 지역 주력산업 연계 사업 모델 구축

□ [실증 거점 구축] 기술 사업화 및 융복합 서비스 실현

- 기술화를 위한 실증단지 구축으로 융합산업의 발전 도모
- 데이터 및 AI 활용 지역문화 해결형 서비스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도모

## 제6장 스마트 산업기반 구축과 주력산업 고도화

### 1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

#### 01 현황 및 문제점

##### □ 전북의 산업과 수출 현황

- 전라북도 제조업은 지역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5% 수준이나 도내 수출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전라북도의 주된 수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품목이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품목의 주요 수출상대국으로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순임
  - 한중산업단지가 조성된 중국의 경우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임

【표 3-49】 전라북도 산업비중(2017년 기준)

구 분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기타 부문
산업비중	8.2%	27.5%	64.3%

자료. 지역소득, 통계청

【표 3-50】 전북 수출 상위 10대 품목(2019년 기준)

품 목	금 액	비중	주요 수출국
정밀화학원료	736,370	18%	중국, 일본, 미국
자동차	604,264	15%	베트남, 알제리 등
합성수지	470,907	11%	중국, 일본
건설광산기계	425,614	10%	중국, 미국, 벨기에
농약/의약품	400,610	10%	인도, 베트남, 호주
자동차부품	392,109	9%	미국, 일본
동제품	344,109	8%	중국, 일본, 폴란드
선재/봉강/철근	295,770	7%	벨기에, 미국, 멕시코
농기계	250,901	6%	미국, 호주
인조섬유	241,411	6%	미국, 중국

자료. 전라북도 무역동향(2020),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 □ 전북의 제조업 현황

- 전북 제조업은 식품, 자동차 등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과 사업체가 편중되어 성장하면서 외부 경기침체에 대한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님
  - `18년 종사자 기준으로 자동차(22%), 식료품(20%), 화학제품 제조업(10%) 등 3개 업종이 전북 제조업의 일자리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

▶ 표 3-51 ▶ 전북 제조업 업종별 구성(2018년 기준)

구분	종사자수		사업체수		부가가치	
	명	비중	개	비중	백만 원	비중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8,461	9.5%	131	7.0%	2,423,823	18.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674	22.2%	242	12.9%	2,345,329	18.0%
식료품 제조업	17,843	20.1%	343	18.3%	2,211,620	16.9%
1차 금속 제조업	5,143	5.8%	77	4.1%	1,066,584	8.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381	7.2%	143	7.6%	982,265	7.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624	5.2%	166	8.9%	714,296	5.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4,975	5.6%	193	10.3%	500,931	3.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765	4.2%	102	5.5%	439,332	3.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625	3.0%	59	3.2%	425,264	3.3%
전기장비 제조업	2,565	2.9%	71	3.8%	356,732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96	1.0%	11	0.6%	356,056	2.7%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32	3.1%	29	1.6%	293,048	2.2%
음료 제조업	1,048	1.2%	18	1.0%	285,774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434	1.6%	45	2.4%	204,943	1.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213	2.5%	61	3.3%	163,663	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684	1.9%	85	4.5%	72,542	0.6%
기타 제품 제조업	791	0.9%	28	1.5%	56,527	0.4%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78	0.5%	16	0.9%	47,298	0.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88	0.7%	9	0.5%	33,192	0.3%
가구 제조업	306		15		32,782	0.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48		12		21,576	0.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2		5		7,449	0.1%
소계	88,759	100%	1,870	100%	13,054,346	100%

자료.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장), 통계청

- 지난 10년(2009~2018)간 전국 대비 전북 제조업의 양적 위상은 큰 변화가 없으나 질적 위상은 지속 하락 중임
  - 지난 10년 간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전북의 사업체 비중은 2.7%, 종사자 비중은 3.0% 유지
  - 반면, 부가가치 비중은 2.7%에서 2.3%로 하락하여 전북 제조업의 질적 성장이 필요

【표 3-52】 지난 10년간 전국대비 전북 제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 원, %)

구분	사업체수		전국	종사자수		전국	부가가치액		전국
	전북	비율		전북	비율		전북	비율	
2009	1,593	(2.7)	57,996	73,721	(3.0)	2,452,880	10,172,639	(2.7)	374,500,730
2011	1,720	(2.7)	63,047	83,142	(3.1)	2,694,782	12,841,456	(2.7)	480,203,387
2013	1,824	(2.8)	65,389	91,471	(3.3)	2,813,575	12,233,598	(2.6)	479,281,190
2016	1,835	(2.7)	68,790	91,867	(3.1)	2,957,917	12,987,377	(2.6)	504,295,157
2018	1,870	(2.7)	69,513	88,759	(3.0)	2,956,442	13,054,346	(2.3)	565,244,876
연평균 증가율	1.8%		2.0%	2.1%		2.1%	2.8%		4.7%

자료.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장), 통계청

- 전북 제조업 부가가치 상위 5대 업종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등임
  - 탄소섬유 산업 육성 등으로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도내 부가가치 1위 업종으로 상승
  - 반면 도내 자동차 생산 감소 등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9%에서 18%로 크게 하락
  - 기타 식료품, 1차 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전라북도 제조업의 부가가치 상위 5대 업종임

【표 3-53】 전북 부가가치 상위 5대 업종 비교

(단위 : 백만 원, %)

2009년	부가가치	비중	2018년	부가가치	비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924,943	28.8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외	2,423,823	18.6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외	1,751,233	17.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45,329	18.0
식료품 제조업	1,025,627	10.1	식료품 제조업	2,211,620	16.9
1차 금속 제조업	647,835	6.4	1차 금속 제조업	1,066,584	8.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41,096	5.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82,265	7.5
기타업종	3,281,905	32.3	기타업종	4,024,725	30.8
합계	10,172,639	100	합계	13,054,346	100

자료.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장), 통계청

- 부가가치가 낮은 대기업 분공장이 지역 산업에 소재하고 하고 있어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 유망품목 발굴과 새로운 기술 트렌트에 따른 업종전환이 취약함
  - 전국 대비 전북의 종사자당 부가가치는 300~499명 해당 기업이 92%, 500명 이상 해당 기업이 2009년에 비하여 2018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36%에 불과한 수준(전국 4.3억 원, 전북 1.56억 원)
  - 반면, 300명 미만 기업의 종사자당 부가가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과 전북이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3-54】 전북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부가가치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

구분	종사자규모	2009				2018			
		종사자수	부가가치액	종사자당 부가가치 액	전북/ 전국	종사자수	부가가치액	종사자당 부가가치 액	전북/ 전국
전북	합계	73,721	10,172,639	66	90.4	88,759	13,054,346	147	76.9
	10~19명	10,385	686,154	85	95.3	11,562	1,032,470	89	97.3
	20~49명	15,484	1,310,046	109	97.8	19,747	2,256,261	114	109.9
	50~99명	10,720	1,164,293	109	103.1	14,816	1,818,175	123	98.2
	100~199명	11,754	1,283,642	151	87.6	10,578	1,697,105	160	97.5
	200~299명	6,483	977,502	231	92.6	6,817	1,895,876	278	146.7
	300~499명	2,946	681,082	255	126.9	9,210	1,857,901	202	91.6
	500명 이상	15,949	4,069,920	138	78.1	16,029	2,496,558	156	36.3
전국	합계	2,452,880	374,500,730	66	-	2,956,442	565,244,876	191	-
	10~19명	404,677	28,066,281	85		462,673	42,457,303	92	
	20~49명	568,312	49,146,044	109		723,746	75,227,072	104	
	50~99명	359,122	37,835,154	109		467,106	58,368,768	125	
	100~199명	322,047	40,165,276	151		366,610	60,344,604	165	
	200~299명	149,446	24,341,719	231		176,394	33,439,541	190	
	300~499명	118,285	21,548,591	255		147,675	32,511,966	220	
	500명 이상	530,991	173,397,665	327		612,238	262,895,622	429	

자료.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장), 통계청

- 전북은 업체당 종사자 규모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14개 시군별 편차가 큰 편
  - 전북의 업체당 종사자 규모는 47.5명으로 전국 평균 42.5명보다 많음
  - 도내 14개 시·군 중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완주(82명), 군산(52명), 임실(46명) 등이 업체당 종사자 규모가 크며 고창(21명), 장수(24명) 등 군 단위는 제조업 규모가 영세하며 업체당 부가가치도 대체로 낮음

표 3-55 전라북도 제조업 시군별 업체당 종사자 및 부가가치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 원)

시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부가가치
전국	69,513	2,956,442	565,244,876	42.5	8131.5
전북	1,870	88,759	13,054,346	47.5	6980.9
전주시	217	7,609	1,164,723	35.1	5367.4
군산시	405	21,157	3,665,635	52.2	9051.0
익산시	425	19,486	2,692,541	45.8	6335.4
정읍시	147	6,046	882,793	41.1	6005.4
남원시	51	1,752	175,390	34.4	3439.0
김제시	210	7,590	771,132	36.1	3672.1
완주군	231	19,091	2,957,310	82.6	12802.2
진안군	14	446	55,897	31.9	3992.6
무주군	7	189	42,001	27.0	6000.1
장수군	15	361	24,482	24.1	1632.1
임실군	25	1,167	151,713	46.7	6068.5
순창군	21	859	152,132	40.9	7244.4
고창군	56	1,217	123,168	21.7	2199.4
부안군	46	1,789	195,429	38.9	4248.5

자료.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장), 통계청

## □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방향

- 전북은 스마트 특성화·전문화를 위해 6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 중
  - 6대 혁신성장산업은 스마트농생명, 미래수송기계, 에너지신산업,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정보통신융합이며, 이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기업유치 등 산업생태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70 전라북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전략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국제적 여건 변화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함
  -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제조업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리턴, 제조업의 첨단화에 대한 정책 추진
  - 일본 역시 신산업 구조 비전, 미래투자 전략 2018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수립하여 10대 제조업 융합 분야, 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 □ 국내적 여건 변화

- 한국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신흥 제조국의 부상 속에서도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품목의 진입은 눈에 띄지 못함
  -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은 국내 수출품목 순위에서 10년 전보다 순위가 상승
  - 10대 수출 품목 중 새롭게 진입한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이 유일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생태계의 역동성이 낮음

【표 3-56】 한국 10대 수출 품목

순위	2009년	2019년	변화
1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상승
2위	반도체	자동차	상승
3위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상승
4위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부품	상승
5위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하락
6위	석유제품	합성수지	상승
7위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하락
8위	철강판	철강판	-
9위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하락
10위	컴퓨터	플라스틱 제품	진입

자료. K-stat(2020.4 기준)

- 향후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발굴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증대될 전망이다
  - 한편에서는 세계 경제 침체, 한국 제조업의 해외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해 수출 중심의 한국 주력산업이 한계에 도달하여 향후 성장이 둔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탄소섬유, 이차전지, 수소차, OLED 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보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펀드, 글로벌 협력 등의 기반을 강화할 전망
- 주력산업 업종별로 스마트화·융복합화·친환경화 중심의 기술개발이 강화되면서 미래중심 고부가 품목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융복합화가 향후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스마트공장, 3D프린팅, CPS 등이 새로운 생산체제로 정착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향후 제조업, 이동체, 의료 분야 등에 확대 접목할 예정이며 비대면 문화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로봇산업과 D.N.A.(Data, Network, AI) 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조
  -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서 전기·수소 기반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이 등장

■ 그림 3-71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



자료.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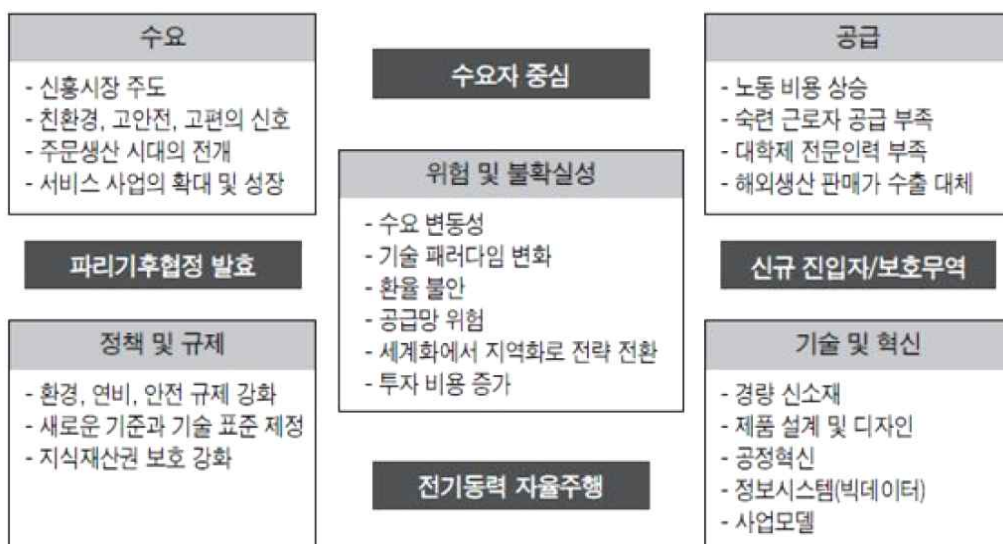
- 치열한 지역 간 경쟁에서 지역이 가진 역량을 토대로 고도화 및 다각화하고, 위기에 봉착한 지역의 주력산업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 스마트 특성화는 지역이 가진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간 협력, 지역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전환 등을 지향
  - 정책적으로 지역 간 협력을 위한 광역연계 협력사업, 구축 장비의 고도화, 지역 주도적 지역 특성화 산업과 육성 계획 수립과 지원 등이 추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주력산업 분야별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소재·부품·장비에 기술자립과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탄소섬유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미래소재 투자가 증대될 전망
  - 대일 수입 중 소재부품 및 장비 비중이 약 70%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며 향후 반도체, 수소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산업 발전에 있어 소재부품의 중요성은 지속 증대 전망
  - 섬유분야의 소비자 다양화, 개인화 등으로 고성능 첨단섬유, 다기능 소재부품 개발 가속화
  -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섬유소재 개발, 육성 필요

#### □ 세부 산업 분야별 여건 변화

- 전라북도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기계부품의 비중이 축소되고 전장부품, 통신 등과 연합된 새로운 자동차 생태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 환경과 연비 등의 사회적 이슈가 증대되어 탄소섬유, 티타늄 등 경량신소재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공유경제로 인해 양적 성장에서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면서 고안전·고편의를 위한 소형센서, 전기배터리, ICT 등 소재부품의 부가가치가 증대될 전망이다
  - 자동차 동력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전환이 가속화 될 전망으로 기존의 자동차업체와 새로운 IT·부품업체 간 주도권 경쟁 치열해질 전망이다

Ⅲ 그림 3-72 Ⅲ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



자료. 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018). 산업연구원

- 조선해양산업은 각 조선사별로 저탄소·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IMO 규제대응 친환경 기술 위주로 조선산업을 개편 중임<sup>21)</sup>
  -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에너지 관련선박 등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고부가 가치 선박 개발 중
  - 기존 선박에 비하여 운항경제성 및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스마트 선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선박기술 개발요구도 급증
- 수송·기계 산업은 공통적으로 환경규제 대응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화, 고성능/지능형/운전자 편의를 위한 ICT 융합 안전/편의기술 강화 및 무인 자율(스마트, 로봇)화 기술 중심의 미래기술로 변화
- 탄소섬유 세계 시장규모는 2025년 약 9.1조 원에 달하고 수요산업 고도화와 함께 시장 확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2018~2023년, 6.7%)
  - 세계 산업용 섬유시장 규모는 2014년 2,658만 톤에서 2022년 3,547만 톤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수송기기 분야가 4.6% 증가 예상
  - 세계 방사선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668억 US\$ 규모로 이 중 75% 이상이 산업소재와 방사선기기, 의료산업에 집중
  - 국제 규격 강화추세에 따라 신무역장벽을 타파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 규격화 및 인증지원에 대한 기업지원 필요성 증대
  - 경남(밀양) 나노융합특화산단과 울산 등에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소재 산업을 육성하면서 탄소산업의 소재별 특화발전 전략이 중요
- 코로나 등으로 인해 바이오산업은 국가 차세대 신산업에 포함되어 육성 추진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3개 분야가 국가 차세대 신산업으로 선정되어 육성
  -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바이오헬스, 그린바이오 융합, K-뷰티 등 육성
  -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

21) 자료 : (2019~2021)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1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NICE평가정보.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전북 주력산업의 생태계 유지

- 수출 중심의 상용차 특화 발전으로 자동차 생산 규모 유지
- 세계 경기 회복, 특화품목 생산으로 조선업 재가동과 조선기자재 생태계 지속화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집단화·공동화·협업화 모델 구축
- 친환경, IT 융복합, 스마트화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고부가 가치화 실현

### □ 전북 주력산업의 지능화를 위한 스마트 전환 기반 조성

-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혁신을 위한 개방과 협력,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스마트한 산업 대전환이 필요
- 전북이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자율주행(무인화), IT 융복합 실용화, 친환경·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산업별 유망 핵심기술 중심의 특화 기술 선점을 위한 R&D 기술역량 강화
-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로 스마트 전환 강화
- 상용차 특성화 기반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산업육성의 필요한 기반 확보
- 탄소섬유 산업기반을 토대로 탄소섬유 전·후방 산업의 육성 기반 확보

### □ 미래 산업의 판도를 이끌 대도약적 준비태세 강화

- 주력산업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실증 서비스 확대
- 새로운 신기술, 시장수요에 맞춰 탄력적 전략산업 유치
- 주력산업의 핵심뿌리로 탄소섬유와 연계된 미래형 핵심소재·부품 개발로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 제조업과 서비스가 결합된 무한경쟁 시대에 미래 융합시장 선점

## 04 세부 추진과제

### □ 친환경·전장부품 자동차산업 육성

- 상용차, 특장차,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기·수소동력, 부분·완전 자율주행 등 미래형 전북 자동차 산업육성에 필요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전기·수소차 공동기술개발 플랫폼, 업종 전환 공용 플랫폼, 미래형 모빌리티 빅데이터 등 기반시설 고도화
- 탄소복합소재, 홀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경량소재, 수소저장용기, 인포테인먼트 등 전북이 특화발전 시킬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공동 기술개발 생태계(Co-lab) 구축
- 기업성장, 기업유치 등과 함께 기업입주를 위한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전기·수소 특장차 단지 등), 전기차 클러스터, 수소차 클러스터 등 특성화 단지 조성
- 새로운 미래차 서비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 AI기반 로봇 모빌리티(교통약자, 소외지역), 대체부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
-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육해공 무인이동체 통합,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TM), 하이퍼튜브 등에 필요한 실증 및 서비스, 연구개발, 교육 훈련, 기업지원, 제조정비단지 등을 적기 조성하여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점

### □ 조선기자재·건설기계 등 수송기계산업 품질 고도화

- 해상풍력발전단지 연계 대규모 해양구조물 설치·운송으로 조선기자재 업종 전환
- 중장기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대응 전기·수소 선박제조, 전기·수소선박 기자재 부품제작·수리·관리산업(성능개량 등) 육성
- 소형 레저선박, 중소형 특수선박 등에 중소·특수선 중심 신산업 조성과 자율운항, 원격제어, 최적운항 등 디지털 융합형 조선기자재 산업생태계 조성
- 전북에 특화된 건설기계 산업 고도화를 위해 자율작업과 지능형 건설기계, 수소동력, 건설기계용 수소충전소 기자재 등 스마트그린 건설기계 기반 강화
- 3D 프린팅 연계 자율건설기계장비, 디지털트윈 연계 건설기계 유지보수, 홀로그램 콘텐츠 연계 건설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건설기계 미래 신서비스 거점 확보

### □ 첨단소재 및 소재융복합 확대

- 세계 탄소소재 4대 강국 실현을 위하여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북지역 주력 산업(자동차, 풍력 블레이드, 수소저장용기 등) 등과 연계한 경량화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강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통한 탄소제품 다양화(탄소복합소재 대체 제품) 등 추진

- 중장기적으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TM), 하이퍼튜브,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융합 탄소복합소재(탄소섬유, 나노튜브, 활성탄, 카본블랙, 인조흑연 등) 개발 및 상용화 확대
- 전주, 익산에 밀집된 섬유산업을 다양화·개인화되어가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안전보호용복합 섬유를 중심 산업용 섬유산업 메카 조성
-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메디컬 섬유, 태양광에너지 산업용 섬유, 고효율친화형 섬유(활성탄 등) 등 특수목적별 산업섬유 산업의 기반 강화

#### □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사업화 촉진

- 탄소소재를 활용한 중재적 메카노, 방사선융복합소재(방사선의료기기 등) 등 전북형 레드바이오 기반 확충
- 친환경 바이오소재 활용 인체 친화적 생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친환경 원료, 분석, 임상 등 친환경소재 화장품 산업 육성
- 바이오 융합형 3D 프린팅 복합소재 개발 및 양산, AI·데이터 기반 3D 프린팅 설계·공정 3D 융복합소재 기반 확충
- 중장기적으로 천연물, 농생명소재 기반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북 조성

#### □ 주력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고부가 핵심품목 개발과 신산업 창출 실증 확대

- 새만금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며 새만금 주변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 이동체 산업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이동체 신산업 생태계 조성(해양무인, 새만금 항공레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등)
- 새만금 내해를 활용하여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평가, 인증 등의 조합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한 해양무인 테크비즈 단지 조성
- 전북의 자동차, 복합섬유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TM) 등의 산업화 거점단지(UTM 교육훈련시설, UTM 부품 제조정비 산업단지 등) 확보
- 주력산업의 신제품, 신서비스 실증 확대를 위한 탄소 융복합(초경량·고강도 신제품 산업안전 등), 홀로그램 등 규제프리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완화형 실증사업 강화

## 2 매력적 산업생태 공간 구축

### 01 현황 및 문제점

#### □ 산업단지 현황

- 2020년 기준 전라북도 산업단지는 88개로 지정면적은 132km<sup>2</sup>에 이르며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의 대다수는 제조업이 발달된 도내 서북부권 중심에 위치함

표 3-57 전라북도 산업단지 현황

단지유형	단지수(개)	지정면적(천m <sup>2</sup> )	관리면적(천m <sup>2</sup> )	분양률(%)
총합	88	132,008	89,084	91
국가	6	86,970	44,119	90
일반	22	33,602	33,548	92
도시첨단	1	110	110	100
농공	59	11,326	11,307	89

자료.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019 4분기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는 군산, 익산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군산, 익산, 전주, 김제, 정읍 등 시 지역에 위치함
  - 농공단지는 도내 동부권(무주, 진안, 남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분포함
- 전북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액의 약 83%, 고용에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산업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그림 3-73 전라북도 산업단지 공간 분포



자료. 2019 전국산업단지 현황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3-58】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역 내 비중(2018년 기준)

구분	전라북도(제조업)		산업단지	
	현황	비율	현황	비율
공장(개)	6,636개	100.0%	3,159개	47.6%
생산(억)	414,988억 원	100.0%	342,757억 원	82.6%
고용(천명)	115천명	100.0%	74천명	64.3%

자료1. 수출액(2018), 공장등록현황통계(2018년 2/2), e-지방지표

2. 전라북도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2020). 전라북도

- 4개 국가산업단지는 전북 산업단지 생산액의 약 27%를 차지하는 등 막중한 역할 담당
  - 전북 국가산업단지 내 약 890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15,000여 명을 고용 중임
  - 생산은 약 9조 3천억 원으로 전라북도 산업단지 생산의 약 27.3% 가량을 담당함
  -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지구 2개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조성 중임
- 전북의 일반산업단지는 완주일반, 군산일반, 익산 2일반 등의 생산, 고용, 수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북 일반산업단지 내 약 1,000개 업체가 가동 중이면 43,000여 명을 고용 중이며 이는 국가산업단지의 2.8배 규모임
  - 일반산업단지의 생산은 약 20조 원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약 2배임

【표 3-59】 전라북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백만 불)

구분		지정면적	관리면적	입주업체(개)		고용	생산	수출
				계약	가동			
국가 (4)	군산	13,702	6,828	197	147	4,381	27,389	811
	군산2	50,459	14,612	559	388	6,916	39,582	788
	익산국가	1,336	1,336	230	218	3,347	26,550	208
	국가식품클러스터	2,322	2,191	107	35	386	276	20
	새만금지구	18,495	조성 중					
	전주탄소소재	656						
	합계	86,970	24,967	1,093	788	15,030	93,797	1,827

자료1. 전국산업단지통계(2018년 12월 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2. 전라북도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2020). 전라북도

【표 3-60】 전라북도 일반산업단지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백만 불)

구분		지정면적	관리면적	입주업체(개)		고용	생산	수출
				계약	가동			
일반 (23)	완주	3,359	3,359	87	87	10,644	70,629	2,703
	군산	5,641	5,641	64	64	4,972	41,232	947
	익산제2	3,309	3,309	182	182	7,822	21,025	959
	전주제1	1,806	1,806	125	125	3,390	16,920	805
	전주과학	3,074	3,074	149	149	4,599	10,529	269
	정읍제2	999	999	70	67	1,591	8,380	55
	정읍제3	1,025	1,025	59	55	1,613	7,922	182
	지평선	2,986	2,986	78	49	1,907	7,130	53
	전주제2	687	687	24	24	964	6,593	60
	정읍제1	202	202	7	7	260	3,821	4
	새만금1)	18,495	17,596	4	4	194	3,426	102
	완주테크노밸리	1,311	1,311	75	61	1,823	1,967	25
	전주친환경첨단복합	291	291	37	37	801	1,280	8
	김제순동	262	262	42	42	932	1,250	40
	익산제3	2,794	2,740	64	54	1,569	365	16
	정읍첨단과학(RFT)	896	896	17	4	62	175	5
	전주시자원순환특화	80	80	4	4	46	56	-
	익산제4	503	503	14	7	238	42	14
	전주친환경첨단(3-2)	284	284	2	2	*	*	*
	고창	849	823	-	-	-	-	-
	부안신·재생에너지	354	354	1	-	-	-	-
	완주테크노밸리(2)	2,115	2,115	-	-	-	-	-
	남원	776	776	-	-	-	-	-
합계		52,098	51,119	1,105	1,024	43,427	202,742	6,247

주1. 새만금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확정

2. \*는 업체수 2개 이하인 산업단지

자료1. 전국산업단지통계(2018년 12월 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2. 전라북도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2020). 전라북도

- 도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주 1곳으로 45개 업체에서 350여 명이 고용된 가운데 계약 대비 100% 가동 중임

- 전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28개가 조성된 점을 고려하면 적은 편임
- 전국적으로 경기, 부산 등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이 활발함

【표 3-61】 전라북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구분	지정면적 (천㎡)	관리면적 (천㎡)	입주업체(개)		고용 (명)	생산 (억 원)	수출 (백만 불)
			계약	가동			
전주도시첨단	110	110	45	45	350	203	3

자료1. 전국산업단지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2. 전라북도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2020). 전라북도

【표 3-62】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단지명	지역	비고	단지명	지역	비고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부산	조성 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도시 첨단산업단지	세종	조성중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산	조성 완료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	조성중
대구신서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도 시첨단산업단지(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	대구	조성 완료	판교제2테크노밸리 [구:판교창조경제밸리]	경기	조성중
안양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	조성 완료	용인기흥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	조성중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강원	조성 완료	용인기흥ICT밸리도시 첨단산업단지	경기	조성중
춘천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강원	조성 완료	삼성SDS춘천센터도시 첨단산업단지	강원	조성중
네이버도시첨단산업단지 [구:춘천NHN]	강원	조성 완료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충북	조성중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충북	조성 완료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충남	조성중
태안도시첨단산업단지	충남	조성 완료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	대구	보상중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전북	조성 완료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인천	보상중
창원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 [구:경남지능형융합산업]	경남	조성 완료	회천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	보상중
부산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산	조성중	용인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	보상중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	조성중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전남	보상중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	조성중	광명시흥첨단R&D 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	준비중

자료: 전국산업단지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 □ 전북 산업단지의 생산성

- 그간 전북 산업단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단지 내 주력산업의 위기, 단지 간 연계협력 미흡 등으로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가동률 감소로 이어져 전라북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점차 떨어짐
  - 2018년 기준 전북 산업단지 내 착공 2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는 42개로 전체 산업단지의 약 50%를 차지하나 전북 경제의 생산, 고용,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전북 국가산업단지 가동률 : (‘15년) 89.4% → (‘16년) 87.6% → (‘17년) 86.6%

【표 3-63】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현황(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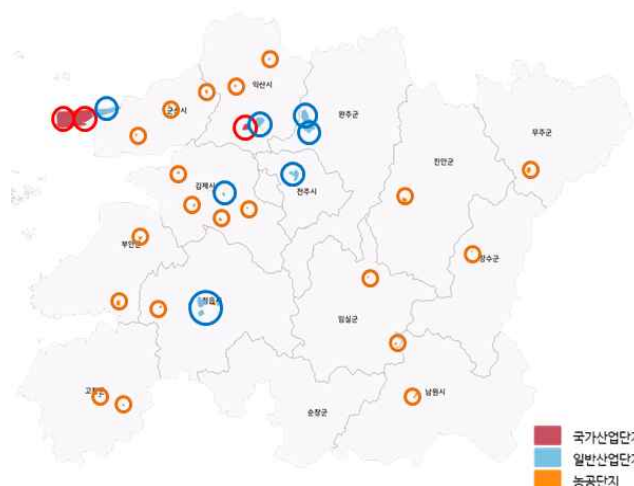
구분	입주업체수(개)	고용자수(명)	생산액(백만 원)	수출액(천 달러)
노후산단	2,380 (75.3)	60,222 (82.2)	29,841,944 (89.3)	8,139,668 (92.7)
비노후산단	779 (24.7)	13,030 (17.8)	3,564,162.5 (10.7)	638,653 (7.3)
전체산단	3,159 (100.0)	73,252 (100.0)	33,406,106.5 (100.0)	8,778,321 (100.0)

자료1.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018년 4분기)

2. 전라북도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2020). 전라북도

- 전북의 노후산업단지는 도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주로 국가 및 일반 산업은 서북부 지역, 농공단지는 지역 전반에 걸쳐 위치하고 있음

【그림 3-74】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분포



자료 :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대응전략. (2020). 전북연구원.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 전북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도 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작고 성장률이 낮은 특성이 있어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요구됨
  - 전북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47.1백만 원 수준으로 전국 도 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작음
  - 연평균 성장(2007~2018) 역시 1.3%에 불과함(광업제조업조사, 2007~2018)

【표 3-64】 전북 제조업 노동생산성

구분	종사자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2007년	2018년	2007년	2018년	2007년	2018년	연평균변화율
전국	2,507,598	2,956,442	329,010,867	565,244,876	131.2	191.2	3.5%
시 지역	774,983	808,683	90,296,109	123,282,189	116.5	152.4	2.5%
서울	147,950	101,066	12,122,204	13,240,267	81.9	131.0	4.4%
부산	132,417	135,660	10,393,740	15,051,529	78.5	111.0	3.2%
대구	97,269	107,815	7,069,078	11,670,675	72.7	108.2	3.7%
인천	168,850	178,473	16,584,564	21,499,064	98.2	120.5	1.9%
광주	55,107	65,816	6,625,116	10,225,241	120.2	155.4	2.4%
대전	32,365	41,119	4,221,805	7,847,041	130.4	190.8	3.5%
울산	141,025	160,988	33,279,602	40,850,116	236.0	253.7	0.7%
세종	-	17,746	-	2,898,256	-	163.3	-
도 지역	1,732,615	2,147,759	238,714,758	441,962,687	137.8	205.8	3.7%
경기	751,733	918,249	88,429,960	196,964,709	117.6	214.5	5.6%
강원	27,916	38,278	3,319,438	5,882,461	118.9	153.7	2.4%
충북	115,791	175,936	15,789,267	35,640,255	136.4	202.6	3.7%
충남	174,778	256,290	31,779,570	65,412,678	181.8	255.2	3.1%
전북	65,565	88,759	8,395,896	13,054,346	128.1	147.1	1.3%
전남	65,396	90,887	17,794,554	32,446,768	272.1	357.0	2.5%
경북	216,820	248,465	37,838,526	46,578,155	174.5	187.5	0.7%
경남	311,262	325,730	35,030,869	45,208,708	112.5	138.8	1.9%
제주	3,354	5,165	336,678	774,607	100.4	150.0	3.7%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2018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산업단지 여건 변화

- 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어 감에 따라서 전통적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에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도입을 통해 완전 맞춤형 생산으로 생산체계가 변화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기존의 제조업 입지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대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공간, 생산 노동력 중심에서 소비자 맞춤 생산에 대응 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분석, 디지털 인재 등이 미래 제조업 입지여건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 이는 기존의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축소되며 데이터를 활용한 소규모의 스마트한 직주근접 산업단지의 개발과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그림 3-75 ■ 21세기 미래형 산업단지 방향

국가	19세기~20세기 초반	20세기 후반	21세기
패러다임	산업혁명 (제조업 2.0)	정보화혁명 (제조업 3.0)	디지털혁명 (제조업 4.0)
산업단지	산업단지 2.0	산업단지 3.0	산업단지 4.0
생산방식	대량 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맞춤형 생산
기업유형	대기업 주도형	제조업+소프트웨어	협업형 소기업
입지방식	생산시설	생산+지원시설	생산+생활+문화(도심입지)
인재상	숙련 기술자	지식근로자	창의인재
공간유형	물리적 공간(H/W)	디지털 공간(S/W)	물리적 공간+클라우드공간

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입지 공급 방안. (2017). 국토연구원

- 산업의 융합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친환경적 생산구조 전환 등이 가속화되면서 산업단지의 역할이 제조업 중심 공업용지에서 서비스와 연구개발 등이 결합된 복합용지로써 강화됨
  - 산업단지의 역할이 제조업을 위한 공장 부지에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될 전망이다

- 지역에 조성된 연구기관, 교육시설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혁신클러스터로 산업단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판교, 구로 등 생산, 창업, 연구개발, 주거, 상업시설 등이 융복합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수도권, 대도시 주변에 첨단산업 집중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 산학연 네트워크 확대 등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도시에서 벗어난 산업입지 정책에서 도시와 결합된 산업입지 정책으로 전환이 강화될 전망
  - 2000년대 이후 구로, 판교, 해운대 등 신산업을 창출하는 첨단기업의 지원을 위해 도시 내 산업입지 공간 조성이 활발해짐
  -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을 부상하면서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정주여건과 결합된 도심 내 산업용지 확충 등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가 변화됨(전국적 도시첨단산업단지 28곳 조성(진행 포함))
  - 도시형 산업입지공간 조성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과거 대규모 입지에서 소규모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될 전망(20㎡ 미만 산업단지 비중 2010년 이후 큰 폭 증가 중)

#### □ 산업단지 정부정책 여건

- 중앙주도 산업단지 정책에서 지역이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주도 산업단지 관리 정책으로 전환
  - 지역의 여건을 고려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를 선정하여 Hub-Spoke 방식의 종합적이며 중장기적 지원
  - 산업단지 내 스마트 산학연협의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마트 제조의 지원 강화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Ⅱ 그림 3-76 Ⅱ 산업단지 관련 정부정책 흐름



자료.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대응전략. (2020). 전북연구원

#### □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 첨단IT(인공지능, 5G 등)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공장, 스마트 산업단지 등 미래형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와 정책이 확대됨
  - 물리적 공간의 조성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한 클라우드형 인프라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전북 산업단지의 대개조 추진

- 친환경 창의인재 친화적인 문화·주거·복지·교통 등 기초 인프라 개선과 산단 이미지 개선으로 근로자의 편익 증진
- 산업의 가치사슬 체계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Hub-Spoke 방식의 종합적이며 중장기적 지원

#### □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춘 복합용지의 개발 확대

- 창업,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소규모 입지공간 조성 확대
- 새만금을 국가 미래를 선도하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개발
- 탄소, 수소 등 새로운 지역산업 탄생에 따른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 □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생태계 구축

- 산업단지 내 스마트 물류, 스마트 안전, 스마트 에너지 등 스마트 기반 공급 확대(스마트 산업단지 등)
- 기업, 산업단지의 가동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별 기업 단위의 스마트 인프라 조성 확대(스마트 공장 등)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생산시스템 동비



## 04 세부 추진과제

### □ 노후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에너지 구조 개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주차, 혁신 데이터센터, 스마트 신호등 등), 물류효율, 스마트제조 등 고도화
- 노후 산업단지 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개별 산업단지 단위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와 스마트공장 유지보수를 위한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 노후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친환경 모빌리티(수소트럭, 수소버스) 활용, 산업단지 생태공장 확대 등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 문화센터, 주거·편의·지원시설, 근로자 휴식공간 등 노후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 □ 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산단 공급

- 탄소 국가산업단지, 식품클러스터 2단계, 수소 및 소재부품장비 특성화 산단 등 국가주도 산업단지, 전기차, 특장차 등 지역주도 특성화 산업단지 적기 공급
-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수소상용차, 그린수소 등 전라북도 전략적 육성산업의 기업집적화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연계 에너지 친화형 RE100 선도 산업단지 조성

###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소규모 복합용지 개발

- 유희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창업·정주 등 직주근접성 미래형 도시첨단복합단지 조성
- 공유경제 기반 지식산업센터, 비즈니스센터 등 소규모 임대형 기업집적단지 조성 확대
- 청년친화형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Co-innovation을 위한 공동혁신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과 산업단지 연계형 R&BD 사업 추진

### 3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 01 현황 및 문제점

##### □ 전북의 R&D 현황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전북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전북분원 등을 유치하며 도 단위 유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연구개발 생태계를 갖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산하 과학원 등이 전북에서 활동
  - 2018년 전라북도 산, 학, 연 전체 연구개발비 1조 원 규모를 돌파하여 2010년 대비 약 2배 규모로 성장
  - 연구기관 전북 이전, 유치 등으로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도내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소폭 증가에 그침

표 3-65 전북 연구개발비 현황

구분	2010년 기준		2018년 기준		비중 증감
	연구개발비(억)	비중	연구개발비(억)	비중	
국공립연구기관	689	13.0%	3,752	34.6%	21.6%
대학	1,870	35.2%	2,419	22.3%	-12.9%
기업	2,747	51.8%	4,673	43.1%	-8.7%
합계	5,306	100%	10,844	100%	

자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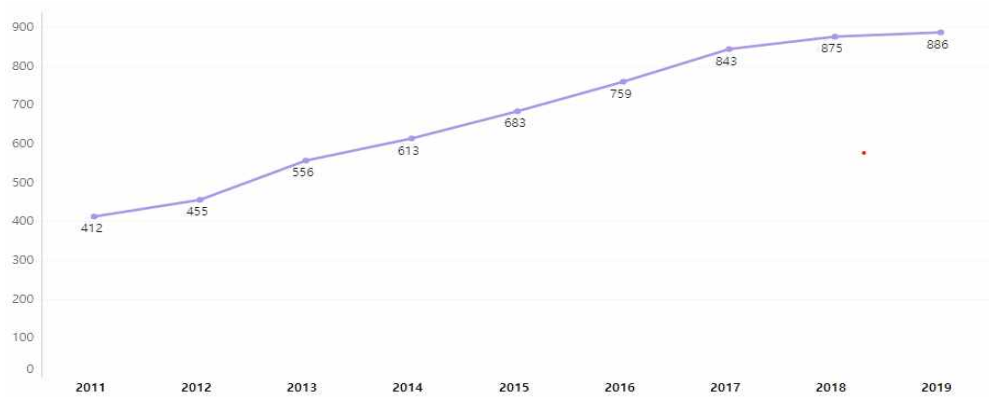
- 도내 연구개발비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북 연구개발 생태계 내 기업의 역할 강화 필요
  - 대기업 포함한 전국적 연구개발비의 80%는 기업이 담당
  - 전북소재 기업은 단순 제조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 투자 등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함
  - 전라북도 내 기업의 부설연구소는 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인하여 2011년 412개에서 2019년 886개로 약 2배 이상 증가함

【표 3-66】 전북 연구개발비의 산학연 비중 현황(2018년 기준)

구분	전국 기준		전북 기준		비중 비교 (전북-전국)
	연구개발비(억)	비중	연구개발비(억)	비중	
국공립연구기관	98,438	11.5%	3,752	34.6%	23.1%
대학	70,504	8.2%	2,419	22.3%	14.1%
기업	688,344	80.3%	4,673	43.1%	-37.2%
합계	857,286	-	10,844		

자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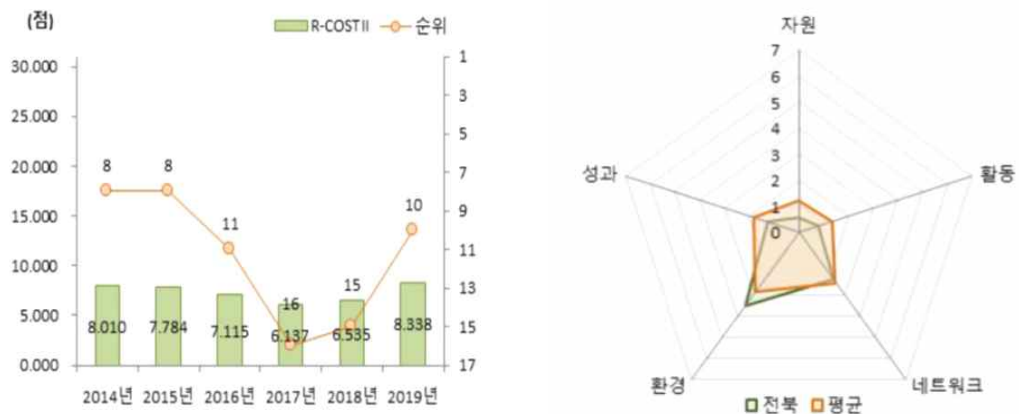
【그림 3-77】 전라북도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자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

- 타 지자체 대비 전북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여 지속 개선 중에 있으나,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창출 기여라는 과제가 존재함
  - 전북은 타 지역 대비 연구개발 환경, 네트워크 등이 우수하나 성과, 자원은 부족함

【그림 3-78】 전북 과학기술 혁신역량



자료.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2020, KISTEP)

## □ 전북 R&D 성과 현황

- 연구개발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연구소기업 100개 등의 양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여 성장하는 대표기업은 부재한 실정으로 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창업과 지역산업 간 성장 사다리 마련 등이 필요
  -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2019년 기준 누적 연구소기업 111개, 첨단기술기업 13개 지정, 특구 내 코스닥 등록기업 4개 등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사업화 창업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 짐
  - 도내 창업기업 중 5년 생존율은 28%로 창업 후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필요
  - 도 단위 전북의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경기(30.0%), 제주(29.0%), 경북(28.6%), 충남(28.3%)에 이어 다섯 번째 수준을 나타냄

【표 3-67】 시도별 창업기업 생존율

(단위 : %)

구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전국		65.0	52.8	42.5	35.6	29.2
시 지역	서울	65.6	54.1	43.5	37.1	30.9
	부산	65.4	53.4	42.8	36.3	30.0
	대구	66.3	55.0	44.4	37.8	29.6
	인천	64.0	51.0	40.7	33.6	27.4
	광주	63.9	50.6	40.2	33.0	26.5
	대전	63.8	50.8	41.6	33.9	26.9
	울산	63.0	50.2	39.1	33.7	27.6
	세종	70.0	59.9	47.7	37.9	29.5
도 지역	경기	66.2	53.6	43.2	36.1	30.0
	강원	63.5	50.6	41.2	34.2	28.2
	충북	63.7	51.5	42.1	33.5	27.0
	충남	63.9	52.0	41.1	34.4	28.3
	전북	63.0	52.9	44.0	35.7	28.2
	전남	63.6	52.7	41.4	34.7	27.3
	경북	63.5	52.0	41.7	35.5	28.6
	경남	62.8	49.6	40.1	33.4	27.6
	제주	65.3	54.5	44.4	35.8	29.0

자료. 기업생명행성통계(2017)

-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자원의 수도권 편중 심화 등으로 지식기반 중심의 혁신창업의 생태계 구조는 취약함
  - 전북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벤처기업 비중은 증가

【표 3-68】 전북 벤처기업 현황

구분	2010.12 기준		2019. 12 기준		비중 증감
	벤처기업 수(개)	비중	벤처기업 수(개)	비중	
서울	5,586	22.7%	8,877	24.0%	1.3%
부산울산	1,962	8.0%	2,682	7.2%	-0.7%
대구경북	2,386	9.7%	3,304	8.9%	-0.8%
광주전남	1,055	4.3%	1,605	4.3%	0.1%
대전충남	1,719	7.0%	2,765	7.5%	0.5%
경기	7,256	29.4%	11,433	30.9%	1.5%
인천	1,319	5.4%	1,642	4.4%	-0.9%
강원	426	1.7%	713	1.9%	0.2%
충북	660	2.7%	1,011	2.7%	0.1%
전북	560	2.3%	821	2.2%	-0.1%
경남	1,660	6.7%	1,816	4.9%	-1.8%
제주	56	0.2%	211	0.6%	0.3%
세종	-	0.0%	128	0.3%	0.3%
합계	24,645	100%	37,008	100%	

자료. 벤처인 벤처통계자료

## □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르면, 전북은 사회적 기업은 243개사, 협동조합 1045개, 마을기업 109개, 자활기업 101개 등으로 파악됨

【표 3-69】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단위 : 개, %)

구분	합계
사회적기업	243
인증	137
예비	106
마을기업	109
협동조합	1,045
사회적협동조합	52
자활기업	101
합계	1,498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9 기준)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국제적 여건 변화

- 브렉시트, 미·중 통상분쟁, 팬데믹(전 세계적 바이러스 대유행) 등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각 국가별 연구개발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하여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임
  - 미국은 국민안보, 5G, 우주탐사, 에너지 우위 등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 독일은 'High-Tech 2025'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 국내적 여건 변화

-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탈추격형 성장전략이 강화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13.7조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20년 24조 원 규모로 증가
- 지방분권 강화, 기술과 지역산업 간 착근성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의 중앙 주도성이 약화하는 반면, 지역의 연구개발 리더십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추세임
  - 지역산업이 단순 제조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창업, 기술창업과 지역산업 간 착근성 기반의 지역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 속 과학이 중시되고 있으며 국가, 지역 문제 중심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이 접목된 생활혁신이 중시되고 있음
  - 생활방역기술의 상용화, 과학기술 기반의 일상성 회복 등
-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 새로운 기업(스타트업) 창출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역 내 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형 기업입지 및 혁신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
  - 신산업, 고기술 기반 창업과 투자, 성장과 재투자로 성장하는 벤처기업의 육성 정책 강화
  - 창업 중심에서 창업 후 기업성장을 고려한 기업 입지,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강화
  - 지역산업이 대기업에 의존된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거점 조성 및 기존 거점 기능의 고도화 추진

【그림 3-79】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청년뿐 아니라 경험적 아이디어와 기술노하우를 가진 중장년 퇴직자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전망
  - 고령사회의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에 대한 지원방안이 확대될 전망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전북 주도적 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 전북 연구개발 지원체계 선진화
- 전북 산, 학, 연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전북 산업수요와 전역현안해결을 위한 맞춤형 산, 학, 연 공동연구 활성화

#### □ 전북연구개발특구 중심 연구개발 사업화 중추와 연계 기능 강화

- 핵심역량을 갖춘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수요맞춤 특구 지정 확대
- 연구개발, 과학문화, 창업, 지역정주 등 복합용지로 활용 확대
- 새만금 내 첨단연구기관 유치로 국가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특구 신규 조성

□ 창업, 성장, 강소기업 등 전주기 기업성장 지원체계 강화

- 창업기업, 혁신형기업(스케일업), 중견기업 등 창업 후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역기업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입 촉진 및 기술사업화 투자금융 기반 조성
- 지역도심, 지역대학, 혁신도시 등을 활용 도내 창업 거점 기능 고도화와 민간 주도형 창업생태계 구축 등 부족기능 신규 확보

□ 혁신전략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구축

- 전북 사회적경제 자원과 기반을 혁신자원과 결합하는 구조로 재편
-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기반 생활역량 강화

## 04 세부 추진과제

□ 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정책, 사업기획, 평가 등 전주기형 R&D 시스템 정착과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학연 연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연구기반’ 연계형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확대 추진
- 전북연구개발특구, 국가 출연(연) 전북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과 연계하여 기술과 서비스, 커뮤니티 등이 결합된 수요자 참여형 실증 R&D(리빙랩) 확대
- 과학기술 성과 확산을 위하여 국립전북과학관 유치, 소규모 과학관 활성화 지원과 과학문화 확산사업(과학축전 등) 확대
- 하이퍼튜브 등 새만금 부지를 활용하여 글로벌 거대과학기술 실증단지를 조성
- 호남권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등 과학기술인, 퇴직 과학기술인 대상 정주·복지 기능을 갖춘 시니어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 □ 전주기 창업·성장 지원체계 구축

- 스타트업 파크, 메이커 스페이스, 혁신성장센터 등 캠퍼스형 창업거점 인프라 구축
- 창업 전후 자금, 마케팅, 네트워킹 등의 필요 지원을 위한 Pre-창업보육센터, Post-창업보육센터 확대
- 전북 자체 기업육성 프로그램, 정부기업육성 프로그램 등과 연계 창업, 도약, 선도, 스타, 강소기업 등 전북기업의 성장사다리(Scale-up) 구축
- 지역 기업의 사다리형 성장을 위해 우수기업 조기 발굴,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 투자펀드 조성 확대, 상용화 R&D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 등
-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고기술 창업의 저변 조성을 위한 High-Tech 창업 거점 인프라 신규 조성

####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단계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 양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내실화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여러 유형의 문제를 기초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실행역량을 강화
- 사회적경제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조직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 영역별로 구체화 및 내실화하고 사회적경제 상품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연계 장터’ 구축 및 운영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형성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자원, 물적자원의 집적공간 조성
- 사회적경제의 가치평가에 입각하여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유희·미활용 공간을 공유자산으로 활용 촉진하여 지역자산화 기반을 마련

## 제7장 공생과 혁신을 통한 고품격 여행체험 1번지 육성

### 1 공생과 혁신의 지역문화

#### 01 현황 및 문제점<sup>22)</sup>

##### □ 지역문화 종합지수 전국 상위권

- [전라북도] ‘2017년 지역문화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서 전라북도는 광역 지자체 중 종합 2위,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향유 영역에서 전국 상위 5위를 차지

표 3-70 지역문화실태조사(2019) 결과

〈광역지자체 종합지수 상위 5개 지역〉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제주특별자치도	0.2853
2	전라북도	0.2296
3	경상남도	0.1281
4	서울특별시	0.1180
5	광주광역시	0.0220



- [시군] 전주시는 2015·2019년(발표기준) 전국 1위, 완주군은 2015년 전국 군 지역 5위에서 2019년 군 지역 3위를 차지

##### □ 문화자치 기반마련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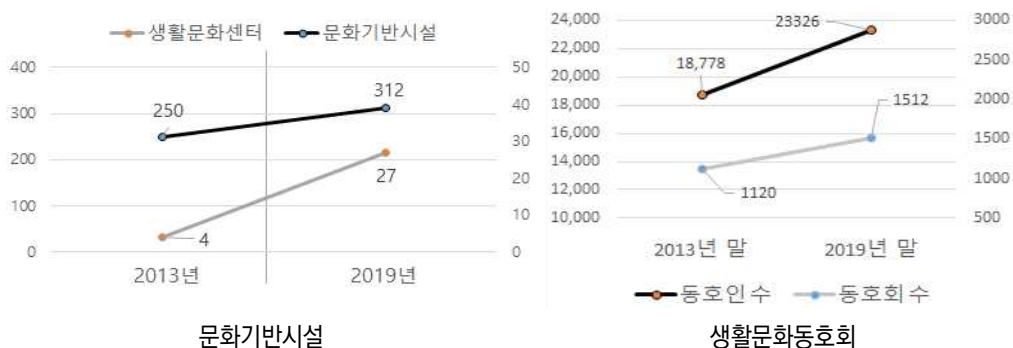
- [조례와 계획] 법률에 의한 조례 외 지역 자체적으로 지역문화 조례가 제정되었고, 1차 시행계획 수립 이후 분야별 계획 수립
  - [조례] 장애인문화예술, 예술인복지, 거리예술, 지역서점,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 [계획] 문화예술교육진흥계획, 예술인복지증진계획(조례), 장애인문화예술지원계획(조례)
- [분야별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문화 관련 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고, 지역문화

22) 자료 : 제2차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020). 전라북도

관계자에 의한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운영기반이 마련

- 전라북도 국어진흥위원회(2015년 설치, 조례 근거),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2018년 설치, 조례 근거),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2017년 설치, 조례 근거), 전라북도 지역서점위원회(2017년 설치, 조례 근거),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2018년 설치, 조례 근거)
- **[도 문화재정 증가]** 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행정사무감사 시점 기준)이 2016년 519여억 원에서 2019년 743여억 원으로 증가, 전라북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율(33.9%)보다 높은 43.1%를 기록
  - 전라북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기준 4조7,071여억 원에서 2019년 기준 6조 3,054천여억 원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19년에 33.9%가 증가
- **[광역-기초 추진체계]** 2019년 기준 5개소가 설립, 도-시군 협력사업 증가
  - **[지역문화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설립 중)
  - 도재단-기초재단 협력체계, 광역·기초재단-시군단체대표·관계자·유관기관 협력체계(예, 전주생활문화협의회), 시군대표자협의회(예, 전북문화정책버리) 구축
-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었고, 생활문화센터가 시군별로 조성됨
  - **[문화기반시설]** 2014년 기준 도 문화기반시설(공공·작은도서관, 등록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은 250개, 2019년 12월 말 기준 312개로 24.8%가 증가
  - **[생활문화센터]** 2014년 기준 4개소였으나, 2019년 기준 27개소가 조성(조성완료 14, 조성중 13)되어 2014년 기준 대비 675%가 증가
- **[지역문화 활동주체]** 지역문화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었고, 생활문화동호회가 확대되어 활성화됨
  -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진행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성(수료생)된 신진 전문인력이 78명임

Ⅰ그림 3-80Ⅰ 전북 문화시설 및 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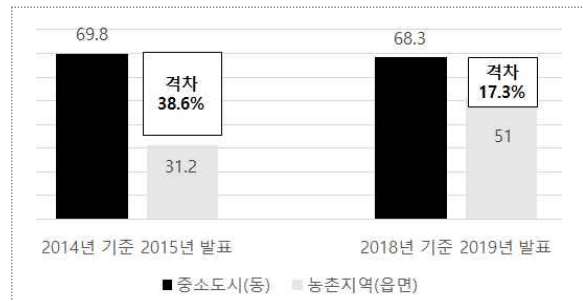


- [문화동호회 및 동호인 수] 도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에 가입되어있는 동호회는 2013년 말 기준 1,120개에서 2019년 기준 1,512개로 증가(35%), 동호인 수는 18,778명에서 23,326명으로 증가(24.2%)
- [문화예술단체와 전문예술법인] 문화예술단체와 전문예술법인은 2013년 말 기준 19개에서 2019년 말 기준 46개임
-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지역문화를 활용한 문화예술 창업과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활동이 다양하게 이뤄짐
- 2013년 말 기준과 2019년 말 기준을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은 12개에서 27개로 증가(협동조합은 27개에서 24개로 감소)

#### □ 도농 간 문화향유 격차 완화

- [문화향유 격차 감소] 읍면 지역 문화예술행사관람률이 2014년 기준 31.2%로 동지역(69.8%)과 큰 격차를 보였으나, 2019년 기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격차가 17.3%로 완화

■ 그림 3-81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도농격차 변화



- 8개 군부의 경우, 문화사업 추진 건수가 2014년 19건에서 2018년 125건으로 증가, 중앙 및 광역 자치단체 기획 및 발주 문화사업 선정 건수는 2015년 29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증가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과 문화시설(공간) 이용률을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연령층의 향유율이 2016년에 비하여 2018년에 향상되었으며, 특히 월 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의 계층과 60대 이상 노인층의 향유율이 증가

■ 그림 3-82 ■ 소득·연령별 문화예술 향유율 비교



## □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의 한계

- **[제도의 실효성 미흡]** 지역문화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며, 조례와 법정계획의 실효성이 미흡
  -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25건, 문화예술 분야 시군 조례 127건
  - 지역문화 총괄하는 ‘(가칭)지역문화기본조례’가 없으며, 2015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조례」는 문화사업 지원내용 중심으로 구성, 한계 노출
- **[문화재정 부족]** 1차 계획기간 내 문화예술 예산 총 액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중(1.2%, 2019년)이 전국 평균(1.6%, 2017년)보다 낮음
- **[거버넌스·진흥기관]** 법정위원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형식적 운영 등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군 지역문화진흥기관(재단)의 위상 및 역할이 부족
  - 문화예산 편성의 도민참여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분야별 계획에 대한 심의 및 평가 등의 법·조례 규정사항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 시군·지역 간 문화격차 상존

- **[전주 중심의 발전]** 전라북도 지역문화 종합지수가 상승하였으나, 시군 간 격차, 특히 전주시와 기타 지역 간 격차가 큼

■ 그림 3-83 ■ 광역지차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종합지수 값의 표준편차 비교



주. 표준편차 값이 높을수록 관내 자치단체 간 평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2019).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군 평균 생활문화시설 수는 전주시가 2015년 발표 기준 30개에서 2019년 발표 기준 111개로 증가한 반면, 5개 시 지역은 평균 9.4개에서 26.8개로 증가하였고, 8개 군 지역은 평균 7.6개에서 10.3개로 증가
- 공연장 평균 가동일은 시역이 2015·2019년 발표 기준 모두 200일이 넘는 반면, 군 지역은 125.75일(2019년 발표 기준)에 불과

## □ 문화자치 기반의 지역 격차 원인 진단

-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의 전북 시군 간 격차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주시의 현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연속 1위)

【그림 3-84】 전북 시군 문화예술 비율 평균



- 전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문화 관련 예산 차이
- 전주시는 전체 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이 3.21%(2015년 발표 기준)에서 4.99%(2019년 발표 기준)로 증가한 반면, 5개 시군 평균은 2.48%에서 2.83%로 소폭 증가하였고, 8개 군 지역 또한 1.52%에서 1.75%로 증가
- 전주시를 제외한 시 지역 또한 생활문화시설 조성을 제외하고, 지역문화 전문 인력 및 단체, 시설 운영(예, 공연장 가동일 2015년 기준 296일에서 2019년 기준 232.4일로 감소) 및 프로그램 수 미흡
- 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 확충 및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지역문화 관련 지표 상승 : 2015년 발표 기준 1.02%에서 2019년 발표 기준 2.7%로 증가하였는데, 지역문화현황 종합지수의 전국 순위에서 전국 군부 5위에서 전국 군부 3위로 상승

【그림 3-85】 완주군 문화 예산 비중과 지역문화현황 종합지수 전국순위 변화

완주군 전체 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	완주군 지역문화현황조사결과와 전국 지자체 비교	
	(2015년 발표) 전국 군부 전체 종합 5위	(2019년 발표) 전국 군부 전체 종합 3위
	- 문화향유영역 전국 2위, 문화자원영역 평균 이상, 문화정책영역 보통, 문화활동영역 전국 평균 이하	- 문화활동 영역을 제외하고 문화정책, 문화향유, 문화자원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

- 지역문화 기반의 격차는 동일한 시 및 군 지역 내에서도 시군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바, 지역 간 격차 해소 정책은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과 더불어 기반이 열악한 개별 시군별로 특화 전략이 필요

#### □ 특수상황에 대한 대응책 미흡

- **[문화계 성폭력 문제]** 2018년 도내 연극단체 대표와 문화예술 관련 교수에 대한 미투(Me Too) 폭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문화계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부재
- **[감염병 대응]** 코로나사태 등 재해재난 대비 문화계 대응책(예, 매뉴얼)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지역문화예술인·단체의 생계위험이 발생

#### □ 민간시장 침체와 지속가능성 부족

- **[문화재단으로 집중]** 문화재단으로 문화사업 집중→민간영역 축소→지역문화의 민간역량 저하→신규 문화사업의 재단 위탁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지역문화 생태계가 붕괴되고 지속가능성 상실
  - 도 재단 사업유형(2019) : 문화예술사업 21개 중 공공기관 대행 10개, 공모 5개
- **[민간영역 기반 취약]**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 민간 중심의 지역문화기반이 취약

## 02 여건 변화와 전망<sup>23)</sup>

#### □ 국가비전과 ‘문화비전 2030’ : 포용과 혁신, 생활과 사람

- 국가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핵심요소는 포용과 혁신이며, 문화정책과 관련된 전략은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혁신적 포용국가의 세부 가치는 사회통합을 위한 공존과 공생, 지속가능성, 창의성을 통한 혁신성 등이며, 문화정책 영역에서는 인적자본이 강조
- 2004년에 발표된 창의한국의 핵심가치를 이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2018년 발표)는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창의성이 핵심

23) 자료 : 제2차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020). 전라북도

가치이며, 이를 모두 포괄하는 핵심요소는 생활과 사람

- ‘문화비전 2030’이 기존 비전이나 전략과 다른 특징은 첫째, 권리로서 문화이며, 둘째, 문화다양성 실천, 셋째, 문화자치 시대를 강조

【표 3-71】 ‘문화비전 2030’의 주요 내용

주요 특징	주요 내용	주요 요소
권리로서 문화(개인)	선택과 활용 자원에서 개인 권리이자 책무로서 문화향유의 인식 정착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문화다양성 실천(사회)	선언적 수준의 정책에서 혐오사회 극복, 포용국가 실현 방안으로 실천	예술, 성, 문화정체성
문화자치시대(지역)	중앙의 지역문화진흥에서 지역주도 문화자치시대로	제도, 재정, 추진체계·역량

#### □ 자치분권 : 문화자치시대와 지역문화재정의 위기

- 문재인정부는 2018년 8월에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6대 전략 33개 과제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
- 지방분권으로 문화자치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지역 스스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기획·실천하는 지역단위 자율적 문화생태계 구축이 중요
  - 문화자치 구성의 3대 요소 : ① 제도(문화자치를 위한 법 제도적 환경과 자치입법 현황 및 실효성), ② 재정(문화정책사업의 재정자치주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여부), ③ 추진체계 및 역량(문화정책 관련 조직 확보(혹은 구성), 인력·조직 역량 및 네트워크)
- 지방분권으로 문화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관련 재정까지 이양되고 있어 오히려 지방분권에 의해 지방문화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확대

#### □ 문화시설의 접근성의 도농 격차 심화

- 문화시설은 시군별로 최소기준(예, 1시군 1개소)을 설정하여 조성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접근성 차이가 명확
  - 시군별 거점형 문화 및 체육시설은 대부분 충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집과 직장에서의 가까운 생활권형 시설이 중요해져 읍·면·동 단위로 시설이 필요
- 문화시설의 경우 도시는 전문 문화시설(예, 공연장, 전시장)이 필요하나, 농촌은 복합문화시설(예,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규 조성보다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공간, 장비)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인력 지원이 중요



표 3-72 도내 시군별 문화시설 조성 현황

시설	무거주 제외	해당시군
공공도서관	전국평균 이상	전주시 / 익산시 / 군산시 / 김제시 / 정읍시 /
	전국평균 이하	장수군 / 남원시 / 완주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진안군 / 무주군
기타 문화시설	전국평균 이상	전주시 / 익산시 / 군산시 / 김제시 / 정읍시
	전국평균 이하	고창군 / 순창군 / 부안군 / 남원시 / 임실군 / 진안군 / 완주군 / 장수군 / 무주군

#### □ 지역의 국제화 증대와 문화다양성 중요

- 지방정부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추진, 문화교류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화 정책이 추진
  - 전라북도 국제교류실적은 3년간(2016~2018년) 총 185회의 활동이 있었으며, 전북방문의 경우 110회, 국가방문은 76회
- 일상 속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이해하는 수용적인 태도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정책 전반에 걸쳐 전개될 것으로 전망

#### □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의 등장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과 산업 간 창조적 융합 활동 뿐 만 아니라 기술과 산업의 영역에 문화가 접목되어 다양한 산업과 트렌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문화가치에 대한 인식과 예술적 실천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문화예술의 영역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미래 문화환경의 변화와 수요 예측이 필요하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 적용되면서 “초지능화”, “초연결성”, “초개인화”, “혼합사회” 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고 이러한 트렌드가 만들어졌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사물간의 연결이 확대되고 상호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초연결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문화예술의 영역과 기술과의 융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문화기술과 실감콘텐츠의 확산

- 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첨단기술과는 달리 문화는 국가마다 그 특성이 다르므로 미래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문화와 기술 산업의 융합을 장려
- 5G 상용화에 따른 5G 콘텐츠 투자 확대 및 VR·AR 디바이스 고도화 확산 등의 기술 변화로 인해 실감콘텐츠 시장 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사업이 확대

## □ 경험 중심의 소비 참여 확대

- 경제 불황과 소비문화의 변화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치 중심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실제로 경험을 위한 소비 비용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마케팅 분야에서도 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등장
  - 새로운 소비문화에 대한 트렌드로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가리켜 ‘스트리밍 라이프(Streaming-Life)’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경험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
  - ‘덕후문화’, ‘팬덤’, ‘굿즈 산업의 확산’ 등 마니아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관련 문화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경험과 가치에 대한 소비의 상징으로서 문화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확장
- 스마트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콘텐츠의 소비 방식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용자의 직간접적 명령이나 요구를 즉각 반영하여 반응하는 쌍방향적 소비로 변화하면서 상호참여에 따른 경험공유로 변화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자치) 문화자치를 위한 핵심요소(제도·재정·체계·역량) 기반 마련

- 문화자치의 핵심요소인 제도, 재정, 추진체계와 자치역량별로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문화인력·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진흥 생태계를 계획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방향으로 설정
- 모두가 누리고(공생) 창의성이 발휘되는(혁신) 전북문화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문화공간(문화시설, 문화장소)을 설정, 확충전략을 수립

#### □ (공생) 사람·공간·생활의 균형으로 격차 해소와 문화다양성 강화

- 지역(도시-농촌, 동부-중부-서부권) 간, 계층 간, 장르(예술분야) 간, 정책영역(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간 불균형·불평등 문제 해소에 집중
  - 균형발전지표(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표)에서 전북 16위 기록, 문체부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전북의 시군 간 문화정책기반 격차가 가장 큼
-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사람·공간·생활의 균형을 추진하고, 균형발전의 핵심원리로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강조
  - 전북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다양성 원리에 기초한 문화행정 체계를 정립
- 지역문화·예술의 핵심동력인 문화·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융합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혁신) 지역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문화적 도시발전 추진

- 새로운 생각·개념을 찾아내는 문화적 활동(정신적·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소비자)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문화상품·서비스를 창출
  -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를 위한 문화적 창작·창업(협동조합, 소셜벤처) 지원
- 창의적 혁신 방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와 공간(마을·도시)을 재생시키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집중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활동과 문화적 사회 가치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고유문화와 공통체적 마을문화와 거주지역의 문화재생을 추진

## 04 세부 추진과제

### □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과 생활권 중심의 기반 마련

- 자치와 분권 원리에 의한 지역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지역문화 관련 조례 제·개정, 안정적인 지역문화 재정 확보(전체 예산대비 2%, 민간재원 확보 등 다각화), 시군·민간 중심의 문화거버넌스 구축, 도-시군 문화재단 설립·활성화
  - 문화예술시장 활성화와 민간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관련 문화단체·법인 육성과 활성화 지원, 공적 문화사업·행사의 민간이양 등 추진
- 지역문화전문인력 제도화와 전문인력 활동영역 확대
  -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지역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인력 배치를 확대
  - 세분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영역별로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것처럼, 지역문화 관련 영역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영역별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사업 및 기관에 배치
- 지역대표·생활권 문화시설 조성 and 문화시설의 지역문화 거점화
  - 분야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시설 조성 : 전북대표도서관, 전북도립박물관, 국립독립영화박물관, 아레나급 e-게임 경기장, 전북예술역사관(도서관·아카이브관) 등
  - 문화시설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맞춤형 문화시설 조성기준(예, 걸어서 30분 이내)을 마련하고, 생활권 중심의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을 확충
  - 노후화된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의 개선과 전문인력 배치,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 예술창작 안전망 구축과 계층·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예술창작 안전망을 구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대표도시로 발전
  - 청년예술인, 원로예술인, 장애인예술인, 여성예술인 등 취약계층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재해재난 대응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등
  - 창작·주거복합콤플렉스, 공공수장고, 예술시장 활성화(공공기관 공동구매, 아트페어, 통합 마케팅 등) 지원, 예술창작 지원 등 예술창작 대표도시를 위한 환경 조성
- 지역·계층 간 문화향유 및 문화사업 격차 해소
  - 전주시와 다른 지역 간,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 문화향유기반(문화시설, 문화인력, 문화프로그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취약지역 포괄지원 추진
  - 읍면동별 문화복지·문화활동 전광판 구축과 읍면동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 생애주기별, 계층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초연결사회와 융합시대에 따른 새로운 예술 환경 조성
  -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예술과학, 예술 장르 간 융합, 타 분야와 예술의 융합, 초연결 사회 속 새로운 예술활동, 비대면 공연·전시콘텐츠, 실감 예술콘텐츠(예, 미디어아트) 등 미래의 새로운 융합예술에 대한 연구개발·공간·전문인력·창작지원·마케팅 통합 지원
  - 문화유산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비대면 기술·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
- 전북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다양성 원리 기반의 문화행정 혁신
  - 전북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정립,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홍보, 교육), 문화다양성 전시·체험·교육, 문화다양성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하여 전북문화의 다양성 증진 추진
  - 성평등적 문화행정 혁신과 확산(성폭력·성차별 대응체계 구축, 지역문화행정의 성평등적 혁신, 문화를 통한 성평등 가치 확산), 청년·신진예술 육성, 비주류 예술의 활성화 지원

#### □ 지역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과 확산

-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
  - 읍면동 단위의 지역 현안문제(예, 고령화, 범죄, 안전, 생활사막, 주민갈등 등)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공동체 육성 및 지원, 문화예술 리빙랩 확대
  - 문화적 가치와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공간, 원도심, 폐산업·공공시설의 문화적 재생 추진
  - 문화도시 조성,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등을 기반으로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과 전라북도 도시의 국내외적 브랜드를 제고
- 전북형 문화콘텐츠산업 고도화와 차세대 콘텐츠산업 선도
  - 전북형 특화콘텐츠 분야(기능성 게임산업, 영화영상산업, 실감콘텐츠(홀로그램, AR·VR), 출판산업)의 관련 기업을 육성, 콘텐츠 개발을 지원, 국제적 경쟁력 제고
  - 문화콘텐츠산업의 차세대 분야인 5G, 홀로그램을 비롯하여 D.N.A.(Data, Network, AI)를 통한 초연결사회를 선도하는 콘텐츠산업 분야 연구개발, 기업육성, 콘텐츠개발 추진
- 지역 역사의 재발견과 문화자원화를 통한 현대적 활용
  - 마한, 가야, 백제, 후백제, 조선 등 전북역사에 대한 조사연구, 역사유적에 대한 발굴과 국가사적 지정, 유적 정비를 통한 현대적 계승공간화와 문화관광자원화 추진
  - 동학농민혁명과 의병·독립운동의 선양사업,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활용 추진
- 문화·예술·역사 기반의 창업·사회적기업·소셜벤처 육성

## 2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체험 1번지 육성

### 01 현황 및 문제점

#### □ 전라북도 국내외 관광시장 성장 추이

- 2019년 전라북도 관광객은 약 3,921만 명으로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연평균 약 5.7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같은 기간(2015년~2017년) 전국 국내외(내국인, 외국인) 관광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연평균 약 7.43% 증가세), 이와 맞물려 전라북도의 관광시장 역시 경쟁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국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연평균 0.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북권의 경우에는 약 11.6%의 연평균 성장 추이를 나타냄

표 3-73 전북권 관광객 추이 분석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전국	300,444,855	339,254,524	376,696,387	389,461,022	429,953,346	7.43
내국인	289,756,988	325,809,361	368,100,910	380,592,137	419,429,273	7.68
외국인	10,687,867	13,445,163	8,595,477	8,868,885	10,524,073	-0.31
전북	29,659,503	30,986,242	36,973,374	38,087,297	39,206,540	5.74
내국인	29,466,138	30,795,507	36,594,357	37,758,818	38,888,678	5.71
외국인	193,365	205,651	382,712	334,198	335,006	11.62

주1. 위 자료는 전국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자료의 총합으로 시군별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연도별 조사기준 변경 및 일부 시·군 자료의 누락 등 결측으로 전년대비 증감률은 파악이 어려움  
 주3. 연평균 증가율은 연도별 조사기준 변경 및 일부 결측자료 등으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함  
 자료.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한 외국인 단체관광단 및 개별여행 증가
  - 외국인 단체관광단 26.5% 증가(2018년 14,176명→2019년 17,937명)
    - \*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준
  -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관광버스 탑승객 2.4% 증가(2018년 4,557명→2019년 4,670명)
  -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홈페이지(Visit Korea for Me) 내 전북여행상품 선정 홍보
    - \* 전주(시간여행), 남원·임실(K-힐링), 무주·진안(태권도·스파여행) 여행상품 선정

□ 전라북도 시군별 관광시장 성장 추이

- 2019년 전라북도 관광객 총량 약 39,207천 명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지역은 군산시(약 6,071천 명)이며, 장수군(약 511천 명)의 관광객 절대규모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 추이를 보인 강세지역은 군산시(약 35.0%)이며, 그 외 임실군(약 12.6%), 익산시(약 12.1%)의 순으로 추정됨
  - 반면, 무주군의 관광객 수는 연평균 감소한 것(약 -4.8%)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진안군(약 0.48%), 남원시(약 1.6%), 부안군(약 2.4%) 등은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아서 지역 내 관광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74 시군별 관광객 추이 분석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전북	29,659,503	30,986,242	36,973,374	38,087,297	39,206,540	5.74
전주시	2,423,573	2,465,394	2,636,740	3,112,499	3,298,673	6.36
군산시	1,355,561	2,174,291	3,247,203	5,837,841	6,070,332	34.96
익산시	645,319	485,381	606,720	841,745	1,141,800	12.09
정읍시	1,309,478	1,286,363	1,460,168	1,279,747	1,598,499	4.07
남원시	4,686,520	4,677,860	5,126,761	5,167,765	5,072,412	1.60
김제시	1,170,070	1,379,967	1,924,120	1,187,960	1,665,279	7.31
완주군	3,443,408	3,701,098	4,000,030	4,040,372	4,235,316	4.23
진안군	1,293,299	1,219,038	1,389,508	1,205,928	1,324,602	0.48
무주군	4,617,099	4,704,757	5,195,795	4,384,208	3,607,386	-4.82
장수군	297,077	356,738	457,724	566,243	510,521	11.44
임실군	528,024	576,610	673,836	642,019	955,525	12.59
순창군	1,280,670	1,328,094	1,586,708	1,565,192	1,533,288	3.67
고창군	4,668,291	4,807,414	5,968,330	5,990,018	6,008,494	5.18
부안군	1,941,114	1,823,237	2,699,731	2,265,760	2,184,413	2.39

주1. 위 자료는 전북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자료의 총합으로 시군별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연도별 조사기준 변경 및 일부 시·군 자료의 누락 등 결측으로 전년대비 증감률은 파악이 어려움  
 주3. 연평균 증가율은 연도별 조사기준 변경 및 일부 결측자료 등으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함  
 자료.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전라북도 관광 만족도 전국 평균 상회

- 2017년 전라북도 방문 관광객의 만족도는 가구여행 4.02점(5.0점 만점), 개인 여행 4.08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관광객 만족도는 상위권을 유지 중
  - 관광객 만족도에 대한 분석방법이 변경된 2018년의 경우(국민여행조사, 2018), 전국 국내관광 여행의 만족도 평균이 당일여행 77.8점, 숙박여행 78.9점이며, 전라북도는 당일여행 만족도 약 79.6점, 숙박여행 만족도는 78.1점으로 숙박여행에 대한 만족도 미흡

【표 3-75】 전북권 관광객 만족도 추이 분석

(단위 : 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구 여행	개인 여행	가구 여행	개인 여행	가구 여행	개인 여행	가구 여행	개인 여행	가구 여행	개인 여행	당일 여행	숙박 여행
전국	4.07	4.04	4.04	4.03	4.05	4.04	4.04	4.05	4.05	4.05	77.8	78.9
서울	3.97	3.97	4.01	3.95	4.01	3.93	4.02	4.11	4.03	3.99	77.3	79.1
부산	4.15	4.17	3.96	4.08	3.94	4.12	4.09	4.07	4.09	4.12	77.6	78.5
대구	3.94	3.81	3.92	3.77	3.92	3.86	3.57	3.75	3.92	3.84	79.5	80.2
인천	3.65	3.84	3.97	3.88	4.07	3.92	4.10	3.98	4.07	4.10	76.5	77.8
광주	3.98	3.93	3.84	3.96	3.97	4.10	3.96	4.07	3.91	4.00	79.0	77.6
대전	4.05	4.07	3.94	3.97	4.03	3.71	3.96	3.88	3.95	3.74	78.3	80.5
울산	3.95	4.05	3.97	3.89	4.01	3.92	4.04	3.99	4.07	3.90	76.9	75.0
세종	-	-	4.04	4.00	3.86	3.93	3.98	3.76	4.19	4.24	81.3	80.8
경기	3.94	3.93	3.97	3.89	4.02	3.96	4.00	3.98	4.03	4.06	75.7	78.6
강원	4.10	4.08	4.14	4.10	4.11	4.13	4.11	4.15	4.12	4.11	78.6	78.7
충북	3.96	3.98	4.08	3.94	4.01	4.07	4.01	3.95	3.86	3.84	78.6	78.3
충남	3.99	3.92	4.00	3.95	3.89	3.97	3.96	3.97	3.88	3.96	78.2	78.9
전북	3.99	4.11	4.09	4.14	4.07	4.15	4.02	4.07	4.02	4.08	79.6	78.1
전남	4.07	4.04	4.08	4.08	4.10	4.09	4.11	4.16	4.16	4.15	80.0	79.5
경북	4.14	4.06	4.05	4.04	4.09	3.98	3.98	3.93	4.03	3.98	78.2	78.7
경남	4.11	4.09	3.99	4.03	4.01	4.05	4.01	4.01	4.06	4.05	76.0	78.6
제주	4.45	4.40	4.33	4.34	4.44	4.30	4.34	4.36	4.32	4.32	75.7	80.9

주1. 2013년~2017년 5점 만점 척도로 측정함 (가구여행, 개인여행으로 구분함)

2. 2018년 100점 만점 척도로 측정함 (당일여행, 숙박여행으로 구분함)

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대비 약 9.3%, 22개소 관광(단)지 개발

- 2018년 기준, 전라북도 지정 관광(단)지는 전국 227개소 대비 약 9.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22개소 소재
  - 시군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시에 가장 많은 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4개소), 그 외 부안군(3개소), 군산시(2개소), 김제시(2개소) 등 대다수 시군에 관광(단)지가 개발·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8년에는 전라북도 최초로 드래곤 관광단지가 조성됨
  - 반면, 전주시, 무주군 및 순창군은 지정 관광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전라북도 소재 지정 관광특구 총 2개소, 전국 총 31개소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관광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야간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배제하는 등 지역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전라북도 소재 2개소 지정 :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표 3-76 전라북도 지정 관광(단)지 현황

(단위 : ㎡, 일)

구분	위치	지정면적	지정일자	조성계획 승인일
은파	군산시 나운동	1,757,000	'85.08.26	'85.12.07
금강호	군산시 성산면	648,380	'92.07.16	'92.11.24
금마	익산시 금마면	208,700	'90.12.27	'90.12.27
왕궁 보석테마	익산시 왕궁면	160,460	'01.07.02	'01.07.02
미륵사지	익산시 금마면	108,743	'06.02.28	'07.12.04
웅포	익산시 웅포면	2,577,630	'99.10.11	'99.10.11
내장산 리조트	정읍시 용산동	1,587,074	'97.01.20	'06.06.29
백제가요 정읍사	정읍시 용산동	214,839	'05.12.29	'12.08.10
남원	남원시 어현동	912,400	'84.07.28	'85.10.10
벽골제	김제시 부량면	188,848	'09.03.03	'09.03.03
김제온천	김제시 백산면	533,453	'97.01.20	'98.05.27
모악산	완주군 구이면	149,665	'94.12.12	'95.05.06
윤일암 반일암	진안군 주천면	595,463	'90.12.27	'90.12.27
마이산 회봉온천	진안군 성수면	763,000	'93.12.31	'95.09.06
방화동	장수군 번암면	250,000	'88.02.19	'88.10.14
오수 의견	임실군 오수면	117,490	'07.01.08	'07.01.08
사선대	임실군 관촌면	166,000	'85.12.21	'86.10.17
석정온천	고창군 고창읍	1,501,011	'92.02.21	'93.01.07
모항	부안군 변산면	143,082	'00.12.07	'00.12.07
위도해수욕장	부안군 위도면	148,077	'93.04.30	'94.06.23
변산해수욕장	부안군 변산면	545,281	'12.09.17	'12.09.20
드래곤 관광단지	남원시 대산면	795,133	'18.09.03	'18.09.03

자료. 관광지 지정 현황,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표 3-77 전북권 지정 관광특구 현황

(단위 : km<sup>2</sup>, 일)

구분	위치	지정면적	지정일자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 용산지구	3.45	'97.01.18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 무풍면	7.61	'97.01.18

자료. 관광특구 지정 현황,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 □ 지역 내 축제·이벤트 활성화를 위한 질적 성장 도모

- 2020년 축제 및 이벤트 관련 등급제 폐지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지정 문화관광축제 29개에 6개의 신규 축제를 더하여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 35개를 최종 지정
  - 지정 문화관광축제는 광역자치단체의 신규 진입 희망 우수 지역축제를 공모 받아 현장 평가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질적 개선을 포함한 지역축제의 성장을 유도하는 국가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됨
  -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19.4.)」 및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계획(19.11.)」을 근거로 시행되며, 지정된 축제는 향후 2년 간 국비 보조금 지원 및 문화관광축제의 명칭 사용,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수혜 받음
- 전북도(2020~2021년)는 ‘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순창장류축제’ 등 지역축제 3개가 문화관광축제(전국 35개)로 지정되었으며, ‘부안마실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예비 문화관광축제(전국 33개)로 지정
  - 완주와일드푸드축제(완주군), 고창모양성제(고창군) 등의 지역축제가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시도하였으나, 지정되지 못하였으며 그 외 정읍구절초축제(정읍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장수군) 등의 지역 우수축제가 예비 대상축제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지역 특화 콘텐츠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 지속적으로 육성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요구됨
  - 지역 공동체(주민)가 주도하는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지원(18개) : 1시군1대표 작은축제(14개), 지역특화형 마을축제(4개)
- 축제 및 이벤트는 문화·관광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 유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에 따라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이용한 차별화 콘텐츠 구축 및 홍보·마케팅 정책을 수립하여 전라북도 관광경쟁력 강화 필요

□ 전국 대비 미흡한 관광수용태세 개선방안 모색 필요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소재 관광 관련 사업체는 총 2,036개소로 여행업 총 1,201개, 숙박업 총 520개소 및 야영장 122개소, 관광편의시설 총 193개소가 등록·운영 중이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기 위한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고심됨
- 관광수용태세는 다양한 관광시장 욕구와 니즈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인을 위한 주된 영향요소임에 따라서 전북권 관광수용태세 개선 목적의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함

【표 3-78】 전북권 관광 사업체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개소, 실)

구분			개소(실)
총계	업체수		
여행	일반여행업		104 (-)
	국외여행업		418 (-)
	국내여행업		378 (-)
	국내외 겸업		301 (-)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29 (2,257)
		가족호텔업	5 (2,085)
		한국전통호텔업	1 (20)
		호스텔업	7 (134)
		소형호텔업	2 (41)
		휴양콘도미니엄업	6 (738)
편의시설	편의시설업	한옥체험업	248 (1,232)
		관광펜션업	34 (400)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42 (567)
-	한국관광품질인증업		46 (678)
캠핑·야영	야영장업 (등록 111개소, 미등록 11개소)		122 (-)
관광편의시설	유원시설업	일반시설	18 (-)
		기타시설	76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희음식업	1 (-)
		관광극장유희업	8 (-)
		외국인전용유희업	16 (-)
		관광식당업	72 (-)
		관광식도업	2 (-)

자료. 부문별 내부자료(2019.6.31.),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 □ 전북투어패스 다양한 연계상품 개발 및 매력도 강화

- 전북투어패스 시군권, 체험연계 등 다양한 상품 개발로 판매량 증가
  - 투어패스 티머니권, 반디여행권, 춘향사랑권 및 연계상품(축제 7, 체험 9) 개발

▮ 표 3-79 ▮ 전북투어패스 판매량 및 이용횟수

(단위 : 매, 회,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량	증감률
판매량	126,621	184,103	236,941	52,838	28.70
이용횟수	57,597	171,282	236,600	65,318	38.13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2019

- 양질의 가맹점 운영 및 캐릭터·로고, 이모티콘 개발로 홍보 강화
  - 자유이용시설 83개소, 특별할인가맹점 1,322개소, 판매소 60개소 확보
  - 캐릭터·로고 저작권 등록, 캐릭터 인형탈 제작 및 홍보(20회), 피규어 제작 및 홍보, 이모티콘(1종) 개발

▮ 그림 3-86 ▮ 전북투어패스 관련 상품



캐릭터(투어몽, 토리몽, 패스몽)



로고



전북투어패스 티머니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여가 및 관광 중심사회로 국민 인식의 전환 확산

-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약 71.5%가 관광활동으로 응답함에 따라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
  - 현대사회는 개인의 삶과 행복이 일상생활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되는 질적 사회이며, 특히 개인의 감성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의 가시적 성과보다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사회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로 자리 잡음

그림 3-87 현대 관광트렌드 및 국내관광 여건 전망



자료. 2019~20 소셜빅데이터 활용 국내여행 트렌드 보고서. (2019.12.2.). 한국관광공사

- 그러나 낮은 국민의 국내관광 선호도에 관광객의 지역 외 누출이 심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해외여행 동향 분석에 따르면, 높은 관광활동 수요 및 욕구에도 국내관광의 경쟁력 부족으로 국민의 해외출국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이며, 따라서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보임

그림 3-88 국민해외여행 동향 분석 및 2020년 해외여행 트렌드 전망



자료. 국민해외여행 동향 분석.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모두를 위한 관광선진사회로의 도약, 국민이 우선되는 관광정책

- 정부는 국가 관광정책을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도구적 수단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
  - 현대사회는 개인의 행복한 삶, 일상적인 삶의 질이 우선되는 질적 패러다임 가치 사회로 정부는 이에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 가치실현과 동등한 조건 및 환경에서 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평등한 문화·관광활동의 영위를 우선 가치로 제시함
-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는 관광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및 여가정책 일환으로 ‘사람이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제시
  - 궁극적으로 국가 관광정책의 기조 변화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을 강조하던 과거 관점에서 탈피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이 문화·관광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접근하는 것을 권고하는 조치로 이해 가능함

Ⅱ 그림 3-89 Ⅱ 국가 관광정책의 방향과 핵심가치



자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3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20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 지방분권화의 시대,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성장 도모

- 정부는 관광산업 확대를 통해서 지역에 인구유입을 시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

- 급변하는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 지역의 저성장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특히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ye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성장 및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다각도의 움직임을 보임
- 특히,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지역관광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고심하고 있음
- 또한 국가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관광혁신으로 일구는 경제 활력, 삶의 활력’을 모토로 관광산업 혁신을 주문하고 새로운 산업분야와의 융복합 시도
  - 국민여가시간의 증가, 삶의 질 중시 분위기와 맞물려 국민의 관광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체험·경험을 중요시 하며, ICT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기반 관광체험, 관광플랫폼 산업 육성 관련 법·제도, 정책 마련이 필요함

####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신 관광정책 방향 설정 필요

- 관광산업은 서비스산업의 유·무형적 특성 상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의 사회적거리 유지가 산업 성장의 제약으로 작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관광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서 서비스 접점별 수요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고심하고 있음
  - 특히, 1인 가구 및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추이, 기술발전 및 새로운 유통·매체의 등장 등 사회적 문제와 과학기술 발전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유통체계 마련이 필요함

### 03 계획의 기본방향<sup>24)</sup>

#### □ [사람] 전북도민과 관광객 중심의 관광환경조성 방안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광활성화 중심의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한 관광 관점을 전북도민과 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전환하여 ‘사람향기가 물씬 풍기는 전북관광’ 브랜드 이미지 강화
- 전북만의 매력적 관광자원을 생애주기별·계층별로 구분하여 방문객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환경 조성

24)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2022). 전라북도

- 청소년·청년은 체험중심 관광, 근로자는 건강·휴양 관광, 고령자에게는 보다 쉽게 편리한 관광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에게는 전북도내 관광활동 지원 강화

#### □ [혁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관광생태계 능동적 대응

- 관광분야의 새로운 생태계 확장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관광 빅데이터 등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관광스타트업 및 기업 육성정책 강화
- 관광서비스 편의를 제공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전략 필요. 전라북도 관광기업 온라인 마케팅, 유통 및 웹사이트 구축 지원,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과 연계한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 전북도내 대학 연계 전문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 [안심]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힐링 여행 관광지 육성

-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으로 전염병 대안 마련 및 생태자원 보존, 환경오염방지,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세계주요도시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관광객이 관광지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 작용하므로 대안 필요
- 전북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힐링 체험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홍보를 통해 '힐링 관광 1번지'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제공

#### □ [콘텐츠] 문화·관광자원의 재해석 및 재발견을 통해 고품격 관광상품화

- 국내외 관광객 증대를 위해 전북 토탈관광 기반 구축 강화 및 농산어촌의 뛰어난 자원을 활용한 매력이 있는 전북만의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육성
- 융복합 관광·레저 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 및 소비 지출액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04 세부 추진과제

### □ 방문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관광환경 조성

-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전북관광 환경조성 방안
  - 관광약자를 배려한 관광서비스 및 인식개선 선결, 열린 관광지 조성 확대 및 관광편의시설 확충,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관광정보 제공 및 시각·청각 장애인 정보제공 지원
  - (가칭)전북관광약자지원센터 운영, 장애물 없는 관광코스 개발, 장애물 없는 여행상품 운영, 5感 체험 관광 콘텐츠 개발 등
- 전북도민과 방문객들의 관광 편익 제공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전북투어패스의 국내 및 해외 관광객 적극적 홍보, 국내 관광객 수요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해외관광객 중국·일본 시장 중심에서 아시아 시장까지 확대 전략 필요
  - 기존 관광홍보 마케팅 채널을 매체별로 다양화하며 지역별·세대별·세분화 전략 필요
- 전북관광의 조직 능력 확대 및 관광 인적 역량 강화
  - 전북문화관광재단, 시군문화관광재단, 관광두레, 관광사회적기업, 관광협동조합, 관광중간지원조직(DMO)등에 대한 핵심 역량강화를 통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전북도·시군 간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

### □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관광 혁신전략 방향

- 관광기업 혁신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및 금융·기술 지원 확대
  - 관광기업에 대한 컨설팅, 보육센터 입주, 연계망 구축 등을 지원하는 관광기업지원센터 조성, 관광스타트업 발굴, 강소형 관광기업 육성
- 전북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전북 도내 대학 관광인력 취업 종합지원망 기능 강화 및 취업단계별 관광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우수 인력 관광산업분야 진출 지원
- 전북관광 스마트 관광환경 최적화 실현
  - 전북 문화유산자원의 가상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빅데이터 기반 관광정보 제공, 개별관광객 대응 관광정보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교통 정보 제공, 스마트 쇼핑·안내정보 제공

## □ 생태관광 육성으로 안심·안전 전북관광 실현

-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중시설보다는 야외 지향적이고 바이러스프리(Virus-free)에 적합한 관광지 선택,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 각광 예측
  - 한국 속의 한국 전북의 단일관광 목적지화를 위해 1시군 대표관광지 육성, 건강 및 레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지덕권산림치유원 연계 활용
- 전국 최초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홍보 및 ‘청정 전북’ 상품 개발
  - 생태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1시군 1생태관광지 활성화 및 통합브랜드 전략 마련,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고창갯벌 해양관광거점 육성, 김제 벽골제 농업·농촌문화, 지평선 생태환경 활용 농경문화직업 체험관 조성
- 전북 동부권 휴양·힐링 거점 마련을 위한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 섬진강의 역사·문화·생태·환경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 무주 반디센터, 장수 승마레저파크,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옥정호 수변 레저관광(정읍, 임실), 순창 실랜드 휴양 관광, 남원 허브클러스터 등 연계 상품 활용

## □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로 전북관광 매력도 향상

-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북 여행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명품 콘텐츠 제공
  -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거점도시 전주’를 국내·관광객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 브랜드로 육성 및 관광지 재생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추진
  - 무주 태권도원 자산을 활용한 태권시티 조성 및 고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의 관광자원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유적과 정읍 무성서원 문화자원의 세계화 방안 마련
- 새만금 해양관광의 본격화 및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 고군산군도의 자원 및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글로벌 해양거점 조성,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 육성을 위한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및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 및 발굴
  -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 준공에 따른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및 해외 마케팅 기능 강화
- 개인의 삶의 질 추구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라이프스타일 변화
  - 3대가 함께하는 취미생활 키덜트산업 육성, 내륙권 수상레저 활동 기능 강화, 1인 여행객 관광상품 개발, 지속적인 대표 먹거리 개발 및 육성,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등

## 제8장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SOC 대동맥 완성

### 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국2·전북1시간 도로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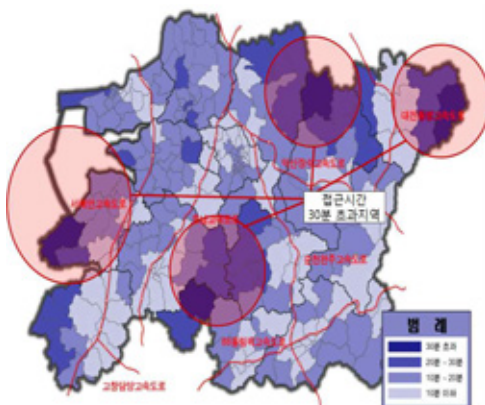
#### 01 현황 및 문제점

##### □ 광역 및 지역차원의 인프라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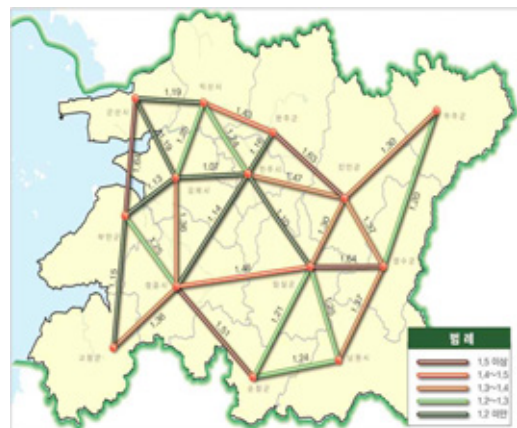
- **[광역 도로인프라 불균형]** 전라북도 주요 광역 연계 인프라인 고속도로는 대부분이 남북방향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어 동서 간 연계성이 떨어져 광역연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꾸준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요구
  - 남북 위주의 연계로 고속도로 접근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면이 무주, 완주, 순창, 부안 소재지 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도 20분 이상 접근시간이 필요한 상황
- **[시·군간 접근성 미흡]** 전라북도의 인접 시·군간 이동 시 평균 우회율은 1.3으로 평균적으로 30%의 우회를 하고 있으며, 우회율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직선거리 대비 60%이상 우회하여 접근하고 있어 내부간선도로 건설이 필요함
  - 우회율 : 실제 이동거리/직선통행거리

■ 그림 3-90 ■ 고속도로 접근시간 및 시·군간 우회율

고속도로 접근시간



시군별 우회율 분석 결과



자료.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 (2015), 전라북도

## □ 특정 지역 편중된 교통량

- **[적은 통행량]** 전라북도 일평균 교통량은 9,283대/일로 전국평균인 15,348대/일의 약 60% 수준으로, 광역지자체 중 7순위로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어 통행량 기반 경제성 기준의 인프라 투자에는 불리한 상황임

【표 3-80】 전국 교통수단별 교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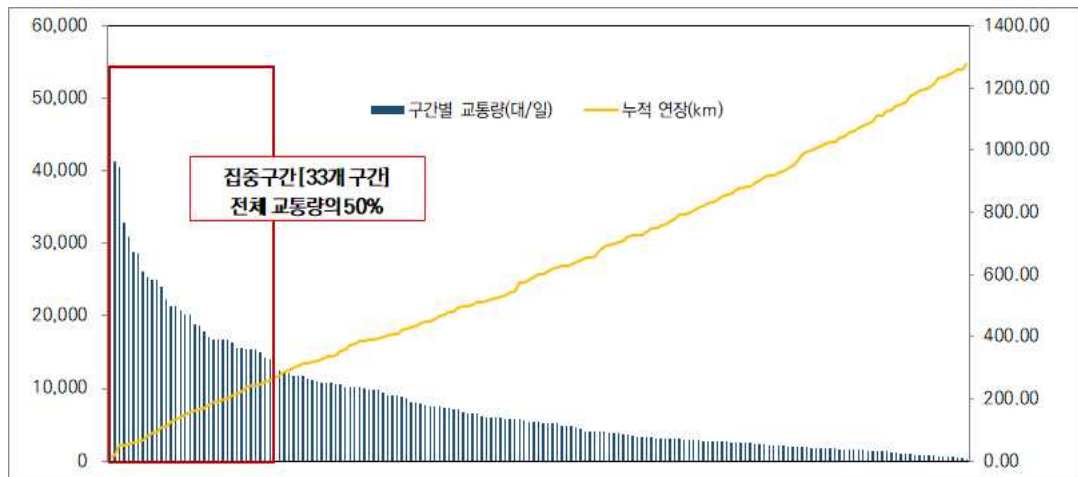
(단위 : 대/일)

구분	계	승용차	버스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대형 화물차
경기도	38,227	28,699	891	6,332	1,974	331
강원도	7,885	5,927	264	1,192	439	63
충청북도	12,811	8,768	315	2,328	1,103	297
충청남도	17,091	12,292	459	2,743	1,305	292
전라북도	9,283	6,492	273	1,640	705	173
전라남도	8,617	6,180	220	1,689	430	98
경상북도	11,435	7,719	282	2,172	960	302
경상남도	14,240	10,020	322	2,484	1,021	393
제주도	12,131	9,673	496	1,692	256	14
평균	15,348	11,071	388	2,643	998	248

자료.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통계DB(2019), 국토교통부

- **[집중된 교통량]** 전라북도는 평균 교통량은 낮으나, 상시조사 지점의 구간별 교통량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16구간 중 33개 구간에서 전체 교통량의 50% 이상이 통과하고 있어 교통량 집중 구간에서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3-91】 도로구간별 교통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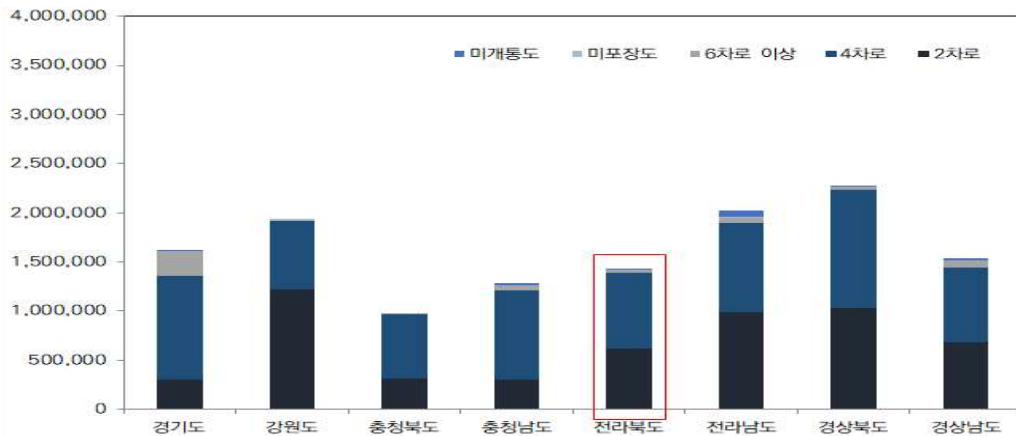


자료.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통계DB(2019), 국토교통부

## □ 도로시설 확보

- 전라북도 일반국도의 도로연장은 1,454km로 광역시 및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6번째로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2차로 615km와 4차로 785km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Ⅱ 그림 3-92 Ⅱ 도로스톡 분석



자료.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통계DB(2020), 국토교통부

## □ 교통사고 심각도 개선

- 전라북도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79.1건/10만 명으로 전국평균인 420.5건/10만 명보다 낮은 편이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3.5명/10만 명으로 전국평균(7.3명/10만 명)보다 높은 상황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전성 개선 사업이 필요함

Ⅱ 표 3-81 Ⅱ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단위 : 건/10만 명, 명/10만 명)

구분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전국 평균	420.5	7.3
경기도	412.6	5.2
강원도	491.9	12.9
충청북도	596.3	13.9
충청남도	406.6	16.3
전라북도	379.1	13.5
전라남도	545.2	18.4
경상북도	520.7	15.2
경상남도	341.4	9.9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DB(2019), 도로교통공단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도로의 공공성 강화

- **[국도 위상 재정립]** 기존 간선도로의 단절구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국도 역할 회복을 도모
  - 해안도로인 국도77호선 등 단절구간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 예정 중
- **[선택과 집중]** SOC 신규사업에 대한 도로의 투자여력 감소를 감안하여 기능평가를 추진하여 시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
- **[교통소외지역 배려]** 경제성 뿐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낙후도, 안전성 등을 종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로투자 방향으로 선회

### □ 도로안전성 강화 및 특화 고려

- **[안전투자 확대]** 기존의 이동성 중심의 신설 및 확장에서 안전성 중심의 시설 개량사업에 대해 집중 투자
  - 사고 발생 후 조치가 아닌 사고발생 이전의 위험성을 검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
- **[도로 특화]** 각 도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경관도로, 대피도로, 우회도로 등)을 고려한 도로 투자 예정
  - 대피도로나 특화 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 면제 등

### □ 핵심 SOC 중심투자 확대

- **[균형발전]** 균형발전 거점에 대한 광역 및 지역연계 인프라 우선 지원 추진
  - 균형 발전 거점 : 새만금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 지역경제 거점
- **[노후 SOC]**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SOC(교량, 터널, 도로시설 등)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임
- **[민자사업 추진]**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완료 후 조기착공 추진 및 신규 제안사업에 대한 조속 검토를 통하여 민자사업을 활성화

### 03 계획의 기본방향

- 전국 2시간 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 지역 간(동서남북축) 간선망 확충을 통하여 광역 연계성 확보
  - 고속도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개발 견인 및 혼잡구간 투자
- 도시부 혼잡 완화 및 전북 1시간 연계성 확보
  -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한 대안도로 건설 및 확장 사업 등 추진
  - 전북 도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 건설을 통하여 전북 1시간 생활권 구축
- 노후 SOC 집중관리 및 국민생명지킴 교통인프라 조성
  - 노후 SOC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 교통 안전성 향상 위한 위험도로 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

### 04 세부 추진과제

- 전국 2시간 광역 연계 인프라 확보
  -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 건의]
    - 총 사업비 48,578억 원, L=128.1km, 4차로 신설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건설중]
    - 총 사업비 20,292억 원, L=55.1km, B= 23.4m 4차로 신설
  - 서해안고속도로 확장(동서천~서김제~고창)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 건의]
    - 총 사업비 21,600억 원, L= 79.0km, 4→6차로 확장
  - 호남고속도로 확장(삼례~김제~정읍)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15~2020) 반영]
    - 총 사업비 11,694억 원, L= 46.5km, 4→6차로 확장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 추진확정]
    - 총 사업비 26,694억 원, L= 137.7km, 4차로 신설

- 새만금-세종 고속도로 건설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건의 예정]
  - 총 사업비 13,290억 원, L=30.0km, 4차로 신설
-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 건의]
  - 총 사업비 29,017억 원, L=65.5km, 4차로 신설

#### □ 도시부 혼잡 완화 및 전북 1시간 연계 인프라 구축

- 사업 내용 : 총 사업비 58,926억 원, L=465.5km
  - 일반국도 38건, 국대도 5건, 국지도 13건



#### □ 국가공공의 선지원을 통한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 조성

- 새만금 내부간선 6개 노선 및 순환링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인프라 재정투자
  - 총 사업비 18,134억 원, L=63.87km [새만금기본계획(2021) 반영]

#### □ 노후 SOC 집중관리 및 국민생명지킴 교통인프라 완성

- 노후 SOC 집중관리 : 디지털 SOC사업과 연계한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과 자율주행,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비한 친환경 디지털 교통인프라 개선 추진
- 국민생명지킴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험도로 개선, 마을보호구역,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구축 등 교통안전개선사업 지속 및 확대 추진



## 2 지역개발 여건 혁신을 위한 교통연계체계 구축

### 01 현황 및 문제점

#### □ 요약

- 전라북도 철도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익산역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위주로 철도가 구축되어 있어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균형있는 철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3-82 전라북도 철도 현황

(단위 : km)

구분	노선명	운행구간	연장	비고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서울(용산)~목포	370.6	고속철도전용선
일반철도	호남선	대전~목포	191.6	복선전철
	전라선	익산~여수	180.4	복선전철
	장항선	천안~익산	108.1	단선비전철

자료. 내부자료(2020), 전라북도

그림 3-93 전라북도 철도 현황



## □ 철도이용객

- 전라북도 철도이용객은 2014년 9,527,871명에서 2018년 11,338,243명으로 연평균 4.4%증가하고 있으며, 익산과 전주에서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83 전라북도 철도 이용객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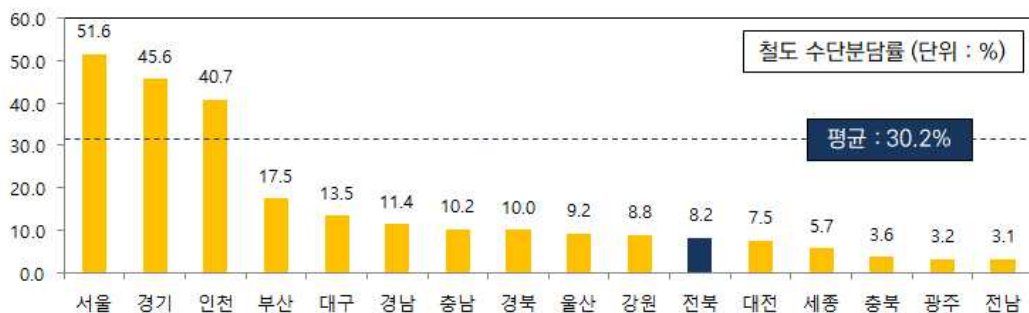
역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율
합계	9,527,871	10,347,850	10,791,234	10,900,642	11,338,243	4.4
함열	136,838	123,955	112,991	103,932	98,051	-8.0
익산	3,900,864	4,477,499	4,855,852	4,793,720	5,101,064	6.9
김제	540,202	478,276	433,671	412,411	417,881	-6.2
신태인	135,074	125,029	115,901	107,328	106,236	-5.8
정읍	1,090,633	1,154,229	1,207,910	1,107,197	1,147,203	1.3
삼례	116,589	112,963	109,830	106,759	117,658	0.2
전주	2,340,432	2,558,479	2,676,783	2,978,841	3,063,088	7.0
임실	65,782	73,627	73,371	73,059	71,513	2.1
오수	100,259	89,305	81,056	78,916	75,098	-7.0
남원	687,739	710,045	698,292	718,049	727,699	1.4
군산	405,097	436,921	418,542	413,711	406,323	0.1

자료. 철도연보(2014~2018), 한국철도공사

## □ 공로 위주의 이동

- [낮은 철도 수단분담률]** 전라북도와 수도권간의 통행량 중 고속철도 수단분담률은 8.2%로 전국 평균 30.2%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공로를 활용하여 이동하고 있음
  - 공로를 이용한 운송은 교통 혼잡, 안전문제 발생 대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림 3-94 철도 수단분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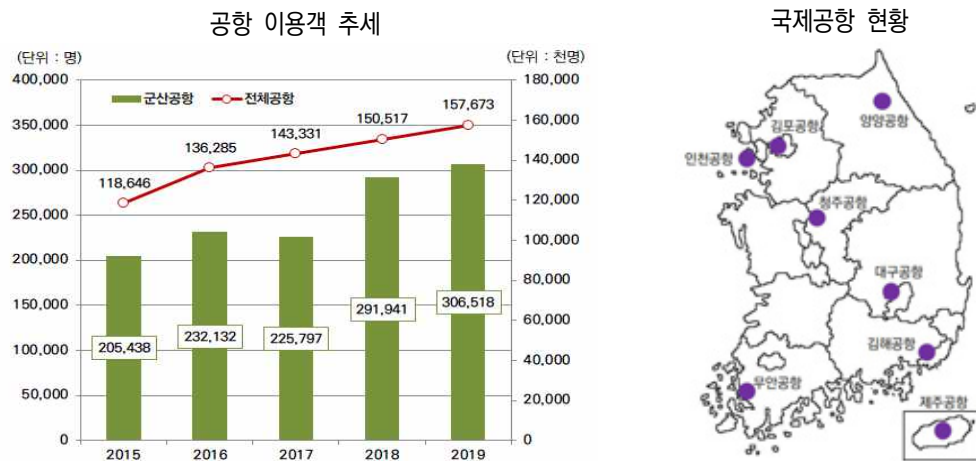
주. 승용차 및 버스 통행량과 일반·고속철도·지하철의 수단분담률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KTDB\_2020년 주수단별OD(외부 통행), 한국교통연구원

□ 수요증가 및 지역형평성을 고려한 국제공항 필요

- [공항수요 증가] 코로나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 말까지 전국 공항이용객 및 군산공항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역형평성 확보] 전라북도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제공항은 부재한 상황으로 지역형평성과 글로벌 교류기반 확보를 위한 국제공항 도입이 필요함

┃ 그림 3-95 ┃ 공항이용객 추세 및 국제공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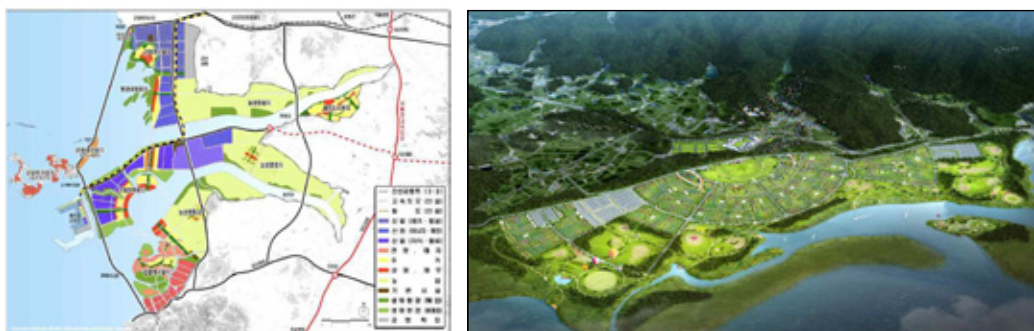


자료. 항공통계(2020), <https://www.airport.co.kr>, 한국항공공사

□ 새만금 개발 및 세계잼버리 대회 지원 필요

- [새만금 개발 지원] 민자 유치를 위한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및 대중국의 인력·관광·물류 수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공항이 필수적임
- [세계잼버리 대회 지원] 해외 4만 명이 참가 예정 중인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제공항의 확보가 필요함

┃ 그림 3-96 ┃ 고속도로 접근시간 및 시·군간 우회율



자료.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용역. (2015). 새만금개발청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 **[고속철도 서비스지역 확대]** 호남2단계 등 계속사업 추진과 수요대비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연결선 건설로 서비스 확대 추진
- **[일반철도 고속화]** 신성장동력 창출하고 거점 간 빠른 이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일반철도 선형개량과 고속화 노선신설 추진(250km/h급 이상)될 예정
- **[산업활동 지원]** 주요 산단 및 항만 등에 인입선 건설을 통해 물동량 처리 지원을 통하여 산업 활동을 지원 활성화
- **[단절구간 연결]**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을 통하여 철도 연계성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

### □ 통일대비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 **[남북철도 연결]**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과 연계된 우리측 단절구간 연결 우선 추진될 예정
- **[남북/대륙철도 운송준비]** 북한철도 개보수 및 구축방향을 마련하고 대륙철도 운송기반(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등) 조성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거점역 지정을 통한 교류협력방안을 모색

### □ 항공기 시장의 성장과 Point to Point 방식의 저비용항공사(LCC) 강세

- 거점공항 혼잡과 지방공항 역할 대두에 따른 공항운영 특화 방향 모색
  -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 말까지 항공산업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의 경우 혼잡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분산하고자 제2터미널을 개항하는 등 지방공항의 부담 필요성이 대두
- Point to Point 방식 운영으로 수요기반 노선 제공을 통한 지방공항의 경쟁력 강화
  - 실제로 2014년도에 항공수요가 유사하였던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은 대구공항에 LCC 거점항공사인 티웨이항공사와 중국 LCC노선을 신규노선을 유치함에 따라 2016년 이후 이용객 격차가 나타남

### 03 계획의 기본방향

- 환황해 중심지 도약을 위한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 전북 글로벌 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권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공항 건설
  - 국제항공노선 지속 개발 및 항공관련 연계 산업 유치로 항공산업 활성화
- 전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연계체계 구축
  - 전라북도 물류 및 여객 운송 효율화를 위한 철송망 구축
  -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 미래교통의 백년지계 하이퍼루프 선점
  - 미래교통 이미지 선점을 위한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 획기적인 지역개발 선도를 위한 미래형 교통체계 도입

### 04 세부 추진과제

- 전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 전라북도 글로벌 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권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반마련
    -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건설중 : 총 사업비 7,800억 원, 활주로 1개소, 여객터미널 1동, 계류장 등
    - 국제노선 지속적 발굴 및 산단 내 항공물류무역서비스항공정비센터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공항경제특구 추진
- 지역개발 여건 혁신을 위한 첨단교통 연계체계 구축
  - 지역개발 여건을 개선해줄 철도망 구축
    -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 총 사업비 1조2,953억 원, L=47.6km(단선전철), 새만금항~대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반영]
    -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건설 : 총 사업비 4,163억 원, L=11.4km(단선전철), 동익산신호소~완주산업단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추가검토]

- 전라선 고속화철도 건설 : 총 사업비 3조1,140억 원, L=168.9km(복선전철), 전북 익산~전남 여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반영]
- 서해안선 철도 건설 : 총 사업비 2조9,828억 원, L=151.6km(단선전철), 새만금~전남 목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추가검토]
- 전주~김천 철도 건설 : 총 사업비 2조3,894억 원, L=101.1km(단선전철), 전북 전주~경북 김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추가검토]
- 광주~대구 철도 건설 : 총 사업비 4조850억 원, L=203.7km(단선전철), 광주~경북 대구 (전북 경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반영]
-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 전주~새만금 BRT 전용도로 구축 : 총 사업비 1,247억 원, L= 43.0km [자체구상]
  - 전북권 광역철도(트램~트레인) 운영 : 총 사업비 4,500억 원(1단계 940억 원), L=43.0km, 새만금~김제~전주 트램 연결노선 구축 [자체구상]
  - 백두대간 친환경 전기열차 건설 : 총 사업비 2,710억 원, L=36.29km [공모대응]
    - [1단계] 1,182억 원, 13.23km, 육모정~정령치
    - [2단계] 1,528억 원, 23.06km, 정령치~도계쉼터~달궁, 도계쉼터~천은사

#### □ 미래교통의 백년지계 하이퍼루프 선점

- 미래교통 이미지 선점을 위한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 총 사업비 1,500억 원, 진공관 등 테스트 시설 [공모대응]
- 획기적인 지역개발 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형 교통체계 도입
  - 호남 및 대중국 하이퍼웨이 건설 : 총 사업비 129,500억 원(전북구간), [자체구상]
    - (1단계) 서울-전북-제주(호남선),
    - (2단계) 부산-전북-중국(국제선)

### 3 시스템 혁신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복

#### 01 현황 및 문제점

##### □ 전라북도 BIS 설치·운영 확대 필요

- 전라북도 BIS는 11개 시군에서 현재 설치·운영 중이며, 총 722개소의 승강장에 설치가 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승강장으로 확대 설치·운영이 필요함
  - 전라북도 버스 승강장은 2019년 기준 9,486개소(유개 6,525, 무개 2,961)

표 3-84 전라북도 BIS 설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BIT 설치	운영 및 센터	구 분	BIT 설치	운영주체
전주시	434	지자체	장수군	11	위탁(안전공단)
군산시	32	지자체	임실군	13	위탁(안전공단)
익산시	98	위탁(안전공단)	순창군	4	위탁(안전공단)
정읍시	34	위탁(안전공단)	고창군	21	위탁(안전공단)
진안군	10	위탁(안전공단)	부안군	33	위탁(안전공단)
무주군	32	위탁(안전공단)	-	-	-
총계	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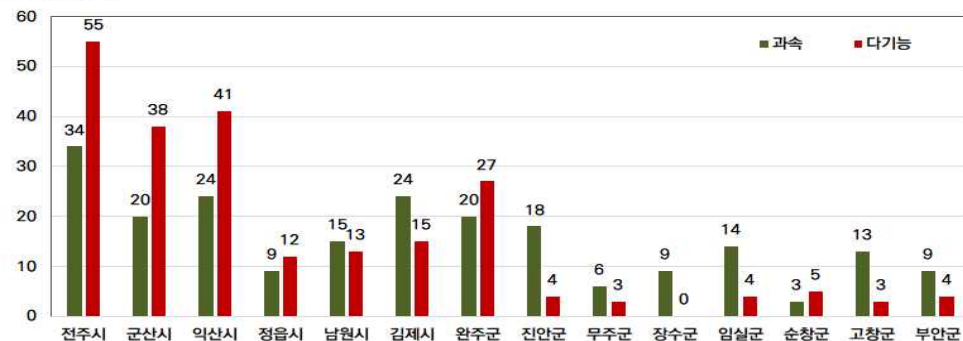
자료. 내부자료(2020), 전라북도

##### □ 정보수집 시설 및 교통제어 시설 부족

- 교통정책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교통상황을 전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ITS시설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그림 3-97 시·군별 교통제어 시설(과속 및 다기능)

(단위: 개, km)



자료. 내부자료(2020), 전라북도

표 3-85 ITS설치 현황

(단위 : 개소, km)

구분			시·군		
			전주	군산	익산
교통 정보	수집	DSRC-RSE(개소)	152	53	-
		CCTV(개소)	56	46	11
		VDS(개소)	0	31	14
	제공	VMS(개소)	18	21	3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온라인(개소)	724	300	-
		감응(개소)	36	-	-
		우선신호(개소)	-	2	3
주차정보시스템			-	-	-
ITS 구축 연장(km)			27	109	34

자료. 내부자료(2020), 전라북도

## □ 전국대비 높은 대중교통 사각·취약지역 분포

- 전라북도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지역은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전국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사각지역 비율: (시 지역) 44.6%, (군 지역) 26.0%,
  - 취약지역 비율: (시 지역) 53.0%, (군 지역) 48.9%
- 이러한 전라북도 대중교통 취약지점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행복콜(DRT) 서비스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객 수가 증가
  - 행복콜버스 : 9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35대
  - 행복콜택시 : 12개 시군(군산, 남원, 미시행)/438개 마을

표 3-86 대중교통 취약·사각지역

(단위 : 개, %)

구분	시지역 (법정동 지역)					군지역 (법정리 지역)				
	동지역	사각 지역	사각 분포	취약 지역	취약 분포	리지역	사각 지역	사각 분포	취약 지역	취약 분포
경기도	597	114	19.1	229	38.4	1,404	166	11.8	492	35.0
강원도	179	69	38.5	110	61.5	1,144	383	33.5	454	39.7
충청북도	136	61	44.9	68	50.0	1,381	416	30.1	617	44.7
충청남도	124	44	35.5	66	53.2	1,971	305	15.5	990	50.2
전라북도	251	112	44.6	133	53.0	1,463	380	26.0	716	48.9
전라남도	192	60	31.3	98	51.0	2,549	783	30.7	1,078	42.3
경상북도	295	129	43.7	129	43.7	2,784	801	28.8	1,226	44.0
경상남도	348	124	35.6	177	50.9	1,832	475	25.9	809	44.2
합계	2,122	713	33.6	1,010	47.6	14,528	3,709	25.5	6,382	43.9

주1. (사각지역)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 기준 미달 지역, (취약지역)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 중 1가지 기준 미달 지역

2. (공간적 접근성 기준) 버스정류장이 법정동 400m 이내, 법정리 800m 이내에 존재하는지 여부

(시간적 접근성 기준)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법정동 시간당 2회, 법정리 일일 2회 이상 운행하는지 여부

자료. 2018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 보고서(p.264~274, 재구성),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포용적 교통정책 수요 증가

-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성장 둔화로 인하여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약자도 함께 역시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교통정책의 수요가 증가
  - UN HABITAT에서는 2016년에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라는 새로운 도시의제(The New Urban Agenda)를 통해 누구나 일정수준의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등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이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 친환경·첨단기술 교통정책 활용수요 증가

- 기술이 발전과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친환경 교통수단]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첨단·친환경 교통수단인 드론택시,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연구와 도입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첨단 교통체계] 이용자가 필요한 교통정보를 편리하게 접근·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 □ 교통 빅데이터 시장의 지속적인 규모 확대

- 교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통 빅데이터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빅데이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
  - [교통 빅 데이터 활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빅 데이터 시장은 2015년 2억 6천만 달러에서 2020년 8억 9천만 달러로 5년 동안 3배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03 계획의 기본방향

-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약자 등에게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DRT, 광역이동센터 연계 등을 통한 교통복지 차원의 교통서비스 제공함
  -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통하여 DRT, PM, 공유 자동차, 대중교통 등의 연계, 결제 이용자의 위치 및 수요에 적합한 최적의 경로 정보 등 이용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제공함
- **선진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SOC 구축**
  - 기존 ITS와 연계한 미래교통수단 도입과 관련시설을 정비하고 선진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서비스체계 확립함
  - 생활인프라 관련 지역기반시설의 디지털화 추진을 통하여 시설물 스마트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기반시설의 데이터 수집·가공·공유 확대함

### 04 세부 추진과제

-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MaaS) 서비스 제공**
  -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통하여 DRT, PM, 공유 자동차, 대중교통 등의 수요에 적합한 최적의 경로 정보 등 이용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이용 지원]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의 한계로 인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약자 등에게 미흡하게 제공되었던 대중교통 서비스를 DRT, 교통약자 광역이동센터 연계 등을 통하여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관광지원·결제 서비스] 여행 통합 패키지 상품 개발, 통합결제 가능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하여 관광형 전북패스 통합결제, 1일 단위의 후불결제 승인 서비스 제공함
    - [최적 경로 정보 제공] 관광DRT(미니버스(거점), 투어버스(순환), PM(전동킥보드, 전동휠, 자전거), 공유 자동차(기차, 쏘카, 렌터카), 대중교통(버스, 택시, 기차) 등의 연계로 이용자의 위치 및 수요에 적합한 최적경로 및 이동서비스 제공함

## □ 선진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SOC 구축

- ITS와 연계한 미래교통 및 교통서비스체계 확립
  - [드론택시 도입] 자유로운 비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정개정 등을 통하여 비행자유화 구역 지정 및 시범운영 추진함
  - [자율주행차 도입] 자율자동차 시범운영 구역 확대 운영 추진함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 현재 운영 중인 행복콜(DRT) 버스·택시 서비스의 지속적인 교통복지 차원의 교통서비스 제공함
- 지역기반시설의 디지털화 추진
  - [정보 수집·제공]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가공·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마련(CCTV, VDS, 빅데이터 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VMS, 주차정보 시스템, BIS 등) 구축함
  - [교통 제어·단속] 교통류 제어, 돌발상황 관리, 자동교통단속(주차, 과속, 신호위반 등) 등 교통자동 관리 시스템 구축함
  - [전북광역모빌리티센터 건립] C-ITS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디지털도로 및 스마트시티 리빙랩 도입을 반영한 광역모빌리티센터 구축함. 노후 지역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통합운영 및 관리 할 수 있는 AI기반 통합시스템으로 구현함

## 4 항만·물류산업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활용

### 01 현황 및 문제점

#### □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 처리 현황

-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 현황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료, 차량 및 부품, 광석류 등의 취급량이 많음

표 3-87 군산항 품목별 물동량

(단위 : 천 톤)

구 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합 계	19,234	18,411	19,241	18,881	18,487	18,635	18,610	18,704	19,818	19,255
양 곡	933	846	938	760	596	22	52	41	163	95
옥수수	830	781	866	713	563	-	-	-	-	-
기 타	103	65	72	47	33	-	-	-	-	-
사 료	4,895	4,669	4,161	4,656	4,853	2,063	2,278	2,257	2,118	1,858
옥수수	2,512	2,454	2,083	2,253	2,536	2,974	2,497	2,217	2,107	2,370
기 타	2,383	2,215	2,078	2,403	2,317	-	-	-	-	-
유 연 탄	2,468	2,147	352	0	-	-	-	-	-	-
시 멘 트	1,322	1,003	1,132	974	914	996	1,112	1,231	1,179	1,150
슬 래 그	634	256	563	557	330	233	388	343	337	313
광 석 류	764	1,174	976	833	827	910	1,547	1,092	1,251	1,300
모 래	10	122	544	658	825	1,094	831	180	257	570
원 목	509	645	747	754	746	772	809	705	820	708
목재및목탄	539	734	500	133	-	-	-	-	-	-
펠 프	842	815	797	851	830	747	646	637	760	748
고 철	337	355	384	464	459	587	650	815	544	491
철 강 류	494	476	617	684	799	997	995	869	982	786
차량및부품	1,449	1,828	4,349	4,289	4,285	4,115	3,333	4,368	4,938	4,886
화공생산품	354	340	315	338	340	296	240	231	363	349
당 류	403	192	269	389	317	421	535	457	423	454
비 료	309	207	58	48	50	95	111	88	145	70
유 류	1,349	1,217	1,105	1,164	1,289	1,324	1,548	1,783	1,698	1,683
기 타	1,624	1,385	1,434	1,329	1,027	989	1,038	1,390	1,733	1,424

자료. <http://gunsan.mof.go.kr/index.do>(접속일 : 2020.04.1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컨테이너 화물은 2010년 처음 10만 TEU를 넘어선 후 2011년 12만 TEU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 2018년부터 8만 TEU 수준을 유지
  - 군산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6부두, Container Crane 설치, LOLO방식)와 국제여객터미널(RORO방식)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
  - 국제카페리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물동량의 63.2%를 카페리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88】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처리 현황

(단위 : TEU, %)

구분	6부두(GCT)		5부두		카페리		합계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	
2008년	12,964	50.1	-	-	12,927	49.9	25,891
2009년	53,075	77.9	-	-	15,085	22.1	68,160
2010년	83,024	79.5	76	01	21,310	20.4	104,410
2011년	93,857	76.7	-	-	28,528	23.3	122,385
2012년	37,898	58.0	-	-	27,404	42.0	65,302
2013년	11,757	27.4	-	-	31,098	72.6	42,855
2014년	15,175	31.6	-	-	32,791	68.4	47,966
2015년	14,579	32.7	12	00	29,970	67.3	44,561
2016년	20,309	35.9	-	-	36,255	64.1	56,564
2017년	31,290	45.7	-	-	37,216	54.3	68,506
2018년	36,284	45.2	-	-	44,056	54.8	80,340
2019년	29,592	36.8	-	-	50,722	63.2	80,314

자료. 선박·화물 입출항 통계 누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전라북도 수출·입은 최근 10년간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1% 규모임

【표 3-89】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전북	수출	4,966	7,828	6,309	6,291	7,952	8,556	10,116	12,007	12,818
	수입	3,826	5,446	4,583	3,893	4,281	4,944	4,470	4,624	5,222
	수지	1,140	2,382	1,725	2,398	3,671	3,612	5,646	7,384	7,596
전국	수출	407,579	604,860	573,694	495,426	526,757	572,665	559,632	547,870	555,214
	수입	378,290	535,202	478,478	406,193	436,499	527,855	515,586	519,584	524,413
	수지	29,288	69,657	95,216	89,233	90,258	44,809	44,047	28,285	30,801
비율	수출	1.22	1.29	1.10	1.27	1.51	1.49	1.81	2.19	2.31
	수입	1.01	1.02	0.96	0.96	0.98	0.94	0.87	0.89	1.00

자료. <http://stat.kita.net>(접속일 : 2020.04.13.), 한국무역협회

## □ 전라북도 유일한 수출·입 물류 거점 ‘군산항’ 연계 인프라 한계

- 현재 전라북도 물류 인프라는 ‘군산항’이 유일하며, 지역 산업단지 전진기지로 역할을 수행
  - 기본적인 역할은 지역 산업단지의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해외 원료의 안정적 수급, 완제품 수출의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음
  - 양곡, 유연탄, 모래, 목재, 잡화, 시멘트 등 원료 수급을 처리한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제품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자동차 전용부두를 갖추고 있음
  - 31개의 선석, 6,756미터의 부두 등 항만 인프라와 연간 2,797만 톤을 하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 군산항의 인프라는 항만 건설 및 운영계획에 맞추어 유지되고 있지만, 관련 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 위기로 연계되는 취약한 구조를 형성
  - 항만 인프라의 역할을 본연적 관점에서 수출·입 화물 처리에만 맞추어 유지하다 보면, 2016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 2020년 OCI 군산공장 폴리실리콘 생산중단 등 입주 산업 위기에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이러한 어려움은 해당 산업의 회복 또는 다른 산업을 유치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으며, 이러한 해결은 유치 산업의 위기가 발생하면 악순환이 반복
- 수출·입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려면 관련 산업과 군산항을 연계하는 신규 인프라 필요
  -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폴리실리콘 등 산업 특성에 따라 별도의 지원 인프라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식품산업은 콜드체인 체계 구축이 될 경우 기존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여 입주 기업의 이탈을 예방할 수 있음
  - 콜드체인의 거점은 첨단 초저온창고가 될 수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콜드체인 거점으로 첨단 초저온창고가 입주할 경우 식품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으며, 산업 위기 시에도 극단적인 지역 이탈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음

표 3-90 군산항 부두 현황

부두명	길이(m)	접안능력(DWT×척)	하역능력(천 톤)	취급화물
1부두(3선석)	525	20,000×1, 10,000×2	1,320	잡화
2부두(3선석)	551	5,000×1, 20,000×2	1,410	잡화
3부두(3선석)	640	20,000×3	1,960	시멘트, 잡화

부두명	길이(m)	접안능력(DWT×척)	하역능력(천 톤)	취급화물
4부두(2선석) (자동차부두)	600	20,000×2	2,840	자동차
5부두(8선석)	1,680	20,000×8	5,870	자동차, 잡화
6부두(4선석)	930	20,000×1(일반), 30,000×1(일반), 30,000×2(컨)(4,000TEU)	2,080(일반) 5,390(컨) (304천TEU)	양곡, 컨테이너
7부두(3선석)	800	50,000×2, 30,000×1	2,740	잡화, 양곡
7부두(1선석) (유연탄부두)	240	30,000×1	2,630	유연탄
7부두(2선석) (민자부두)	500	30,000×2	1,580	잡화
모래부두	110	3,000×1	710	모래
국제여객부두	180	15,000	-	컨테이너
역무선부두	210	150이하	-	-

자료. gunsan.mof.go.kr.(접속일 : 2019.11.0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군산항에 개설된 정기선 항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실제 감소 추세이지만, 2020년 1월 기준 주 11.5항차 운항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경유
  -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로 개별 소비자가 직접 해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역직구가 급증
  - 군산항과 시다오항(중국 산둥성) 간 주 6항차 국제카페리(cargo-ferry)서비스를 통하여 수송되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없는 관계로 인천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통관장과 이를 지원하는 물류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산업과 별개의 인프라 활용 방법을 고안할 수 있으며, 지역 물류 일자리 창출, 물류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표 3-91】 군산항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및 항로 현황

선사명	항로	적재능력(TEU)	운항횟수
동영해운	군산↔중국(다롄/옌타이)	1,009	주2회(월, 금)
	군산→부산→일본(도쿄/요코하마)	962	
	군산→닝보→상하이→인천	1,009	주1회(일)
	인천→군산→광양→부산→베트남(하이퐁)→중국(샤먼)→인천	962	격주1회(토)

선사명	항로	적재능력(TEU)	운항횟수
팬오션	군산→부산→광양→청다오	700	주1회(화)
SOFAST	부산→군산→렌원강→웨이하이→부산	1,050	주1회(일)
석도 국제훼리	군산↔시다오	218/1,200명	주3회(화, 목, 일)
		218/1,200명	주3회(월, 수, 금/토)

주. 해당 항로는 유지되고 있으나, 선사의 사정상 잠정 운항이 보류된 일부 노선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한중국제기훼리는 주 6항차 서비스가 주 1항차, 주 2항차 등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2020년 5월 기준 주 3항차 서비스 중임  
 자료. gunsan.mof.go.kr & shidaoferry.com.(접속일 : 2020.01.0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석도국제훼리(주)

## □ 주력산업 연계성 부족, 물동량 창출 한계

- 전라북도 주력산업 지원 정책은 혁신성장산업국(혁신성장정책과, 주력산업과, 탄소융복합과,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담당
  -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주력산업과에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기계산업, 뿌리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으로 관리
  - 수출·입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는 주력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의 수입과 완제품의 수출을 연계하는 것이 기본 전략
  - 전라북도 주력산업의 파생적 수요로 발생하는 물류는 주력산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전라북도 주력산업 중 일부는 타 지자체의 주력산업과 일치하여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 구조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산업 기반, 소비시장(내수, 해외) 등을 고려한 경쟁에 한계가 있음
  - 궁극적으로 생산단가와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입지 선정을 하며, 2016년 현대중공업, 2018년 한국GM은 전략적 선택으로 타 지자체의 생산 공장을 유지
  -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에 전기차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주한 명신도 초기 계획과 달리 수출보다는 내수용 전기차 생산으로 기업 운영 전략을 변경
  -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의사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생태계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산업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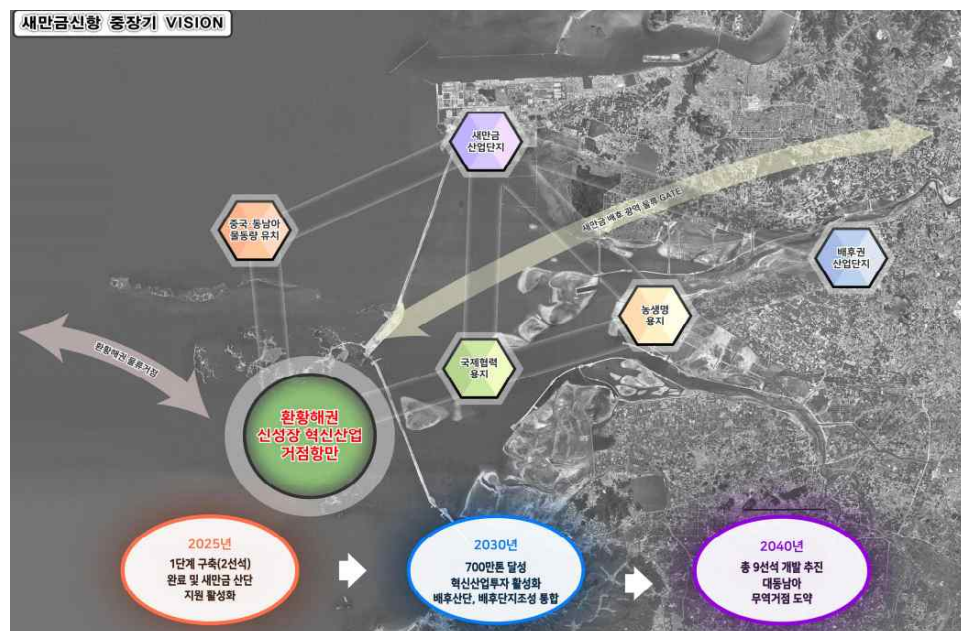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 2019년 8월 고시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새만금신항만 건설계획 발표
  - 새만금신항만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2010)’시 동북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물류거점, 해양관광, 해양레저 기능을 수행하는 서해안 복합 거점항만으로 신설 계획 반영
  - 기본목표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
- 새만금신항만의 건설 및 운영계획
  - 항만·물류 기반 인프라의 적기 조성을 통하여 농생명용지, 산업단지, 국제협력 용지 등 배후단지의 항만 인프라 연계성 강화
  - 군산항 수심부족에 따른 항만 효율성 저하 대비, 5만 톤급 이상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한 부두시설 확보와 전북지역 관광수요 증가 대비
  - 청정항만 구현을 위하여 항만내 접안, 정박시 고유황연료유 사용 중지, 육상전기 사용을 위한 AMP 설치 등 추진

Ⅰ 그림 3-98 Ⅰ 새만금신항만 단계별 향후 비전



자료.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 해양수산부

## □ 신규 물류 인프라 역할 검토

- 물류 인프라는 수출·입 거점으로 ‘군산항’이 유일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신항만’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될 경우 해운물류와 항공물류가 결합하는 복합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는 강점이 될 수 있음
  - 항공물류의 허브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접한 무안국제공항과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군산항과 새만금신항만은 인접한 곳에 입지(자동차로 30분 거리)로 경쟁이 불가피하며, 기능 또한 일반화물과 컨테이너화물로 중복됨
  - 2018년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만의 병렬운영이라는 기본적인 운영 전략만 수립
- 군산항과 새만금신항만은 인접한 입지, 배후시장의 중복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적 협력전략(co-opetition strategy) 수립 필요
  - 새만금신항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수출·입 물류거점으로 개발되며, 총 9개 선석으로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취급이 가능
  - 새만금신항만 건설 1단계(2030년) 부두 6선석(잡화 5선석, 컨테이너 1선석), 2단계(2040년) 부두 3선석(잡화, 자동차, 크루즈)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
  -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지 상 비용 면에서 항만선택의 차별화가 크지 않으므로, 두 항만 간 출혈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지역 화물 유치 필요성

- 정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2020년)에 따라 타 지역 물류 거점을 이용하는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 유치를 위한 전략 검토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을 이용하는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의 경우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물류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군산항 이용을 검토할 수 있음
  - 해당 수요에 대한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 시설 등을 검토

### 03 계획의 기본방향

#### □ 전북형 Two-Port System 구축으로 지역발전 기반 조성

- 현재의 군산항, 미래의 새만금신항만 등 전라북도 권역에 2개의 항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서 전북형 Two-Port System 전략을 수립
- 군산항과 새만금신항만은 지역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항만 물류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여 물류거점 역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기능 강화

#### □ 군산항 물류연계 인프라 확대

- 현재 단순한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한 항만 인프라 일변도의 군산항의 물류 비즈니스를 구상할 수 있는 연계 인프라 확대 방안 검토
-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대응 등 군산항에서 취급되는 화물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글로벌 공급망 관리전략 수립

####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물류 관점의 접근을 토대로 생산단가와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지원 전략 구상
- 산업 위기에 따른 이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라북도 입지를 통하여 생산단가,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 및 육성 체계 구축

#### □ 새만금신항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군산항과 새만금신항만의 상생전략 검토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과 제4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배후 산업단지 인접성과 유사한 항만 시설 등으로 출혈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두 항만의 상생전략 검토
- 군산항은 기존 산업단지 지원, 3국 환적 비즈니스 모델,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으로 특화하고, 새만금신항만은 식품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상생전략 검토

## 04 세부 추진과제

### □ 군산항 물류연계 인프라 확대

-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거점 건설 및 운영(국내 택배 허브 대전/옥천 터미널 거리상 인접, 민간물류기업 유치로 물류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군산항의 기존 한·중 국제카페리 서비스에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거점(통관장)을 조성하고, 향후 건설된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계(새만금국제공항의 전략적 노선 검토)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전라북도 화물자동차 거점 조성 방안 검토

### □ 전북 특화산업 육성

-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초저온창고를 건설하여 콜드체인 거점 역할을 담당
- 신선물류 지능화 향만 운영계획 수립(전용 포장설비 및 재료 개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온·습도 관리 설비 개발, 지능화 물류 플랫폼 개발 등)
- 벌크화물(사료, 목재, 유연탄 등) 연계 산업 육성 체계 구축
- 산업 사이클에 따라 벌크화물 전용처리시설의 미래 활용방안 검토

### □ 군산항-새만금신항만 상생운영전략

- 향후 군산항은 군산산업단지 배후기지, 중국 연계 3국 환적 비즈니스 물류 거점(군산항-부산항),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담당
- 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 전자상거래 물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전략 수립
- 새만금신항만은 신남방정책의 거점, 식품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상 핵심 거점, 신선물류 및 크루즈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10만톤급 이상의 부두 건설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신항만 간 콜드체인관리를 위한 첨단초저온창고 조성 등 식품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하여 식품 생산과 수출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중부권, 호남권 내수 목적의 신선식품 거점 활용

# IV

## 계획의 실행방안

- 1. 행·재정계획
  - 1.1 행정계획
  - 1.2 재정계획
- 2. 재정투자계획
  - 2.1 재정투자방향
  - 2.2 투자계획





# 제1장 행·재정계획

## 1 행정계획

### 01 전라북도 행정 현황

#### □ 도 및 시군 공무원 현황

- 전라북도 행정조직은 도본청의 경우 2부지사·3담당관·2실·9국·2본부·3관·51과·2단·1상황실, 도의회의 경우 1처장·2관·7전문위원·1실·9팀·2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은 14개 시·군청이 있음

표 4-1 전라북도 행정조직 현황

구 분	행정조직
도본청	2부지사 3담당관 2실 9국 2본부 3관 51과 2단 1상황실
직속기관/사업소	5원 2관 4소 1본부 1학교
도의회	1처장 2관 7전문위원 1실 9팀 2위원
시군 행정조직	14개 시·군청

자료. 전라북도 홈페이지 참조(2020.7월 기준)

- 전라북도 공무원 현원 현황은 2019년 말 기준 총 17,811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02명으로 나타남(전국 평균 153명)
  - 시군 공무원은 13,402명이며 전주시가 2,100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1,591명, 군산시 1,448명, 정읍시 1,080명, 남원시 1,010명 등임
  - 시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전주시가 311명, 군산시 186명, 익산시 180명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진안군 43명, 장수군 44명, 무주군 45명 등으로 나타남

그림 4-1 전라북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자료.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2019.12.31.기준), 행정안전부

표 4-2 전국 시도별 공무원 현원

(단위 : 명)

구분	현 원						인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소계		지방		국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계	337,084	132,563	337,004	132,558	80	5	51,849,861	153
서울	52,081	22,267	52,076	22,267	5	.	9,729,107	186
부산	19,294	8,330	19,290	8,330	4	.	3,413,841	176
대구	13,321	4,951	13,318	4,951	3	.	2,438,031	183
인천	15,662	6,219	15,659	6,219	3	.	2,957,026	188
광주	8,409	3,416	8,405	3,416	4	.	1,456,468	173
대전	7,981	3,025	7,978	3,024	3	1	1,474,870	184
울산	6,684	2,658	6,681	2,658	3	.	1,148,019	171
세종	2,132	757	2,130	757	2	.	340,575	159
경기	58,293	24,699	58,285	24,698	8	1	13,239,666	227
강원	19,215	6,367	19,208	6,366	7	1	1,541,502	80
충북	14,661	5,471	14,655	5,471	6	.	1,600,007	109
충남	19,313	7,068	19,306	7,067	7	1	2,123,709	109
전북	17,811	6,989	17,805	6,989	6	.	1,818,917	102
전남	22,685	8,511	22,679	8,511	6	.	1,868,745	82
경북	27,829	9,491	27,823	9,491	6	.	2,665,836	95
경남	25,690	10,252	25,684	10,251	6	1	3,362,553	130
제주	6,023	2,092	6,022	2,092	1	.	670,989	111

자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19.12.31.기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2019.12.31.기준), 행정안전부

표 4-3 전북 시군 공무원 총괄 현황

(단위 : 명)

구분	현 원						인구	공무원1인당 주민수
	전체	여성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전북 전체	17,811	6,989	15,223	2,545	14	29	1,818,917	102
본청	4,409	873	1,855	2,545	1	8	-	-
전주시	2,100	1,057	2,096	-	1	3	654,394	311
군산시	1,448	659	1,445	-	1	2	270,131	186
익산시	1,591	754	1,586	-	1	4	287,771	180
정읍시	1,080	474	1,077	-	1	2	110,541	102
남원시	1,010	448	1,008	-	1	1	81,441	80
김제시	1043	504	1039	-	1	3	83,895	80
완주군	824	369	822	-	1	1	92,220	111
진안군	592	269	592	-	-	-	25,697	43
무주군	529	214	528	-	1	-	24,303	45
장수군	499	218	498	-	1	-	22,441	44
임실군	618	258	616	-	1	1	28,382	45
순창군	600	268	598	-	1	1	28,382	47
고창군	768	321	765	-	1	2	55,504	72
부안군	700	303	698	-	1	1	53,295	76

자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19.12.31.기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2019.12.31.기준),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 정수 및 조례·규칙 보유, 지방 위원회 현황

- 전라북도 선거구 수는 104개(전국 1,778개), 의원정수는 236명(전국 3,756명)이며, 이 중 광역의원원은 35개 선거구·39명 광역의원(지역 35, 비례 4), 기초의원원은 69개 선거구·197명 기초의원(지역 172, 비례 25)으로 구성됨

표 4-4 전국 시도별 지방의회의원 정수

(단위: 개, 명)

구분  지역	총계		광역의회						기초의회			
	선거구수	의원정수	광역의회의원				교육의원		선거구수	의원정수		
			선거구수	의원정수			선거구수	의원정수		소계	지역	비례
계	1,778	3,756	742	829	742	87	5	5	1,036	2,927	2,541	386
서울	261	533	100	110	100	10	-	-	161	423	369	54
부산	109	229	42	47	42	5	-	-	67	182	157	25
대구	71	146	27	30	27	3	-	-	44	116	102	14
인천	75	155	33	37	33	4	-	-	42	118	102	16
광주	40	91	20	23	20	3	-	-	20	68	59	9
대전	40	85	19	22	19	3	-	-	21	63	54	9
울산	38	72	19	22	19	3	-	-	19	50	43	7
세종	16	18	16	18	16	2	-	-	-	-	-	-
경기	287	589	129	142	129	13	-	-	158	447	390	57
강원	94	215	41	46	41	5	-	-	53	169	146	23
충북	75	164	29	32	29	3	-	-	46	132	116	16
충남	94	213	38	42	38	4	-	-	56	171	145	26
전북	104	236	35	39	35	4	-	-	69	197	172	25
전남	131	301	52	58	52	6	-	-	79	243	211	32
경북	159	344	54	60	54	6	-	-	105	284	247	37
경남	148	322	52	58	52	6	-	-	96	264	228	36
제주	31	43	31	43	31	7	5	5	-	-	-	-

자료: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2019.12.31.기준), 행정안전부

- 전북 조례·규칙은 총 7,261개(조례 5,684개, 규칙 1,577개)이며, 전라북도에 조례 587개·규칙 129개, 시군에 조례 5,097개, 규칙 1,448개가 있음

표 4-5 전국 시도별 조례·규칙 보유현황

(단위: 개)

구분 지역	총계			시·도		시·군·자치구	
	계	조례	규칙	조례	규칙	조례	규칙
계	110,147	85,414	24,733	10,234	2,443	75,180	22,290
서울	10,391	7,662	2,729	667	230	6,995	2,499
부산	5,979	4,670	1,309	662	107	4,008	1,202
대구	3,444	2,649	795	534	152	2,115	643
인천	4,324	3,295	1,029	614	175	2,681	854
광주	3,004	2,411	593	654	142	1,757	451
대전	2,575	2,054	521	582	119	1,472	402

구분 지역	총계			시·도		시·군·자치구	
	계	조례	규칙	조례	규칙	조례	규칙
울산	2,364	1,850	514	469	107	1,381	407
세종	631	526	105	526	105	-	-
경기	17,058	13,163	3,895	871	205	12,292	3,690
강원	8,631	6,612	2,019	534	148	6,078	1,871
충북	5,633	4,454	1,179	430	104	4,024	1,075
충남	8,143	6,418	1,725	563	150	5,855	1,575
전북	7,261	5,684	1,577	587	129	5,097	1,448
전남	10,860	8,567	2,293	614	142	7,953	2,151
경북	10,139	7,769	2,370	580	117	7,189	2,253
경남	8,741	6,843	1,898	560	129	6,283	1,769
제주	969	787	182	787	182	-	-

자료.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2019.12.31.기준), 행정안전부

표 4-6 전라북도 연도별 조례·규칙 보유 현황

(단위: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73,630	76,020	79,043	81,954	85,695	87,163	91,243	95,002	99,795	103,679	110,147
전북	4,957	5,182	5,329	5,527	5,777	5,833	6,187	6,446	6,708	6,918	7,261

자료.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2019.12.31.기준), 행정안전부

- 전북에 설치된 위원회는 1,570개가 있으며, 회의는 연간 평균 3.2회 개최됨
  - 설치근거별로 보면 법령(강행) 778개, 법령(임의) 160개, 조례 518개, 규칙 30개 등임

표 4-7 전국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단위: 개, 회, 천 원)

구분 지역	위원회	연간평균회의 개회횟수	운영경비	설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강행	임의			
계	26,395	3.9	50,540,066	14,730	2,437	7,900	473	855
서울	2,900	4.5	7,564,672	1,459	211	1,088	60	82
부산	1,620	3.8	1,608,201	972	115	402	37	94
대구	857	4.0	2,645,112	499	78	225	15	40
인천	1,223	3.6	2,215,262	747	130	299	22	25
광주	701	3.0	1,238,955	375	64	239	12	11
대전	675	3.3	957,162	435	59	163	4	14
울산	628	3.1	1,174,571	376	65	162	9	16
세종	174	5.0	527,027	92	17	58	-	7
경기	4,104	4.3	11,508,037	2,174	417	1,359	60	94
강원	1,966	4.2	2,540,263	1,155	210	496	35	70
충북	1,320	4.4	1,744,506	634	172	429	38	47
충남	1,682	3.9	3,576,415	956	129	503	34	60
전북	1,570	3.2	2,568,754	778	160	518	30	84
전남	2,309	3.6	2,656,621	1,292	224	698	36	59
경북	2,340	3.3	2,873,059	1,456	198	572	40	74
경남	2,060	4.0	3,370,293	1,192	166	583	41	78
제주	266	5.0	1,771,157	138	22	106	-	-

자료 :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2019.12.31.기준)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주민 주권 강화

-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위상을 상호 협력하는 동반적 관계로 정립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성에 기반한 행정 추진
  -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권한의 단위 사무 중심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참여 제도화로 동반자적 관계 구축
  - 지방정부가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의 자율성·탄력성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행정 정책 기반 도모
-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및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 지방행정 환경 및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대응하여 지방 중심, 지역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
  -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제도화 추진

표 4-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전략	분야	현행	개정
회기 적인 주민 주권 구현	주민자치 원리 강화	- 단체자치 중심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
	주민참여권 강화	- 주민 권리 제한적 : ①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참정권	- 주민 권리 확대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시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	-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
	조례발안 청구요건 완화	- 시·도·50만 이상 대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00~1/70 - 시·군·구는 1/50~1/20	- 800만 이상 : 1/200 이하 - 800만 미만 : 1/150 이하 - 100만 이상 市 : 1/150 이하 - 50~100만 : 1/100 이하 - 10~50만 : 1/70 이하 - 5~10만 : 1/50 이하 - 5만 이하 : 1/20 이하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 서명인수 상한 :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 상한 하향조정 :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전략	분야	현행	개정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은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주민자치회 활성화	- 「지방분권법」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	- 「지방자치법」에 근거 마련하고 구성·운영 등 규정 구체화
	기관구성 다양화	- 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	- 주민투표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 의무 등 미규정되어 국가중심의 사무배분 발생	-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 의무 부과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서울·경기 부단체장 : 행정2, 정무1 - 그외 시·도 부단체장 : 행정1, 정무1	- 시·도에 필요시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2명) 설치 자율성 부여
	특례시 명칭부여	- 50만 이상 외 대도시 인정기준 근거 미규정	- 100만 이상 및 일정기준 이상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지사 권한	-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자문위원(전문인력) 운영(21명)	- 모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마련, 입법·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 의회 의정활동이 분산적으로 공개되어 접근성 하락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 국정통합성 미규정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 시·군·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입법미비)	-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퇴거부 사례 등 발생 - 겸직신고 내역이 외부 미공개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을 구체화하고, 겸직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여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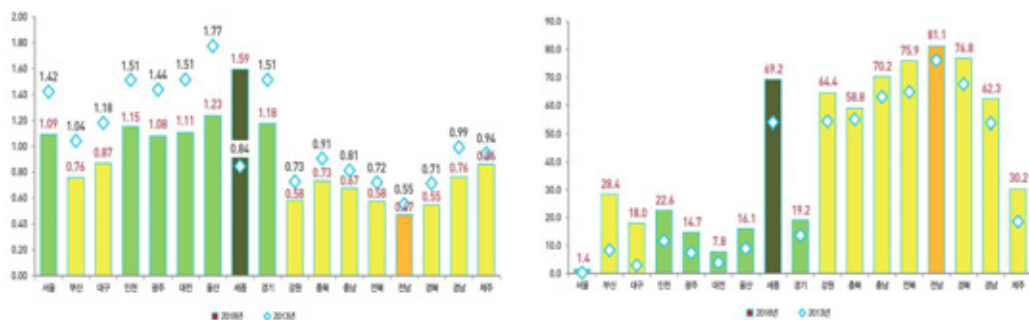
전략	분야	현행	개정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법적근거 미규정	-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행정구역 결정 절차 개선	-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위 결정을 거쳐 불필요한 기간 소요	-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절차 간소화
	경계조정 절차 신설	- 행정구역 조정 관련 지자체간 자율적 합의 어려울 경우 주민불편 발생에도 장기간 미해결	- 지자체간 자율적 조정 추진하고, 미해결시 중분위 통한 객관적 해결절차 마련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 근거, 운영기준 등 미규정 (지침으로 운영)되어 혼란 발생	-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행정협의회 활성화	-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중앙, 시·도 행·재정적 지원근거 미규정	-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 중앙, 시·도 지원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 세부사항 미규정	-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 규정

자료. 보도자료(2020.7.3.),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 재인용, 행정안전부

##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지방행정 대응력 추진

-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성장 전략 필요
  - 지방소멸의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도시권역까지 진행되고 있음
  - 읍면동 수준의 소멸위험 비중을 보면 전라북도 75.9%로 전남 81.1%, 경북 76.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읍면동의 소멸위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그림 4-2 ■ 시도별 지방소멸위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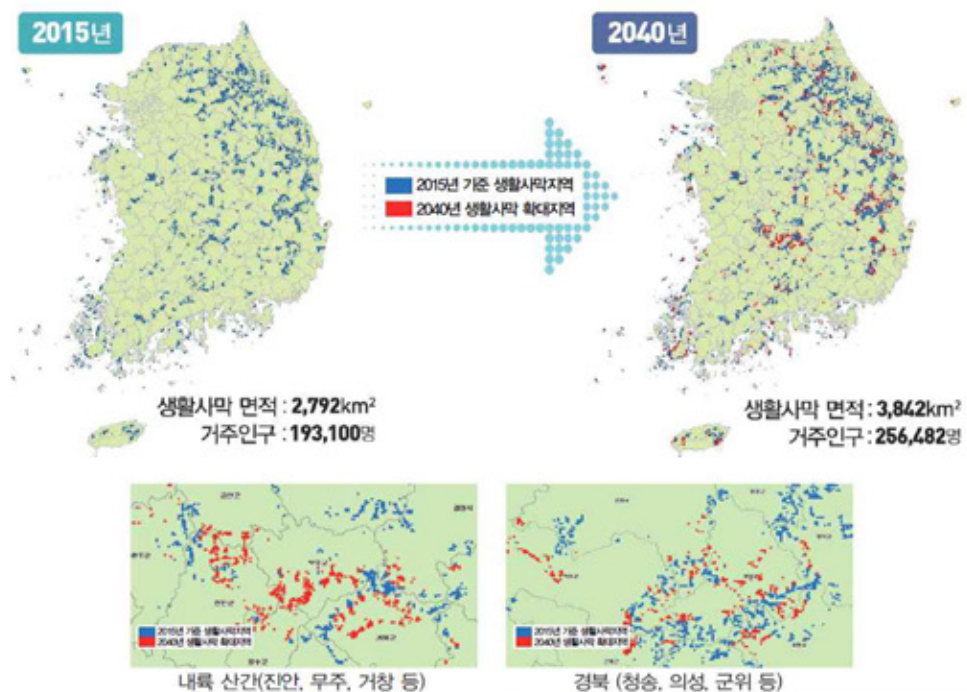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읍면동 소멸위험지역 비중〉

자료.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재인용

-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2018년 0.58로 소멸위험 주의단계이며,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해당하므로 전라북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 추진 필요
- 인구감소 등으로 생활인프라 공급이 저조로 생활사막(Life Deserts) 현상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창의성 및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지방행정의 자립적 대응력 추진 필요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가능 지역이 확대되고,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해 생활인프라 공급이 저조하게 됨. 이로 인해 생활인프라의 노후화 및 쇠퇴화로 2040년 약 25만 명이 '생활사막 (Life Deserts)'에 거주 전망(국토연구원, 2018.6.25.). 전라북도에서 진안, 무주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사막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

Ⅱ 그림 4-3 Ⅱ 전국 생활사막지역 전망



자료: 임은선 외.(2018)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국토정책 Brief. 재인용

#### □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등을 통한 행정의 혁신 기반 강화

- 정부혁신의 지속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변화를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혁신 및 행정의 선제적 대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추진 요구

- 혁신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정책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의 3대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추진

Ⅱ 그림 4-4 Ⅱ 정부혁신체계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 혁신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행정 운영방식을 적극행정으로 전환하여 체감형 정책 산출 및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 정부는 다양한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고 혁신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분위기 혁신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Ⅱ 그림 4-5 Ⅱ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

목 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국민의 확실한 체감
추진전략	① 면책제도 활성화 및 파격적 인센티브로 공직변화 유도 ②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및 불편 해소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	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활성화      ② 사전컨설팅 공동활용 및 기간 단축 ③ 적극행정 사례 감사보고서 반영
국민체감 적극행정 구현	① 국민참여 및 소통 개선      ② 소극행정 점검 강화 ③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및 공공기관 확산
평가 및 보상 체계 강화	① 평가비중 및 국민참여 확대      ② 파격적 인센티브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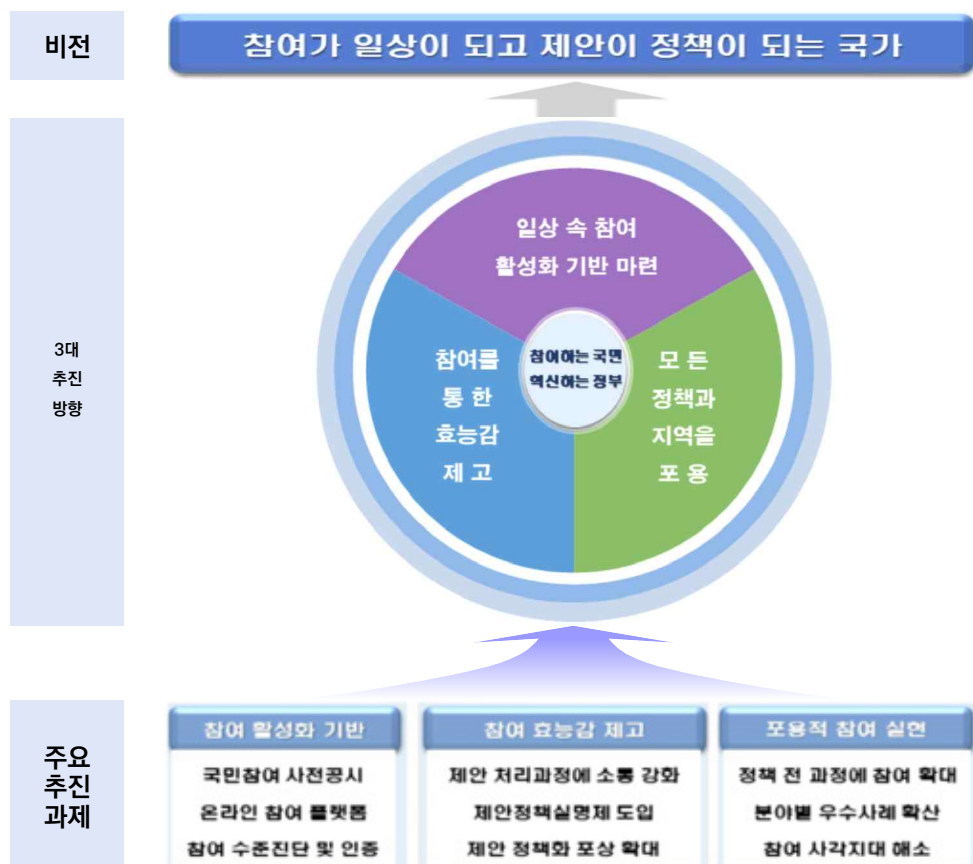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0.4.29.).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 재인용

- 이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통해 제도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및 협업 분위기를 조성

#### □ 행정수요의 다양성 대응을 위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행정 참여 일상화 및 정책제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 정부는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활성화 기반, 참여 효능감 제고, 포용적 참여 실현 등을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
  - 주요 추진과제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온라인참여플랫폼, 참여수준 진단 및 인증, 제안 처리과정에 소통강화, 제안 정책화 포상 확대, 정책 전 과정 참여 확대, 분야별 우수사례 확산, 참여 사각지대 해소 등임

Ⅱ 그림 4-6 Ⅱ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3.19.). 국민참여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발표



□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자립적 성장기반 강화 및 문제해결형 행정 추진

- 정부는 수도권 및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추진
- 정부는 ‘분권’, ‘포용’, ‘혁신’의 3대 가치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추진하고 있어 결국 지방정부의 행정역량 및 혁신체계 구축 정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표 4-9】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치

구분	분권	포용	혁신
방향	지역주도 자립역량 축적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헌법적 가치 실현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혁신역량 제고 혁신성장
내용	지방자치 경험, 자산축적 및 참여 욕구 증대 공간규모별 다양한 문제 증가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헌법 전문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실현 낙후지역 배려, 지방소멸 대응,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분권에 맞는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내 선순환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

자료.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018.2.1.), 지역발전위원회

### 03 계획의 기본방향

□ [협업]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실현화를 위한 도-시군 간 협업체계 구축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세부과제와 더불어 14개 시군별 발전방향에 따른 사업 등을 통해 전라북도 종합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를 구체화 및 실현화 등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등을 위한 도-시군 간 협업체계 구축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계획목표 연도가 2040년인 만큼 계획별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군 간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 간의 협업 구조 형성

□ [분권]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로서의 위상 정립 및 자치권 확대

-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주민을 우선시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정립 및 지방정부로서의 자율성 및 책임성 향상

- 주민자치의 실현 및 내실화를 위해 도민들의 행정수요 대응 및 정책반응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방안 및 제도화를 추진

#### □ [혁신] 혁신행정 및 적극행정의 지속화를 통한 전북 대도약 기반 형성

- 혁신행정 추진으로 혁신성과의 확산 및 공유로 도민들의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
  - 도민의 행정수요 및 정책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행정체계 정립
-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적극행정의 체질화를 통해 새로운 전라북도의 성장전략 및 대도약 기반을 조성하고 도정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역량 강화
  - 획기적인 정책 제안 및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수요 정책 발굴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 □ [균형 및 참여] 도민들의 참여와 정책소통 활성화를 통해 정책진화 추진

- 중앙정부의 변화하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고 도내 지역 간 생활 및 행정격차를 해소하여 도민들의 균형적인 생활 및 삶의 질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 서비스 및 정책 산출 기반 형성
- 획기적인 도민 참여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들의 정책소통 여건을 조성하여 내발적인 발전 역량을 통한 정책진화 추진
  - 도민들의 정책소통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소통채널 활용성 증대 및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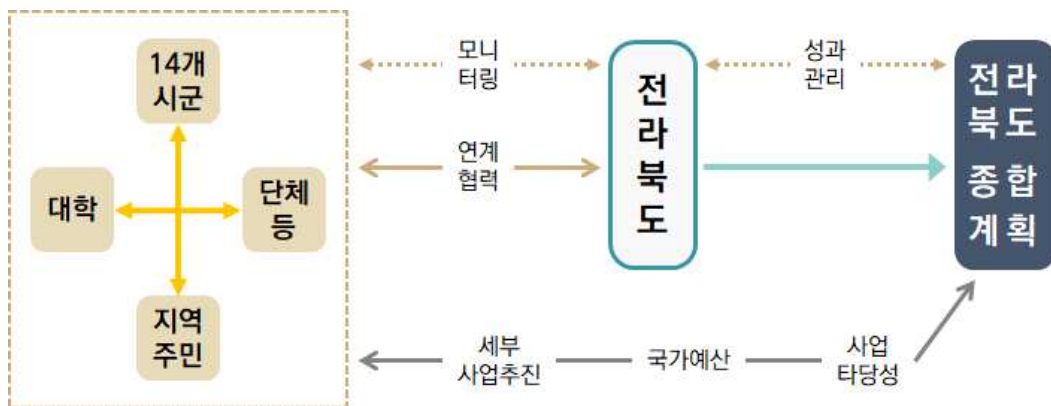
## 04 세부 추진과제

###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협업체계 구축

- 2040년을 목표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시군-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사업타당성 확보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
  -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태문명의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고 전라북도 대도약 체계 구축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집행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향상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방향 및 성과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운영하고, 시군에서도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주체의 정립 및 역할 강화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모니터링 추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도종합계획의 실행력 및 추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관리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며, 도종합계획의 효율적이고 실행력을 위해 지표개발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 그림 4-7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실현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도민 참여 기반 정책소통의 행정 운영 체계 활성화

- 전라북도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도민 참여 중심의 행정운영을 강화하고, 정책소통을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정 만족도 제고 추진
  - 도정현안 중심의 정책의제 공론화를 통해 전라북도 미래 정책 어젠다 발굴 및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민의 정책참여 실태 및 증진방안 등을 추진
  - 도민들의 정책소통 및 정책 발굴 지원 등을 위해 도민 정책지원단 운영 확대 및 도민 정책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정책 참여 문화 형성
- 도민 주도의 정책제안 및 정책발굴을 지원하고, 지역문제의 발굴 및 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소통플랫폼의 성과 및 사업을 확산
  - 정책소통플랫폼의 제안된 정책제안은 464건(20.8.26.기준)으로 정책공감도가 많은 제안의 경우 최대 180 공감(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30 공감(어린이교통사고예방, 교통안전디자인) 등이 있음. 정책소통플랫폼의 성과 확산을 위해 정책 환류 피드백 구조를 활성화하고 실질 정책 집행의 성과를 공유하여 도정 정책참여 관심 및 기회를 확대

그림 4-8 전라북도 정책소통플랫폼(전북 소통대로)



자료 :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https://policy.jb.go.kr>

## □ 주민 자치역량 강화 지원 및 도민 체감형 혁신행정 기반 마련

- 도민 및 공동체가 참여하는 생활형 지역문제 해결 및 도정 참여 확대
  - 도민 및 공동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의 다양화 및 도민·공동체 주도의 지역 상생협력방안 과제 도출
  - 자치기구인 전라북도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마련 및 주민자치회 운영 추진
  -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대도약정책협의체의 지역별 정책소통을 위해 시군별로 연계 추진하고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민 참여 구조 마련
- 행정혁신 역량 강화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
  - 혁신과제의 수시 발굴 및 상시개선 체계를 구축하여 혁신행정의 속도감을 높이며 정책현장에 적용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전라북도 및 시군 등을 대상으로 혁신사례 모집 및 공유하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북혁신스타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며 혁신성과를 창출한 실무공무원을 교육훈련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 실시
  - 적극행정이 행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화, 적극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의 사례 DB화
  -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상 인센티브 확대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화 등 평가, 보상 강화
  - 지역 문제해결, 국가 정책대응을 위한 조직지원 확대 및 협업 강화를 실시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며 제안제도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 지원 활성화
  - 임기제 공무원의 전문성 지원 기반을 통한 도정 핵심과제 해결 및 행정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도 마련

- 도정 행정의 현장성 및 창의성 업무 집중을 통한 도정 행정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출장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단순반복 업무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자동화 시스템 구축

【그림 4-9】 RPA 적용기회 및 효과



자료: 비에이엠알앤비소프트 내부자료(2020). RPA 소개서

## □ 자치분권 및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대응체계 구축

### •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 자치권의 확대 등 자치분권 대응체계 구축

-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으로 주민자치원리 명시, 주민참여제도 확대,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책임성 강화, 중앙과 지방협력회의의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자치분권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

### • 광역 단위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치안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자치경찰도입에 대한 자치경찰사무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 자치경찰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경비, 여성·아동·노약자 및 관련 수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
- 자치경찰사무의 시·도지사의 책임이 부여되고 있으나 시·도지사의 인사, 조직운영, 지휘감독 권한 등이 부재한 상태에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제도화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경찰 사무 추진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일한 자치경찰조직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추천권도 시·도지사의 추천 및 지명권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시·도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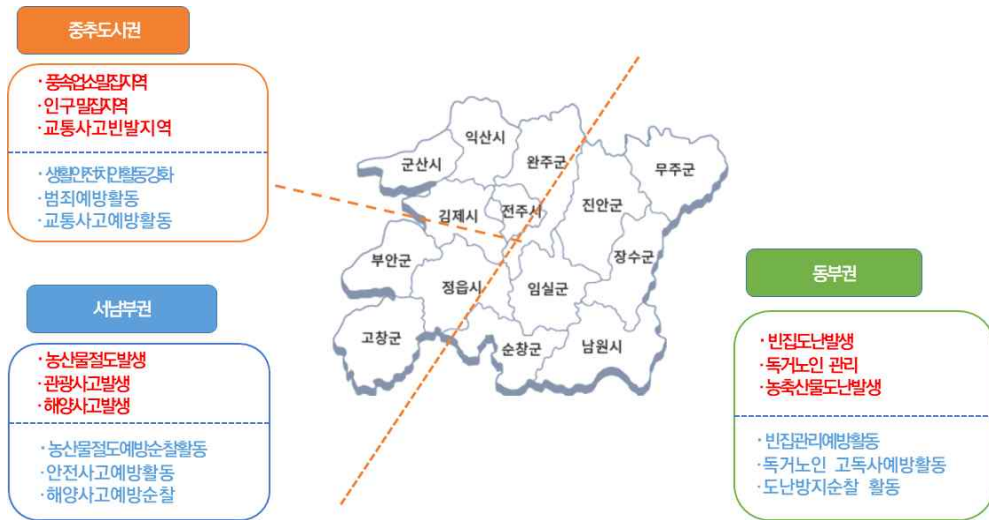
표 4-10 자치경찰 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li> <li>○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시·도지사 소속)으로 명칭 변경</li> </ul>
신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국가직 유지</li> </ul>
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경 이상 :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용</li> <li>○ 경정 이하 : 경찰청장이 임용, 대통령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나 시·도경찰청에 재위임 가능</li> </ul> </li> <li>○ 시·도경찰청장 :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용</li> </ul>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경찰사무 - 국가경찰사무 - 수사사무 3가지로 구분</li> <li>○ 자치경찰사무 :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관련 수사사무 포함)</li> </ul>
지 휘 감 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li> <li>※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li> </ul>
자치경찰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1), 시·도의회(2), 국가경찰위원회(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2)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li> <li>○ 시·도지사가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 임명</li> <li>○ 산하에 사무기구 설치 - 경찰공무원 파견 가능</li> </ul>
재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li> <li>○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지사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심의·의결</li> </ul> </li> </ul>
시 행 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1. 1. 전국 동시 시행</li> <li>- 法시행 전에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 가능</li> </ul>

#### • 지역별 치안수요에 따른 맞춤형 치안서비스 구축

-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환경 및 거주환경 등에 따라 치안수요가 상이하며,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농복합지역, 인구밀집지역, 구도심권, 관광 및 어업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 만큼 지역치안 수요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구축
- 중추도시권은 생활안전치안활동,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치안수요가 요구되는 지역이고, 서남권은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필요한 지역, 동부권은 농촌 및 산간지역이 혼합된 지역으로 예방 및 순찰 활동이 필요한 지역

그림 4-10 전라북도 지역특성 및 치안수요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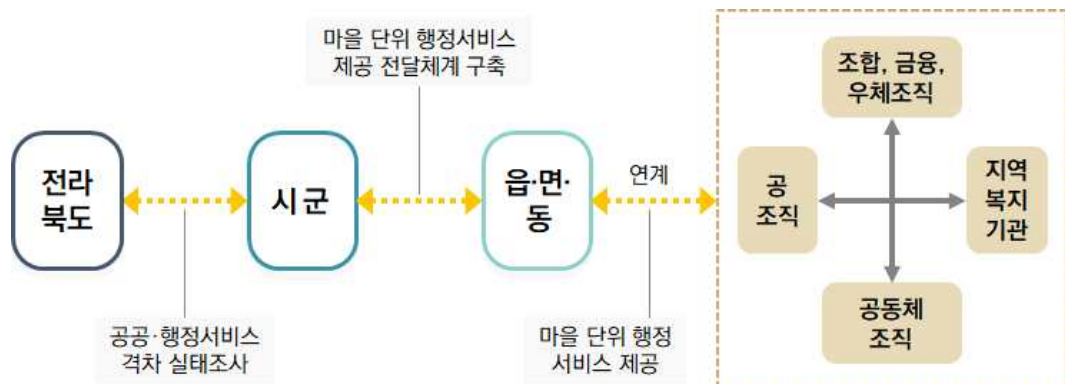


자료: 이동기, (2020) 전북연구원

#### □ 생활사막 대응, 마을 단위의 공공·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활인프라가 취약하고 공공·행정서비스 제공에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동의 마을 단위로 공공·행정서비스전달체계 구축
  - 공공·행정서비스 전달의 접근성 및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실태조사 및 거점-주변지역 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도-시-군-읍·면·동의 이동식 및 제공형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마을 단위 다양한 사회적 자원 및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등을 상호 연계하여 부족한 공공·행정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지역에서 해결하고 다양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 체계 구축
  - 마을에서 근접한 읍·면·동을 거점 기관으로 설정하고, 마을의 공공기관, 사회적 자원 제공기관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부족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

그림 4-11 생활사막 예방을 위한 마을 단위 공공·행정서비스 전달체계



## 2 재정계획

### 01 전라북도 재정 현황

#### □ 전라북도 예산 규모

- 전라북도 총 예산규모는 2020년 기준 13조8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조 9,907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18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라북도 본청 예산규모는 6조6,189억 원이며, 14개 시군의 총 예산규모는 6조3,900억 원임

표 4-11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2020.1.1.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총규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2,532,263	2,153,834	378,428	1,610,089	1,383,697	226,392	922,174	770,138	152,037
서울	402,358	312,249	90,109	336,518	253,335	83,183	65,840	58,914	6,926
부산	137,745	114,327	23,418	118,376	97,063	21,313	19,369	17,264	2,105
대구	99,163	82,100	17,063	85,581	69,135	16,446	13,582	12,965	617
인천	125,356	99,794	25,562	104,411	80,547	23,864	20,945	19,248	1,698
광주	59,923	50,697	9,226	54,345	45,656	8,688	5,579	5,041	538
대전	56,987	49,630	7,357	51,052	44,172	6,880	5,935	5,458	477
울산	47,204	41,264	5,940	36,965	31,609	5,357	10,238	9,655	583
세종	15,210	12,006	3,204	15,210	12,006	3,204	-	-	-
경기	508,380	410,703	97,677	253,429	233,031	20,398	254,951	177,672	77,279
강원	121,861	111,692	10,169	57,164	53,973	3,191	64,697	57,719	6,978
충북	96,081	87,257	8,824	48,359	45,033	3,326	47,721	42,224	5,498
충남	133,623	121,269	12,354	65,800	62,381	3,419	67,823	58,888	8,935
전북	130,089	119,907	10,182	66,189	61,798	4,391	63,900	58,109	5,791
전남	159,745	147,579	12,166	77,446	73,104	4,341	82,299	74,475	7,824
경북	192,540	175,510	17,030	90,567	84,588	5,979	101,973	90,922	11,051
경남	189,525	168,107	21,417	92,203	86,522	5,681	97,322	81,585	15,737
제주	56,473	49,743	6,730	56,473	49,743	6,730	-	-	-

자료: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2019.12.31.기준), 행정안전부

- 전라북도 시군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2조 586억, 익산시 1조 3,921억, 군산시 1조 3,916억 순으로 높고, 무주군 4,158억, 순창군 4,203억, 장수군 4,257억 순으로 규모가 낮음



표 4-12 전라북도 시군별 예산규모(세출기준, 2020.1.1.기준)

(단위: 백만 원)

시군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전주시	2,058,672	1,675,665	176,149	46,760	160,098
군산시	1,391,670	1,155,827	126,213	25,171	84,459
익산시	1,392,118	1,184,775	128,527	18,575	60,241
정읍시	1,022,991	875,704	57,051	6,824	83,412
남원시	813,014	747,744	48,301	4,715	12,254
김제시	906,168	766,400	56,412	9,384	73,972
완주군	726,970	667,044	30,850	12,465	16,610
진안군	449,281	368,347	0	66,644	14,290
무주군	415,886	358,780	0	40,050	17,056
장수군	425,711	341,652	0	37,385	46,675
임실군	446,741	401,053	0	35,319	10,369
순창군	420,363	390,482	0	16,710	13,171
고창군	685,122	606,144	22,157	1,952	54,869
부안군	635,143	582,223	12,663	27,476	12,781

자료. 지방재정 365

#### 전라북도 분야별 비중

- 전라북도 전체의 세부분야별 비중을 사회복지가 31.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업이 14.82% 순으로 나타남
- 전북도청의 세부분야별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가 가장 높은 39.83%를 차지하며, 일반공공행정이 13.65%, 농림해양수산업 12.09%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전라북도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표 4-13 전라북도 분야별 세출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전북		본청	
	예산현액	예산현액비중	예산현액	예산현액비중
합계	23,663,064	-	9,009,607	-
일반공공행정	2,159,504	9.13	1,229,383	13.65
공공질서및안전	778,364	3.29	263,142	2.92
교육	306,377	1.29	213,794	2.37
문화및관광	1,507,225	6.37	386,414	4.29
환경	1,560,628	6.6	402,749	4.47
사회복지	7,369,685	31.14	3,588,639	39.83
보건	364,554	1.54	146,079	1.62

구분	전북		본청	
	예산현액	예산현액비중	예산현액	예산현액비중
농림해양수산	3,506,446	14.82	1,088,884	12.0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44,710	6.11	712,746	7.91
교통및물류	1,036,105	4.38	214,282	2.38
국토및지역개발	1,635,599	6.91	290,531	3.22
과학기술	19,608	0.08	13,670	0.15
예비비	108,589	0.46	33,730	0.37
기타	1,865,668	7.88	425,564	4.72

자료. 지방재정 365, 2020.08.26. 기준

#### □ 전라북도 자체수입 및 자주재원 현황

- 전라북도 전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은 총 2조9,405억 원이며 자주재원은 4조9,312억 원으로 나타났고, 자주재원 비중이 41.69%이고 자체수입 비중이 24.86%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예산은 자주재원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청은 자체수입 1조5,111억 원, 자주재원 1조12억 원으로 자주재원 (16.26%)보다 자체수입(25.08%) 비중이 다소 높은 재정구조임
- 전라북도 시 지역 총계의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이 1조 916억 원이고 자주재원이 2조4,676억 원으로 자주재원 비중이 38.52%로 자체수입 비중 17.04%보다 높아 자주재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군 지역의 총계를 보면 자체수입이 3,701억 원이고 자주재원이 1조 7,474억 원으로 자주재원 비중이 47.03%로 자체수입 비중 9.9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자주재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방세는 전라북도 시군 중 전주시가 3,761억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산시 2,166억 원, 익산시 1,987억 원으로 나타남. 지방세가 가장 적은 지역은 진안군으로 156억 원이며, 그 다음으로 장수군이 175억 원으로 나타남
- 자주재원은 전라북도 시군 중 익산시 4,5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군산시가 4,329억 원, 정읍시 4,244억 원 순으로 나타남. 가장 적은 지역은 무주군으로 1,730억 원이며, 그 다음으로 장수군 1,763억 원으로 나타남

#### □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세출예산액 현황

- 전라북도 전체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은 1,707천 원이며,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8,967천 원,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은 195천 원임
- 전라북도 시 지역은 평균적으로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이 733천 원,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이 4,305천 원,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145천 원으로 나타났고, 군 지역은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이 1,119천 원,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이 11,234천 원,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374천 원으로 나타남

【표 4-14】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세출예산액, 세외수입액 현황(2020년)

(단위: 명, 천원)

자치단체	인구수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전 국	51,849,861	1,946	5,596	192
전 북	1,818,917	1,707	8,967	195
본 청	1,818,917	921	3,402	27
시 지역	1,488,173	733	4,305	145
전주시	654,394	690	2,561	115
군산시	270,131	802	4,279	137
익산시	287,771	691	4,117	129
정읍시	110,541	752	7,922	223
남원시	81,441	832	9,181	279
김제시	83,895	882	9,135	226
군 지역	330,744	1,119	11,234	374
완주군	92,220	1,306	7,233	347
진안군	25,697	1,013	14,334	406
무주군	24,303	1,248	14,763	487
장수군	22,441	1,177	15,224	396
임실군	28,902	1,176	13,876	423
순창군	28,382	1,192	13,758	474
고창군	55,504	823	10,921	291
부안군	53,295	1,002	10,925	349

자료. 지방재정 365

#### □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24.9%로 전국평균 45.2%보다 낮으며 전남(23.3%) 다음으로 낮은 상태

【표 4-15】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

(단위: %)

시도별	시도별평균 (순계규모)	특별시·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단체별 평균	45.2	58.2	36.0	29.1	12.5	23.8
서울	76.1	77.9	-	-	-	28.4
부산	49.2	45.3	-	-	30.6	20.0
대구	45.4	41.1	-	-	27.9	19.5
인천	54.0	51.8	-	-	12.5	23.5
광주	41.1	37.4	-	-	-	16.2
대전	41.4	37.1	-	-	-	16.9
울산	51.6	46.3	-	-	37.7	23.3
세종	59.3	59.3	-	-	-	-
경기	58.6	-	51.2	39.8	18.2	-
강원	25.8	-	27.6	18.5	11.8	-
충북	30.1	-	28.2	24.1	15.0	-
충남	34.4	-	34.7	25.6	11.9	-
전북	24.9	-	25.1	17.0	10.0	-
전남	23.3	-	24.0	22.1	9.5	-
경북	27.1	-	28.7	18.9	10.5	-
경남	34.3	-	33.9	26.1	10.3	-
제주	32.9	-	32.9	-	-	-

자료: 지방재정 365

-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추이는 전라북도 전체의 경우 2019년에 20.4%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에 24.9%로 상승하였으며, 2016년 23.6%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
- 전라북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에 18.5%에서 2019년에 17.0%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에 25.1%로 상승하였음
- 전라북도 시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6년에 19.4%이었으나 2020년에 17.0%로 2.4%p 하락하였으며,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10.8%로 2020년 10%로 큰 변화가 없음
- 2020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군은 전주시로 26.9%이며, 그 다음으로 군산시가 18.7%, 익산시가 16.8%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지역은 진안군으로 7.1%이며 그 다음으로 고창군 7.5%, 장수군 7.7% 순으로 나타남

표 4-16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자치단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국	46.6	47.2	46.8	44.9	45.2
전 북	23.6	22.3	21.5	20.4	24.9
본 청	18.5	18.4	18.1	17.0	25.1
시 지역	19.4	18.8	18.6	17.2	17.0
전주시	30.4	29.8	29.2	28.9	26.9
군산시	24.5	22.8	23.6	20.2	18.7
익산시	17.2	17.8	16.7	16.7	16.8
정읍시	10.1	9.4	9.2	8.5	9.5
남원시	9.6	9.3	8.6	7.7	9.1
김제시	10.3	9.8	11.3	9.0	9.7
군 지역	10.8	10.1	9.1	8.8	10.0
완주군	24.2	23.3	21.2	20.3	18.1
진안군	6.2	5.5	5.9	5.0	7.1
무주군	7.9	7.7	7.5	7.0	8.5
장수군	6.2	6.1	5.7	5.1	7.7
임실군	6.2	7.1	5.1	5.7	8.5
순창군	7.5	7.2	6.3	6.5	8.7
고창군	8.8	8.1	7.6	7.4	7.5
부안군	7.4	7.0	6.3	6.5	9.2

자료. 지방재정 365

그림 4-12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추이



자료. 지방재정 365

-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전체 평균은 2020년에 66.6%로 2019년에 63.1%보다 3.5%p 상승하였으며, 2016년 61.6%보다 5%p 상승하였음
- 전북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에 41.7%로 2019년 35.0%보다 6.7%p 상승하였으며, 전라북도 시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에 55.6%로 나타났고, 군 지역의

재정자주도는 57.0%로 2016년 53.6%보다 3.4%p 증가하였음

- 전라북도 시군 중 재정자주도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진안군으로 63.3%이며, 그 다음 남원시 61.4%, 장수군이 59.3%, 순창군이 59.0%, 임실군이 58.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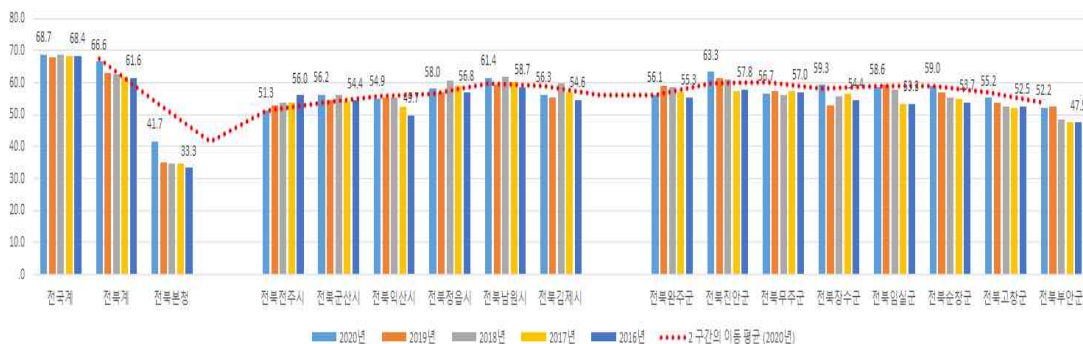
표 4-17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자주도 추이

(단위: %)

자치단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국	68.4	68.4	68.7	67.8	68.7
전 북	61.6	61.8	62.8	63.1	66.6
본 청	33.3	34.5	34.6	35.0	41.7
시 지역	54.7	55.5	57.1	55.3	55.6
전주시	56.0	53.8	53.9	52.9	51.3
군산시	54.4	54.2	56.0	54.7	56.2
익산시	49.7	52.3	55.4	55.2	54.9
정읍시	56.8	59.1	60.7	57.1	58.0
남원시	58.7	60.4	61.7	59.4	61.4
김제시	54.6	57.0	59.8	55.4	56.3
군 지역	53.6	54.0	55.3	56.4	57.0
완주군	55.3	56.8	58.5	58.8	56.1
진안군	57.8	57.4	61.1	61.5	63.3
무주군	57.0	57.2	56.2	57.5	56.7
장수군	54.4	56.5	55.8	52.7	59.3
임실군	53.3	53.3	57.8	59.3	58.6
순창군	53.7	54.9	55.5	57.0	59.0
고창군	52.5	51.9	52.4	53.6	55.2
부안군	47.5	47.5	48.5	52.5	52.2

자료. 지방재정 365

그림 4-13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자주도 추이



자료. 지방재정 365

## 02 여건 변화와 전망

### □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의 가속화

- 2020년 기준 시·도의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은 10~30% 미만 5개, 30~50% 미만 8개, 50~70% 미만이 3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을 보면 10~30% 미만이 58.4%(142개)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10% 미만이 18.9%(46개), 30~50% 미만이 18.5%(45개), 50~70% 미만 3.7%(9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
- 2020년 기준 국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233개로 95.9%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30%미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88개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고 있음

【표 4-1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2020 기준)

(단위 : 단체수, %)

구분	합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
합계	243	100.0	17	75	82	69
10% 미만	46	18.9	0	4	41	1
10~30% 미만	142	58.4	5	44	39	54
30~50% 미만	45	18.5	8	24	2	11
50~70% 미만	9	3.7	3	3	0	3
70~90% 미만	1	0.4	1	0	0	0
90% 이상	0	0	0	0	0	0

자료. 지방재정 365

-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 지방자치단체 중 시 지역은 48개로 시 지역 전체(75개)의 64%에 이르고 있고, 군 지역은 80개로 군 지역 전체(82개)의 98%에 이르고 있으며 자치구의 경우 55개로 전체(69개)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군 지역으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
- 더욱 심각한 것은 30%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2017년에 173개(전체의 71.2%)→ 2018년 180개(전체의 74.1%)→2019년에 185개(전체의 76.1%)→ 2020년 188개(전체의 77.4%) 등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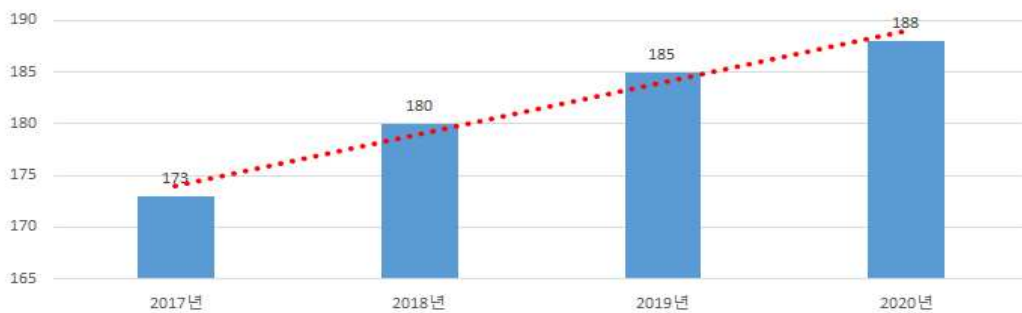
**표 4-19**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연도별 분포 현황**

(단위: 단체수,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구성비	합계	구성비	합계	구성비	합계	구성비
합계	243	100.0	243	100.0	243	100.0	243	100.0
10% 미만	52	21.4	51	21.0	57	23.5	46	18.9
10~30% 미만	121	49.8	129	53.1	128	52.7	142	58.4
30~50% 미만	55	22.6	51	21.0	47	19.3	45	18.5
50~70% 미만	14	5.8	11	4.5	10	4.1	9	3.7
70~90% 미만	1	0.4	1	0.4	1	0.4	1	0.4
90% 이상	0	0.0	0	0.0	0	0.0	0	0.0

자료: 지방재정 365

**그림 4-14**
**전국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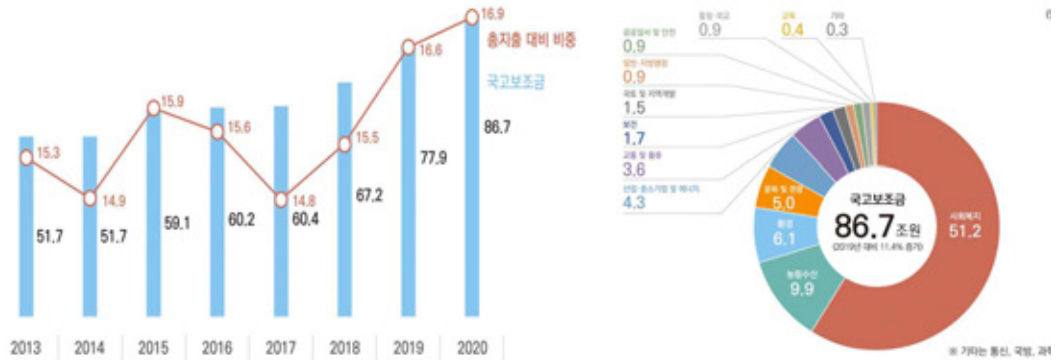
####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의 사업을 촉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정된 재원의 용도가 있어 용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100% 국고보조사업이 거의 없고 재원의 일부를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 51.7조 원, 2019년도에 77.9조, 2020년에 86.7조로 증가하였으며, 총지출 대비 비중도 2013년에 15.3%에서 2020년에 중앙정부 총지출(512.3조 원) 대비 16.9%로 증가하였음
- 2020년 국고보조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가장 높은 51.2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농림수산 9.9조 원, 환경 6.1조 원, 문화·관광 5.0조 원 등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분야별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2013년 41.6%에서 2020년 59.0%로 증가



【그림 4-15】 국고보조금 추이 및 분야별 비중

(단위 : %, 조 원)



자료. 2020주요 재정통계, 한국재정정보원

- 연도별 국고보조금 비목별 추이를 보면 2020년 민간이전 비중 24.4%이고 자치단체 이전 비중 75.6%로 대부분 자치단체 이전 비중이 높음

【표 4-20】 연도별 국고보조금 비목별 추이

(단위 : 억 원, %)

회계연도	2017		2018		2019		2020	
지출목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예산액	131,903	464,318	167,652	501,763	190,536	588,444	211,470	655,956
비중	22.1	77.9	25	75	24.5	75.5	24.4	75.6

자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센터

- 2019년 총지출 기준 국가 부담은 58.8조원, 지방 부담은 26.5조원으로 지방부담률은 31.0%이며 2018년에 38.2%로 가장 높았음
- 2008년에서 2019년도까지 평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정부 부담은 39.7조, 지방비 부담은 20.7조로 나타났고, 지방부담률은 34.52%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분담비율은 평균적으로 국가부담 65.66%, 지방비부담 34.34%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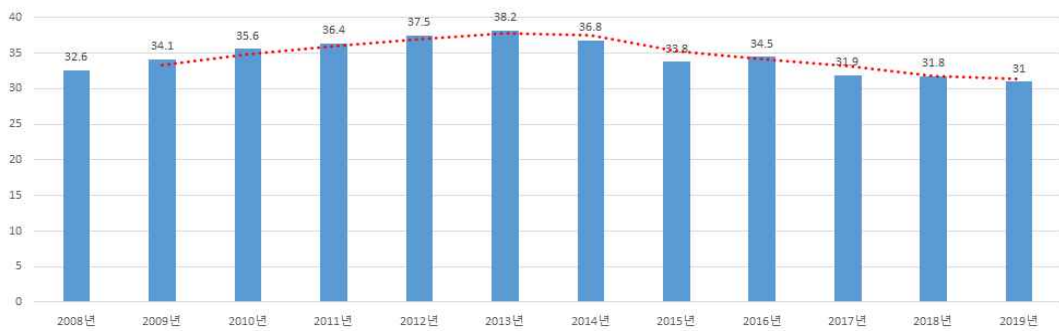
표 4-21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 부담 비율

(단위 : 억 원, %)

연도	중앙정부부담 (A)	지방비부담 (B)	총 국고보조사업 규모 (A+B)	지방부담률 (B/(A+B))
2008	249,611	120,681	370,292	32.6
2009	294,059	152,329	446,388	34.1
2010	316,391	175,224	491,615	35.6
2011	323,289	185,299	508,588	36.4
2012	341,965	205,519	547,484	37.5
2013	367,552	226,817	594,369	38.2
2014	400,098	233,323	633,421	36.8
2015	450,978	230,244	681,222	33.8
2016	460,434	242,729	703,164	34.5
2017	464,318	217,175	681,493	31.9
2018	501,763	234,589	736,352	31.8
2019	588,444	264,998	853,442	31.0
평균	396,575	207,411	603,986	34.52

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소계상한 중앙정부 부담 초과분을 조정한 통합재정사용액(본예산) 기준 자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2019), 행정자치부

그림 4-16 국고보조금의 지방분담률 추이



#### 재정분권 추진<sup>25)</sup>

- 2020년 기준 중앙정부는 386조 2,379억 원의 세입예산 가운데 169조 8,465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에 각각 110조 3,180억과 59조 5,285억 원을 지원함
  - 2019년도 중앙-지방 통합재정지출은 605.0조 원이며, 중앙-지방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52.5조 원, 교육재정 전출 59.3조 원, 국고보조금 57.7조 원으로 구성

25) 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8.10.30.), 재정분권추진방안. 국무조정실.

표 4-22 2020년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사용액 세부내역(순계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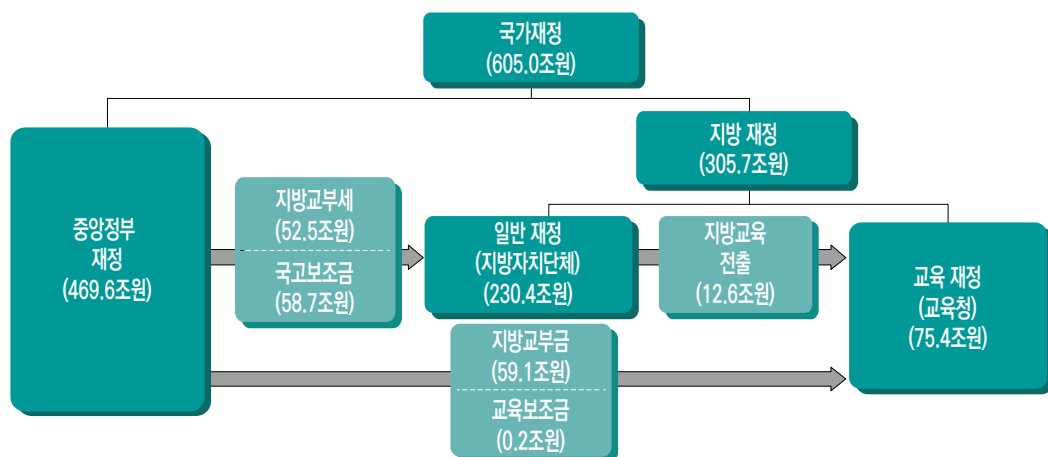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
예산서상 규모 7,133,656		3,862,379(54.1%)	2,532,263(35.5%)	739,014(10.4%)
이전 재원 공제 내역	계 (△1,812,398)	△1,698,465	△136,229	22,296
	①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1,103,180 ┌지방교부세 522,068 └국고보조금 581,112	(1,101,193억원) ⊕1,987 ┌지방교부세 493,705 └국고보조금 607,488	-
	②중앙정부 → 지방교육	△595,285 ┌교육교부금 533,722 └교육보조금 1,247 └유아교육지원특별 40,316 포함	-	(579,938) ⊕15,347 ┌교육교부금 535,140 └교육보조금 7,954 └특별회계전입금 36,843
	③지방자치단체 → 지방교육	-	△138,216 ┌전출금(의무) 107,738 └보조금(재량) 30,478	(131,267) ⊕ 6,949 ┌전출금(의무) 117,302 └보조금(재량) 13,965
재정사용액 5,321,258		2,163,914(40.7%)	2,396,034(45.0%)	761,310(14.3%)

- 주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이전재원 차이(1,987억 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예산 편성시 적게 반영한 금액임.[중앙정부-지방교육청 간 이전재원 차이(15,347억 원)도 동일]  
 주2.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 간 이전재원 차이(6,949억 원)는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 예측을 보수적으로 함에 따라 적게 반영한 금액임.

자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20, p.25.,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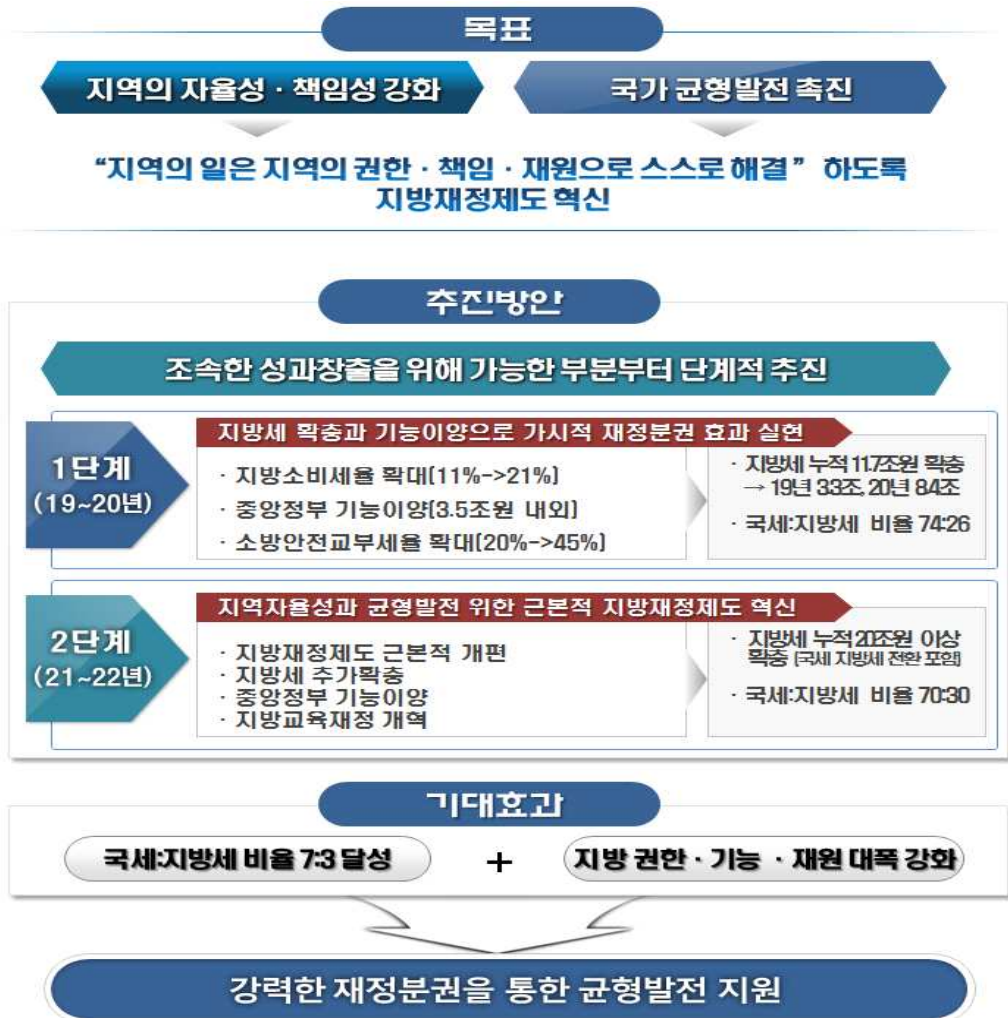
그림 4-17 중앙과 지방 재정구조(2019년 본예산 기준)



자료. 2020주요 재정통계, 한국재정정보원

-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1단계(2019~2020년) 및 재정분권 2단계(2021~2022년)를 추진

Ⅵ 그림 4-18 Ⅵ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8.10.30.). 재정분권추진방안 재인용

- 재정분권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며, 1단계와 2단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4%p). 2020년 21%(+6%p)로 인상, 2020년에 3.5조 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을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

표 4-23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관련 주요사항

구분	현행	개선		비교
	2018	2019	2020	
지방소비세율	11%	15% (+4%p)	21% (+6%p)	+10%p
소방안전교부세율	20%	35%	45%	+25%p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8.10.30.). 재정분권추진방안 재인용

- [2단계]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며, 국세와 지방세구조(지방분권세 포함)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등을 추진

표 4-24 단계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2019	2020	소계('19~'20)		'21~'22	
			순증	누적		
지방세 확충	3.3조원 *지방소비세율 +4%p	5.1조원 *지방소비세율 +6%p	8.4조원	11.7조원	12조원+ $\alpha$ *국세 지방세 전환 포함	20.4조원+ $\alpha$
소방직 지원	0.3조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5%p	0.2조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0%p	0.5조원	0.8조원		
기능이양	-	-3.5조원 내외	-3.5조원 내외		-	-
지방재정 순확충**	2.9조원	0.8조원	3.7조원	6.6조원	-	-
국세:지방세 (16년 76:24)	75:25	74:26	74:26	70:30	70:30	

주1. \*'19년: '19년 예산안, '20년: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2. \*\* 지방세 확충(+), 소방직 지원(+), 기능이양(-), 교부세 감소분(-) 등 감안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8.10.30.). 재정분권추진방안 재인용

### 03 추진과제

#### □ 재정분권 2단계 대응을 통한 지방재정력 형평화

- 재정분권 1단계를 통해 2020년까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가 이양되어 21%로 인상되어 기존 11%에서 총 10%p 인상. 이를 통해 2020년에 지방세 비중이 25% 인상되어 연간 8.6조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 (국회예산정책처, 2019)
  - 8.6조 원 중 이전재원 변동분(부가가치세 추가이양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수반되는 지방 교부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감소분을 보전)인 0.9조 원과 국고보조사업의 전환분 3.6조 원을 제외하여 나머지 약 4.1조 원이 지방소비세의 실질적인 세수증가분에 해당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에 의하면 지방세수는 2020년 97.5조원으로 추정
- 재정분권 1단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인해 지방세는 증가하였지만,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인해 지방의 지출부담 증가 우려
  - 부가가치세의 6%p를 추가 인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감소되고, 지방소비세 확대는 부가가치세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교부세 법정분(내국세의 19.24%)이 축소됨. 또한 지방 소비세는 본청의 보통세로 지방교육청 전출금의 재원으로 전출금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축소(김성주윤태섭, 2019: 141)

■ 그림 4-19 ■ 지방소비세 추가확보에 따른 지방세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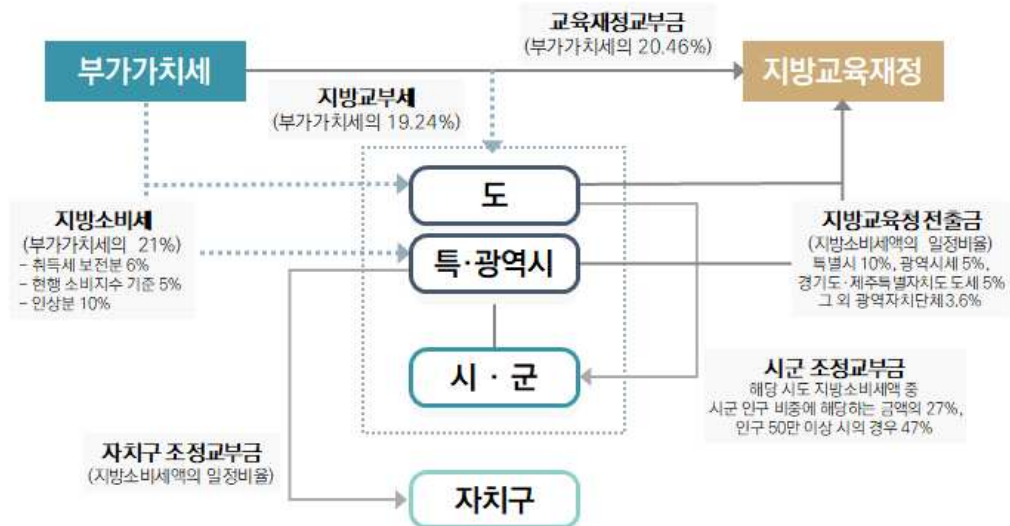
(단위 : 조 원,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추가이양분 구조 (2019~2020)      지방세수 및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전망 (2018~2020)

자료.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의 재정적 함의 재인용(2019),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4-20 ■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재정파급도



자료: 유태현·임상수(2018),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기반확충 실행방안 재인용

#### • 지역간 세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재정 형평화 방안 마련

- 재정분권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세의 규모 확충이 세수의 수도권 편중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현행 보통교부세로 수평적 불균형 완화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유태현, 2020)
- 이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지역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재정 형평화 방안을 마련

#### □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국고보조금의 부담률 증가로 인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30%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으로 인해 주민수요사업 등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세수 증가 명분으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하할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지역 및 지방소멸 위험 지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따라서 보조율 조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국고보조사업의 성격과 재정자립도, 지역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 보조율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함.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오히려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와 18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0년 정부의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은 167.0조원으로 정부지출의 32.6%를 차지하고 있음.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67개 프로그램, 320개 단위사업, 75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재정정보원, 2020),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따라서 최소한 기초사회복지 보조사업은 국가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안정과 균등한 사회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예컨대,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전액 부담이 필요

Ⅱ 그림 4-21 Ⅱ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재정구조



주1. 회색 표시 부분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주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자료. 2020 주요재정통계, 한국재정정보원



#### □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실현

- 제한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적 배분을 위해 재정투자 사전절차 강화 및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함. 재정사업평가 및 보조사업평가 등을 통해 예산편성 연계를 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지속화를 추진
- 또한, 전라북도의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재정지원액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사업평가를 도입하여 도정 연계성 강화 및 사업의 전라북도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
  - 전라북도 대학지원사업의 지원 현황 : 5년간('16~'20년) 86개 사업 84,610백만 원

#### □ 지방교부세 정률분(내국세의 19.24%) 인상

-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직접 연계하여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 보조사업(지역밀착형 사무)을 중심으로 3.6조 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고 지방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3년('20~'22년) 한시 보전. 보전 종료 후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 또한, 부가가치세 10%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지방교부세 정률분(내국세의 19.24%)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세 2019년 10,574억 원에서 2020년에 16,26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보통교부세가 2019년 10,234억 원에서 2020년 9,827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 2019년도 정률분(내국세의 19.24%)이 54.2조 원이었고, 2020년의 경우 48.2조 원으로 11.2%가 축소되었음
  -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는 2019년에 57.7조 원이었으나, 2020년의 경우 52.2조 원으로 9.53%가 축소되었음

【표 4-25】 지방교부세 규모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총계	57,709,283	52,206,826	-5,502,457	-9.53
정률분(내국세의 19.24%)	54,229,719	48,171,562	-6,058,157	-11.17
보통교부세   정률분 중 97%	52,602,827	46,726,415	-5,876,412	-11.17
특별교부세   정률분 중 3%	1,626,892	1,445,147	-181,745	-11.17
부동산교부세	2,942,062	3,320,970	378,908	12.88
소방안전교부세	537,502	714,294	176,792	32.89

주. 2019년도는 최종예산+전년도 정산분, 2020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자료.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30% 미만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수가 188개(전체의 77.4%)에 이르고 있어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한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19.24% 법정률을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구조를 추진해야 함
  - 교부세 법정률 인상 연혁 : (1983년) 13.27% → (2000년) 15.0% → (2005년) 19.13% → (2006년) 19.24%
- 법정률 19.24%를 2%p와 5%p 인상할 경우(시나리오) 교부세 총량 증가
  - 2%p 인상(법정률 21.24%) 할 경우 보통교부세는 49.7조 원으로 추산되면, '20년분 당초 예산기준 4.7조 원이 확충
  - 5%p 인상(법정률 24.24%) 할 경우 보통교부세는 56.5조 원으로 추산되면, '20년분 당초 예산기준 11.5조 원이 확충

■ 표 4-26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시나리오

(단위 : 백만 원)

구분	현재 (법정률 19.24%)	2%p 인상 시나리오 (법정률 21.24%)	5%p 인상 시나리오 (법정률 24.24%)
내국세	251,088,520	251,088,520	251,088,520
담배분 개소세	1,849,200	1,849,200	1,849,200
소방안전교부세	714,294	832,140	832,140
(순)내국세	250,374,226	250,256,380	250,256,380
지방교부세	48,172,001	53,154,455	60,662,147
보통교부세	46,726,841	51,559,821	58,842,282
제주분	1,401,805	1,546,795	1,981,765
분권교부세 보전	323,724	323,724	323,724
(순)보통교부세	45,001,312	49,689,303	56,536,793

## 제2장 재정투자계획

### 1 재정투자방향

#### 01 기본방향

##### □ 중기적 시계에서 종합계획 재정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2021년~2040년까지 20년 동안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사업 등의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재정운영 전략 및 자원배분 방향 등을 마련하여야 함
- 도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절차 이행과 더불어 사업 타당성 확보를 전제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종합계획상의 재정사업을 위해 중기적인 시계에 의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재원운영 및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종합계획의 사업 및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
- 따라서 종합계획의 사업 재원투자를 위해 5년마다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수립하여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내실화 및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재정 배분을 통해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

##### □ 정부의 국가재정 여건, 운영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 등과 연계성 확보

- 2020년도 총수입은 481.8조 원이며, 예산수입 319.9조 원, 기금수입 161.9조 원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296.0조 원, 20개 특별회계 55.1조 원으로 구성
-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8년 결산 기준 20.0%이며, 2020년 본예산 기준 19.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018년 결산 기준 26.8%이며, 2020년 본예산 기준 2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국재정정보원, 2020)
  - 정부는 향후 조세부담률이 '20년과 '21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기획재정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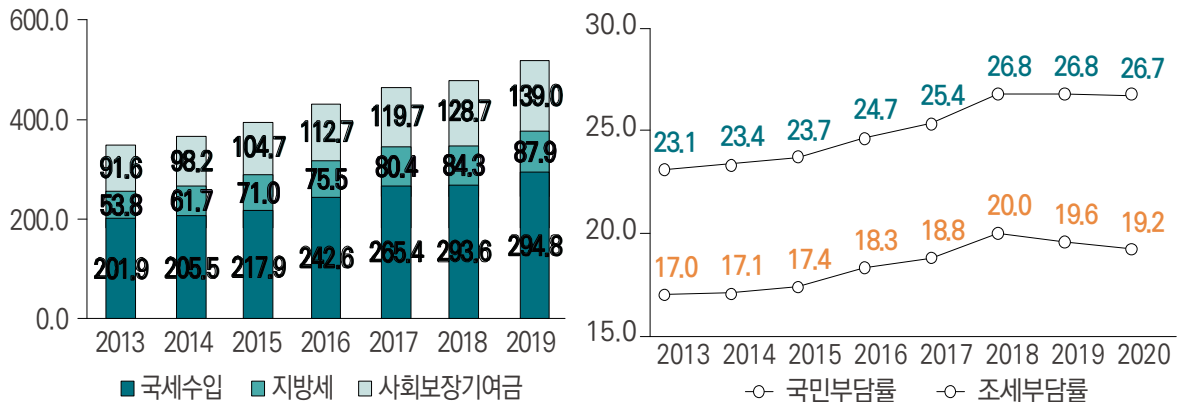
그림 4-22 2020년 국가재정(총수입과 총지출)



자료. 2020 주요재정통계, 한국재정정보원

그림 4-23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조원, %)



자료. 2020 주요재정통계, 한국재정정보원

표 4-27 연도별 조세부담률

(단위: %)

'12	'13	'14	'15	'16	'17	'18	'19p	'20p	'21p	'22p	'23p	'24p
17.8	17.0	17.1	17.4	18.3	18.8	19.9	20.0	19.3	18.7	18.8	18.9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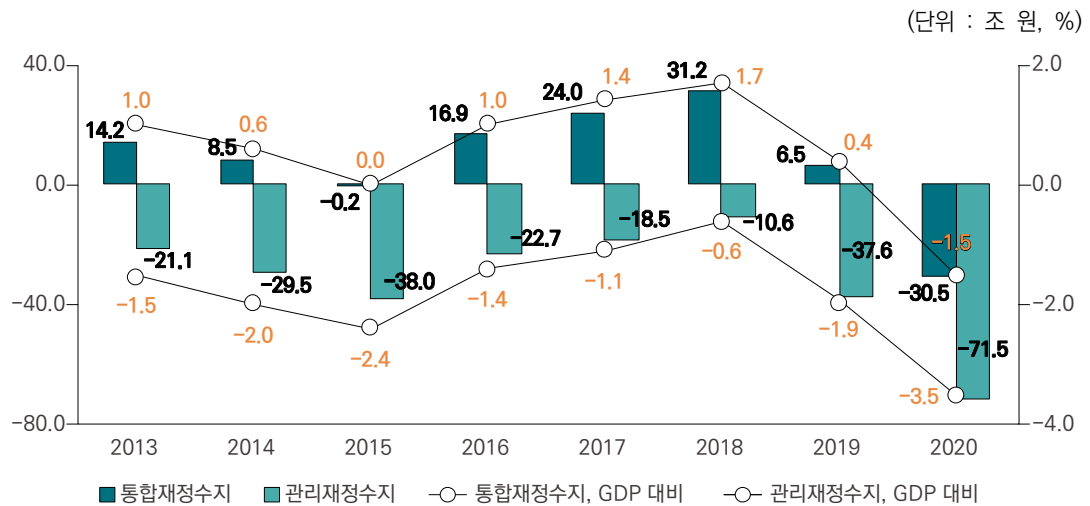
주. p 잠정치

자료.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2020.9), 기획재정부

- 통합재정수지<sup>26)</sup> 추이를 보면 2016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은 30.5조 원 적자로 전망됨.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2013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 상태를 보였으며, 2020년은 71.5조원 적자로 전년 37.6조원 대비 적자규모는 33.9조원 확대(한국재정정보원, 2020)

26) 통합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관리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재정수지에서 사회복지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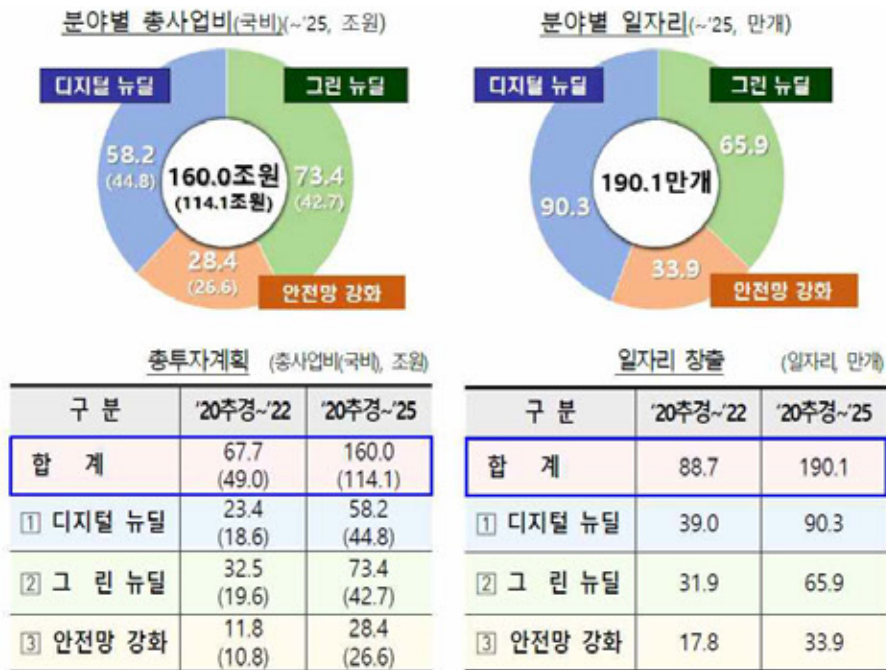
■ 그림 4-24 ■ 재정수지 추이



자료. 2020 주요재정통계, 한국재정정보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고, 국내의 경우도 감염병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 및 사회적 거리로 경제활동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
  - 위기대응을 위해 총 250조 원 규모(GDP의 13.1% 수준) 지원 : 실물피해대책(32조), 금융안정대책(175조), 추가보강대책(46조)(관계부처합동, 2020하반기경제정책방향)
- 정부는 감염병 사태로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및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160.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90.1만 개 창출할 계획으로 전라북도에 적합한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확보
  - 디지털뉴딜 : 총사업비 58.2조 원(국비 44.8조 원, 일자리 90.3만 개 창출)
  - 그린뉴딜 : 총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 일자리 65.9만 개 창출)
  - 안전망 강화 : 총사업비 28.4조 원(국비 26.6조 원, 일자리 33.9만개 창출)

Ⅱ 그림 4-25 Ⅱ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계획



\* ('20추경~'25)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7.14.)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 □ 국가예산 확보의 지속화 및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편성 연계화

- 정부의 재정운영방향과 연계하고 전라북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의 성장 기반의 지속화 및 전북대도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추진해야 함
- 전라북도는 국가예산 확보액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 2014년 61,131억 원에서 2020년 사상 최대의 76,058억 원을 확보하였고, 신규사업 320건에 국가예산 4,327억 원이 확보되어 향후 총사업비 5조2,146억 원 사업추진 기반 마련

\* 국가예산확보액 : ('14) 61,131억 원 → ('15) 61,131억 원 → ('16) 60,568억 원 → ('17) 62,535억 원 → ('18) 65,685억 원 → ('19) 70,328억 원 → ('20) 76,058억 원

-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발전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여 2018년에 경제성장률이 2.2%로 성장하였음(통계청, 2019). 이는 2016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0.8%)에서 벗어난 것이고 전북 10년 평균 성장률 2.1%를 상회한 것임
  - 전북 경제 성장은 전업종이 증가한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업 6.1%, 금융보험업 7.7%, 제조업 1.5% 등이 성장에 기여

표 4-28 전국 시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8	3.4	1.5	2.2	0.4	5.2	0.8	0.0	2.6	4.9	1.6	6.3	2.5	2.2	3.4	-1.1	0.4	-1.7

자료 : 통계청, 2019

- 또한, 예산이 반영된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보조사업평가 등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투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에 연계, 반영하는 재정성과관리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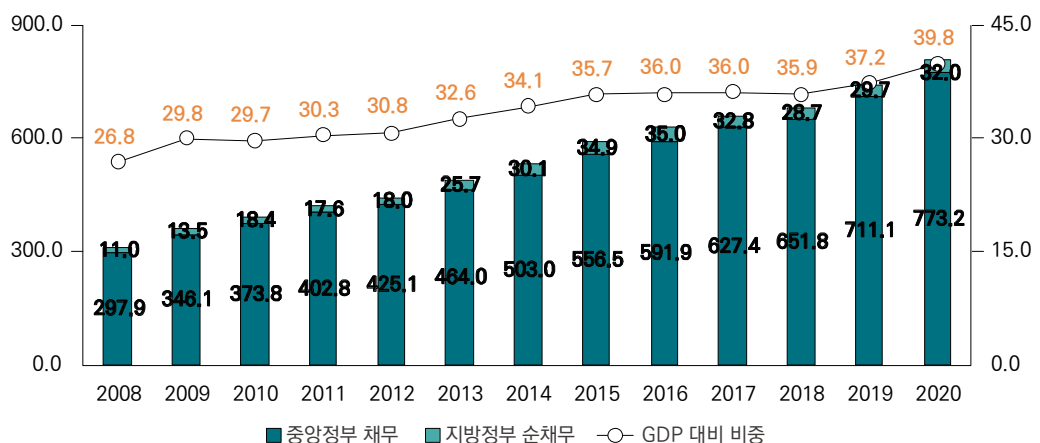
## 02 재정 전망

### □ 재정 여건

- 국가의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흑자를 기록한 해는 2002년(5.1%)~2003년(1.0%)년 및 2007년(6.8%) 등이며 2008년부터 결산기준 지속적으로 적자(국회예산정책처, 2020:83)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71.5조원 적자로 전년 37.6조원 대비 적자규모는 33.9조 원으로 확대
- 국가 채무는 2020년 본예산 기준하여 805.2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773.2조 원)와 지방정부 순채무(32.0조 원)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476.6조 원으로 59.2%를 차지(한국재정정보원, 2020: 76)

그림 4-26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단위 : 조 원, %)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한국재정정보원, 2020주요재정통계

- 경상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현상, 2022년부터 세입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전례 없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성장 및 분배 측면에서 어려움이 확대되고, 수요 및 공급의 동시 위축되며,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악화가 예상. 더불어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 등 전반적으로 경상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발생. 세수는 2022년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표 4-29】 중장기 세입 전망

(단위 : 조 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본예산	추경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92.0	279.7	282.8	296.5	310.1	325.5

자료.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2020.9), 기획재정부

- OECD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한국경제의 경우 역성장하겠으나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하락폭이 상당히 작을 것으로 전망('20년  $\Delta 0.8\%$ )
  - OECD는 수출전망의 경우 하향 조정했으나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내수지표 상향하여 한국의 '20년 성장률 1위를 기록(2위 터키와 4%p 이상 격차).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 가능성을 평가

【표 4-30】 OECD회원국(37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처
		single hit	Double hit	single hit	Double hit	
한국	2.0	$\Delta 0.8$ [ $\Delta 1.2$ ]	$\Delta 2.0$ [ $\Delta 2.5$ ]	3.1 [3.1]	1.4 [1.4]	OECD 한국경제보고서(8.11) [OECD 경제전망(6.10)]
터키	0.9	$\Delta 4.8$	$\Delta 8.1$	4.3	2.0	
호주	1.8	$\Delta 5.0$	$\Delta 6.3$	4.1	1.0	
칠레	1.0	$\Delta 5.6$	$\Delta 7.1$	3.4	1.9	
덴마크	2.4	$\Delta 5.8$	$\Delta 7.1$	3.7	0.9	
노르웨이	1.2	$\Delta 6.0$	$\Delta 7.5$	4.7	1.3	
일본	0.7	$\Delta 6.0$	$\Delta 7.3$	2.1	$\Delta 0.5$	
콜롬비아	3.3	$\Delta 6.1$	$\Delta 7.9$	4.3	2.8	
이스라엘	3.5	$\Delta 6.2$	$\Delta 8.3$	5.7	2.6	
오스트리아	1.5	$\Delta 6.2$	$\Delta 7.5$	4.0	3.2	
룩셈부르크	2.3	$\Delta 6.5$	$\Delta 7.7$	3.9	0.2	
독일	0.6	$\Delta 6.6$	$\Delta 8.8$	5.8	1.7	
스웨덴	1.2	$\Delta 6.7$	$\Delta 7.8$	1.7	0.4	
아일랜드	5.5	$\Delta 6.8$	$\Delta 8.7$	4.8	$\Delta 0.2$	
미국	2.3	$\Delta 7.3$	$\Delta 8.5$	4.1	1.9	OECD 미국경제보고서(7.9)
폴란드	4.1	$\Delta 7.4$	$\Delta 9.5$	4.8	2.4	OECD 경제전망(6.10)
멕시코	$\Delta 0.1$	$\Delta 7.5$	$\Delta 8.6$	3.0	2.0	
스위스	1.0	$\Delta 7.7$	$\Delta 10.0$	5.7	2.3	OECD 슬로베니아보고서(7.20)
슬로베니아	2.4	$\Delta 7.8$	$\Delta 9.1$	4.5	1.5	
핀란드	0.9	$\Delta 7.9$	$\Delta 9.2$	3.7	2.4	OECD 경제전망(6.10)
캐나다	1.7	$\Delta 8.0$	$\Delta 9.4$	3.9	1.5	
헝가리	4.9	$\Delta 8.0$	$\Delta 10.0$	4.6	1.5	OECD 그리스보고서(7.22)
그리스	1.9	$\Delta 8.0$	$\Delta 9.8$	4.5	2.3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처
		single hit	Double hit	single hit	Double hit	
네덜란드	1.8	△8.0	△10.0	6.6	3.4	OECD 경제전망(6.10)
라트비아	2.2	△8.1	△10.2	6.3	2.0	
리투아니아	3.9	△8.1	△10.4	6.4	3.4	
에스토니아	4.4	△8.4	△10.0	4.3	1.6	
뉴질랜드	2.2	△8.9	△10.0	6.6	3.6	
벨기에	1.4	△8.9	△11.2	6.4	3.4	
슬로바키아	2.4	△9.3	△11.1	6.4	2.1	
포르투갈	2.2	△9.4	△11.3	6.3	4.8	
체코	2.5	△9.6	△13.2	7.1	1.7	
아이슬란드	1.9	△9.9	△11.2	4.6	3.0	
스페인	2.0	△11.1	△14.4	7.5	5.0	
이탈리아	0.3	△11.3	△14.0	7.7	5.3	
프랑스	1.5	△11.4	△14.1	7.7	5.2	
영국	1.4	△11.5	△14.0	9.0	5.0	

자료.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20.8.11.), 기획재정부

## □ 국가 재정 전망

### • 재정전망(2019~2023년)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3년까지 중기재정전망을 추정하였는데, 총수입의 증가율은 2019~2023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3.8%, 정부 3.9%로 추정하였고, 총지출의 증가율은 2019~2023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6.0%, 정부 6.5%로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에 △53.8조 원(정부 △49.6조 원)으로 적자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 △94.3조 원(△90.2조 원)으로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커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23년 △4.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4-31】 재정수지 전망(2019~2020)

(단위: 조 원,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9~'23 연평균증가율
총수입	NABO	471.0	477.2	499.3	523.9	546.9	3.8
	정부	476.4	482.0	505.6	529.2	554.5	3.9
총지출	NABO	475.4	511.9	544.1	571.4	600.8	6.0
	정부	469.6	513.5	546.8	575.3	604.0	6.5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비율)	NABO	△4.4 (△0.2)	△34.7 (△1.7)	△44.8 (△2.2)	△47.6 (△2.2)	△53.8 (△2.4)	-
	정부	1.0 (0.05)	△31.5 (△1.6)	△41.3 (△2.0)	△46.1 (△2.1)	△49.6 (△2.2)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비율)	NABO	△45.7 (△2.4)	△74.8 (△3.7)	△84.3 (△4.1)	△86.7 (△4.0)	△94.3 (△4.2)	-
	정부	△42.3 (△2.2)	△72.1 (3.6)	△81.8 (△3.9)	△85.6 (△3.9)	△90.2 (△3.9)	-

자료. 2020 대한민국재정,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전망(2019~2028년)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9~2028년까지 재정전망을 보면, 총수입이 2028년 659.2조 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총지출은 2028년 703.5조 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에 -79.3조 원으로 적자폭이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2028년에 1,490.6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표 4-32 】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2019~2028)

(단위: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GDP대비비율)	471.0 (24.4)	477.2 (23.8)	499.3 (24.1)	523.9 (24.3)	546.9 (24.5)	569.5 (24.7)	591.7 (24.8)	613.8 (24.9)	636.8 (25.0)	659.2 (25.1)	3.8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43.7	357.0	369.9	383.2	397.1	3.5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4.2
총지출 (GDP대비비율)	475.4 (24.6)	511.9 (25.6)	544.1 (26.2)	571.4 (26.6)	600.8 (27.0)	621.0 (26.9)	644.2 (27.0)	664.8 (27.0)	685.2 (26.9)	703.5 (26.7)	4.5
의무지출 (총지출대비비율)	239.8 (50.4)	255.2 (49.9)	269.6 (49.6)	287.6 (50.3)	301.5 (50.2)	318.4 (51.3)	338.4 (52.5)	356.3 (53.6)	374.1 (54.6)	390.2 (55.5)	5.6
재량지출 (총지출대비비율)	235.6 (49.6)	256.6 (50.1)	274.5 (50.4)	283.9 (49.7)	299.3 (49.8)	302.6 (48.7)	305.8 (47.5)	308.6 (46.4)	311.1 (45.4)	313.4 (44.5)	3.2
통합재정수지 (GDP대비비율)	-4.4 (-0.2)	-34.7 (-1.7)	-44.8 (-2.2)	-47.6 (-2.2)	-53.8 (-2.4)	-51.4 (-2.2)	-52.5 (-2.2)	-51.0 (-2.1)	-48.4 (-1.9)	-44.3 (-1.7)	
관리재정수지 (GDP대비비율)	-45.7 (-2.4)	-74.8 (-3.7)	-84.3 (-4.1)	-86.7 (-4.0)	-94.3 (-4.2)	-91.2 (-4.0)	88.9 (-3.7)	-86.0 (-3.5)	-82.3 (-3.2)	-79.3 (-3.0)	
국가채무 (GDP대비비율)	734.8 (38.0)	811.1 (40.5)	895.5 (43.1)	979.5 (45.5)	1,074.3 (48.2)	1,165.1 (50.5)	1,251.6 (52.5)	1,334.9 (54.2)	1,414.3 (55.5)	1,490.6 (56.7)	8.2

자료.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에 의한 재정전망

-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정부정책방향 등에 따라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자원배분 방향 등을 추진하고 있어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계획을 수립
- 2023년까지 정부는 분야별 자원배분방향으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생활편의 증진 인프라 확충, 안전한 국민생활 투자 확대 등을 설정하여 추진
- 2023년에 총 수입이 554.5조 원으로 추정하고, 총 지출이 604조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보건·복지·고용 229.1조 원 등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3.9% 증가하고, 총 지출이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추정

【표 4-33】 기획재정부의 분야별 재정전망(2019~2023)

(단위 :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19~’23)
총 수 입	476.4 (6.5)	482.0 (1.2)	505.6 (4.9)	529.2 (4.7)	554.5 (4.8)	(3.9)
총 지 출	469.6 (9.5)	513.5 (9.3)	546.8 (6.5)	575.3 (5.2)	604.0 (5.0)	(6.5)
1. 보건·복지·고용	161.0 (11.3)	181.6 (12.8)	198.4 (9.3)	213.2 (7.4)	229.1 (7.5)	(9.2)
2. 교육	70.6 (10.1)	72.5 (2.6)	76.0 (4.9)	79.1 (4.1)	82.0 (3.5)	(3.8)
3. 문화·체육·관광	7.2 (12.2)	8.0 (9.9)	8.3 (4.6)	8.6 (3.8)	9.0 (3.6)	(5.4)
4. 환경	7.4 (7.2)	8.8 (19.3)	9.6 (8.5)	10.1 (5.8)	10.6 (4.2)	(9.3)
5. R&D	20.5 (4.4)	24.1 (17.3)	26.7 (10.7)	28.7 (7.7)	30.9 (7.6)	(10.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15.4)	23.9 (27.5)	26.4 (10.3)	28.0 (6.1)	29.9 (6.9)	(12.4)
7. SOC	19.8 (4.0)	22.3 (12.9)	23.4 (4.9)	23.7 (1.4)	23.7 (△0.3)	(4.6)
8. 농림·수산·식품	20.0 (1.5)	21.0 (4.7)	21.5 (2.3)	21.9 (1.9)	22.2 (1.6)	(2.6)
9. 국방	46.7 (8.2)	50.2 (7.4)	53.4 (6.5)	56.4 (5.7)	59.5 (5.4)	(6.2)
10. 외교·통일	5.1 (7.2)	5.5 (9.2)	5.9 (6.2)	6.3 (6.5)	6.6 (5.6)	(6.9)
11. 공공질서·안전	20.1 (5.6)	20.9 (4.0)	21.8 (4.2)	22.7 (3.9)	23.5 (3.7)	(4.0)
12. 일반·지방행정	76.6 (11.0)	80.5 (5.1)	82.4 (2.4)	84.3 (2.3)	86.1 (2.2)	(3.0)

자료.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 □ 지방재정 전망

- 지방재정전망(2020~2024년) 결과 지방재정 총 규모는 1,576조6,604억 원으로 연평균 2.6% 신장 전망(행정안전부, 2020)
  - 일반회계는 1,151조 6,207억 원(73.0%)으로, 연평균 3.1% 증가 전망, 특별회계는 283조 1,210억 원(18.0%)으로, 연평균 1.8% 증가 전망, 기금은 141조 9,187억 원(9.0%)으로, 연평균 0.2% 증가 전망

표 4-34 지방재정 회계별 세입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계	15,766,604	3,009,123	3,066,957	3,130,237	3,226,101	3,334,186	2.6
일반회계	11,516,207 (73.0%)	2,173,333	2,228,268	2,289,387	2,369,545	2,455,673	3.1
특별회계	2,831,210 (18.0%)	547,608	562,780	562,272	570,462	588,088	1.8
기 타	1,892,841	359,061	366,557	374,567	386,687	405,968	3.1
공기업	938,369	188,546	196,223	187,705	183,775	182,120	△0.9
기 금	1,419,187 (9.0%)	288,182	275,909	278,577	286,094	290,425	0.2

자료.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2020), 행정안전부

- 시도별 지방재정 세입 전망을 보면 경기도가 323조5,104억 원(21.3%)으로 가장 많고, 서울(15.9%), 경북(7.9%) 순으로 규모가 큼. 전라북도(시군구포함)는 82조 4,338억 원(5.4%)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5%로 전망

표 4-35 지방재정 시도별 세입전망(시군구 포함)

(단위 : 억 원, %)

구분	계	비중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계	15,766,604	100.0	3,009,123	3,066,957	3,130,237	3,226,101	3,334,186	2.6
서울	2,414,358	15.9	454,543	455,599	477,494	499,575	527,146	3.8
부산	772,309	5.1	148,221	149,849	152,270	158,913	163,055	2.4
대구	647,991	4.3	122,312	122,106	126,864	136,061	140,649	3.6
인천	719,569	4.7	136,899	138,455	144,219	147,192	152,804	2.8
광주	366,751	2.4	67,147	70,570	72,837	75,169	81,028	4.8
대전	367,520	2.4	69,282	72,170	73,000	75,679	77,389	2.8
울산	274,613	1.8	52,147	54,460	55,778	56,351	55,877	1.7
세종	85,793	0.6	16,642	16,814	16,892	17,251	18,194	2.3
경기	3,235,104	21.3	630,290	641,413	641,692	651,555	670,154	1.5
강원	804,500	5.3	155,737	159,894	160,263	162,394	166,213	1.6
충북	651,774	4.3	121,388	125,460	129,876	134,966	140,084	3.6
충남	866,481	5.7	164,740	169,526	172,353	177,518	182,345	2.6
전북	824,338	5.4	157,334	161,099	163,099	168,974	173,831	2.5
전남	1,046,542	6.9	196,663	203,787	207,477	216,227	222,388	3.1
경북	1,205,896	7.9	231,367	235,785	241,621	246,252	250,870	2.0
경남	1,145,131	7.5	220,553	224,633	226,573	232,448	240,925	2.2
제주	337,932	2.2	63,856	65,336	67,929	69,576	71,235	2.8

자료.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2020), 행정안전부

- 시도별·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시도에서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가장 높음. 최고지역은 부산 35.5%이고, 전북은 23.9%로 나타남. 전북은 사회복지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업이 14.9%로 비중이 높고, 환경이 8.7%, 국토지역개발 7.5% 순으로 나타남

표 4-36 시도별·분야별 자원배분 비중

(단위 : %)

구분	일반공공 행정	공공질서 ·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해양 수산	산업중소 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지역개발	과학 기술
계	9.4	2.6	4.7	5.4	9.4	26.4	1.5	6.6	3.3	8.8	7.3	0.1
서울	7.8	1.4	9.0	3.3	7.3	34.1	1.4	0.2	2.4	10.6	4.0	0.0
부산	5.2	2.7	5.4	4.1	7.8	35.5	1.5	1.6	3.1	13.2	5.3	0.0
대구	13.1	3.8	4.6	3.5	8.3	30.5	1.2	1.0	3.1	9.8	4.6	0.2
인천	7.6	2.9	6.3	4.7	9.3	31.1	1.4	1.9	2.4	11.9	7.9	0.2
광주	6.5	3.3	5.5	6.0	6.5	33.3	1.7	1.0	3.6	13.1	5.5	0.1
대전	12.2	3.3	4.8	5.3	8.3	31.0	1.7	0.7	2.1	11.6	5.0	0.7
울산	8.2	4.4	4.8	6.7	10.8	25.5	1.4	3.4	2.4	8.3	7.4	2.0
세종	6.1	3.0	4.3	2.6	10.5	23.8	1.8	5.8	4.6	5.5	19.9	0.3
경기	11.4	2.8	6.4	4.9	11.0	25.5	1.5	2.9	2.6	9.4	8.1	0.1
강원	13.0	2.2	2.3	8.1	8.8	19.7	1.4	9.9	4.6	7.7	8.4	0.0
충북	9.0	3.7	2.7	6.0	10.6	21.2	1.5	9.9	5.2	8.2	7.9	0.0
충남	7.8	2.7	1.3	6.6	10.6	22.2	1.9	12.8	3.6	5.8	9.5	0.0
전북	6.8	2.5	2.2	6.4	8.7	23.9	1.6	14.9	5.8	4.9	7.5	0.2
전남	9.4	2.9	2.2	6.6	8.6	19.2	1.5	18.1	3.6	5.6	8.4	0.0
경북	10.4	3.0	0.9	6.7	9.9	20.8	1.5	13.1	3.6	6.2	9.8	0.2
경남	8.5	2.0	3.8	6.5	10.2	24.8	1.3	10.4	2.9	7.4	8.1	0.0
제주	12.4	4.2	2.0	5.6	11.4	19.8	1.2	11.5	4.7	8.4	6.6	0.0

자료.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2020), 행정안전부

## □ 전라북도 지방재정 전망

- 전라북도청의 2020~2024년까지 43조 4,774억 원으로 연평균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일반회계는 36조 1,026억 원, 특별회계 3조 3,106억 원, 기금 4조 642억 원으로 전망

표 4-37 전라북도청 지방재정 회계별 세입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계	434,774	83,092	85,004	85,836	88,655	92,187	2.6
일반회계	361,026	66,652	69,170	72,023	75,018	78,163	4.1
특별회계	33,106	6,313	6,461	6,615	6,776	6,941	2.4
기금	40,642	10,127	9,373	7,198	6,861	7,083	△8.5

자료.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 행정안전부

- 2020~2024년까지 시군별 지방재정 전망을 보면 전주시가 2024년에 2조 2,148억 원으로 전망되고, 군산시가 1조 5,775억 원, 익산시가 1조 8,687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으로 5.1% 전망하고 있음.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로 -0.9%로 전망

【표 4-38】 전라북도 및 시군별 지방재정전망(2020~2024)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전북본청	8,309,127	8,500,359	8,583,661	8,865,595	9,218,674	2.6
전주시	2,292,737	2,292,007	2,323,800	2,330,521	2,214,822	-0.9
군산시	1,415,353	1,484,521	1,504,440	1,545,436	1,577,578	2.8
익산시	1,534,226	1,603,841	1,659,916	1,755,420	1,868,775	5.1
정읍시	1,027,173	1,025,557	1,026,482	1,034,844	1,053,462	0.6
남원시	906,831	922,379	944,088	976,481	1,005,948	2.6
김제시	1,132,971	1,177,257	1,156,688	1,168,248	1,184,128	1.1
완주군	780,496	810,972	842,689	875,700	910,061	3.9
진안군	444,952	473,887	505,216	539,145	575,898	6.7
무주군	480,423	501,167	497,244	529,489	537,738	2.9
장수군	504,251	521,231	534,753	542,943	560,964	2.7
임실군	471,324	476,905	480,582	485,324	500,838	1.5
순창군	490,406	535,680	533,982	561,323	578,227	4.2
고창군	733,994	762,083	778,639	797,667	817,028	2.7
부안군	641,685	656,200	671,397	684,357	697,857	2.1

자료. 지방재정 365

- 2020~2024년까지 전라북도(시군 포함) 지방재정은 보전재원 등을 제외하고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을 중심으로 재정 전망
  - 총 규모는 72조 4,933억 원으로 자체수입이 22조 2,151억 원, 이전수입이 49조 4,798억 원으로 전망됨. 자체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0%, 이전수입은 4.1%로 전망됨

【표 4-39】 전라북도 재원별 재정전망(시군 포함, 2020~2024)

(단위: 억 원, %)

구분	계	비중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계	724,933	100	135,644	139,867	144,029	150,137	155,255	2.6
자체수입	222,151	30.6	42,535	44,047	44,175	45,376	46,018	2.0
지방세	143,088		27,340	27,952	28,616	29,260	29,920	2.3
세외수입	79,063		15,195	16,095	15,559	16,116	16,098	1.5
이전수입	494,798	68.3	91,575	94,255	98,258	103,133	107,576	4.1
지방교부세	275,312		51,628	53,327	54,905	56,801	58,650	3.2
보조금	219,486		39,947	40,928	43,353	46,332	48,926	5.2
지방채	7,984	1.1	1,534	1,565	1,596	1,628	1,661	2.0

자료.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 행정안전부. 참고 재가공

- 2025~2030년까지 전북 지방재정을 전망하여 보면 2025년에 지방세(4조 6,948억)와 세외수입(1조 6,339억 원)을 포함하여 4조 6,948억 원으로 전망되고, 이전수입은 11조 1,997억 원으로 전망됨. 2030년에 이르면 자체수입은 5조 1,896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전수입은 13조 7,169억 원으로 추정됨
- 2031년은 자체수입, 이전수입, 지방채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규모는 19조 7,742억 원으로 추정되고, 2040년에 이르면 지방재정규모(자체수입, 이전수입, 지방채 포함)가 27조 2,942억 원으로 추정

표 4-40 전북도 자원별 재정전망(시군 포함, 2025~2040)

(단위 : 억 원, %)

구분	계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지방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2025	160,639	46,948	30,608	16,339	111,997	60,527	51,470	1,694		
2026	166,235	47,897	31,312	16,585	116,610	62,464	54,147	1,728		
2027	172,053	48,866	32,032	16,833	121,425	64,462	56,962	1,763		
2028	178,102	49,855	32,769	17,086	126,450	66,525.29	59,924	1,798		
2029	184,393	50,865	33,523	17,342	131,694	68,654	63,040	1,834		
2030	190,936	51,896	34,294	17,602	137,169	70,851	66,318	1,871		
2031	197,742	52,949	35,083	17,866	142,885	73,118	69,767	1,908		
2032	204,823	54,024	35,889	18,134	148,853	75,458	73,395	1,946		
2033	212,190	55,121	36,715	18,406	155,084	77,873	77,211	1,985		
2034	219,857	56,242	37,559	18,682	161,591	80,365	81,226	2,025		
2035	227,838	57,386	38,423	18,963	168,386	82,936	85,450	2,065		
2036	236,144	58,554	39,307	19,247	175,484	85,590	89,894	2,107		
2037	244,793	59,747	40,211	19,536	182,897	88,329	94,568	2,149		
2038	253,798	60,965	41,136	19,829	190,641	91,156	99,486	2,192		
2039	263,175	62,208	42,082	20,126	198,731	94,073	104,659	2,235		
2040	272,942	63,478	43,050	20,428	207,184	97,083	110,101	2,280		

주. 재정전망 추정을 위해 지방세 2.3%, 세외수입 1.5%, 지방교부세 3.2%, 보조금 5.2%, 지방채 2.0%를 적용하여 산정

자료.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 행정안전부. 참고 재가공

## 2 투자계획

### 01 투자계획

#### □ 투자계획 개요

- 계획기간인 2021년~2040년 기간 동안 전라북도 종합계획 상의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액은 133조 1,427억원으로 추정

【표 4-41】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투자계획

(단위: 억 원)

구분	합 계	기투자	2021~2025	2026~2030	2031~2035	2036~2040
계	1,331,427	41,815	928,379	186,071	120,137	55,025

#### □ 부문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 투자비의 부문별 비중은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SOC 대동맥 완성’이 65조 3,025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생태계 개편을 통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재원별로는 국비가 95조 7,791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표 4-42】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부문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억 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832개 사업)	1,331,427	957,791	88,483	63,943	221,211
도약하는 지역발전과 생태문명 기반 조성(49)	101,188	72,792	6,725	4,860	16,812
도민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전북 구현(97)	58,363	41,984	3,879	2,803	9,697
상생형 도농융합과 농산어촌 활성화(70)	92,803	66,760	6,167	4,457	15,419
미래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127)	91,999	66,181	6,114	4,418	15,285
스마트 산업기반 구축과 주력산업 고도화(81)	45,843	32,978	3,047	2,202	7,617
산업생태계 개편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130)	178,992	128,762	11,895	8,596	29,739
공생과 혁신을 통한 고품격 여행체험 1번지 육성(175)	109,215	78,566	7,258	5,245	18,146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SOC 대동맥 완성(103)	653,025	469,767	43,398	31,362	108,497



## 02 재원조달 방안

### □ 중장기 사업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방안 구축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총사업비 133조 1,427억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기금, 융자, 민자 등)에 의해 조달
- 국비, 지방비 등 재원조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 연차별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사업 추진

### □ 중앙정부 의존재원 적극 확보를 위한 대응력 강화

- 예산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및 실현성 등을 반영하여 국비지원의 근거 및 타당성 확보
- 중앙정부의 국가 재정운용계획 및 부처별 사업 계획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의 연계성 및 논리 확보를 통한 국가 예산 적극 유치
- 국고보조금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함께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높은 사업 등을 선별하여 국가 부담 비율을 확대하도록 요구하여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
-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부서별 국가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외부재원의 전략적 활용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통한 국비 확보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유치 대상사업 추진시 사업수익성 검증과 투자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자본투자를 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SOC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대응체계 구축
- 도비가 포함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 투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예산 투입의 효과성 증대

□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투자 가용재원 확보

- 유사 중복사업 및 소모성, 행사성 사업, 관행적인 장기 계속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 예산 지원범위 및 사업 물량 확대 등으로 인해 유사 및 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 보조금에 의존하는 민간지원 예산의 재검토를 통해 지원 축소 및 민간자부담 확대 유도
-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강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의 평가를 통해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실시

□ 재정투자사업 관리체계구축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 등의 분석과 분석 결과를 예산 수립시 반영토록하여 실천력 확보
-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추진방식 및 운영방식, 사업내용, 예산과의 연계성 등을 담보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불확실한 경기 변동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과 그에 따른 사업 변경 및 내용 보완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하고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역할 확대 추진

□ 민간자본 효율적 활용

- 투자비용의 조달에 있어 민간 투자자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별 유치전략 수립 및 운영
- 외국자본 적극 유치를 통한 세수 기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제3섹터 방식 등 지역내 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적극 추진

V

## 시군별 발전방향

### 1. 시 지역

- |         |         |
|---------|---------|
| 1.1 전주시 | 1.4 정읍시 |
| 1.2 군산시 | 1.5 남원시 |
| 1.3 익산시 | 1.6 김제시 |

### 2. 군 지역

- |         |         |
|---------|---------|
| 2.1 완주군 | 2.5 임실군 |
| 2.2 진안군 | 2.6 순창군 |
| 2.3 무주군 | 2.7 고창군 |
| 2.4 장수군 | 2.8 부안군 |





## 제1장 시 지역

### 1 전주시<sup>27)</sup>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206.04km<sup>2</sup> (전북의 2.55%)
- 인구 : 654,394명 (전북의 35.98%)
- 세대 : 273,753세대 (세대당 2.39명)
- 행정구역 : 2구 35동
- 행정정원 : 2,159명
  - 시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303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의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교육·문화 등의 중심지</li> <li>-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우수한 자원과 콘텐츠 보유 및 접근성 탁월</li> <li>- 녹색성장정책,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응 활성화</li> <li>- 비교적 환경오염이 적고 시가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과 경관 조성</li> <li>- 수소·탄소·드론산업 등 신산업의 급성장</li> <li>- 우수한 교육도시로서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지식산업도시로의 발전에 필요한 인적 기반 구축</li> <li>- 국내 최초 탄소섬유 양산체계 구축으로 우수 연구기반 및 인적자원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해권 시대의 새만금 배후도시이며 국토계획상 전주·군장 광역권의 중심도시로서 위상과 역할의 부여</li> <li>-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배후거점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li> <li>-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li> <li>- 문화·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여가수요의 증대로 전통문화예술·관광에 대한 가치 증대</li> <li>-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지속적 추진 의지</li> <li>- 영상, ICT, 전통문화, 관광도시로서 산업분야 간 상호 연관성 존재</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권 중추도시로서 지역의 협소성</li> <li>- 풍부한 전통문화자원과 산업진흥이 연계되지 못하여 관광 및 문화산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 미흡</li> <li>-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인구의 타 지역 유출과 점진적 감소로 인적 자원의 취약과 도시 활력 감소 우려</li> <li>- 광역경제권 확대에 의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기능 약화</li> <li>- 시군 통합이 지연됨에 따라 광역거점도시로의 발전과 광역적 도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li> </ul>

27)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jeonju.go.kr>) 시정 방침 및 민선7기 시정 운영방향 등 재정리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 □ 기본목표

- **[함께하는 복지도시]** 기본적인 복지를 탄탄하고 세심하게 보장하여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도시 구현
- **[활기찬 일자리도시]** 창의적인 미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일터에서 존중받고 삶터에서 활기를 찾는 전주형 자립경제 구현
- **[품격있는 문화도시]** 깊은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전주의 격을 높이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로 전주의 위상 제고
- **[지속가능 생태도시]** 자연과의 공존, 사람의 행복지수 위주로 정책을 실천하여, 에너지 위기·기후변화 등으로부터 안전한 자립도시, 삶의 질이 높은 녹색도시를 만들어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태도시의 가치 실현

### □ 추진전략

-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 문화기반 지속가능 여행도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추진
- 인문으로 성장하는 도서관 도시 조성
-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추진
- 사람 우선, 전주형 지역재생(주거재생·도시재생) 모델 구축
- 사람 중심,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교통도시 조성



### 03 발전방향

#### □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 추진

- [디지털 인재 양성, J-디지털 교육밸리 조성] 디지털 융복합 혁신센터 등 교육 밸리 인프라 확충, 미래인재 아카데미 운영, 대학연계 전문 인재 양성
-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구축] 5G 기반 디지털트윈 도시문제 실증허브 시스템 구축, CCTV 영상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등
- [그린뉴딜 기반 강화] 에너지 디자인 3040 및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 추진, ‘제2 첫마중길’ 충경로 문화거리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추진 등
- [4대 신성장 산업 고도화] 수소경제 시범도시 추진 및 수소인프라 구축 확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추진 및 연구소기업 확대 추진, 전주 드론축구 세계월드컵 개최 및 드론산업 활성화, 제3 금융도시 추진

#### □ 문화기반 지속가능 여행도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추진

- [지속가능 문화콘텐츠 구축] 전주부성 복원 및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한옥마을·전라감영 등 문화콘텐츠 활성화
- [전주관광 외연 확장] 독립영화의 집·시립미술관·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예술공간 완산병커 1973 조성,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등
- [국제적 수준의 관광 환경 조성]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한옥마을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 추진, 통합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활용

#### □ 인문으로 성장하는 도서관 도시 조성

- [도서관 인프라 확충] 아중호수도서관·신도시(혁신·에코) 복합커뮤니티 건립, 야호 책 놀이터 조성, 첫마중도서관 및 서학마을 예술전문도서관 등 조성
- [일상 속 독서문화 활성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동네책방·서점 활성화,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독서대전 개최,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환경 지원

□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추진

-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 10대 거점\* 정원도시 인프라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도시공원 생태환경 개선, 도시 바람길 숲 조성

\* 꽃심 지방정원, 한옥마을 정원, 덕진공원 전통공원, 도도정원, 시민의 숲 1963, 학산 치유의 숲,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등

- [정원산업 중심도시를 위한 기반 확충] 정원문화박람회 추진, 도도동 일원 정원 산업단지 조성, 10개 거점 숲·정원 및 민간정원 등 정원관광투어 개발

□ 사람 우선, 전주형 지역재생 모델 구축

- [지속가능 주거지 재생] 생활·그린·휴먼 인프라 구축 및 연계 전략 수립, 전주형 주거지재생 사업 추진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사람과 공간의 가치를 담은 도시재생]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뉴딜사업 연계·지원,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새뜰마을(승암마을·도토리골·남노송동) 조성 추진

□ 사람 중심,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교통도시 조성

-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 대중교통 혁신] 시내버스 지·간선제 단계적 확대,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추진, 주민참여형 마을 주·정차 운영, 친환경(수소버스 도입) 교통수단 확대,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시민과 예술가가 존중 받는 예술승강장 확대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공영자전거 이용 기반 확대, 자전거도로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 2 군산시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396.68km<sup>2</sup> (전북의 4.91%)
- 인구 : 270,131명 (전북의 14.85%)
- 세대 : 118,264세대 (세대당 2.28명)
- 행정구역 : 1읍 10면 16동
- 행정정원 : 1,572명
  - 시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172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문화, 해양, 역사 등 해양과 내륙이 연결된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li> <li>-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 양호</li> <li>-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입지 및 자동차·조선·기계·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사업'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 보유</li> <li>- 환황해 경제권의 대중국 교역 증대에 따른 글로벌 시장 확대</li> <li>- 삶의 질 추구 및 소득 증대에 따른 휴양관광, 레포츠 수요 및 관심 증가</li> <li>-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정책 시행</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비율이 높아 도시공간 협소로 토지이용 제약</li> <li>- 대기업 위주의 조선, 자동차 산업 외 산업기반 취약</li> <li>- 문화 및 복지시설 등 생활편익시설과 지역 내 관광자원 연계 기반 시설 부족</li> <li>- 각종 개발 및 새만금 사업으로 원도심 기능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책사업의 의존 심화에 따른 도시기능 약화 우려</li> <li>- 새만금사업의 파급에 따른 인근 지자체와 경쟁 심화</li> <li>-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정체 및 감소</li> <li>-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저성장세 지속으로 경제성장 둔화</li> </ul>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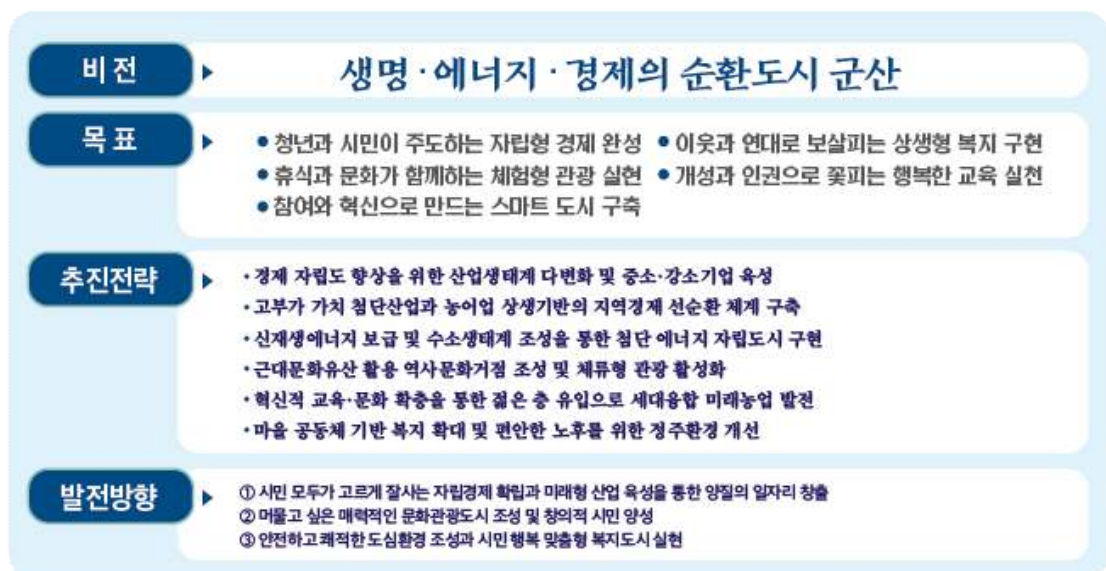
- 생명·에너지·경제의 순환도시 군산

### □ 기본목표

- 청년과 시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경제 완성
- 휴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실현
- 참여와 혁신으로 만드는 스마트 도시 구축
- 이웃과 연대로 보살피는 상생형 복지 구현
- 개성과 인권으로 꽃피는 행복한 교육 실천

### □ 추진전략

- 경제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산업생태계 다변화 및 중소·강소기업 육성
- 고부가 가치 첨단산업과 농어업 상생기반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생태계 조성을 통한 첨단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 근대문화유산 활용 역사문화거점 조성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 혁신적 교육·문화 확충을 통한 젊은 층 유입으로 세대융합 미래농업 발전
- 마을 공동체 기반 복지 확대 및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 03 발전방향

- 시민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자립경제 확립과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청년, 사회적경제 등 풀뿌리 경제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신산업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체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확충
  - 지역 농수산물 판로개척 및 스마트 농수산업 육성을 통한 농수산업 부흥
  - 새만금 개발 연계, 모빌리티·재생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 및 창의적 시민 양성
  - 시민 문화예술 향유 증대와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인프라 개선
  - 실감콘텐츠 문화예술행사 및 VR체험 등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체험·체류 1,500만 관광도시 조성 및 법정 문화도시 지정·운영
  -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 맞춤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통합 및 유대감 강화로 지역 문화지수 향상 추진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시민 행복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
  - 보편적 혜택을 통한 민생지원 강화 및 일상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환경복지 확대 및 건강권 확보를 통한 살고 싶은 도시기반 조성 및 지역 안전지수 1등급 달성
  - 리빙랩을 연계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 새만금 지역 미래 교통인프라 도입
  - 도심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공중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 혼잡 및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는 미래 선도적 인프라 구축
  - 하이브리드 도시공원 민자개발 및 폐철도 부지 녹지 확대
  - 의료 르네상스 클러스터 구축 및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강한 군산 조성

### 3 익산시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506.54km<sup>2</sup> (전북의 6.28%)
- 인구 : 287,771명 (전북의 15.82%)
- 세대 : 126,876세대 (세대당 2.27명)
- 행정구역 : 1읍 14면 14동
- 행정정원 : 1,556명
  - 시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185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고속도로, 4개 철로(고속철도)가 분기하는 편리한 광역 접근성</li> <li>-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li> <li>- 생태경관, 세계유산백제역사지구, 근대역사 등 풍부한 관광자원</li> <li>- 홀로그램, 바이오의학 등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li> <li>- 환경친화도시·여성·안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산업의 발달</li> <li>- 친환경·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li> <li>-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준비 중인 분야(식품, 홀로그램, 안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li> <li>- 새만금·혁신도시와의 상생발전 기회</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기반시설이 남부권에 편중되어 북부권 읍·면과의 격차 증가</li> <li>- 농촌지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li> <li>- 매장 문화재의 한계를 가진 백제유적지</li> <li>- 분산되어 있는 관광자원 간 연계성 미약</li> <li>- 섬유, 보석, 석재가공산업 등 전통산업의 쇠퇴</li> <li>- 구도심지역의 인구 감소 및 종사자수의 감소로 구도심 쇠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 분야는 공주·부여, 농업 분야는 김제, 신산업 분야에서는 군산·전주 등 주변 지자체와 경쟁 심화 예상</li> <li>- 접근성 개선에 따른 도청소재지인 전주시로 빨대효과 우려</li> <li>- 도농복합도시로 저출산·고령사회 진입</li> </ul>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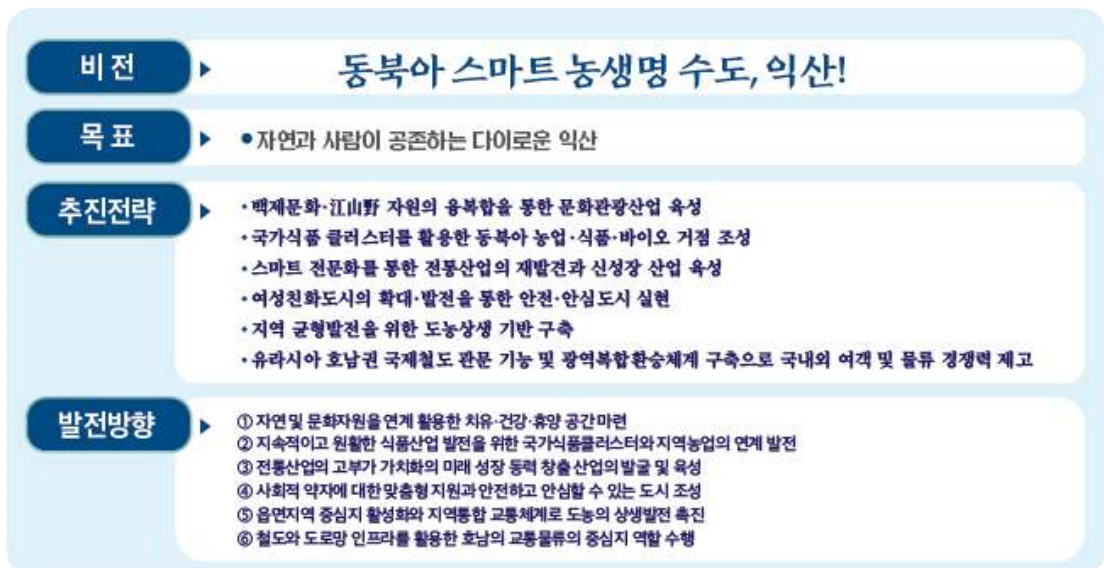
- 동북아 스마트 농생명 수도(首都), 익산!

### □ 기본목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다이로운 익산

### □ 추진전략

- 백제문화·江山野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동북아 농업·식품·바이오 거점 조성
- 스마트 전문화를 통한 전통산업의 재발전과 신성장 산업 육성
- 여성친화도시의 확대·발전을 통한 안전·안심도시 실현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상생 기반 구축
- 유라시아 호남권 국제철도 관문 기능 및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여객 및 물류 경쟁력 제고



### 03 발전방향

#### □ 자연 및 문화자원을 연계 활용한 치유·건강·휴양 공간 마련

- 세계문화유산 익산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실체가 분명한 유적을 복원하고 실감형 콘텐츠(AR·VR·홀로그램 등) 접목으로 문화향유 인프라 조성
- 익산 중심 백제역사문화권의 문화환경 연구조사를 통한 인접 지역과 연계협력 사업 발굴로 국제 역사문화 탐방지화 등 국제 문화교류 증진
- 부족한 청소년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의 방문객 유치
- 익산의 부존자원인 산림, 농촌경관,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치유·건강·휴양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기반 원격진료 등 스마트 헬스케어 가능 체류형 힐링 공간 조성
- 빅데이터 기반 관광안내부터 교통서비스까지 원스톱 ICT기반 및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등 통합 관광플랫폼 구축
- 주변 지역과 관광의 공동 마케팅을 수행하여 관광의 새로운 수요 창출

#### □ 지속적이고 원활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농업의 연계 발전

- 익산시 및 주변 시군 농촌지역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조달 체계 구축
- 친환경 기능성 농업지대 조성, 스마트 팜 단지 조성 등 전북권 중심 국가식료 클러스터 생산기반 조성
- 식품·바이오 기업을 위한 농식품 가공, 유통 등의 지원

#### □ 전통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산업의 발굴 및 육성

-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ICT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기업의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산업의 육성
- 첨단기술(홀로그램) 중심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 및 에너지 고효율·저오염화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 전환으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메카 조성
- 동물용의약품,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동물케어 클러스터 구축 및 감염병 연구단지 조성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넘어선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추진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마련
- 고령자·은퇴자 및 전체 시민이 행복한 의료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 헬스 케어 시스템 도입
- 경쟁력 높은 응급의료 및 국가화학 재난 인프라를 활용한 지진, 풍수해,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대비 국토 서부권 국가방재거점 기능 담당
-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참여형 안전도시 조성

#### □ 읍면지역 중심지 활성화와 지역통합 교통체계로 도농의 상생발전 촉진

-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비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
- 환경 친화적인 농촌마을 만들기
- 도시와 농촌의 물적, 인적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농촌지역 과소화방지로 농촌 어메니티 유지 및 정주환경 개선

#### □ 철도와 도로망 인프라를 활용한 호남의 교통물류의 중심지 역할 수행

- 호남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와의 체계적 연계로 도로교통 요충 기능 제고
- 익산-군산-전주를 잇는 서틀열차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연계성 강화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신교통수단의 도입 검토
-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한 철도이용객 편리성 도모 및 지역관문 기능 담당
- 국제철도 출입국 관리시설(CIQ) 인프라 확보로 국토 남부권 국제거점역 역할 수행
- 새만금 및 호남권 국제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유라시아 거점 물류단지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 산업단지 확장 및 배후도시 조성, 국제 간 식품 진흥 네트워크 구축 등 세계적인 푸드폴리스 기능 담당을 위한 기반 조성

## 4 정읍시<sup>28)</sup>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693.04km<sup>2</sup> (전북의 8.59%)
- 인구 : 110,541명 (전북의 6.08%)
- 세대 : 53,582세대 (세대당 2.06명)
- 행정구역 : 1읍 14면 8동
- 행정정원 : 1,161명
  - 시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95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복합형태의 지역으로 거주, 복지, 문화 등 여건 구축</li> <li>- 무성서원, 동학 등 세계유산적 가치 자원 풍부</li> <li>- 내장산, 라벤더, 구절초 지방정원 등 자연생태휴양자원 풍부</li> <li>- 농생명 연구기관 집적화 및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li> <li>- 3대 국책연구기관 등 첨단 R&amp;D 기반 보유</li> <li>- KTX 개통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와 생태 중심, 삶의 질 중시 트렌드(전원주거단지 확대와 레저·휴양 욕구 증가)</li> <li>-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리적 인접</li> <li>-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의 확대</li> <li>- 안전한 농축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li> <li>-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 증가</li> <li>- 4차 산업 등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농축산업의 기술력 증가</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지출 증가 추세 및 낮은 재정자립도</li> <li>- 지역 및 자원 간 연계 전략(관광)서비스 미흡</li> <li>- 계절별·시기별 관광객 편중 현상 심화</li> <li>- 환경문제로 인한 축산업 발전 여건 악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노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지역 공동화</li> <li>- 중국의 급성장,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li> <li>- 우수 인재육성 취약과 유출로 지역발전 동력 약화</li> <li>- 교통접근성 개선, 도시와 농촌 간 소득의 격차로 인한 인구 유출 심화</li> <li>- 열악한 지역 재정 여건 및 추진체계</li> </ul>

28) 자료 : 정읍시 법정문화도시 기본계획. (2019). 정읍시, 정읍시 홈페이지 참조 및 재가공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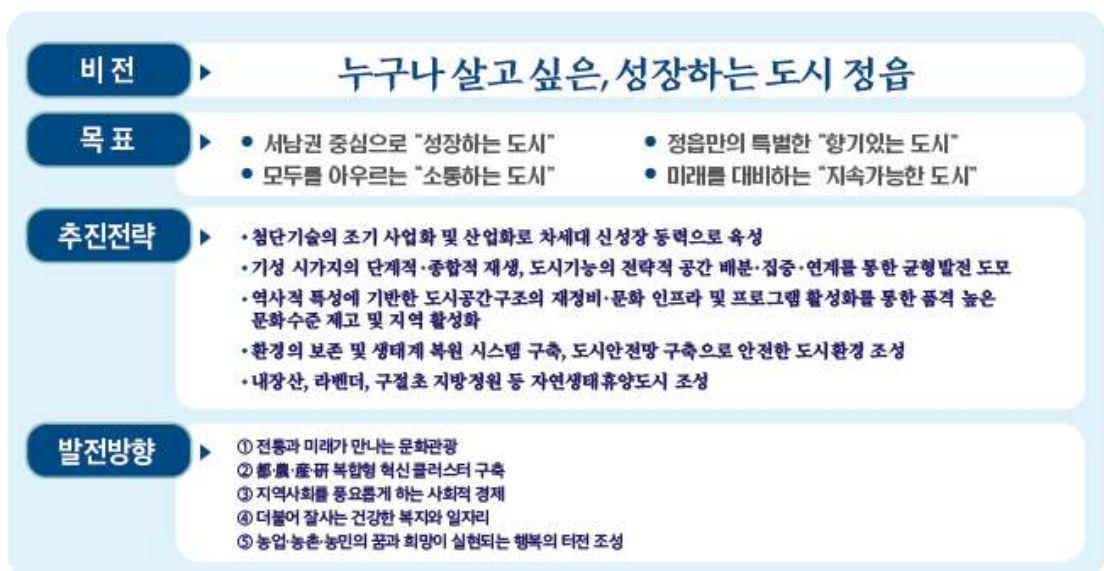
- 누구나 살고 싶은, 성장하는 도시 정읍

### □ 기본목표

- 서남권 중심으로 “성장하는 도시”
- 모두를 아우르는 “소통하는 도시”
- 정읍만의 특별한 “향기있는 도시”
-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 □ 추진전략

- 첨단기술의 조기사업화 및 산업화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기성 시가지의 단계적·종합적 재생, 도시기능의 전략적 공간 배분·집중·연계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역사적 특성에 기반한 도시공간구조의 재정비·문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품격 높은 문화수준 제고 및 지역 활성화
- 환경의 보존 및 생태계 복원 시스템 구축,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내장산, 라벤더, 구절초 지방정원 등 자연생태휴양도시 조성



### 03 발전방향

#### □ 전통과 미래가 만나는 문화관광

- 역사와 문화를 오감(五感)할 수 있는 전통문화 재생
  - 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역사·문화의 시민 참여 확대
  - 정읍의 역사와 지역 문화·문화재가 가진 지역적 특색과 각 자원들의 체험 요소가 어우러진 관광브랜드 개발
- 국가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도약
  - 역사·문화 및 관광지 편의·안내 시설의 외국 관광객 이용 편의 개선 및 인프라·네트워크 구축
  - 내장산, 구절초지방정원, 라벤더를 활용한 향기공화국 조성
- 문화와 도시 발전(사회·경제·환경)의 지속가능한 공진화(共進化)
  - 시민 중심의 공유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문화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활용

#### □ 都·農·産·研 복합형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자체 R&D 사업을 위한 점진적 예산 확대 및 지역현안 해결형·특화산업 육성 R&D 강화
- 지역 내 연구 R&D기반 연계활용 강화 및 우수인력 유치·양성으로 과학기술 인프라 활용성 제고
- 첨단과학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플랫폼 구축
-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계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등 창업생태계 구축 및 기업지원 강화

#### □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경제

- 기술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
- 지역순환형 공생경제, 사회적 경제 도시

#### □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와 일자리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요인 증가 대응방안 마련
- 소비적 복지로부터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대응 및 시스템 마련

- 웰빙·감성 소비시대를 대응한 힐링산업 육성
- 신직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고령화친화산업 분야 육성 지원)
- 스포츠 행복도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 □ 농업·농촌·농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행복의 터전 조성

- 미래농업 고부가가치 기능성을 위한 농업분야 개발(농업기술과 첨단기술의 융합)
- 고품질 농축사업 기반 구축, 선진농업 생산·유통체계 구축, 에코축산으로 혁신 선도·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 쾌적한 농촌환경 구축, 농촌일자리 확대, 귀농귀촌 확대 및 정착으로 희망찬 농촌 구축
- 농민소득 향상,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생애맞춤형 문화 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농민 육성
- 정읍시 푸드플랜, 지역순환경제 및 공동체 육성과 참여·협력 농정 육성

## 5 남원시<sup>29)</sup>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752.19km<sup>2</sup> (전북의 9.32%)
- 인구 : 81,441명 (전북의 4.48%)
- 세대 : 38,427세대 (세대당 2.12명)
- 행정구역 : 1읍 15면 7동
- 행정정원 : 1,072명
  - 시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76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산 국립공원과 섬진강, 요천을 비롯하여 수려한 자연 경관과 청정 이미지</li> <li>- 광한루원, 만복사지, 남원읍성, 교룡산성, 실상사, 가야문화 등 고도의 역사문화 자원과 정유재란, 동학, 판소리, 혼불 등 고전 및 무형 문화자원 풍부</li> <li>- KTX와 대구-광주 간 고속도로,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등 지역 접근성 양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특화 산업을 비롯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조업 분야 산업 육성</li> <li>-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및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국가사업 인프라 기대</li> <li>- 국민의 삶의 질 욕구가 커지면서 생태·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대적 감각을 겸비한 테마 부족과 노후화, 종합적인 관광자원 연계화 미흡</li> <li>-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행 및 청년층의 선별적 인구 유출로 도시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이 취약</li> <li>- 농·식품 및 3차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조업 등과 같은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비 의존도가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주변 대도시로의 문화 산업과 일자리, 교육 및 소비 등의 유출이 심하고 도시 활력 저하</li> <li>- 타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확대로 관광객 유치경쟁 심화</li> </ul>

29) 2030 남원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5). 남원시 참조 및 재가공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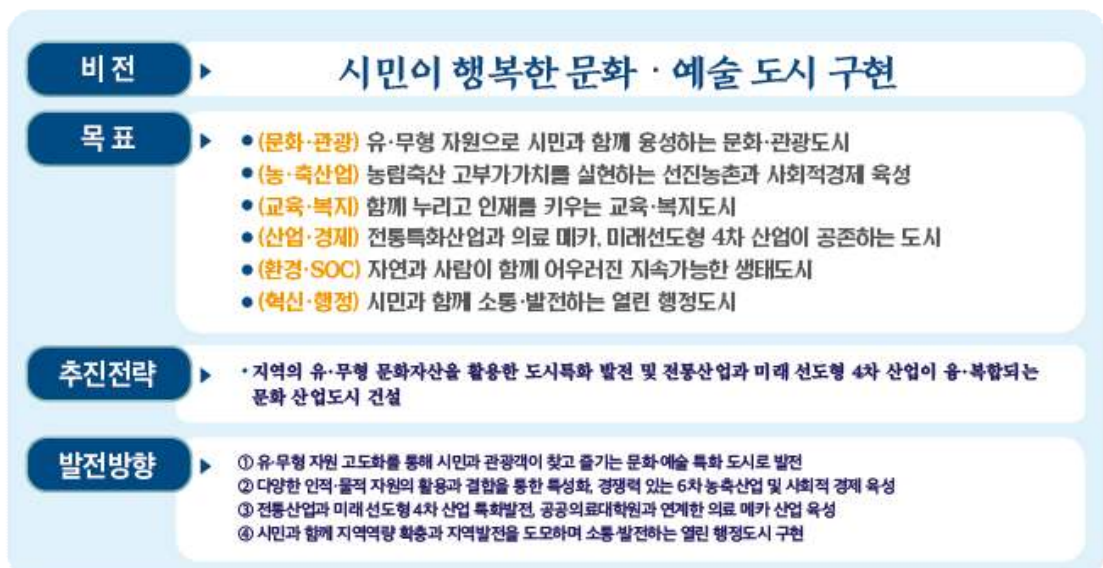
-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구현

### □ 기본목표

- [문화·관광] 유·무형 자원으로 시민과 함께 융성하는 문화·관광도시
- [농·축산업] 농림축산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선진농촌과 사회적경제 육성
- [교육·복지] 함께 누리고 인재를 키우는 교육·복지도시
- [산업·경제] 전통특화산업과 의료 메카, 미래선도형 4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 [환경·SOC]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 [혁신·행정] 시민과 함께 소통·발전하는 열린 행정도시

### □ 추진전략

-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특화 발전 및 전통산업과 미래 선도형 4차 산업이 융·복합되는 문화 산업도시 건설



### 03 발전방향

#### □ 유·무형 자원 고도화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즐기는 문화·예술 특화 도시로 발전

- 광한루원과 예촌지구, 함파우 문화공간과 요천 수변 공간, 금암공원, 만인공원 등을 연계한 특화 공간 조성으로 체류형 도심 관광권 확대
- 남원 가야의 세계유산 등재와 주변 연계자원 개발, 춘향전과 흥부전, 만복사지, 혼불 등의 문화자원, 남원읍성, 정유재란, 교룡산성, 동학, 이성계 장군 전승지 등의 역사자원 복원 및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
- 섬진강 및 요천 자원을 활용한 수변형 가족 단위 공원시설과 수상레저타운, 다슬기 타운 조성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도시 구현
-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과 허브밸리와 연계한 숲체험 교육장 조성, 백두대간 생태학습장과 주변의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리산 레저·휴양을 통한 산악 웰빙·관광 단지 조성
- 도자기, 목공예 등을 통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남원 미디어 융복합 사업 등 시민과 함께 융성하는 문화도시 구현
- 첨단 자전거 주차장 및 관광형 공공자전거 설치 등 관광·문화수요 대응형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능형 BIS 등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및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편리한 도시생활 기능 향상

#### □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결합을 통해 특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6차 농축산업 및 사회적 경제 육성

- 친환경 농축산업의 고급화 및 브랜드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확충
- 문화·복지, 소득, 경관, 주거환경이 개선된 마을 조성과 다양한 농촌체험농장 역량강화 지원, 권역별 자원을 연계하여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귀농·귀촌의 정착 지원, 대안 농업을 통한 특화작물, 공동체 지원농업 확산
- 지리산 자원을 활용한 약초산업 및 산채 산업육성과 경관농업 육성, 치유농업, 농촌형 사회혁신파크, 디지털 디톡스 단지 조성
- 농업의 대안적 기능을 활용한 치유 농업 및 친환경 멀티플렉스 조성

-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실효성 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과 도시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의 균형발전과 고도화를 통한 전통산업과 미래 선도형 4차 산업 특화 발전, 공공의료대학원과 연계한 의료 메카 산업 육성**
- 목공예와 옷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음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친환경 화장품산업, 韓융합소리산업, 스포츠 레저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 함파우 지구에 조성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 간 연계 및 융복합을 통해 관광자원을 고도화 하고, 젊은이들이 찾는 장소로 업그레이드
  - 남원의 유희공간과 문화재를 활용한 증강현실 산업 등 4차 산업 융복합화
  - 의료클러스터와 한방 의료 관광을 통해 고령친화 의료서비스산업 기반 구축
  - 드론평화도시, 드론공원, 관련 산업 유치 등 4차 산업 기반 마련
- **시민과 함께 지역역량 확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소통·발전하는 열린 행정도시 구현**
- 공공 유희공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공동생산자로서의 지역주민 참여와 다양한 분야 협력을 활성화 하는 지역혁신 기반 마련
  -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문화 역량과 사회적 경제 확충, 청년 인큐베이터 지원 등 시민과 행정이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역에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융합형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구축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인문학 교육지원 강화, 평생교육기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치매 안심마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어르신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케어안심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종합재가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
  - 거점형 종합복지센터 및 권역별 복지문화센터 건립, 복합형 보건지소 설치 및 고령친화 모델개발 지원 등 주민 편익 생활SOC시설 확대

## 6 김제시<sup>30)</sup>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545.86km<sup>2</sup> (전북의 6.76%)
- 인구 : 83,895명 (전북의 4.61%)
- 세대 : 41,850세대 (세대당 2.00명)
- 행정구역 : 1읍 14면 4동
- 행정정원 : 1,048명
  - 시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80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가능</li> <li>- 전북권(전주-군산-익산-김제-정읍) 개발축 중심</li> <li>- 광역교통망을 보유한 교통물류 중심지로 우수한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li> <li>- 종자밸리-농업-농공단지 공급시설체계 조성</li> <li>- 풍부한 개발 가능 부지 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남고속철도, 새만금고속도로, 새만금공항 건설, 혁신도시 배후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최적 입지</li> <li>-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규모화 및 첨단화 기회 도래</li> <li>- 간척지 등 읍·면 지역의 풍부한 토지 자원</li> <li>-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li> <li>- 관광 가치, 형태 다양화</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인구여건 감소 추세 및 급속한 고령화</li> <li>-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유통기반이 취약</li> <li>- 관광자원의 체계적 연계 미흡</li> <li>- 의료, 교육, 문화, 아동 시설 등 생활SOC 부족</li> <li>- 기간 사업체 및 산업 인프라 부족</li> <li>- 물류유통 입지 여건 활용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중심도시로서 FTA협정에 따른 지역경제 리스크 증대</li> <li>- 주변 대도시 발전에 따른 지역 자본 인접 유출로 지역경제 위축</li> <li>- 국내외 경제 약화에 따른 지역 내 민간투자 위축</li> <li>-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로 산업 생산성 및 활력 저하</li> <li>- 인접 지역 우수교육시설로 인재 유출</li> </ul>

30) 2020년 시정계획. (2020). 김제시. 참조 및 재가공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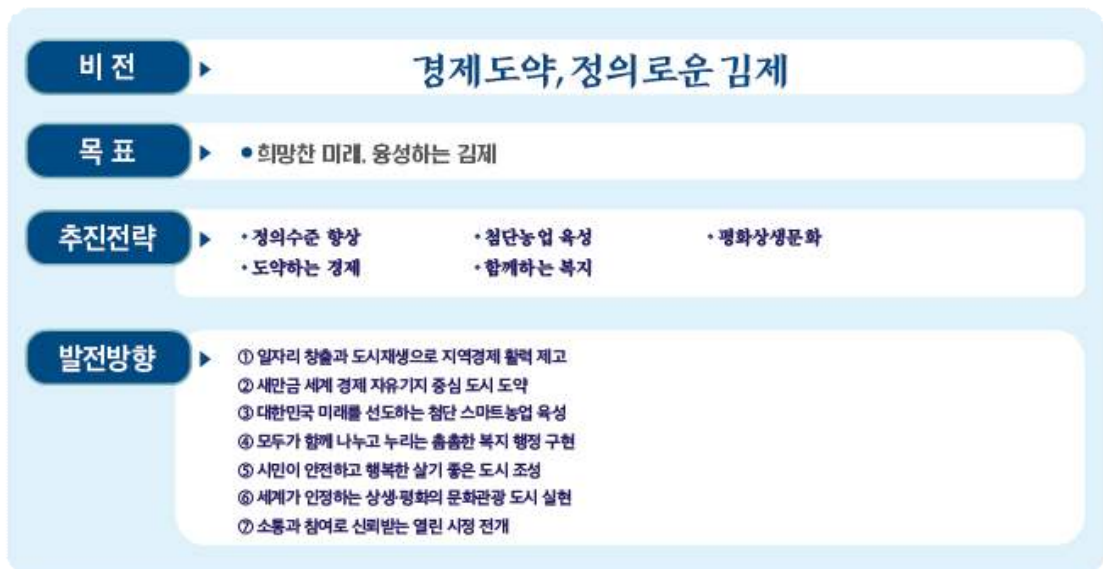
-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 □ 슬로건

- 희망찬 미래, 융성하는 김제

### □ 추진전략

- 정의수준 향상
- 첨단농업 육성
- 평화상생 문화
- 도약하는 경제
- 함께하는 복지



### 03 발전방향

#### □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등 투자유치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보조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추진 등 기업 지원으로 고용 안정화 기반을 조성하여 사람(人)과 부(富)가 모이는 일할 맛 나는 김제 건설
-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상생의 경제활동 사회적 경제 육성, 복합 청년몰 조성, 청년센터 운영 지원 등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영 개선사업 추진으로 서민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건실한 지역경제 도모
- 구도심 재생 뉴딜 사업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친환경 신시가지 도시 개발 추진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활기 넘치는 도시환경 조성
- 김제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산업인 특장차 전문 단지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기인증센터, 검사소 유치 등 기반구축과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유치로 경제발전 주도

#### □ 새만금 세계 경제 자유기지 중심 도시 도약

-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복합단지 조성, 새만금 보조간선도로 및 순환링 건설 및 새만금 지역주도형 발전 사업 추진 등 미래를 여는 신성장 동력 인프라 구축
- 새만금 동·서도로 및 내측매립지 등의 관할권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글로벌 새만금 아트센터 조성 및 국립간척지 농업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새만금 공공 주도 매립을 추진하고 새만금 수목원, 신항만 등을 건설하여 새만금 국가사업 가속화

#### □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

- ICT 융복합 농업기반 및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구축 및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스마트팜 혁신 벨리 첨단농업 관광 거점 조성으로 농촌에서 꽃피는 4차 산업 혁명, 스마트농업 선점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잇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정착하고 청년 창업농 육성, 맞춤형 전문농업 컨설팅 지원 추진 등 미래 농업기반 조성 및 신기술 선도 핵심 인재 육성을 통해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이 있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사업 및 국가생물자원 거래소 설립 추진, 김제 종자 생명 산업 특구 및 첨단 농업 종자사업소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통한 생명농업의 반도체, 대한민국 종자 산업 허브 도시로 도약

#### □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촘촘한 복지 행정 구현

- 가족센터 건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의 희망인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시설·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 도모 등 누구나 소외 없는 맞춤형 서비스로 선진복지 도모
- 치매 환자 돌봄 관리 사업 및 인식 개선사업 추진으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보장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으로 건강하고 노후가 편안한 도시를 실현하여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어르신 행복 도시 조성
-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행복한 출산, 보건·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추진을 통해 자연재해 대비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소규모 위험시설 및 공공시설 정비 사업 추진으로 생활 안전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등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시민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도시 실현
-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추진, 행복콜(공공형) 택시 제공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정비를 통해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마련
-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 및 명품 지평선 꽃길 조성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휴식공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환경 개선,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 세계가 인정하는 상생·평화의 문화관광 도시 실현

- 벽골제 대표 관광지 육성, 대울저수지 및 능제수변공원 관광단지 조성 등 풍부한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 문화재 야행 사업(김제야행) 등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김제서예문화

전시관,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일상 속 풍요로운 문화·예술 도시 조성

- 하키 전용구장 및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등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여 스포츠 도시 김제 위상 제고 및 시민건강 증진 도모

#### □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열린 시정 전개

- 직소민원의 날 운영,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등 시민의 소중한 이야기에 경청·공감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을 실현
- 인사정의 7.0 실천, 청렴 행정 시스템 운영 및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의 추진 등 원칙을 바탕으로 투명·공정·책임 행정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지평선학당 및 지평선 장학숙 운영 등 으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사회 대응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한 꿈이 있는 미래 교육, 아름다운 평생교육 실현

## 제2장 군 지역

### 1 완주군<sup>31)</sup>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821.06km<sup>2</sup> (전북의 10.18%)
- 인구 : 92,220명 (전북의 5.07%)
- 세대 : 41,800세대 (세대당 2.21명)
- 행정구역 : 3읍 10면
- 행정정원 : 838명
  - 군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110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내륙 거점도시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320만 평) 산업 단지 인프라와 탄소, 자동차, 기계, 부품소재 산업이 집적화된 전북 산업경제 중심지</li> <li>- 전북 혁신도시 농생명 공공기관 및 KIST 전북분원 등 R&amp;D 연구기관 소재로 미래 신성장 발전의 주춧돌인 우수 연구기반과 인적자원 보유</li> <li>- 만경강(발원지), 대둔산, 모악산, 고산휴양림 등 청정 자연 휴양 관광지 이미지 구축</li> <li>- 노령산맥과 호남평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교통과 물류 요충지(IC 6개소)로써 전주, 대전 등 충청지역 연담도시 접근성 등 성장 잠재력 풍부</li> <li>-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등 전국 최고 수준 공동체 자원 및 인프라, 콘텐츠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주 정체성 및 역사 재조명 노력으로 미래 100년 새로운 완주 구상을 위한 성장 모멘텀 확보</li> <li>- 국가 핵심 전략사업의 완주지역 지정에 따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li> <li>- 국토개발의 동서축이 강조되고,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동서축 거점 기능 확대</li> <li>-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및 혁신도시2.0 등 추진으로 확장성 높은 도시발전 기점 확보 및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li> <li>- 사회적경제 활성화, 성장에서 행복으로, 공동체적 문화 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래</li> <li>- 귀농귀촌 등 농촌 전원도시 수요 및 로컬푸드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수요 증대</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권 배후도시 이미지 고착화, 자족기능 부족 및 사회적 부의 외부 유출 우려</li> <li>- 우수한 자연·역사·관광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품 및 콘텐츠 부족으로 관광 흡입력 부족</li> <li>- 지리적 특성상 도시 중심기능을 수행할 지역의 중심점, 기능성 미비로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통합과 균형 발전 측면 구심점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근접지로 외생적 요인변수(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취약하고 인구 유출 위험 문제 상존</li> <li>-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적 자원의 감소, 청년인구 유출, 도시 활력 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감 대두</li> <li>- FTA시장 개방과 확대로 주민들의 중요한 소득 원천인 농산물 소득 안정 위협</li> <li>- 정부의 국비 지원사업 축소, 지방이양 사무 증가 등 행정력 및 재원 부담 가중</li> </ul>

31) 이성재. (2018). 완주군 중심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 완주군. 참조 및 재가공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 걸어온 100년, 다함께 열어가는 미래 100년 新 완주 실현

### □ 기본목표

-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

### □ 추진전략

- 미래 100년 新 완주 구상을 실현할 신성장 먹거리 산업 육성
- 15만 인구 완주 달성을 통한 전북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
- 자족도시 수준에 걸맞은 도시기반 확충과 삶의 질 높은 으뜸도시 육성
- 지금보다 더 소득 높은 경제성장을 통한 명실상부 전북 산업경제 1번지 구축

#### 비전

▶ 걸어온 100년, 다함께 열어가는 미래 100년 新 완주 실현

#### 목표

▶ •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

#### 추진전략 발전방향

- ▶ • 미래 100년 新 완주 구상을 실현할 신성장 먹거리 산업 육성  
-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 내실화, 공동체 문화도시 육성
- ▶ • 15만 인구 완주 달성을 위한 전북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  
- 적극적 인구 유치를 위한 신규 택지 개발, 산단 및 농공단지 추가 조성, 혁신도시 2.0
- ▶ • 자족도시 수준에 걸맞은 도시기반 확충과 삶의 질 높은 으뜸도시 육성  
- 인구 30만 규모 도시기반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50만 대도시 수준 문화여가시설 확충, 완주형 공동체복지 실현, 도농연계 전원 레저구역 육성
- ▶ • 지금보다 더 소득 높은 경제성장을 통한 명실상부 전북 산업경제 1번지 구축  
- 산업구조 고도화, 수소·상용차 부품·ICT 특화산업 조성, 전북 신산업벨트 조성, 농생명 관련 4차 산업 육성, 전통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거점 육성 및 관광 콘텐츠 개발

### 03 발전방향

#### □ 미래 100년 新 완주 구상을 실현할 신 성장 먹거리 산업 육성

- 한반도 금속 문명의 태동지 완주의 지역정체성 및 도시 브랜드 정립을 통해 미래 100년 新완주구상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신 성장 먹거리 산업 육성 박차

##### ① 국가 3대 전략산업인 수소산업 중점 육성,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 ‘수소경제 시범도시 완주군 선정’(19.12.30.)을 계기로 기 구축된 수소산업 인프라를 활용, 주거·교통 분야 에너지 공급 등 전방위적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투트랙 전략(수소특화산단 조성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
  - 수소 관련 연구기관과 앵커기업(선도기업) 등 관련시설 집적화
  - 수소산업진흥원, 수소안전기술원 등 정부기관(전담기관) 전략적 유치

##### ② 지역을 이롭게 하는 착한경제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 내실화

- 2025년까지 군민 삶의 전반의 영역에서 300개 자립형 조직, 30% 군민 협동조합원 가입, 5천여 개 일자리 창출 목표 ⇒ 사회적 경제 수도 완주 위상 정립

##### ③ ‘공동체 문화도시’를 완주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

- 로컬푸드,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아파트 르네상스, 생활문화동호회 등 우수한 공동체 자원·콘텐츠 융합

#### □ 15만 인구 완주 달성을 통한 전북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

- 삼봉 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미니복합타운 등 신규 택지 개발로 적극적 인구 유치
- 국가 및 일반 산단, 농공단지 등 추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및 관련시설 집적화
- 혁신도시2.0과 연계된 추가 공공기관 이전, 신설로 지역균형발전 거점 역할 기대

#### □ 자족도시 수준에 걸맞은 도시기반 확충과 삶의 질 높은 으뜸도시 육성

- 국가혁신클러스터(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동익산) 산업선, 새만금 고속도로, 서부내륙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도시성장권역 내부순환도로 확장으로 지역교통망 개선과 함께 복합 복합주거단지 조성 및 주택 공급을 통한 30만 규모 도시기반 구축
- 삼례, 봉동, 용진, 상관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및 구도심 활성화 정책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실현, 환경기초시설 정비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군 최초 문화도시 지정, 3대 가족친화도시 추진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육·여가환경을 조성하고, 완주종합스포츠타운, 축구 메카, 야구장 등 최신식 문화·여가시설 확충으로 50만 대도시처럼 삶의 질 높은 완주 실현
- 10분 이내 거리에 돌봄서비스(노인, 영유아)체계 구축, 완주군민복지 기준선, 행복한 도시-농촌형 공동체복지 육성 등 전국 최고 수준 완주형 공동체복지 실현
- 고산 6개면 등 힐링거점을 관광 휴양권역으로, 상관·소양·구이는 도농 연계의 전원 레저구역으로 육성으로 균형발전으로 고루 잘사는 완주 조성 박차

#### □ 지금보다 더 소득 높은 경제성장을 통한 명실상부 전북 산업경제 1번지 구축

- 기 구축된 산업단지(320만 평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미래첨단산업의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략사업 육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수소산업, 미래형 상용차 부품, ICT 등을 특화한 신규 국가산단 조성 및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 농생명산업(새만금, 김제,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탄소산단(전주)과 연계한 전북 신산업벨트 조성으로 전북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식품·먹거리 분야 로컬푸드 2단계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스마트 팜, 식품산업 육성 등 농생명 관련 4차 산업 육성과 함께 완주봉동생강 농업유산 등 전통농업의 가치 보존을 통한 고부가 가치 농가소득으로 연계되는 잘 사는 농업·농촌 실현
- 삼례문화예술촌, 구이·경천·동상 저수지 활용 수변관광 자원 육성, 청소년 전통문화·놀이체험 파크, 축구메카 등 관광거점 육성 전략과 함께 이와 연계된 완주방문의 해, MICE산업 등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신성장 동력화로 1천만 방문객 시대 달성



## 2 진안군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789.09㎢ (전북의 9.78%)
- 인구 : 25,697명 (전북의 1.41%)
- 세대 : 13,131세대 (세대당 1.96명)
- 행정구역 : 1읍 10면
- 행정정원 : 621명
  - 군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41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유일의 고원지역(진안고원)으로 고령지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생산</li> <li>- 미술쟁 그린가이드 별 3개 만점을 받은 세계적 명산 마이산, CNN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인 마이산 탐사, 국내 5번째 규모의 용담호(전북·충청권 식수원) 보유</li> <li>- 마이산, 윤일암·반일암 등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국가 지질공원 인증 획득</li> <li>-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한방 특구로 건강·차유산업 선도</li> <li>- 풍부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치유적합목 64.2%)</li> <li>- 전국 어디서나 2~3시간 내 접근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li> <li>- 전국 마을만들기 1번지로 체험관광마을 중심으로 중간조직 활발하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권한부여 확대</li> <li>- 새만금 개발과 함께 중국 등 국외 교류를 통한 홍삼·관광산업 활성화</li> <li>-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원'의 가치 부각</li> <li>- 국가사적지 및 보물 신규 지정, 가야문화권 인식 확대에 따른 문화·역사적 가치 향상</li> <li>- 산림 및 자연치유에 대한 인식 향상</li> <li>-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인 증가 및 우수한 인재 확보</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며 대기업이 전무하고, 일자리 창출기회 부족</li> <li>-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인구구조로 농업 인력구조의 취약성 내재</li> <li>- 체류형 관광자원 기반 및 인식 부족</li> <li>- 대표 특산물인 '진안홍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대기업 제품 대비 낮은 경쟁력</li> <li>- 용담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는 개발행위 제한 및 농지규모화 한계</li> <li>- 경사도 15% 이하 면적이 전체의 13.2%로 개발 기용지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의 취약과 지역 활력 감소 초래</li> <li>- 유사한 위상, 자원, 전략을 가진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li> <li>-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청정환경만으로는 관광객 유치 한계</li> <li>- 전주와 30분 이내 거리로 관외 소비 활성화</li> <li>-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 부족</li> <li>- 인삼, 홍삼의 지역 및 시장 간 경쟁 심화</li> </ul>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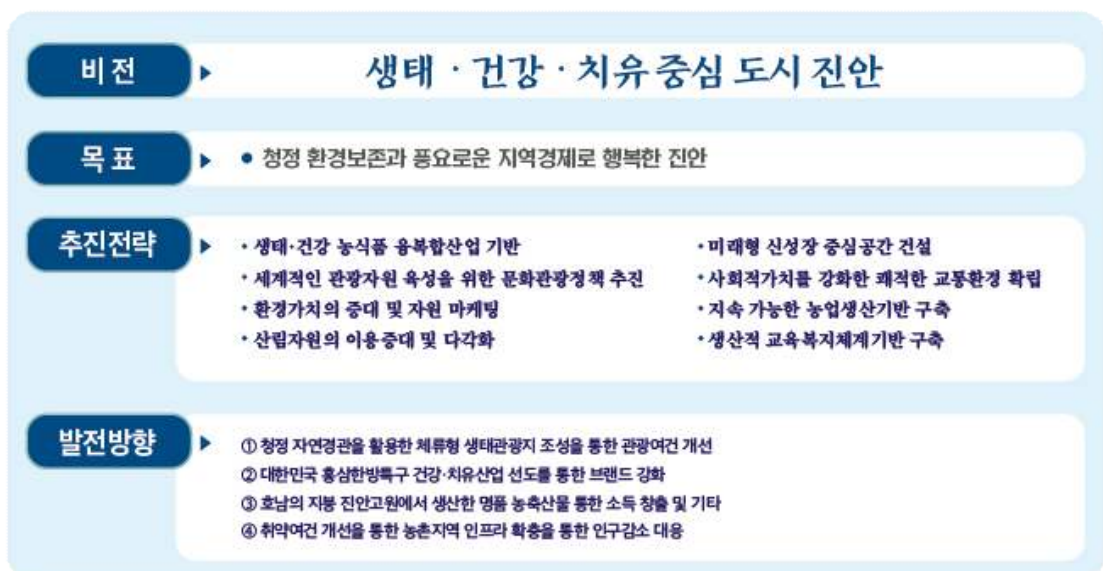
- 생태·건강·치유 중심도시 진안

### □ 기본목표

- 청정 환경보존과 풍요로운 지역경제로 행복한 진안

### □ 추진전략

- 생태·건강농식품 융복합산업 기반
- 세계적인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정책 추진
- 환경가치의 증대 및 자원 마케팅
- 산림자원의 이용증대 및 다각화
- 미래형 신성장 중심공간 건설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한 쾌적한 교통환경 확립
-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기반 구축
- 생산적 교육복지체계 기반 구축



### 03 발전방향

- 청정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여건 개선
  - 미술랭 그린가이드 별 3개 만점을 받은 세계적 명산 마이산 관광자원 종합개발
  - 청정자연 경관을 활용한 테마관광 개발(용담호, 운장산,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등)
  - 원연장 꽃잔디 마을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통한 복합관광단지 및 국가정원 조성
  - 마이산과 연계한 관광형 진안시장 조성
  - 마이산 관광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 용담호 오색 생태·레저타운 조성
  - 지덕권 산림치유원 주변 산림 복합·휴양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볼거리, 체험거리, 놀거리가 풍성한 동부권 최대의 관광자원 개발
  - 국가지질공원 인증~유네스코 지질공원 등록으로 '지질' 관광 중심의 세계적인 관광지 구축
- 대한민국 홍삼한방특구로 건강·치유산업 선도를 통한 브랜드 강화
  - 홍삼한방산업 집중 육성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고품질 건강식품의 메카
  -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 '진안홍삼축제'의 세계 축제화
  -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및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중심으로 한 치유산업 선도 지역 육성
  -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한 홍삼한방특구 기반 강화
  - 용담호를 중심으로 한 청정환경 보전
  - 복지·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여건 개선
-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명품 농축산물을 통한 소득 창출 및 기타
  - 평균해발 400m 고원지역으로 쾌적한 기후와 큰 일교차로 우수한 농축산물 생산
  -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 가공, 판매 및 관광 연계를 통한 보람 찾는 농민
  - 직매장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민 소득 보전
  - 친환경 농업정책 및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

- 농민대상 복지 향상 및 소득 보전을 통해 사람 찾는 농촌 건설로 귀농귀촌인 유입 증대
- 교통 및 기반시설 개선으로 기업환경 및 물류 체계 개선
- 마을만들기사업 중심의 중간조직 육성으로 농촌 공동체 복원을 통한 농촌소멸을 막고, 농촌형 청장년 신일자리 창출
- 소재지 중심의 농촌재생사업으로 마을 단위 복지, 평생학습,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강화

#### □ 취약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 노후상수관로 교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정비
- 오염도 증가에 대비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 공공도서관, 문화예술종합회관, 119안전체험관 건립, 역사박물관 고도화사업 등을 통한 생활문화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청정환경 보전으로 인구유입 기반 강화
- 진안고원 6차 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6차산업화 체계 구축으로 소득창출 기반강화
- 적극적인 슬레이트 처리로 용담호 수질 보전 및 주민 건강권 보장
- 숲세권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
-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 환경 정비

### 3 무주군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631.76km<sup>2</sup> (전북의 7.83%)
- 인구 : 24,303명 (전북의 1.34%)
- 세대 : 12,421세대 (세대당 1.96명)
- 행정구역 : 1읍 5면
- 행정정원 : 542명
  - 군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45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유산국립공원, 적상산 등 청정자연환경</li> <li>- 구천동 33경, 태권도원, 반디랜드,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li> <li>- 반딧불축제, 산골영화제, 안성낙화놀이 등 풍부한 지역 문화 자원 보유</li> <li>- 태권도,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li> <li>- 우수한 미적 가치가 있는 공공시설의 농촌다움자원 다수 분포</li> <li>-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5도(道) 연계 동서통합 거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여행의 트렌드 변화에 맞는 축제와 체험의 관광자원 보유</li> <li>-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지질의 관광자원화</li> <li>- 힐링·웰빙 문화에 부합하는 휴양림·캠핑장·펜션 등 기반시설 보유 (덕유산 힐링축 중심)</li> <li>- 배후도시(대전, 대구, 세종) 연계 성장</li> <li>- 다양한 주민들의 정주지로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지역</li> <li>- 농산물 가공, 제조업 등 산업기반 취약</li> <li>- 임야가 81.5%를 차지하여 농지 및 개발 가능지 협소</li> <li>- 동서내륙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취약(고속도로, 철도)</li> <li>-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교육을 위한 도시이주 발생(청장년층 인구 감소)</li> <li>- 친환경농업 및 체험관광 등 유사한 형태의 농촌지역 개발로 무주만의 독창성 부족</li> <li>- 여가 이용 패턴 변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 위축 (VR방·스크린골프·인터넷 게임과 같은 실내 스포츠 인구 증가)</li> </ul>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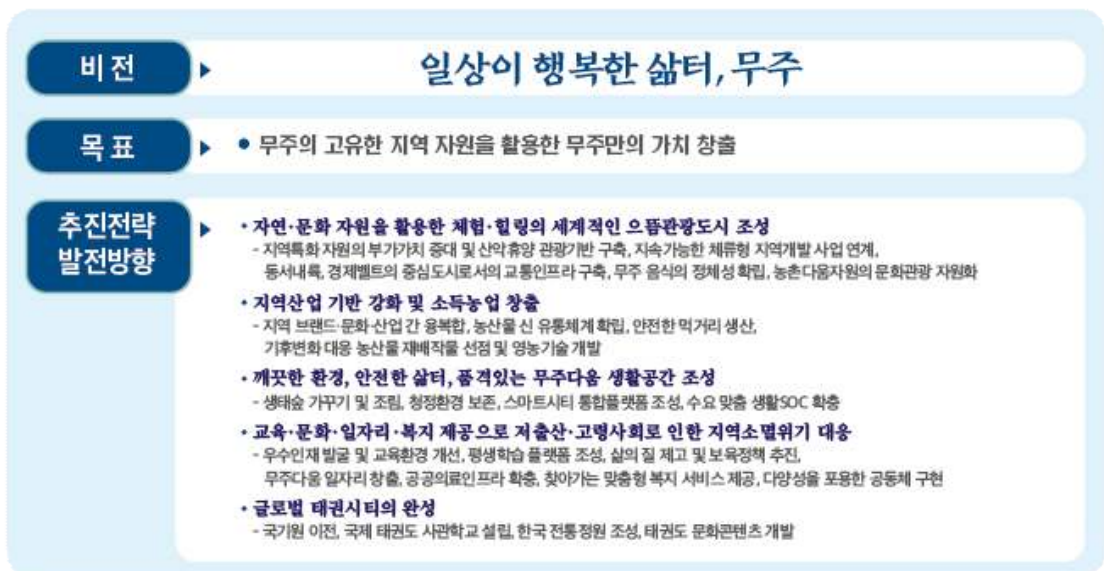
- 일상이 행복한 삶터, 무주

### □ 기본목표

- 무주의 고유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무주만의 가치 창출

### □ 추진전략

-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힐링의 세계적인 으뜸관광도시 조성
- 지역산업 기반 강화 및 소득농업 창출
-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삶터, 품격있는 무주다움의 생활공간 조성
- 교육·문화·일자리·복지 제공으로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응
- 글로벌 태권시티의 완성



### 03 발전방향

#### □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힐링의 세계적인 으뜸관광 조성

- 덕유산둘레길 조성, 적상산성 종합 정비, 백두대간 삼도봉 에코트레일 등 지역 특화 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 향로산 산림복지단지조성으로 산악휴양 관광기반 구축
-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지속 가능한 체류형 지역개발 사업으로 연계(지자체 연계협력)
-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전주-무주-김천 철도 건설로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동서내륙경제벨트의 중심지로서의 교통인프라 구축
- 맛·멋·격이 있는 푸드플랜으로 이야기가 있는 음식, 지역의 특성을 담은 차별화된 무주 음식에 정체성 확립
- 지역 곳곳에 분포한 농촌다움자원을 문화관광 자원화(정기용 건축가 등)

#### □ 지역산업 기반 강화 및 소득농업 창출

- 태권도, 반딧불이 등 무주의 특화된 지역 브랜드와 문화, 산업 간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창출
- 선택과 집중의 지역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
- 농산물 신 유통체계 확립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
- 청정자연환경의 지역이미지에 맞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농산물 경쟁력 확보
-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재배작물 선점 및 영농기술 개발로 지역 농업발전 전인

#### □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삶터, 품격있는 무주다움의 생활공간 조성

- 생태숲 가꾸기 및 조림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도시 조성
-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환경 보존
- 방법·방재·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안전하고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
- 수요에 맞춘 생활SOC 확충으로 다양한 주민편익시설 제공

□ 교육·문화·일자리·복지 제공으로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응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및 내실 있는 교육환경 조성
-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조성
-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보육정책 추진으로 일·생활균형(워라벨) 강화
- 무주다움 일자리 창출로 정주여건 개선 및 청장년층 인구유입
- 공립 요양병원과 치매안심병원 건립 등 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치매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다양성을 포용한 공동체 구현

□ 글로벌 태권시티의 완성

- 국기원의 태권도원 이전으로 태권도의 글로벌 문화유산화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으로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 상품화
- 태권도원 내 한국 전통정원 조성으로 국기(國技)로서의 위상 강화
-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로 태권도 홍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 4 장수군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533.20km<sup>2</sup> (전북의 6.61%)
- 인구 : 22,441명 (전북의 1.23%)
- 세대 : 11,308세대 (세대당 1.98명)
- 행정구역 : 1읍 6면
- 행정정원 : 531명
  - 군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42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통팔달 내륙교통의 중심지</li> <li>- 천혜의 자연환경 및 산악자원 보유</li> <li>- 친환경, 청정 지역 이미지</li> <li>- 다양한 관광 자원 및 축제 보유</li> <li>- 우수한 지역 브랜드 보유(사과, 한우)</li> <li>- 말산업자원과 가야문화관광자원 등 성장 동력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자의 증가 추세</li> <li>- 친환경(웰빙)·산림·치유 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li> <li>- 4차 산업혁명의 콘텐츠 산업 발전</li> <li>- SNS 기반의 사회적 네트워크 증가로 지역고립 해소 및 지역 홍보 기회 증대</li> <li>- 교통망 개선에 따른 지역 접근성 증대</li> <li>-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발 추진</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li> <li>-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li> <li>- 전통문화예술자원과 산업의 연계 활용 부족</li> <li>- 산악지형으로 인한 개발가능지역의 부족 및 지역생활권의 분리</li> <li>- 높은 농업소득 의존도와 농식품 가공산업 미발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적자원 수급 차질과 복지비용 증가</li> <li>- 유사한 위상, 자원, 전략을 가진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li> <li>- 문화·복지·의료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대도시 편중으로 인구유출 가능</li> <li>-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 지형 변화</li> <li>- 플랫폼 중심의 경제체계 개편 가속화로 경제, 정보 집중 현상</li> </ul>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 오고 싶은 장수, 사고 싶은 장수 농산물, 팔기 좋은 장수 유통

### □ 기본목표

- 7개 읍·면 모든 동네가 차별 없이 특별하고, 장수군민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행복한 도시

### □ 추진전략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and 주민 맞춤형 복지·교육 실현
- 청정환경과 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오고 싶은 관광도시 구현
- 군민 모두가 잘사는 지역경제 확립 and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성장기반 구축
-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과 식품산업 기반 구축

#### 비전

▶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장수, 사고 싶은 장수 농산물, 팔기 좋은 장수 유통

#### 목표

▶ • 7개 읍·면 모든 동네가 차별 없이 특별하고, 장수군민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행복한 도시

#### 추진전략 발전방향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and 주민 맞춤형 복지·교육 실현
  - 소규모 위험시설 및 공공시설 정비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생애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구현, ICT 활용 스마트 복지 실현, 단계별 마을주치의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등
- 청정환경과 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오고 싶은 관광도시 구현
  - 생활문화환경 및 휴양공간 조성, 주민참여형 문화산업 육성, 관광복지정책 활성화, 자연친화형 관광자원 개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4차 산업 융합문화자원 개발, 스마트형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등
- 군민 모두가 잘사는 지역경제 확립 and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마을 간 커뮤니티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개선사업, 지역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체계적인 귀농귀촌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략산업 육성 등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성장기반 구축
  - 농산촌 개발사업, 소득증대기반 조성, 노후 SOC 집중 관리 및 교통인프라 구축, 정주여건개선 등
-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과 식품산업 기반 구축
  - 전략작목 중심 생산기반 확충, 환경친화적 안전 농식품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장수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거점 허브화, 유용마생물 융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 통합방역체계 구축 등

### 03 발전방향

####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and 군민 맞춤형 복지·교육 실현

- 각종 자연재해 대비 소규모 위험시설 및 공공시설 정비 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실현
- 건강·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생애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구현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구현
-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 농촌노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통합복지 지원망 구축
- 고령화 사회 맞춤형 노인복지 사업 및 ICT 활용 스마트 복지 실현
- 단계별 마을주치의 도입 및 보건의료 시설의 현대화 추진
-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사업 추진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강화
- 평생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 청정환경과 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오고 싶은 관광도시 구현

-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환경 및 휴양공간 조성
- 주민참여형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관광상품 개발
-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복지정책 활성화
-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형 관광자원 개발
- 장수형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체험관광 활성화 도모
- 농촌체험과 관광을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활성화
- 장수가야유적의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추진
- 4차 산업 융복합 가야문화자원 개발
- 장수가야 디지털 문화콘텐츠 개발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형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 □ 군민 모두가 잘사는 지역경제 확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민소득 창출
- 마을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생활경제권 구축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 청년유입·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취업연계 강화
- 지역활동가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 고령친화산업 분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
-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귀농·귀촌시스템 구축
- 기술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략산업 육성

####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성장기반 구축

-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개발 추진
-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산촌 개발사업 추진
- 자연환경을 고려한 소득 증대 기반 조성
- 지역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
- 노후 SOC 집중 관리 및 교통인프라 구축
-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개선
- 산악지형을 활용한 미래산업 개발
- 성장거점 기능 강화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도모

#### □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과 식품산업 기반 구축

- 전략작목 중심의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현대화 지원
- 환경친화적 안전 농식품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산림자원과 임산물 소득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산지유통 시설·장비 확충 및 유통채널 다양화
- 장수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거점 허브화 추진
- 친환경 농업 유용미생물 융복합 플랫폼 구축
-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방역체계 구축
- 원예·과수·축산 분야 ICT 융복합 시설 및 장비 지원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품질 스마트 융복합 농생명산업 구축
- 미래지향형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 품목별 농업생산 기술연구 및 농업재해 대응체계 마련
- 미래 곤충산업을 통한 펫푸드 신사업 육성기반 조성

## 5 임실군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sup>32)</sup>

#### □ 일반현황



- 면적 : 597.22km<sup>2</sup> (전북의 7.40%)
- 인구 : 28,902명 (전북의 1.59%)
- 세대 : 14,788세대 (세대당 1.95명)
- 행정구역 : 1읍 11면
- 행정정원 : 645명
  - 군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45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우위의 전통문화 및 녹색자원 보유 (필봉농악, 오수익전, 옥정호, 성수산 등)</li> <li>- 농촌관광의 인프라 확보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다양한 경험 축적</li> <li>- 임실치즈의 전국 브랜드화로 지역인지도 상승과 이로 인한 관광 및 지역상품 수요 증가로 선순환의 파급효과 기대</li> <li>- 경쟁력 있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발달(식품기업 등이 집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질을 중시하는 여가문화 트렌드의 급성장</li> <li>- 중국 등 외래관광객 증가 등 관광 총량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li> <li>- KTX 운행지역 확대,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전국적 접근성 증대</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개발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부족 (1차 산업 중심의 영세성)</li> <li>- 거점도시의 중심기능 미흡(임실, 오수, 관촌의 생활권 분할)</li> <li>- 노인인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등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 재정 부담 증가 (지속적인 인재 유출 및 인구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이상 기후에 의한 농산물 생산의 불확실성 증대, FTA 확산 등 농산물 수입 확대로 지역농가의 가격 경쟁력 위협)</li> <li>- 인구의 지속적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역 생산활동 기반의 붕괴 우려</li> <li>- 지자체 간 경쟁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사회적 갈등 증폭 (관광산업 등)</li> <li>- 교통체계 발달로 외부의존성 심화와 중심도시 기능 약화</li> </ul>

32)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연구. (2017). 임실군. 참조 및 재가공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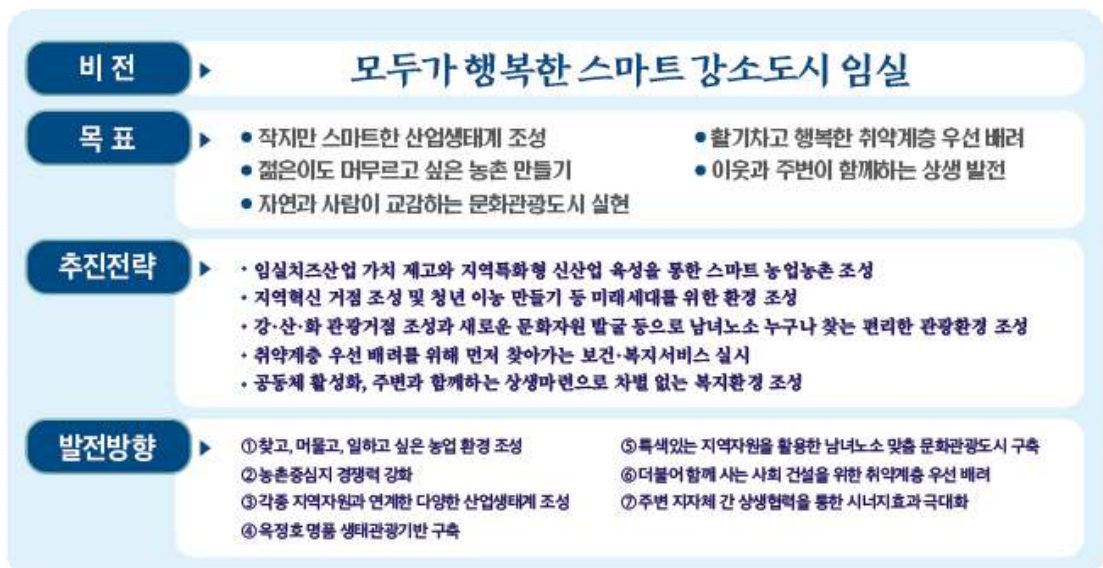
-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강소도시 임실

### □ 기본목표

- 작지만 스마트한 산업생태계 조성
- 젊은이도 머무르고 싶은 농촌 만들기
-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는 문화관광도시 실현
- 활기차고 행복한 취약계층 우선 배려
- 이웃과 주변이 함께하는 상생 발전

### □ 추진전략

- 임실치즈 가치 제고와 지역특화형 신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농업농촌 조성
- 지역혁신 거점 조성 및 청년 이농 만들기 등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
- 강·산·화 관광거점 조성과 새로운 문화자원 발굴 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해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
- 공동체 활성화, 주변과 함께하는 상생마련으로 차별 없는 복지환경 조성



### 03 발전방향

#### □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농업 환경 조성

- 치즈 중심의 집적경제화 추진과 권역별 신소득 특화작목 발굴 육성
-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팜 산업특화단지 조성
-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청년 창업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 청년 귀농지원과 전문적인 귀농교육을 통한 농촌회유 프로젝트 추진

#### □ 농촌중심지 경쟁력 강화

- 신덕~신평 2차로 개량, 청웅~임실 2차로 개량, 갈마~오정 4차로 확장, 지방도 745호 선형개량 및 배수관로 사업을 통한 지역 중심지 접근성 개선
- 공공서비스 및 주민편의시설 향상 등 도시중심지 집중 육성

#### □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생태계 조성

- 임실은 육군 35사단, 제6 탄약창 등 국방 중추기관이 위치한 곳으로, 이를 활용한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
- 전북119안전체험관과 연계한 국민안전교육원 조성으로 갈수록 높아가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응
- 임실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자원순환 목재산업 통합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목재산업 집적화 및 여행객의 휴양공간 마련으로 산림가치 부각

#### □ 옥정호 명품 생태관광기반 구축

-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확장과 함께 섬진강 에코파크 조성, 옥정호 마리나 종합개발, 옥정호 에코관광지 개발, 국립 다목적댐 역사박물관, 옥정호 습지 조성 통해 섬진강과 옥정호를 임실의 핵심관광거점 지역으로 개발
-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운종교차로 개선, 운종교차로 진입도로 개설로 옥정호 핵심관광거점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입
-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섬진강 스포츠파크 조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호남 최대 레저 스포츠 메카로 도약

□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남녀노소 맞춤 문화관광도시 구축

- 임실N치즈축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임실치즈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임실치즈 테마파크 키즈랜드 건립으로 대한민국 최고 명품 특화체험단지 조성
- 성수산 에코힐링타운 조성으로 역사적 가치를 더한 자연친화적 휴양공간 마련
- 오수 의견관광지 기능보강 등을 통한 오수 반려동물산업 거점육성과 국내 펫푸드 시장 선도를 위한 건강기능성 펫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 임실군을 대한민국 대표 무형문화테마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국가 무형문화재인 필봉농악의 전승 보전을 위해 필봉 품물 민속마을 조성

□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취약계층 우선 배려

- 이주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환경과 복지 통합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 주변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섬진강 인근 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와 연결의 경제 실현
- 임실군과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순창군, 남원시 등은 다양한 특산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안테나숍 설치 운영
- 임실 갈마~완주 상관 4차로 개량, 임실 성수~진안 백운 2차로 개량을 통한 도로교통망 개선으로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반 마련



## 6 순창군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495.79km<sup>2</sup> (전북의 6.15%)
- 인구 : 28,382명 (전북의 1.56%)
- 세대 : 13,816세대 (세대당 2.05명)
- 행정구역 : 1읍 10면
- 행정정원 : 614명
  - 군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46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전주(60km), 광주(40km) 배후도시로 접근성 향상</li> <li>- 전국 제1호 장류특구 지정과 전국 최초 건강장수과학특구 지정 등 장류(발효) 및 건강·장수에 대한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 보유로 웰니스 산업 최적지</li> <li>- 강천산, 섬진강 등 청정한 산림 및 수변·생태관광 자원 보유</li> <li>-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 건강 증진 및 스포츠마케팅 활력</li> <li>-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미래농업의 방향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전주~순창 간 국도확장,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개통</li> <li>-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체류형 체험관광과 선진국형 수상레포츠 수요 증가</li> <li>- 가족단위 체험 관광 증가로 농촌관광, 생태여행, 휴양산업 활성화 전망</li> <li>-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li> <li>- 발효식품의 세계 5대 장수식품 선정과 고추장의 국제식품 규격 획득</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인적자원 부족</li> <li>- 숙박, 레저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 및 관광상품 부재</li> <li>- 생업 중심의 소규모 미작 위주 농가와 기업형 농업전락 부재로 농산물 활용 6차 산업 대응 역량 저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서비스 인프라의 대도시 편중 및 체험관광마을 경쟁 심화</li> <li>- 현대인의 서구화된 음식문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장류 소비 감소</li> <li>-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와 세입 감소로 자원 부족</li> </ul>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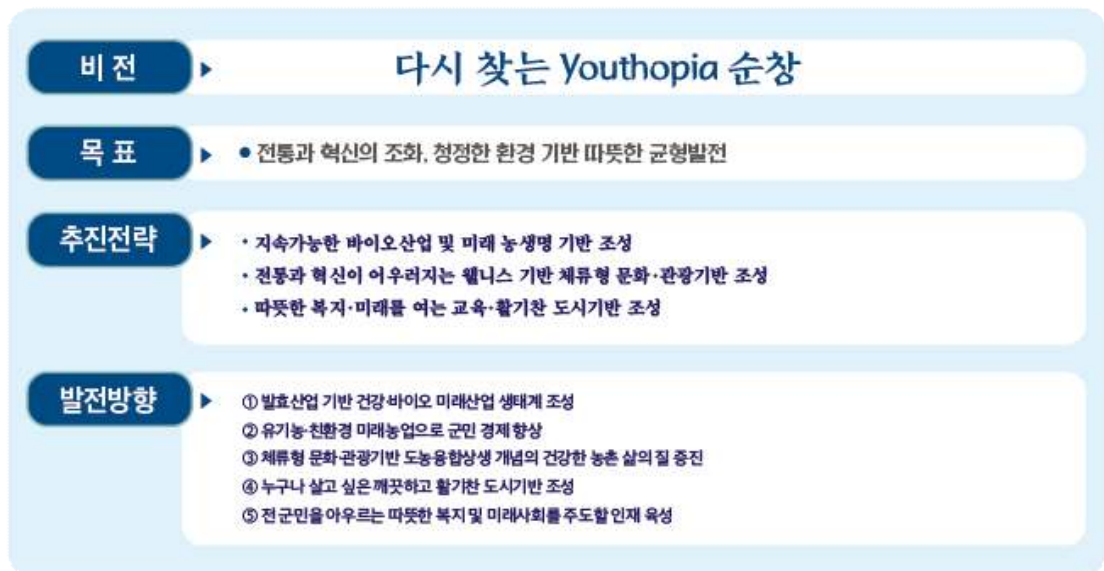
- 다시 찾는 Youthtopia 순창

### □ 기본목표

- 전통과 혁신의 조화, 청정한 환경 기반 따뜻한 균형발전

### □ 추진전략

- 지속 가능한 바이오산업 및 미래 농생명 기반 조성
-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지는 웰니스 기반 체류형 문화·관광기반 조성
- 따뜻한 복지·미래를 여는 교육·활기찬 도시기반 조성



### 03 발전방향

#### □ 발효산업 기반 건강·바이오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 순창군은 고추장을 비롯한 발효산업이 특화된 지역으로 이러한 전통발효산업을 기반으로 미생물·건강식품 산업 등과 융합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집중 육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
-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을 통한 사이코 바이오틱스, 스마트팜 종자코팅, 전통장류 패러독스, 엔지오믹스 소재 실용화, 펫푸드 사업 등을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연구 및 산업화
- 장내 유용미생물 은행을 거점으로 유용 미생물 산업 집중 육성
- 전통장류를 활용한 절임류 반찬 개발, 장류기업 육성, 스마트 팩토리 조성으로 청년층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순창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실버푸드, 식초·술·소스 등 지역 특성화 사업 지속 발전
- 기업유치 기반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유기농·친환경 미래농업으로 군민 경제 향상

-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도시 거주민의 농업유도를 통한 농업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육성과 미래식품산업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발전시켜 농촌체험관광 등과 연계 새로운 농촌지역 6차 산업 모델로 발전
- 유기농·친환경 농업·친환경 축산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환경에 적합한 종자 개발, 병충해 방지를 위한 종자코팅 등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 및 농업인 소득 향상
-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연구·분석을 통한 우수성을 입증하고 다양한 상품개발과 식단 개발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 □ 체류형 문화·관광기반 도농융합상생 개념의 건강한 농촌 삶의 질 증진

- 건강장수 특화지역이라는 강점을 활용 국립노화연구원, 소방심신건강수련원, 스마트 팜 케어 연수원 등을 순창군에 유치하여 젊은 층 인구유입을 위한 순창특화산업 생태 조성

-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섬진강 주변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개발
- 순창이 보유한 전통·문화유산 홀어머니산성 및 향교를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관광상품화 추진
- 순창의 대표관광지 강천산의 명품화와 투자선도지구(참살이 발효마을)를 연계하는 키덜트 콤플렉스 문화공간 조성,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등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전 연령 전 계층을 아우르는 세대통합형 체험관광 모델 제시
-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강천산, 섬진강과 더불어 순창이 보유한 치유자원인 온천수와 수려한 숲을 활용한 치유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

#### □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기반 조성

- 선형이 불량하고 노폭이 좁아 이용이 불편한 국지도 55호선 및 국도 24선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 및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망 정비
- 문화예술을 접목한 순창읍 도시재생과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종합문예회관 조성으로 삶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살고 싶은 순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및 산림 자원 활용 자연순환 도시 조성

#### □ 전 군민을 아우르는 따뜻한 복지 및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

- 인문학·문화교육, 체험교육, 생활체육, 아동 돌봄서비스 등 전 군민을 아우르는 미래형 생활문화 도시 조성
-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리더십 등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순창 건강장수특구(של랜드) 시설 및 기능 확대를 통한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교육거점 조성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아동·여성친화도시 구현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마을복지 및 주민복지 시스템 구축

## 7 고창군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607.48km<sup>2</sup> (전북의 7.53%)
- 인구 : 55,504명 (전북의 3.05%)
- 세대 : 28,735세대 (세대당 1.93명)
- 행정구역 : 1읍 13면
- 행정정원 : 777명
  - 군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71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청정한 자연생태자원을 갖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이미지 보유</li> <li>- 타 지역에 비해 농지면적이 넓고 특히 밭농사가 전체 농지면적의 40%가량을 차지하며 고소득 작물재배에 용이함</li> <li>-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인류무형유산인 판소리의 본고장으로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산·들·바다 고루 분포. 특히, 넓은 갯벌에서 대규모 양식어업발달</li> <li>- 사통팔달의 내·외곽 도로망이 구축. IC 3개소 보유. 전국 모든 지역을 3시간 이내에 도달 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이 있음</li> <li>- 인문학 중심의 교육도시로서 양질의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산업 중심의 2개 축을 균형 핵심 방향으로 추진 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가능성을 가짐</li> <li>- 환경에 대한 인식 증가와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청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찾는 소비 수요 증가</li> <li>- 대규모 개발을 통한 관광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관광개념 확대로 청정한 자연환경의 생태관광자원을 보유</li> <li>- 고창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앞두고 있어 향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유네스코 3관왕의 포지션 보유</li> <li>- 서해안권의 중간 기착지이자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향후 고창·부안·노을대교 건설과 새만금 개발 시 연계한 산업발전 가능성 상존</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력과 일자리 부족 등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갖고 있음</li> <li>- 국내외로부터 생태 및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산재되어 있는 자원의 연계성이 부족</li> <li>- 고부가가치 창출 성장동력 미약. 특별한 인구유인이 부족</li> <li>- 지역인재의 외부유출과 협소한 인재풀로 인하여 대도시권에 비하여 취약한 거버넌스 형성</li> <li>- 관광 및 문화산업 등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을 위한 대형숙박시설과 회의시설이 부족하여 경유형 관광산업에 머물고 있음</li> <li>-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에 비하여 가치 극대화를 통한 전략적 마케팅이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와 출생가능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이 거론될 정도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인구문제</li> <li>- 생활권이 30분 거리의 광주광역시와 연결되어 있어 지역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음</li> <li>-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하여 제조업 기반의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li> <li>- 유사한 위상, 자원, 전략을 가진 지자체 경쟁이 심화 됨에 따라 도시경쟁력 확보에 어려움</li> </ul>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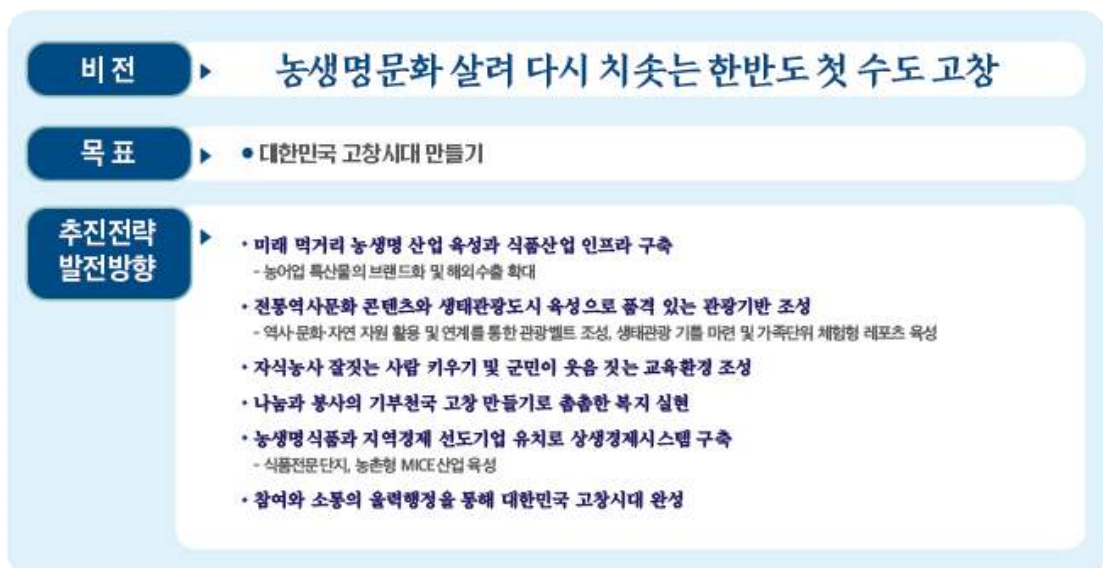
-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 □ 기본목표

- 대한민국 고창시대 만들기

### □ 추진전략

- 미래 먹거리 농생명산업 육성과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전통역사문화 콘텐츠와 생태관광도시 육성으로 품격 있는 관광기반 조성
-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기 및 군민이 웃음 짓는 교육환경 조성
- 나눔과 봉사의 기부천국 고창 만들기로 촘촘한 복지 실현
- 농생명 식품과 지역경제 선도기업 유치로 상생경제시스템 구축
- 참여와 소통의 울력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고창시대 완성



### 03 발전방향

#### □ 미래 먹거리 농생명산업 육성과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통합브랜드 개발과 로컬푸드 육성 및 토속자원을 활용한 먹거리 상품화
- 고품질 고창 쌀의 브랜드화와 함께 고창군 대표작물의 친환경 농업 확대 및 7대 전략작물의 명품 브랜드화 추진
- 명품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확대와 고창황토배기 유통정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성장기반 마련
-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로 노동력 절감효과 제고와 대표특산물인 복분자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으로 농가 소득 증대
- 낙후된 어촌마을 재생사업과 바지락 1번지 육성 및 지주식 김의 명품 브랜드화로 어촌활력 제고
-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동물복지 1번지 육성

#### □ 전통역사문화 콘텐츠와 생태관광도시 육성으로 품격 있는 관광기반 조성

- 한반도 첫 수도의 위상정립을 위한 선사-마한-백제에 이르는 역사문화 재조명 및 콘텐츠 발굴
- 고창읍성, 무장읍성, 용계리 청자요지 문화유적공원 조성 등 고창 대표관광지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관광지의 연계를 통한 관광벨트화 조성
-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을 통해 정신문화 계승 발전 추진
- 군민과 함께 만드는 천년의 숲 조성, 문수산 힐링 휴양림 조성, 어린이 자연놀이터 조성 등 휴식과 여유의 힐링공간 재창조
- 외죽도 생태공원 조성 및 인천강 생태체험 관광지 조성 등 생태관광의 기틀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 각종 레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족단위 체험형 레포츠 육성

□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기 및 군민이 웃음 짓는 교육환경 조성

- 고창의 유·무형 자원을 연구하는 고창학 추진 및 365일 인문학을 향유하는 인문학도시 구축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중장기 계획추진
- 고창 군립중앙도서관 건립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나눔과 봉사의 기부천국 고창 만들기로 촘촘한 복지 실현

- 나눔과 봉사의 기부천국 운동으로 작은 시작, 모두의 참여 유도
- 경로 이·미용비, 100세 만수무강 잔치 등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추진
- 청년 근로희망키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등 근로복지 확대 추진
- 결혼비용과 출산비용 지원 등 현실적인 정책지원으로 인구증가 유도

□ 농생명식품과 지역경제 선도기업 유치로 상생경제시스템 구축

- 고창일반산업단지의 식품전문단지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제도화와 도시재생 지원센터 중간조직 설립,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 마련
- 전통시장 일원 활성화와 농촌형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산업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참여와 소통의 울력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고창시대 완성

-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운동 추진과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서비스 행정역량 강화
- 범죄예방 환경구축과 재난재해 대비 기반조성으로 100년 안전고창 실현
- 실질적인 소통중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조직 마련



## 8 부안군

### 01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 일반현황



- 면적 : 493.18km<sup>2</sup> (전북의 6.11%)
- 인구 : 53,295명 (전북의 2.93%)
- 세대 : 27,440세대 (세대당 1.94명)
- 행정구역 : 1읍 12면
- 행정정원 : 748명
  - 군민대비 공무원 수 : 인구 71명당 1명

#### □ SWOT 분석

강점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서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li> <li>- 국립공원 내의 생태자원 및 지역의 역사자원의 가치가 우수함</li> <li>- 전라북도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연계 중심지 역할 수행</li> <li>-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풍부한 해산물과 유명 소금생산지, 변산반도 국립공원내의 풍부한 수목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함</li> <li>- 국가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교통 및 물류가 원활하며 지속적인 해양개발을 추진하고 있음</li> <li>- 국내 최초의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서남권의 해상 풍력단지가 입지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거점 이미지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황해권 해양관광거점 육성계획의 추진을 통해 부안군의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함</li> <li>- 워라벨, QoL(Quality of Life) 등 가치 충족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친화형, 건강 중심형의 여가활동이 증가함</li> <li>- 새만금의 개발로 국제공항의 건설, 항만의 건설 등으로 인해 중국, 동남아시아와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li> <li>- 2030년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로 글로벌 인지도의 상승이 기대됨</li> </ul>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가능 인구가 부족한 실정임</li> <li>- 부안군 대표 이미지가 부족하여 주변지역에 비해 낮은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음</li> <li>-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함</li> <li>- 관광산업의 영세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및 지역소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li> <li>-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단합 및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함</li> <li>-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며,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발규제로 인해 개발을 통한 활성화에 제약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인 인구문제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심화됨</li> <li>-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산업 여건의 변화와 농수산업의 여건이 악화됨</li> <li>- 전국적인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위험도가 증가함</li> <li>- 새만금 개발로 인해 부안군 지역 내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li> <li>- 국비 지원 사업의 유치, 관광객의 유치 등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와 지방소도시 및 군지역과의 지역격차가 심화됨</li> </ul>

## 02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 미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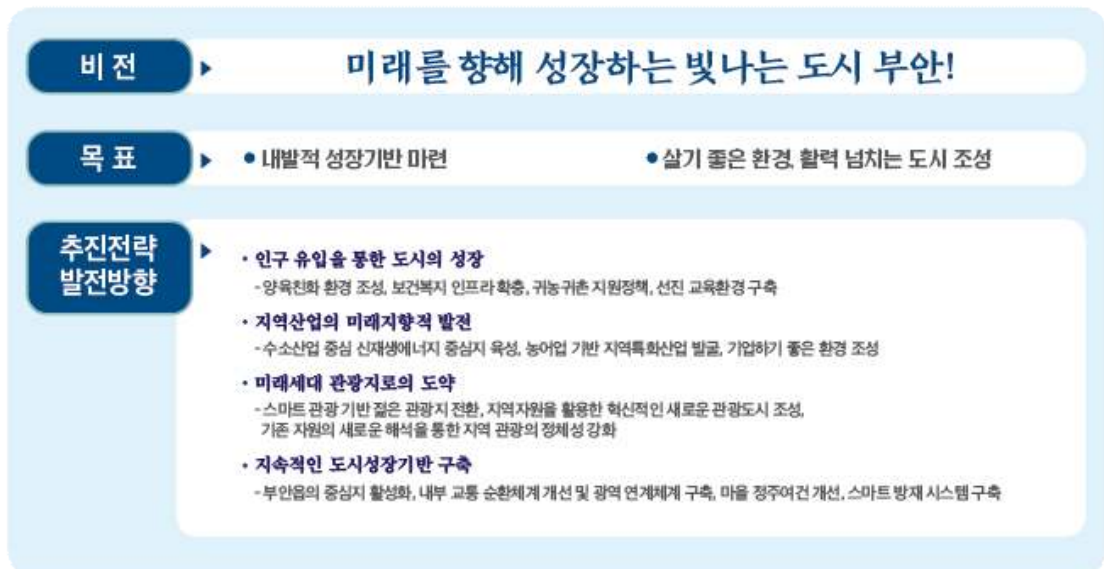
-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빛나는 도시 부안!

### □ 기본목표

- 내발적 성장기반 마련
- 살기 좋은 환경,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

### □ 추진전략

-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의 성장
- 지역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
- 미래세대 관광지로의 도약
- 지속적인 도시성장기반 구축



### 03 발전방향

#### □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의 성장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 등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장려를 추진함
- 부안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복지시설 건립, 읍면 복지활성화 프로그램, 건강 증진 보조서비스 확대 등 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함
-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통해 베이비 붐 세대를 유입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선진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젊은 세대 인구의 유입을 도모함

#### □ 지역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

- 수소산업을 부안군의 미래 중심산업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수소, 풍력 등)의 중심지로 육성함
- 뛰어난 부안군의 농어업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의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6차 산업의 성장을 통해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함
- 세제감면, 부지조성비용 최소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육성 및 R&D 지원, 교육기관 유치 등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함

#### □ 미래세대 관광지로의 도약

- 다양한 체험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기반의 젊은 관광지로의 전환을 추구함
- 곰소염전, 변산반도국립공원, 영상테마단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관광도시를 조성함
- 역사자원, 생태자원,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자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부안군 관광의 정체성을 강화함

□ 지속적인 도시성장기반 구축

-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등 부안읍의 중심지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역거점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함
- 부안군 내부의 교통 순환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새만금과 연결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함
- 읍면별 농산어촌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부안군을 조성함
- 도시의 미래변화를 고려하여 스마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함

# 부 록

---

## 투자사업 목록





# 1 도약하는 지역발전과 미래가치 창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새만금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조성사업	2026~2033	2,500	2,000	-	-	500
새만금 항공레저 센터 구축	2022~2026	640	400	120	120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2021~2022			-	-	-
경천저수지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개발	2017~2021	220	95	-	94	31
전주경기장 문화재생 프로젝트	2020~2023	450	450	-	-	-
5G기반 지능형 도시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	2021~2025	400	270	-	130	-
ITS기반 국가스마트재생타운 조성	2021~2030	1,000	800	-	200	-
관촌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	2021~2024	200	200	-	-	-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조성	2021~2024	3,087	2,081	236	770	-
장항선 폐철도를 활용한 도시재생(관광자원화)사업	2020~2021	100	100	-	-	-
제3차 연안정비사업	2021~2024	376	376	-	-	-
지역주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대(도시재생 뉴딜)	2021~2023	100	50	35	15	-
남(서)부권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2021~2024	320	320	-	-	-
남원 예촌 확대사업	2021~2025	150		75	75	-
금란도 항만친수시설 개발	2021~2023	2,000	500	-	-	1,500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우수) 송·배수관로 설치	2020~2023	629	629	-	-	-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2021~2023	296	207	45	45	-
아쿠아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	2021~2026	3,500	2,590	275	275	360
도시열섬과 미세먼지 저영향개발 포장	2021~2023	204	156	24	24	-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2020~2025	2,900	0	-	20	2,880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2026~2032	11,227	11,227	-	-	-
새만금 동서1축 도로 10차로 확장	2021~2022	5,293	5,293	-	-	-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2020~2026	6,160	6,160	-	-	-
세계 잼버리 대회 도로기반 구축	2019~2023	11,598	11,598	-	-	-
새만금 보조간선도로 및 순환링 건설	2020~2024	11,598	11,598	-	-	-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2020~2026	1,500	1,000	200	-	300
새만금 신항만 국제교역기반 확충	2021~	22,834	12,834	-	-	10,000
인계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2020~2025	195	25	-	170	-
농생명 첨단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2021~2025	2,500	2,500	-	-	-
도심 속 주민편의 공간조성을 위한 저수지 재생	2022~2025	850	850	-	-	-
전북형 스마트빌리지 구축	2021~2025	200	140	-	60	-
지방정원 조성사업	2020~2024	167	-	84	83	-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2020~2025	1,111	1,111	-	-	-
생활밀착 치유의 숲 및 치유의 길 조성사업	2022~2024	90	-	45	45	-
고창읍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2021~2023	70	49	-	21	-
ICT 스마트관광관리 인프라 구축(14개 시·군)	2021~2023	938	657	-	281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021~2023	20	8	-	12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2020~2025	92	46	-	46	-
스마트워터(Smart Water) 통합플랫폼 조성사업	2021~2023	175	53	-	-	122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021~2024	3,962	2,163	396	1,403	-
전북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2022~2023	402	220	42	140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2021~2025	144	72	-	72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2021~2025	10	6	-	4	-
공공형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21~2025	434	248	64	122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구축	2021~2025	14	5	5	4	-
전북형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	2021~2025	5	-	5	-	-
스마트 수변도시 디지털트윈 구축	2021~2025	230	230	-	-	-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	2020~2021	11	8	-	3	-
새만금 그린인프라 구축	2021~2025	286	286	-	-	-

## 2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행복 전북 구현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주 제1,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021~2024	452	316	50	86	-
빅데이터 기반 실버케어 플랫폼 구축	2033~2037	170	100	60	-	10
축산악취 저감대책	2020~2024	92	1	1	76	15
IoT기반 자가망 구축 및 군민안전서비스 구현	2022~	50	25	25	-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건립	2021	30	15	8	8	-
북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키구 정비공사	2021~2022	11	6	3	3	-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	2020~2024	192	58	-	134	-
진안군 119 안전체험관	2021~2025	250	100	150	-	-
수성지구 반다비 체육복지센터 건립사업	2021~2023	100	50	12	38	-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2025~2030	314	0	20	294	-
진안공공도서관 건립	2022~2024	60	-	26	34	-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2021~2023	150	100	-	44	6
고품격 글로벌 의료가든시티 조성	2021~2030	3,000	750	105	245	1,900
국립희귀질환의료원	2021~	3,500	3,000	500	-	-
동부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2020~2021	51	26	26	-	-
동부권 공립 요양병원 건립	2020~2025	104	104	-	-	-
동부권 농촌형 사회주택 건립	2020~2024	1,000	900	100	-	-
새만금 통합 의료 헬스케어타운 조성	2021~2030	3,000	3,000	-	-	-
새만금권 감염병 대응 클러스터 조성	2020~2024	500	500	-	-	-
세대통합형 국립예술치유센터 건립	2020~2023	250	250	-	-	-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	2021~2023	70	50	10	10	-
스마트 시니어타운 조성	2020~2024	550	385	100	65	-
실버(휴) 복지타운 조성	2021~2023	350	60	25	30	235
완주군 노인복지관 건립	2020~2022	65	33	-	33	-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20~2022	76	38	-	38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21~2023	60	30	-	30	-
장수중심 무진장 연화장 건립	2021~2023	275	175	-	100	-
장애인 고용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0~2023	800	800	-	-	-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2021~2024	270	135	68	68	-
전북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2021~2040	165	85	80	-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정읍통합형 지역자활센터 건립	2021~2023	50	25	-	25	-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2017~2021	23,739	20,000	500	500	2,739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2020~2022	250	150	50	50	-
평생학습관 조성	2020~2021	64	32	-	32	-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유지	2021~2023	290	290	-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 연료화) 설치사업	2021~2025	481	385	-	96	-
만경강, 동진강 고수부지 인공습지 조성사업	2020~2030	100	100	-	-	-
연안침식퇴적 방지	2020~2022	120	120	-	-	-
국립자연봉사연수원 건립	2021~2023	200	140	-	60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잼버리백리길 조성	2021~2022	30	15	5	10	-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2020~2023	150	75	-	75	-
새들허브숲(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21~2023	60	30	-	30	-
소양천 바람길숲 녹색인프라 구축사업	2021~2023	60	30	-	30	-
옥정호 습지 보전	2021~2025	110	90	-	20	-
친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도시 건설	2021~2030	200	100	25	50	25
폐철도를 활용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2021~2023	200	100	-	100	0
공공시설 WiFi 확대구축	2017~2025	55	39	-	-	17
전라북도 디지털 역량 교육	2017~2025	167	167	-	-	-
재해 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2017~2025	638	319	96	223	-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2021~2023	13	6	6	-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21~202	16	11	-	5	-
공공시설 옥상녹화	2021~2025	37	19	6	13	-
산사태 및 산불위험 모니터링 스마트패트를 구축(R&D)	2022~2024	50	-	25	-	25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상황 대피체계 강화(R&D)	2022~2024	15	-	8	-	8
안전취약계층 사고예방시스템 구축(R&D)	2022~2024	70	-	35	-	35
가축분뇨 처리지원	2015~2025	820	256	76	181	307
지역사회 생활기술 종합학교 운영 지원	2022~2024	60	30	30	-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15~2015	2,554	1,424	338	792	-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2015~2015	1,624	1,030	172	422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020~2025	70	35	-	35	-
전기버스 보급	2020~2025	54	25	8	21	-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2020~2025	52	26	7	19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2020~2025	70	35	11	24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20~2025	734	367	-	367	-
도시바람길 숲 조성	2020~2022	190	95	-	95	-
숲 가꾸기 사업	2020~2025	1,554	777	233	544	-
국유림 조림사업	2020~2025	120	120	-	-	-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사업	2020~2023	104	52	7	33	12
바이오순환림 집적화	2020~2023	159	111	14	34	-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2020~2025	7	4	-	3	-
야생동물 보호사업	2020~2025	168	54	46	40	28
탄소포인트제 운영	2020~2025	80	40	16	24	-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사업(안심마을 조성사업)	2020~2025	25	13	-	12	-
그린뉴딜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가 양성·활동사업	2020~2025	23	10	8	5	-
보건기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2021~2025	26	13	4	9	-
정보통신기술(IoT기반)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2021~2025	44	22	4	18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021~2025	128	64	-	64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양로시설 IoT·AI 활용 비대면 돌봄 사업	2021~2023	2	2	-	-	-
스마트 헬스케어 커뮤니티시티 운영 지원사업	2021~2025	127	64	6	57	-
건강증진형 보건기관 스마트 인프라 구축 지원	2021~2025	248	248	-	-	-
고령자 보건복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1~2025	100	100	-	-	-
농촌 고령자 치매우울증 진단 및 재활서비스 플랫폼 구축(R&D)	2021~2025	150	75	38	38	-
퇴행성(난치성) 뇌질환 연구중심 스마트병원 구축(R&D)	2021~2025	100	50	25	25	-
빅데이터 기반 해양 플랑크톤 유래 고재생효율 다공성 골이식재 의료기기 개발(R&D)	2021~2023	21	11	5	5	-
이온화에너지활용 바이러스 추적시스템 및 방역체계 구축(R&D)	2021~2023	50	50	-	-	-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2021	145	145	-	-	-
국가하천 모니터링 체계 디지털화	2021~2022	98	98	-	-	-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2021~2022	40	20	10	10	-
스마트 하수관로 구축	2021~2022	15	11	-	4	-
해양폐기물 정화	2020~2025	174	87	26	61	-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2020~2025	46	23	11	11	-
섬진강 범람 재발방지 사업	2022~2025	1,514	1,514	-	-	-

### 3 상생형 도농융합과 농산어촌 활성화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5G 기반 스마트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2020~2022	300	300	-	-	-
곰소 수산시장 재개발	2021~2024	500	400	20	80	- 0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2019~2023	310	155	77	77	2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맞춤형 교육	2019~2023	82	41	8	33	-
귀농인의 집 조성	2021~2040	220	110	-	110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2020~2040	61,500	10,000	40,000	11,500	-
농가소득 보전 확대	2019~2023	8,714	8,690	7	17	-
농번기 주말돌봄방 설치 운영	2020~2023	22	-	11	11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2019~2023	500	150	175	175	-
농식품 가공 소규모 농업경영체 육성	2019~2023	189	85	8	89	-
농작업 안전 및 농촌복지 지원	2019~2023	47	19	5	23	-
농촌 유아, 청소년, 여성복지 지원	2019~2023	207	18	52	129	8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2019~2023	84	32	18	18	17
농축산물 재해보험 확대	2019~2023	2,119	1,060	305	305	449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2019~2023	73	-	32	29	12
로컬푸드(푸드플랜) 미병(未病) 센터 건립	2021~2023	160	100	20	40	-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	2021~2025	490	290	-	200	-
사회적농업 거점센터 조성	2021~2023	100	70	-	30	-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2019~2023	100	50	-	20	30
전북형 마을만들기 통합 추진체계 구축	2019~2023	204	102	60	42	-
절임반찬 컨버전 사업	2026~2035	250	125	38	88	-
진안군 농촌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2020~2021	19	12	-	7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진안마을만들기센터 조성	2021~2024	190	133	19	38	-
청년 복합 공간 조성	2020~2022	1,000	150	150	150	550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 선도마을 조성	2021~2030	200	100	25	50	25
축산업 경영 안정	2019~2023	1,503	100	1,000	403	-
치유농업 및 농촌체험 전문화	2019~2023	54	8	11	31	4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2019~2023	42	21	2	19	-
후계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2019~2023	62	19	7	11	26
귀어귀촌인 주거단지 조성	2020~2023	160	80	40	40	-
다목적형 바다 숲 조성	2020~2025	402	200	101	101	-
도서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020~2023	65	33	33	-	-
무풍지구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2021~2031	75	53	7	16	-
산나물 클러스터 조성	2021~2023	20	10	5	5	-
자원순환 목재산업 통합클러스터 구축	2021~2024	500	320	90	90	-
호울푸드체험관 구축	2022~2024	100	50	-	50	-
FTA 대응 발작물 경쟁력 제고	2019~2023	587	294	29	29	23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퇴비화)	2022~	40	16	6	6	12
건강장수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2022~2024	95	48	10	38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2019~	511	180	51	51	230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2019~2023	485	183	80	80	141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관리	2014~	16	11	-	5	-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센터 건립	2020~2023	400	400	-	-	-
국립 농식품 종합 역사박물관 설립	2026~2031	2,300	1,500	-	-	800
국립 여성농업대학 설립	2021~2025	900	900	-	-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개설	2020~2022	30	30	-	-	-
국산공산업 융복합 기반구축	2021~2023	500	283	100	80	37
기능성 향토자원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사업	2021~2023	60	0	30	24	6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센터 구축	2020~2024	200	200	-	-	-
김제 용지 AI 대응 가금밀집지역 축사 매입	2020~2023	450	360	50	40	0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장비 확충	2019~2023	433	217	30	124	63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2021~2022	18	5	-	13	-
농산어촌활성화 융복합콘텐츠 플랫폼 구축	2020~2023	50	25	25	-	-
농생명 산업정책진흥원 구축	2022~2024	100	50	25	25	-
농생명 특화 금융지원센터 설립	2024~2030	300	150	-	-	150
농업인 금융연수원 설립	2024~2030	300	150	-	-	150
시설원에 생산기반 확충	2019~2023	876	201	136	136	403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2021~2040	1,200	600	144	336	120
식품기업 공동 활용 종합처리센터 건립	2025~2029	355	300	-	-	55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	2019~2023	50	25	-	25	-
비응향 어항구 확장개발	2021~2025	482	482	-	-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2011~2025	35	7	-	7	21
농업 기후변화교육 대응 센터 건립	2022~2023	150	75	75	-	-
SOYA(콩) 융복합단지 조성	2023~2025	200	100	25	60	15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	2019~2021	367	241	81	45	-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2015~2025	66	23	5	13	25
RPC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2015~2025	97	38	13	26	20
푸드플랜 공공급식센터 구축 시범사업	2022~2025	90	45	-	45	-
스마트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2022~2025	299	223	50	26	-
디지털 청년농업인 및 강소농 육성	2028~2025	199	33	71	93	2

## 4 미래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스마트농업 및 미래식품 산업 기반조성	2023~2030	500	250	50	200	-
미래 푸드테크 가공기기 연구기반 조성	2020~2024	300	280	20	-	-
HMR 농식품 멀티가공센터 구축	2019~	120	70	20	-	30
ICT 스마트시설 특화단지 조성	2022~2030	3,120	2,184	312	624	-
갯벌 친환경 바이오 단지 조성	2022~	150	100	20	20	10
건강기능성 펩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펩푸드 산업 육성)	2021~2025	500	300	80	80	40
고령친화 향노화 식품 및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2022~2026	300	150	75	75	-
고부가 미래성장 발효효소산업 육성	2021~2025	70	50	-	-	20
곤충산업 육성	2021~2025	49	25	-	25	-
곤충산업화를 통한 펩푸드 사업	2022~2024	60	20	10	30	-
곤충자원 융복합 산업화 거점 조성	2033~2037	200	160	20	-	20
국가생물자원 거래소 설립	2035~2037	250	250	-	-	-
국가스마트육묘단지 조성	2022~	500	250	50	50	150
국가식품클러스터 Food Park 조성	2020~2024	1,500	1,500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활성화	2019~2023	495	398	49	49	-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2019~2022	195	156	20	20	-
국립 스마트 치유농업원	2022~2025	480	480	-	-	-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유치	2021~2024	321	321	-	-	-
국제 스마트 농생명 복합교육 공간 조성	2021	500	500	-	-	-
국제농식품비즈니스센터 구축	2028~	1,340	1,340	-	-	-
국제 종자박람회 추진	2019~2023	80	56	12	12	-
기관 연계 농생명 융합 클러스터(AGRO-HUB) 구축사업	2018~2024	380	200	50	50	80
농생명·식품 R&D 기반 구축	2015~2023	294	175	52	56	10
농식품 가공산업 확대(논콩,쌀)	2020~2023	232	126	-	-	106
농식품 수출 물류 배후단지 조성	2029~2038	3,500	1,000	500	-	2,000
농식품 수출 활성화	2019~2023	22	-	11	11	0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2019~2023	90	45	9	9	27
농업기반 확충	2019~2023	8,135	8,033	102	-	-
농용미생물 활성 평가 시스템 구축	2021~2025	50	50	-	-	-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2022~2025	93	47	14	33	-
동물용의약품 GLP 구축사업	2021~2023	140	100	-	-	40
동물의약품산업 육성기반 구축	2021~2023	2,500	2,000	250	250	-
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센터 구축	2021~2023	300	150	75	75	-
미래농업을 여는 부안 수직농장단지 건설	2021~2024	450	450	-	-	-
미래성장 ICT연계 스마트 팜 확대	2019~2023	50	25	-	25	-
미래형 동물복지 원스톱 지원센터 건립	2021~2023	400	320	40	40	-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사업(2단계)	2020~2028	2,470	2,470	-	-	-
바이오 천연첨가물 산업화 기반구축	2026~2035	250	200	50	-	-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2021~2025	500	320	20	160	-
발효미생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사업	2021~2025	127	64	32	32	-
발효산업 바이오헬스 기반구축	2021~2040	1,000	500	150	350	-
발효실버푸드 특수식품 기반구축사업	2026~2030	300	150	45	105	-
복합 미생물 산업화 기반 구축	2021~2025	100	50	15	35	-
사이코바이오틱스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2021~2025	50	25	-	-	25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새만금 글로벌 종자생산 전문단지 조성	2020~2025	1,570	1,090	-	-	480
생물자원 소재 융복합 플랫폼 구축	2023~2031	4,840	2,000	400	400	2,040
생태순환형 융복합 스마트팜 타운 조성	2036~2050	300	250	-	-	50
세대이음 백년장류기업육성	2026~2035	150	75	23	53	-
소스, 술, 식초 발효명품화 사업	2021~2040	400	200	60	140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2021	35	7	3	7	18
순창 서유구 스마트팜케어 연구원 조성	2020~2024	450	300	80	70	-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 캠퍼스 설치	2020~2022	300	300	-	-	-
스마트 농생명 블록체인 지역 거점센터 유치	2024~2030	1,500	500	-	-	1,00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2021~2023	400	220	36	84	60
스마트팜 산업특화단지 조성	2022~2026	500	250	-	150	1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020~2023	910	910	-	-	-
식물자원소재연구센터(식물세포주은행) 설립	2020~2022	200	170	-	30	-
식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	2021~2023	30	21	3	6	-
쌀 자원 융합연구소 설립	2020~2027	125	125	-	-	-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적용 축산 환경개선	2021~2030	400	400	-	-	-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2019~2023	167	15	44	44	65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	2020~2023	180	90	27	63	0
유용미생물산업 육성	2021~2030	500	250	75	175	0
융복합RPC 고부가 시범사업단지 조성사업(쌀 가공산업)	2020~2023	300	210	30	40	20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	2021~2025	170		113	50	8
장내 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2019~2025	300	200	-	100	-
장수 실버푸드 가공센터 조성	2021~2023	80	40	8	32	-
장수군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2021~2025	198	99	-	99	-
장수식품클러스터	2021~2025	80	38	21	21	-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2021~2040	800	400	120	-	280
전북쌀 경쟁력 제고	2019~2023	737	-	276	268	194
지능정보 농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2020~2024	300	200	50	40	10
지역 특산자원 활용 융복합화 지원	2019~2023	110	55	-	55	-
지역단위 6차산업 네트워크	2019~2023	8	4	1	2	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2019~2023	334	160	87	87	-
진안 식물성 고기 육성 사업	2021~2023	60	30	15	15	-
진안고원 6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2021~2024	124	10	-	15	99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2022~2024	200	75	75	50	-
천마식품클러스터 육성계획	2021~2025	160	-	112	48	-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2018~2025	80	24	12	12	32
첨단 시설농자재 혁신기반 조성	2023~2027	450	300	100	-	50
첨단 친환경 농산물 물류유통복합단지 조성	2021~2025	500	200	150	150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2019~2023	992	298	-	-	694
친환경 농업 및 종자산업 기반구축	2021~2024	74	28	7	30	9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2019~2023	39		18	18	4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	2019~2023	116	48	24	24	20
팻푸드 산업플랫폼 구축	2021~2030	500	250	75	175	-
한국식품융합기술진흥원 설립	2031~	300	300	-	-	-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해외생물자원 대체 산업화지원센터 설립	2023~2027	200	160	20	-	20
해외수출 검역인증 시스템 기반 조성	2025~2027	320	250	50	-	20
향기테라피센터 조성(향기 힐링치유센터)	2021~2023	300	150	150	-	-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융복합 심화	2021~2025	35	10	8	8	10
효소기반 농생명 신소재 상용화 지원	2021~2025	300	250	25	25	-
민물고기 가치창출 클러스터 조성	2020~2023	605	300	153	153	-
새만금 공공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2026~2035	8,000	6,000	-	-	2,000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2021~2024	450	280	85	85	-
새만금 신항만 구역 內 신규어항 조성사업	2020~2030	800	800	-	-	-
새만금수출 농산업벨트 구축	2020~2030	6,800	1,500	450	450	4,400
수산종자 연구센터 건립	2021~2023	300	150	150	-	-
스마트 해양 전문인력 양성	2026~2032	70	35	18	18	-
통합적 스마트 바다목장 조성	2020~2025	1,240	840	200	200	-
첨단농업 벤처창업 캠프 조성사업	2021~2023	300	300	-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021~2023	259	181	-	26	52
한국형 양계분야 시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2020~2022	80	70	-	-	10
5G MEC기반 노지 스마트팜용 농작업 기계지원 서비스	2021	40	40	-	-	-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캠퍼스 설치	2021~2025	299	299	-	-	-
친환경 ICT 융복합 축산교육센터 신축	2022~2024	195	195	-	-	-
K-Seed 디지털 육종플랫폼 혁신센터 구축	2023~2025	199	199	-	-	-
디지털 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	2021~2025	400	300	30	70	-
원예시설 ICT 융복합 지원	2020~2025	85	26	8	18	33
축산ICT 융복합 지원	2019~2025	705	214	-	-	491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실증지원사업	2022~2024	100	70	15	15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2021~2024	1,200	1,000	200	-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SW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2021~2024	140	66	54	20	-
천연자원 식의약 소재 개발	2021~2023	49	39	5	-	5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	2020~2022	52	26	26	-	-
흰다리새우 스마트 표준양식장 건립	2022~2024	70	35	35	-	-
내수면 갑각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2022	38	30	-	-	8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조성	2022~2025	400	220	36	84	60
친환경 어구보급(친환경 부표보급)	2021~2025	6	2	-	2	2
전라북도 디지털농업 기초기반 RD&E센터 구축	2020~2025	178	110	68	-	-
생육 영상 기상정보활용작물 안정생산 모델 개발	2020~2025	143	135	8	-	-
데이터 기반 작물안정생산모델 현장 적용	2020~2025	136	68	3	66	-
디지털 육종 기반조성 사업	2020~2025	400	250	150	0	-
인공지능(AI)기반 농생명 지역거점사업	2022~2025	376	220	78	50	28
탄소발생 저감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2020~2025	43	-	21	21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	2021~2025	3,500	-	-	-	3,500

## 5 산업생태계 개편을 통한 新성장 동력산업 육성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자산운용사 콜센터 유치	2024~2030	50	-	-	-	50
(국립) 전북 홀로그램 전문과학관 건립	2021~2023	400	300	50	50	-
3D 프린팅 바이오소재 인증센터 설립	2030~2040	300	200	40		60
3D 프린팅 통합 생태계 조성사업	2020~2024	700	450	125	125	-
AI 기반 상용차 자율주행 연구기반 구축	2020~2024	240	190	25	25	-
ESS 시험인증평가 센터 구축	2020~2024	1,000	800	100	100	-
ICT 융복합 드론 소재부품 생산거점 조성	2020~2023	143	100	20	23	-
건설기계 스마트 실증기반 구축사업	2019~2023	200	200	-	-	-
고분자연료전지 소형 스마트팜 조성	2021~2023	50	50	-	-	-
국방 나노탄소 특화연구센터 구축사업	2021~2029	216	216	-	-	-
군산 스마트에너지플랜트 연구센터 구축사업	2020~2025	531	425	29	77	-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2022~2026	1,500	750	175	175	400
농기계 빅데이터 기반 초연결 Farm 서비스 플랫폼 실증	2036~2045	1,000	600	200	200	-
드론산업 전진기지 구축사업	2022~2024	160	48	50	30	32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2021~2023	243	152	33	33	25
소형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2021~2025	1,611	1,226	143	143	100
수소 대용량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센터	2021~2024	200	100	-	100	-
수소 연료전지 첨단밸리 조성	2020~2024	698	240	150	144	164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2020~2024	1,000	1,000	-	-	-
수소드론 특화도시	2021~2023	200	140	-	60	-
수소산업 기반 상생형 일자리 창출	2021~2025	500	500	-	-	-
수소상용차 생산거점도시 및 산업생태계 구축	2021~2025	690	450	120	120	-
수소에너지 체험단지 조성	2020~2022	450	300	150	-	-
수소특화산업(국가산업) 조성	2021~2025	3,000	3,000	-	-	-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 인증 센터	2020~2024	1,000	800	120	80	-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 구축	2020~2022	450	270	90	90	-
스마트팩토리 공간구축사업	2026~2030	300	150	45	105	-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2021~2026	3,120	1,620	170	170	1,160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2021~2025	2,000	2,000	-	-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2020~2024	1,200	1,000	200	-	-
지능형 산업·생활 로봇 융합 솔루션 기반 조성	2036~2039	600	350	125	125	-
차세대 수소활용 기술 개발 및 실증	2020~2023	234	234	-	-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2020~2024	370	220	75	75	-
해양무인 테크비즈 단지 조성	2028~2032	200	100	50	50	-
해양무인기술 시스템 평가·인증 센터 구축	2026~2030	900	450	225	225	-
해양무인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2022~2026	40	20	10	10	-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구축	2021~2025	300	200	30	70	-
기업지원 맞춤형 DB구축	2021~2023	100	100	-	-	-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에너지시설 조성	2020~2021	33	33	-	-	-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LED 조명교체	2022	5	2	-	4	-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2019~2025	2,094	916	352	826	-
자원순환 그린뉴딜 기반시설 확충	2021~2025	1,318	561	-	757	-

## 제4차 전략북도 종합계획 (2021~2040)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RNA바이러스의 나노바이오센싱 및 시스템 개발(R&D)	2021~2025	25	25	-	-	-
근골격계질환용 미세진동칩이 삽입된 스마트 임플란트 및 구동장치 개발(R&D)	2021~2023	15	8	4	4	-
디지털 웨어러블 의료기기 실증연구시설 조성 사업(R&D)	2021~2023	57	57	-	-	-
지하시설물 전산화	2021	659	339	-	320	-
디지털 지적구축(지적재조사)	2021~2025	1,300	1,300	-	-	-
스마트챌린지 사업	2021~2025	36	18	-	18	-
스마트상가 육성	2021~2025	25	23	-	-	2
스마트슈퍼 육성	2021~2025	6	3	-	2	1
비대면 시장 성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2021~2022	12	10	-	2	-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021	62	45	-	-	17
NPS 디지털 금융혁신	2024	60	-	-	-	60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20)	2021	17	14	-	-	3
전북형 디지털 세일즈 인프라 구축	2022~2025	7	-	7	-	-
김제자유무역지역 신재생에너지 표준공장 증축	2021~2024	350	228	미정	122	-
산업단지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	2022~2024	32	32	-	-	-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2021	48	23	6	15	4
전북 뉴딜 벤처창업 펀드 조성	2021~2025	530	318	90	50	72
전북형 BIG3 (소재, 금융, 미래차) 혁신창업 뉴딜 패키지	2021~2024	420	360	60	미정	-
전북청년 디지털 스위치온 지원사업	2021	13	6	5	-	2
전북형 뉴딜 인재양성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2021~2023	600	500	50	50	-
새만금 뉴딜 인재양성 클러스터 구축	2021~2025	180	-	153	27	-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2021	200	100	50	50	-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2022~2024	243	96	74	74	-
소형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2022~2025	470	280	190	-	-
미래형 건설농기계 자율작업 공동제어부품 기반구축	2022~2025	140	70	35	35	-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	2021~2022	199	100	50	50	-
데이터댐 활용 지역현안해결형 AI융합 플랫폼 구축	2022~2024	180	150	30	-	-
SW서비스 개발사업	2021~2023	98	52	9	37	-
융복합 SW강소기업 육성	2021~2025	60	-	60	-	-
SW중심대학 육성	2021	83	63	2	18	-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2021~2023	201	139	4	10	48
홀로그램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홀로그램 소재부품실증개발 지원센터)	2021~2025	150	100	15	35	-
홀로그램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2021~2023	300	200	30	70	-
홀로그램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2021~2022	225	97	81	35	12
빛 반응데이터 기반산업융합 공공서비스 실증사업	2022~2025	150	100	50	-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021~2022	924	455	125	-	344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2022~2025	2,261	1,340	130	130	661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	2021~2022	815	280	40	40	455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2021~2024	420	220	100	100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2021~2022	297	175	30	70	22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새만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2021~2022	200	80	60	60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2021~2023	234	94	40	40	60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수상태양광시스템 구성제품성능평가 기반 구축)	2022~2024	123	60	31	32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2021~2023	121	65	35	15	6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풍력 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2022~2024	242	195	24	23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021~2025	160	72	-	88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21~2025	356	178	21	50	107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집적화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021~2025	925	462	-	314	149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2021~2025	2,087	2,087	-	-	-
해상풍력 발전에너지 공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2021~2022	150	36	6	12	96
해상풍력 발전에너지 공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사업)	2021~2023	35	35	-	-	-
해상풍력 핵심기술개발 및 연관기업 육성(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해상풍력발전 블레이드 유지관리 기술개발)	2021~2023	50	40	-	10	-
해상풍력 핵심기술개발 및 연관기업 육성 (고성능 풍력발전시스템 연구개발)	2021~2024	59	50	1	2	6
해상풍력 핵심기술개발 및 연관기업 육성 (대형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신뢰성평가기술개발)	2021	75	48	22	-	5
해상풍력 핵심기술개발 및 연관기업 육성 (대형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개발)	2021~2022	272	250	2	2	18
대형풍력블레이드 카본 플루투전 소재 개발 및 3MW급 블레이드 상용화 기술개발	2021~2023	107	88	-	-	19
탄소복합재 적용 7MW이상 해상용 대용량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2021~2022	569	299	-	-	270
친환경 수소충전 기반확충 및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2021~2025	18,078	6,030	2,581	1,458	8,009
친환경 수소충전 기반확충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비도로 이동 및 혐지용 수소충전시스템 개발)	2021~2025	100	90	5	5	-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거점 구축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2023~2025	3,700	3,100	300	300	0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거점 구축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	2021~2025	207	111	11	27	58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복형 수소시범도시 조성	2021~2022	322	145	30	147	-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2021~2023	196	100	53	18	25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거점 구축 (연료전지 시스템 전주기 R&D 고급트랙)	2021	33	20	1	-	12
그린수소 거점 수소특화단지 조성	2021~2025	3,000	2,400	300	300	-
수소 수요창출을 위한 그린수소인증제 시범도입(신규)	2021~2022	3	-	3	-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친환경 수소충전 기반확충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북합 메가 스테이션 구축)	2023~2025	400	300	25	25	50
가변 플랫폼 중 소형 전기 트럭/버스 및 운영환경 개발	2021~2022	212	127	15	15	55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	2021~2023	210	150	-	-	60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2021~2024	1,621	827	249	249	295
수송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 융합기술 촉진 지원사업	2021~2022	78	54	12	12	-
초고강도 탄소섬유 적용 수소저장용기 및 고속와인딩 기술개발	2021~2022	150	108	-	-	42
탄소복합재 대용량 수소이송시스템 실증	2021~2022	55	20	28	8	-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전극용 카본소재 개발	2021~2022	91	91	-	-	-
수소운송용 복합재기반 대용량 고압용기 및 튜브스키드 개발	2021~2022	50	50	-	-	-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2021~2024	330	190	50	50	40
전기차 다중무선충전시스템 실증 및 상용화	2022~2025	450	290	80	80	-
해상풍력 발전에너지 공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2021~2025	85,000	-	-	-	85,000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2021	90	-	45	45	-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활용센터 건립	2021	30	30	-	-	-
공공서비스용 드론활용 인력양성 사업	2022~2025	200	100	50	50	-
전라북도 동부권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망 구축	2022~2025	100	50	25	25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023~2025	100	50	50	-	-
자동제어 연구개발 AI 양식	2024~2025	3,278	3,278	-	-	-
육상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2020~2021	2,927	-	-	-	2,927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2021~2025	11,000	11,000	-	-	-

## 6 스마트 산업기반 구축과 주력산업 고도화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국방부 예비전력(예비군)거점시설 유치	2021~2025	500	500	-	-	-
국방산업단지 조성	2024~2028	500	500	-	-	-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2011~2030	7,500	5,000	1,500	1,000	-
전주한지 닥나무 클러스터 구축	2021~2024	150	100	25	25	-
국립 유니버설디자인 종합플랫폼 구축	2021~2022	250	250	-	-	-
개방형 창업 혁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020~2024	100	70	15	15	-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센터 유치	2021~2023	150	150	-	-	-
글로벌 창업 혁신도시 조성	2026~2035	5,000	5,000	-	-	-
사회적경제 유통거점센터 설립	2021~2023	200	140	30	30	-
완주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2021~2023	300	150	-	150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지역일자리거점 산업단지 진흥·대개조	2021~2023	556	293	-	264	-
청년창업타운 조성사업	2020~2021	100	100	-	-	-
캠퍼스타운 혁신지구 조성	2021~2025	500	300	100	100	-
혁신도시 연계 벤처창업 특구 구축	2026~2030	500	300	75	75	50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지원 Open Lap	2020~2025	100	50	15	15	20
혁신창업 허브센터 건립	2020~2025	500	300	100	100	-
전북혁신도시 연수 클러스터 구축	2020~2025	1,890	1,828	31	31	-
극한환경 안전산업용 섬유 개발	2023~2027	500	250	75	75	100
농·건설기계 재제조산업 생태계 조성	2021~2025	120	74	23	23	-
다공성 소재산업 솔루션 지원센터 구축	2021~2025	250	175	38	38	-
동북아 조선해양 비즈니스 거점 도시	2036~	500	300	75	75	50
미래 방사선 산업 생태계 육성	2021~2028	750	750	-	-	-
미래산업 R&BD 생태계 기반조성	2021~2030	450	225	68	158	-
섬유산업 토탈 솔루션 생산기지 구축	2036~2040	500	250	125	125	-
스마트 섬유제조 시스템 구축	2020~2024	200	100	40	40	20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기반 고기능성 섬유산업 육성	2021~2023	143	100	22	22	-
융복합 섬유 전문인력 양성	2024~2028	150	75	38	38	-
의료용 대마 원료소재의 국산화 및 의약품 개발 연구 거점 구축	2021~2030	100	100	-	-	-
인체근력 강화 안전보호제품 개발	2027~2031	600	300	100	100	100
자동차 튜닝체험 테마파크 조성	2021~2024	1,898	137	-	-	1,761
자율작업 건설기계 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	2021~2025	140	70	35	35	-
정읍 그린바이오 특화 제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2021~2025	500	350	150	-	-
정읍 청년친화 산업단지 조성	2020~2026	200	100	-	100	-
정읍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2022~2031	4,700	3,000	1,200	-	500
조선 해양설치 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2021~2023	250	150	50	50	0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2020~2022	1,008	275	110	110	513
천연유래 섬유소재 연구센터 구축	2021~2025	200	100	40	40	20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반 구축	2021~2023	200	100	25	25	50
탄소복합재 스마트/경량 보조기기 실용화기반 구축	2021~2025	450	300	50	100	-
탄소복합재 저장용기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2021~2025	300	150	75	75	-
탄소융복합 소재산업 기술 자립화 기반구축	2021~2025	840	640	100	100	-
탄소융복합소재를 활용한 건축자재 개발	2021~2025	300	250	-	-	50
헬륨이용 의료용 소형가속기 구축	2021~2027	900	500	100	100	200
화장품 산업인력 공동훈련센터 지정	2022~2026	60	60	-	-	-
자연친화 생분해플라스틱 원천기술 개발	2021~2025	200	140	60	-	-
초광역협력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2022~2025	600	420	90	-	90
디지털트윈 기반 산업단지 플랫폼 구축	2021~2025	300	210	-	30	60
노후농공단지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022~2025	13	-	4	9	-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	2021~2025	29	-	29	-	-
전통시장·상점가 스마트마케팅 지원센터 육성	2022~2025	10	-	10	미정	-
전라북도 수출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2021~2025	38	-	38	-	-
스마트 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2022~2024	200	140	6	14	40
Co-Innovation 산업단지 공동혁신 R&D	2022~2023	40	36	1	3	-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021~2025	197	140	14	33	10
전기특장 및 기계 지식산업센터 구축	2022~2025	250	160	-	90	-
완주 미래형 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구축	2022~2025	230	160	-	70	-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	2021~2025	22	-	22	-	-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2021	20	18	1	-	1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특별보증 지원	2021~2025	25	-	25	-	-
자영업자 금융비용부담 경감 특별보증	2021~2025	250	-	100	-	150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2021~2023	5,171	-	-	-	5,171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2021~2024	1,000	800	40	160	-
전라북도 일자리 지원센터 통합 운영	2021~2025	50	-	50	-	-
청년전북 New-WAVE 지원	2021	151	72	53	26	-
미래형 전기차산업 메카 군산 청년일자리사업	2021~2022	79	37	5	24	13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	2021~2022	39	19	4	10	6
재도전 청년일자리 매칭사업	2021	1	-	1	-	-
창업도약 패키지	2021~2022	70	66	2	2	-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2021~2024	288	288	-	-	-
전북형 스타트업 멀티플렉스 조성	2023~2025	580	290	290	미정	-
지역인재 YOU(Young Of U-turn) 지원사업	2021	6	2	4	-	-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2021~2025	490	300	30	60	100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2021~2023	240	110	48	48	35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	2021~2022	38	-	33	-	5
자동차 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2021	73	-	60	-	13
전기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2021~2022	6	-	6	-	-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2021~2023	27	-	27	-	-
화학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	2021~2025	25	-	13	13	-
케나프 이용 바이오플라스틱 전주기 생산기술 개발	2020~2024	60	60	-	-	-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2021~2025	5	-	5	-	-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천연항생제 개발	2021~2025	15	-	15	-	-

## 7 공생과 혁신을 통한 고품격 여행체험 1번지 육성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고군산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2022~	1,000	100	100	100	700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2021~2024	150	75	-	75	-
국립 다목적댐 역사박물관	2021~2023	300	300	-	-	-
공항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2020~2023	666	180	100	100	286
도심권 향기거리 조성	2021~2025	20	10	5	5	-
심포항 내수면 마리나 조성계획	2020~2029	187	187	-	-	-
근대시민정신 체험학습벨트	2021~2030	1,609	516	258	258	577
2023 세계잼버리 대회	2016~2023	495	54	131	-	310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2021~2025	2,900	2,900	-	-	-
레저·문화 경마공원 조성	2021~2025	2,500	2,500	-	-	-
부안 농생명 힐링벨리 구축사업	2021~2030	670	380	100	90	100
황등(黃登)호 호남역사공원 조성사업	2020~2023	400	220	90	90	-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	2026~2030	300	150	45	105	-
5G 실감형 오픈헤리티지 조성 실증사업	2022~2024	200	100	50	50	-
AI기반 Double-T(Transport+Travel)플랫폼 구축사업	2022~2024	150	100	25	25	-
가야왕국 홀로그램 테마파크	2020~2022	380	200	80	100	-
강천산 국립공원 테마파크 조성	2020~2025	139	4	68	67	-
개방형 문화예술품 수장고 사업	2026~2030	1,350	500	350	500	-
고창 갯벌세계유산센터 건립	2022~2025	315	158	-	158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2020~2029	305	224	-	81	-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2020~	2,000	2,000	-	-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2021~2025	493	493	-	-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2022~	1,000	1,000	-	-	-
군산산복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2021~2025	150	75	38	38	-
군산콘텐츠 팩토리 운영	2020~2023	80	40	20	20	-
금강미래체험관 조성	2021~2025	180	15	65	100	-
꽃잔디마을 복합관광단지 조성	2022~2024	150	75	15	60	-
농경문화 대표관광지 조성	2019~2030	3,100	2,000	300	800	-
능제수변공원 관광단지 조성 및 수변관광자원 개발사업	2020~2030	500	250	125	125	-
다기능 문화 복합공간 조성	2020~2021	148	74	37	37	-
도계 국지도 관광자원화 사업	2021~2025	150	-	75	75	-
동부권 관광거점 재생프로젝트 사업	2021~2024	300	200	50	50	-
동진강 문포 유람선 선착장 조성사업	2021~2023	100	100	-	-	-
라제통문 역사문화단지 관광자원개발	2020~2025	1,347	674	100	273	300
렛츠런파크 부안 새만금 조성사업	2022~2030	3,000	-	100	300	2,600
마이 에코힐 프로젝트	2021~2025	470	100	30	140	200
마이산 신비 투어로드 구축	2022~2026	100	50	-	50	-
마이산 치유관광 복합단지 조성	2021~2025	650	100	175	175	200
마이산과 연계한 관광형 시장 조성	2021~2023	100	50	10	40	-
무주 국립태권도원 지방정원 조성사업	2021~2024	60	-	30	30	-
무형문화재 '장담그기' 세계화 사업	2021~2040	200	100	30	70	-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건립(농악전수회관)	2021~2024	104	52	16	36	-
백제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2018~2030	8,450	2,000	300	500	5,650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2021~2025	1,400	80	-	-	1,320
새만금 가력도 수상드론장 설치사업	2021~2024	250	250	-	-	-
설공찬이 테마공원 조성	2022~2025	200	100	-	100	-
섬진강 권역 관광자원 개발	2021~2027	111	46	9	57	-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2021~2025	250	-	188	63	-
성수산 에코 힐링타운 조성	2021~2025	225	130	40	55	-
순창군 서부산악권 관광벨트 조성	2021~2030	250	60	20	80	90
순창향교 전통문화단지 조성사업	2020~2024	100	30	20	20	30
스마트아틀리에(Art+Atelier) 조성 및 전시콘텐츠 개발	2026~2030	1,000	700	200	100	-
실감기술 기반 디지털복원 융복합기술R&D센터 구축	2021~2025	300	200	50	50	-
아시아 근대기억공원(Memorial Park) 조성	2020~2024	3,750	3,000	400	350	-
아중호수 관광자원화	2021~2027	300	150	40	110	-
역사문화유산 실감콘텐츠 : 홀로그램 맵핑쇼	2021~2040	121	1	57	33	30
옥정호 마리나 종합개발	2021~2025	1,000	500	250	250	-
옥정호 에코 관광지 개발	2021~2027	2,990	2,109	562	169	150
완주 아트밸리 조성	2021~2024	150	75	30	45	-
완주 어메니티밸리 조성	2021~2023	200	100	-	100	-
완주 역사박물관 건립	2021~2023	252	88	-	164	-
용담호 오색 생태 레저타운 조성	2022~2027	490	245	122	123	-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2021~2023	250	150	-	100	-
위도 해양레저복합타운 조성	2021~2025	100	-	-	100	-
읍성문화 활용 야간상설공연 사업	2021~2040	113	20	29	29	36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2020~2023	214	150	19	45	-
익산고도보존육성	2012~2025	3,419	1,893	625	625	275
임실치즈테마파크 키즈랜드 건립	2020~2022	200	40	60	100	-
장류기반 음식관광산업 육성	2021~2040	385	193	58	135	-
장수가야유적(침령산성) 복원정비 사업	2021~2025	240	168	36	36	-
장이 익여가는 발효문화마을 조성	2021~2025	150	75	23	53	-
적상산성 종합정비 사업	2021~2028	500	250	125	125	-
전라감영 2단계 복원	2021~2030	320	160	80	80	-
전라북도 국립 과학체험관 건립	2020~2024	800	560	140	100	-
전북가야 역사문화벨트 조성	2019~2025	3,000	2,000	500	500	-
전북의 독립운동과 근현대사의 재조명 및 기념 사업	2021~2024	300	200	100	-	-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2016~2021	98	29	-	69	-
전주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	2020~2023	429	133	25	138	133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2020~2024	500	250	100	150	-
전통문화콘텐츠 연계사업	2021~2030	250	125	38	88	-
정읍시립미술관(디지털아트 뮤지엄) 신축	2021~2025	120	48	-	72	-
정자 및 풍류의 보존과 관광자원화	2021~2040	84	42	17	25	-
지역사 백년대계 진안역사박물관 고도화사업	2022~2024	60	20	10	30	-
진안 도토리 청자요지 정비사업	2020~2030	200	100	50	50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진안 지질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2022~2025	90	45	23	23	-
진안고원 플라워밸리 조성	2021~2030	200	50	50	100	-
진안형 스마트관광 시스템 구축	2022~2025	60	0	30	30	-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2017~2021	316	99	-	184	34
천년 부안고려청자 관광밸리 조성사업	2020~2029	200	100	50	50	-
천년전북 정신문화의 재조명 및 현대화 사업	2020~2023	435	118	159	159	-
천반산 정여립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2022~2024	80	0	40	40	-
청년예술인마을 조성 및 공공프로젝트	2021~2040	47	6	21	21	-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2021~2025	373	373	-	-	-
키덜트 콤플렉스 문화공간 조성사업	2021~2030	600	300	90	210	-
태권도원 주변 관광개발	2018~2026	1,500	750	-	750	-
태권시티 조성	2019~2024	3,100	2,500	300	300	-
판소리박물관 이전 건립 및 고창군립미술관 건립	2022~2024	220	88	66	66	-
팔공 역사문화공원 조성	2020~2028	230	40	40	150	-
풍물 민속마을	2020~2024	75	38	18	20	-
한 치유 종합센터 및 한치유 마을 조성	2021~2040	363	166	98	99	-
한옥마을 관광 기반 정비	2020~2022	86	43	-	43	-
호남권 축구종합센터 건립	2021~2023	404	38	-	116	250
홀어머니산성 사적지정 및 관광벨트 조성	2020~2027	120	36	36	48	-
후고구려-후백제 강호축 역사벨트 조성	2021~2030	1,000	600	200	200	-
세대통합 산업문화 콤플렉스 조성	2021~2040	1,020	510	153	357	-
국립 청소년 산악체험센터 건립	2021~2025	500	500	-	-	-
구절초 테마공원 국가정원 조성사업	2022~2024	208	150	29	29	-
국립 나라꽃 무궁화 문화센터 조성	2022~2025	252	226	13	13	-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2018~2023	827	662	68	98	-
국립 지리산 야생허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2021~2024	700	700	-	-	-
기지제 어린이 생태체험장 조성	2021~2023	150	75	38	38	-
내 삶을 바꾸는 숲, 산림 웰니스 거점 조성	2021~2023	90	0	45	45	-
내장산 자생식물원 조성	2020~2022	195	195	-	-	-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2020~2024	40	-	20	20	-
만경강·동진강 생태관광지 조성	2020~2025	1,000	500	250	250	-
백두대간 삼도봉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2022~2026	200	100	-	100	-
백두대간 육십령 산악정원 조성사업	2021~2024	300	0	150	150	-
백두대간(육십령)힐링 그린파크 조성	2021~2025	30	15	-	15	-
봉서골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2021~2030	665	275	188	202	-
봉화봉~사투봉 연결 구름다리 설치	2021~2024	100	100	-	-	-
부안 eco-forest 조성사업	2021~2025	1,000	1,000	-	-	-
비비정 지방정원 조성사업	2020~2023	100	50	-	50	-
산림자원 활용 체류형 에코투어 기반조성	2021~2030	150	75	23	53	-
섬진강 에코파크 조성사업	2021~2025	1,500	1,000	300	200	-
완산칠봉 한빛마루 조성	2021~2024	198	94	-	104	-
운일암반일암 지질탐방로 조성	2021~2024	60	0	30	30	-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라북도 동부권 철쭉공원 조성	2021~2025	120	50	25	25	20
전통고추장 민속마을과 연계한 아미산 공원 조성	2021~2024	200	200	-	-	-
진안고원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신광재)	2022~2026	1,000	600	200	200	-
진안고원 산악레포츠 체험공간 조성	2022~2025	60	30	15	15	-
호남권 국립 등산학교 건립	2021~2023	100	100	-	-	-
황토섬 에코파크	2021~2024	101	50	-	51	-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2021~2025	490	392	98	-	-
지덕웰니스 산업 플랫폼 구축	2021~2025	300	300	-	-	-
전라·유학유산 디지털 스마트워크 플랫폼 구축	2022~2024	430	300	-	130	-
정읍 디지털 문화유산 아트센터 조성	2021~2023	195	98	-	98	-
근대문화 디지털 자료원 구축	2021~2023	50	36	-	14	-
세계유산 5G 실감형 실증 사업	2022~2025	200	100	-	100	-
만복사지 고종연구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2022~2025	20	14	3	3	-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K-컬처힐링 프로젝트	2022~2024	220	110	-	110	-
ICT융복합관광 스마트 야간관광활성화	2022~2025	140	70	-	70	-
스마트 관광거리 조성	2022~2024	70	35	-	35	-
VR기반 남원종합관광플랫폼 구축	2022~2023	40	20	-	20	-
인공지능 기반(Double-T) 플랫폼 구축	2022~2025	300	200	-	100	-
새만금 실감형 콘텐츠 Field Test 센터 구축	2022~2023	70	35	-	35	-
전북 XR 관광 플랫폼 구축	2022~2024	300	-	150	150	-
국립 인공지능(AI) 콘텐츠 융합 플랫폼 구축	2022~2025	200	200	-	-	-
언택트 전북 시네-라키비움(Cine-Larchiveum) 플랫폼 구축	2022~2025	150	100	-	50	-
자율주행 자동차 문화관광 콘텐츠서비스 플랫폼 구축	2022~2025	250	125	125	-	-
스마트 팔복예술공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21~2022	8	4	-	4	-
시각예술VR갤러리 전용관 구축	2022~2023	5	5	-	-	-
비대면 전시공연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22~2025	30	15	15	-	-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효과음원 유통 플랫폼 구축	2022~2025	80	40	-	40	-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계속)	2020~2022	40	20	-	20	-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계속)	2018~2021	60	30	30	-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계속)	2020~2024	453	317	-	136	-
시청자 미디어 센터 구축	2021~2025	195	50	145	-	-
유·무형 문화자산디지털 영상 아카이빙 구축사업	2024~2025	100	70	-	30	-
미술관 실감형 콘텐츠 제작	2021	5	3	3	-	-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2021	10	5	-	5	-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	2021	6	3	-	3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2021	1	1	-	0	-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2021	3	1	-	1	-
가상현실 스포츠실사업 확대	2021~2022	11	6	-	6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에듀센터 실감콘텐츠 제작	2022	10	5	-	5	-
장수가야 역사문화 실감콘텐츠 센터 건립	2022~2025	200	100	50	50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2020~2022	828	662	68	98	-
해달별 생태치유 고원(高原)	2022~2025	2,000	1,200	240	560	-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2020~2022	110	110	-	-	-
만경, 동진강 생태문화 복원사업	2022~2025	230	160	-	70	-
한반도 생태축 복원	2020~2022	50	35	-	15	-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 밸리 조성사업	2021~2025	2,450	1,470	490	-	490
5G 기반 다목적댐 박물관 건립	2022~2024	300	300	-	-	-
격포 관광단지 조성	2022~2030	1221	-	-	-	1,221
승암산 인문·자연경관 연계탐방로 조성	2022~2026	50	-	25	25	-
한옥마을 아트포켓 조성	2026	37	-	19	19	-
K-Film 허브구축 돌레길 조성	2024~2026	48	-	24	24	-
고덕터널 관광자원개발	2023~2027	150	-	75	75	-
상상력으로 리노베이션하는 팔복 공단	2023~2025	57	-	20	37	-
백석저수지 관광자원개발	2023~2025	50	-	25	25	-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2023~2030	300	100	50	50	100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	2022~2024	35	-	15	20	-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2023~2026	50	-	25	25	-
폐철도 연계 경암철길마을 명소화	2024~2026	50	-	25	25	-
후백제 역사문화체험지구	2023~2030	600	275	138	188	-
시간여행 트램형 관광셔틀 구축	2022~2024	15	-	8	8	-
금강미래체험관 조성	2023~2025	138	60	18	60	-
금강호 관광지 정원지구 조성	2023~2026	80	-	40	40	-
금강습지생태공원 힐링도래지 조성	2023~2025	30	-	15	15	-
은파호수공원 가족체험놀숲 조성	2023~2026	60	-	30	30	-
은파호수공원 생태숲 꽃마중뜰 조성	2024~2026	30	-	15	15	-
은파호수공원 뮤직 워터스크린 조성	2024~2026	50	-	25	25	-
이색교도소 조성	2022~2023	60	-	30	30	-
어린이 숲속 테마 마을 조성	2024~2026	50	-	25	25	-
용안생태 레포츠 파크 조성	2025~2028	30	-	15	15	-
가로수길 카트레이싱 체험공원 조성	2021~2025	137	16	50	68	3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2022~2024	481	481	-	-	-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	2021~2023	100	100	-	-	-
정읍 문화광장 내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2023~2025	60	-	30	30	-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활성화	2022~2024	55	-	28	28	-
황토섬 에코파크 조성	2024~2026	95	-	35	60	-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2024~2026	100	-	50	50	-
내장산관광특구 친수하천 조성	2025~2026	50	-	25	25	-
정읍사 활용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2022~2023	30	15	-	15	-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2022~2024	58	29	9	20	-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2022~2023	70	35	-	35	-
총무공원 생태습지 녹색관광자원개발	2022	20	10	-	10	-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	2022~2024	40	-	20	20	-
성산공원 관광 명소화 조성	2023~2025	40	-	20	20	-
김제 관광체험 놀이시설 조성	2024~2026	50	-	25	25	-
아리랑 문학마을 활성화 사업	2025~2027	40	-	20	20	-
대울저수지 수변관광자원 조성	2024~2029	240	-	120	120	-
백산저수지 유원지 조성	2024~2030	280	-	140	140	-
만경능제 유원지 조성	2022~2026	561	-	152	208	202
남원 한옥 체험시설 조성	2022~2024	35	-	18	18	-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테마파크 조성	2023~2025	85	-	43	43	-
남원 레코드테크(Recordtheque) 조성	2024~2026	40	-	20	20	-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2021~2023	150	60	30	60	-
요천변 야간경관 조성사업	2024~2027	90	45	0	45	-
남원 동화숲 오해브 양떼목장	2023~2025	55	-	28	28	-
남원 원도심 관광활성화 사업	2023~2025	40	20	-	20	-
삼례 삼색 특화 마이스단지 조성	2024~2026	70	-	30	40	-
모악산 광역 관광 클러스터 조성	2023~2024	40	-	20	20	-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개발	2022~2024	50	-	25	25	-
완주군 숲 테마 관광휴양지 조성	2023~2026	62	-	25	37	-
에코(ECO) 사파리 조성	2023~2030	500	250	100	150	-
소양권역 감성여행 관광자원개발	2022~2024	60	-	30	30	-
대둔산도립공원 관광자원개발	2023~2026	50	-	25	25	-
천호성지 특화관광명소 조성	2024~2026	100	-	50	50	-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1단계)	2022~2023	71	-	20	51	-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2단계)	2024~2026	60	-	30	30	-
마이 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	2021~2024	138	60	18	60	-
마이산 프리미엄 스파 타운 조성	2026~2028	40	-	20	20	-
천반산 관광자원 개발	2026~2028	40	-	20	20	-
무주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활성화	2022~2025	120	-	50	70	-
포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2025~2028	30	-	10	20	-
적상산 관광명소화	2024~2028	192	-	95	97	-
백두대간 여행거점 '라제'	2024~2028	190	-	94	96	-
무주구천동 관광단지 힐링공원	2024~2028	54	-	27	27	-
무주 관광웰컴센터	2025~2027	37	-	18	19	-
반딧불 디지털체험센터	2023~2026	102	-	51	51	-
구천33경 관광활성화	2024~2026	30	-	10	20	-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능보강	2022~2023	40	-	20	20	-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챌린지 조성	2023~2024	40	-	20	20	-
장안산 은빛마루 조성	2024~2026	60	-	30	30	-
용림제 신비의 오색길 조성	2022~2026	114	57	29	29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무지개향기 공원 가야지(加耶地)조성	2023~2026	140	70	35	35	-
장수 남산공원 조성	2023~2025	30	15	-	15	-
토옥동 관광자원 조성	2023~2025	50	-	25	25	-
장수 유리 하우스 조성	2023~2024	500	250	-	250	-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	2022~2024	50	-	25	25	-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조성	2023~2024	30	-	15	15	-
채계산권 관광벨트 조성	2023~2025	199	76	27	96	-
추령권 관광자원화	2024~2026	50	0	25	25	-
순창 서부권 관광자원개발사업	2023~2025	54	10	14	30	-
실랜드 여행·체험 거점 지구 조성	2023~2026	24	-	12	12	-
전북형 키덜트 관광자원화	2023~2025	100	-	50	50	-
해뜨고 달뜨는 옥출산 관광자원화 사업	2023~2026	80	-	38	43	-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	2022~2024	50	-	25	25	-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	2024~2026	50	-	25	25	-
자라섬 연계관광 자원개발	2023~2025	30	-	15	15	-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2023~2026	180	-	90	90	-
치즈야 놀자! (ICT 체험형 관광콘텐츠)	2023~2026	120	-	60	60	-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	2022~2024	60	-	30	30	-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 조성	2023~2024	40	-	20	20	-
외죽도 생태공원 조성	2025~2026	50	-	25	25	-
세계유산 고인돌 체험관광 조성	2022~2025	120	60	-	60	-
고창 식초문화도시 랜드마크 기반 구축	2022~2026	100	-	50	50	-
베리굿(Berry Good) 테마공원 조성	2023~2026	70	49	-	21	-
한반도 천년의숲 조성사업	2022~2026	62	31	-	31	-
선운산 에코 어드벤처 조성	2022~2024	40	20	-	20	-
한반도 문명사 네트워크 개발	2022~2026	200	140	-	60	-
제2의 한스타일 육성 및 국제화	2022~2026	300	150	50	100	-
격포 에코힐링파크 조성	2022~2024	50	-	25	25	-
곰소 염전 관광 활성화	2023~2024	70	-	20	20	30
위도 관광자원개발	2024~2026	50	-	25	25	0
변산 해양테마파크 조성	2025~2030	120	-	60	60	0
부안 열대수생식물원 조성	2022~2028	500	300	100	100	0
부안 트래블 스카우트(BTS)	2022~2025	138	60	18	60	0

## 8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SOC 대동맥 완성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KTX익산역 선상주차장 조성	2020~2023	460	460	-	-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2020~2024	840	420	-	420	-
갈마~오정(국도30호선) 4차로 확장	2021~2024	556	556	-	-	-
개인용 무인항공기(PAV)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2021~2025	100	75	-	25	-
격포~위도~식도 연륙교 건설	2021~2030	18,240	8,896	5,000	4,344	-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 서해안 연결사업	2022~2030	22,000	22,000	-	-	-
구시포 연안항만 조성	2022~2026	450	-	450	-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건설 사업	2021~2027	3,316	3,316	-	-	-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철도) 건설	2021~2027	3,773	3,773	-	-	-
국도19호선(남원산동~장수번암) 2차로 개량사업	2021~2025	941	941	-	-	-
국도19호선(안성~적상) 확포장 사업	2021~2025	450	450	-	-	-
국도1호선 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	2020~2023	800	800	-	-	-
국도21호선(공덕교차로~도도교차로) 확장	2025~2028	1,400	1,300	50	50	-
국도22호선(해리~상하~공음) 2차로 시설개량	2021~2034	1,252	1,252	-	-	-
국도24호선(순창~인계) 4차로 확장	2026~2030	463	463	-	-	-
국도27호선 교차로 개선사업	2022~2023	514	514	-	-	-
국도30호선(설천 소천~무풍 철목) 4차로 확장 사업	2021~2025	3,400	3,400	-	-	-
국도77호선 변경지정 및 확포장 공사	2021~2025	1,929	1,929	-	-	-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사업	2021~2028	2,972	2,972	-	-	-
국도지선(용진국도 17호선~완주산단) 개설사업	2021~2030	780	780	-	-	-
국지도37호선(인월~아영) 2차로 확장 및 개량사업	2021~2025	373	373	-	-	-
국지도49호선(부전~칠보) 시설개량	2021~2026	1,089	762	327	-	-
국지도55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	2021~	485	485	-	-	-
국지도55호선 소양~주천 시설 개량	2031~	1,344	940	404	-	-
국지도55호선(순창~구림) 4차로 확장 조기착수	2021~2025	919	644	275	-	-
국지도60호선(곡성 고달~남원 주천) 2차로 개량	2021~2025	916	916	-	-	-
군산 옥도 관리도~장자도 2차로 신설	2031~	1,500	1,500	-	-	-
군산 해망로(산단 진입도로) 확장	2020~2022	300	300	-	-	-
군산항 대형구조물 물류인프라 구축	2021~2025	441	441	-	-	-
남원 이백~운봉 2차로 개량(국도24호)	2021~2025	429	429	-	-	-
남원 주천 호경~고기 2차로 개량(국지도60호)	2021~2025	660	462	198	-	-
노을대교(국도77호선 부안~고창) 도로 건설	2021~2027	7,879	7,879	-	-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2021~2030	40,850	40,850	-	-	-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정읍~남원)	2021~2027	5,452	5,452	-	-	-
동부내륙권 국도 시설개량 사업	2025~	5,624	5,624	-	-	-
무장~공음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지방도 796호선)	2022~2030	872	-	872	-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무주, 무주~부남 국도 시설개량(37호)	2026~2030	1,166	1,166	-	-	-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2020~2028	28,882	28,882	-	-	-
미래형 PAV 실증단지 조성	2032~2036	5,000	3,500	1,500	-	-
백운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21~2024	111	-	56	56	-
백제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개선	2020~2023	700	700	-	-	-
상전~동향(국지도49호선) 2차로 개량	2021~2025	751	751	-	-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16~2022	7,600	7,600	-	-	-
새만금 보조간선도로(2번, 4번) 건설	2026~	3,503	3,503	-	-	-
새만금 연결도로(김제~새만금) 확장	2021~2023	540	540	-	-	-
새만금~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2036~2042	11,571	11,571	-	-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 구축	2010~2022	19,804	19,804	-	-	-
새만금~지리산간 고속도로 건설	2021~2028	21,600	21,600	-	-	-
새만금선(새만금항~대야) 철도 건설	2020~2028	12,953	12,953	-	-	-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구간 조기착공	2029~2034	26,694	-	-	-	26,694
서해안 고속도로(동서천~서김제~고창) 확장	2021~2032	17,617	17,617	-	-	-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2021~2025	35,000	35,000	-	-	-
서해안~호남고속도로 연결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군산IC ~ 서수·평장 국대도)	2028~2035	3,248	3,248	-	-	-
서해안고속도로(동서천IC~부안IC) 확장	2030~2038	4,516	4,516	-	-	-
소양~동상(국지도55호선) 시설개량	2021~2025	579	579	-	-	-
순창 쌍치 쌍계~금성 2차로 개량사업	2021~2025	233	163	70	-	-
완주 동상~진안 주천 2차로 개량(국지도55호)	2021~2025	413	289	124	-	-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국도 구조개선	2021~2025	678	678	-	-	-
완주IC~국대도 입체교차로 개설공사	2021~2025	470	470	-	-	-
완주IC~전주(국도17호선) 확포장사업	2021~	450	450	-	-	-
위도~식도 연육교 건설	2021~2025	740	740	-	-	-
익산 함라~여산간 지방도(724호) 확장사업	2020~2023	1,000	1,000	-	-	-
임실 성수~진안 백운 2차로 개량	2021~2023	500	250	75	75	100
임실 신덕~신평 2차로 개량(국지도)	2021~2024	570	570	-	-	-
임실 청웅~임실 2차로 개량	2021~2023	412	412	-	-	-
장수~천천(국도13호선), 진안~장수(국도26호선) 2차로 개량	2021~2025	1,698	1,698	-	-	-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2030~2037	78,080	78,080	-	-	-
전북서남권 내륙횡단철도	2031~2036	34,713	34,713	-	-	-
전주~김천 철도 건설	2020~2026	39,130	39,130	-	-	-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2020~2031	48,578	21,246	-	-	27,332
전주~새만금 BRT 전용도로 구축	2020~2025	1,247	1,247	-	-	-
전주북부권 고속철도 복개화사업	2021~2031	2,500	2,500	-	-	-
정읍~새만금간 고속도로망 연결	2021~2026	29,016	29,016	-	-	-
중소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2020~	비예산	-	-	-	-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2018~2023	982	982	-	-	-
호남고속도로 단계별 확장	2021~2026	25,357	25,357	-	-	-
격포항 확장개발 사업	2021~2024	1,183	1,183	-	-	-
상왕등도 연안항 개발사업	2021~2025	300	300	-	-	-
여청도 국가어항 정비	2021~2028	736	736	-	-	-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기지 조성	2021~2025	3,000	300	100	100	2,500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사업	2021~2025	441	441	-	-	-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조성사업	2021	60	30	15	15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도입	2021~2025	1,102	1,102	-	-	-
전라북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ITS)	2021~2025	332	199	-	133	-
교통사고 제로화 마을주민보호 디지털 인프라 구축	2022~2025	80	40	20	20	-
농산어촌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자율주행 시범사업	2024~2025	100	50	-	50	-
국가기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용량개선 및 스마트화	2022~2025	876	876	-	-	-
도로시설물 인프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21~2025	200	200	-	-	-
지방도 스마트유지관리	2021~2025	10	-	10	-	-
전북형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2022~2025	7	-	7	-	-
드론영상실시간관제 및 중계시스템 구축	2022~2023	31	-	11	20	-
디지털 항만기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실증사업	2025	2,000	1,000	250	250	500
지능형 콜드체인 물류거점 조성	2022~2025	200	21	6	6	167

## 참고 문헌

### [보고서]

(2019~2021)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19).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NICE평가정보

2018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 보고서. (2018).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9.1.1.). 문화체육관광부

2019~20 소셜빅데이터 활용 국내여행 트렌드 보고서. (2019.12.2.). 한국관광공사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029). 기획재정부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9).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9). 농림축산식품부

2020 대한민국재정. (2020). 국회예산정책처

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2020). 관계부처 합동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 행정안전부

2020년 시정계획. (2020). 김제시

2030 남원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5). 남원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안). (2021), 새만금개발청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입지 공급 방안. (2017). 국토연구원

관광특구 지정 현황,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0~2020), (2000). 국토해양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8). 보건복지부

국민해외여행 동향 분석.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2014.6). 국토교통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 (2018). 농림축산식품부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018). 지역발전위원회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2014). 국토교통부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용역. (2015). 새만금개발청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 (2016).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3차 수정계획. (2016). 국토교통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0).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완주군 중심도시 발전전략 연구. (2018). 완주군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연구. (2017). 임실군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 (2015), 전라북도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8.12). 전라북도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대응전략. (2020).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농생명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2016). 전라북도

전라북도 농촌과소화정책지도제작 연구용역. (2018). 전북연구원

## 참고 문헌

- 전라북도 대기보전 중기종합대책. (2007). 전북발전연구원
- 전라북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2019). 전라북도
- 전라북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2017). 전라북도
- 전라북도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2020). 전라북도
-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17~2021). (2016). 전라북도
-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 (2021). 전라북도
- 전북 수급자 data 통합분석. (2016). 사회보장정보원
-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2018). 전북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
- 정읍시 법정문화도시 기본계획. (201). 정읍시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 (2019.10). 관계부처합동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 (2019). 해양수산부
- 제2차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020). 전라북도
-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 (2020).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산림청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 (2018). 농림축산식품부
-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00~2020). (2000). 전라북도
-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2013). 전라북도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제4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2020). 보건복지부
- 제4차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 (2018). 전라북도
-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20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2020). 관계부처합동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20). 대한민국정부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2018.1). 산림청
- 제6차 지역산림계획(2018~2036). (2017). 전라북도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19). 산업통상자원
-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2020.4).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의 재정적 함의. (2019). 국회예산정책처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 행정자치부
-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반도 기후변화 보고서. (2020). 기상청



## 참고 문헌

### [사이트]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know.tour.go.kr/>)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main/?v=1653626367817>)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군산지방해양수산청(<http://gunsan.mof.go.kr/index.do>)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  
도로 및 보수현황시스템(<http://www.rsis.kr:5200/>)  
도시계획현황통계(<https://www.eum.go.kr/web/cp/st/stUpisStatDet.jsp>)  
벤처인 통계자료([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발시스템(<https://opendata.hira.or.kr/>)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s://www.jeonbuk.go.kr/>)  
전주시홈페이지(<https://www.jeonju.go.kr>)  
정읍시 홈페이지(<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  
지방재정 365(<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항공통계(<https://www.airport.co.kr>)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http://www.keep.go.kr))

###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2019 Fintech Trends To Watch. (2019). CBNSIGHTS.  
김재구 외. 2단계 새만금사업 추진과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2020). 전북연구원  
변필성 외.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확정 연구. (2020). 국토연구원  
심재현 외. 미래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 정책 추진방안 연구.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병록 외.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성과 확대방안. (2020). 전북연구원  
유태현·임상수,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기반확충 실행방안.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8.08.13.). 한국고용정보원  
이성재.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5축 특화전략 구상. (2020). 전북연구원  
이용우 외. 미래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2016). 국토연구원  
이향구 외. 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018). 산업연구원  
임은선 외.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2018).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지인배 외.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영모. 농촌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청년 일자리 정책방안.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영모.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2021). 전북연구원  
황원경 외. 2018반려동물보고서-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2018).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참여연구진

부 문		부문별 참여 연구진
연구 총 괄		김재구 연구위원, 장성화 연구위원
도약하는 지역발전과 미래가치 창출	1. 상생도약과 균형발전	이성재 연구위원
	2. 전북형 스마트시티 조성	
	3.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김재구 연구위원
	4. 생태문명사회 전환기반 구축	황영모 연구위원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행복 전북 구현	1. 기후변화시대 유연한 대응태세 확립	김보국 선임연구위원
	2. 지속가능한 전북 환경기반 조성	
	3.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전북	김재구 연구위원
	4. 지역간 균형적인 복지제공기반 구축	이중섭 연구위원
	5.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안전망 확보	유승희 교수(전주비전대)
상생형 도농융합과 농산어촌 활성화	1. 도농융합 상생, 의미와 전략	황영모 연구위원
	2. 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진화와 혁신	
	3. 농산어촌 지역순환경제 구축	
	4. 지역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육성	이중섭 연구위원
	5. 농산어촌 지역생활 돌봄체계 강화	
미래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1. 지속가능한 삼각농정 역량강화	배균기 연구위원, 나정호 연구위원
	2. 글로벌 농식품 융복합 산업기반 강화	
	3. 미래 농산업 스마트 혁신거점 구축	배균기 연구위원
산업생태계 개편을 통한 新성장 동력산업 육성	1.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그린뉴딜 추진	김시백 연구위원
	2. 글로벌 자산운용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뉴딜 육성기반 구축	
스마트 산업기반 구축과 주력산업 고도화	1.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	이지훈 연구위원
	2. 매력적 산업생태 공간 구축	
	3.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김시백 연구위원, 이지훈 연구위원
공생과 혁신을 통한 고품격 여행체험 1번지 육성	1. 공생과 혁신의 지역문화	장세길 연구위원
	2. 모두가 함께하는 고품격 여행체험 1번지 육성	김형오 연구위원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SOC 대동맥 완성	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국2·전북1시간 도로인프라 구축	김상엽 연구위원
	2. 지역개발 여건 혁신을 위한 교통연계체계 구축	
	3. 시스템 혁신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복	나정호 연구위원
	4. 항만·물류산업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집행·관리	1. 행·재정 계획	前이동기 선임연구위원
	2. 재정투자계획	
국토계획평가	정책·계획의 환경성 강화	김보국 선임연구위원
설문조사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오보록 연구위원
연구 지원		김귀진 전문연구원, 박세현 전문연구원, 조하진 전문연구원, 前김도연 전문연구원, 前장재협 전문연구원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

발행일 : 2022년 5월

인쇄일 : 2022년 5월

발행인 : 전라북도지사

발행처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